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568-12

통계승인번호 제11732호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정책보고서 2014-73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김성희 · 이연희 · 황주희 · 오미애 · 이민경 · 이난희
강동욱 · 권선진 · 오혜경 · 윤상용 · 이선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이연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전문원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강동욱 한국재활복지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권선진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오혜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 문 위 원

김완호 국립재활원 뇌신경재활과
박성희 순천향대학교 안과
박철원 한양대학교 이비인후과
신형익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이태원 경희대학교 신장학과
최병휘 중앙대용산병원 호흡기내과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은숙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임명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정시영 국민연금공단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송남영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원종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현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황정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남 민 서울시은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동우 한별정신병원 원장
조진선 한림의대 비뇨기과
최승민 국립의료원 심혈관센터
홍인표 국립의료원 성형외과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은령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진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김정국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임성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김권일 한국체육과학연구원
김태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유명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이진아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은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최영광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주관 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성 희

발간사

인구 고령화, 각종 사고 및 약물남용 등 다양한 장애발생 위험요인의 증가에 의해 장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개념의 의료적 모델개념에서 사회적 모델개념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인식이 변화되어 장애인구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실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추정장애인구는 2000년 약 1,449,496명이던 것이 2014년 2,726,910명으로 나타나 2000년 이후 장애인구가 1,277,414명 증가하였다.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복지 수요가 새로이 발생하고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전 생애주기, 그리고 보건, 교육, 취업,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각각 차별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구의 증가 및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근 '장애인연금제도'(2011), '장애인활동지원법'(2011),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2013)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적 노력을 하여 왔다.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03∽'17)에서 표명하였듯이 장애인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강화 및 문화·체육향유 확대, 장애인의 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목표로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생활 도입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 및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관련 제도 및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실태와 이에 근거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전통적인 욕구 이외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등 장애인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대상인 장애인의 장애특성,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의 생활실태, 그리고 복지욕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1990년 법적 근거하에 제 1차 장애인 실태조사가 실시된 이후 2011년까지 6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2014년 실시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는 7번째 실태조사에 해당된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애출현율 통계 지표를 생산

할 뿐 아니라, 전국 장애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장애인의 다양한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기초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의 도입 및 관심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 문화·예술활동, 재난관리, 그리고 장애인복지제도 및 서비스 변화 내용을 반영하여 조사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장애출현율을 제시하여 과거 장애출현율과 종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보건 및 교육 특성, 경제적 특성,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제시하므로서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김성희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이연희 책임전문원, 황주희 부연구위원, 오미애 부연구위원, 이민경 전문연구원, 이난희 전문연구원, 강동욱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교수, 권선진 평택대학교 교수, 오혜경 가톨릭대학교 교수,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 이선우 인제대학교 교수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연구진들은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준 보건복지부 최종균 장애인정책국장, 양종수 장애인정책과장, 이영재 서기관, 황지영 주무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조사영역별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해주신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신 전문의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응답자와 3개월 동안 실제 현지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지도원 및 조사원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읽고 세심한 검토를 해 준 본 원의 선우덕 연구위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및 오류 점검 등의 자료처리를 도와준 본 연구원의 사회조사센터에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목 차

요 약 ····· 1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조사의 배경 ····· 29

제2절 조사의 목적 ····· 31

제3절 조사의 설계 ····· 31

제4절 보고서의 구성 ····· 52

제2장 표본 설계 ····· 53

제1절 표본 추출 ····· 55

제2절 가중치 조정 및 추정산식 ····· 60

제3장 조사표 개발 및 조사의 실제 ····· 65

제1절 조사표 개발 ····· 67

제2절 조사표의 구성 및 내용 ····· 69

제3절 조사의 실제 ····· 76

제4절 현지 조사 ····· 81

제5절 자료의 처리 ····· 89

제4장 장애의 범위와 정의 ····· 91

제1절 장애의 범위 ····· 93

제2절 장애의 정의 및 분류 ····· 95

제3절 장애원인 분류 ····· 105

제5장 조사 결과 I : 장애 출현율 및 장애 인구수 ····· 107

제1절 장애인구의 추정 ····· 109

제2절 장애인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 119

제6장 조사 결과II: 장애 유형별 특성 및 현황 ····· 125

제1절 지체장애 ····· 127

제2절 뇌병변장애 ····· 134

제3절 시각장애 ····· 142

제4절 청각장애 ····· 149

제5절 언어장애 ····· 155

제6절 지적장애 ····· 160

제7절 자폐성장애 ····· 165

제8절 정신장애 ····· 169

제9절 신장장애 ····· 174

제10절 심장장애 ····· 179

제11절 호흡기장애 ····· 184

제12절 간장애 ····· 190

제13절 안면장애 ····· 194

제14절 장루·요루장애 ····· 198

제15절 뇌전증(간질)장애 ····· 202

제7장 조사 결과III: 재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 207

제1절 보건의료·건강 ····· 209

제2절 일상생활 지원 ····· 252

제3절 장애인보조기구 ····· 262

제4절 교육 ····· 276

제5절 취업 및 직업생활 ····· 291
제6절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 307
제7절 결혼생활·여성장애인 ····· 320
제8절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 345
제9절 주거 ····· 365
제10절 복지서비스 ····· 383
제11절 경제상태 ····· 395

제8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 405
제1절 보건의료·건강 ····· 407
제2절 일상생활 지원 ····· 408
제3절 장애인보조기구 ····· 409
제4절 교육 ····· 410
제5절 취업 및 직업생활 ····· 412
제6절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 414
제7절 결혼생활·여성장애인 ····· 415
제8절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 416
제9절 주거 ····· 418
제10절 복지서비스 ····· 420
제11절 경제상태 ····· 421

참고문헌 ····· 423

부 록 ····· **427**

[부록 1] 조사 지역 ····· 427

[부록 2] 장애 유형별 장애 출현율 ····· 431

[부록 3] 재가장애인의 일반 특성 ····· 439

[부록 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조사표 ····· 599

표 목차

〈표 1-3- 1〉장애인실태조사 현황 비교 ····· 32
〈표 2-1- 1〉 연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본규모 ····· 56
〈표 2-1- 2〉 지역별 등록장애인 규모 ····· 57
〈표 2-1- 3〉 층별 표본가구수 및 조사구수 ····· 59
〈표 2-1- 4〉 지역별 표본가구수 및 조사구수 ····· 59
〈표 2-2- 1〉 층별 가구 가중치 분포 ····· 61
〈표 2-2- 2〉 장애유형별 추정장애인수 ····· 62
〈표 3-2- 1〉장애 유형별 특성 조사항목의 구성 ····· 71
〈표 3-2- 2〉 장애공통 조사항목의 구성 ····· 75
〈표 3-3- 1〉장애 특성에 대한 조사원 교육 실시 외부강사 명단 ····· 81
〈표 3-4- 1〉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완료율 ····· 88
〈표 3-4- 2〉 심층면접조사 응답 유형 ····· 88
〈표 4-1-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 94
〈표 5-1- 1〉 2014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 109
〈표 5-1- 2〉 장애인 출현율의 변화추이 ····· 110
〈표 5-1- 3〉 성별·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 111
〈표 5-1- 4〉 성별·연령별 시설장애인 구성비 ····· 112
〈표 5-1- 5〉 주된 장애유형별·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 114
〈표 5-1- 6〉 주된 장애 유형별·성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 116
〈표 5-1- 7〉 장애유형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및 추정 장애건수 비교 ····· 117
〈표 5-1- 8〉 중복장애의 구성 ····· 118
〈표 5-2- 1〉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세대구성 ····· 120
〈표 5-2- 2〉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가구규모 ····· 121
〈표 5-2- 3〉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 122
〈표 5-2- 4〉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 ····· 122
〈표 5-2- 5〉 장애인 가구의 주택형태 ····· 123
〈표 5-2- 6〉 장애에 대한 차별인식정도 ····· 124
〈표 5-2- 7〉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정도 ····· 124
〈표 6-1- 1〉 지체장애의 연령분포 ····· 128
〈표 6-1- 2〉 지체장애의 장애부위 ····· 129

〈표 6-1- 3〉 지체장애의 장애형태(1) ····· 129
〈표 6-1- 4〉 지체장애의 장애형태(2): 손상부위별 ····· 130
〈표 6-1- 5〉 지체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131
〈표 6-1- 6〉 지체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131
〈표 6-1- 7〉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132
〈표 6-1- 8〉 지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133
〈표 6-1- 9〉 지체장애의 주된 진단명 ····· 134
〈표 6-2- 1〉 뇌병변장애의 연령 분포 ····· 135
〈표 6-2- 2〉 뇌병변장애의 장애부위 ····· 136
〈표 6-2- 3〉 뇌성마비의 동반증상 ····· 137
〈표 6-2- 4〉 뇌성마비의 동반장애 ····· 137
〈표 6-2- 5〉 뇌병변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138
〈표 6-2- 6〉 뇌병변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138
〈표 6-2- 7〉 뇌병변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139
〈표 6-2- 8〉 뇌병변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140
〈표 6-2- 9〉 뇌병변장애의 주된 진단명: 연령별 ····· 141
〈표 6-2-10〉 뇌성마비장애의 출생 장소 ····· 141
〈표 6-2-11〉 뇌성마비장애의 출산방법 ····· 142
〈표 6-3- 1〉 성별·연령별 시각장애 분포(출현율대체) ····· 143
〈표 6-3- 2〉 시각장애 형태 ····· 143
〈표 6-3- 3〉 시각장애의 시력인지 여부 ····· 144
〈표 6-3- 4〉 시각장애의 점자해독 여부 ····· 144
〈표 6-3- 5〉 시각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145
〈표 6-3- 6〉 시각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146
〈표 6-3- 7〉 시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147
〈표 6-3- 8〉 시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148
〈표 6-4- 1〉 성별·연령별 청각장애인 분포 ····· 149
〈표 6-4- 2〉 청각장애 형태 ····· 150
〈표 6-4- 3〉 보청기 사용 여부 ····· 150
〈표 6-4- 4〉 인공와우 수술 여부 ····· 151
〈표 6-4- 5〉 청각장애의 수화가능 여부 ····· 151

〈표 6-4- 6〉 청각장애의 주 의사소통방법 ····· 152
〈표 6-4- 7〉 청각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152
〈표 6-4- 8〉 청각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153
〈표 6-4- 9〉 청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153
〈표 6-4-10〉 청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154
〈표 6-5- 1〉 성별·연령별 언어장애 출현율 ····· 155
〈표 6-5- 2〉 언어장애의 장애형태 ····· 156
〈표 6-5- 3〉 언어장애의 수화가능 여부 ····· 156
〈표 6-5- 4〉 언어장애의 주 의사소통방법 ····· 157
〈표 6-5- 5〉 언어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158
〈표 6-5- 6〉 언어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158
〈표 6-5- 7〉 언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159
〈표 6-5- 8〉 언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160
〈표 6-6- 1〉 성별·연령별 지적장애 출현율 ····· 161
〈표 6-6- 2〉 지적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162
〈표 6-6- 3〉 지적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162
〈표 6-6- 4〉 지적장애의 의사소통 수행능력 ····· 163
〈표 6-6- 5〉 지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164
〈표 6-6- 6〉 지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165
〈표 6-7- 1〉 성별·연령별 자폐성장애 출현율 ····· 166
〈표 6-7- 2〉 자폐성장애의 지적장애 또는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 167
〈표 6-7- 3〉 자폐성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167
〈표 6-7- 4〉 자폐성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168
〈표 6-6- 5〉 자폐성장애의 의사소통 수행능력 ····· 168
〈표 6-7- 6〉 자폐성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169
〈표 6-7- 7〉 자폐성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169
〈표 6-8- 1〉 성별·연령별 정신장애 출현율 ····· 170
〈표 6-8- 2〉 정신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171
〈표 6-8- 3〉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171
〈표 6-8- 4〉 정신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172
〈표 6-8- 5〉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173

〈표 6- 8- 6〉 정신장애의 주된 질환명 ····· 173
〈표 6- 9- 1〉 성별·연령별 신장장애 출현율 ····· 174
〈표 6- 9- 2〉 신장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175
〈표 6- 9- 3〉 신장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175
〈표 6- 9- 4〉 신장장애의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 176
〈표 6- 9- 5〉 신장장애의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시기 ····· 176
〈표 6- 9- 6〉 신장장애의 신장이식 여부 ····· 177
〈표 6- 9- 7〉 신장장애의 신장이식 시기 ····· 177
〈표 6- 9- 8〉 신장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178
〈표 6- 9- 9〉 신장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179
〈표 6-10- 1〉 성별·연령별 심장장애 출현율 ····· 180
〈표 6-10- 2〉 심장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180
〈표 6-10- 3〉 심장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181
〈표 6-10- 4〉 심장장애의 심장이식 여부 ····· 181
〈표 6-10- 5〉 심장장애의 심장이식 시기 ····· 182
〈표 6-10- 6〉 심장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182
〈표 6-10- 7〉 심장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183
〈표 6-11- 1〉 성별·연령별 호흡기장애 출현율 ····· 184
〈표 6-11- 2〉 호흡기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185
〈표 6-11- 3〉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185
〈표 6-11- 4〉 산소치료 처방 사용 여부 ····· 186
〈표 6-11- 5〉 하루 평균 산소치료 사용시간 ····· 186
〈표 6-11- 6〉 가정에서의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 186
〈표 6-11- 7〉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사용전과 후 삶의 질 변화정도 ····· 187
〈표 6-11- 8〉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사용시 가장 어려운 점 ····· 187
〈표 6-11- 9〉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사용 중 중단 이유 ····· 188
〈표 6-11-10〉 호흡기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188
〈표 6-11-11〉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189
〈표 6-12- 1〉 성별·연령별 간장애 출현율 ····· 190
〈표 6-12- 2〉 간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191
〈표 6-12- 3〉 간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191

〈표 6-12- 4〉 간장애의 간이식 여부 ····· 192
〈표 6-12- 5〉 간장애의 간이식 시기 ····· 192
〈표 6-12- 6〉 간장애의 장애발생 원인-성별 ····· 193
〈표 6-12- 7〉 간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성별 ····· 194
〈표 6-13- 1〉 성별·연령별 안면장애 출현율 ····· 195
〈표 6-13- 2〉 안면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196
〈표 6-13- 3〉 안면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196
〈표 6-13- 4〉 안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197
〈표 6-13- 5〉 안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198
〈표 6-14- 1〉 성별·연령별 장루·요루장애 출현율 ····· 199
〈표 6-14- 2〉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부위 ····· 200
〈표 6-14- 3〉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200
〈표 6-14- 4〉 장루·요루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201
〈표 6-14- 5〉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201
〈표 6-14- 6〉 장루·요루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202
〈표 6-15- 1〉 성별·연령별 뇌전증장애 연령 분포 ····· 203
〈표 6-15- 2〉 뇌전증(간질) 장애의 장애발생시기 ····· 204
〈표 6-15- 3〉 뇌전증(간질)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 204
〈표 6-15- 4〉 뇌전증(간질) 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205
〈표 6-15- 5〉 뇌전증(간질) 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206
〈표 7- 1- 1〉 주된 장애 ····· 209
〈표 7- 1- 2〉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 210
〈표 7- 1- 3〉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 받고 있는지 여부 ····· 210
〈표 7- 1- 4〉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 곳 ····· 211
〈표 7- 1- 5〉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는 목적 ····· 211
〈표 7- 1- 6〉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 212
〈표 7- 1- 7〉 평소 본인 건강 상태 ····· 213
〈표 7- 1- 8〉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여부 ····· 214
〈표 7- 1- 9〉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 내용 ····· 214
〈표 7- 1-10〉 건강검진 받지 못한 이유 ····· 215
〈표 7- 1-11〉 최근 2년간 암검진 여부 ····· 215

〈표 7-1-12〉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 ····· 216
〈표 7-1-13〉 최근 1년간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예방접종 여부 ····· 216
〈표 7-1-14〉 최근 1년간 입원 경험 여부 ····· 217
〈표 7-1-15〉 최근 2주간 병의원(치과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 받은 경험 여부 ····· 217
〈표 7-1-16〉 (장애발생 이후) 최근 1년간 병의원, 응급실 등에서 치료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 발생 여부218
〈표 7-1-17〉 (장애발생 이후) 사고 및 중독 발생한 원인 ····· 218
〈표 7-1-18〉 가장 최근에 치료 받은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진료의 질 등) 만족도 ····· 219
〈표 7-1-19〉 가장 최근 이용한 병의원의 의료진(의사, 간호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 여부 ····· 220
〈표 7-1-20〉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 221
〈표 7-1-21〉 만성질환 현황 ····· 221
〈표 7-1-22〉 (고혈압인 경우) 혈압조절을 위해 현재 혈압약 복용 여부 ····· 223
〈표 7-1-23〉 (고혈압인 경우) 혈압조절을 위해 현재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 복용 일수 ····· 224
〈표 7-1-24〉 (골관절염인 경우) 약물복용 상관없이 관절 통증의 정도 ····· 224
〈표 7-1-25〉 (우울증인 경우) 현재 우울증 치료 여부 ····· 225
〈표 7-1-26〉 (당뇨병인 경우) 혈당 관리하기 위해 치료 받는지 여부 ····· 225
〈표 7-1-27〉 (당뇨병인 경우) 혈당 관리하기 위해 받고 있는 치료방법 ····· 226
〈표 7-1-28〉 희귀 난치성 질환 갖고 있는지 여부 ····· 226
〈표 7-1-29〉 희귀 난치성 질환 등록 여부 ····· 227
〈표 7-1-30〉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 유무 (치과 제외) ····· 227
〈표 7-1-31〉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치과 제외) ····· 228
〈표 7-1-32〉 최근 1년간 본인이 치과진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진료 받지 못한 적 유무 ····· 228
〈표 7-1-33〉 본인이 원하는 때 치과에 가지 못한 이유 ····· 229
〈표 7-1-34〉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여부 ····· 230
〈표 7-1-35〉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 시간 ····· 231
〈표 7-1-36〉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232
〈표 7-1-37〉 재활치료 바우처 여부 ····· 233
〈표 7-1-38〉 바우처 재원 인지 여부 ····· 234
〈표 7-1-39〉 바우처 제공기관 ····· 235
〈표 7-1-40〉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 236
〈표 7-1-41〉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혹은 보건의료기관(1순위) ····· 237
〈표 7-1-42〉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 ····· 238

〈표 7-1-43〉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시도 여부 ····· 238
〈표 7-1-44〉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239
〈표 7-1-45〉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 240
〈표 7-1-46〉 지난 1년간 정기적인 운동 여부 ····· 240
〈표 7-1-47〉 지난 1년간 운동 횟수 ····· 241
〈표 7-1-48〉 지난 1년간 매회 당 운동 시간(분) ····· 241
〈표 7-1-49〉 주로 운동하는 장소 ····· 242
〈표 7-1-50〉 주로 참여하는 운동 종목 ····· 243
〈표 7-1-51〉 현재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243
〈표 7-1-52〉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지 여부 ····· 244
〈표 7-1-53〉 어제 하루 동안 칫솔질(잇솔질)한 횟수 ····· 244
〈표 7-1-54〉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 문제로 음식 씹는데 불편감 느끼는 정도 ····· 245
〈표 7-1-55〉 지난 1년간 키나 몸무게 측정 경험 ····· 245
〈표 7-1-56〉 키나 몸무게 가장 최근 측정 시기 ····· 246
〈표 7-1-57〉 본인 체형에 대한 생각 ····· 246
〈표 7-1-58〉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 247
〈표 7-1-59〉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 지장 줄 정도의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 247
〈표 7-1-60〉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는지 여부 ····· 248
〈표 7-1-61〉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 경험 여부 ····· 248
〈표 7-1-62〉 거주지역 내 건강관련 서비스 받은 경험 유무 ····· 249
〈표 7-1-63〉 거주 지역 내에서 경험한 건강관련 서비스 ····· 250
〈표 7-1-64〉 건강에 관한 정보 주로 얻는 경로 ····· 251
〈표 7-1-65〉 장애인이 운동(체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 ····· 251
〈표 7-1-66〉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 위해 정부(또는 사회)가 더 강화해야 할 것 ····· 252
〈표 7-2- 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253
〈표 7-2-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255
〈표 7-2- 3〉 장애특성 고려 영역 ····· 257
〈표 7-2- 4〉 사회환경 고려 영역(장애유형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 ····· 258
〈표 7-2- 5〉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 259
〈표 7-2- 6〉 도와주는 사람 여부 ····· 259
〈표 7-2- 7〉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 260

〈표 7-2- 8〉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 ····· 260
〈표 7-2- 9〉 동거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움 필요 여부 ····· 261
〈표 7-2-10〉 다른 사람 도움의 충분 정도 ····· 261
〈표 7-2-11〉 도와줄 외부인 활용 의사 ····· 262
〈표 7-3- 1〉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264
〈표 7-3- 2〉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266
〈표 7-3- 3〉 필요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 ····· 267
〈표 7-3- 4〉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외부 지원 경험 여부 ····· 268
〈표 7-3- 5〉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 ····· 268
〈표 7-3- 6〉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형태 ····· 269
〈표 7-3- 7〉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 수준의 충분도 ····· 270
〈표 7-3- 8〉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경로 ····· 271
〈표 7-3- 9〉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271
〈표 7-3-10〉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도 ····· 272
〈표 7-3-11〉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서 개선할 점 ····· 272
〈표 7-3-12〉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 273
〈표 7-3-13〉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 274
〈표 7-4- 1〉 교육정도 ····· 276
〈표 7-4- 2〉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초등학교 ····· 277
〈표 7-4- 3〉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중학교 ····· 277
〈표 7-4- 4〉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고등학교 ····· 278
〈표 7-4- 5〉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 279
〈표 7-4- 6〉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 ····· 279
〈표 7-4- 7〉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 ····· 280
〈표 7-4- 8〉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 ····· 280
〈표 7-4- 9〉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 281
〈표 7-4-10〉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 ····· 281
〈표 7-4-11〉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형태 ····· 282
〈표 7-4-12〉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 ····· 282
〈표 7-4-13〉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월 평균 비용 ····· 283
〈표 7-4-14〉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 ····· 283

〈표 7-4-15〉 현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 ····· 284
〈표 7-4-16〉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 적응정도 ····· 284
〈표 7-4-17〉 보육시설·유치원·학교생활의 문제점(1순위) ····· 285
〈표 7-4-18〉 보육시설·유치원·학교까지의 통학방법 ····· 285
〈표 7-4-19〉 방과 후의 시간사용 ····· 286
〈표 7-4-20〉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 287
〈표 7-4-21〉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장애자녀를 위한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 의향 ····· 287
〈표 7-4-2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288
〈표 7-4-23〉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 ····· 289
〈표 7-4-24〉 지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인부담금 ····· 290
〈표 7-4-25〉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영역 ····· 290
〈표 7-4-26〉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291
〈표 7-5- 1〉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 292
〈표 7-5- 2〉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 292
〈표 7-5- 3〉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 293
〈표 7-5- 4〉 장애정도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 293
〈표 7-5- 5〉 현재 일하고 있는 곳 ····· 294
〈표 7-5- 6〉 취업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평균 근속기간 ····· 295
〈표 7-5- 7〉 지난 주 일한 총 시간(전체 인구 비교) ····· 295
〈표 7-5- 8〉 직장(일)에서의 지위 ····· 296
〈표 7-5- 9〉 현재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 ····· 297
〈표 7-5-10〉 현재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 297
〈표 7-5-11〉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는지 여부 ····· 298
〈표 7-5-12〉 직장(일)을 구한 주된 방법 ····· 299
〈표 7-5-13〉 등록한 공공 직업알선기관(공공 직업알선기관 통해 직장 구한 경우) ····· 299
〈표 7-5-14〉 지난 4주 내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주된 이유 ····· 300
〈표 7-5-15〉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경우)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 301
〈표 7-5-16〉 원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 ····· 302
〈표 7-5-17〉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업종 ····· 303
〈표 7-5-18〉 희망 일자리 업무(직무) ····· 304
〈표 7-5-19〉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 경험 여부 ····· 304

〈표 7-5-20〉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 305
〈표 7-5-21〉 희망 직업훈련 분야 ····· 306
〈표 7-5-22〉 국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일 ····· 307
〈표 7-6- 1〉 혼자 외출 여부 ····· 307
〈표 7-6- 2〉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 308
〈표 7-6- 3〉 외출의 주된 목적 ····· 308
〈표 7-6- 4〉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 309
〈표 7-6- 5〉 집밖 활동시 불편 정도 ····· 310
〈표 7-6- 6〉 집밖 활동시 불편 이유 ····· 310
〈표 7-6- 7〉 주요 교통수단 ····· 311
〈표 7-6- 8〉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 ····· 311
〈표 7-6- 9〉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 ····· 312
〈표 7-6-10〉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313
〈표 7-6-11〉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314
〈표 7-6-12〉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주된 이유 ····· 314
〈표 7-6-13〉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 316
〈표 7-6-14〉 예술행사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얻는 방법 ····· 317
〈표 7-6-15〉 예술행사 관람시 가장 중요한 기준 ····· 318
〈표 7-6-16〉 예술행사 관람시 가장 큰 어려움 ····· 319
〈표 7-6-17〉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여부 ····· 319
〈표 7-6-18〉 투표하지 않은 이유 ····· 320
〈표 7-7- 1〉 결혼상태 ····· 320
〈표 7-7- 2〉 결혼 시 연령 ····· 321
〈표 7-7- 3〉 결혼 시 본인의 장애 여부 ····· 321
〈표 7-7- 4〉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 여부 ····· 322
〈표 7-7- 5〉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유형 ····· 322
〈표 7-7- 6〉 배우자의 장애등급 ····· 323
〈표 7-7- 7〉 장애유형별 장애인 출생지 ····· 324
〈표 7-7- 8〉 장애유형별 배우자 출생지 ····· 324
〈표 7-7- 9〉 배우자 국내·외 출생지 ····· 325
〈표 7-7-10〉 결혼하지 않은 이유 ····· 326

〈표 7-7-11〉 자녀여부 ····· 326
〈표 7-7-12〉 자녀의 수 ····· 327
〈표 7-7-13〉 자녀의 장애 여부 ····· 327
〈표 7-7-14〉 제1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 328
〈표 7-7-15〉 제1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 329
〈표 7-7-16〉 제1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 329
〈표 7-7-17〉 제1 장애자녀의 연령 ····· 329
〈표 7-7-18〉 제2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 330
〈표 7-7-19〉 제2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 330
〈표 7-7-20〉 제2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 331
〈표 7-7-21〉 제2 장애자녀의 연령 ····· 331
〈표 7-7-22〉 제3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 332
〈표 7-7-23〉 제3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 332
〈표 7-7-24〉 제3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 332
〈표 7-7-25〉 제3 장애자녀의 연령 ····· 333
〈표 7-7-26〉 자녀가 없는 이유 ····· 333
〈표 7-7-27〉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장 여부 ····· 334
〈표 7-7-28〉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 ····· 334
〈표 7-7-29〉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교육시 애로사항 ····· 335
〈표 7-7-30〉 이혼경험 시 이혼 사유 ····· 336
〈표 7-7-31〉 이혼하였다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주 양육자 ····· 337
〈표 7-7-32〉 마지막(최근) 임신 시 본인의 장애 여부 ····· 337
〈표 7-7-33〉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1순위) ····· 338
〈표 7-7-34〉 유산 경험 여부 ····· 339
〈표 7-7-35〉 유산 이유 ····· 339
〈표 7-7-36〉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여부 ····· 340
〈표 7-7-37〉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연령 ····· 340
〈표 7-7-38〉 마지막 임신으로 출산 시 출산방법 ····· 341
〈표 7-7-39〉 마지막 임신시 비출산 이유 ····· 341
〈표 7-7-40〉 인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 341
〈표 7-7-41〉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 342

〈표 7-7-42〉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 343
〈표 7-7-43〉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 343
〈표 7-7-44〉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 ····· 345
〈표 7-8- 1〉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 346
〈표 6-8- 2〉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도 ····· 346
〈표 7-8- 3〉 거주지(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 ····· 347
〈표 7-8- 4〉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 347
〈표 7-8- 5〉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 348
〈표 7-8- 6〉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348
〈표 7-8- 7〉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 349
〈표 7-8- 8〉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 349
〈표 7-8- 9〉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 350
〈표 7-8-10〉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 ····· 350
〈표 7-8-11〉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시 주 상담자 ····· 351
〈표 7-8-12〉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 ····· 351
〈표 7-8-13〉 가족 내 차별·폭력의 유형 ····· 352
〈표 7-8-14〉 가족 내 차별·폭력의 주가해자 ····· 352
〈표 7-8-1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 353
〈표 7-8-1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시기 ····· 353
〈표 7-8-1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가해자 ····· 354
〈표 7-8-18〉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 ····· 354
〈표 7-8-19〉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주 상담자 ····· 355
〈표 7-8-20〉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상담하지 못한 이유 ····· 356
〈표 7-8-21〉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자 또는 시설필요 여부 ····· 356
〈표 7-8-22〉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유치원(보육시설) ····· 357
〈표 7-8-23〉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초등학교 ····· 357
〈표 7-8-24〉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중학교 ····· 357
〈표 7-8-25〉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고등학교 ····· 358
〈표 7-8-26〉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대학교 ····· 358
〈표 7-8-27〉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교사로부터 ····· 359
〈표 7-8-28〉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 359

〈표 7-8-29〉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 359
〈표 7-8-30〉 사회적 차별 정도: 결혼 ····· 360
〈표 7-8-31〉 사회적 차별 정도: 취업 ····· 360
〈표 7-8-32〉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소득(임금) ····· 361
〈표 7-8-33〉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 361
〈표 7-8-34〉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승진 ····· 361
〈표 7-8-35〉 사회적 차별 정도: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 362
〈표 7-8-36〉 사회적 차별 정도: 보험제도상(계약시) ····· 362
〈표 7-8-37〉 사회적 차별 정도: 의료기관 이용시 ····· 363
〈표 7-8-38〉 사회적 차별 정도: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 363
〈표 7-8-39〉 사회적 차별 정도: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 363
〈표 7-8-40〉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 364
〈표 7-8-41〉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 364
〈표 7-8-4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여부 ····· 365
〈표 7-9- 1〉 주거 위치 ····· 366
〈표 7-9- 2〉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 ····· 366
〈표 7-9- 3〉 자가일 경우 살고 있는 집의 금액 ····· 367
〈표 7-9- 4〉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액 ····· 368
〈표 7-9- 5〉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세 ····· 369
〈표 7-9- 6〉 살고 있는 집의 소유주(계약주체) ····· 369
〈표 7-9- 7〉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 양호 ····· 370
〈표 7-9- 8〉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갖춤 ····· 370
〈표 7-9- 9〉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있음 ····· 371
〈표 7-9-10〉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 부터 안전 ····· 371
〈표 7-9-1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재난 발생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 ····· 372
〈표 7-9-12〉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373
〈표 7-9-13〉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375
〈표 7-9-14〉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 379
〈표 7-9-15〉 주택 개조 의사 ····· 379
〈표 7-9-16〉 주택 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1순위) ····· 381
〈표 7-9-17〉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 382

〈표 7- 9-18〉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원하는 삶의 형태 ····· 382
〈표 7-10- 1〉 장애인등록 여부 ····· 383
〈표 7-10- 2〉 장애등급 ····· 383
〈표 7-10- 3〉 장애등록 시기 ····· 384
〈표 7-10- 4〉 장애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 ····· 385
〈표 7-10- 5〉 장애등급 재심사 여부 ····· 385
〈표 7-10- 6〉 장애등급 재심사 사유 ····· 386
〈표 7-10- 7〉 장애등급 재심사 후 등급조정여부 ····· 386
〈표 7-10- 8〉 장애등급 조정 내용 ····· 387
〈표 7-10- 9〉 장애등록 하지 않은 이유 ····· 387
〈표 7-10-10〉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389
〈표 7-10-11〉 장애인복지사업 정보 취득 방법 ····· 390
〈표 7-10-1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392
〈표 7-10-1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393
〈표 7-10-14〉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 394
〈표 7-11- 1〉 주관적 소속 계층 ····· 395
〈표 7-11-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 ····· 396
〈표 7-11- 3〉 지난 1개월 평균 총 가구 수입액 ····· 397
〈표 7-11- 4〉 지난 1개월 평균 장애인 개인 수입액 ····· 398
〈표 7-11- 5〉 가입한 연금 종류 ····· 399
〈표 7-11- 6〉 가구 내 차량소유 여부 ····· 399
〈표 7-11- 7〉 차량 소유: 제1차량 ····· 401
〈표 7-11- 8〉 차량 소유: 제2차량 ····· 402
〈표 7-11- 9〉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 403
〈표 7-11-10〉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 404

부표 목차

〈부표 2-1- 1〉 재가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1
〈부표 2-1- 2〉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연령별 출현율 - 중복장애 포함 ····· 431
〈부표 2-1- 3〉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연령별 출현율 - 주된 장애 ····· 432
〈부표 2-1- 4〉 재가 지체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4
〈부표 2-1- 5〉 재가 뇌병변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4
〈부표 2-1- 6〉 재가 시각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4
〈부표 2-1- 7〉 재가 청각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5
〈부표 2-1- 8〉 재가 언어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5
〈부표 2-1- 9〉 재가 지적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5
〈부표 2-1-10〉 재가 자폐성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6
〈부표 2-1-11〉 재가 정신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6
〈부표 2-1-12〉 재가 신장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6
〈부표 2-1-13〉 재가 심장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7
〈부표 2-1-14〉 재가 호흡기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7
〈부표 2-1-15〉 재가 간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7
〈부표 2-1-16〉 재가 안면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8
〈부표 2-1-17〉 재가 장루·요루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8
〈부표 2-1-18〉 재가 뇌전증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 438
〈부표 3-1- 1〉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 439
〈부표 3-1- 2〉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 439
〈부표 3-1- 3〉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 곳 ····· 439
〈부표 3-1- 4〉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는 목적 ····· 440
〈부표 3-1- 5〉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 440
〈부표 3-1- 6〉 평소 본인 건강 상태 ····· 440
〈부표 3-1- 7〉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 여부 ····· 441
〈부표 3-1- 8〉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 내용 ····· 441
〈부표 3-1- 9〉 건강검진 받지 못한 이유 ····· 441
〈부표 3-1-10〉 최근 2년간 암검진 여부 ····· 442
〈부표 3-1-11〉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 ····· 442
〈부표 3-1-12〉 최근 1년간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예방접종 여부 ····· 442

〈부표 3-1-13〉 최근 1년간 입원 경험 여부 ····· 442
〈부표 3-1-14〉 최근 2주간 병의원(치과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 받은 경험 여부 ····· 443
〈부표 3-1-15〉 (장애발생 이후) 최근 1년간 병의원, 응급실 등에서 치료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 발생 여부 443
〈부표 3-1-16〉 (장애발생 이후) 사고 및 중독 발생한 원인사고나 중독 발생 이유 ····· 443
〈부표 3-1-17〉 가장 최근 치료 받은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진료의 질 등) 만족도 ····· 444
〈부표 3-1-18〉 가장 최근 이용한 병의원의 의료진(의사, 간호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 여부 ····· 444
〈부표 3-1-19〉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 444
〈부표 3-1-20〉 만성질환 현황 ····· 445
〈부표 3-1-21〉 (고혈압인 경우) 혈압조절을 위해 현재 혈압약 복용 여부 ····· 447
〈부표 3-1-22〉 (고혈압인 경우) 혈압조절을 위해 현재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 복용 일수 ····· 447
〈부표 3-1-23〉 (골관절염인 경우) 약물복용 상관없이 관절 통증의 정도 ····· 447
〈부표 3-1-24〉 (우울증인 경우) 현재 우울증 치료 여부 ····· 447
〈부표 3-1-25〉 (당뇨병인 경우) 혈당 관리하기 위해 치료 받는지 여부 ····· 448
〈부표 3-1-26〉 (당뇨병인 경우) 혈당 관리하기 위해 받고 있는 치료방법 ····· 448
〈부표 3-1-27〉 희귀 난치성 질환 갖고 있는지 여부 ····· 448
〈부표 3-1-28〉 희귀 난치성 질환 등록 여부 ····· 449
〈부표 3-1-29〉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 유무 (치과 제외) ····· 449
〈부표 3-1-30〉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치과 제외) ····· 449
〈부표 3-1-31〉 최근 1년간 본인이 치과진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진료 받지 못한 적 유무 ····· 450
〈부표 3-1-32〉 본인이 원하는 때 치과에 가지 못한 이유 ····· 450
〈부표 3-1-33〉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여부 ····· 451
〈부표 3-1-34〉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 시간 ····· 451
〈부표 3-1-35〉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452
〈부표 3-1-36〉 재활치료 바우처 여부 ····· 452
〈부표 3-1-37〉 바우처 재원 인지 여부 ····· 453
〈부표 3-1-38〉 바우처 제공기관 ····· 454
〈부표 3-1-39〉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 455
〈부표 3-1-40〉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혹은 보건의료기관(1순위) ····· 455
〈부표 3-1-41〉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 ····· 456
〈부표 3-1-42〉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시도 여부 ····· 456
〈부표 3-1-43〉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456

〈부표 3-1-44〉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 457
〈부표 3-1-45〉 지난 1년간 정기적인 운동 여부 ····· 457
〈부표 3-1-46〉 지난 1년간 운동 횟수 ····· 457
〈부표 3-1-47〉 지난 1년간 매 회 당 운동 시간 ····· 458
〈부표 3-1-48〉 주로 운동하는 장소 ····· 458
〈부표 3-1-49〉 주로 참여하는 운동 종목(1순위) ····· 459
〈부표 3-1-50〉 운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459
〈부표 3-1-51〉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지 여부 ····· 460
〈부표 3-1-52〉 어제 하루 동안 칫솔질(잇솔질) 횟수 ····· 460
〈부표 3-1-53〉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 문제로 음식 씹는데 불편감 느끼는 정도 ····· 460
〈부표 3-1-54〉 지난 1년간 키나 몸무게 측정 경험 ····· 461
〈부표 3-1-55〉 가장 최근 측정 시기 ····· 461
〈부표 3-1-56〉 본인 체형에 대한 생각 ····· 461
〈부표 3-1-57〉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 ····· 462
〈부표 3-1-58〉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 지장 줄 정도의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 462
〈부표 3-1-59〉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는지 여부 ····· 462
〈부표 3-1-60〉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 경험 여부 ····· 462
〈부표 3-1-61〉 거주지역 내 건강관련 서비스 받은 경험 유무 ····· 463
〈부표 3-1-62〉 거주 지역 내에서 경험한 건강관련 서비스 ····· 463
〈부표 3-6-63〉 건강에 관한 정보 주로 얻는 경로 ····· 464
〈부표 3-6-64〉 장애인이 운동(체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 ····· 464
〈부표 3-1-6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 위해 정부(또는 사회)가 더 강화해야 할 것 ····· 465
〈부표 3-2- 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466
〈부표 3-2-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468
〈부표 3-2- 3〉 장애특성 고려 영역 : 지체·뇌병변·내부장애 ····· 469
〈부표 3-2- 4〉 장애특성 고려 영역 : 청각장애 ····· 469
〈부표 3-2- 5〉 장애특성 고려 영역 : 시각장애 ····· 469
〈부표 3-2- 6〉 장애특성 고려 영역 : 지적·자폐성 장애 ····· 470
〈부표 3-2- 7〉 장애특성 고려 영역 : 정신장애 ····· 470
〈부표 3-2- 8〉 사회환경 고려 영역(장애유형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 ····· 470
〈부표 3-2- 9〉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 471

〈부표 3-2-10〉 도와주는 사람 여부 ····· 471
〈부표 3-2-11〉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 471
〈부표 3-2-12〉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 ····· 472
〈부표 3-2-13〉 동거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움 필요 여부 ····· 472
〈부표 3-2-14〉 다른 사람 도움의 충분 정도 ····· 472
〈부표 3-2-15〉 도와줄 외부인 활용 의사 ····· 472
〈부표 3-3- 1〉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지체 및 뇌병변장애 ····· 473
〈부표 3-3- 2〉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시각장애 ····· 474
〈부표 3-3- 3〉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청각장애 ····· 474
〈부표 3-3- 4〉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언어장애 ····· 475
〈부표 3-3- 5〉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75
〈부표 3-3- 6〉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신장장애 ····· 475
〈부표 3-3- 7〉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호흡기장애 ····· 475
〈부표 3-3- 8〉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안면장애 ····· 476
〈부표 3-3- 9〉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장루·요루장애 ····· 476
〈부표 3-3-10〉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전체 ····· 477
〈부표 3-3-11〉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지체 및 뇌병변장애 ····· 478
〈부표 3-3-12〉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시각장애 ····· 478
〈부표 3-3-13〉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청각장애 ····· 479
〈부표 3-3-14〉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언어장애 ····· 479
〈부표 3-3-15〉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79
〈부표 3-3-16〉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신장장애 ····· 479
〈부표 3-3-17〉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호흡기장애 ····· 480
〈부표 3-3-18〉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안면장애 ····· 480
〈부표 3-3-19〉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장루·요루장애 ····· 480
〈부표 3-3-20〉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전체 ····· 481
〈부표 3-3-21〉 필요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 ····· 482
〈부표 3-3-22〉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외부 지원 경험 여부 ····· 482
〈부표 3-3-23〉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 ····· 483
〈부표 3-3-24〉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형태 ····· 484
〈부표 3-3-25〉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 수준의 충분도 ····· 484

〈부표 3-3-26〉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경로 ····· 484
〈부표 3-3-27〉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485
〈부표 3-3-28〉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도 ····· 485
〈부표 3-3-29〉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서 개선할 점 ····· 485
〈부표 3-3-30〉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 휴대폰 ····· 486
〈부표 3-3-31〉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 스마트폰 ····· 486
〈부표 3-3-32〉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 컴퓨터 ····· 486
〈부표 3-3-33〉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 인터넷 ····· 486
〈부표 3-3-34〉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 휴대폰 ····· 487
〈부표 3-3-35〉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 스마트폰 ····· 487
〈부표 3-3-36〉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 컴퓨터 ····· 488
〈부표 3-3-37〉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 인터넷 ····· 488
〈부표 3-4- 1〉 교육정도 ····· 489
〈부표 3-4- 2〉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초등학교 ····· 489
〈부표 3-4- 3〉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중학교 ····· 490
〈부표 3-4- 4〉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고등학교 ····· 490
〈부표 3-4- 5〉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 491
〈부표 3-4- 6〉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 ····· 491
〈부표 3-4- 7〉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 ····· 492
〈부표 3-4- 8〉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 ····· 492
〈부표 3-4- 9〉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 492
〈부표 3-4-10〉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 ····· 493
〈부표 3-4-11〉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형태 ····· 493
〈부표 3-4-12〉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 ····· 493
〈부표 3-4-13〉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평균 비용 ····· 494
〈부표 3-4-14〉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 ····· 494
〈부표 3-4-15〉 현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 ····· 494
〈부표 3-4-16〉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 적응정도 ····· 495
〈부표 3-4-17〉 보육시설·유치원·학교생활의 문제점(1순위) ····· 495
〈부표 3-4-18〉 보육시설·유치원·학교까지의 통학방법 ····· 496
〈부표 3-4-19〉 방과 후 시간사용 ····· 496

〈부표 3-4-20〉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 497
〈부표 3-4-21〉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장애자녀를 위한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 의향 ····· 497
〈부표 3-4-2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학력보완 교육 ····· 497
〈부표 3-4-2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 498
〈부표 3-4-2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직업능력 향상교육 ····· 498
〈부표 3-4-2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인문교양 교육 ····· 498
〈부표 3-4-26〉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문화·체육·예술 교육 ····· 498
〈부표 3-4-27〉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시민참여 교육 ····· 499
〈부표 3-4-28〉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 학력보완 교육 ····· 499
〈부표 3-4-29〉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 :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 교육 ····· 499
〈부표 3-4-30〉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 : 직업능력 향상교육 ····· 499
〈부표 3-4-31〉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 : 인문교양 교육 ····· 500
〈부표 3-4-32〉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 : 문화체육·예술 교육 ····· 500
〈부표 3-4-33〉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 : 시민참여 교육 ····· 500
〈부표 3-4-34〉 지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인부담금 ····· 500
〈부표 3-4-35〉 향후 참여하고 싶은 영역 ····· 501
〈부표 3-4-36〉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501
〈부표 3-5- 1〉 지난 1주간의 활동 ····· 502
〈부표 3-5- 2〉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근로 또는 무급 근로 ····· 502
〈부표 3-5- 3〉 지난 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무 ····· 502
〈부표 3-5- 4〉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으나 일하지 않은 이유 ····· 503
〈부표 3-5- 5〉 지난주에 직장(일)을 구한 경험 ····· 503
〈부표 3-5- 6〉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한 경험 ····· 503
〈부표 3-5- 7〉 지난주 근로시간 ····· 503
〈부표 3-5- 8〉 현재 일하는 곳 ····· 504
〈부표 3-5- 9〉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임금, 평균 근속기간 ····· 504
〈부표 3-5-10〉 취업자의 지난주 총 일한 시간 ····· 505
〈부표 3-5-11〉 현재 월평균 임금 ····· 505
〈부표 3-5-12〉 직장(일)에서의 지위 ····· 505
〈부표 3-5-13〉 현재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 ····· 506
〈부표 3-5-14〉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 여부 ····· 506

〈부표 3-5-15〉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는지 유무 ····· 507
〈부표 3-5-16〉 직장(일)을 구한 주된 방법 ····· 507
〈부표 3-5-17〉 등록한 공공 직업알선기관(공공 직업알선기관 통해 직장 구한 경우) ····· 508
〈부표 3-5-18〉 지난 4주 내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주된 이유 ····· 509
〈부표 3-5-19〉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경우)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 510
〈부표 3-5-20〉 원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 ····· 510
〈부표 3-5-21〉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업종 ····· 511
〈부표 3-5-22〉 희망 일자리 업무(직무) ····· 512
〈부표 3-5-23〉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 여부 ····· 512
〈부표 3-5-24〉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 513
〈부표 3-5-25〉 희망하는 직업훈련 분야 ····· 513
〈부표 3-5-26〉 국가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514
〈부표 3-6- 1〉 혼자 외출 여부 ····· 515
〈부표 3-6- 2〉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 515
〈부표 3-6- 3〉 외출의 주된 목적 ····· 515
〈부표 3-6- 4〉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 516
〈부표 3-6- 5〉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 ····· 516
〈부표 3-6- 6〉 집밖 활동 시 주된 불편이유 ····· 517
〈부표 3-6- 7〉 주요 교통수단 ····· 517
〈부표 3-6- 8〉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 ····· 518
〈부표 3-6- 9〉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 ····· 518
〈부표 3-6-10〉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519
〈부표 3-6-11〉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520
〈부표 3-6-12〉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 ····· 520
〈부표 3-6-13〉 지난 1년 동안 예술행사 관람 실태 ····· 521
〈부표 3-6-14〉 예술행사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얻는 방법 ····· 522
〈부표 3-6-15〉 예술행사 관람 시 가장 중요한 기준 ····· 523
〈부표 3-6-16〉 예술행사를 관람시 가장 큰 어려움 ····· 523
〈부표 3-6-17〉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여부 ····· 524
〈부표 3-6-18〉 투표하지 않은 이유 ····· 524
〈부표 3-7- 1〉 결혼상태 ····· 525

〈부표 3-7- 2〉 결혼 시 연령 ····· 525
〈부표 3-7- 3〉 결혼 시 본인의 장애 여부 ····· 525
〈부표 3-7- 4〉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 여부 ····· 526
〈부표 3-7- 5〉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유형 ····· 526
〈부표 3-7- 6〉 배우자의 장애등급 ····· 526
〈부표 3-7- 7〉 장애인 국내·외 출생지 여부 ····· 527
〈부표 3-7- 8〉 배우자 국내·외 출생지 여부 ····· 527
〈부표 3-7- 9〉 배우자 출생지 - (장애인 당사자는 대한민국 출생) ····· 528
〈부표 3-7-10〉 배우자 출생지 - (장애인 당사자는 국외 출생) ····· 529
〈부표 3-7-11〉 결혼하지 않은 이유 ····· 530
〈부표 3-7-12〉 자녀여부 ····· 530
〈부표 3-7-13〉 자녀의 수 ····· 530
〈부표 3-7-14〉 장애자녀의 여부 ····· 531
〈부표 3-7-15〉 제1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 531
〈부표 3-7-16〉 제1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 531
〈부표 3-7-17〉 제1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 532
〈부표 3-7-18〉 제1 장애자녀의 연령 ····· 532
〈부표 3-7-19〉 제2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 532
〈부표 3-7-20〉 제2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 533
〈부표 3-7-21〉 제2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 533
〈부표 3-7-22〉 제2 장애자녀의 연령 ····· 533
〈부표 3-7-23〉 제3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 534
〈부표 3-7-24〉 제3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 534
〈부표 3-7-25〉 제3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 534
〈부표 3-7-26〉 제3 장애자녀의 연령 ····· 535
〈부표 3-7-27〉 자녀가 없는 이유 ····· 535
〈부표 3-7-28〉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장 여부 ····· 535
〈부표 3-7-29〉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 ····· 536
〈부표 3-7-30〉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교육시 애로사항 ····· 536
〈부표 3-7-31〉 이혼경험시 이혼 사유 ····· 537
〈부표 3-7-32〉 이혼하였다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주 양육자 ····· 537

〈부표 3-7-33〉 마지막(최근) 임신시 본인의 장애 여부 ····· 537
〈부표 3-7-34〉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1순위) ····· 538
〈부표 3-7-35〉 유산 경험 여부 ····· 538
〈부표 3-7-36〉 유산 이유 ····· 539
〈부표 3-7-37〉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여부 ····· 539
〈부표 3-7-38〉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연령 ····· 539
〈부표 3-7-39〉 마지막 임신으로 출산시 출산방법 ····· 540
〈부표 3-7-40〉 마지막 임신시 비출산 이유 ····· 540
〈부표 3-7-41〉 인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 540
〈부표 3-7-42〉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 541
〈부표 3-7-43〉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 541
〈부표 3-7-44〉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 542
〈부표 3-7-45〉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2순위) ····· 542
〈부표 3-7-46〉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3순위) ····· 543
〈부표 3-7-47〉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 ····· 543
〈부표 3-8- 1〉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 544
〈부표 3-8- 2〉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도 ····· 544
〈부표 3-8- 3〉 거주지(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 ····· 544
〈부표 3-8- 4〉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 545
〈부표 3-8- 5〉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 545
〈부표 3-8- 6〉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545
〈부표 3-8- 7〉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 546
〈부표 3-8- 8〉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 546
〈부표 3-8- 9〉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 546
〈부표 3-8-10〉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 ····· 547
〈부표 3-8-11〉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시 주 상담자 ····· 547
〈부표 3-8-12〉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 ····· 547
〈부표 3-8-13〉 가족 내 차별·폭력의 유형 ····· 548
〈부표 3-8-14〉 가족 내 차별·폭력의 주가해자 ····· 548
〈부표 3-8-1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 548
〈부표 3-8-1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시기 ····· 549

〈부표 3-8-1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가해자 ····· 549
〈부표 3-8-18〉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 ····· 550
〈부표 3-8-19〉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주 상담자 ····· 550
〈부표 3-8-20〉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상담하지 못한 이유 ····· 551
〈부표 3-8-21〉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자 또는 시설필요 여부 ····· 551
〈부표 3-8-22〉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유치원(보육시설) ····· 551
〈부표 3-8-23〉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초등학교 ····· 552
〈부표 3-8-24〉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중학교 ····· 552
〈부표 3-8-25〉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고등학교 ····· 552
〈부표 3-8-26〉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대학교 ····· 552
〈부표 3-8-27〉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교사로부터 ····· 553
〈부표 3-8-28〉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 553
〈부표 3-8-29〉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 553
〈부표 3-8-30〉 사회적 차별 정도: 결혼 ····· 553
〈부표 3-8-31〉 사회적 차별 정도: 취업 ····· 554
〈부표 3-8-32〉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소득(임금) ····· 554
〈부표 3-8-33〉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 554
〈부표 3-8-34〉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승진 ····· 554
〈부표 3-8-35〉 사회적 차별 정도: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 555
〈부표 3-8-36〉 사회적 차별 정도: 보험제도상(계약시) ····· 555
〈부표 3-8-37〉 사회적 차별 정도: 의료기관이용시 ····· 555
〈부표 3-8-38〉 사회적 차별 정도: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 555
〈부표 3-8-39〉 사회적 차별 정도: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 556
〈부표 3-8-40〉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 556
〈부표 3-8-41〉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 556
〈부표 3-8-4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여부 ····· 557
〈부표 3-9- 1〉 주거 위치 ····· 557
〈부표 3-9- 2〉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 ····· 557
〈부표 3-9- 3〉 자가일 경우 살고 있는 집의 금액 ····· 558
〈부표 3-9- 4〉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액 ····· 558
〈부표 3-9- 5〉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세 ····· 558

〈부표 3-9- 6〉 살고 있는 집의 소유주(계약주체) ····· 559
〈부표 3-9- 7〉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 양호 ····· 559
〈부표 3-9- 8〉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갖춤 ····· 559
〈부표 3-9- 9〉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있음 ····· 559
〈부표 3-9-10〉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 부터 안전 ····· 560
〈부표 3-9-1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재난 발생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 ····· 560
〈부표 3-9-12〉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영구임대주택 ····· 560
〈부표 3-9-13〉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공공(국민)임대주택 ····· 560
〈부표 3-9-14〉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561
〈부표 3-9-15〉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561
〈부표 3-9-16〉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 561
〈부표 3-9-17〉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 561
〈부표 3-9-18〉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저소득층 월세지원(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 562
〈부표 3-9-19〉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주택개조사업 ····· 562
〈부표 3-9-20〉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기타 ····· 562
〈부표 3-9-21〉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영구임대주택 ····· 562
〈부표 3-9-22〉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공공(국민)임대주택 ····· 563
〈부표 3-9-23〉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563
〈부표 3-9-24〉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563
〈부표 3-9-25〉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 564
〈부표 3-9-26〉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 564
〈부표 3-9-27〉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저소득층 월세지원(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 564
〈부표 3-9-28〉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주택개조사업 ····· 565
〈부표 3-9-29〉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기타 ····· 565
〈부표 3-9-30〉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 565
〈부표 3-9-31〉 주택 개조 의사 ····· 566
〈부표 3-9-32〉 주택 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1순위) ····· 566
〈부표 3-9-33〉 주택 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2순위) ····· 567
〈부표 3-9-34〉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 567
〈부표 3-9-35〉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원하는 삶의 형태 ····· 568
〈부표 3-10-1〉 장애인등록 여부 ····· 568

〈부표 3-10- 2〉 장애등급 ····· 568
〈부표 3-10- 3〉 장애등록 시기 ····· 569
〈부표 3-10- 4〉 장애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 ····· 569
〈부표 3-10- 5〉 장애등급 재심사 여부 ····· 569
〈부표 3-10- 6〉 장애등급 재심사 이유 ····· 570
〈부표 3-10- 7〉 장애등급 재심사 후 등급조정여부 ····· 570
〈부표 3-10- 8〉 장애등급 조정 내용 ····· 570
〈부표 3-10- 9〉 장애등록하지 않은 이유 ····· 571
〈부표 3-10-10〉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연금 ····· 571
〈부표 3-10-11〉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경증장애수당 ····· 571
〈부표 3-10-12〉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아동수당 ····· 572
〈부표 3-10-1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 572
〈부표 3-10-14〉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572
〈부표 3-10-15〉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 의료비지원 ····· 572
〈부표 3-10-16〉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573
〈부표 3-10-17〉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검사비 지원 ····· 573
〈부표 3-10-18〉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발달재활서비스 ····· 573
〈부표 3-10-19〉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언어발달지원 ····· 573
〈부표 3-10-20〉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 ····· 574
〈부표 3-10-21〉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보조기구건강보험(급여) ····· 574
〈부표 3-10-22〉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574
〈부표 3-10-2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574
〈부표 3-10-24〉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575
〈부표 3-10-25〉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575
〈부표 3-10-26〉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 575
〈부표 3-10-27〉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 ····· 575
〈부표 3-10-28〉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세금공제 및 면제 ····· 576
〈부표 3-10-29〉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교통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 576
〈부표 3-10-30〉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 576
〈부표 3-10-31〉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 576
〈부표 3-10-32〉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577

〈부표 3-10-3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 577
〈부표 3-10-34〉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 577
〈부표 3-10-35〉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577
〈부표 3-10-36〉 장애인복지사업 정보 취득 방법 ····· 578
〈부표 3-10-37〉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직업재활시설 ····· 578
〈부표 3-10-38〉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복지관 ····· 578
〈부표 3-10-39〉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579
〈부표 3-10-40〉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체육시설 ····· 579
〈부표 3-10-4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수련시설 ····· 579
〈부표 3-10-4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심부름센터 ····· 579
〈부표 3-10-4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580
〈부표 3-10-44〉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점자 도서관 ····· 580
〈부표 3-10-45〉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수화통역센터 ····· 580
〈부표 3-10-46〉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특별 운송사업(콜택시, 해피콜 등) · 580
〈부표 3-10-47〉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 581
〈부표 3-10-48〉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581
〈부표 3-10-49〉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 581
〈부표 3-10-50〉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581
〈부표 3-10-5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정신보건센터 ····· 582
〈부표 3-10-5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 재활병·의원 ····· 582
〈부표 3-10-5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 582
〈부표 3-10-54〉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582
〈부표 3-10-55〉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 583
〈부표 3-10-56〉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특수교육지원센터 ····· 583
〈부표 3-10-57〉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 583
〈부표 3-10-58〉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아동보육시설 ····· 583
〈부표 3-10-59〉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단체 ····· 584
〈부표 3-10-60〉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직업재활시설 ····· 584
〈부표 3-10-6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복지관 ····· 584
〈부표 3-10-6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584
〈부표 3-10-6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체육시설 ····· 585

〈부표 3-10-64〉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 수련시설 ····· 585
〈부표 3-10-65〉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심부름센터 ····· 585
〈부표 3-10-66〉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585
〈부표 3-10-67〉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점자 도서관 ····· 586
〈부표 3-10-68〉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수화통역센터 ····· 586
〈부표 3-10-69〉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특별 운송사업(콜택시, 해피콜 등) · 586
〈부표 3-10-70〉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 586
〈부표 3-10-7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587
〈부표 3-10-7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 587
〈부표 3-10-7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587
〈부표 3-10-74〉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정신보건센터 ····· 587
〈부표 3-10-75〉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 재활병·의원 ····· 588
〈부표 3-10-76〉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 588
〈부표 3-10-77〉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588
〈부표 3-10-78〉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 588
〈부표 3-10-79〉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특수교육지원센터 ····· 589
〈부표 3-10-80〉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 589
〈부표 3-10-8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아동보육시설 ····· 589
〈부표 3-10-8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 단체 ····· 589
〈부표 3-10-83〉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 590
〈부표 3-10-84〉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2순위) ····· 590
〈부표 3-10-85〉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3순위) ····· 591
〈부표 3-11- 1〉 주관적 소속 계층 ····· 591
〈부표 3-11- 2〉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 여부 및 형태 ····· 592
〈부표 3-11- 3〉 지난 1개월간 가구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 592
〈부표 3-11- 4〉 지난 1개월간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 593
〈부표 3-11- 5〉 지난 1개월 평균 가구 수입액 ····· 593
〈부표 3-11- 6〉 지난 1개월 평균 장애인 개인 수입액 ····· 594
〈부표 3-11- 7〉 가입한 연금 종류 ····· 594
〈부표 3-11- 8〉 가구내 차량소유 여부 ····· 595
〈부표 3-11- 9〉 차량 소유: 제1차량 ····· 595

〈부표 3-11-10〉 차량 소유: 제2차량 ····· 596
〈부표 3-11-11〉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 597
〈부표 3-11-12〉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여부 ····· 597
〈부표 3-11-13〉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 598

그림 목차

[그림 2- 2-1]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 62
[그림 2- 2-2] 지역별 장애인 개인가중치 분포 ····· 63
[그림 6- 3-1] 시각장애의 연령계층별·성별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도표 ····· 146
[그림 6-12-1] 간장애 출현율의 연도별 추이 ····· 190
[그림 6-13-1] 안면장애 출현율의 연도별 추이 ····· 195
[그림 6-14-1] 장루·요루장애 출현율의 연도별 추이 ····· 199
[그림 6-15-1] 뇌전증(간질)장애 출현율의 연도별 추이 ····· 203

요 약

1. 조사 개요

가. 조사의 근거 및 목적

□ 「장애인복지법」제31조 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8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임.

- 2014년도에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는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에 이은 제 9차 조사임[1].

나. 조사내용

1) 조사내용 I :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

□ 가구조사

-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장애등록여부, 장애등록연도, 등록장애유형, 장애등급, 가구규모, 세대구성, 가구 소득 및 지출, 주된 수입원, 주거형태 등

□ 장애판별조사

- 법정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15개 유형)
- 향후 확대예정 장애범주: 만성알콜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

1) 1990년도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처음 실시됨.

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기타

2) 조사내용Ⅱ : 장애인 심층면접조사

□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 15개 장애유형별 장애발생시기, 장애원인, 장애부위 등

□ 보건의료·건강 : 주된 장애유형, 정기적 치료 및 재활여부, 주관적 건강 평가, 건강검진여부, 만성질환유무, 재활치료서비스 이용 현황 등

□ 일상생활지원 : 일상생활정도(ADL), 수단적 일상생활정도(IADL), 일상생활의 타인의존도 등

□ 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 소지여부 및 종류, 이용만족도,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지원 경험 여부 및 지원내용, 구입 경로 등

□ 교육 : 최종학력, 지금까지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형태(초·중·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재학 중인 보육시설·유치원·조기교육시설 유형,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등

□ 취업 및 직업생활 : 취업상태, 취업시 일하는 곳, 직장내 지위, 만족도, 미취업상태시 미취업 이유, 직업훈련 경험, 직업훈련 희망 분야 등

□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 외출정도, 집밖 활동시 불편한 점, 이용하는 교통수단, 문화·여가활동 영역별 참여빈도, 선거 투표여부, 투표하지 않은 이유 등

□ 결혼생활·여성장애인 : 결혼 상태, 자녀 장애유무 및 자녀 양육·교육시 어려운 점, 임신·출산·육아 어려운 점, 여성장애인 대상 가장 필요 서비스 등

□ 생활만족도 및 차별경험 : 생활만족도, 장애로 인한 무시나 폭력 경험 여부, 무시·폭력유형, 사회적 차별의 경험, 본인의 장애에 대한 차별인식정도, 우리나라의 장

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등

□ 주거 : 주거위치, 소유형태, 주택 구조·성능 및 환경, 주거복지사업 경험 여부 및 만족도, 현재 거주주택의 개조 필요성, 개조하고 싶은 곳 등

□ 복지서비스 :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이용경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지 및 이용경험,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등

□ 경제상태 :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의 수입원, 연금가입 여부,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등

다. 조사방법

1) 가구판별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 조사

○ 조사모집단 : 각 시도의 섬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 및 가구원

○ 표본의 크기 : 200개 표본조사구의 약 45,000가구 (조사구당 평균 225가구)

○ 표본조사구 추출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 조사구로부터 1,004개 조사구 및 251개 예비 조사구로 총 1,255개 조사구를 추출. 1,004개 조사구에서 조사구 5개씩 1표본조사구로 구성하여 총 200개 표본조사구 추출

2) 조사현황

□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총 200개 조사지역의 대상 가구수는 48,344가구이고, 이 중 총 38,56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음.

- 본 조사의 완료율은 79.8%로 2011년 조사 완료율에 비해 0.8% 감소함.

□ 조사완료가구 38,560가구의 가구원 수는 104,703명으로서 2011년 조사완료

가구원 수 105,496명에 비해 793명이 감소함.

- 이는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2000년 3.14명에서 2005년 2.94명, 2011년 2.76명, 2014년 2.72명으로 감소한 결과임.

□ 이들 가구원 중 장애인은 모두 6,824명인 것으로 나타나 2011년 조사된 장애인 수 6,010명에 비해 814명 증가하였음.

〈표 1〉 장애인실태조사 현황 비교

	조사지역수	대상가구수	완료가구수	완료율	조사완료 가구원수	조사장애인수
2014년도	200지역	48,344가구	38,560가구	79.8%	104,703명 (2.72명 /가구)	6,824명
2011년도	200지역	47,458가구	38,231가구	80.6%	105,496명 (2.76명 /가구)	6,010명
2005년도	200지역	45,285가구	40,556가구	89.6%	199,306명 (2.94명 /가구)	5,466명
2000년도	200지역	44,128가구	39,411가구	89.3%	123,721명 (3.14명 /가구)	4,125명
비고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감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통해 총 80,846명의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아동·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3. 12. 31. 기준).

〈표 2〉 시설유형별 장애인 수 (2013.12.31.기준)

(단위: 명, %)

	장애인 수	구성비
장애인	27,494	34.0
아동	1,125	1.4
노인	36,095	44.7
여성	90	0.1
부랑인	4,383	5.4
정신요양	11,150	13.8
한센병·결핵	509	0.6
계	80,846	100.0

2. 주요 연구결과

가. 장애인구 및 출현율

1) 2011년도 장애인구 및 출현율

□ 전국의 장애인은 2,726.9천명으로 추정되어, 2011년의 2,683.4천명에 비해 43.4천명이 증가함.

- 이 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은 2,646.0천명이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80.8천명임.

□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은 5.59%로서 2011년의 5.61%에 비해서 0.02% 포인트 감소함.

〈표 3〉 2014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단위: 명, %)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전체
2014년	장애인수	2,646,064	80,846	2,726,910
	출현율	5.43	-	5.59
2011년	장애인수	2,611,126	72,351	2,683,477
	출현율	5.47	-	5.61
2005년	장애인수	2,101,057	47,629	2,148,686
	출현율	4.50	-	4.59

나. 장애 유형별 추정 장애인 수

□ 전체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1,353,753명, 뇌병변장애인 308,100명의 순으로 많고, 안면장애인이 3,018명으로 가장 적음.

- 전체 장애등록율은 91.7%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의 경우 90% 이상의 등록율을 보이나, 간장애, 뇌전증(간질)장애는 80%에 미치지 못하는 등록율을 보임.

-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른 장애등록율은 93.8%로 2.1% 감소함.

〈표 4〉 장애인 추정수 및 장애등록율 변화추이

(단위: 명, %)

구분		2011년			2014년		
		등록 장애인수[1]	추정수	등록율[3]	등록 장애인수[2]	추정수	등록율[3]
계		2,517,312	2,683,477	93.8	2,501,112	2,726,910	91.7
주된 장애 유형별 장애인 수	지체장애	1,337,722	1,338,554	99.9	1,309,285	1,353,753	96.7
	뇌병변장애	261,746	333,798	78.4	253,493	308,100	82.3
	시각장애	249,259	259,986	95.9	253,095	278,173	91.0
	청각장애	260,403	281,878	92.4	255,399	281,984	90.6
	언어장애	17,207	21,277	80.9	17,830	21,700	82.2
	지적장애	161,249	176,110	91.6	178,866	207,704	86.1
	자폐성장애	14,888	16,916	88.0	18,133	19,868	91.3
	정신장애	95,821	115,151	83.2	95,675	117,428	81.5
	신장장애	57,142	58,702	97.3	66,551	72,132	92.3
	심장장애	12,864	18,573	69.3	6,928	8,498	81.5
	호흡기장애	15,551	19,316	80.5	13,150	16,054	81.9
	간장애	7,920	9,292	85.2	9,194	11,841	77.6
	안면장애	2,696	2,434	110.8	2,696	3,018	89.3
	장루요루장애	13,072	16,790	77.9	13,546	16,814	80.6
	뇌전증(간질)장애	9,772	14,701	66.5	7,271	9,842	73.9

자료: 1) 2010년 4/4분기 현재 등록장애인수 (보건복지부)
2) 2013년 4/4분기 현재 등록장애인수 (보건복지부)
3) 등록율 = (등록장애인수 / 장애인실태조사 추정 장애인수) × 100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중복 장애유형을 '건'으로 환산하여 장애유형별 장애출현율을 구해보면,

- 인구 100명 중 지체장애가 있는 인구는 2.85건으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였고, 뇌병변장애는 인구 100명당 0.66건 수준임. 2011년도에 비해서는 지체장애가 0.05건, 뇌병변장애는 0.07건 감소한 수준임.

〈표 5〉 장애 유형별 출현율 (중복장애 포함)

(단위: 천명, 건)

구분		2011년		2014년	
		추정장애인 수	출현율	추정장애인 수	출현율
개별 장애 유형별 출현율	지체장애	1,385	2.90	1,387	2.85
	뇌병변장애	347	0.73	321	0.66
	시각장애	288	0.60	312	0.64
	청각장애	315	0.66	318	0.65
	언어장애	104	0.22	123	0.25
	지적장애	203	0.43	239	0.49
	자폐성장애	22	0.05	22	0.05
	정신장애	121	0.25	124	0.25
	신장장애	64	0.13	75	0.16
	심장장애	22	0.05	9	0.02
	호흡기장애	20	0.04	16	0.03
	간장애	10	0.02	12	0.03
	안면장애	3	0.01	3	0.01
	장루·요루장애	20	0.04	18	0.04
	뇌전증(간질) 장애	20	0.04	22	0.05

주: 시설장애인 포함

다. 장애인 가구 출현율

□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2,834,279가구로 추정되어 전체 조사대상 18,206,328가구의 15.6%로 나타남.

- 이는 2011년도에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2,442,442가구로 전체 가구의 13.9%이였던 것에 비해 1.7% 포인트 증가한 것임.

라. 재가 장애인의 실태

1) 일반 현황

가) 성비 및 연령

□ 장애인의 성별 분포는 남자 57.7%, 여자 42.3%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5.4% 포인트 높았음.

〈표 6〉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남자	56.8	58.8	60.0	54.7	69.9	58.0	88.7	51.3	56.5	68.2	74.1	74.9	88.6	66.5	66.0	57.7
여자	43.2	41.2	40.0	45.3	30.1	42.0	11.3	48.7	43.5	31.8	25.9	25.1	11.4	33.5	34.0	4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 장애인의 연령 분포는 만 65세 이상이 43.3%로 가장 높았고, 50~64세가 30.7%로 다음으로 높았음. 이는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차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줌. 2011년와 비교하면, 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38.8%로 2014년에 약 4.5% 포인트 증가함.

〈표 7〉 연령 분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만 0-17세	0.3	3.9	1.3	1.6	8.3	19.1	53.3	0.6	0.0	5.4	0.0	0.0	15.0	0.0	9.4	2.7
만 18-29세	1.1	2.8	2.2	2.2	0.0	31.1	46.7	5.2	0.0	0.0	0.0	0.0	16.4	0.0	8.4	4.1
만 30-39세	5.5	5.6	6.0	4.0	23.9	18.3	0.0	12.6	9.3	5.4	2.1	2.6	3.0	1.3	6.8	6.7
만 40-49세	12.7	7.9	13.4	7.5	11.9	12.6	0.0	36.0	16.3	10.2	0.6	9.5	18.3	2.4	21.6	12.5
만 50-64세	35.1	27.5	28.6	21.8	26.4	14.9	0.0	39.2	37.1	21.9	17.2	71.4	36.0	34.4	32.4	30.7
만 65세이상	45.3	52.5	48.5	63.0	29.5	4.1	0.0	6.2	37.3	57.1	80.1	16.6	11.4	61.9	21.5	4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나) 장애정도

□ 등록장애인 중 1~3급의 중증장애인은 39.1%, 4~6급의 경증장애인은 60.9%의 분포를 보임.

〈표 8〉 장애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중증 (1-3급)	19.5	65.3	26.3	38.4	47.9	100.0	100.0	100.0	79.0	89.5	97.1	35.7	78.1	8.8	60.9	39.1
경증 (4-6급)	80.5	34.7	73.7	61.6	52.1	0.0	0.0	0.0	21.0	10.5	2.9	64.3	21.9	91.2	39.1	6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95,136	277,496	254,903	255,510	18,999	175,890	18,951	96,707	67,453	6,928	13,544	9,864	3,012	14,898	8,658	2,517,949

2) 신체적 특성

가) 장애원인과 치료

□ 장애인의 장애 원인은 88.9%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56.2%)이 사고(32.7%)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9〉 재가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장애 원인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선천적 원인		1.2	1.8	5.1	8.4	11.7	29.8	19.8	2.2	0.4	9.4	1.7	2.6	29.2	0.0	5.4	4.7
출산시 원인		0.1	3.1	0.6	1.4	0.6	8.7	4.6	0.4	0.0	0.0	0.0	0.0	0.0	0.0	0.0	1.3
후천적 원인	질환	48.5	83.7	51.8	71.7	49.8	14.3	15.5	83.6	98.4	86.4	96.1	97.4	15.5	96.1	50.5	56.2
	사고	49.6	11.0	37.2	11.4	13.4	9.5	0.0	10.4	0.0	4.2	2.1	0.0	55.3	3.9	26.0	32.7
원인불명		0.7	0.3	5.3	7.2	24.6	37.6	60.1	3.3	1.2	0.0	0.0	0.0	0.0	0.0	18.1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 장애인의 78.3%가 지난 1년간 치료나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신장, 심장, 간, 뇌전증(간질) 장애 등 내부장애의 진료받는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높게 나타남.

〈표 10〉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예	76.4	92.0	74.3	72.2	65.6	59.3	88.2	97.4	100.0	100.0	97.9	100.0	77.4	98.2	100.0	78.3
아니오	23.6	8.0	25.7	27.8	34.4	40.7	11.8	2.6	0.0	0.0	2.1	0.0	22.6	1.8	0.0	2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나) 일상생활지원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의 수행정도를 살펴보면, 스스로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목욕하기', '걷기', '옷 벗고 입기' 인 것으로 나타남.

〈표 11〉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단위: %)

구분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계	구분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계
옷 벗고 입기	81.1	15.2	3.7	100.0	옮겨 앉기	88.4	8.9	2.6	100.0
세수하기	89.5	7.2	3.3	100.0	방밖으로 나가기	83.2	13.1	3.7	100.0
양치질하기	89.4	7.4	3.1	100.0	걷기	78.9	17.5	3.5	100.0
목욕하기	75.2	18.3	6.5	100.0	화장실 사용하기	87.4	8.8	3.8	100.0
식사하기	88.6	9.4	2.0	100.0	대변 조절하기	93.2	3.4	3.4	100.0
체위변경하기	92.9	5.3	1.8	100.0	소변 조절하기	93.0	3.8	3.2	100.0
일어나 앉기	90.9	7.0	2.1	100.0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살펴보면, 스스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집안 일', '대중교통 이용하기', '식사준비'인 것으로 나타남.

〈표 1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단위: %)

구분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계
전화사용하기	74.4	18.1	7.5	100.0
물건사기	72.9	16.7	10.4	100.0
식사준비 (만 15세미만 제외)	67.0	22.4	10.6	100.0
집안 일 (만 15세미만 제외)	64.6	25.1	10.3	100.0
빨래하기 (만 15세미만 제외)	67.3	22.0	10.7	100.0
약 챙겨먹기	83.6	10.7	5.7	100.0
금전관리	74.4	12.7	13.0	100.0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66.2	21.2	12.6	100.0
본인 물건 관리하기 (만 6~15세미만 에만 해당)	19.5	44.6	36.0	100.0

□ 장애인의 51.3%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14.5%는 대부분 혹은 거의 남의 도움을 전적으로 필요로 함. 특히 자폐성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 필요정도가 높았음.

〈표 13〉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혼자서 스스로	67.5	18.3	54.9	42.9	33.8	4.5	1.5	36.8	65.2	48.1	34.3	92.4	96.5	10.3	44.2	51.3
대부분 혼자서	15.1	14.0	14.5	28.6	24.4	14.4	11.4	16.7	13.1	8.0	13.8	2.7	3.5	62.7	14.5	16.5
일부도움 필요	11.1	25.4	15.5	22.9	22.4	41.5	21.1	28.3	14.3	39.9	38.0	1.8	0.0	18.8	17.5	17.7
대부분 필요	3.9	19.1	10.1	3.5	15.6	26.0	41.6	14.2	5.4	0.0	10.5	3.1	0.0	2.9	18.0	8.6
거의 남의 도움 필요	2.4	23.1	5.1	2.1	3.7	13.5	24.5	4.0	2.0	4.0	3.4	0.0	0.0	5.4	5.9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 일상생활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장애인은 85.3%이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는 14.7%로 나타남.

〈표 14〉 도와주는 사람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있다	77.8	93.5	85.6	77.2	96.8	96.7	100.0	94.5	87.3	100.0	88.8	81.1	0.0	46.7	68.3	85.3
없다	22.2	6.5	14.4	22.8	3.2	3.3	0.0	5.5	12.7	0.0	11.2	18.9	100.0	53.3	31.7	1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5,247	236,283	123,912	158,335	14,166	174,097	18,668	66,373	25,020	4,385	10,508	899	104	14,989	5,451	1,288,457

□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은 배우자 37.7%, 부모 20.1%, 자녀 16.7%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움 제공자가 대부분 가족 구성원(81.5%)이었음.

〈표 15〉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배우자	50.8	42.6	44.9	42.0	24.0	7.2	0.0	10.8	53.3	70.5	57.9	100.0	-	78.1	8.8	37.7
부모	4.7	13.9	6.7	7.2	35.6	65.3	82.9	38.7	2.5	10.3	0.0	0.0	-	0.0	56.8	20.1
자녀(며느리, 사위)	20.2	15.5	19.7	33.7	27.2	2.5	0.0	8.3	15.1	3.5	10.0	0.0	-	7.2	16.4	16.7
형제·자매	2.7	2.7	1.1	4.6	8.1	13.6	0.0	16.7	0.0	0.0	0.0	0.0	-	0.0	0.0	5.1
조부모	0.3	0.6	0.0	0.3	2.1	3.9	6.8	0.7	1.2	0.0	0.0	0.0	-	0.0	0.0	1.1
손자녀	1.0	0.5	0.2	0.6	0.0	0.0	0.0	0.0	0.0	8.3	0.0	0.0	-	4.1	0.0	0.5
기타 가족	0.1	0.1	1.4	0.6	0.0	0.0	0.0	0.5	0.0	0.0	0.0	0.0	-	0.0	0.0	0.3
친척	0.5	0.0	1.4	2.3	0.0	1.2	0.0	1.3	0.0	0.0	0.0	0.0	-	0.0	0.0	0.8
친구	1.3	0.3	2.0	0.7	0.0	0.0	0.0	0.0	2.8	0.0	0.0	0.0	-	0.0	0.0	0.8
이웃	1.7	0.3	1.4	1.8	0.0	0.6	0.0	1.6	0.6	0.0	0.0	0.0	-	0.0	0.0	1.1
활동지원인	2.8	3.0	11.6	0.1	0.9	2.2	9.9	0.7	6.9	0.0	5.6	0.0	-	0.0	0.0	3.3
가정봉사원	0.8	0.4	1.0	0.1	0.0	0.0	0.0	0.3	0.0	7.4	0.0	0.0	-	0.0	0.0	0.5
간병인	1.9	4.8	0.9	0.5	0.0	0.6	0.0	1.7	5.4	0.0	0.0	0.0	-	8.1	0.0	2.0
요양보호사	9.4	13.3	6.4	3.5	0.0	0.2	0.0	3.5	10.8	0.0	26.6	0.0	-	2.6	0.0	7.3
기타	1.9	2.0	1.3	2.0	2.1	2.6	0.5	15.3	1.5	0.0	0.0	0.0	-	0.0	18.0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38,724	220,898	106,081	122,306	13,720	168,283	18,668	62,731	21,830	4,385	9,332	729	-	7,005	3,723	1,098,415

다) 장애인보조기구

□ 건강보험(의료급여)의 급여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경우, 필요한 비율은 2011년에 비해 증가폭이 큰 반면, 소지율은 증가는 하였으나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 필요하나 소지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증가함.

〈표 16〉 주요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필요	전동휠체어	7.7 (103,711)	6.9 (114,110)	9.5 (154,581)
	전동스쿠터	6.4 (85,897)	5.3 (86,860)	6.7 (109,249)
소지	전동휠체어	3.2 (43,772)	3.6 (59,649)	3.7 (59,748)
	전동스쿠터	3.0 (40,997)	2.6 (42,158)	3.2 (52,456)

주: 주된 장애 - 지체 및 뇌병변 장애

□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데 구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경제적 비용 부담 때문인 경우가 61.8%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가 무엇인지 몰라서(17.6%), 사용해도 별 효과가 없을거 같아서(4.6%)의 순으로 나타나 2011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남.

〈표 17〉 필요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적합한 장애인보조 기구가 무엇인지 몰라서	16.1	14.5	25.2	19.2	14.3	25.9	25.4	11.7	9.2	55.6	17.5	0.0	0.0	6.2	0.0	17.6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3.9	4.8	3.8	7.6	0.0	4.3	14.5	10.9	6.0	0.0	0.0	0.0	0.0	0.0	0.0	4.6
사용이 불편할 것 같아서	3.5	2.9	3.4	5.4	0.0	5.9	0.0	0.0	0.5	0.0	4.1	0.0	0.0	7.6	0.0	3.6
미관상 흉해서	7.2	2.1	4.0	2.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5
구입비용 때문에	63.2	67.1	55.2	56.4	85.7	47.1	46.8	60.7	78.1	44.4	78.5	100.0	100.0	76.3	88.9	61.8
구입처를 몰라서	3.6	3.2	5.9	5.4	0.0	6.1	8.0	10.1	0.5	0.0	0.0	0.0	0.0	10.0	0.0	4.2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0.9	2.1	0.1	1.5	0.0	1.3	5.3	0.9	0.0	0.0	0.0	0.0	0.0	0.0	0.0	1.1
적합한 보조기구가 없어서	1.5	2.1	2.5	2.3	0.0	9.3	0.0	5.6	5.7	0.0	0.0	0.0	0.0	0.0	11.1	2.3
기타	0.0	1.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60,029	146,082	108,930	110,668	2,534	29,232	4,127	7,268	14,939	887	8,091	407	316	2,902	2,343	798,755

라)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 정보통신기기 사용률은 휴대폰 44.7%, 스마트폰 38.6%, 컴퓨터 32.0%, 인터넷 33.0%로 나타나, 스마트폰 사용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대신 휴대폰 사용율이 감소함.

〈표 18〉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2014	휴대폰	49.1	43.5	49.0	46.9	27.4	18.4	9.3	34.7	37.0	47.9	73.2	29.8	27.3	43.3	25.1	44.7
	스마트폰	44.8	22.6	38.8	31.0	32.3	32.5	25.5	22.5	53.8	47.4	17.3	70.2	51.8	45.0	43.8	38.6
	컴퓨터	35.1	19.6	31.9	25.4	32.6	36.6	51.4	26.0	43.7	38.5	16.3	42.3	78.1	23.1	41.8	32.0
	인터넷	36.7	20.1	32.0	26.4	31.6	35.4	48.9	27.9	45.9	38.5	16.4	44.0	78.1	23.1	33.4	33.0
2011	휴대폰	78.7	51.0	78.7	68.1	71.8	38.4	22.3	45.8	83.9	75.0	74.5	89.7	60.0	74.2	66.8	70.1
	스마트폰	9.7	2.4	7.6	5.0	0.5	3.4	1.2	4.1	9.9	0.4	1.8	11.4	19.0	3.5	11.5	7.2
	컴퓨터	35.8	16.1	31.2	21.1	45.2	40.9	62.6	16.0	33.7	57.5	38.0	59.1	52.2	19.8	42.1	31.3
	인터넷	35.5	15.7	31.0	21.0	45.2	40.1	62.6	16.0	33.3	57.5	38.0	59.1	52.2	19.8	42.1	31.0

3) 사회적 특성

가) 결혼생활·여성장애인

□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 84.5%는 결혼한 경험이 있었고 15.4%는 미혼이며, 남자의 경우 미혼 비율이 19.2%로 여자(10.1%)에 비해 높았음. 결혼상태는 유배우 비율이 54.7%로 가장 많았고, 사별 19.5%, 미혼 15.4%, 이혼 8.7%, 별거 1.6%의 순이었음.

〈표 19〉 결혼상태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미혼	19.2	10.1	15.4
유배우	63.7	42.5	54.7
사별	5.6	38.2	19.5
이혼	9.3	8.0	8.7
별거	2.0	1.0	1.6
기타(미혼모/부)	0.1	0.1	0.1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80,644	1,093,608	2,574,252

□ 장애인의 결혼시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2.7%로 나타남.

〈표 20〉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예	1.7	1.0	2.1	6.2	3.4	22.1	-	9.5	0.7	0.0	0.0	0.0	0.0	0.0	16.1	2.7
아니오	98.3	99.0	97.9	93.8	96.6	77.9	-	90.5	99.3	100.0	100.0	100.0	100.0	100.0	83.9	9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5,802	240,375	243,623	253,299	13,244	34,685	-	43,560	62,328	7,373	14,473	11,535	1,516	16,705	6,957	2,175,475

□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운 것'(28.5%)이었으며, 이외에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13.8%),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11.9%)의 문제로 힘든 것으로 나타남.

〈표 21〉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18세~28세	29세~38세	39세~49세	전체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0.0	8.0	13.3	11.9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	0.0	10.4	5.5	6.6
병원의 시설 설치 미비	0.0	0.0	0.7	0.5
병원내 의사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0.0	0.0	0.3	0.3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	15.7	7.1	5.4	5.9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워서	19.7	22.1	30.6	28.5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64.6	16.9	12.0	13.8
본인의 건강악화	0.0	2.6	3.8	3.5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	0.0	5.0	11.8	10.1
직장에서의 퇴직 권유로	-	-	-	-
가족들의 출산 반대로	0.0	0.0	1.1	0.8
주위의 시선때문에	0.0	0.7	0.0	0.2
임신·출산 관련 정보 부족	0.0	4.2	0.4	1.3
어려움 없음	0.0	22.0	14.5	16.1
기타	0.0	1.1	0.4	0.6
계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88	15,632	49,443	65,863

□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 중 출산 전·후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충분하다' 52.2%, '부족하다' 30.8%, '매우 충분하다' 10.8%, '매우 부족하다' 6.2%의 순이었음.

〈표 22〉 출산 전·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18세~28세	29세~38세	39세~49세	전체
매우 충분하다	0.0	17.5	8.9	10.8
충분하다	80.4	48.3	53.0	52.2
부족하다	19.6	25.8	32.5	30.8
매우 부족하다	0.0	8.3	5.6	6.2
계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33	12,489	42,110	55,232

□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가사도우미(12.8%), 출산비용 지원(11.7%),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1.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표 23〉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18세~28세	29세~38세	39세~49세	전체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14.1	3.8	10.3	9.3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 서비스	4.7	6.1	3.2	4.2
출산비용 지원	9.7	8.1	13.9	11.7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2.8	6.9	7.3	6.4
산후조리 서비스	3.5	8.7	6.8	6.7
육아용품 대여	0.0	0.0	0.2	0.1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7.4	9.7	13.8	11.7
자녀교육도우미	1.4	5.3	6.8	5.5
가사도우미	6.7	15.5	13.5	12.8
활동지원인	18.2	17.4	4.1	9.9
건강관리 프로그램	11.2	6.8	6.9	7.6
상담서비스(심리·정서)	9.5	5.4	7.2	7.2
자조집단(멘토)	4.2	0.5	3.6	2.9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지원	6.6	5.9	2.4	4.0
기타	0.0	0.0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1,436	47,196	105,187	183,819

나) 사회 및 여가활동

□ 장애인의 45.3%는 집 밖 활동시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이 중 16.8%는 매우 불편한 정도였음. 불편하지 않다는 비율은 54.7%였음.

- 특히 자폐성 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지적장애의 경우 집 밖 활동시 불편하다는 비율이 높았음.

〈표 24〉 집밖 활동시 불편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매우 불편하다	12.1	37.6	20.5	10.4	12.2	24.2	39.9	12.1	18.8	32.1	37.1	4.9	0.0	34.4	17.5	16.8
약간 불편하다	26.6	36.1	24.3	32.4	31.8	34.7	41.7	27.0	21.1	31.7	27.7	6.5	72.4	37.8	10.8	28.5
거의불편하지 않다	42.6	22.1	41.0	44.5	36.9	34.3	12.7	40.2	41.2	30.5	24.3	64.8	12.1	24.9	48.8	39.5
전혀불편하지 않다	18.7	4.2	14.3	12.7	19.1	6.8	5.7	20.6	18.9	5.8	10.9	23.8	15.5	2.9	22.9	1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07,432	238,841	264,813	270,160	19,278	170,471	18,616	87,711	69,344	8,456	13,256	11,317	3,012	16,705	9,095	2,508,507

□ 장애인의 집 밖 활동시 불편한 이유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7.0%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29.5%, '주위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1.4%의 순이었음.

〈표 25〉 집밖 활동시 불편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관련 편의시설부족	68.6	44.0	40.6	15.1	6.0	7.2	5.5	9.4	59.1	75.1	44.9	23.4	14.5	45.8	20.6	47.0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19.8	38.3	50.5	22.5	11.3	46.4	44.5	30.9	37.8	24.9	29.2	28.5	11.0	4.5	52.8	29.5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에	10.0	10.8	6.2	1.4	12.3	20.7	26.3	44.7	2.5	0.0	19.2	0.0	74.6	39.0	11.7	11.4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0.7	5.5	1.1	60.7	70.4	25.6	23.6	15.0	0.6	0.0	0.0	0.0	0.0	3.6	14.9	11.1
기타	1.0	1.5	1.6	0.3	0.0	0.0	0.0	0.0	0.0	0.0	6.7	48.2	0.0	7.1	0.0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5,808	176,166	118,547	115,577	8,471	100,290	15,193	34,344	27,668	5,392	8,585	1,293	2,181	12,067	2,572	1,134,154

□ 장애인들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비율은 42.9%였으며,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57.1%로,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음.

- 뇌병변장애, 호흡기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 장루·요루장애의 순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6〉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5.7	1.9	5.5	4.7	4.8	9.2	13.0	3.4	7.4	4.0	1.8	6.7	0.0	5.7	8.4	5.4
약간 만족	39.6	22.4	38.9	43.8	48.0	37.7	51.1	36.1	26.0	37.6	23.5	34.7	54.9	34.0	38.9	37.5
약간 불만족	40.5	38.6	37.5	38.7	39.8	34.2	23.7	38.7	41.2	37.4	50.2	34.8	31.8	31.4	29.2	39.1
매우 불만족	14.2	37.1	18.1	12.8	7.3	18.8	12.2	21.8	25.4	21.1	24.4	23.8	13.4	28.9	23.5	1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8,244	289,257	274,484	277,019	21,400	181,800	18,951	105,001	71,876	8,457	15,984	11,839	3,013	16,705	9,764	2,643,794

주: 무응답 2,271

다) 사회적 차별 경험

□ 입학·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시, 직장생활, 운전면허제도상(취득시), 보험제도상(계약시), 의료기관 이용시, 정보통신 이용시(방송포함), 지역사회생활 중에서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학교 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47.1%, '보험제도 계약시'가 45.4%, '초등학교 입학·전학시' 38.8%의 순이었음.

- 2011년도와 비교하면 '보험제도 계약시'의 경우 53.7%에서 45.4%로 감소하였고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경험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취업시'의 경우 34.0%에서 35.8% 로 증가함.

〈표 27〉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입학·전학	유치원 (보육시설)	13.4	26.6	13.3	24.4	5.0	38.8	29.8	20.2	0.0	20.6	0.0	0.0	36.9	0.0	15.8	27.1
	초등학교	31.8	34.2	27.0	39.0	45.0	53.6	36.0	39.4	0.0	20.6	39.0	0.0	52.7	0.0	37.0	38.8
	중학교	25.7	25.8	15.9	30.0	33.7	48.6	30.2	42.1	0.0	20.6	41.3	0.0	49.2	0.0	16.6	31.6
	고등학교	18.2	21.6	12.7	21.0	8.1	42.6	25.9	40.5	0.0	20.6	32.6	0.0	49.2	0.0	14.2	25.1
	대학교	9.5	9.8	9.4	11.6	25.9	27.1	4.5	19.8	0.0	0.0	41.6	52.8	0.0	0.0	33.9	12.5
학교생활	교사로부터	9.8	30.4	9.7	12.1	28.6	32.0	24.4	30.5	17.2	9.3	0.0	0.0	0.0	0.0	20.5	18.7
	또래학생으로부터	38.3	44.0	32.1	45.6	59.7	65.0	52.6	58.2	26.5	9.3	15.6	0.0	73.5	0.0	54.0	47.1
	학부모로부터	7.8	23.8	7.8	6.9	16.4	25.5	20.1	10.2	0.0	0.0	0.0	0.0	0.0	0.0	26.5	13.7
결혼		12.5	20.6	16.3	16.4	32.9	48.9	0.0	51.8	18.4	12.9	1.4	22.0	0.0	8.9	18.3	16.4
취업		29.3	58.0	34.7	42.7	45.7	47.7	66.7	69.8	42.4	75.0	32.8	39.3	63.1	31.3	37.5	35.8
직장생활	소득	19.8	38.9	19.6	29.2	26.3	41.4	41.7	56.8	18.3	40.8	22.0	21.9	26.7	36.0	29.8	23.9
	동료와의 관계	14.5	28.2	16.5	33.6	30.5	37.3	25.3	64.7	11.4	31.5	14.2	0.0	36.5	15.6	29.8	20.0
	승진	9.7	26.5	12.2	15.2	15.1	25.3	16.4	48.6	6.8	14.7	14.2	0.0	36.5	0.0	26.6	13.3
운전면허취득시		7.4	11.0	20.4	8.6	30.8	28.7	0.0	26.1	5.1	0.0	15.0	0.0	0.0	0.0	100.0	10.2
보험제도계약시		41.0	55.6	37.0	40.1	56.0	67.7	76.6	59.4	66.2	68.0	40.3	63.8	59.7	43.9	66.4	45.4
의료기관이용시		2.9	7.8	4.6	4.6	2.5	9.6	7.0	9.0	4.0	0.0	4.5	3.8	29.2	5.0	0.0	4.6
정보통신이용시		0.7	1.9	2.6	7.8	1.4	1.4	0.0	2.6	0.0	0.0	4.7	0.0	0.0	3.7	0.0	1.9
지역사회생활		4.3	12.2	6.1	8.8	4.1	18.6	23.9	13.2	2.0	9.9	7.7	0.0	34.2	8.5	5.5	7.3

4) 경제적 특성

가) 경제상태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14년 6월 기준 415.2만원)의 53.8% 수준으로 2011년(53.4%)에 비해서 소폭 상승함.

- 가구규모별로는 1인가구 85.2만원, 2인가구 169.7만원, 3인가구 275.6만원, 4인가구 353.8만원, 5인가구 442.3만원, 6인가구 이상 520.0만원임.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70.6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014년 6월 기준 324.9만원)의 52.5% 수준으로 2011년(53.9%) 보다 감소하였음.

- 가구규모별로는 1인가구 71.8만원, 2인가구 131.8만원, 3인가구 207.9만원, 4인가구 271.5만원, 5인가구 307.7만원, 6인가구 이상 387.7만원임.

〈표 28〉 월 평균 총 가구소득 및 지출액

(단위: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가구소득액	218.6	233.1	235.2	213.8	267.7	277.2	349.9	152.1	258.8	246.3	181.3	219.4	251.8	178.9	106.5	223.5
가구지출액	165.9	182.1	166.7	164.9	199.3	215.1	310.9	122.0	207.2	198.5	148.0	209.5	212.3	154.2	102.0	170.6

□ 장애인가구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52.2%로 2011년(52.7%)에 비해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 자폐성장애, 간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등의 차량 소유율이 높았고, 뇌전증(간질)장애, 정신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청각장애 등의 차량 소유율이 낮았음.

〈표 29〉 가구내 차량소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있다	56.0	49.0	47.6	44.8	59.7	54.9	72.9	28.6	59.4	77.6	58.6	67.3	44.0	44.7	26.9	52.2
없다	44.0	51.0	52.4	55.2	40.3	45.1	27.1	71.4	40.6	22.4	41.4	32.7	56.0	55.3	73.1	4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 장애인 중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5.3%로, 2011년의 72.0%보다 3.3% 포인트 많아짐. 월 평균 추가비용 총액은 16만 4.2천원으로, 2011년의 16만 7백원보다 3,500원 증가함.

- 추가비용의 내용은 의료비가 66.0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비가 25.6천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가 18.9천원,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가 16.8천원, 보호·간병인비가 13.6천원 등으로 조사됨.
- 대부분 장애의 경우 의료비로 인한 추가비용이 많았으나, 자폐성장애는 보육·교육비, 재활기관이용료, 교통비로 인한 추가비용이 많았고, 뇌병변장애는 보호·간병인비로 인한 추가비용도 많았고 청각장애의 경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로 인한 비용이 많았음.

〈표 30〉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월평균 총 추가비용	137.3	283.1	104.2	120.4	143.7	197.8	418.1	103.9	303.3	350.7	254.7	271.5	323.9	269.0	175.4	164.2
교통비	28.8	30.3	17.0	9.0	21.5	32.9	79.2	15.4	51.9	37.8	34.6	32.5	19.2	26.0	35.7	25.6
의료비	56.9	138.6	26.8	11.7	54.2	47.1	22.7	66.3	218.2	276.3	172.3	221.2	288.9	86.3	98.6	66.0
보육·교육비	0.1	4.9	0.3	0.2	7.3	32.5	154.6	0.8	0.0	3.0	0.0	0.0	0.0	0.0	0.2	4.1
보호·간병인	8.8	51.7	6.1	2.8	0.5	10.2	30.2	1.7	7.8	6.0	10.4	0.0	0.0	69.2	3.0	13.6
재활기관이용료	0.9	13.1	0.3	0.8	1.1	20.4	80.3	1.0	0.0	0.8	0.0	0.0	0.0	0.0	7.2	4.2
통신비	2.9	4.7	27.1	24.0	18.9	9.8	9.2	1.6	3.5	1.5	1.1	2.7	15.7	1.3	3.7	9.9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5.0	11.2	12.5	59.1	25.4	0.7	0.0	0.0	8.9	23.9	18.2	1.2	0.0	84.0	7.8	18.9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20.3	10.4	12.0	11.8	13.6	39.5	41.3	11.6	9.0	1.5	12.3	13.4	0.0	1.0	12.2	16.8
기타	3.6	18.2	2.2	1.1	1.2	4.6	0.6	5.3	4.0	0.0	5.7	0.5	0.0	1.1	7.1	5.1

나) 취업상태

□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0%로, 2011년의 38.5%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남.

- 실업률은 6.3%로 전체 실업률(2014.6) 3.5%에 비해 1.8배 높은 수준이나 2011년(7.8%)에 비해서 감소한 수준임.

〈표 31〉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15~19세	46,953	4,333	3,074	1,259	42,620	9.23	70.94	29.06	6.55
20~29세	86,430	37,679	29,394	8,285	48,751	43.59	78.01	21.99	34.01
30~39세	177,905	110,432	98,225	12,207	67,473	62.07	88.95	11.05	55.21
40~49세	330,089	202,337	187,437	14,900	127,752	61.30	92.64	7.36	56.78
50~64세	811,944	421,299	397,960	23,339	390,645	51.89	94.46	5.54	49.01
65세이상	1,146,569	238,123	234,682	3,441	908,446	20.77	98.55	1.45	20.47
계	2,599,890	1,014,203	950,772	63,431	1,585,687	39.01	93.75	6.25	36.57
전국[1)]	42,490,000	26,825,000	25,875,000	949,000	15,666,000	63.1	96.5	3.5	60.9

주: 1) 통계청, 『한국통계월보(2014년 6월 기준)』, 2014.

□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63천명으로 추정됨.

- 성별로 보면,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6.9%이고, 여성장애인은 22.5%로 남성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32〉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1,497,448	752,642	702,720	49,922	744,806	50.26	93.37	6.63	46.93
여자	1,102,442	261,561	248,052	13,509	840,881	23.73	94.84	5.16	22.50
계	2,599,890	1,014,203	950,772	63,431	1,585,687	39.01	93.75	6.25	36.57

□ 실업 및 비경제활동 장애인의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가 38.1%로 가장 높았고,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건강문제'(18.1%),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할 필요가 없어서'(12.9%)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자)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41.4	34.9	38.1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할 필요가 없어서	11.1	14.6	12.9
임금수준,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1	2.2	2.7
전공,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0.9	0.5	0.7
교육, 기술, 경험 부족	0.2	0.3	0.3
장애인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1.7	1.1	1.4
이전에 찾아보았을 때 일자리가 없어서	5.4	2.5	3.9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0.4	0.9	0.7
현재 취업준비 중	2.0	0.3	1.1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10.7	13.3	12.1
육아 또는 가사	0.2	7.9	4.2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건강문제	17.7	18.5	18.1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3.4	1.9	2.6
취업 이외의 활동 때문에	0.3	0.2	0.2
자영업을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되서	0.6	0.0	0.3
기타	0.7	0.9	0.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94,572	854,389	1,648,961

주: 무응답 158

□ 취업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153만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329만원(고용노동부,「사업체 노동력조사」(2014.6,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의 46.3%에 불과한 수준임.

- 월 평균 일을 통해 얻는 수입은 심장장애가 32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간장애(190만원), 신장장애(183만원), 지체장애(167만원), 안면장애(160만원), 시각장애(156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남. 반면 자폐성장애(45만원), 정신장애(56만원), 지적장애(57만원)는 임금수준이 낮게 나타남.

〈표 34〉 취업장애인의 임금 수준

(단위: 만원)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전체
2014	167	112	156	120	130	57	45	56	183	327	110	190	160	78	-	153
2011	155	118	136	125	141	54	38	53	189	100	99	196	70	86	117	142
2008	121	104	136	88	92	41	23	23	147	97	86	235	124	84	66	115

5) 복지서비스

가) 장애등록

□ 장애등록을 보면 2014년 조사에서는 95.2%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증가, 장애등록으로 인한 각종 혜택에 대한 인지 향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표 35〉 장애인등록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전체
예	96.7	95.9	92.9	92.1	88.8	96.5	100.0	92.1	93.8	81.9	84.7	83.3	100.0	89.2	88.7	95.2
아니오	2.6	3.3	6.6	7.6	10.5	2.6	-	4.0	1.8	6.9	12.1	11.6	-	10.8	11.3	3.9
신청중	0.4	0.5	0.5	0.3	0.8	1.0	-	3.7	3.8	11.1	3.2	5.1	-	-	-	0.7
보훈처 등록	0.3	0.3	-	-	-	-	-	0.2	0.6	-	-	-	-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 장애등록 이후 혜택을 받는 정도에 대해서는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8%, '별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비율은 64.2%로 등록이후 혜택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장애인의 비율이 높았음.

〈표 36〉 장애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많음	2.4	6.3	2.6	2.6	3.2	4.8	5.8	11.2	9.6	0.0	4.1	2.8	0.0	4.5	7.6	3.6
약간 받고있음	26.3	37.0	28.4	33.0	33.4	52.5	52.4	49.1	47.7	37.6	44.2	34.5	31.4	25.6	59.0	32.2
별로 받지 못하고 있음	54.5	43.3	51.5	48.4	55.6	34.1	30.7	31.2	34.3	53.7	41.5	36.3	47.3	52.6	26.5	49.0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16.9	13.4	17.5	16.0	7.7	8.6	11.2	8.5	8.5	8.7	10.2	26.5	21.3	17.3	6.8	1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94,748	277,497	254,902	255,509	18,998	175,880	18,950	96,707	67,452	6,928	13,544	9,864	3,013	14,898	8,659	2,517,559

주: 무응답 제외

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현황

□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 중 가장 이용경험율이 높은 사업은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83.3%),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76.1%),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64.3%), '세금공제 및 면제'(39.5%)의 순이었음.

〈표 37〉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

(단위: %)

구분	이용경험율	구분	이용경험율
장애인연금	11.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3.1
경증장애수당	15.5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0.3
장애아동수당	1.3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39.2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2.5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5.7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8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26.2
장애인 의료비 지원	7.8	세금 공제 및 면제	39.5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5.1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76.1
장애검사비 지원	5.0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83.3
발달재활서비스	3.6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64.3
언어발달지원	1.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2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	6.1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0.4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12.5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0.4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0.3	노인장기요양보험	5.2

□ 장애인복지사업 실시 기관의 이용경험은 장애인복지관이 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5.8%,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5.4%의 순이었음. 한편 이용희망율이 높은 기관은 장애인특별운송사업(34.8%), 장애인 재활병·의원(31.0%), 장애인 재활치료시설(24.0%), 장애인복지관(20.5%) 등의 순이었음.

〈표 38〉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율·이용희망율

(단위: %)

구분	이용경험율	이용희망율	구분	이용경험율	이용희망율
직업재활시설	3.0	10.9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0.4	4.5
장애인복지관 (단종복지관 포함)	9.5	20.5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8	2.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0	8.8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1.9	12.4
장애인 체육시설	2.2	15.9	장애인 재활병·의원	2.5	31.0
장애인 수련시설	0.3	7.3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3.6	2.9
장애인 심부름센터	0.4	18.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0.3	1.3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2.3	24.0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5.8	2.6
점자 도서관	0.2	0.9	특수교육지원센터	1.6	2.5
수화통역센터	0.6	1.2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0.7	11.2
장애인특별운송사업	5.4	34.8	장애아동보육시설	0.9	0.7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0	12.0	장애인단체	3.1	11.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	10.1			

다) 복지서비스 욕구

□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장(38.5%), 의료보장(32.8%), 고용보장(8.5%), 주거보장(6.4%)의 순이었음.

- 2011년과 비교할 때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의 순으로 욕구가 크게 나타나는 등 유사한 결과를 보임.

〈표 39〉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보장	38.5	17.8	11.2
의료보장	32.8	33.0	13.6
고용보장	8.5	11.4	12.6
주거보장	6.4	14.6	18.0
이동권 보장	1.8	4.1	6.3
보육교육 보장	1.7	3.0	3.6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6	3.9	7.4
장애인 인권보장	2.7	4.2	8.4
장애인 인식개선	2.2	4.0	6.7
장애예방	1.2	2.3	6.0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참여 보장	0.6	0.7	1.8
재난안전관리	0.5	0.8	2.7
기타	0.3	0.1	0.3
없음	1.3	0.1	1.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46,064	2,594,040	2,512,114



제1장
서 론

제1절 조사의 배경
제2절 조사의 목적
제3절 조사의 설계
제4절 보고서의 구성

1 서 론

제1절 조사의 배경

인구의 고령화, 각종 사고 및 약물남용, 그리고 난치성 질환의 발생 등 다양한 장애발생 위험요인의 증가에 의해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 개념이 의료적 모델 중심의 개념에서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사회적 모델의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장애인구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실제 2000년대 이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구는 2000년 약 1,449,496명이던 것이 2011년에는 2,683,477명으로 나타나 지난 10여년간 장애인구가 1,233,981명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도 장애인의 '재활'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전환되는 등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욕구도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다. 장애유형이 15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특성이 다양하고, 유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전 생애주기, 그리고 보건, 교육, 취업,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각각 차별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해 왔다. 최근의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연금제도'(2011), '장애인활동지원법'(2011),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2013) 등으로 증가하는 장애인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생활 도입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 및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관련 제도 및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실태와 이에 근거한 정책 개발이 필요시 된다. 즉,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전통적인 욕구 이외에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등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대상인 장애인의 장애특성,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의 생활실태, 그리고 복지욕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1980년의 제 1차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이후 2011년까지 8차에 걸쳐 장애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2], 2014년에 실시되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는 9차 실태조사에 해당된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애출현율 통계 지표를 생산할 뿐 아니라, 전국 장애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1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법 제31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또한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 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 상황에 관한 사항
6.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 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

2) 장애인실태조사가 1차로 실시된 1980년 이후 2005년까지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매 5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어 왔으나, 2008년부터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등 최근의 장애인 정책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 18조 제2항).

제2절 조사의 목적

장애인 실태조사는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며(「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보건 및 교육 특성, 경제적 특성,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3절 조사의 설계

1. 조사방법

장애인 관련 통계생산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통계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중요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OECD등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장애인 관련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작성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관련 통계의 수집방법으로는 크게 인구센서스에 의한 방법과 가구표본조사에 의한 방법이 있고, 이외에 제3의 방법으로 장애인등록과 같이 행정기관의 기록에 의하여 장애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인구센서스에 의한 방법과 가구표본조사는 조사방법으로서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센서스는 장애인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어 과소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조사 항목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실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가구표본을 추출하여

이들 가구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장애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표본조사에 의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구의 출현율, 장애인구의 다양한 특성 그리고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김성희 외, 2013).

2. 조사규모

2014년에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는 1980년, 1985년, 1990년[3],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에 이은 제9차 조사이다. 1980년의 경우 조사대상지역은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1985년에는 1984년도 상주인구조사를 사용하였다. 1990년에는 1985년도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이용하였고, 1995년에는 1990년도 인구센서스 조사구, 2000년에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2005년에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이용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2008년에는 비장애인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지적이 있어서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등록장애인 DB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다시 2005년도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이용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고,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2010년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이용하였다.

2014년 조사는 200개 조사지역 48,344대상 가구 중 38,56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장애인은 6,824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다.

〈표 1-3-1〉장애인실태조사 현황 비교

	조사지역수	대상가구수	완료가구수	완료율	조사완료 가구원수	조사장애인수
2014년도	200지역	48,344가구	38,560가구	79.8%	104,703명 (2.72명 /가구)	6,824명
2011년도	200지역	47,458가구	38,231가구	80.6%	105,496명 (2.76명 /가구)	6,010명
2005년도	200지역	45,285가구	40,556가구	89.6%	199,306명 (2.94명 /가구)	5,466명
2000년도	200지역	44,128가구	39,411가구	89.3%	123,721명 (3.14명 /가구)	4,125명
비고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감소	

3) 실제 조사는 1991년에 실시되었으나 조사결과는 「199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에 수록되어 있음.

시설장애인 조사는 2008년까지는 재가장애인과 별도로 시설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1년 조사부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통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현황이 파악됨에 따라 2014년 실태조사도 동일하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통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현황 즉, 장애인·아동·노인·모부자·부랑인·한센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이전의 시설장애인 조사는 1980년 당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1985년에는 보건사회부의 기존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으며, 1990년에는 6종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부녀, 부랑인수용시설 및 정신요양원) 677개소를 대상으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95년에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부녀, 부랑인수용시설 및 정신요양원) 748개소를 대상으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유형별 장애인 총수만을 파악하였다. 2000년 조사에서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883개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정신의료 시설) 거주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875개소(99.1%)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2005년 조사에서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1,063개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시설) 거주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052개소(99.0%)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2008년 조사에서는 총 1,068개의 생활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모부자,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결핵)내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872개소(81.6%)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2008년에는 2000년 및 200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장애유형 파악 외에 장애인 개인의 성 및 연령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개별장애인에 대하여 성·연령 등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모두 조사하였다.

3. 조사내용

1980년, 1985년, 1990,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그리고 2011년에 실시된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 포함되었던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80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주거형태, 가구주 직업,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 여부 및 직업, 월 평균 가구소득, 장애인 거주 여부

2) 장애공통조사

직업, 월 수입, 현 활동상태,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의료보호대상자 여부, 의료보험 가입 여부, 국가지원 수혜 여부 및 종류, 교육 수혜 여부, 무학 이유, 가족 또는 친척 중 장애인 유무 및 장애종류,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장애유형, 상담 또는 검사여부, 치료 여부, 주요 치료처, 미치료 이유, 치료효과, 장애인의 가정경제에의 영향정도, 요망사항, 취업노력여부 및 미취업 이유, 직업훈련 또는 취업희망분야, 자립가능정도, 보장구 사용 여부 및 종류, 보장구 미사용 이유, 지체장애부위, 장애정도

나. 1985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의료보장 종류, 결혼상태, 가구주 직업,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여부 및 직업, 생활비 마련방법, 월 평균 가구소득, 장애인 거주 여부

2) 장애공통조사

치료여부, 첫 치료처, 첫 치료시기, 첫 치료 이후의 치료여부 및 치료처, 전문치료기관(의사)에서의 치료시기, 가장 오래 이용한 치료기관, 치료 종류, 시각장애인의 훈련 종류, 청각장애인의 청력훈련 여부 및 수화·구화 여부, 재활치료·상담훈련기관 종류, 지체장애·지적장애·시각장애인의 보장구 사용 여부 및 사용종류, 보장구 미사용시 필요성 여부, 보장구 필요시 미사용 이유, 의사의 진단명, 남의 도움 필요정도, 의사치료를 못 받은 이유, 활동상태, 직업, 취업시기, 무직 이유, 직업훈련 또는 취업희망 여부, 희망 직업 종류, 개인적 희망사항, 국가에의 요구사항

3) 장애유형별 조사

① 지체장애: 장애부위, 지체장애 종류,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② 시각장애: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희망하는 호칭

③ 청각장애: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장애정도, 보청기 사용여부, 보청기 구입처, 보청기 첫 착용시기, 보청기 미사용 이유

④ 언어장애: 언어장애 종류,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⑤ 지적장애: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다. 1990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의료보장 종류, 결혼상태, 직업, 종사상 위치(고용형태), 장애인 거주 여부, 주거형태, 월 평균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지출

2) 장애공통조사[4]

남의 도움 필요정도, 건강상태, 첫 치료처, 첫 치료시기, 즉시 의사치료를 안받은 이유, 의사방문전 처치방법, 의사의 충분한 치료여부,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향후 치료시 호전가능성 여부, 보장구 소지 또는 사용 여부, 사용보장구 종류, 보장구 소지시 미사용 이유, 필요 보장구여부 및 종류, 필요보장구 미사용 이유, 미취학아동의 치료·교육기관 이용여부, 미취학아동의 치료·교육기관 불이용 이유, 재학생 이용 학교 종류, 학교생활시 불편사항, 유직자의 직업, 현 직업 취업시기, 장애로 인한 현 직업에서의 지장정도 및 어려움 종류, 월 평균 수입, 수입의 주요 지출처, 현 보수의 적정 여부,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및 수혜기관과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 종류, 직업소개 여부 및 소개직장 취업 여부, 소개직업에의 만족 여부, 복지서비스 희망 여부 및 희망서비스 종류, 희망직업훈련 종류[5], 무직이유, 취업 희망 여부 및 희망 직업 종류, 희망 고용형태, 직업훈련 희망 여부 및 희망 직업훈련 종류[6], 등록제도 인지 여부, 등록 희망 여부,

4) 지적장애는 지적장애인용 조사표에 의해 조사함.
5) '유직자의 직업~희망직업훈련 종류'까지는 14~60세 이하의 유직자 대상 설문임.
6) '무직 이유~희망직업훈련 종류'까지는 14~60세 이하의 무직자 대상 설문임.

등록제도 인지경로, 등록 여부, 미등록 이유, 장애인 본인의 필요사항, 수용시설 입소 희망 이유, 가족의 필요사항, 국가에의 요구사항, 여가활용방법

3) 장애유형별 조사

① 지체장애: 장애부위, 장애발생시기, 장애정도, 의사진단 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원인

② 시각장애: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의사진단 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원인, 본인 또는 식구 중 눈 수술 여부 및 수술종류, 인공수정체 삽입 여부

③ 청각장애: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의사진단 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원인, 언어소통방법

④ 언어장애: 장애발생시기, 의사진단 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원인, 언어소통방법, 언청이 수술여부

⑤ 지적장애: 장애발생시기, 장애 인지시기, 장애인지 경로, 의사진단 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원인, 남의 도움정도, 첫 치료처, 의사 치료시기, 즉시 의사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의사 치료전 조치종류, 의사의 충분한 치료 여부,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추후 치료시 호전 가능성, 보장구 소지 또는 사용 여부, 사용보장구 종류, 보장구 사용 여부, 보장구 미사용 이유, 필요 보장구 여부 및 종류, 필요시 미사용 이유, 장애인 본인의 필요사항, 수용시설 입소희망 이유, 가족의 필요사항, 국가에의 요구사항, 여가활용방법

라. 1995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

가) 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가구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활동 분야 및 종사상의 지위, 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여부, 총가구원 수, 세대수, 가구 월 평균 소득 및 지출, 가구의 주된 수입원, 주택형태, 주택소유 유형, 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의 유무 등을 포함시켰다.

나) 장애인 유무: 조사가구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구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의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 장애인 조사

가) 장애종류별 특성

- 지체장애: 장애유무, 장애부위, 장애증상, 장애발생시기, 주된 원인, 일상생활동작 능력점수(Modified Barthel Index)
- 시각장애: 장애증상, 시력인지 유무, 시력, 점자해독 능력, 장애발생시기, 주된 원인
- 청각장애: 장애증상, 보청기 사용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원인
- 언어장애: 장애유무,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원인
- 지적장애: 지적장애 유무, 장애발생시기, 장애정도(사회성숙도검사 점수), 주된 원인

나) 장애공통 사항

- 주된 장애,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장애진단 유무, 치료유무, 진단시기, 진단처, 치료시기, 치료처, 치료받지 않은 이유, 치료의 충분도
- 건강 및 질병: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의료기관 이용 여부, 이용빈도, 급성질환 유무
- 일상생활 및 보장구: 생활불편 정도, 일상생활 자립정도, 보호자 유무, 주보호자, 보호 충분도, 보호비용 지불 여부, 보호자 고용 의향, 보장구 소지 여부 및 종류, 보장구 활용 정도, 보장구 필요 여부 및 종류
- 여가 및 사회활동: 여가활동 종류, 사회활동 참여정도, 월 평균 외출빈도, 외부활동시 불편정도, 주요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 경제상태: 연금수혜 여부, 경제적 어려움 정도, 주관적 월 생활비, 추가생활비
-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 생활만족도, 주된 의논 상대, 사회적 차별의 경험, 장애로 인한 정신적 부담정도, 일반인에 대한 인식, 본인의 장애인 자각 여부

-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장애인 등록제도 인지 여부, 인지경로, 등록 여부, 장애등급, 장애등록의 혜택정도, 미등록 이유, 장애인복지사업 인지도, 복지기관 이용 여부, 희망하는 서비스,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주택개조 필요성
- 교육: 재학중인 학교, 학교생활 적응도, 학교생활의 어려움
- 고용 및 직업재활: 취업상태, 취업시기, 직업훈련 이수경험, 직업훈련 종류, 직업훈련처, 직업훈련 희망 여부, 현직업 취업경로, 월 평균 수입, 장애로 인한 어려움, 미취업 이유, 취업희망 여부, 취업희망 직종, 취업희망 형태

마. 2000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표

조사가구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활동 분야 및 종사상의 지위, 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여부, 총가구원 수, 가구 월 평균 소득액 및 지출액, 가구의 주된 수입원,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유무 등을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2000년 실태조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여부, 한 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 생활비목별 지출액 등을 새로운 조사항목으로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조사되었던 세대수 항목은 2000년 조사에서 삭제하였다.

조사가구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구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자폐증),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의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상에서 제시된 법정장애인 이외에 향후 범주확대가 예상되는 장애유형 즉, 호흡기장애, 만성간질환,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외부기형 및 피부질환, 만성통증, 뇌전증(간질) 등 경련장애, 암, 기타의 질환에 대해서도 해당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개별조사표

가) 장애유형별 특성

①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부, 장애발생 부위 및 종류,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 주된 장애원인, 일상생활동작 능력점수(Modefied Barthel Index)

②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종류, 마비 정도, 기타 동반장애 유무,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 출생장소 및 방법, 주된 장애원인, 일상생활동작 능력점수(Modefied Barthel Index)

③ 시각장애: 시각장애 여부, 시력인지 여부 및 시력, 점자해독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④ 청각장애: 청각장애 여부, 보청기 사용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⑤ 언어장애: 언어장애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⑥ 지적장애: 지적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장애정도(언어능력과 학습능력정도), 주된 장애원인

⑦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발달상의 특성, 지적장애 및 경련성질환 동반여부

⑧ 정신장애: 정신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정신질환명,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도

⑨ 신장장애: 신장장애 여부,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및 투석시작연령, 신장이식 여부 및 신장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⑩ 심장장애: 심장장애 여부, 장애발생 시기, 장애정도, 주된 장애원인

나) 장애공통 사항

-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주된 장애, 주된 장애원인의 진단 여부·최초 진단연령 및 진단장소, 장애진단 여부, 최초 진단연령 및 진단장소, 주된 장애의 최초 치료시기 및 즉시 치료받지 않은 이유, 최초 치료기관, 치료의 충분도, 현재 장애치료 여부, 치료기관 및 치료받지 않은 이유
- 보호여부: 일상생활원조 필요도, 주보호자 유무 및 주보호자, 주보호자의 소득활

동지장 여부, 현재 보호의 충분도, 보호비용 지불 여부, 월 평균 보호일수, 1일 평균 보호시간, 보호로 인한 월 평균 지출비, 외부의 보호인 고용의향

- 보장구: 보장구 소지 여부, 보장구 종류별 소지 여부, 보장구 활용도, 보장구 미활용의 주된 이유, 필요 보장구 유무, 필요 보장구의 종류, 필요 보장구 미구입 이유
- 여가 및 사회활동: 단독외출 능력, 지난 1년간 외출빈도, 외출의 주된 목적,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현재 거주주택의 개조 필요성, 융자받을 경우 개조의향 여부, 종교형태, 문화·여가활동 종류별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유무
- 경제상태: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정도, 연금(일시금)수혜 여부, 차량소유 여부, 장애인가구의 필수품목 보유 또는 이용실태, 장애로 인한 추가소용비용 유무, 추가소요비용의 주된 용도, 월 추가소요비용 총액
-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 주관적인 건강상태, 현재 생활만족도, 주된 상담자,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본인의 장애인 자가 여부
-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장애인 등록제도 인지 여부, 등록 희망 여부, 인지경로, 등록여부, 장애종류 및 등급, 등록시기, 장애등록의 혜택정도, 미등록 이유, 장애인복지사업의 인지·이용경험 여부, 장애인 복지관련기관 인지·이용경험·이용희망 여부,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정보통신기기 보유(사용) 여부·미보유(사용) 이유 및 향후 보유(사용)계획
- 교육: 다녔거나 재학 중인 학교의 종류, 취학시기, 학교생활 적응도, 학교생활의 어려움, 통학방법, 통학시간
- 취업 및 직업재활: 취업여부, 취업형태, 현 직장 취업기간, 1주일 평균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액,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 현재 취업만족도, 지난 1개월간 구직경험 여부, 미취업 또는 구직하지 못한 주된 이유, 취업희망 여부, 취업희망 근무형태 및 직종, 취업희망 기관, 희망취업형태, 직업훈련 경험 여부, 직업훈련 받지 않은 이유, 희망직업훈련 분야, 직업재활에 대한 국가요구사항

바. 2005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표

조사가구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활동 분야 및 종사상의 지위,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여부 및 형태, 총가구원 수, 가구유형, 가구 월 평균 소득액 및 지출액, 가구의 주된 수입원, 한 달 동안의 최소한의 생활비,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뇌전증)장애)의 유무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2000년 실태조사에서 가구조사표에 있던 연금가입과 생활비목별지출액은 개별조사표의 경제상태로,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여부는 개별조사표의 장애인보조기구로 이동하였다.

조사가구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구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뇌전증)장애인의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상에서 제시된 법정장애인 이외에 향후 범주확대가 예상되는 장애유형 즉,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기타의 질환에 대해서도 해당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개별조사표

가) 장애유형별 특성

①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부, 장애발생 부위 및 종류,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 주된 장애원인

②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종류, 마비 정도, 기타 동반장애 유무,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 출생장소 및 방법, 주된 장애원인

③ 시각장애: 시각장애 여부, 시력인지 여부 및 시력, 점자해독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④ 청각장애: 청각장애 여부, 보청기 사용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

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⑤ 언어장애: 언어장애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⑥ 지적장애: 지적장애 여부, 장애정도(언어능력과 학습능력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⑦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여부, 발달상의 특성, 지적장애 및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⑧ 정신장애: 정신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정신질환명,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도, 주된 장애원인

⑨ 신장장애: 신장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및 투석시작연령, 신장이식 여부 및 신장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⑩ 심장장애: 심장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⑪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⑫ 간장애: 간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⑬ 안면장애: 안면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⑭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⑮ 간질(뇌전증)장애: 간질(뇌전증)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나) 장애공통 사항

-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주된 장애, 주된 장애원인의 진단여부·최초 진단연령 및 진단장소, 장애진단 여부, 최초 진단연령 및 진단장소, 주된 장애의 최초 치료시기 및 즉시 치료받지 않은 이유, 최초 치료기관, 치료의 충분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현재 장애치료 여부, 치료기관 및 치료받지 않은 이유,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 일상생활지원: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일상생활원조 필요도, 주보호자 유무 및 주보호자 유형, 주보호자와의 동거 여부, 주보호자의 건강상태, 주보호자의 소득활동지장 여부, 현재 보호의 충분도, 보호비용 지불 여부, 월 평균 보호일수, 1일 평균 보호시간, 보호로 인한 월 평균 지출비, 외

부의 보호인 고용의향

-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장애인보조기구 종류별 소지 및 필요 여부,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정도, 장애인보조기구 미활용의 주된 이유,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미구입 이유, 정보통신기기별 보유 및 사용 여부, 보유·사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 보유·사용계획
- 보육·교육: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 형태(유형,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다니지 않는 이유), 현재 다니는 유치원 형태(유형,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다니지 않는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조기교육시설(유형,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다니지 않는 이유), 지금까지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형태(초·중·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학교생활적응정도, 학교생활시 문제점, 학교까지 통학방법, 집↔학교 통학시간, 낮시간 또는 방과후 시간 활용 방법, 가정방문학습도우미 활용의향
- 취업 및 직업생활: 지난 1주간 주 활동분야, 지난 1주간 수입목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험 여부, 지난 주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는지 여부, 직장이 있는데 일하지 않은 이유, 지난 주 구직 여부, 지난 4주 구직 여부, (취업자 경우) 지난 1주간 일한 총시간, 현재 일하는 곳, 현 직장 근무기간, 1주일 평균 근무일 및 1일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수입액, 직장에서의 지위, 현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사항, 현재 하는 일의 만족정도, (실업자 경우) 지난 주 일이 있었다면 일할 의사 여부, 구직방법, 공공직업알선기관 형태, (비경제활동인구 경우) 지난 4주내 구직하지 않은 이유,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경우)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직업훈련 관련) 직업훈련받은 경험 여부, 받지 않은 주된 이유, 향후 희망 직업훈련 분야,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 경제상태: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정도, 개인소득의 수입원, 연금가입 여부, 국민연금가입기간, 국민연금 미납경험 여부, 연금(일시금)수혜 여부, 차량소유 여부(차종, 배기량, 연료, 명의, 주차표지, 용도), 장애로 인한 추가소용비용 유무, 추가소요비용의 주된 용도, 월 추가소요비용 총액, 노후생활대책
- 결혼생활/여성장애인: 결혼 여부, 결혼 연령,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결혼당시 본인 및 배우자 장애 여부, 배우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 자녀 여부 및 자녀수, 장애자녀 여부 및 장애자녀의 장애유형·등급, 자녀없는 경우 그 이 유, 장애로 인한

자녀성장·발달지장 여부, 장애로 인한 자녀양육·교육시 어려운 점, 가사일 참여정도 및 가사일 하지 않는 이유, (임신경험 있는 경우) 임신당시 장애여부,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 마지막 임신에 의한 출산 여부, 출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산후조리해 준 사람, 산후조리 충분정도, 여성장애인대상 가장 필요 서비스

- 여가 및 사회활동: 단독외출 능력, 지난 1년간 외출빈도, 외출의 주된 목적,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현재 거주주택의 개조 필요성, 개조하고 싶은 곳, 종교형태, 문화·여가활동 종류별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유무,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지난 1년간 국내여행 경험 여부, 국내여행형태, 국회의원 선거 투표여부, 투표하지 않은 이유
-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 주관적인 건강상태, 현재 생활만족도, 주된 상담자, 장애로 인한 무시나 폭력 경험 여부, 무시·폭력유형, 무시·폭력하는 가족구성원,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 여부, 주된 상담자, 상담을 하지 못한 이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 해결 기관 필요정도, 영역별 사회적 차별경험정도 및 대처방법, 본인에 대한 차별인식정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장애인 등록제도 인지 여부, 등록시 장애유형 및 등급, 등록시기, 장애등록의 혜택정도, 미등록 이유, 장애인복지사업의 인지·이용경험 여부, 장애인 복지관련기관 인지·이용경험·이용희망 여부, 향후 살기원하는 형태,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복지시설,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사. 2008년 실태조사

1) 개별조사표

가) 장애인의 일반특성

- 성별, 출생년월, 연령, 최종학력, 지금까지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형태(초·중·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결혼상태, 활동분야, 종사상 지위, 간강보험 가입여부 및 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 여부 및 형태, 장애등록연도, 장애유형, 장애등급, 총가구원수 및 장애인수, 가구유형, 가구주

나) 장애유형별 특성

①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부, 장애발생 부위 및 종류,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 주된 장애원인, 진단명

②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종류, 마비 정도, 기타 동반장애 유무,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 출생장소 및 방법, 주된 장애원인, 진단명

③ 시각장애: 시각장애 여부, 시력인지 여부 및 시력, 점자해독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④ 청각장애: 청각장애 여부, 보청기 사용 여부,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⑤ 언어장애: 언어장애 여부, 언어장애종류,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⑥ 지적장애: 지적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⑦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여부, 지적장애 및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⑧ 정신장애: 정신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정신질환명,

⑨ 신장장애: 신장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및 투석시작연령, 신장이식 여부 및 신장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⑩ 심장장애: 심장장애 여부, 장애발생 시기, 심장이식 여부 및 심장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⑪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 여부, 장애발생 시기, 산소치료사용 여부 및 일평균사용시간,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및 사용시 어려운점, 중단한 이유, 주된 장애원인

⑫ 간장애: 간장애 여부, 장애발생 시기, 간이식 여부 및 연령, 주된 장애원인

⑬ 안면장애: 안면장애 여부,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⑭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장애 여부,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⑮ 뇌전증(간질)장애: 뇌전증(간질)장애 여부,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다) 장애공통 사항

• 보건·의료: 주된 장애, 주된 장애의 최초 치료시기 및 즉시 치료받지 않은 이유,

주관적 건강상태, 최근 2년간 건강검진 받은 경험 여부 및 내용, 외래치료경험, 외래치료 회수, 외래치료 비용부담, 외래치료 만족도, 입원치료경험, 입원회수 및 입원기간, 입원비 부담, 입원치료 만족도, 만성질환여부,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및 이유,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 일상생활지원: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일상생활원조 필요도, 주보호자 유무 및 주보호자 유형, 주보호자와의 동거 여부, 주보호자의 건강상태, 주보호자의 소득활동지장 여부, 현재 보호의 충분도, 보호비용 지불 여부, 월 평균 보호일수, 1일 평균 보호시간, 보호로 인한 월 평균 지출비, 외부의 보호인 고용의향
-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종류별 소지 및 필요여부, 사용여부,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미구입 이유, 장애인보조기구 미활용의 주된 이유,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지원 경험 여부 및 지원내용, 구입 경로,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된 평가·상담 경험 여부, 장애인보조기구 만족도,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 지원사업의 개선점, 정보통신기기별 보유 및 사용 여부, 보유·사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 보유·사용계획
- 보육·교육: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 형태(유형,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다니지 않는 이유), 현재 다니는 유치원 형태(유형,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다니지 않는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이용여부,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정도, 학교생활시 문제점, 학교까지 통학방법, 집↔학교 통학시간, 낮시간 또는 방과후 시간 활용 방법, 가정방문학습 도우미 활용 의향,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점
- 취업 및 직업생활: 지난 1주간 주 활동분야, 지난 1주간 수입목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험 여부, 지난 주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는지 여부, 직장이 있는데 일하지 않은 이유, 지난 주 구직 여부, 지난 4주 구직 여부, (취업자 경우) 지난 1주간 일한 총시간, 현재 일하는 곳, 현 직장 근무기간, 1주일 평균 근무일 및 1일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수입액, 직장에서의 지위, 현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사항, 현재 하는 일의 만족정도, (실업자 경우) 지난 주 일이 있었다면 일할 의사 여부, 구직방법, 공공직업알선기관 형태, (비경제활동인구 경우) 지난 4주 내 구직하지 않은 이유,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경우)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직업훈련 관련) 직업훈련받은 경험 여부, 받지 않은 주된 이유, 향후 희망 직업훈련 분야,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 사회 및 여가활동: 단독외출 능력, 지난 1년간 외출빈도, 외출의 주된 목적,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지난 주 주된 여가활동 내용, 앞으로 하고싶은 여가활동 내용,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국회의원 선거 투표여부, 투표하지 않은 이유
- 결혼생활/여성장애인: 결혼 여부, 결혼 연령,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결혼당시 본인 및 배우자 장애 여부, 배우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 자녀 여부 및 자녀수, 장애자녀 여부 및 장애자녀의 장애유형·등급, 자녀없는 경우 그 이유, 장애로 인한 자녀 성장·발달지장 여부, 장애로 인한 자녀양육·교육시 어려운 점, 가사일 참여정도 및 가사일 하지 않는 이유, (이혼경험이 있는 경우) 이혼사유, 현재 자녀양육자, (임신경험 있는 경우) 임신당시 장애여부,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 마지막 임신에 의한 출산 여부, 출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산후조리해 준 사람, 산후조리 충분정도, 여성장애인대상 가장 필요 서비스,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운 점
-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현재 생활만족도,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여부, 문제 발생시 주된 상담자, 장애로 인한 무시나 폭력 경험 여부, 무시·폭력유형, 무시·폭력하는 가족구성원,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 여부,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 시기, 가해자 유형, 대처방법, 주된 상담자, 상담을 하지 못한 이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 해결 기관 필요정도, 영역별 사회적 차별경험 및 대처방법, 본인에 대한 차별인식정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주거: 현재 살고 있는 집 형태, 주거위치, 소유형태, 주택 구조·성능 및 환경, 주거복지사업 경험 여부 및 만족도, 현재 거주주택의 생활편리정도, 현재 거주주택의 개조 필요성, 개조하고 싶은 곳,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 복지서비스: 장애등록의 혜택정도, 장애인복지사업의 인지·이용경험 여부,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인지·이용경험·이용만족도·이용희망 여부, 향후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 경제상태: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정도,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의 실제 월평균 지출금액, 가구소득의 수입원, 개인소득의 수입원, 연금가입 여부, 국민연금 미납경험 여부, 차량소유 여부(차종, 배기량, 연료, 명의, 주차표지 종류, 용도,

운전자), 가족이 한달간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 박탈경험,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유무, 추가소요비용의 주된 용도, 월 추가소요비용 총액,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영역별 비용 및 총액

아. 2011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표

조사가구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이 있으며, 가구원의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등록여부, 장애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록연도, 등록 장애유형, 장애등급에 대한 내용이 있다.

가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는 총 가구원 수, 가구내 총 장애인 수, 가구유형, 월평균 가구소득액, 가구의 주된 수입원, 월평균 가구지출액, 주택 형태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장애인 가구, 장애인 가구를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가구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구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정장애유형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뇌전증) 장애의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정 장애유형 외에 향후 범주확대가 예상되는 장애유형, 즉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기타 질환에 대해서 유무와 대략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개별조사표

가) 장애특성

①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부, 장애발생 부위 및 종류,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 주된 장애원인

②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종류, 마비 정도, 기타 동반장애 유무,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 출생장소 및 방법, 주된 장애원인

③ 시각장애: 시각장애 여부, 시력인지 여부 및 시력, 점자해독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④ 청각장애: 청각장애 여부, 보청기 사용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⑤ 언어장애: 언어장애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⑥ 지적장애: 지적장애 여부, 장애정도(언어능력과 학습능력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⑦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여부, 발달상의 특성, 지적장애 및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⑧ 정신장애: 정신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정신질환명,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도, 주된 장애원인

⑨ 신장장애: 신장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및 투석시작연령, 신장이식 여부 및 신장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⑩ 심장장애: 심장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⑪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⑫ 간장애: 간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⑬ 안면장애: 안면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⑭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⑮ 뇌전증(간질)장애: 뇌전증(간질)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나) 장애공통 사항

- 보건·의료: 장애등록여부, 장애등록시기, 등록이후 혜택 정도, 장애등급 재심사 여부 및 등급 조정 여부,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주관적 건강상태, 지난 2년간 건강검진 경험 여부, 만성질환 유무, 치료·재활·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는지 여부, 진료받는 장소, 안받는 이유, 병의원에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한 경험 유무, 건강보험가입여부 및 형태, 필요한 보건의료기관 및 서비스,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유형, 이용 여부 및 시간·월비용,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지난1년간 키나 몸무게 측정여부, 흡연 및 음주 현황

- 일상생활지원: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영역, 재활영역현황, 일상생활도움 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유무 및 주보호자, 주보호자와의 동거 여부 및 계속적인 도움 필요 여부, 현재 도움의 충분정도, 일상생활 도와줄 외부인 고용의향
-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종류별 필요·소지 여부, 필요 보조기구의 미구입 주된 이유, 보조기구 구입시 외부지원 여부·지원받은 곳·지원받은 형태, 지원수준의 만족도, 보조기구의 확보 경로, 보조기구 활용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보조기구 사용 만족도, 보조기구 급여지원사업에서의 개선사항,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사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 사용계획
- 교육: 교육수준, 학교형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경우 그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유형·이용시간·월비용·만족도, 보육시설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유형·이용시간, 월비용, 만족도,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학교생활 적응정도, 학교생활(보육·유치원 포함)에서의 어려운 점, 통학방법, 방과후 교육(보육)형태,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민간개인연금 상품 가입의향,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 및 이용프로그램 수, 지난 1년간 자기부담금액, 향후 희망하는 평생교육 분야,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 취업 및 직업생활: 지난 1주간 주 활동분야, 지난 1주간 수입목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험 여부, 지난 주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는지 여부, 직장이 있는데 일하지 않은 이유, 지난 주 구직 여부, 지난 4주 구직 여부, (취업자의 경우) 지난 1주간 일한 총시간, 현재 일하는 곳, 현 직장 근무기간 등
- 사회 및 여가활동: 단독 외출 가능 여부, 지난 1년간 외출 빈도, 외출의 주된 목적,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이동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주된 이유, 지난 1주간 여가활동 내용,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선거투표 여부 및 투표하지 않은 이유
- 결혼생활/여성장애인: 결혼 여부, 결혼 연령, 결혼당시 본인 및 배우자 장애여부, 배우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 본인 및 배우자 출생지,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자녀 여부 및 자녀수, 장애자녀 여부 및 장애자녀의 장애유형·등급, 자녀없는 경우

그 이유, 장애로 인한 자녀성장·발달지장 여부, 장애로 인한 자녀양육·교육시 어려운 점, 이혼경험 있는 경우 이혼 사유,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 (임신경험 있는 경우) 임신당시 장애여부,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유산경험 여부, (출산경험 있는 경우) 마지막 임신에 의한 출산여부, 출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산후조리해 준 사람, 산후조리 충분정도, 여성장애인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 여성장애인으로서 어려웠던 점

-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현재 생활 만족도,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 정도 및 주된 상담자, 가족의 장애를 이유로 한 무시·폭력 경험 여부 및 받은 폭력유형, 무시·폭력하는 주가족원, 타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 여부 및 시기, 주된 성폭력자, 성폭력시 대처방법 및 주 상담자, 상담하지 못한 이유, 장애인 가정·성폭력상담시설 필요정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및 대처방법, 본인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 주거: 현재 주거형태 및 위치, 소유형태, 거주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지난 1년간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의 이용여부 및 만족도, 집구조의 편리정도, 집구조의 개조의향, 향후 희망주거유형 및 형태
- 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사업의 이용경험 여부,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의 이용경험·이용희망, 복지관련 정보 획득처,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 경제상태: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 여부 및 형태, 가구 및 개인의 지난 1개월간 월평균 수입원 및 수입액, 연금가입현황, 차량 소유여부(차종, 연료사용, 자동차 소유현황, 장애인자동차 표지종류, 용도, 운전자),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보호·간병비, 재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대비비, 기타)

이상에서 보듯이 이전에 실시되었던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포함되었던 조사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며, 1985년부터 가구조사와 장애공통조사 이외에 각 장애유형별로 개별조사표가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고, 2008년에는 가구조사가 없어지고 기존의 개별조사표를 활용하여 장애인심층조사표(기존 개별조사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다시 기존 방식대로 가구조사와 심층조사(장애유형별 조사, 장애공통조

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은 2014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장애인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 통계의 작성과 장애인복지 지표를 포함한 장애인 관련 지표를 생산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기본조사이며, 조사의 내용이 과거 조사와 비교하여 일관성 있게 짜여져 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에 공통적인 조사항목이 포함될 때, 이를 이용한 지속적인 장애인 관련 지표의 작성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욕구 변화 등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종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제4절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모두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장애인 실태조사의 실시 배경을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조항 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설명하였으며, 이와 함께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 규모,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 표본설계 개요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표본추출 절차와 조사지역에 따른 가중치의 부여방식, 추정산식 등을 다루었다. 제3장의 조사표 개발 및 조사의 실제에서는 조사표를 개발한 과정과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조사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조사지침, 사전조사, 조사원 선발 및 구성, 현지 조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조사결과의 회수 및 자료입력, 검토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의 장애의 범위 및 정의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장애의 범위와 각 장애유형별 정의 및 분류를 다루었다.

제5장의 조사결과 I 에서는 장애 출현율과 장애 인구수를 제시하였고, 제6장의 조사결과 II는 15개 장애유형별 발생 시기 및 주요 장애원인 등 장애유형별 특성과 현황을 담고 있다. 제7장의 조사결과III은 총 11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로 나누어서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8장은 11개 분야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존 연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 영역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세부적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조사표, 조사의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조사방법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였다.



제2장
표본 설계

제1절 표본 추출
제2절 가중치 조정 및 추정산식

2 표본 설계

제1절 표본 추출

1. 조사개요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수행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생성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DB 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설계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 수요에 대하여 동일한 자료로 비교할 수 없고, 장애인 출현율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구 및 장애인 발생률의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를 동시에 조사하도록 하였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실태조사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장애인 출현율 추정을 위해 2011년과 같은 방식으로 표본설계가 이루어졌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표본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 조사구로,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 지역 조사구를 제외하고, 보통 조사구(일반, 아파트)를 층화 확률 비례 추출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규모는 각 16개 시도별로 등록장애인 수에 따라 제곱근 비례 배분하여 층별로 표본수를 결정하였으며, 표본조사구는 1,004개를 추출하였고, 무응답 및 조사거절, 재개발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251개 조사구를 예비 조사구로 추출하여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각 조사구당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출현율을 고려하여 조사구내의 45가구를 접촉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는 최대 접촉가구를 45,180가구로 고려하였을 경우, 경험적으로 장애 출현율을 최소 10%로 산정하여, 장애인이 최소 4,500명 정도가 조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본규모이다. 2000년부터 장애인 실태조사의 연도별 표본규모를 비교한 표는 다

음과 같다.

〈표 2-1-1〉 연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본규모

(단위: 가구, 명)

구분	2000년	2005년	2011년	2014년
표본가구				
추정가구 수(A)	14,677,637	15,864,809	17,574,018	18,206,328
표본가구 수(B)	39,411	40,556	38,231	38,560
B/A(%)	0.27	0.26	0.22	0.21
표본인구				
전체인구(C)	46,853,554	46,727,073	47,708,423	50,219,669
표본인구(D)	123,721	119,306	105,496	104,703
D/C(%)	0.26	0.26	0.22	0.21

주: 2000년~2011년도 자료는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자료를 참고하였으며, 2014년도는 장래인구추계(통계청, KOSIS)를 기준으로 하였음.

2. 모집단 분석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과 조사 모집단은 다음과 같다.

- 목표 모집단 : 2013년 기준 장애인
- 조사 모집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표본추출틀로 사용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장애인 가구 판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모집단과 목표모집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13년 기준 장애인 중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조사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프레임의 과소 포괄성 문제는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발생한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모집단 자료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장애인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12월 기준 지역별 등록 장애인 모집단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2,501,112명의 등록장애인 중에서 서울에 16.13%, 경기지역에 20.25%로, 약 36.38%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울산, 제주지역은 2.85%, 1.31%로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인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

애인이 전체의 52.34%를 차지했으며,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가 각각 10.13%, 10.12%, 10.21%로 4개 유형의 장애가 전체의 82.81%로 나타났다. 한편,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간질) 장애는 0.5%내외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표본 설계는 15개 장애유형이 표본에 모두 포함되어서 전체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모집단 자료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이러한 장애 유형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표본 설계에서는 반영할 수 없으며, 조사 모집단과 목표 모집단 간에 가구와 개인으로 추정의 수준이 다르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는 서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인 지역별 장애인 분포를 이용하여 이를 표본배분 단계에서 반영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1-2〉 지역별 등록장애인 규모

(단위: 명)

	총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전국	2,501,112	1,309,285	253,493	253,095	255,399	17,830	178,866	18,133
서울	403,435	204,168	44,236	43,027	41,375	2,856	23,739	4,164
부산	169,750	87,995	19,967	18,354	14,207	1,111	9,876	1,251
대구	116,567	57,925	13,267	12,228	11,536	984	8,456	878
인천	133,778	72,626	12,667	13,606	13,291	1,031	8,599	998
광주	68,372	33,408	6,915	7,361	8,234	489	5,482	571
대전	71,441	36,409	7,664	7,203	7,396	478	5,204	731
울산	71,441	25,373	4,745	4,902	6,145	302	3,484	396
세종	7,202	3,701	635	711	762	50	659	35
경기	506,464	270,229	52,020	50,087	47,438	3,533	35,331	4,450
강원	99,660	53,706	9,497	9,497	11,026	706	7,382	479
충북	93,563	48,436	8,713	8,934	9,935	620	8,973	512
충남	124,561	66,470	10,836	12,116	13,532	897	10,174	504
전북	132,006	71,618	12,547	12,061	13,654	1,076	10,920	542
전남	144,324	77,849	11,937	14,794	16,881	995	10,612	486
경북	168,836	86,924	16,867	17,053	18,685	1,167	14,104	709
경남	179,530	98,037	17,621	18,883	16,982	1,229	13,077	1,108
제주	32,673	14,411	3,359	4,231	4,320	306	2,793	319

〈표 2-1-2〉 지역별 등록장애인 규모(계속)

(단위: 명)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간질)
전국	95,675	66,551	6,928	13,150	9,194	2,696	13,546	7,271
서울	15,537	13,841	1,615	2,336	2,021	426	2,748	1,346
부산	7,739	5,326	656	1,059	506	248	919	536
대구	5,787	3,316	260	494	405	144	590	297
인천	4,316	3,925	275	709	463	144	716	412
광주	2,765	1,759	155	340	259	59	309	266
대전	2,849	2,001	169	379	255	77	374	252
울산	1,276	1,295	226	226	204	68	197	111
세종	367	123	14	48	22	7	43	25
경기	16,896	15,161	1,561	2,584	2,319	576	2,863	1,416
강원	3,070	2,138	229	708	301	86	564	271
충북	3,566	2,048	207	434	283	89	567	246
충남	5,029	2,497	263	758	362	116	699	308
전북	5,358	2,135	220	435	297	115	557	471
전남	5,731	2,531	271	768	379	94	582	413
경북	6,916	3,347	411	773	521	203	811	345
경남	7,314	4,145	305	827	487	220	842	406
제주	1,159	963	91	272	110	24	165	150

자료: 2013년 12월말 등록장애인수, 보건복지부

3. 층화 및 표본배분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표본규모는 조사비용 및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95% 신뢰수준 하에서 단순임의추출 가정으로 최대허용오차가 전체 0.46%, 16개 시도별로 1.07~3.65% 로 1,004개의 표본조사구를 고려하였다. 지역별 장애인 출현율 추정과 2011년의 결과 비교를 위해 조사 기획단계에서는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동부), 중소도시(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동부), 농어촌(9개 도 읍·면 지역) 3개 층으로 층화하여 시도별로 출현율이 낮은 특정 장애인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1-3〉 층별 표본가구수 및 조사구수

(단위: 명, 가구, 개)

층구분	등록 장애인 수	표본가구수	표본조사구수
대도시	1,017,740	17,010	380
중소도시	1,152,699	18,135	404
농어촌	340,720	9,855	220
계	2,511,159	45,000	1,004

주: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표본설계 당시, 2013년 12월 등록장애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2012년 12월 등록장애인 정보를 이용하여 표본가구수를 산출하였음.

층별로 등록장애인 규모에 따라 제곱근비례배분으로 표본조사구 1,004개를 배분하였으며, 각 조사구별로 45가구를 접촉하여 총 45,180가구를 조사하여 장애인 가구 및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 2-1-4〉 지역별 표본가구수 및 조사구수

(단위: 가구)

	표본가구수		
지역	계	동부	읍.면부
전국	45,180	35,280	9,900
서울	6,840	6,840	
부산	2,880	2,880	
대구	1,980	1,980	
인천	2,160	2,160	
광주	1,080	1,080	
대전	1,260	1,260	
울산	900	900	
경기	8,280	7,560	720
강원	1,980	1,080	900
충북	2,160	900	1,260
충남	2,520	1,440	1,080
전북	2,520	1,620	900
전남	3,240	900	2,340
경북	3,240	1,980	1,260
경남	3,420	2,160	1,260
제주	720	540	180

조사과정에서 비장애인 가구는 가구 특성만 파악하고, 장애인 가구는 가구현황과 장애인 관련 심층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총 조사완료 가구는 38,560가구이며, 이 중 장애인 가구는 6,414가구였다.

제2절 가중치 조정 및 추정산식

1. 가중치 조정

통계조사에서 가중치의 적용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크게 3단계를 거쳐 산정된다.

먼저, 설계 가중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본설계 단계에서 표본추출의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였다.

L : 층의 수

N_h : 층 h의 모집단 조사구 수

n_h : 층 h의 표본 조사구 수

S_{hi} : 층 h의 i번째 조사구의 총 가구 수

$S_h = \sum_{i=1}^{N_h} S_{hi}$: 층 h에서 총 가구 수

M_{hi} : 층 h의 i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

m_{hi} : 층 h 의 i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

r_{hi} : 층 h의 i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

설계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다음으로, 무응답 조정은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최초 목표 표본 크기를 유효 표본크기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최초 표본단위를 대체표본으로 교체(substitution)하는 경우 무응답 보정은 필요하지 않다.

무응답 조정 가중치 = $\frac{m_{hi}}{r_{hi}}$

사후층화는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가중치로 계산된 가구가중치는 16개 지역(동, 읍·면 고려), 가구원수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청 2013년 가구 추계값으로 사후 조정하였다.
최종 가중치의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최종 가중치 = 설계 가중치 × 무응답 조정 가중치 × 사후층화 가중치

장애인에 대한 가중치는, 비등록장애인의 경우 가구 최종 가중치 정보를 이용하고, 등록장애인의 경우 2013년 12월 등록장애인 정보를 이용하여 연령, 성별, 장애유형, 16개 지역별로 사후 조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최종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표 2-2-1〉 층별 가구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가구 가중치		
	비장애인 가구	장애인 가구	가구 수
서울	3,092,952	473,979	3,566,931
대도시(서울제외)	3,987,612	684,057	4,671,669
중소도시	5,675,851	951,801	6,627,652
농어촌	2,615,634	724,442	3,340,076
계	15,372,049	2,834,279	18,206,328

각 층별로 장애인 가구 출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13.29%, 대도시(서울제외)는 14.64%, 중소도시의 동부는 14.36%, 농어촌은 21.69%로, 농어촌의 장애인 출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국적으로는 15.57%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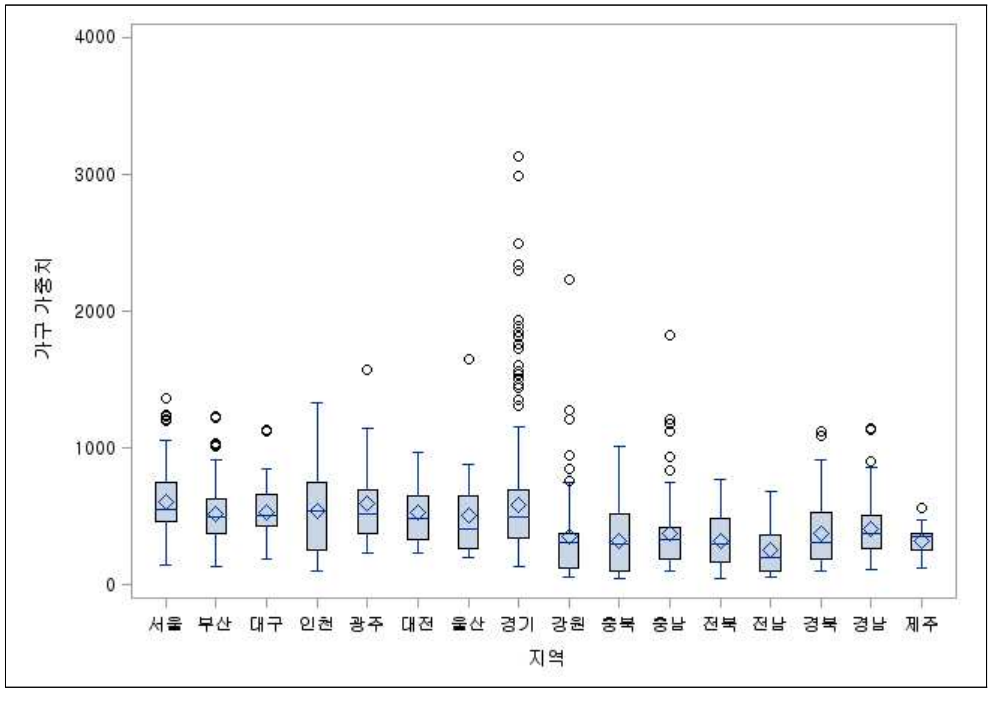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전국 장애인 규모를 추정하면 2,646,064명이며, 이 중 비등록장애인 규모는 144,952명으로 추정된다. 장애 유형별로 완료 표본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각 유형에 따른 추정치의 변동이 일정하지 않다. 또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등록장애인 모집단인, 2010년 12월 등록장애인 수는 2,517,312명이었으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경우 등록장애인 모집단인, 2013년 12월 등록장애인 수는 2,501,112명으로 2011년 조사에 비해 등록장애인수가 16,000여명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유형별로 추정치를 산정하고 출현율을 추정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2-2-2〉 장애유형별 추정장애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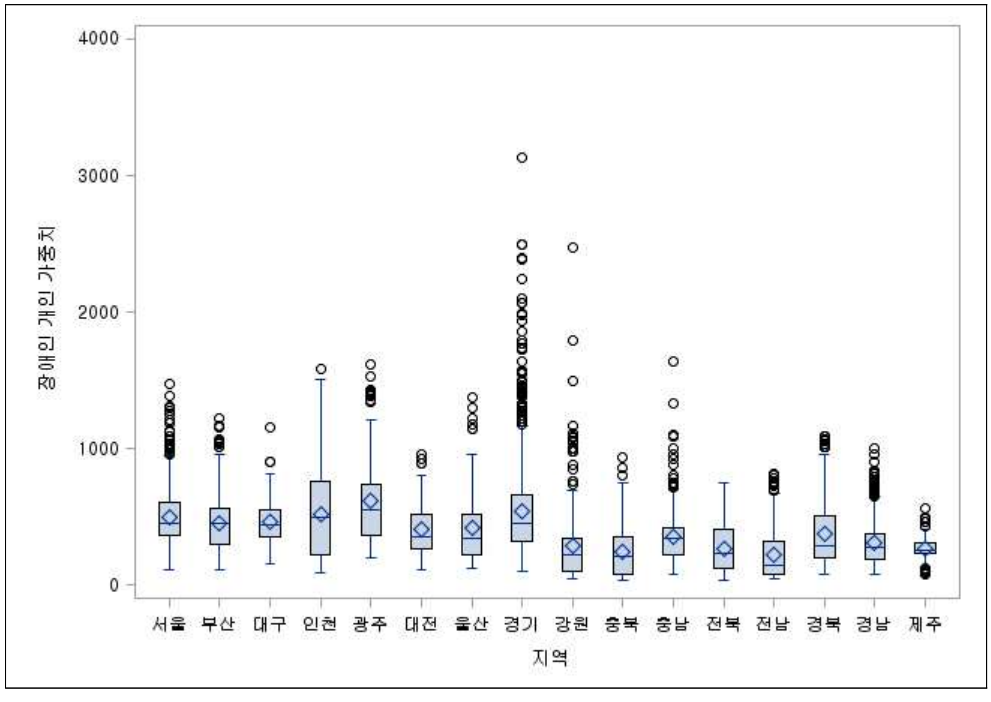
(단위: 명)

장애유형	2011년		2014년	
	표본수	추정장애인수	표본수	추정장애인수
비등록	171	93,813	299	144,952
지 체	3,170	1,337,723	3,441	1,309,285
뇌병변	562	262,746	656	253,493
시 각	583	249,259	663	253,095
청각	615	260,403	678	255,399
언어	38	17,207	51	17,830
지적	358	161,249	376	178,866
자폐	41	14,888	59	18,133
정신	177	95,821	244	95,675
신장	139	57,142	186	66,551
심장	25	12,864	20	6,928
호흡기	39	15,551	39	13,150
간	21	7,920	35	9,194
안면	11	2,696	9	2,696
장루 · 요루	35	13,072	45	13,546
뇌전증(간질)	25	9,772	23	7,271
계	6,010	2,611,126	6,824	2,646,064

〔그림 2-2-1〕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그림 2-2-2〕 지역별 장애인 개인가중치 분포



2. 추정산식

전체 가구의 평균과 추정량의 분산,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오차한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 전체 가구의 평균 산출

$$\hat{\overline{Y}} = \sum_{h=1}^{L}\sum_{i=1}^{n_h}\sum_{j=1}^{m_{hi}} w_{hij} y_{hij} / \sum\sum\sum w_{hij}$$

w_{hij}: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각 응답결과

L: 층의 수

n_h: 층 h에서의 표본 조사구의 수

m_{hi}: 층 h내 i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

$w_{...} = \sum_{h=1}^{L}\sum_{i=1}^{n_h}\sum_{j=1}^{m_{hi}} w_{hij}$: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 추정량의 분산

$$var(\hat{\overline{Y}}) = \sum_{h=1}^{L} \frac{n_h(1-f_h)}{n_h-1}\sum_{i=1}^{n_h}(e_{hi.} - \overline{e_{h..}})^2$$

L: 층의 수

n_h: 층 h에서의 조사구 수, m_{hi}는 층 h내 i번째 표본조사구의 응답자 수

$f_h = n_h/N_h$

$$e_{hi.} = \left(\sum_{j=1}^{m_{hi}} w_{hij}(y_{hij} - \bar{y})\right)/w_{...}$$

$$\overline{e_{h..}} = \left(\sum_{i=1}^{n_h} e_{hi.}\right)/n_h$$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오차한계

$s.e(\bar{y}) = \sqrt{var(\bar{y})}$: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rse(\bar{y}) = \frac{s.e(\bar{y})}{\bar{y}} \times 100(\%)$: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오차의 한계 $= 1.96 \times \sqrt{var(\bar{y})}$: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



제3장
조사표 개발 및 조사의 실제

제1절 조사표 개발
제2절 조사표의 구성 및 내용
제3절 조사의 실제
제4절 현지 조사
제5절 자료의 처리

3 조사표 개발 및 조사의 실제

제1절 조사표 개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표 개발은 1981년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과 더불어 제 8차에 걸쳐 매 5년마다 실시되었던 조사표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표를 근간으로 보완·수정되었으며, 기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장애인의 욕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내용을 신규로 조사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장애 범주와 장애 정의, 그리고 2011년 이후의 장애인복지 영역의 사회적, 제도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설계되었다.

첫째,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2003년의 2차 장애범주의 확대에 근거하여 장애 정의 및 범주에 맞게 개정을 하되, 2005년도 및 2011년 조사표 체제를 가능한 유지하여 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신규로 추가된 법정 장애범주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장애판정지침에 확정된 장애의 판정기준에 따라 조사표에 추가한다.

셋째, 확대예상 장애범주는 물론, 확대예상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외국의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범주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장애인 수를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표에 추가한다.

넷째, 새로 장애범주에 포함된 법정 장애인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 개정 이외에 기타 장애인 실태조사표의 항목에서 새로운 법정 장애의 특성에 맞게 추가 또는 변경해야 할 항목을 개정한다.

다섯째, 장애 유무 및 장애 종류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는 우선 포괄적인 장애의 정의(「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에 의한 질문을 통해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및 욕

구에 대해서는 가구조사에서 응답된 장애유형별로 구체적인 추가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한다.

특히, 장애판별을 위한 가구 및 판별조사표를 작성할 때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원은 전문의료인이 아니므로 조사문항에 의해 장애인을 판별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판별을 위한 조사 문항은 판별 기준을 엄격하게 한다.

둘째,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이나 질병기간 그리고 질병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유형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애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판정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간'에 적합하게 '1년 이상'을 참조기간으로 한다.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표는 가구 현황과 장애를 판별하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와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의해 장애인으로 판정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조사표(개별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사 실시의 원칙은 첫째,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서 법정장애인이 없는 가구로 판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만 작성한다. 둘째, 가구 및 판별조사에서 법정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1차 판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의 작성과 더불어 심층조사표를 모두 작성한다. 셋째,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서 법정장애 이외에 3차 확대예상 장애범주에 포함되는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만 작성하고 심층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앞에서 제시된 기본 원칙에 의해 설계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표는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하되 사회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조사내용들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 내용의 확대와 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하게 증가됨에 따른 관련 조사항목들이 추가되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새로이 개발된 장애인 실태조사표 조사항목들을 가구 및 판별조사표, 심층조사표(장애유형별 특성,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제2절 조사표의 구성 및 내용

1. 조사표의 구성

본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와 심층조사표(개별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 및 판별조사표는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사항을 질문한 후 가구내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층조사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그리고 장애 공통사항(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을 질문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장애인 실태조사(가구 및 장애판별조사)

1) 가구 및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원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이 있으며, 가구원의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등록여부, 장애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록연도, 등록 장애유형, 장애등급에 대한 내용이 있다.

가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는 총 가구원 수, 가구내 총 장애인 수, 가구유형, 월평균 가구소득액, 가구의 주된 수입원, 월평균 가구지출액, 주택 형태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장애인 가구, 장애인 가구를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인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장애인 유무

조사가구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구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정장애유형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 장애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정 장애유형 외에 향후 범주확대가 예상되는 장애유형, 즉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유무와 대략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장애인 실태조사(장애인 심층조사표)

1) 장애특성

장애유형별 장애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5개의 법정 장애유형별로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15개 장애유형 모두 해당 장애의 유무, 최초 장애발견시기, 장애의 주된 원인이 공통적인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①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부, 장애발생 부위 및 종류,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

②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마비 정도, 동반장애 유무,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뇌성마비의 경우 출생 장소, 출산방법)

③ 시각장애: 시각장애 여부, 시력인지 및 점자해독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④ 청각장애: 청각장애 여부, 보청기 사용여부, 인공와우수술 여부, 수화가능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⑤ 언어장애: 언어장애 여부, 장애정도, 수화가능 여부, 주된 의사소통방법,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⑥ 지적장애: 지적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의사소통 수행능력 정도, 주된 장애원인

⑦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여부, 지적장애 및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의사소통 수행능력 정도, 주된 장애원인

⑧ 정신장애: 정신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

⑨ 신장장애: 신장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및 투석시작시기, 신장이식 여부 및 이식 연령, 주된 장애원인

⑩ 심장장애: 심장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심장이식 여부 및 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⑪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산소치료처방 가정사용 여부,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주된 장애원인

⑫ 간장애: 간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간이식 여부 및 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⑬ 안면장애: 안면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⑭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⑮ 뇌전증(간질)장애: 뇌전증(간질)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표 3-2-1〉장애 유형별 특성 조사항목의 구성

장애유형	조사항목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부, 장애발생 부위 및 종류, 최초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마비 정도, 동반장애 유무,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뇌성마비의 경우 출생장소, 출산방법)
시각장애	시각장애 여부, 시력인지 및 점자해독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청각장애	청각장애 여부, 보청기 사용여부, 인공와우수술 여부, 수화가능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언어장애	언어장애 여부, 장애정도, 수화가능 여부, 주된 의사소통방법,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지적장애	지적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의사소통 수행능력 정도, 주된 장애원인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여부, 지적장애 및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의사소통 수행능력 정도, 주된 장애원인
정신장애	정신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
신장장애	신장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및 투석시작시기, 신장이식 여부 및 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심장장애	심장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심장이식 여부 및 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산소치료처방 가정사용 여부,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주된 장애원인
간장애	간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간이식 여부 및 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안면장애	안면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뇌전증장애	뇌전증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2) 장애 공통사항

장애 공통사항의 조사항목은 크게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로 구성되었다.

조사항목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종단적 비교를 위하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 기존 조사 이후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항목들이 추가·보완되었다. 구체적으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이후 장애인복지사업의 내용 및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사항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보건의료실태 이외에 건강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건강관련 관련 항목이 확대되었으며, 장애인의 사회·문화활동 이외에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 항목이 확대되었다. 이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려로 조사항목이 수정 및 추가 되는 등 최근 장애인복지분야의 주요 관심 사항을 포함시키고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반면, 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재활에 대한 현황은 2013년부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기본 현황 중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2〉와 같다.

① 보건의료·건강: 주된 장애유형,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형태, 치료·재활·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진료받는지 여부, 진료받는 장소, 진료받지 않는 이유, 주관적 건강상태, 최근 2년간 건강검진 및 암검진 여부,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 여부· 입원 경험 여부, 최근 2주간 병의원·보건소·한의원에서의 치료경험 여부, 최근 1년간 사고나 중독발생 여부, 최근 치료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최근 이용 병의원 의료진의 장애 이해도, 만성질환 유무, 난치성 질환 여부, 최근 1년간 병의원 가지 못한 경험 여부 및 치과진료 받지 못한 경험 여부,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유형, 이용 여부 및 시간·월비용, 바우처 여부 및 재원인지 여부, 재활치료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향후 필요한 보건의료기관 및 서비스, 흡연 및 음주 현황, 최근 1년간 건강관리 위한 운동현황, 최근 1년간 키나 몸무게 측정여부, 평소 스트레스 정도, 최근 1년간 자살시도 여부 및 건강관련서비스 경험 여부, 향후 건강향상 위한 서비스

② 일상생활지원: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장애특성 및 사회환경 고려 영역, 일상생활도움 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유

무 및 주보호자, 주보호자와의 동거 여부 및 계속적인 도움필요 여부, 현재 도움의 충분정도, 일상생활 도와줄 외부인 고용의향

③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종류별 필요·소지 여부, 필요 보조기구의 미구입 주된 이유, 보조기구 구입시 외부지원 여부·지원받은 곳·지원받은 형태, 지원수준의 만족도, 보조기구의 확보 경로, 보조기구 활용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보조기구 사용 만족도, 보조기구 급여지원사업에서의 개선사항,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및 사용하지 않는 이유

④ 교육: 교육수준, 학교형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경우 그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유형·이용시간·월비용·만족도, 보육시설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유형·이용시간, 월비용, 만족도,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학교생활 적응정도, 학교생활(보육·유치원 포함)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 통학방법, 방과후 교육(보육)형태,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의향,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 및 이용프로그램 수, 지난 1년간 자기부담금액, 향후 희망하는 평생교육 분야,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⑤ 취업 및 직업생활: 지난 1주간 주 활동분야, 지난 1주간 수입목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험 여부, 지난 주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는지 여부, 직장이 있는데 일하지 않은 이유, 지난 주 구직 여부, 지난 4주 구직 여부, (취업자의 경우) 지난 1주간 일한 총시간, 현재 일하는 곳, 현 직장 근무기간, 월평균수입, 직장 내 지위, 직장생활시 애로사항,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등

⑥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단독 외출 가능 여부, 지난 1개월동안 외출 빈도, 외출의 주된 목적,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주된 이유, 지난 1주간 문화·여가활동 내용,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지난 1년간 예술행사 관람여부 및 관람횟수, 예술행사 정보처 및 관람시 중요 기준, 예술행사 관람시 가장 어려운 점, 선거투표 여부 및 투표하지 않은 이유

⑦ 결혼생활/여성장애인: 결혼 여부 및 형태, 결혼 연령, 결혼당시 본인 및 배우자 장애여부, 배우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 본인 및 배우자 출생지,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자녀 여부 및 자녀수, 장애자녀 여부 및 장애자녀의 장애유형·등급, 자녀없

는 경우 그 이유, 장애로 인한 자녀성장·발달지장 여부, 장애로 인한 자녀양육교육시 어려운 점, 이혼경험 있는 경우 이혼 사유,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 (임신경험 있는 경우) 임신당시 장애여부,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유산경험 여부, (출산경험 있는 경우) 마지막 임신에 의한 출산여부, 출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산후조리해 준 사람, 산후조리 충분정도, 여성장애인 대상 가장 필요한 서비스, 여성장애인으로서 어려웠던 점

⑧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현재 생활 만족도,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 정도 및 주된 상담자, 가족의 장애를 이유로 한 무시·폭력 경험 여부 및 받은 폭력유형, 무시·폭력하는 주가족원, 타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 여부 및 시기, 주된 성폭력자, 성폭력시 대처방법 및 주 상담자, 상담하지 못한 이유, 장애인 가정·성폭력상담시설 필요 정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및 대처방법, 본인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⑨ 주거: 현재 주거 위치, 소유형태 및 소유주, 거주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지난 1년간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의 이용여부 및 만족도, 집구조의 편리정도, 집구조의 개조의향, 향후 희망주거유형 및 형태

⑩ 복지서비스: 장애등록 여부, 장애등록한 경우 장애유형 및 등급, 등록연도, 등록 후 국가나 사회의 서비스 지원 정도, 장애등급 재심사 여부 및 사유, 재심사 후 등급 조정 여부, 장애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장애인복지사업의 이용경험 여부,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의 이용경험·이용희망, 복지관련 정보 획득처,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⑪ 경제상태: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 여부 및 형태, 가구 및 개인의 지난 1개월간 월평균 수입원 및 수입액, 연금가입현황, 차량 소유여부(차종, 연료사용, 자동차 소유현황, 장애인자동차 표지종류, 용도, 운전자),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보호·간병비, 재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기타)

〈표 3-2-2〉 장애공통 조사항목의 구성

장애공통	조사항목
보건의료·건강	주된 장애유형,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형태, 치료·재활·건강관리 목적의 지속적인 진료 여부 및 진료장소, 진료받지 않는 이유, 주관적 건강상태, 최근 2년간 건강검진 및 암검진 여부, 최근 1년간 구강검진·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 입원 경험 여부, 최근 2주간 병의원·보건소·한의원에서의 치료경험 여부, 최근 1년간 사고·중독발생 여부, 최근 치료받은 의료서비스 만족도, 최근 이용 병의원 의료진의 장애 이해도, 만성질환 유무, 난치성 질환 여부, 최근 1년간 병의원 가지 못한 경험 여부 및 치과진료 받지 못한 경험 여부,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유형, 이용 여부 및 시간·월비용, 바우처 여부 및 재원인지 여부, 재활치료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향후 필요한 보건의료기관 및 서비스, 흡연 및 음주 현황, 최근 1년간 건강관리 위한 운동현황, 최근 1년간 키나 몸무게 측정여부, 평소 스트레스 정도, 최근 1년간 자살시도 여부 민 건강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향후 건강향상을 위한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장애특성 및 사회환경 고려 영역, 일상생활도움 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유무 및 주보호자, 주보호자와의 동거 여부 및 계속적인 도움필요 여부, 현재 도움의 충분정도, 일상생활 도와줄 외부인 고용의향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종류별 필요·소지 여부, 필요 보조기구의 미구입 주된 이유, 보조기구 구입시 외부지원 여부·지원받은 곳·지원받은 형태, 지원수준의 만족도, 보조기구의 확보 경로, 보조기구 활용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보조기구 사용 만족도, 보조기구 급여지원사업에서의 개선사항,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및 사용하지 않는 이유
교육	교육수준, 학교형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경우 그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유형·이용시간·월비용·만족도, 보육시설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유형·이용시간, 월비용, 만족도,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학교생활 적응정도, 학교생활(보육·유치원 포함)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 통학방법, 방과후 교육(보육)형태,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의향,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 및 이용프로그램 수, 지난 1년간 자기부담금액, 향후 희망하는 평생교육 분야,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취업 및 직업생활	지난 1주간 주 활동분야, 지난 1주간 수입목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험 여부, 지난 주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는지 여부, 직장이 있는데 일하지 않은 이유, 지난 주 구직 여부, 지난 4주 구직 여부, (취업자의 경우) 지난 1주간 일한 총시간, 현재 일하는 곳, 현 직장 근무기간, 월평균수입, 직장 내 지위, 직장생활시 애로사항,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등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단독 외출 가능 여부, 지난 1개월동안 외출 빈도, 외출의 주된 목적,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주된 이유, 지난 1주간 문화·여가활동 내용,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지난 1년간 예술행사 관람여부 및 관람횟수, 예술행사 정보처 및 관람시 중요 기준, 예술행사 관람시 가장 어려운 점, 선거투표 여부 및 투표하지 않은 이유
결혼생활/ 여성장애인	결혼여부 및 형태, 결혼 연령, 결혼당시 본인 및 배우자 장애여부, 배우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 본인 및 배우자 출생지,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자녀 여부 및 자녀수, 장애자녀 여부 및 장애자녀의 장애유형·등급, 자녀없는 경우 그 이유, 장애로 인한 자녀성장·발달지장 여부, 장애로 인한 자녀양육·교육시 어려운 점, 이혼경험 있는 경우 이혼 사유, 이혼 후 자녀의 주 양육자, (임신경험 있는 경우) 임신당시 장애여부,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유산경험 여부, (출산경험 있는 경우) 마지막 임신에 의한 출산여부, 출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산후조리해 준 사람, 산후조리 충분정도, 여성장애인 대상 가장 필요한 서비스, 여성장애인으로서 어려웠던 점

〈표 3-2-2〉장애공통 조사항목의 구성 (계속)

장애공통	조사항목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현재 생활 만족도,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 정도 및 주된 상담자, 가족의 장애를 이유로 한 무시·폭력 경험 여부 및 받은 폭력유형, 무시·폭력하는 주가족원, 타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 여부 및 시기, 주된 성폭력자, 성폭력시 대처방법 및 주 상담자, 상담하지 못한 이유, 장애인 가정·성폭력상담시설 필요 정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및 대처방법, 본인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주거	현재 주거위치, 현재 주거 위치, 소유형태 및 소유주, 거주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지난 1년간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의 이용여부 및 만족도, 집구조의 편리정도, 집구조의 개조의향, 향후 희망주거유형 및 형태
복지서비스	장애등록 여부, 장애등록한 경우 장애유형 및 등급, 등록연도, 등록 후 국가나 사회의 서비스 지원 정도, 장애등급 재심사 여부 및 사유, 재심사 후 등급 조정 여부, 장애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장애인복지사업의 이용경험 여부,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의 이용경험·이용희망, 복지관련 정보 획득처,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경제상태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 여부 및 형태, 가구 및 개인의 지난 1개월간 월평균 수입원 및 수입액, 연금가입현황, 차량 소유 여부(차종, 연료사용, 자동차 소유현황, 장애인자동차 표지종류, 용도, 운전자),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보호·간병비, 재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기타)

제3절 조사의 실제

1. 조사지침서 개발

장애인 실태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사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조사지침서는 크게 세 부분 - 1부 장애인 실태조사의 개요, 2부 장애인 실태조사표 작성지침, 3부 부록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제1부 장애인 실태조사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겠다.

제1부 장애인 실태조사의 개요는 조사개요, 표본추출, 현지 조사절차, 조사표의 작성, 조사원 및 지도원의 역할, 조사대상 장애인 가정 방문시 유의사항이다.

Ⅰ. 조사개요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정확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조사의 배경으로 정리한 후, 장애인의 실태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구수의 파악과 장애인의 복지욕구 파악'이라고 강조하였다. 장애인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국가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732호)로서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으며,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내용, 조사방법(가구방문 면접조사)등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Ⅱ. 표본추출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조사대상으로 장애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1,000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표본조사구의 약 4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견되는 모든 장애인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조사결과를 얻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즉, '표본조사에서 발견된 장애인 1인은 총 수 추정시 300명~400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은 빠짐없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Ⅲ. 현지조사 절차에서는, 조사원이 현지조사에서 거쳐야 할 조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조사원이 현지에서 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차례대로 제시하여 그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업무 내용에는 1) 조사대상자의 확인, 2) 사전조사, 3) 현지조사(조사구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방문, 통·이장 및 반장 방문, 가구의 확인 및 조사대상자명부 작성), 4) 보완조사를 포함시켰다.

Ⅳ. 조사표의 작성에서는, 조사표는 직접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각 조사문항의 번호기입란에 응답내용을 조사원이 직접 부호로 기입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특히, 조사시 응답자는 장애인이며, 장애인과 의사소통 불가시(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에는 가구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Ⅴ. 실제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원 및 지도원의 역할에서 조사원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이 조사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지도원은 조사원이 조사업무 수행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조사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원이 교육받은 대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조사원의 조사업무를 검토하고 항상 독려·감독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지도원과 조사원의 기본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Ⅵ. 가구방문시 유의사항에서는, 조사업무의 정확성은 일차적으로 응답자를 대하는 조사원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면서, 가구방문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들의 대처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유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사전조사의 실시

장애인 실태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문항의 개발과 실제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추정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서는 주로 다음의 내용들이 점검되었다.

가. 표본

① 조사지역을 확인하고 접근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② 조사대상 가구 및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③ 장애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나. 접근

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부나 반발은 없는가?
②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③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다. 설문

① 조사항목의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② 조사표의 형태는 조사하기에 적당한가?
③ 조사표에서 표현 방법이 잘못된 곳은 없는가?
④ 조사표의 문항들이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⑤ 건너뛰는 질문의 경우 어디로 가야 할지, 응답을 기록하는 방법에 혼란은 없는가?
⑥ 자세한 조사지침이 필요한 문항은 없는가?

라. 응답

① 조사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기의 범위를 벗어난 응답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
②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읽기 어려운 구절은 없는가?
③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응답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
④ 응답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는 없는가?
⑤ 응답시 당황해 하거나 불쾌감을 나타낸 질문이 있는가?

마. 자료 처리

① 자료를 범주화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② 부호화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

바. 조사표 작성

① 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②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사. 조사관련 업무

① 가구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② 장애인조사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③ 조사원의 일일 조사업무량은 몇 건으로 예측하는가?

장애인실태조사 심층조사표는 조사문항수가 많고, 중증장애인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의 경우 충분한 이해를 동반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약 2~3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 자료 분석

① 빠진 조사항목은 없는가?
②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사전조사는 일차적으로 완성된 조사표를 근거로 연구진이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 장애유형과 연령을 고려하여 총 4사례를 선정하여 2014년 8월 12일 - 13일에 실시하였다. 이 사전조사에서 얻어진 조사문항 관련 결과는 조사표 확정시에 반영되었으며, 조사결과에서 얻어진 장애인 거주 가구당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조사원들의 1일 업무량을 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3. 조사원 교육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노출 기피 등으로 일반 사회조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특히 각 장애유형별 특성 및 원인,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업재활, 사회·여가 및 문화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등 각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조사에 있어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헌신적 참여의사와 동기유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조사원과 지도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실태조사의 목적, 조사실시에 있어 요구되는 장애에 대한 기본지식, 동기 유발, 면접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2014년 8월 25일 ~ 8월 28일(1차), 9월 15일 ~ 9월 18일(2차)에 걸쳐 각각 4일씩 실시하였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조사원교육이 2차에 걸쳐 실시된 이유는 조사가 2차로 나뉘여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장애특성에 대한 교육은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다(표 3-3-1 참조).

교육내용은 조사개요, 표본,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장애공통 조사항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사 실습으로 구성되었으며, 원내 연구진과 외부 강사들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었다. 조사원 교육에서 장애특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장애유형별 전문의인 외부강사는 다음과 같다.

〈표 3-3-1〉장애 특성에 대한 조사원 교육 실시 외부강사 명단

교육 과목	교육 강사
지체장애·뇌병변장애	김완호 (국립재활원 근골격재활과 과장)
시각장애	박성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안과 교수)
청각장애·언어장애	박철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남　민 (서울어린이병원 정신과 교수)
정신장애·뇌전증장애	서동우 (한별정신병원 원장)
신장장애	이태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신장학과 교수)
심장장애	최승민 (국립의료원 순환기내과 교수)
호흡기장애	최병휘 (중앙대용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간장애	박종헌 (서울대학교 의료관리교실 책임연구원)
안면장애	홍인표 (국립의료원 성형외과 과장)
장루·요루장애	조진선 (한림의대 비뇨기과 교수)
장애인보조기구	임성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원)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정시영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장애인의 건강	이지은 (국립재활원 연구원)

제4절 현지 조사

1. 조사기간

현지조사는 2014년 8월 29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2. 조사원 선정 및 조사팀 구성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팀은 지도원(supervisor) 1명과 조사원 4명, 총 5명이 1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31개의 팀 총 155명이 장애인 실태조사에 동원되었다. 조사원은 가구명단에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거한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지도원은 각 조사팀의 조사원에 대한 현지 지도 및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지도원은 가구명단 내 조사원별 업무할당 및 지정, 조사결과의 점검 및 누락사항의 발견, 재방문 지시 그리고 가구명부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도원과 조사원은 원내 통계정보연구실 전산운영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되었으며, 면접전형을 거쳐서 선발되었다. 지도원과 조

사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30~50대의 연령으로 사회조사의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기존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및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도원으로 선발하였으며, 연구진들은 조사감독원으로 편성하여 현지조사 기간 중 각 조사팀을 담당·관리하도록 하였다. 감독원들의 주된 임무에는 해당 조사지역내 조사협조 요청을 비롯하여, 장애유형별 장애특성에 대한 어려움, 조사내용에서의 의문사항, 조사시 비협조문제 등 조사 진행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 기타 지도원이나 조사원의 개인적 문제 등을 해결해 주는 것을 포함하였다.

3. 현지 조사의 절차

현지 조사는 지도원 1명과 조사원 4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정해진 조사 일정에 따라 1개 조사구의 가구를 전수 조사한 후 다음 조사구로 이동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팀이 해당 조사구에서 조사를 완료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가. 조사구 관할 동·읍·면사무소 방문

— 지도원은 조사원과 함께 해당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함.
— 동·읍·면사무소에서 지도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담당자와 현지 조사에 관한 협의
- 관내도에서 조사지역 복사, 경계선 표시
- 지역내 장애인 정보 파악
- 조사표 및 조사용품 인수(각 조사구에서 사용할 조사표와 각종 물품은 조사본부에서 조사 전에 해당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우송)
- 기타 지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이때, 조사원은 적당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됨(지도원이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담당자와 협의를 할 때에는 1명의 조사원을 동석시킬 수도 있음).

나. 통·이장 및 반장 방문

—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협의 후 조사구 내 또는 인접 지역에 숙소를 정함(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제외).
— 지도원은 통·반장(이장)을 방문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를 부탁함.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안내포스터 부착 요청
• 조사구 내 장애인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확인
— 이때, 조사원은 숙소에서 대기하거나 지도원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다. 조사구 경계선 확인

— 조사구 경계선 확인은 원칙적으로 지도원이 하여야 함.
— 조사구에 관한 자료로는 배부되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요도를 사용함.
• 신축 아파트 조사구의 경우에는 현지 방문하여 새로 작성한 아파트 전면도를 조사구 요도로 사용
— 1개 조사구에는 3~5개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가 포함되므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마다 조사구 요도가 배부됨.
• 1개 조사구에서 3~5개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는 거의 대부분 인접되어 있음(인접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요도는 2010년에 작성된 것임.
• 조사구 요도에 있는 건물이 철거되어 현재는 없을 수도 있음.
• 조사구 요도에는 공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주택이 신축되어 있을 수도 있음.
• 조사구 요도에 건물 표시가 없다고 해서(공지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공지에 신축된 건물을 조사구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됨.
— 조사구 경계선은 무조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의 경계선을 따라야 함.
— 부분적으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의 경계선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의 경계선과 가장 근접한다고 판단되는 경계선을 선택하여야 함.

라. 조사구 요도의 수정·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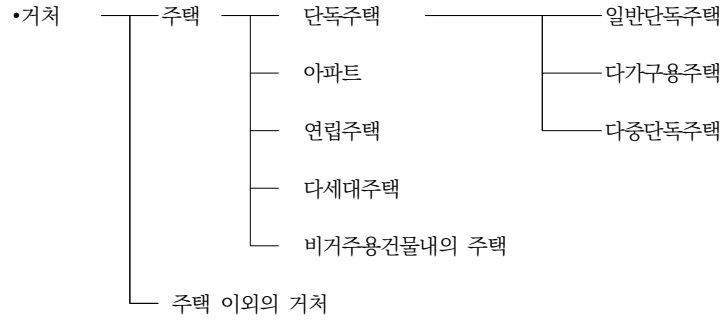
— 조사구 경계선 확인이 끝나면 조사구 요도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 철거된 건물이 발견되면, 조사구 요도의 해당 건물에 "×" 표시를 함.
  • 신축 건물은 크기에 비례하도록 추가함.
  • 기타 지형지물이 바뀌었을 때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수정·보완함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요도가 배부되었더라도 동·읍·면사무소의 관내도가 더 잘 되어 있으면, 이 관내도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마. 조사구의 분할

— 지도원이 조사구를 3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조사원에게 각각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줌.
— 구역수는 조사원수와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현지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결정함.
  • 1명의 조사원이 2개의 구역을 담당할 수도 있고, 2명의 조사원이 1개의 구역 또는 3개의 구역을 담당할 수도 있음.

바. 가구의 확인

— 담당 구역이 결정되면 방문하기 쉬운 순서를 정한 다음, 이 순서에 따라 첫 번째 건물부터 차례대로 방문하여 출입문별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람이 살고 있으면 구역번호를 포함한 거처번호를 기입함.
— 여기서 거처라 함은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주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집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건물을 말함.

① 영구적인 성격의 건물

② 1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1단위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거주목적이 아닌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함(예: 상업용 건물 내의 주택)

• 주택 이외의 거처: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예: 판자집, 임시 막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점 또는 사무실 등)

—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거처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사선(／)을 침.

— 출입문별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출입문별로 별개의 거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몇 가구인지를 확인하여 가구별로 가구판별조사표를 작성한 다음, 해당되는 경우에 심층면접조사표를 작성함.

— 한 건물이 여러 개의 거처로 구분되어 거처마다 거처번호를 기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음 거처번호와 마지막 거처번호를 연결시켜 기입한 다음에 조사구요도의 적당한 부분에 이에 관한 설명을 추가함.

• "13~16번"까지 4개 거처의 경우에 "13-16"으로 기입하고, 조사구요도의 적당한 위치에 "13번 거처(지하), 14번 거처(2층 우측), …" 등과 같은 설명을 추가함.

- 설명을 추가하지 않고 조사구요도의 여백에 13~16번 거처를 부분 확대하여 그려도 무방함.

사. 면접 및 조사표 작성

조사원은 배당된 구역의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내용을 조사원이 직접 조사표에 기록하였다.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만약 적당한 응답자를 만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방문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이 장애아동,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조사문항에 대한 이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최대한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하도록 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임명한 조사원 ○○○입니다. 귀댁에 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조사대상자가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 조사는 예산과 시간 관계로 전국의 모든 가구를 다 조사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비뽑는 식으로 200개 지역을 뽑았는데, 이 동네가 뽑혔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댁은 전국을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가구명부의 작성

가구명부는 한 거처의 방문이 끝날 때마다 기입하였다. 만약 방문을 하였으나 조사를 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번호까지만 기입하고 재방문하도록 했다. 가구명부에 기록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

① 행정코드번호
② 조사구번호
③ 총가구수
④ 대상가구수
⑤ 완료가구수
⑥ 대상장애인수
⑦ 완료장애인수

(2) 조사관리 항목

① 거처번호: 조사구 요도의 거처번호
② 가구판별 일련번호: 거처내의 가구일련번호
③ 개별 일련번호 : 개별조사표의 일련번호
④ 주소
⑤ 가구주 성명
⑥ 장애인성명
⑦ 응답자 연락처
⑧ 가구원수 : 가구조사표의 가구원수
⑨ 가구 및 판별조사 완료 여부 및 합계 : 완료, 미완 등 표시 후 각각의 합계를 숫자로 표시한다.
⑩ 장애인심층조사의 장애유형/완료 여부 및 합계:
- 장애유형/장애인수(합계) : 장애유형별(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장애로 판정된 장애인수와 조사완료 여부를 숫자로 표시한다
- 완료 여부 : 완료, 미완 등 표시 후 각각의 합계를 숫자로 표시한다.

⑪ 답례품 확인

4. 현지 조사의 결과

〈표 3-4-1〉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완료율

구분	결과
조사대상 가구수	48,344가구
완료 가구수	38,560가구
미완 가구수	9,784가구
완료율	79.8%
조사완료 가구원수	104,703명

장애인 실태조사는 일반조사와 달리 조사 진행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유형이 있어, 장애인 본인으로부터 응답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가구 내 가구원(주로 배우자 및 부모)을 통해 응답받도록 하였다. 즉,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문자해독 능력이 있을 때는 조사표상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인해 본인이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는 장애인과 장애상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모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대리응답을 받도록 하였다. 이 결과 장애인 본인이 응답한 경우는 전체 장애인의 78.5%였고, 청각장애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본인이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경우는 전체 장애인의 21.5%였다.

〈표 3-4-2〉 심층면접조사 응답 유형

구 분	비율(%)
본인	78.5
부모	8.9
배우자	5.4
형제자매	1.4
자녀	4.4
이웃친척	0.7
시설종사자	0.2
기타	0.5
합계	100.0

제5절 자료의 처리

가. 자료의 처리

조사가 완료된 후, 총 20명의 지도원으로 구성된 에디팅요원에 의해 장애인심층조사표의 기재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조사항목 중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또는 부실 기재된 문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표상에 기입되어 있는 응답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응답을 받아 조사표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조사원들이 조사 실시 시 장애원인 등과 관련해서 정확한 질병 명을 모르기 때문에 응답자의 응답을 그대로 조사표에 기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연구진이 검토하여 분류하였으며, 장애정도, 범위, 장애원인 분류에 관련해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해 구분하는 과정을 거쳤다.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 완료 후 외부 조사기관을 통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11월 14일 ~ 19일 의 6일 동안 응답 완료된 장애인심층조사표 중 총 710부에 대하여 전화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나.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지침(coding instruction)에 따라 부호화된 후, 외부 전문 전산업체((주) 행정정보기술서비스)의 용역을 통해 전산입력 되었다. 그리고 원내 통계정보연구실 사회조사팀의 협조 및 지원으로 오류점검(error checking)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는 SPSS통계패키지에 의해 분석되었는데, 본 조사의 일차적 목적이 장애인 실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도, 백분율, 평균 등 기술통계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조사결과의 집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로는 장애인의 사회, 경제, 복지, 장애관련 특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둘째, 각 장애유형별 세부 특성에 관한 통계치이다.

백분율의 분포 등 통계치들은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 실수가 아닌 가중치가 적용된 비율(%) 또는 수치(전국 추정수)의 통계치로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조사표 각 장의 내용(장애 출현율 및 인구수,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및 현황, 재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여가 및 문화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의 실태를 장애유형별로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기술하였으며(부록3에서 성, 연령, 장애정도(중증 1-2급/경증 3-6급)별로 분석하여 제시함), 분석의 단위는 사람(person)으로서 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장
장애의 범위와 정의

제1절 장애의 범위
제2절 장애의 정의 및 분류
제3절 장애원인 분류

4 장애의 범위와 정의

제1절 장애의 범위

본 조사에서 장애의 범위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총 15종류의 장애이다[7].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5개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가지로 분류와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유형 분류는 1997년에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이후의 단계적인 장애범주 확대에 의한 것으로 1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1999년에 이루어져 장애범주가 5개에서 10개의 유형으로 확대되었고, 2단계 장애범주 확대는 2003년에 이루어져 10개의 유형이 15개의 유형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러한 장애범주의 확대는 점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확대예상 장애범주에는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기타 등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분류는 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에 규정되어 있듯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며,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의 대분류 밑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분류체계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분류와 확대예정 장애범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1〉과 같다.

---

7)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한 15종류 장애유형으로 등록장애인 뿐 아니라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다.

〈표 4-1-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확대예상 장애범주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만성통증, 기타 암
		뇌병변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치매 기타 정신발달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데, WHO에서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발표하면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이 분류법에 의해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 분류법은 장애를 손상(impairment), 불능(disability) 및 불리(handicap)의 세 가지 단계[8]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장애의 분류로 포함시켰다. 그 후 1997년 기존의 ICIDH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ICIDH-2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장애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ies), 참여(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의 특징은 환경과의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보다 포괄적인 장애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에는 ICIDH의 개정판에 해당하는 ICF(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8) WHO에 의한 국제장애분류(ICIDH)에 의하면, 손상(impairment)은 심신의 구조적·기능적 손상 자체를 의미하고, 불능(disability)은 손상에 의한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나는 이차적 장애를 의미하며, 불리(handicap)는 손상과 불능으로 인한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으로서 편견, 차별 등을 의미함.

Health)가 발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기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건강 또는 건강과 관련된 상태를 표현하는 체계와 통일된 표준분류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영역'과 '건강관련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9]. 따라서 한 사람의 기능과 장애는 건강조건(질병, 질환, 상해, 외상 등)과 배경요인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경요인에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나 점차적으로 손상 상태에서 능력장애 상태로 그리고 지금은 참여(환경)의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의 범위 및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제2절 장애의 정의 및 분류

1. 지체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4년 6월 30일 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의 포함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9) ICF는 '건강영역'과 '건강관련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영역들은 ① 신체기능 및 구조, ② 활동과 참여의 두 가지 기본 목록에 포함된 신체 및 개인과 사회라는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

지난 199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에서 뇌병변장애를 기존의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새로운 장애범주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지체장애와 별도로 뇌병변장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병변장애란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2011년 조사와 동일하다.

보행상의 장애정도는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시 파행을 보이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고, 일상생활동작에서의 장애정도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으로 분류된다.

3. 시각장애

시각장애란 "시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판정지침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시각장애는 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고 한다.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장애를 정도별로 나누어보면,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맹(total blindness: 시력 0)이라 하고, 암실에서 장애인의 눈에 광선을 점멸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광각(light-perception), 눈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를 수

동(hand movement), 자기 앞 1m 전방의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상태를 지수(finger count: 시력 0.02 이하)로 표현한다.

또한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를 시야(visual field)라고 하는데, 시야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도 주변시력의 감퇴로 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2014년 실태조사에서는 2011년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교정시력 0.2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시행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시각장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된다.

청력장애란 일반적으로 데시벨(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와 같은 크기의 소리라도 어음의 청음명료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여 그 장애정도를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농인(deaf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 dB ISO 이상)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②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69 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평형기능장애란 청력기능의 손상으로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즉,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어지럼증으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2014년 실태조사에서도 청각장애는 2011년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규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한 장애인이 포함되었다. 즉, 보통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청각장애이고, 아래의 항목들 중 '라'항목이 평형기능장애에 해당된다.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사회 생활면에서 정상적인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① 말이 불완전하거나, ②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③ 음성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④ 특정 음성의 변형이 있거나, ⑤ 발성이 어렵거나 말의 리듬, 음조 혹은 고저에 이상이 있거나, ⑥ 말이 말하는 사람의 연령, 성, 신체적인 발달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즉, 언어장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① 조음장애(articulation disorder): 음운장애(phonological disorder)라고도 하며,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또는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음성장애(voice disorder): 후두·구강·비강 등에 장애가 있으면 음성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음성장애가 후두 내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발성(phonation)장애, 구강 및 비강통로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공명(resonance)장애라고 한다.

③ 유창성장애: 말의 흐름에는 유창성·속도·리듬 등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이상이 있으면 말의 흐름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 이를 '말의 흐름장애' 또는 '유창성장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더듬과 속화증(성급하게 말하기)이 있다.

- 말더듬(stuttering)은 말소리, 음절 또는 조음운동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또는 연장하는 것이다.
- 속화증(cluttering)은 말더듬과 유사하나, 말더듬과는 반대로 화자가 자기의 말

에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되고, 이완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④ 기타: 뇌성마비·지적장애·청각장애에 따른 언어장애, 언어발달지체, 실어증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언어장애인이란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모든 언어장애 분류는 모두 법정장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014년 실태조사에서의 언어장애의 정의는 2011년 조사와 동일하다.

6. 지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지적장애인이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즉, 18세 이전에 정신발달이 불완전하여 지능이 평균 이하로 저하되고 또 이로 인하여 자기의 신변관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적장애인(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을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며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지적장애협회(AAMR)에서는 "지적장애란 현재 기능의 근본적인 한계로서 18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적 기능에서 의미 있게 낮은 능력(IQ. 70 또는 75 이하)을 보이며, 동시에 '의사소통, 자조,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 지역사회 이용, 자기관리, 건강과 안전, 학습 능력, 여가, 그리고 일'(Schalock, et al., 1994:181~193) 등의 적응기술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 관련된 한계를 갖는 경우"를 지적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의 분류에 있어서도,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중도(severe), 최중도(profound) 지적장애로 분류해오던 미국지적장애협회에서는 1992년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지적장애의 정도를 지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강도에 따라 간헐적 지원(intermittent support), 제한적 지원(limited support), 장기적 지원(extensive support), 심층적 지원(pervasive support)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정기원 외, 1995).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지적장애의 발병연령은 18세 이전으로 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지능검사의 소견에서 유의하게 표준 이하의 지적인 기능과 동시에 그와 연관

된 적응성,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기술영역들(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활동,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효과, 여가, 직업기술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즉, 발달기(18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능의 발달지체(IQ. 70 이하)와 적응행동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한계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지적장애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장애의 정의는 2011년 실태조사에서의 정의와 동일하다.

7. 자폐성장애

지난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때부터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된 자폐성장애는 1943년 Leo Kanner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Kanner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아동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관계형성이 어렵고, 언어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여러 종류의 행동장애가 동반된다고 하였다. 현재 공식적인 분류체계로는 DSM-IV(1994)와 ICD-10(1992)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반적인 자폐성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라 명명되었고, 기본적으로 유아자폐증(전반적 자폐성장애)의 정의와 큰 차이는 없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폐성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받은 후 최소한 6개월이 경과되어야 판정을 받게 된다.

자폐성장애는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장애가 일어나는 것으로 첫째, 대인관계의 형성이 일어나지 않으며, 둘째, 언어의 발달이 일어나지 않거나 발달의 심각한 지연이 있으며, 셋째, 상동증, 과잉운동증, 공격적인 행동, 자해적인 행동 등의 행동장애가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자폐성장애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르는데,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자폐성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의는 2011년 실태조사에서의 자폐성장애 정의와 동일하다.

8. 정신장애

지난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되기 시작한 정신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한다.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신장애의 정의는 2011년 실태조사에서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위의 정신장애 정의에서의 제시된 주된 정신질환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신분열증: 주로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고장애, 감정이 무뎌지는 감정장애, 무관심 등의 의지장애 등이 나타남.

② 양극성 정동장애: 기분 및 감정의 변동이 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고양되고, 과대망상, 사고비약, 수면장애(잠을 거의 자지 않음)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조증상태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 장애(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됨.

③ 반복성 우울장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됨.

④ 분열형정동장애: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정동장애(조증 또는 우울증)의 증상이 동일한 정도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임.

9. 신장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중 신장장애는 통칭 만성신부전을 뜻하는 말로 정상적인 신장은 인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체내의 수분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주지만,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해 신장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신장은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장장애가 생기면 혈액정화를 목적으로 혈액투석기계를 사용하며, 혈액투석을 하거나 인체의 복막을 이용한 복막투석을 하게 된다. 진료일수가 길고 병원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 취업 등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커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차로 내부기관 장애로 장애범주에 포함되었는데,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신장장애 정의는 2011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0. 심장장애

진료일수가 길고 의료욕구가 큰 만성심장질환이 해당되는 심장장애는 신장장애와 더불어 지난 1999년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차로 내부기관 장애로 장애범주에 포함되었다. 이는 최근 만성심장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생존률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범주의 확대 요구도가 높아져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심장장애인이란,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심장기능 장애는 심장수축력의 정도와 운동능력의 정도에 따라 판정하는데, 심장수축력은 심초음파의 박출계수로, 운동능력은 활차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비교적 중증인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심장장애 정의는 2011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1. 호흡기장애

2003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기존의 10개 장애범주가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등 5개의 장애범주가 추가되어 총 15개의 장애범주로 확대되었다. 이중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는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되고 안면장애는 신체기능의 장애로 분류된다.

호흡기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하며, 호흡곤란 정도, 폐기능 검사에 의한 폐 환기기능, 동맥혈가스 검사에 의한 동맥혈산소분압 등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이러한 호흡기장애 정의는 2011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2. 간장애

200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내부기관의 장애로 장애범주에 추가된 간장애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즉,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임을 확인하여 진단한다. 그리고 간이식을 시술받은 경우도 간장애에 포함된다. 이러한 2014년의 간장애 정의는 2011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3. 안면장애

200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로 장애범주에 추가된 안면장애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얼굴 전면에 혈관종을 앓고 있거나 화상으로 인한 얼굴 변형도 그 정도에 따라 안면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안면장애는 신체기능상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안면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이다. 이러한 안면장애 정의는 2011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4. 장루·요루장애

200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내부기관 장애로 추가된 장루·요루장애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루는 복부를 통해 결장부위에 수술로 만들어진 개구이다. 장루수술을 받게 되면 대변을 더 이상 항문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결장을 통해 배출되며, 배변활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대변을 모으기 위한 일회용 주머니를 착용해야 한다. 회장루는 아랫배를 관통하여 소장에 수술로 만든 개구인데, 상처나 질병으로 인해 직장 및 항문과 함께 결장을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다. 회장루에 의한 대변수술 후 대변은 소장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피부에 매우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착용한 주머니는 인공항문 주변에 맞는 보호용 피부벽을 가져야 한다.

요루는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해주기 위해 아랫배에 수술로 만든 개구이다. 요루수술을 하게 되면 소변은 더 이상 요도를 통해 배출되지 않게 되며, 요루를 통해 배출된다. 요루는 항문괄약근을 가지지 않으므로 요루 수술을 한 사람은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조절능력이 없다. 대신 소변을 모으기 위한 일회용 주머니를 착용한다.

장루·요루장애에는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 시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루·요루장애 정의는 2011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5. 뇌전증(간질)장애

2003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내부기관의 장애로 추가된 마지막 장애유형인 뇌전증(간질)장애는 2014년 6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간질장애에서 뇌전증장애로 장애명칭이 변경되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뇌의 이상 또는 손상이 있게 되면 원래 갖고 있는 전기에너지가 과도하게 방출하게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경련발작, 의식소실 등의 증세를 유발하게 된다. 뇌전증이란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뇌전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발작의 양상도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뇌전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뇌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의 뇌손상에 의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 손상된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전기가 방출되어 재발성 경련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뇌전증장애 정의는 2011년 실태조사에서의 정의와 동일하다.

제3절 장애원인 분류

장애원인에 대한 분류는 장애발생 및 예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정한 국제질병분류체계를 골격으로 개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주로 질병의 분류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한국표준질병분류를 바탕으로 외국의 장애원인 분류를 참고하여 실태조사의 목적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장애원인을 분류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장애의 원인을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불명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선천적 원인의 경우 원인분류는 유전성, 기타염색체이상, 선천성·발육기형, 모체의 만성질환(당뇨, 빈혈, 고혈압, 알코올중독, 약물남용), 모체의 감염(풍진, 매독, 독소플라스마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미상, 기타 등으로 분류되었고, 각 장애유형별로 해당되는 장애원인들이 장애 주된 원인에 보기항목으로 제시되었다.

출생시 원인은 조산, 난산, 출산시 외상, 미상, 기타 등으로 분류되었다.

후천적 원인의 경우는 질환과 사고로 분류하였는데, 질환에는 신경계 질환, 정신 질환,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질환,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계 질환,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생물(종양) 질환, 중독성 질환, 감염성 질환, 미상, 기타 등이 포함되었고, 사고에는 폭력에 의한 사고, 가정내 사고, 교통사고(탑승자), 교통사고(보행자),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화상, 약물사고, 기타 사고, 재난, 기타 사고 및 외상, 전상, 미상, 기타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질환이나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는지의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선천적 원인의 경우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원인을 제시하여 유전성, 기타염색체이상, 선천성·발육기형, 모체의 만성질환, 모체의 감염, 미상, 기타 등 7개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출생시 원인의 경우는 조산, 난산, 출산시 외상, 미상, 기타 등 5개의 항목이다. 그리고 후천적 원인의 경우는 질환의 경우 보기항목으로 14개 항목을 제시하였고, 사고의 경우는 12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후천적 원인을 세분화하여 제시한 이유는 2005년 이후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천적 장애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제5장

조사 결과 Ⅰ : 장애 출현율 및 장애 인구수

제1절 장애인구의 추정
제2절 장애인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5 조사 결과 I : 장애 출현율 및 장애 인구수

제1절 장애인구의 추정

1. 장애인 출현율

전국 장애인 출현율[10]은 다음과 같이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가구조사에서 파악된 장애인 수는 6,824명이었으며, 조사구별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여 추정한 결과, 재가장애인수는 약 2,646,064명으로, 출현율은 인구 100명당 5.43명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5-1-1 참조).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80.8천명이었다.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을 합한 결과, 2014년도 우리나라 장애인수는 총 2,726.9천명이며, 출현율은 5.59%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장애인 출현율은 2005년 4.59%, 2011년 5.61%, 2014년 5.59%로 나타나 201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의 경우 2011년보다 미미한 감소를 보였다. 본 출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분모로 사용한 인구는 2013년도 장래인구추계 자료 중 군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것으로 재가인구(48,560,591명)와 시설인구(199,086명)을 포함하여 총 48,759,677명이다.

〈표 5-1-1〉 2014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단위: 명, %)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전체
2014년	장애인수	2,646,064	80,846	2,726,910
	출현율	5.43	-	5.59
2011년	장애인수	2,611,126	72,351	2,683,477
	출현율	5.47	-	5.61
2005년	장애인수	2,101,057	47,629	2,148,686
	출현율	4.50	-	4.59

10) 제2장. 표본설계 개요 참조

2014년 장애인 수와 장애 출현율을 2011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장애인은 약 4.3만명 정도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출현율은 약간 감소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현율이 감소한 것은 인구 증가폭보다 장애인의 증가율이 낮기 때문인데,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교통사고의 감소[11] 등 질환이나 사고와 같은 장애의 후천적 원인 발병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시설장애인은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하였는데, 행복e음 상에는 단일 장애유형만이 제시되어 있어 중복장애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상의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을 합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출현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표 5-1-2〉와 같다.

〈표 5-1-2〉 장애인 출현율의 변화추이

(단위: %, 명)

구분	2005년[1]		2011년[2]		2014년[3]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전체	4.59	2,148,686	5.61	2,683,477	5.59	2,726,910
지체장애	1.99	933,553	2.72	1,303,032	2.71	1,319,132
뇌병변장애	0.32	150,756	0.59	280,180	0.48	234,675
시각장애	0.42	198,456	0.51	245,917	0.53	257,492
청각장애	0.40	185,911	0.50	240,695	0.50	245,935
언어장애	0.02	10,538	0.04	17,010	0.03	15,252
지적장애	0.12	56,268	0.28	131,648	0.36	173,296
자폐성장애	0.01	3,212	0.01	5,880	0.02	10,572
정신장애	0.18	82,492	0.23	109,817	0.23	112,632
신장장애	0.06	29,720	0.10	48,741	0.12	60,790
심장장애	0.08	35,184	0.04	17,852	0.02	8,331
호흡기장애	0.05	23,484	0.04	17,068	0.03	14,965
간장애	0.02	9,975	0.02	8,314	0.02	11,162
안면장애	0.01	3,223	0.00	2,111	0.01	2,702
장루요루장애	0.03	12,614	0.03	14,096	0.03	14,833
뇌전증장애	0.02	11,235	0.02	9,895	0.01	6,610
중복장애	0.86	402,065	0.48	231,222	0.49	238,533

주: 1) 시설장애인 포함
2),3) 2011, 2014년의 경우 재가장애인은 중복장애를 별도 산정하였으나, 시설장애인은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하여 중복장애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 가지 장애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11) 우리나라 2011년 교통사고 발생은 221,711건, 사망 5,229명, 부상 341,391명이며, 2013년 교통사고는 215,354건 발생, 사망 5,092명, 부상 328,711명임(e-나라지표).

가. 성·연령별 장애출현율

재가장애인의 성 및 연령별 장애출현율은 남자의 경우 인구 백명당 6.31명, 여자는 4.56명으로 남자의 장애출현율이 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도의 조사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장애출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남자 6.43%, 여자 4.55%)와 동일한 추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연령에 있어서 남자의 장애출현율은 여자의 장애출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남성장애인은 전체 재가장애인의 57.7%인 1,526.4천명, 그리고 여성장애인은 42.3%인 1,119.7천명으로서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406.7천명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장애출현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로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계층에서는 장애출현율이 청·장년층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장애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표 5-1-3〉 성별·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0~4세	3,906	0.3	0.33	1,602	0.1	0.15	5,508	0.2	0.24
5~9세	10,567	0.7	0.90	5,523	0.5	0.50	16,090	0.6	0.70
10~14세	14,481	0.9	1.00	10,095	0.9	0.76	24,576	0.9	0.88
15~19세	32,119	2.1	1.86	14,833	1.3	0.94	46,952	1.8	1.42
20~24세	24,145	1.6	1.58	19,573	1.7	1.28	43,718	1.7	1.43
25~29세	33,321	2.2	2.08	9,391	0.8	0.62	42,712	1.6	1.37
30~34세	54,235	3.6	2.78	27,167	2.4	1.44	81,402	3.1	2.12
35~39세	70,500	4.6	3.70	26,004	2.3	1.40	96,504	3.6	2.56
40~44세	95,152	6.2	4.40	54,347	4.9	2.58	149,499	5.6	3.50
45~49세	135,063	8.8	6.57	45,528	4.1	2.29	180,591	6.8	4.47
50~54세	179,190	11.7	8.58	81,026	7.2	3.92	260,216	9.8	6.26
55~59세	196,993	12.9	11.67	105,219	9.4	6.19	302,212	11.4	8.92
60~64세	146,996	9.6	12.76	102,520	9.2	8.38	249,516	9.4	10.50
65~69세	156,020	10.2	17.33	131,618	11.8	13.05	287,638	10.9	15.07
70~74세	158,795	10.4	21.13	177,286	15.8	18.42	336,081	12.7	19.61
75~79세	129,912	8.5	25.90	163,144	14.6	21.74	293,056	11.1	23.40
80세 이상	85,007	5.6	22.77	144,786	12.9	16.64	229,793	8.7	18.48
계	1,526,403	100.0	6.31	1,119,663	100.0	4.56	2,646,064	100.0	5.43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에는 2013년 기준 최소한 80.8천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은 37.9천명, 여성장애인은 42.9천명으로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5.0천명이 더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 약간의 성별 격차가 있었다. 특히, 75세 이상인 경우 남성장애인은 5,694명 정도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19,208명으로 남성장애인에 비해 약 2.37배 이상 많았다.

〈표 5-1-4〉 성별·연령별 시설장애인 구성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0~4세	136	0.4	78	0.2	214	0.3
5~9세	491	1.3	299	0.7	790	1.0
10~14세	1,112	2.9	767	1.8	1,879	2.3
15~19세	1,973	5.2	1,274	3.0	3,247	4.0
20~24세	2,155	5.7	1,275	3.0	3,430	4.2
25~29세	2,185	5.8	1,266	3.0	3,451	4.3
30~34세	2,335	6.2	1,595	3.7	3,930	4.9
35~39세	2,298	6.1	1,575	3.7	3,873	4.8
40~44세	2,757	7.3	1,948	4.5	4,705	5.8
45~49세	2,782	7.3	1,978	4.6	4,760	5.9
50~54세	3,321	8.8	2,122	4.9	5,443	6.7
55~59세	3,168	8.4	2,078	4.8	5,246	6.5
60~64세	2,485	6.5	1,630	3.8	4,115	5.1
65~69세	2,235	5.9	1,977	4.6	4,212	5.2
70~74세	2,812	7.4	3,837	8.9	6,649	8.2
75~79세	2,595	6.8	5,812	13.5	8,407	10.4
80세 이상	3,099	8.2	13,396	31.2	16,495	20.4
계	37,939	100.0	42,907	100.0	80,846	100.0

2. 장애유형별 출현율 및 인구수

가. 장애유형별 추정수

장애인의 주된 장애를 기준으로 장애유형 및 연령별 출현율을 산출해 보면 〈표 5-1-5〉와 같다. 현재 15개 법정장애 중 출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서 1,339.6천명이 있으며, 출현율은 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백명당 2.75

명의 지체장애인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은 뇌병변장애로서 약 289.3천명이 있으며, 출현율은 0.59%이다. 다음으로 청각장애가 277.4천명, 출현율은 0.57%였고, 시각장애는 274.5천명으로 출현율은 0.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0~9세의 장애인수는 21,597명이며 출현율은 0.47%로, 이 연령대에서 출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0.16%)였다. 그 다음으로 출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0.15%), 자폐성장애(0.07%)의 순이었다.

10세~19세 아동·청소년 연령층의 장애인 추정수는 71,529명이며 출현율은 1.18%이다. 이 연령계층에서 가장 출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0세~9세 연령대와 동일한 지적장애(0.69%)였고, 그 다음은 자폐성장애(0.16%)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20세~29세 연령대의 장애인 추정수는 86,431명이며 출현율은 1.40%였다. 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장애유형 역시 이전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0.68%)였으나, 그 다음은 지체장애(0.23%)로 추정되었다.

30세~39세 연령대의 장애인 추정수는 177.9천명으로 출현율은 2.34%였는데, 이 연령대에서 출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0.97%)였다. 그 다음 출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0.44%), 시각장애(0.22%)의 순으로 추정되었다.

40대(40~49세) 장애인의 경우 총 장애인 추정수는 330.1천명으로 출현율은 3.97%였으며,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장애유형은 지체장애(2.04%)였다. 이 연령층의 장애유형별 비율을 보면, 역시 지체장애가 40대에서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신장애(11.5%), 시각장애(11.1%) 순이었다.

50대와 60대 초반(50~64세) 장애인의 경우 총 장애인 추정수는 811.9천명으로 출현율은 8.19%이고, 가장 출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4.74%)였다. 그 다음은 뇌병변장애(0.80%), 시각장애(0.79%), 청각장애(0.61%)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총 장애인 추정수는 1,146.6천명으로 출현율은 18.74%였는데 이는 이전 연령대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출현율이다. 가장 출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역시 지체장애(9.93%)였다. 장애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지체장애(53.0%), 청각장애(15.2%), 뇌병변장애(13.2%)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 출현율을 추정한 결과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출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20대 이하일 때는 지적장애의 비율이 높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지체장애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유형별 출현율을 연령별로 보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애는 대체로 50세 이후부터 장애출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에는 낮은 연령대에 출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부 장애유형의 경우는 40대 이후에 장애출현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신장장애와 심장장애의 경우 장애출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주된 장애유형별·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지체장애	195	0.9	0.00	4,300	6.0	0.07	14,427	16.7	0.23
뇌병변장애	6,722	31.1	0.15	5,214	7.3	0.09	7,317	8.5	0.12
시각장애	402	1.9	0.01	4,366	6.1	0.07	4,808	5.6	0.08
청각장애	2,000	9.3	0.04	3,215	4.5	0.05	5,138	5.9	0.08
언어장애	917	4.2	0.02	860	1.2	0.01	0	0.0	0.00
지적장애	7,455	34.5	0.16	41,784	58.4	0.69	42,168	48.8	0.68
자폐성장애	3,183	14.7	0.07	9,482	13.3	0.16	6,286	7.3	0.10
정신장애	0	0.0	0.00	1,210	1.7	0.02	4,972	5.8	0.08
신장장애	0	0.0	0.00	0	0.0	0.00	0	0.0	0.00
심장장애	336	1.6	0.01	118	0.2	0.00	0	0.0	0.00
호흡기장애	0	0.0	0.00	0	0.0	0.00	0	0.0	0.00
간장애	0	0.0	0.00	0	0.0	0.00	0	0.0	0.00
안면장애	0	0.0	0.00	452	0.6	0.01	493	0.6	0.01
장루요루장애	0	0.0	0.00	0	0.0	0.00	0	0.0	0.00
뇌전증장애	387	1.8	0.01	528	0.7	0.01	822	1.0	0.01
계	21,597	100.0	0.47	71,529	100.0	1.18	86,431	100.0	1.40

〈표 5-1-5〉 주된 장애종류별·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계속

(단위: 명, %)

구분	30-39세			40-49세			50-64세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지체장애	73,646	41.4	0.97	169,676	51.4	2.04	469,994	57.9	4.74
뇌병변장애	16,099	9.0	0.21	22,713	6.9	0.27	79,407	9.8	0.80
시각장애	16,555	9.3	0.22	36,689	11.1	0.44	78,451	9.7	0.79
청각장애	11,134	6.3	0.15	20,781	6.3	0.25	60,365	7.4	0.61
언어장애	5,123	2.9	0.07	2,537	0.8	0.03	5,648	0.7	0.06
지적장애	33,353	18.7	0.44	22,980	7.0	0.28	27,195	3.3	0.27
자폐성장애	0	0.0	0.00	0	0.0	0.00	0	0.0	0.00
정신장애	13,243	7.4	0.17	37,835	11.5	0.46	41,203	5.1	0.42
신장장애	6,688	3.8	0.09	11,746	3.6	0.14	26,631	3.3	0.27
심장장애	456	0.3	0.01	862	0.3	0.01	1,855	0.2	0.02
호흡기장애	339	0.2	0.00	98	0.0	0.00	2,749	0.3	0.03
간장애	304	0.2	0.00	1,119	0.3	0.01	8,448	1.0	0.09
안면장애	89	0.1	0.00	552	0.2	0.01	1,084	0.1	0.01
장루요루장애	211	0.1	0.00	396	0.1	0.00	5,754	0.7	0.06
뇌전증장애	665	0.4	0.01	2,105	0.6	0.03	3,161	0.4	0.03
계	177,905	100.0	2.34	330,089	100.0	3.97	811,945	100.0	8.19

구분	65세이상			전체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지체장애	607,331	53.0	9.93	1,339,569	50.6	2.75
뇌병변장애	151,785	13.2	2.48	289,257	10.9	0.59
시각장애	133,212	11.6	2.18	274,483	10.4	0.56
청각장애	174,798	15.2	2.86	277,431	10.5	0.57
언어장애	6,314	0.6	0.10	21,399	0.8	0.04
지적장애	7,397	0.6	0.12	182,332	6.9	0.37
자폐성장애	0	0.0	0.00	18,951	0.7	0.04
정신장애	6,539	0.6	0.11	105,002	4.0	0.22
신장장애	26,811	2.3	0.44	71,876	2.7	0.15
심장장애	4,830	0.4	0.08	8,457	0.3	0.02
호흡기장애	12,799	1.1	0.21	15,985	0.6	0.03
간장애	1,969	0.2	0.03	11,840	0.4	0.02
안면장애	343	0.0	0.01	3,013	0.1	0.01
장루요루장애	10,345	0.9	0.17	16,706	0.6	0.03
뇌전증장애	2,095	0.2	0.03	9,763	0.4	0.02
계	1,146,568	100.0	18.74	2,646,064	100.0	5.43

재가장애인의 성별 장애출현율을 보면 〈표 5-1-6〉과 같이, 남자의 출현율이 6.31%로서 여자의 4.56%에 비해 1.75% 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은 남자의 경우 출현율이 지체장애(3.15%), 뇌병변장애(0.70%), 시각장애(0.68%), 청각장애(0.63%)의 순으로 높았으나, 여자의 경우 지체장애(2.35%), 청각장애(0.51%), 뇌병변장애(0.48%), 시각장애(0.45%)의 순으로 높았다.

안면장애의 출현율은 0.01%(인구 만명당 1명)으로 15개 법정장애 중에서 가장 낮았고, 이외 뇌전증장애와 간장애, 심장장애는 각 0.02%(인구 만명당 2명), 자폐성장애는 0.03%(인구 만명당 3명),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는 각 0.03%(인구 만명당 3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주된 장애 유형별·성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지체장애	761,027	49.9	3.15	578,542	51.7	2.35	1,339,569	50.6	2.75
뇌병변장애	170,122	11.1	0.70	119,135	10.6	0.48	289,257	10.9	0.59
시각장애	164,733	10.8	0.68	109,750	9.8	0.45	274,483	10.4	0.56
청각장애	151,667	9.9	0.63	125,764	11.2	0.51	277,431	10.5	0.57
언어장애	14,965	1.0	0.06	6,434	0.6	0.03	21,399	0.8	0.04
지적장애	105,842	6.9	0.44	76,490	6.8	0.31	182,332	6.9	0.37
자폐성장애	16,802	1.1	0.07	2,149	0.2	0.01	18,951	0.7	0.04
정신장애	53,917	3.5	0.22	51,085	4.6	0.21	105,002	4.0	0.22
신장장애	40,611	2.7	0.17	31,265	2.8	0.13	71,876	2.7	0.15
심장장애	5,768	0.4	0.02	2,689	0.2	0.01	8,457	0.3	0.02
호흡기장애	11,851	0.8	0.05	4,134	0.4	0.02	15,985	0.6	0.03
간장애	8,872	0.6	0.04	2,968	0.3	0.01	11,840	0.4	0.02
안면장애	2,670	0.2	0.01	343	0.0	0.00	3,013	0.1	0.01
장루요루장애	11,111	0.7	0.05	5,595	0.5	0.02	16,706	0.6	0.03
뇌전증장애	6,646	0.4	0.03	3,317	0.3	0.01	9,963	0.4	0.02
계	1,526,604	100.0	6.31	1,119,660	100.0	4.56	2,646,264	100.0	5.43

한편,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의 경우 각각의 장애를 하나의 건(spell)으로 보아 집계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의 출현율은 2.82%, 청각장애 0.64%, 시각장애 0.63%, 뇌병변장애 0.6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7〉을 보면, 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뇌전증장애는 출현율이 2011년보다 높아졌고, 반면에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는 출현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중복장애를 감안한 장애유형별 장애인구수를 환산하면 지체장애는 약 1,373.7천명, 청각장애는 313.5천명, 시각장애 309.1천명, 뇌병변장애 302.4천명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장애는 214.4천명, 자폐성장애는 21.9천명, 정신장애는 111.7천명, 신장장애 75.6천명, 심장장애 9.1천명, 호흡기장애 16.3천명, 간장애 12.3천명, 안면장애 3.6천명, 장루·요루장애 17.9천명, 뇌전증장애 22.8천명인 으로 추정되었다.

〈표 5-1-7〉 장애유형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및 추정 장애건수 비교

(단위: %, 명)

구분	2005년		2011년		2014년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지체장애	2.22	1,038,392	2.88	1,372,612	2.82	1,373,737
뇌병변장애	0.63	294,673	0.69	330,157	0.62	302,362
시각장애	0.59	277,087	0.60	285,752	0.63	309,140
청각장애	0.64	300,223	0.65	311,993	0.64	313,486
언어장애	0.50	233,903	0.22	103,880	0.25	123,649
지적장애	0.31	146,588	0.38	181,126	0.44	214,376
자폐성장애	0.07	33,671	0.04	21,421	0.04	21,886
정신장애	0.19	89,199	0.23	109,839	0.23	111,740
신장장애	0.09	41,068	0.13	64,176	0.16	75,642
심장장애	0.12	58,120	0.05	22,219	0.02	9,098
호흡기장애	0.08	36,402	0.04	20,116	0.03	16,255
간장애	0.03	15,557	0.02	9,972	0.03	12,323
안면장애	0.01	5,116	0.01	3,502	0.01	3,615
장루·요루장애	0.04	16,653	0.04	20,101	0.04	17,912
뇌전증장애	0.06	26,264	0.04	20,413	0.05	22,798

주: 중복장애 포함

장애인은 한 가지 장애만 있는 '단일장애'와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중복장애'[12]로 분류할 수 있는데, 중복장애인이 2014년의 경우 239.6천명으로 2011년의 231.2천명에 비해 8.3천명 증가하였다. 2가지 장애가 중복된 중복장애인은 85.3%를 차지하고 있고, 3가지 이상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14.7%를 차지하고 있다. 2가지 중복

12) 중복장애는 일반적으로 단일한 장애가 두 가지 이상인 상태를 중복장애라고 말하고 있다(手塚直樹, 1995:56).

장애의 경우 기타 이외에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의 중복장애비율이 1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지체장애와 청각장애(9.2%), 지체장애와 시각장애(8.8%)였다. 3가지 이상 중복장애의 경우는 기타 이외에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의 중복장애비율이 26.1%,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의 중복장애비율은 13.4%,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복장애비율이 9.5%의 순으로 많았다.

〈표 5-1-8〉 중복장애의 구성

(단위: 명, %)

구분	2011년		2014년	
	전국추정수	비율	전국추정수	비율
중복장애				
(2가지)	202,274	87.5	203,301	85.2
지체장애+시각장애	11,819	5.1	17,253	7.2
지체장애+청각장애	24,537	10.6	18,817	7.9
뇌병변장애+시각장애	6,792	2.9	12,592	5.3
뇌병변장애+언어장애	15,188	6.6	30,773	12.9
지적장애+언어장애	27,062	11.7	16,496	6.9
기타	116,876	50.5	107,370	45.0
(3가지 이상)	28,948	12.5	35,231	14.8
뇌병변장애+시각장애+언어장애	1,292	0.6	4,723	2.0
뇌병변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1,786	0.8	3,355	1.4
뇌병변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	6,487	2.8	9,195	3.9
기타	19,383	8.4	17,958,	7.5
계	231,222	100.0	238,533	100.0

제2절 장애인 가구[13]의 인구사회적 특성

1. 가구구성 및 가구규모

장애인 가구[14]는 조사대상 전체 가구의 약 15.6%로서 6.4가구 당 1가구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의 13.9%에 비해 1.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05년의 12.3%에서 장애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가구의 가구 구성을 보면, '부부+미혼자녀'(25.5%)와 '부부가구'(25.1%), '1인 가구'(24.3%)의 비중이 전체의 3/4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외에 '편모+미혼자녀'(5.5%), '부부+자녀+편부모'(5.1%)였으며,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의 경우는 3.8%로 나타났다. 2011년 결과와 비교하면, '1인가구'의 경우 2011년의 17.4%에 비해 6.9% 포인트 증가한 부분이 두드러지며, '부부+미혼자녀'는 2011년의 29.5%에 비해 4.0% 포인트 감소하였고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은 4.6%에 비해 0.8% 포인트 감소하였다. 비장애인 가구과 비교에서는 비장애인 가구는 '부부+미혼자녀' 비중이 40.1%로 높으나 장애인가구는 25.5%로 낮았고, 장애인 가구는 '부부가구'의 비중이 25.1%로 비장애인 가구의 17.7%에 비해 높았다. 3세대 이상의 가구 비중이 장애인 가구가 10.4%, 비장애인 가구가 4.3%로 차이를 보였다.

가구 비중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1인가구의 경우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나 장애인의 단독 가구 비중이 비장애인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 내용과 규모의 증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13) 장애인 가구 수 추정을 위한 가중치 작업은 통계청 2013년 가구 추계값으로 사후 조정하여 이루어졌으며, 장애인 수는 비등록장애인의 경우 가구 최종 가중치 정보를, 등록장애인의 경우 2013년 12월 등록장애인 DB의 장애인 정보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였다(보고서 제2장 표본설계 55p.).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는 2,834,279가구, 장애인 수(시설거주 장애인 수 포함)는 2,726,910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 가구 추계값이 증가 추세(1인 가구 증가 등 에 기인)에 있으며, 등록장애인 DB의 등록장애인 수는 201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 같이, 가구 수와 장애인 수의 가중치 산출에 사용된 기준의 변화 경향이 반영되어 나온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14)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표 5-2-1〉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세대구성

(단위: 가구, %)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계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1인 가구	687,652	24.3	4,018,354	26.1	4,706,006	25.8
부부	711,761	25.1	2,719,902	17.7	3,431,663	18.8
기타 1세대(형제·자매)	28,492	1.0	151,083	1.0	179,575	1.0
부부+미혼자녀	723,013	25.5	6,168,535	40.1	6,891,548	37.9
부부+기혼자녀	13,381	0.5	17,543	0.1	30,924	0.2
편부+미혼자녀	51,474	1.8	248,985	1.6	300,459	1.7
편모+미혼자녀	154,508	5.5	1,047,030	6.8	1,201,538	6.6
부부+양친	3,072	0.1	10,232	0.1	13,304	0.1
부부+편부모	54,659	1.9	114,558	0.7	169,217	0.9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16,720	0.6	30,297	0.2	47,017	0.3
조부모+손자녀	34,859	1.2	71,694	0.5	106,553	0.6
기타 2세대	56,024	2.0	117,364	0.8	173,388	1.0
부부+자녀(미혼·기혼)+양친	42,465	1.5	68,861	0.4	111,326	0.6
부부+자녀(미혼·기혼)+편부모	143,515	5.1	333,575	2.2	477,090	2.6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	108,180	3.8	211,215	1.4	319,395	1.8
비혈연가구	4,504	0.2	42,821	0.3	47,325	0.3
계	2,834,279	100.0	15,372,049	100.0	18,206,328	100.0
%	15.6		84.4		100.0	

가구규모별 분포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2인 가구(32.9%), 1인 가구(24.3%), 3인 가구(19.4%), 4인 가구(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애인 가구는 1인 가구(26.1%), 2인 가구(24.4%), 3인 가구(21.8%), 4인 가구(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에서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장애인 가구는 6.9% 포인트, 비장애인 가구는 5.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인 가구는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장애인 가구 3.0% 포인트, 비장애인 가구 5.3% 포인트 감소하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장애인 가구 2.55명, 비장애인 가구 2.59명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평균가구원 수가 다소 높았으며, 2011년의 평균 가구원 수인 2.78명에 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구 규모는 모두 감소하였다.

〈표 5-2-2〉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가구규모

(단위: 가구, %, 명)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계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1인 가구	687,652	24.3	4,018,354	26.1	4,706,006	25.8
2인 가구	931,807	32.9	3,750,833	24.4	4,682,640	25.7
3인 가구	549,602	19.4	3,345,011	21.8	3,894,613	21.4
4인 가구	400,904	14.1	3,278,702	21.3	3,679,606	20.2
5인 가구	173,733	6.1	791,357	5.1	965,090	5.3
6인 가구	71,266	2.5	155,580	1.0	226,846	1.2
7인 이상	19,315	0.7	32,212	0.2	51,527	0.3
계	2,834,279	100.0	15,372,049	100.0	18,206,328	100.0
%	15.6		84.4		100.0	
평균가구원수	2.55		2.59		2.58	

2. 경제상태

장애인 가구의 일반적인 경제상태를 월 평균 가구 총소득과 지출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50~99만원이 23.3%로 가장 높았고, 100~149만원이 13.8%, 150~199만원이 11.4%, 200~249만원은 9.7%, 250~299만원이 7.8%, 50만원 미만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월 평균 지출은, 50~99만원이 24.1%로 가장 높았고, 100~149만원이 17.2%, 150~199만원이 14.9%, 200~249만원이 12.5%, 50만원 미만이 7.9% 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 중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비중은 44.6%였으며, 월평균 지출이 150만원 미만인 비중은 49.2%로 나타나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 중 소득대비 지출규모가 큰 경우는 최소 4.6%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소득과 지출 모두 50만원 미만의 비중이 감소하고 50~99만원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2014년 중반이후 도입되어 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평균값은 223.5만원으로 2011년의 198.2만원에 비해 약 25만원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지출은 170.6만원으로 2011년의 161.8만원에 비해 8.8만원 증가하여 소득 증가폭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하였다.

〈표 5-2-3〉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단위: %, 만원)

구분	2011년		2014년	
	소득	지출	소득	지출
50만원 미만	10.3	9.0	7.5	7.9
50만원~99만원	20.7	23.9	23.3	24.1
100만원~149만원	15.2	18.0	13.8	17.2
150만원~199만원	12.7	15.2	11.4	14.9
200만원~249만원	11.7	13.0	9.7	12.5
250만원~299만원	6.9	6.5	7.8	6.3
300만원~349만원	7.8	6.6	6.9	7.2
350만원~399만원	3.9	2.5	4.0	2.6
400만원~449만원	3.4	2.6	4.3	3.2
450만원~499만원	1.6	0.8	2.4	0.9
500만원 이상	5.7	2.0	9.0	3.2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198.2	161.8	223.5	170.6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은 가구주의 소득이 47.5%로 가장 많았고, 가구주외 가구원의 소득이 15.3%, 별거가족·친척 등 지원이 12.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11.0%, 연금이나 퇴직금이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하면 가구의 주된 수입원 유형은 유사한 순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주 외 가구원 소득의 비중은 4.8% 포인트 감소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이나 퇴직금이 주된 수입인 비중은 3.5% 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5-2-4〉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

(단위: 가구, %)

구분	2011년		2014년	
	추정치	구성비	추정치	구성비
가구주의 소득	1,082,889	44.3	1,345,594	47.5
가구주외 가구원의 소득	490,170	20.1	433,295	15.3
연금이나 퇴직금	137,705	5.6	257,384	9.1
재산소득(부동산)	82,185	3.4	79,629	2.8
저축이나 증권수익	36,998	1.5	37,102	1.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66,519	10.9	312,691	11.0
별거가족·친척 등 지원	326,477	13.4	355,477	12.5
기타	19,498	0.8	13,107	0.5
계	2,442,442	100.0	2,834,279	100.0

3. 주택형태 및 차별인식

장애인 가구의 현재 살고 있는 주택 형태는 아파트(오피스텔)가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독주택이 41.6%, 다세대주택 7.8%, 연립주택 3.2%의 순이었다. 단독주택의 경우 2005년의 51.9%, 2011년의 47.7%, 2014년의 41.6%로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아파트(오피스텔)은 2005년의 33.7%, 2011년의 39.9%에서 2014년 45.4%로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였다.

〈표 5-2-5〉 장애인 가구의 주택형태

(단위: 가구, %)

구분	2011년		2014년	
	추정치	구성비	추정치	구성비
단독주택(다가구용단독주택포함)	1,166,152	47.7	1,178,598	41.6
아파트(오피스텔)	973,930	39.9	1,286,675	45.4
연립주택	59,726	2.4	90,912	3.2
다세대주택	190,685	7.8	220,374	7.8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점포, 여관 등)	49,232	2.0	55,113	1.9
비닐하우스, 움막, 판자집, 임시막사, 기타	2,717	0.1	2,607	0.1
계	2,442,442	100.0	2,834,279	100.0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를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장애인가구에서는 '약간 많다' 44.6%, '별로 없다' 28.1%, '매우 많다' 26.3%, '전혀 없다' 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 가구도 '약간 많다' 47.5%, '별로 없다' 27.2%, '매우 많다' 23.9%, '전혀 없다' 1.5%의 순으로 장애에 대한 차별인식정도에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목할 부분은 장애인 가구의 장애로 인한 차별이 '별로 없다'는 비율이 2011년 19.3%에 비해 8.8% 포인트 증가하였고, '매우 많다'는 비율이 2011년도의 31.3%에 비해 5.0% 포인트 감소한 부분이다. 전체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장애로 인한 차별이 매우 많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한 부분은 일면 환영할 만한 결과이나 인식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차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

에 대해서는 후속 검증작업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속적인 인식개선·홍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5-2-6〉 장애에 대한 차별인식정도

(단위: 가구, %)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계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전혀 없다	28,505	1.0	224,912	1.5	253,417	1.4
별로 없다	796,091	28.1	4,176,883	27.2	4,972,974	27.3
약간 많다	1,262,782	44.6	7,295,923	47.5	8,558,705	47.0
매우 많다	746,203	26.3	3,673,797	23.9	4,420,000	24.3
계	2,833,581	100.0	15,371,515	100.0	18,205,096	100.0

무응답 : 장애인가구 698 / 비장애인가구 534 / 전체 1,23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정도를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를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장애인가구에서는 '알지 못한다'가 6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 23.7%, '알고 있다' 8.6%의 순이었다. 비장애인 가구의 경우도 '알지 못한다'가 6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 29.2%, '알고 있다' 8.9%의 순이었다.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조사결과 전체 가구의 62.9%는 알지 못하며, 알고 있는 경우는 8.8%에 불과하였다. 2011년 '알고 있다' 비율인 8.0%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장애인에 대한 정보·교육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2-7〉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정도

(단위: 가구, %)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계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알고 있다	243,655	8.6	1,360,884	8.9	1,604,539	8.8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 모름	671,073	23.7	4,483,858	29.2	5,154,931	28.3
알지 못한다	1,918,853	67.7	9,526,601	62.0	11,445,454	62.9
계	2,833,581	100.0	15,371,343	100.0	18,204,924	100.0

무응답 : 장애인가구 698 / 비장애인가구 706 / 전체 1,404



제6장

조사 결과Ⅱ: 장애 유형별 특성 및 현황

제1절 지체장애
제2절 뇌병변장애
제3절 시각장애
제4절 청각장애
제5절 언어장애
제6절 지적장애
제7절 자폐성장애
제8절 정신장애
제9절 신장장애
제10절 심장장애
제11절 호흡기장애
제12절 간장애
제13절 안면장애
제14절 장루·요루장애
제15절 뇌전증(간질)장애

6 조사 결과Ⅱ: 장애 유형별 특성 및 현황

제1절 지체장애

1. 지체장애 분포

재가 지체장애인의 출현율을 지체장애가 있는 모든 사례 건수로 집계하면 다음의 〈표 6-1-1〉과 같이 인구 천명당 28.17건으로서, 이를 전국 일반 인구에 적용하면 재가 지체장애 인구는 1,373.7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체장애는 전체 15종의 장애유형 중 가장 큰 인구규모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단위는 사람(person)이 아니라 건수(spell)로서 지체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인, 즉 단순 지체장애 및 중복장애로서 지체장애를 갖는 사람의 합계로서 계산되었다.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 출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65세 이상~70세 미만에서는 84.0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70대 이상 특히, 75세 이상~8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129.32건으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지체장애 출현율이 32.3건으로 여자의 출현율인 24.12건 보다 더 높다.

지체장애 출현율을 과거의 실태조사 결과와 개략적으로 비교해 보면, 2005년도의 22.23건, 2011년도의 28.77건에 비하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다가 2011년 이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고령화에 따라 지체장애 출현율도 80세 전까지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6-1-1〉 지체장애의 연령분포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4세	-	-	-
5~ 9세	0.17	-	0.10
10~14세	0.37	1.02	0.69
15~19세	1.77	0.54	1.19
20~24세	1.60	1.46	1.54
25~29세	5.41	1.47	3.51
30~34세	12.28	3.90	8.15
35~39세	18.49	4.30	11.48
40~44세	24.09	9.62	16.94
45~49세	39.67	8.88	24.54
50~54세	50.83	19.88	35.44
55~59세	74.35	31.22	52.72
60~64세	79.88	50.23	64.61
65~69세	88.24	80.20	84.00
70~74세	100.48	114.55	108.38
75~79세	113.85	139.66	129.32
80세 이상	100.71	93.20	95.46
계	32.29	24.12	28.17
전국추정수	781,099	592,638	1,373,737
(N)	(1,946)	(1,636)	(3,582)

2. 장애부위

장애부위를 상지, 하지, 척추로 구분하여 볼 때, 장애부위는 하지의 장애가 4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척추 30.7%, 상지 22.6%의 순으로 나타나, 2011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하면 하지의 장애가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고 척추의 경우 약간 증가하고 상지는 약간 감소하였다.[15]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상지 한쪽과 하지 한쪽이 상대적으로 여자에 비해 많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하지 양쪽이 좋지 않은 비율이 높았고, 특히 척추 부위의 장애가 상대적으로 많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성별 지체장애의 부위에 있어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15)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지체장애의 장애부위는 하지 48.2%, 상지 23.5%, 척추 28.2%임.

〈표 6-1-2〉 지체장애의 장애부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계
상지	상지 우측	14.6	5.1	10.5
	상지 좌측	12.6	4.6	9.1
	상지 양 쪽	3.2	2.7	3.0
하지	하지 우측	16.3	12.5	14.6
	하지 좌측	15.5	12.3	14.1
	하지 양 쪽	11.5	26.4	18.0
척추		26.3	36.2	30.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81,099	592,638	1,373,737

지체장애인의 장애형태를 절단, 마비, 관절장애, 변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관절장애가 6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절단(13.8%), 마비(13.7%), 변형(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관절장애가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절단, 마비, 변형이 많고, 여자는 관절장애가 특히 많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1-3〉 지체장애의 장애형태(1)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절단	20.4	5.2	13.8
마비	15.3	11.7	13.7
관절	57.6	77.2	66.1
변형	6.7	5.8	6.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81,099	592,638	1,373,737

지체장애의 4가지 장애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단의 경우에는 손목미만이 절단된 경우(9.4%)가 가장 많고, 마비 중에서는 하지 한쪽(5.8%)이나 하지 양쪽(3.3%)의 마비가 비교적 많았다. 관절장애는 척추(27.7%), 무릎(20.3%), 고관절(7.5%) 등에서 장애가 많았으며, 변형의 경우에는 주로 하지변형과 하지길이 단축, 척추측만증이 많

은 편이었다. 이전의 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고령인구의 증가로 관절부위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6-1-4〉 지체장애의 장애형태(2): 손상부위별

(단위: %, 명)

구분	손상부위	남자	여자	전체
절단	팔꿈치 이상	0.7	0.1	0.5
	팔꿈치 미만~손목	1.6	0.3	1.0
	손목 미만(손등, 손가락)	14.6	2.5	9.4
	무릎 이상	0.6	0.4	0.5
	무릎 미만~발목	1.8	1.3	1.6
	발목 미만	0.7	0.5	0.6
	양쪽 발가락	0.4	0.1	0.2
마비	상지 한쪽	2.4	1.2	1.9
	상지 양쪽	0.4	0.1	0.3
	하지 한쪽	6.3	5.1	5.8
	하지 양쪽	3.7	2.8	3.3
	상하지 한쪽	1.6	1.5	1.5
	상하지 양쪽	0.3	0.9	0.6
	전신(전신마비)	0.5	0.2	0.3
관절	어깨	1.6	1.0	1.4
	팔꿈치	2.6	1.3	2.1
	손목	1.5	0.8	1.2
	손가락	2.2	2.0	2.1
	고관절(엉덩이)	7.7	7.1	7.5
	무릎	12.5	30.5	20.3
	발목	5.9	1.4	4.0
	척추(디스크)	23.6	33.1	27.7
변형	척추후만증	0.4	0.6	0.5
	척추측만증	0.8	1.7	1.2
	하지길이 단축(5cm이상)	1.8	0.9	1.4
	상지변형	1.3	0.8	1.1
	하지변형	1.9	0.9	1.5
	상하지변형	0.2	0.4	0.3
	왜소증	0.3	0.6	0.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81,099	592,638	1,373,737

지체장애의 발생 시기를 알아보면 거의 대부분 출생 이후에 발생(98.7%)되고 있어

지체장애의 특성 상 후천적 원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이전의 조사결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1-5〉 지체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1.4	1.3	1.3
돌 이전	1.2	1.4	1.3
돌 이후	97.4	97.4	97.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81,099	592,638	1,373,737

지체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 시기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20대 이후 다소 많아지기는 하지만 전 연령대에 걸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성별 지체장애 발생 시기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에는 20대~50대의 발생비율이 비교적 고른데 비해 여자는 40대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0대 이후에는 남자에 비해 장애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활동이 많은 남자의 경우 일찍 장애를 갖게 되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평균수명의 차이 등으로 고령과 관련된 지체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6-1-6〉 지체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9.8	8.7	9.4
만 5~ 9세	3.4	1.6	2.6
만 10~19세	6.8	3.1	5.2
만 20~29세	16.2	3.7	10.8
만 30~39세	15.5	5.5	11.2
만 40~49세	20.2	15.2	18.0
만 50~59세	14.2	22.9	18.0
만 60~64세	6.1	14.5	9.7
만 65~69세	4.3	12.3	7.8
만 70세 이상	3.5	12.4	7.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81,099	592,638	1,373,737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을 선천적, 출생시 및 후천적 원인(질환/사고)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전체 지체장애인의 49.4%가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고 다음으로는 질환이 48.5%로 나타나 후천적 원인인 사고와 질환이 장애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천적 원인은 1.2%로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사고가 65.3%로 매우 많은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질환이 69.4%로 많아 성별 지체장애 발생원인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7〉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1.3	1.2	1.2
출생시 원인		0.2	0.3	0.2
후천적 원인	질환	32.6	69.4	48.5
	사고	65.3	28.4	49.4
원인불명		0.7	0.7	0.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81,099	592,638	1,373,737

지체장애의 후천적 원인을 질환과 사고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보면 질환에 의한 원인 중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3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이전의 실태조사 결과(36.7%)에 비해서 다소 높아진 비율이다. 성별로는 남자 보다 여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장애를 갖는 경우가 약 3배 수준으로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고로 인한 원인에 있어서는 기타 사고 및 외상이 27.3%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도 14.4%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의 경우 안전사고나 교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기타 사고와 교통사고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여자는 경우에도 기타 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가정내 사고의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1-8〉 지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신경계질환	0.9	1.3	1.1
		심혈관질환	0.4	0.4	0.4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0.7	0.3	0.5
		근골격계 질환	22.8	60.6	39.1
		신생물(종양)질환	0.6	0.7	0.6
		중독성질환	0.0	0.0	0.0
		감염성질환	7.8	7.5	7.6
		미상	0.1	0.3	0.1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0.4	0.0	0.2
		가정 내 사고	2.7	5.2	3.8
		교통사고(탑승자)	13.8	6.1	10.5
		교통사고(보행자)	3.9	3.8	3.9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4.7	0.7	3.0
		화상	1.2	0.5	0.9
		약물 사고	0.1	0.2	0.1
		재난	0.1	0.1	0.1
		기타 사고 및 외상	38.7	12.4	27.3
		전상	1.1	0.1	0.7
		미상	0.0	0.1	0.1
		기타	0.0	0.1	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64,251	579,971	1,344,222

지체장애가 발생된 원인을 주된 질환명에 따라서 분류하면, 주된 질환으로는 전체적으로 근골격계질환(30.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절(20.2%), 관절염(14.5%), 절단(13.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 결과를 2011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척추손상(경추), 골절의 비중이 감소하고 관절염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는 상대적으로 골절이 여자에 비해 많고, 여자의 경우는 근골격계질환과 관절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표 6-1-9〉 지체장애의 주된 진단명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소아마비	6.9	6.0	6.5
척수손상-경추	1.0	0.4	0.7
척수손상-흉추	0.4	0.5	0.4
척수손상-요추	4.2	2.8	3.6
척수질환(척수염)	0.2	0.2	0.2
관절염	3.9	28.5	14.5
종양(암)	0.5	0.6	0.5
절단	19.6	4.7	13.2
신경근육질환	2.3	2.0	2.2
근골격계질환	26.1	35.6	30.2
골절	25.4	13.3	20.2
미상	1.3	1.9	1.6
기타	8.1	3.5	6.1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80,727	592,639	1,373,366

주: 무응답 제외함.

제2절 뇌병변장애

1. 출현율

뇌병변장애는 뇌졸중,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으로 분류되는 장애로서 뇌병변장애인의 출현율을 알아보면, 인구 천명당 6.20건으로 전체 302.3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정 장애범주에 처음 포함된 이래 뇌병변장애도 출현율이 약간씩 증가해 왔으며, 2011년의 뇌병변 출현율은 6.92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는 인구 천명당 7.45건으로 약 180천명, 여자는 인구 천명당 4.98건인 122천명으로 나타나, 남자의 뇌병변장애 출현율이 여자에 비해 평균 1천명당 2.47건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뇌병변장애 가운데서는 뇌성마비는 주로 아동기 이전에 발생되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뇌졸중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연령별 출현율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뇌병변장애의 출현율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65세 이후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천명당 20.84건, 70대 중반 이후에는 33.80건, 80세 이후에도 22.23건으로 높은 출현율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60대 중반 이후 증가하는 반면 남자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빨라 50대 중반 이후 높아지며, 60세 이후 출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뇌병변장애의 증가도 이전 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인구고령화의 연장선상에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향후 뇌병변장애를 포함한 신체적 장애영역에 있어 점차 고령자 비중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표 6-2-1〉 뇌병변장애의 연령 분포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4세	1.00	1.00	1.00
5~ 9세	1.89	2.61	2.24
10~14세	0.74	0.91	0.82
15~19세	1.56	0.14	0.89
20~24세	0.91	0.69	0.80
25~29세	2.75	0.62	1.72
30~34세	1.57	1.70	1.63
35~39세	3.06	2.56	2.81
40~44세	4.30	0.95	2.65
45~49세	5.12	1.03	3.11
50~54세	8.75	3.17	5.97
55~59세	10.63	5.49	8.05
60~64세	17.23	7.93	12.44
65~69세	23.97	18.05	20.84
70~74세	36.10	23.83	29.21
75~79세	44.87	26.40	33.80
80세 이상	29.58	19.07	22.23
계	7.45	4.98	6.20
전국추정수 (N)	180,119 (433)	122,243 (334)	302,362 (767)

2. 장애부위

뇌병변장애인의 장애부위를 알아보면 상지와 하지에 모두 장애가 있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지체장애와는 다른 뇌병변장애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뇌병변장애의 장애부위는 상지우측을 제외하고 하지가 상지보다는 약간 많으며, 상지나 하지 양쪽보다는 우측이나 좌측의 한쪽에 장애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척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뇌병변장애의 하위 장애 중 뇌졸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인 편마비에 의한 결과로 비롯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대체로 뇌병변장애의 경우 운동장애와 함께 감각장애, 인지·언어장애 등을 복합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장애의 부위에 있어서는 남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6-2-2〉 뇌병변장애의 장애부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상지	상지 우측	21.1	21.1	21.1
	상지 좌측	18.0	16.5	17.4
	상지 양 쪽	6.8	8.3	7.4
하지	하지 우측	20.9	20.6	20.8
	하지 좌측	18.4	16.6	17.6
	하지 양 쪽	10.5	12.5	11.4
척추		4.3	4.4	4.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0,119	122,243	302,362

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동반증상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뇌성마비의 동반증상으로는 경직·불수의운동이 7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절구축이 49.8%, 배변장애를 갖는 경우도 28.9%로 대부분 경직·불수의운동과 관절구축이 가장 많은 동반증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3〉 뇌성마비의 동반증상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경직·불수의운동	73.5	78.2	75.4
관절구축	49.1	50.8	49.8
배변장애	27.2	31.4	28.9
기타	10.6	14.6	12.2

주: 뇌병변장애 중 뇌성마비인의 중복응답 결과임.

뇌성마비의 주 특성은 장애의 중복을 들 수 있는데, 주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가장 많아서 49.8%를 차지하고 있고, 지적장애 23.4%, 시각장애 15.7%, 청각장애 11.8%의 순으로 언어장애와 지적장애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가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전증장애의 동반장애를, 여자의 경우는 시각장애, 지적장애, 기타의 동반장애를 갖는 비율이 높아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2-4〉 뇌성마비의 동반장애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시각장애	15.1	16.5	15.7
청각장애	12.6	10.6	11.8
언어장애	53.3	44.7	49.8
지적장애	22.9	24.2	23.4
뇌전증장애(경련)	8.3	5.4	7.1
기타	2.9	3.3	3.1

주: 뇌병변장애 중 뇌성마비인의 중복응답 결과임.

뇌병변장애의 발생시기를 알아보면, 뇌성마비와 뇌졸중 등 세부 장애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장애 발생시기가 거의 대부분 출생 이후에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뇌성마비를 제외하고 뇌병변장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뇌졸중의 경우 대부분 후천적 원인이고,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실태조사와 거의 유사하다.

〈표 6-2-5〉 뇌병변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3.2	4.2	3.6
돌 이전	4.5	4.0	4.3
돌 이후	92.3	91.8	92.1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0,119	122,243	302,362

돌 이후에 발생되는 뇌병변장애의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는 40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더욱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뇌졸중의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만 4세 이하에서 발생되는 경우는 11.3%인데 여기에는 뇌성마비와 같이 주로 유아기 이전에 발생되는 장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더라도 발생시기가 조금씩 빨라지는 추세와 함께 고령장애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별 장애 발생시기에 있어서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 뇌병변장애 발생비율이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남자는 장년층에서 부터 발생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2-6〉 뇌병변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12.0	10.3	11.3
만 5~ 9세	2.1	1.0	1.6
만 10~19세	2.6	2.7	2.6
만 20~29세	3.1	3.8	3.4
만 30~39세	6.1	2.7	4.7
만 40~49세	19.4	13.1	16.9
만 50~59세	24.0	20.6	22.7
만 60~64세	12.7	12.9	12.8
만 65~69세	8.4	17.3	12.0
만 70세 이상	9.6	15.6	12.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0,119	122,243	302,362

뇌병변장애의 장애원인을 선천적, 출생시,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해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뇌병변장애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94.8%)으로 조사되었다. 선천적이거나 출생시 원인은 극히 적었으며, 후천적 원인 중에는 질환이 83.9%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장애발생 시기와 연관을 지어 볼 수 있으며, 2011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성별로는 남자가 사고가 다소 많고 여자가 질환이 많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2-7〉 뇌병변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1.3	2.4	1.7
출생시 원인		3.5	2.6	3.2
후천적 원인	질환	81.0	88.2	83.9
	사고	14.2	6.0	10.9
원인불명		-	0.3	0.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0,119	122,243	302,362

뇌병변장애의 장애원인 중 후천적 원인을 세분해서 보면 크게 질환과 사고로 구분했을 때,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질환 가운데서는 심혈관질환이 가장 많은 71.3%인데, 이는 뇌병변장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뇌졸중에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11년의 조사에서도 심혈관질환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뇌졸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신경계 질환이 12.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고 등에 의한 장애(뇌손상 등)는 교통사고가 5.8%, 기타사고나 외상이 4.7%였으며,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타 사고 및 외상이 많았다.

〈표 6-2-8〉 뇌병변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신경계질환	11.6	13.8	12.5
		심혈관질환	68.9	75.0	71.3
		호흡기질환	0.4	-	0.2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0.2	-	0.1
		신생물(종양)질환	1.4	2.9	2.0
		중독성질환	0.3	0.4	0.4
		감염성질환	2.3	1.5	1.9
	사고	가정내 사고	0.2	-	0.1
		교통사고(탑승자)	4.4	2.0	3.5
		교통사고(보행자)	2.7	1.7	2.3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0.2	0.4	0.3
		약물 사고	0.4	-	0.3
		기타 사고 및 외상	6.6	1.9	4.7
		기타	0.3	0.3	0.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71,506	115,144	286,650

뇌병변장애의 발생 원인을 응답자의 연령별로 질환명에 따라서 분류하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장애라 할 수 있는 뇌졸중이 69.5%로 가장 많고, 그 밖의 질환으로는 뇌손상이 11.2%, 뇌성마비가 8.2%로 2011년에 비해 뇌성마비가 약간 증가한 반면, 뇌손상, 뇌졸중은 약간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10대 이전까지는 뇌손상 및 뇌성마비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40대 이상의 응답자에서는 뇌졸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2-9〉 뇌병변장애의 주된 진단명: 연령별

(단위: %,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세이상	전체
뇌성마비	20.0	51.3	34.5	42.0	25.5	9.2	0.2	-	-	8.2
뇌졸중	3.4	5.2	16.1	14.2	43.2	70.5	80.4	80.3	86.1	69.5
뇌손상	35.8	19.5	28.2	23.3	15.7	12.5	11.0	12.7	4.7	11.2
뇌막염	4.7	4.6	-	5.9	5.4	1.1	1.7	-	-	1.3
뇌종양(암)	-	1.8	7.5	5.3	3.2	3.7	-	1.5	0.9	2.0
미상	6.9	5.9	3.9	3.2	-	-	1.4	1.0	0.3	0.9
기타	29.2	11.6	9.8	6.1	7.1	3.0	5.2	4.5	8.1	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180	5,213	7,792	16,847	23,881	52,082	29,551	39,796	120,020	302,362

뇌병변장애 중 뇌성마비장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출산장소와 출산방법을 조사하였는데, 뇌성마비인의 출생 장소를 알아보면 병·의원이 자택에 비해 많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자택의 비중이 큰 편이다. 즉, 자택이 28.3%, 종합병원과 병·의원이 65.3%이며 조산원은 6.0%였다. 대부분의 산모들이 병원 등 시설에서의 분만을 99% 이상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뇌성마비인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출생 장소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2-10〉 뇌성마비장애의 출생 장소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종합병원	22.8	9.4	17.9
병·의원	39.1	62.0	47.4
조산원	5.2	7.2	6.0
자택	32.3	21.4	28.3
기타	0.6	-	0.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769	9,034	24,803

다음으로는 뇌성마비인의 출산방법을 조사한 결과 자연분만이 84.4%, 제왕절개가 15.6%로 최근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분만의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분만장소로 자택이 많은 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6-2-11〉 뇌성마비장애의 출산방법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자연분만	81.6	89.3	84.4
제왕절개	18.4	10.7	15.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769	9,034	24,803

제3절 시각장애

1. 시각장애인의 연령분포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 1,000명당 6.34건으로서, 시각장애인은 309.1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출현율은 2011년(5.99건)과 비교하여 0.35건 높아진 것인데, 전체적인 장애출현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각장애 출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성별 출현율을 보면, 남성 시각장애인은 7.65건, 여성 시각장애인은 5.05건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상당히 높았다. 한편,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현율도 점차 높아지다가 80세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녀 모두 60세 이후부터 출현율의 급격한 증가를 볼 수 있었다.

〈표 6-3-1〉 성별·연령별 시각장애 분포(출현율대체)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0.15	0.49	0.32
10~19세	1.15	0.56	0.87
20~29세	1.24	0.41	0.83
30~39세	4.03	1.13	2.60
40~49세	7.12	2.56	4.88
50~59세	9.96	5.52	7.74
60~64세	15.58	11.11	13.27
65~69세	22.34	16.93	19.48
70~79세	35.82	20.87	27.19
80세 이상	29.60	20.91	23.52
계	7.65	5.05	6.34
전국추정수 (N)	185,087	124,052	309,139

2. 시각장애 형태 및 시력인지 여부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되는데, 전체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야결손장애는 1.9%로 대부분 시력장애(전체의 98.1%)로 인한 시각장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각장애의 형태는 성별에 관계없이 시력장애로 인한 장애인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3-2〉 시각장애 형태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시력장애	98.1	96.3	97.4
시야결손장애	1.9	3.7	2.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5,087	124,052	309,139

특히 시력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 중에서 본인의 시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 전체의 45.5%만이 본인의 시력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의 경우, 본인의 시력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35.0%)이 남자(52.4.1%)보다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시각장애인의 본인 시력을 알고 있는 비율(46.2%)과 비교했을 때, 인지수준이 조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6-3-3〉 시각장애의 시력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안다	52.4	35.0	45.5
모른다	47.6	65.0	54.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1,610	119,411	301,021

시각장애인들은 점자해독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관해 조사해본 결과, 점자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겨우 전체 시각장애인의 5.1%에 불과했고, 93.4%는 점자해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점자해독이 가능한 비율(5.2%)과 비교하면, 2014년도 점자해독 가능 비율은 별 차이가 없었다. 한편 점자해독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중에서 남성의 비율(5.7%)이 여성의 비율(4.1%)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점자해독을 배우는 중에 있는 비율은 전체의 1.6%로 이들 중 여자(2.7%)가 남자(0.8%)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4〉 시각장애의 점자해독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가능하다	5.7	4.1	5.1
불가능하다	93.5	93.2	93.4
배우는 중이다	0.8	2.7	1.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1,610	119,411	301,021

3. 장애 발생 시기

시각장애의 장애상태가 최초로 발생된 시기를 살펴보았더니 출생전 또는 출생시에 발생한 비율은 2.3%이며, 돌 이전 2.1%, 돌 이후 95.6%로써 대부분 돌 이후에 시각장애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각장애의 장애발생 시기에 있어서 돌 이후 발생한 시기의 비율에 대하여 2011년 93.3%와 비교해 보면, 2014년도 조사결과는 돌 이후 장애발생 비율이 2011년 이전 두 조사 때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발달과 가족구성원의 소자녀화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자녀의 질병이나 발달상태 미숙을 좀 더 일찍 발견·관찰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후천적 장애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표 6-3-5〉 시각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1.6	3.4	2.3
돌 이전	1.2	3.3	2.1
돌 이후	97.1	93.2	95.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5,087	124,052	309,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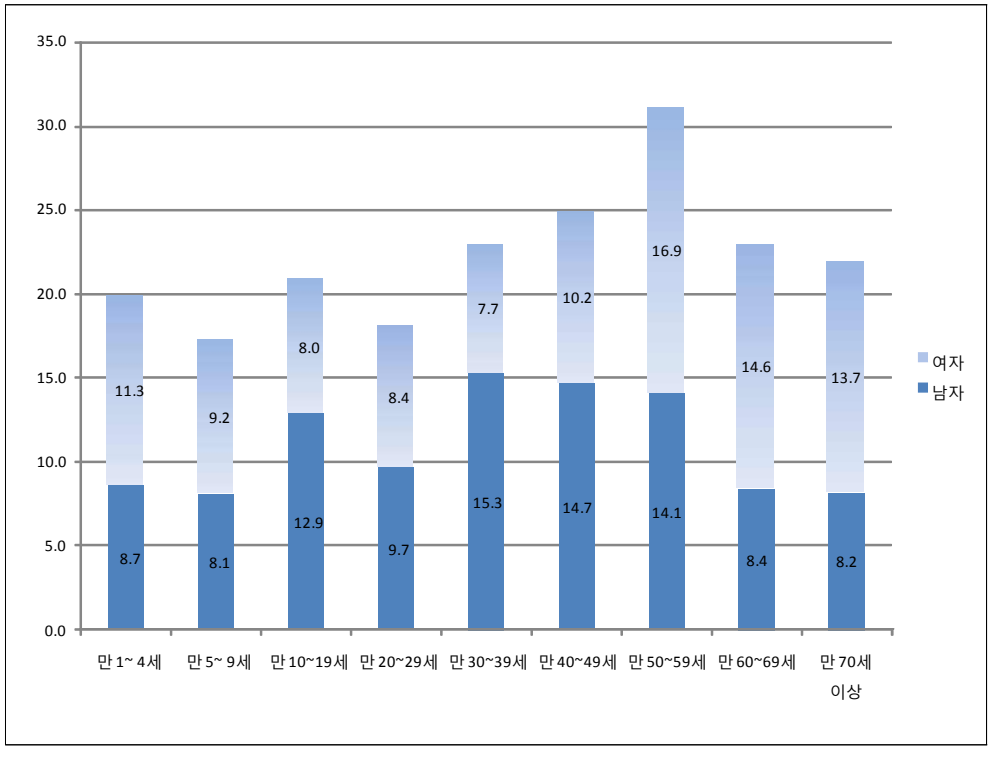
시각장애가 돌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이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1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대 13.0%, 30대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 이후에 발생한 시각장애인의 성별 연령분포를 분석해보면, 30대 남자의 비율은 여자보다 2배 가까이 높고, 50세 이후부터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3-6〉 시각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8.7	11.3	9.7
만 5~ 9세	8.1	9.2	8.5
만 10~19세	12.9	8.0	11.0
만 20~29세	9.7	8.4	9.2
만 30~39세	15.3	7.7	12.3
만 40~49세	14.7	10.2	13.0
만 50~59세	14.1	16.9	15.2
만 60~69세	8.4	14.6	10.8
만 70세 이상	8.2	13.7	10.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79,740	115,655	295,395

[그림 6-3-1] 시각장애의 연령계층별·성별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도표



4. 장애 발생 원인

시각장애인의 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인 원인 중에서도 질환에 의한 시각장애가 5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이 35.8%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고나 질환과 같은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장애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불명의 경우도 5.2%나 차지하였다. 물론 선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시각장애가 발생한 비율도 전체 시각장애인의 4.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질환에 의한 시각장애 원인이 57.3%로 다른 원인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도 질환에 의한 장애발생이 51.1%로 장애발생 원인 중에서 가장 높았다.

〈표 6-3-7〉 시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4.5	5.3	4.8
출생시 원인		0.7	0.4	0.6
후천적 원인	질환	51.1	57.3	53.6
	사고	38.8	31.3	35.8
원인불명		4.8	5.7	5.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5,087	124,052	309,139

시각장애인의 89.4%는 후천적 장애발생에 의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감각기 질환'에 의한 장애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비율이 남자는 40.4%, 여자는 45.4%였다. 그 다음순위의 후천적 장애발생 원인은 남자와 여자 모두 '기타 사고 및 외상'에 의한 원인이 각각 25.3%, 19.7%로 조사되었다.

〈표 6-3-8〉 시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신경계질환	1.0	1.9	1.4
		정신질환	-	-	-
		감각기(눈, 귀, 조금기관) 질환	40.4	45.4	42.4
		심혈관 질환	4.7	4.6	4.7
		호흡기 질환	-	-	-
		소화기계 질환	-	-	-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3.1	4.3	3.6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	-	-
		근골격계 질환	-	-	-
		신생물(종양)질환	1.7	1.8	1.7
		중독성 질환	0.1	0.0	0.0
		감염성 질환	5.4	5.9	5.6
		미상	0.3	0.4	0.4
		기타	0.0	0.4	0.1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1.0	1.0	1.0
		가정내 사고	2.7	6.2	4.1
		교통사고(탑승자)	5.7	1.9	4.2
		교통사고(보행자)	0.8	1.5	1.1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6.4	4.0	5.4
		화상	0.2	0.0	0.1
		약물 사고	0.1	0.0	0.1
		재난	-	-	-
		기타 사고 및 외상	25.3	19.7	23.1
		전상	0.3	0.6	0.4
		미상	-	-	-
		기타	0.6	0.5	0.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6,384	109,824	276,208

시각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 시기를 보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노인성질환에 의해 시각장애의 발생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성 질환에 의한 시각장애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각장애의 89.4%가 후천적 원인인 질환과 사고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러한 발

생 원인을 감소시키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의료적 치료를 행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제4절 청각장애

1. 청각장애인 연령분포

청각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6.43건이며, 전국의 청각장애인은 313.5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출현율은 2011년도의 청각장애 출현율 결과인 인구 천명당 출현율(6.54건)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인구 천명당 6.96건으로 여자의 5.91건보다 1.05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청각장애 출현율이 여자보다 약간 높으며 그 차이는 2011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출현율을 보면, 청각장애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출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60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표 6-4-1〉 성별·연령별 청각장애인 분포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0.79	0.06	0.44
10~19세	0.55	1.33	0.92
20~29세	0.88	0.79	0.83
30~39세	2.02	1.26	1.65
40~49세	2.66	2.45	2.56
50~59세	6.13	6.50	6.32
60~64세	8.21	8.23	8.22
65~69세	24.78	11.17	17.59
70~79세	45.38	26.12	34.26
80세 이상	83.59	38.40	51.97
계	6.96	5.91	6.43
전국추정수 (N)	168,377	145,110	313,487

2. 청각장애 형태

청각장애의 장애형태를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로 구분하여 알아보면, 청력장애는 100.0%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중에서 평형기능장애도 가진 비율은 3.7%인 것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인의 일부는 평형기능장애를 동반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형기능장애를 가진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2〉 청각장애 형태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청력장애	100.0	100.0	100.0
평형기능장애	2.3	5.3	3.7
계	102.3	105.3	103.7
전국추정수	168,377	145,110	313,487

주: 중복 응답

3. 보청기 사용 여부 및 인공와우 수술 여부

청각장애인의 주된 보조기구인 보청기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청각장애인의 61.8%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38.2%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 사용률은 2011년 60.4%인 것과 비교하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보청기 사용율이 작지만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4-3〉 보청기 사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60.7	63.0	61.8
아니오	39.3	37.0	38.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8,377	145,110	313,487

청각장애인이 인공와우수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청각장애인의 3.4%만이 인공와우수술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는 3.4%, 여자는 3.5%로 인공와우수술

여부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4〉 인공와우 수술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3.4	3.5	3.4
아니오	96.6	96.5	96.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8,377	145,110	313,487

4. 의사소통방법

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의사소통을 할 만큼 수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비율은 8.0%에 불과하였다.

〈표 6-4-5〉 청각장애의 수화가능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7.8	8.4	8.0
아니오	92.2	91.6	92.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8,377	145,110	313,487

그렇다면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조사하였는데,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방법은 '말'로 나타났다. 주된 의사소통으로 '말'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8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화'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7.5%, '수화'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1년 결과와 비교할 때 '수화(4.6%)', '구화(3.8%)'의 사용 비율이 비해 다소 증가하였는데 구화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남자가 여자에 근소한 차이로 높았고, '구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6-4-6〉 청각장애의 주 의사소통방법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수화	5.9	6.0	6.0
구화(입모양)	6.4	8.8	7.5
필담(글쓰기)	2.8	1.8	2.3
말	81.0	79.6	80.3
몸짓	3.2	3.8	3.5
기타	0.7	0.0	0.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8,377	145,110	313,487

5. 장애발생시기

청각장애인의 장애발생시기를 알아보면, 돌 이후가 9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출생전 또는 출생시에 발생한 경우는 3.1%, 돌 이전에 발생한 경우가 2.4%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4-7〉 청각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3.1	3.0	3.1
돌 이전	2.6	2.1	2.4
돌 이후	94.3	94.9	94.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8,377	145,110	313,487

청각장애가 돌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비율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40대에 청각장애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 50대에 청각장애가 발생했다는 비율이 13.3%, 60대에 발생했다는 비율이 21.1%, 70대 이상에서 청각장애가 발생했다는 비율이 18.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유사하지만, 남자는 50대부터 증가폭이 큰 반면에, 여자는 60대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6-4-8〉 청각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9.7	8.9	9.3
만 5~ 9세	8.3	10.9	9.5
만 10~19세	7.1	7.2	7.1
만 20~29세	8.6	5.0	6.9
만 30~39세	6.1	7.2	6.6
만 40~49세	6.8	8.0	7.3
만 50~59세	15.9	10.4	13.3
만 60~64세	11.6	11.2	11.4
만 65~69세	9.5	10.0	9.7
만 70세 이상	16.5	21.3	18.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8,377	145,110	313,487

6. 장애원인

청각장애 발생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후천적 원인이 84.2%로 가장 많았는데, 후천적 원인을 세분화하면 질환이 72.8%, 사고가 11.4%였다. 그리고 선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은 7.5%, 출생 시 원인이 1.2%, 원인불명 7.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모두 질환에 의한 후천적 원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 순위는 사고에 의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의 경우, 질환에 의한 후천적 원인이 남자보다 10%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남자는 사고로 인한 청각장애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표 6-4-9〉 청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7.9	7.0	7.5
출생시 원인		1.3	1.2	1.2
후천적 원인	질환	68.5	77.9	72.8
	사고	14.0	8.4	11.4
원인불명		8.3	5.5	7.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8,377	145,110	313,487

청각장애인의 장애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후천적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이 되는 질환과 사고에 대해서 세분화하여 알아보았다.

청각장애의 후천적 원인 중 질환에 의한 경우는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질환에 의한 경우가 5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염성 질환(31.4%)의 순이었다. 후천적 원인 중 사고에 의한 경우는 폭력에 의한 사고와 기타 사고 및 외상이 각 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상 2.6%, 교통사고(탑승자+보행자) 2.1%, 가정내 사고 0.7%의 순이었다.

후천적 장애원인을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질환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비율은 여자가 더 높았고,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남자가 조금 더 높았다. 사고에 의한 장애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지만 폭력에 의한 사고와 가정내 사고가 원인인 비율은 여자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4-10〉 청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신경계질환	0.7	0.4	0.6
		정신질환	-	-	-
		감각기(눈, 귀, 조금기관) 질환	49.2	52.9	50.9
		심혈관 질환	1.2	0.7	1.0
		호흡기 질환	0.5	0.0	0.2
		소화기계 질환	-	-	-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1.1	0.5	0.8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	-	-
		근골격계 질환	-	-	-
		신생물(종양)질환	0.3	0.6	0.4
		중독성 질환	-	-	-
		감염성 질환	29.8	33.3	31.4
		미상	0.2	2.0	1.1
		기타	-	-	-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3.3	4.0	3.6
		가정내 사고	0.2	1.2	0.7
		교통사고(탑승자)	2.6	0.9	1.8
		교통사고(보행자)	0.5	0.1	0.3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0.2	0.6	0.4
		화상	-	-	-
		약물 사고	0.2	0.0	0.1
		재난	0.0	0.1	0.0
		기타 사고 및 외상	4.9	2.3	3.6
		전상	4.9	0.2	2.6
		미상			
		기타	0.2	0.5	0.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8,925	125,189	264,114

제5절 언어장애

1. 출현율

재가장애인 가운데 언어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2.54건이며, 언어장애인은 전국적으로 123.6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출현율은 2011년도 출현율(2.18건)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언어장애 출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70세 이후 언어장애 출현율의 증가는 언어장애가 노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과 동반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3.48건으로 여자의 1.60건보다 1.88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언어장애 출현율이 여자보다 높았다. 특히, 남자는 연령이 60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6-5-1〉 성별·연령별 언어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2.05	0.69	1.39
10~19세	2.39	1.05	1.75
20~29세	1.46	0.99	1.23
30~39세	2.76	1.47	2.13
40~49세	2.17	0.75	1.47
50~59세	4.72	2.18	3.45
60~64세	3.65	3.14	3.38
65~69세	7.03	2.26	4.51
70~79세	12.20	2.48	6.58
80세 이상	10.28	5.35	6.83
계	3.48	1.60	2.54
전국추정수 (N)	84,248	39,399	123,647

2. 장애형태

언어장애인의 장애형태는 말은 하지만 발음이 이상하여 알아듣기 어려운 조음장애가 3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언어장애, 실어증이 27.0%,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24.4%, 말더듬 12.1%, 음성장애 2.6%의 순이었다.

성별 언어장애의 형태를 보면, 남녀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조음장애 다음으로 언어장애 및 실어증의 순으로 장애형태가 나타났지만, 여자는 조음장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말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표 6-5-2〉 언어장애의 장애형태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말을 전혀 하지 못한다	21.2	31.1	24.4
조음장애	33.0	35.6	33.8
말더듬	14.3	7.5	12.1
음성장애	2.6	2.8	2.6
언어장애, 실어증	28.9	23.0	27.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3,659	39,400	123,059

주: 무응답 제외

3. 의사소통방법

언어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의사소통을 할 만큼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11.8%로 조사되었다. 특히, 성별로 보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수화를 사용하는 여자의 비율은 남자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표 6-5-3〉 언어장애의 수화가능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10.5	14.7	11.8
아니오	89.5	85.3	88.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3,659	39,400	123,059

주: 무응답 제외

언어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법은 '말'이었다. '말'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54.0%, '몸짓' 23.4%, '수화' 10.9%, '구화' 6.2%, '필담' 2.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말로 의사소통하는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고, 대신 몸짓이나 수화, 구화 비율은 여자보다 낮았다. 의사소통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장애인의 경우, 여자는 전혀 없는 반면에 남자는 극소수지만 1.1%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5-4〉 언어장애의 주 의사소통방법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수화	9.9	13.2	10.9
구화	5.6	7.5	6.2
필담	3.5	0.2	2.5
말	56.7	48.4	54.0
몸짓	21.2	28.1	23.4
의사소통보조기구(터치방식, 음향) 사용	1.1	0.0	0.8
기타	2.0	2.6	2.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3,659	39,400	123,059

주: 무응답 제외

4. 장애발생시기

언어장애의 장애발생시기를 알아보면, '돌 이후'가 90.1%로 가장 많았고, '출생 전 또는 출생 시'에 발생한 경우는 5.0%, '돌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여자의 경우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및 '돌 이전'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조금 더 많았다.

〈표 6-5-5〉 언어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4.5	6.1	5.0
돌 이전	4.1	6.5	4.9
돌 이후	91.3	87.4	90.1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4,248	39,399	123,647

언어장애가 돌 이후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4세의 연령대에서 발생한 경우가 40.6%로 가장 많았고, 60대에 장애가 발생한 비율은 12.0%, 70세 이상 9.7%, 50대 9.7%의 순이었다. 돌 이후에 발생한 언어장애인 가운데 남자의 장애발생 시기는 4세 이하에서 38.0%, 60대 13.1%, 50대 11.0%의 순위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4세 이하 46.5%, 70세 이상 14.6%, 40대 10.6%, 60대 9.5% 등의 비율을 나타냈다.

〈표 6-5-6〉 언어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38.0	46.5	40.6
만 5~ 9세	10.2	6.5	9.1
만 10~19세	2.6	2.5	2.6
만 20~29세	5.3	2.9	4.6
만 30~39세	3.7	0.0	2.6
만 40~49세	8.6	10.6	9.2
만 50~59세	11.0	7.0	9.7
만 60~64세	7.0	4.8	6.4
만 65~69세	6.1	4.7	5.6
만 70세 이상	7.5	14.6	9.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6,927	34,428	111,355

5. 장애원인

언어장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후천적 원인이 62.1%로 가장 많았고, 선천적 원인 17.1%, 원인불명 15.5%, 출생시 원인 5.2% 순이었다. 후천적 원인

중 질환에 의해 언어장애가 발생한 비율은 53.6%로 사고에 의한 발생 8.5% 보다 월등히 높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선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이 훨씬 높았으며, 또한 질환에 의한 장애발생 비율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표 6-5-7〉 언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13.6	24.6	17.1
출생시 원인		5.8	4.1	5.2
후천적 원인	질환	52.6	55.8	53.6
	사고	10.4	4.6	8.5
원인불명		17.7	10.8	15.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3,659	39,400	123,059

언어장애인의 장애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후천적 원인의 경우 그 원인을 질환과 사고로 세분화하여 알아보았다.

언어장애의 후천적 원인 중 질환에 의한 경우는 심혈관질환에 의한 경우가 4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경계 질환 11.9%, 감염성 질환 9.9%, 감각기 질환 5.4% 등의 순이었다. 후천적 원인 중 사고에 의한 경우는 기타 사고 및 외상 5.4%, 교통사고(탑승자+보행자) 5.3%, 약물사고 1.8%의 순이었다.

후천적 장애원인을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질환의 경우 여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특히 감염성 질환은 남자의 두 배정도 더 컸다. 한편, 후천적 원인에서 사고의 경우는 남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5-8〉 언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신경계질환	12.1	11.6	11.9
		정신질환	2.8	6.7	4.0
		감각기(눈, 귀, 조금기관) 질환	5.4	5.4	5.4
		심혈관 질환	47.8	48.0	47.9
		호흡기 질환	-	-	-
		소화기계 질환	-	-	-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	-	-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	-	-
		근골격계 질환	-	-	-
		신생물(종양)질환	5.4	2.9	4.6
		중독성 질환	1.6	0.6	1.3
		감염성 질환	7.3	15.8	9.9
		미상	0.3	0.0	0.2
		기타	0.7	1.3	0.9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0.0	0.2	0.1
		가정내 사고	0.7	0.0	0.5
		교통사고(탑승자)	5.6	0.0	3.9
		교통사고(보행자)	1.3	1.7	1.4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	-	-
		화상	-	-	-
		약물 사고	2.1	1.2	1.8
		재난	-	-	-
		기타 사고 및 외상	5.8	4.6	5.4
		전상	-	-	-
		미상	-	-	-
		기타	0.9	0.0	0.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020	23,808	76,828

제6절 지적장애

1. 지적장애인의 출현율

인구 천 명당 재가지적장애인의 출현율은 4.4건이며, 이를 전국 일반 인구에 적용하면 전국의 재가지적장애인은 214.3천명으로 추정된다. 재가지적장애인의 성별 출현율은 남자가 5.2건, 여자가 3.6건으로 나타나 남자의 재가지적장애인 출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2011년 인구 천 명당 재가지적장애인 출현율(3.8건)과 비교해보면, 재

자지적장애인출현율은 2014년 2011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재가지적장애인 출현율이 증가한 것(2011년 남자 4.53건, 여자 3.09건)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지적장애 출현율을 살펴보면, '만 10~19세'에서 인구 천명당 8.12건이 출현하며,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 재가지적장애인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만 10~19세'에서 9.44건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6-1〉 성별·연령별 지적장애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3.04	1.24	2.17
10~19세	9.44	6.67	8.12
20~29세	9.05	5.81	7.45
30~39세	5.53	4.62	5.08
40~49세	3.39	2.47	2.94
50~59세	4.19	2.97	3.58
60~64세	2.84	2.50	2.66
65~69세	2.67	3.08	2.89
70~79세	2.63	1.63	2.05
80세 이상	0.53	1.14	0.96
계	5.21	3.59	4.40
전국추정수	126,093	88,283	214,376
(N)	(273)	(197)	(470)

2. 장애발생시기

지적장애의 발생시기는 '돌 이후'(77.0%)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출생 전 또는 출생 시'가 13.6%, '돌 이전'이 9.4%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2011년 지적장애 발생시기에 대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지적장애의 발생시기가 '돌 이후'(81.4%), '출생 전 또는 출생 시'(12.0%) 그리고 '돌 이전'(6.6%) 순으로 발생하는 경향은 비슷하였다.

지적장애의 남녀별 장애발생시기를 보면,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그리고 '돌 이후'의 경우 남자가 여자 보다 높게 나타났고, '돌 이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6-2〉 지적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14.2	12.8	13.6
돌 이전	8.2	11.1	9.4
돌 이후	77.6	76.1	77.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6,093	88,283	214,376

전체적으로 후천적 지적장애 발생 시기는 9세 미만 연령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의 75.6%로 아주 높았다. 후천적 지적장애 발생시기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후천적 지적장애는 1~4세(50.8%), 5~9세(24.8%) 연령대에 발생한 비율이 높았고, 10~19세에서 11.0%, 20~29세에서 3.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후천적 지적장애 발생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지적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 시기 결과와도 비슷하였다.

성별로는 1~4세, 20~29세, 50~59세, 그리고 65~69세 연령대에서 남자의 후천적 지적장애 발생율이 여자에 비해 높았고, 5~9세, 10~1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에서 대체적으로 여자의 후천적 지적장애 발생율이 남자보다 높았다.

〈표 6-6-3〉 지적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53.0	47.7	50.8
만 5~ 9세	23.9	26.2	24.8
만 10~ 19세	10.7	11.4	11.0
만 20~ 29세	4.6	1.5	3.3
만 30~ 39세	1.8	1.9	1.9
만 40~ 49세	0.7	3.3	1.8
만 50~ 59세	3.1	2.0	2.6
만 60~ 64세	0.5	1.8	1.0
만 65~ 69세	1.5	0.4	1.1
만 70~ 79세	0.0	1.5	0.6
만 80세 이상	0.1	2.3	1.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8,187	76,981	185,168

3. 의사소통 수행능력

지적장애의 의사소통 수행능력을 알아보면, 스스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3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스로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이 26.0%, 도움을 통해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이 25.5%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도 10.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완전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와 스스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스스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도움을 통해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표 6-6-4〉 지적장애의 의사소통 수행능력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완전하게 의사소통가능	4.7	3.0	4.0
스스로 대부분의 의사소통가능	26.3	25.6	26.0
스스로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	35.7	32.2	34.3
도움을 통해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	22.6	29.5	25.5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	10.8	9.7	10.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6,093	88,283	214,376

4. 장애원인

지적장애의 장애원인을 살펴보면, 원인불명이 34.4%로 가장 높았고, 선천적 원인 27.9%, 후천적 질환 19.2%, 후천적 사고 9.8%, 출생시 원인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지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1년 원인불명, 38.1%, 선천적 원인, 31.4%, 후천적 질환 13.8%, 후천적 사고, 10.9%, 출생시 원인 5.3%).

성별 지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남자가 출생시 원인, 후천적 사고에 의한 원인으로 여자보다 지적장애 발생이 많았고, 여자는 원인 불명, 선천적 원인 및 후천적 질환에 의한 지적장애가 남자보다 높았다.

〈표 6-6-5〉 지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26.4	30.1	27.9
출생시 원인		8.9	8.3	8.7
후천적 원인	질환	18.5	20.3	19.2
	사고	13.8	4.1	9.8
원인불명		32.4	37.2	34.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6,094	88,282	214,376

지적장애의 후천적 원인을 질환과 사고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질환에 의한 지적장애 비율이 66.2%로 사고에 의한 원인(33.8%)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2011년 지적장애의 후천적 원인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2011년 후천적 질환 55.9%, 후천적 사고 44.1%). 또한 지적장애의 후천적 질환에 의한 세부 장애원인을 살펴보면, 신경계질환(23.5%), 정신질환(13.5%), 심혈관질환(12.4%), 감염성 질환(11.4%)의 순에 의한 후천적 장애원인이 많았다.

후천적 지적장애 원인으로는 교통사고(탑승자+보행자)와 같은 사고가 14.8%로 가장 높은 후천적 지적장애 원인으로 나타났고, 기타 사고 및 외상 9.4%, 가정내 사고 3.2%, 폭력에 의한 사고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6-6〉 지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신경계질환	19.6	30.9	23.5
		정신질환	13.0	14.5	13.5
		심혈관 질환	8.4	19.9	12.4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0.0	1.0	0.4
		신생물(종양)질환	0.0	1.3	0.4
		중독성 질환	0.0	0.7	0.2
		감염성 질환	9.7	14.7	11.5
		미상	5.6	0.0	3.7
		기타	0.9	0.0	0.6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1.6	2.0	1.8
		가정내 사고	4.2	1.4	3.2
		교통사고(탑승자)	13.1	6.9	10.9
		교통사고(보행자)	5.1	1.5	3.9
		약물 사고	1.6	1.3	1.5
		기타 사고 및 외상	12.4	3.9	9.4
		전상	2.2	0.0	1.4
		기타	2.6	0.0	1.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0,735	21,546	62,281

제7절 자폐성장애

1. 자폐성장애 출현율

재가자폐성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0.45건이며, 이를 전국 일반 인구에 적용하면 전국의 재가자폐성장애인은 21.8 천명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재가자폐성장애인의 출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19세에서 1.57건, 20~29세 1.25건, 그리고 0~9세 0.76건순으로 나타났다. 재가자폐성장애인의 성별 출현율은 남자 재가자폐성장애인 출현율(0.75건)은 여자 자폐성장애인 출현율(0.15건)에 비해 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재가자폐성장애인 출현율 0.45건과 동일하며, 연령별 출현율 부분에서 2011년에는 0~9세의 자폐성장애인 출현율이 1.52건으로 가장 높았던 데 반해, 2014년에는 10~19세 자폐성장애인 출현율이 1.57건으로 가장 높았다.

〈표 6-7-1〉 성별·연령별 자폐성장애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1.17	0.30	0.75
10~19세	2.92	0.09	1.57
20~29세	1.82	0.67	1.25
30~39세	0.13	0.00	0.07
40~49세	0.00	0.17	0.08
50~59세	0.00	0.00	0.00
60~64세	0.00	0.00	0.00
65~69세	0.00	0.00	0.00
70~79세	0.00	0.00	0.00
80세 이상	0.00	0.00	0.00
계	0.75	0.15	0.45
전국추정수	18,226	3,660	21,886
(N)	(58)	(11)	(69)

2. 동반장애

자폐성장애인의 지적장애 또는 경련성 질환과 같은 동반장애를 알아본 결과, 지적 장애만 동반된 경우가 63.8%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와 경련성질환이 모두 동반된 경우는 14.6%로 나타났고, 동반장애가 전혀 없는 경우도 18.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자폐성장애의 동반장애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1년 지적장애만 동반된 경우, 66.7%, 지적장애와 경련성질환 모두 동반된 경우 11.0%, 동반장애가 전혀 없는 경우 22.3%).

지적장애만 동반된 경우를 성별로 살펴보면 결과, 여자의 지적장애 동반 비율이 남자보다 높았고, 남자는 지적장애와 경련성질환 모두 동반된 경우와 경련성질환만 동반된 경우 그리고 동반질환이 없는 경우에서 여자에 비해 높았다.

〈표 6-7-2〉 자폐성장애의 지적장애 또는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아니오	20.6	9.5	18.7
지적장애만 동반됨	60.6	79.4	63.8
경련성질환만 동반됨	3.5	0.0	3.0
지적장애와 경련성질환 모두 동반됨	15.2	11.2	14.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226	3,660	21,886

3. 장애발생시기

자폐성장애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돌 이후'가 97.5%로 대부분이었고, '돌 이전'에는 2.5%로 나타났다. 자폐성장애의 발생시기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돌 이후 발생 비율이 남자보다 높았고, 남자는 돌 이전 발생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다.

〈표 6-7-3〉 자폐성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	-	-
돌 이전	3.1	0.0	2.5
돌 이후	96.9	100.0	97.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226	3,660	21,886

자폐성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를 연령별로 알아보면, 전반적으로 1~4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85.3%로 가장 많았고, 5~9세가 10.8%, 10~19세가 4.0%였다. 자폐성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1~4세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자의 자폐성장애 발생시기는 5~9세에서 18.8%, 10~19세 8.6%로 남자의 자폐성장애 발생시기 비율(9.1%, 3.1%)에 비해 높았다.

〈표 6-7-4〉 자폐성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87.8	72.6	85.3
만 5~ 9세	9.1	18.8	10.8
만 10~19세	3.1	8.6	4.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226	3,660	21,886

4. 의사소통 수행능력

자폐성장애의 의사소통 수행능력은 스스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4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도움을 통해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이 26.7%, 의사소통 전혀불가능 16.8%, 스스로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이 14.3%, 순으로 나타났다. 완전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1.3%로 나타났다.

자폐성장애의 의사소통 수행능력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스스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도움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여자보다 높았다.

〈표 6-6-5〉 자폐성장애의 의사소통 수행능력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완전하게 의사소통가능	1.6	0.0	1.3
스스로 대부분의 의사소통가능	11.3	29.2	14.3
스스로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	41.9	35.8	40.9
도움을 통해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	27.9	20.7	26.7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	17.3	14.3	16.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226	3,660	21,886

5. 장애원인

자폐성장애의 원인으로는 원인 불명이 59.3%로 가장 많았다. 후천적 질환이 16.5%, 선천적 원인이 17.2%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자폐성장애의 원인과 비교하였

을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1년 원인불명, 61.4%, 선천적 원인, 29.0%, 후천적 질환 9.6%).

성별로는 남자가 선천적 원인에서 여자보다 높았고, 여자가 후천적 질환과 원인불명에서 남자보다 높았다.

〈표 6-7-6〉 자폐성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19.3	6.8	17.2
출생시 원인		7.3	6.1	7.1
후천적 원인	질환	15.4	22.1	16.5
	사고	-	-	-
원인불명		58.1	65.0	59.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227	3,659	21,886

자폐성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은 대부분 정신질환이 83.5%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 기타 10.6%, 감염성질환 5.9%순으로 나타났다.

〈표 6-7-7〉 자폐성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정신질환	78.7	100.0	83.5
		감염성 질환	7.6	0.0	5.9
		기타	13.7	0.0	10.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802	807	3,609

제8절 정신장애

1. 정신장애 출현율

인구 천명당 재가정신장애인의 출현율은 2.29건으로, 2011년 정신장애 출현율 2.30건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정신장애인의 수를 전국 일반 인구에 적용하여

추정하면, 전국의 재가정신장애인은 111.7 천명으로 추정된다. 재가정신장애인의 성별 출현율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남자가 2.46건, 여자가 2.13건으로 남자의 재가정신장애출현율이 여자의 출현율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재가정신장애 출현율을 살펴보면, 50~59세에서 재가정신장애 출현율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49세에서 4.73건으로 나타났다.

〈표 6-8-1〉 성별·연령별 정신장애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0.00	0.00	0.00
10~19세	0.38	0.00	0.20
20~29세	1.15	0.57	0.87
30~39세	1.79	2.06	1.92
40~49세	5.29	4.14	4.73
50~59세	5.36	4.65	5.01
60~64세	2.85	2.79	2.82
65~69세	1.46	0.97	1.20
70~79세	0.32	2.30	1.47
80세 이상	0.53	0.00	0.16
계	2.46	2.13	2.29
전국추정수	59,467	52,273	111,740
(N)	(150)	(129)	(279)

2. 장애발생시기

정신장애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99.1%가 돌 이후에 정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출생전 또는 출생시 발생하는 경우가 0.6%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정신장애의 장애발생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1년 돌 이후 99.3%, 출생전 또는 출생시 0.7%). 성별로 돌 이후에 정신장애가 발생된 경우는 남자가 99.4%, 여자 98.9%로 나타났다.

〈표 6-8-2〉 정신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0.2	1.1	0.6
돌 이전	0.4	0.0	0.2
돌 이후	99.4	98.9	99.1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468	52,272	111,740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만 20~29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39.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만 10~19세'가 27.7%, '만 30~39세'가 16.2%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1년 만 20~29세 38.0%, 만 만 30~39세 20.6%, 10~19세 18.3%).

성별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를 분석해보면 4세 미만, 10대, 20대 정신장애 발생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았으며, 9세미만, 30대, 60대에서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았다.

〈표 6-8-3〉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2.5	1.4	2.0
만 5~ 9세	0.2	1.3	0.7
만 10~19세	29.8	25.3	27.7
만 20~29세	43.8	34.6	39.5
만 30~39세	12.2	20.8	16.2
만 40~49세	7.5	9.9	8.6
만 50~59세	2.2	2.6	2.4
만 60~64세	0.9	2.2	1.5
만 65~69세	0.0	1.9	0.9
만 70세 이상	-	-	-
만 80세 이상	0.9	0.0	0.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468	52,272	111,740

3. 장애 원인

정신장애의 장애발생원인은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94.1%로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질환에 의한 장애발생의 비율이 82.4%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원인불명과 선천적 원인 또한 각각 3.3%, 2.1%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의 발생 원인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사고와 같은 후천적 원인이 더 많았고, 여자의 경우는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질환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남자보다 더 높았다.

〈표 6-8-4〉 정신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1.9	2.4	2.1
출생시 원인		0.8	0.0	0.4
후천적 원인	질환	73.9	92.1	82.4
	사고	18.9	3.6	11.7
원인불명		4.6	1.9	3.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468	52,272	111,740

정신장애의 후천적 원인에서는 질환으로 인한 발생률이 사고보다 월등히 높았다. 후천적 원인의 질환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이 86.9%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중독성질환과 감염성 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발생률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신장애의 후천적 원인에 의한 성별 분포는 남자가 78.4%, 여자는 96.2%로 모두 정신질환에 의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후천적 사고에 의한 발생율은 폭력에 의한 사고가 남자의 경우 10.6%, 여자의 경우 0.7%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타사고 및 외상에 의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6-8-5〉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정신질환	78.4	96.2	86.9
		중독성 질환	0.9	0.0	0.5
		감염성 질환	0.3	0.0	0.2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10.6	0.7	5.9
		가정내 사고	0.0	0.6	0.3
		교통사고(탑승자)	1.2	0.0	0.6
		교통사고(보행자)	3.9	0.5	2.3
		약물 사고	0.3	0.0	0.2
		기타 사고 및 외상	4.1	1.0	2.6
		전상	0.4	1.0	0.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5,178	50,003	105,181

4. 장애의 주된 질환명

정신장애는 전체적으로 정신분열증의 발생 비율이 65.6%가장 높았고, 그 외 반복성 우울장애가 17.3%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의 주된 질환명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정신분열증(67.6%), 정동장애(17.6%)에 의한 정신장애 발병률이 높았고, 여자는 남자보다 반복성 우울장애(23.0%), 기타 정신질환(3.9%)에 의한 정신장애 발병률이 더 높았다.

〈표 6-8-6〉 정신장애의 주된 질환명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정신분열증	67.6	63.7	65.6
정동장애	17.6	8.4	12.8
우울장애	10.9	23.0	17.3
신경증	0.6	1.1	0.9
기타 정신질환	1.7	3.9	2.8
알코올 약물중독	1.1	0.0	0.5
뇌염	0.4	0.0	0.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934	48,124	92,058

제9절 신장장애

1. 출현율

신장장애는 신장의 기능히 현저하게 저하되어 3개월 이상 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로, 재가신장장애의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1.55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 수로 추정해 보면 75.6천명으로 추정된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출현율이 1.80건으로 여자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 출현율을 보면 65~69세의 출현율이 천명당 6.71건으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3.77건, 80대가 3.11건으로 60대 후반 이후 노령층에서의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른 출현율과 유사한 경향이나 60대 이후 노령층에서의 신장장애 출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60대 후반 남자에서의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9-1〉 성별·연령별 신장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0.00	0.00	0.00
10~19세	0.00	0.00	0.00
20~29세	0.00	0.00	0.00
30~39세	1.45	0.29	0.88
40~49세	1.08	1.97	1.52
50~59세	3.78	1.86	2.82
60~64세	3.91	2.19	3.02
65~69세	9.55	4.18	6.71
70~79세	3.84	3.72	3.77
80세 이상	3.35	3.01	3.11
계	1.80	1.31	1.55
전국추정수	43,574	32,068	75,642
(N)	(114)	(94)	(208)

2. 장애발생 시기

신장장애인의 장애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99.5%가 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99.2%, 여자의 경우 100.0%가 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2〉 신장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0.8	0.0	0.5
돌 이전	-	-	-
돌 이후	99.2	100.0	99.5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574	32,068	75,642

신장장애가 후천적으로 발생한 경우, 장애발생시기를 보면 50대에 신장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24.3%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0.1%, 30대가 18.4%, 60대 초반이 10.9%의 순으로 나타나 신장기능이 떨어진 장애발생시기는 50대 이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50대에서 발생한 비율이 24.7%로 가장 높고, 40대가 23.8%, 30대가 14.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50대가 23.8%로 가장 높고 30대가 23.4%, 40대가 15.2%의 순으로 나타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6-9-3〉 신장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	-	-
만 5~ 9세	-	-	-
만 10~19세	2.1	0.0	1.2
만 20~29세	7.6	6.2	7.0
만 30~39세	14.7	23.4	18.4
만 40~49세	23.8	15.2	20.1
만 50~59세	24.7	23.8	24.3
만 60~64세	11.1	10.6	10.9
만 65~69세	8.4	8.2	8.3
만 70세 이상	7.6	12.7	9.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574	32,068	75,642

3. 장애정도

신장장애가 있는 사람 중 현재 혈액투석 혹은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비율은 78.2%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77.0%, 여자는 79.8%가 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4〉 신장장애의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77.0	79.8	78.2
아니오	23.0	20.2	21.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574	32,068	75,642

신장투석을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0대가 26.2%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8.1%, 60대 초반이 13.9%, 30대가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50대 및 40대에 투석을 시작한 경우가 46.0%로 절반정도로 나타났고, 여자는 50대에 투석을 시작한 경우가 24.7%, 70세 이상이 22.3%로 나타났다.

〈표 6-9-5〉 신장장애의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	-	-
만 5~ 9세	-	-	-
만 10~19세	-	-	-
만 20~29세	3.0	3.2	3.1
만 30~39세	12.2	10.7	11.6
만 40~49세	18.7	17.4	18.1
만 50~59세	27.3	24.7	26.2
만 60~64세	14.0	13.7	13.9
만 65~69세	11.5	8.1	10.0
만 70세 이상	13.3	22.3	17.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3,542	25,599	59,141

신장장애가 있는 사람 중 현재 신장이식을 받은 비율은 24.7%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28.1%, 여자는 20.2%가 신장이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신장이식 비율이 여자보다 약간 더 높았다.

〈표 6-9-6〉 신장장애의 신장이식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28.1	20.2	24.7
아니오	71.9	79.8	75.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574	32,068	75,642

신장이식을 받은 장애인의 이식 시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30대가 32.4%, 40대가 22.7%, 50대가 20.0%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30대에 이식을 받은 비율이 26.8%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25.9%, 50대가 24.0%, 40대가 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30대가 42.8%로 가장 높았고, 40대 32.5%, 50대 12.4%, 60대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 30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비교적 젊은 시기에 신장이식을 받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9-7〉 신장장애의 신장이식 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	-	-
만 5~ 9세	-	-	-
만 10~19세	-	-	-
만 20~29세	25.9	0.0	17.0
만 30~39세	26.8	42.8	32.4
만 40~49세	17.5	32.5	22.7
만 50~59세	24.0	12.4	20.0
만 60~64세	5.8	12.2	8.0
만 65~69세	-	-	-
만 70세 이상	-	-	-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35	6,470	18,705

4. 장애원인

신장장애의 장애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후천적 원인 중 질환에 의한 경우가 98.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선천적 원인은 0.4%, 후천적 원인 중 사고는 0.3%, 원인불명의 경우도 1.1%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후천적 질환에 의한 신장장애 발생 비율이 97.3%, 99.4%로 높게 나타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6-9-8〉 신장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0.3	0.6	0.4
출생시 원인		-	-	-
후천적 원인	질환	97.3	99.4	98.2
	사고	0.5	-	0.3
원인불명		1.9	-	1.1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574	32,068	75,642

장애발생 원인이 후천적인 경우 질환명 및 사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신장장애의 후천적 질환에 의한 발생 원인은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이 6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대사·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이 24.0%로 나타났고 심혈관질환에 의한 경우가 11.6%로 나타났다. 사고에 의한 경우는 약물사고에 의한 경우가 0.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에 의한 경우 남자가 62.0%, 여자가 62.8%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대사·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도 남자와 여자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경우는 여자의 비율이 4.3% 포인트 정도 높았다.

〈표 6-9-9〉 신장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신경계질환	-	-	-
		정신질환	-	-	-
		감각기(눈, 귀, 조금기관) 질환	-	-	-
		심혈관 질환	9.7	14.0	11.6
		호흡기 질환	-	-	-
		소화기계 질환	-	-	-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25.9	21.4	24.0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62.0	62.8	62.3
		근골격계 질환	-	-	-
		신생물(종양)질환	-	-	-
		중독성 질환	-	1.8	0.8
		감염성 질환	1.9	-	1.1
		미상	-	-	-
		기타	-	-	-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	-	-
		가정내 사고	-	-	-
		교통사고(탑승자)	-	-	-
		교통사고(보행자)	-	-	-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	-	-
		화상	-	-	-
		약물 사고	0.5	-	0.3
		재난	-	-	-
		기타 사고 및 외상	-	-	-
		전상	-	-	-
		미상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2,619	31,886	74,505

제10절 심장장애

1. 출현율

재가심장장애의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0.1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체 인구로 추정하면 약 9천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1년 결과인 인구 천명당 출현율 0.47건 및 추정수 22천명과 비교할 때 감소한 수치이다. 남자의 심장장애 출현율이 인구 천명당 0.25건으로 여자의 경우인 0.13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70대의 출현율이 인구 천명당 0.96건으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이 0.68건, 60대

후반이 0.59건으로 비교적 고령층에서의 출현율이 높았다.

〈표 6-10-1〉 성별·연령별 심장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0.14	0.00	0.07
10~19세	0.05	0.04	0.05
20~29세	0.00	0.00	0.00
30~39세	0.12	0.00	0.06
40~49세	0.16	0.04	0.10
50~59세	0.24	0.16	0.20
60~64세	0.29	0.39	0.34
65~69세	0.89	0.32	0.59
70~79세	1.36	0.67	0.96
80세 이상	1.40	0.37	0.68
계	0.25	0.13	0.19
전국추정수 (N)	5,933 (15)	3,165 (11)	9,098 (26)

2. 장애발생 시기

심장장애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돌 이후가 90.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생전 또는 출생시에 발생한 경우가 8.7%, 돌 이전이 1.3%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돌 이후에 심장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86.7%, 출생전 또는 출생시 등 선천적인 경우가 13.3%로 나타났고, 여자는 돌 이후 발생한 경우가 96.3%, 돌 이전이 3.7%로 나타났다.

〈표 6-10-2〉 심장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13.3	-	8.7
돌 이전	-	3.7	1.3
돌 이후	86.7	96.3	90.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33	3,165	9,098

심장장애가 돌 이후에 발생한 경우 구체적 발생시기를 보면, 50대가 25.3%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0대가 17.3%, 60대 초반이 16.4%, 40대가 16.0%의 순으로 나타나 50대 이후의 발생 비율이 높았지만 이외에 10대 및 40대의 발생비율도 높게 나타나 고령층에만 한정된 장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0대에 발생한 경우가 27.5%로 높았고 50대가 18.4%, 60대 초반이 15.7%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50대가 37.1%, 60대 초반이 26.9%, 40대가 25.4%로 나타나 50대 전후의 연령층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10-3〉 심장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	-	-
만 5~ 9세	-	-	-
만 10~19세	27.5	-	17.3
만 20~29세	7.0	-	4.4
만 30~39세	4.7	-	3.0
만 40~49세	10.5	25.4	16.0
만 50~59세	18.4	37.1	25.3
만 60~64세	10.2	26.9	16.4
만 65~69세	15.7	-	9.9
만 70세 이상	6.0	10.7	7.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141	3,048	8,189

3. 장애 정도

심장장애인 중 현재 심장이식을 받은 비율은 9.2%로 나타나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11.3%, 여자가 5.3%로 남자의 심장 이식받은 비율이 높았다.

〈표 6-10-4〉 심장장애의 심장이식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11.3	5.3	9.2
아니오	88.7	94.7	90.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33	3,165	9,098

심장이식을 받은 장애인의 이식 시기를 살펴보면 50대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후반이 28.9%, 40대가 20.1%, 10대가 19.6%로 50대 이후의 비율이 높았지만 10대와 40대의 비율도 나타나 고른 연령 분포를 보였다.

〈표 6-10-5〉 심장장애의 심장이식 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	-	-
만 5~ 9세	-	-	-
만 10~19세	24.6	-	19.6
만 20~29세	-	-	-
만 30~39세	-	-	-
만 40~49세	-	100.0	20.1
만 50~59세	39.2	-	31.3
만 60~64세	-	-	-
만 65~69세	36.2	-	28.9
만 70세 이상	-	-	-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68	168	836

4. 장애의 원인

심장장애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후천적 원인 중 질환에 의한 비율이 87.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천적 원인에 의한 비율은 8.7%, 후천적 사고에 의한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후천적 질환에 의한 비율이 높은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남자가 선천적 원인에 의한 비율이 13.3%, 후천적 사고에 의한 비율이 6.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6-10-6〉 심장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13.3	0.0	8.7
출생시 원인		-	-	-
후천적 원인	질환	80.6	100.0	87.4
	사고	6.1	0.0	3.9
원인불명		-	-	-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33	3,165	9,098

심장장애의 원인이 후천적인 경우 구체적 질환과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후천적 질환에 의한 원인 중 심혈관 질환이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사·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에 의한 경우는 5.7%, 후천적 사고 중 폭력에 의한 사고에 의한 경우가 4.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모두 심혈관질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여자가 대사·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에 의한 경우가 15.1%, 남자는 폭력에 의한 사고가 7.0%로 나타났다.

〈표 6-10-7〉 심장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신경계질환	-	-	-
		정신질환	-	-	-
		감각기(눈, 귀, 조금기관) 질환	-	-	-
		심혈관 질환	93.0	84.9	89.9
		호흡기 질환	-	-	-
		소화기계 질환	-	-	-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	15.1	5.7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	-	-
		근골격계 질환	-	-	-
		신생물(종양)질환	-	-	-
		중독성 질환	-	-	-
		감염성 질환	-	-	-
		미상	-	-	-
		기타	-	-	-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7.0	-	4.3
		가정내 사고	-	-	-
		교통사고(탑승자)	-	-	-
		교통사고(보행자)	-	-	-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	-	-
		화상	-	-	-
		약물 사고	-	-	-
		재난	-	-	-
		기타 사고 및 외상	-	-	-
		전상	-	-	-
		미상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140	3,166	8,306

제11절 호흡기장애

1. 출현율

재가호흡기장애의 출현율은 인구천명당 0.33건으로 나타났고 전체 인구로 추정하면 약 16.2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른 0.42건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것이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출현율이 인구천명당 0.50건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후반과 70대에서의 출현율이 인구천명당 2.43건 및 2.60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았고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남자 70대의 심장 장애 출현율은 인구천명당 4.82건으로 높았다.

〈표 6-11-1〉 성별·연령별 호흡기장애 출현율

(단위: 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0.00	0.00	0.00
10~19세	0.00	0.00	0.00
20~29세	0.00	0.00	0.00
30~39세	0.09	0.00	0.04
40~49세	0.00	0.02	0.01
50~59세	0.30	0.09	0.19
60~64세	0.75	0.34	0.54
65~69세	3.72	1.28	2.43
70~79세	4.82	0.98	2.60
80세 이상	1.06	0.37	0.58
계	0.50	0.17	0.33
전국추정수	12,121	4,134	16,255
(N)	(34)	(13)	(47)

2. 장애발생시기

호흡기장애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돌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비율이 97.7%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돌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비율이 96.9%, 출생전 및 출생시에 생한 비율이 3.1%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모두 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2〉 호흡기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3.1	0.0	2.3
돌 이전	-	-	-
돌 이후	96.9	100.0	97.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121	4,134	16,255

돌 이후에 호흡기장애가 발생한 경우 발생 시기를 보면, 50대가 26.7%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1.0%, 30대가 13.1%, 60대 모두 약 11%의 비율로 나타나 40~50대에서의 발생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이외에 60대 및 30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50대에 발생한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7.6%, 70세 이상이 13.8%, 30대가 11.4%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40대가 30.7%로 가장 높았고 60대 후반이 20.4%, 30대가 17.8%, 20대가 15.0%로 남자에 비해 20~30대의 발생비율이 높았다.

〈표 6-11-3〉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	-	-
만 5~ 9세	2.7	0.0	2.0
만 10~19세	-	-	-
만 20~29세	8.3	15.0	10.1
만 30~39세	11.4	17.8	13.1
만 40~49세	17.6	30.7	21.0
만 50~59세	32.5	10.2	26.7
만 60~64세	5.4	0.0	4.0
만 65~69세	8.3	20.4	11.4
만 70세 이상	13.8	5.9	11.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743	4,135	15,878

3. 산소치료 처방 및 인공호흡기 사용

호흡기장애인 중 산소치료 처방을 받은 장애인은 전체의 25.7%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25.0%이며, 여자가 27.7%로 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6-11-4〉 산소치료 처방 사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그렇다	25.0	27.7	25.7
아니다	75.0	72.3	74.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121	4,134	16,255

산소치료 처방을 받아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호흡기장애인의 하루 평균 산소치료 시간은 평균 11.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11.9시간으로 남자의 11.5시간보다 0.4시간 더 많이 산소치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1-5〉 하루 평균 산소치료 사용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하루 평균 사용시간	11.5	11.9	11.6
전국추정수	3,032	1,144	4,176

호흡기장애인 중 가정에서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16.9%이며, 사용하다가 중단한 장애인은 14.5%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현재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남자가 20.0%로 여자의 7.9%에 비해 높았다.

〈표 6-11-6〉 가정에서의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현재 사용 중	20.0	7.9	16.9
사용하다가 중단	11.5	23.2	14.5
사용한 적 없음	68.5	68.9	68.6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121	4,134	16,255

현재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 전과 사용 후에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77.5%가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10.6%는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11.8%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6-11-7〉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사용전과 후 삶의 질 변화정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많이 높아졌다	51.6	0.0	45.5
약간 높아졌다	36.3	0.0	32.0
비슷하다	12.1	0.0	10.6
잘 모르겠다	0.0	100.0	11.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424	325	2,749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진료와 간호의 부재가 5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유지비용의 어려움이 25.3%, 심리적 불안이 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진료와 간호의 부재를 가장 어려움 점으로 꼽은 반면(59.3%), 여자는 심리적 불안을 가장 어려운 점(100.0%)으로 지적하였다.

〈표 6-11-8〉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사용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유지비용	28.7	-	25.3
의료진의 지속적인 진료와 간호	59.3	-	52.3
심리적 불안	12.0	100.0	22.4
인공호흡기의 오작동과 장비점검에 관련된 문제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424	325	2,749

과거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불편하거나 귀찮아서’가 52.1%, ‘기타’가 45.8%,

‘경제적 이유로’가 2.2%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기타’가 61.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편하거나 귀찮아서’가 3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불편하거나 귀찮아서’가 76.6%로 가장 높았다.

〈표 6-11-9〉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사용 중 중단 이유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경제적 이유로	3.7	-	2.2
불편하거나 귀찮아서	35.2	76.6	52.1
기타	61.1	23.4	45.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95	961	2,356

4. 장애의 원인

호흡기장애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후천적 원인 중 질환으로 인한 발생원인이 9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사고로 인한 경우가 2.1%, 선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1.7%로 나타났다. 남자는 후천적 질환에 의한 경우가 94.9%, 후천적 사고에 의한 경우가 2.8%, 선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2.3%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모두 후천적 질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1-10〉 호흡기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2.3	-	1.7
출생시 원인		-	-	-
후천적 원인	질환	94.9	100.0	96.2
	사고	2.8	-	2.1
원인불명		-	-	-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121	4,134	16,255

질환과 사고에 의한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흡기질환에 의한 경우가 8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염성질환이 13.9%, 신생물(종양)질환에 의한 경우가 3.2%, 교통사고(보행자)로 인한 경우가 2.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

자와 여자 모두 호흡기 질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감염성 질환에 의한 경우가 32.9%로 남자에 비해 높았다.

〈표 6-11-11〉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신경계질환	-	-	-
		정신질환	-	-	-
		감각기(눈, 귀, 조금기관) 질환	-	-	-
		심혈관 질환	-	-	-
		호흡기 질환	85.6	67.1	80.8
		소화기계 질환	-	-	-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	-	-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	-	-
		근골격계 질환	-	-	-
		신생물(종양)질환	4.3	-	3.2
		중독성 질환	-	-	-
		감염성 질환	7.3	32.9	13.9
		미상	-	-	-
		기타	-	-	-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	-	-
		가정내 사고	-	-	-
		교통사고(탑승자)	-	-	-
		교통사고(보행자)	2.9	-	2.1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	-	-
		화상	-	-	-
		약물 사고	-	-	-
		재난	-	-	-
		기타 사고 및 외상	-	-	-
		전상	-	-	-
		미상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845	4,134	15,979

제12절 간장애

1.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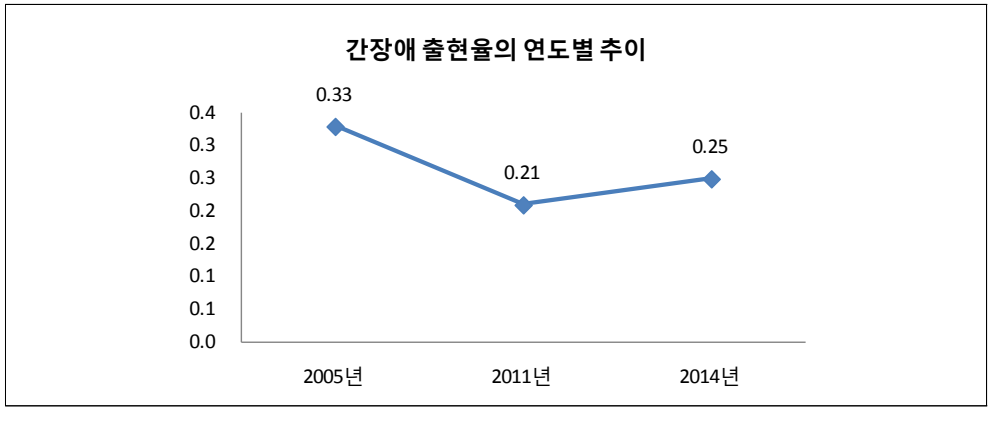
간장애 출현율은 인구 1,000명당 0.25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12,323명이 간장애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 0.21건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로는 남자에서 50대가 1.45건으로 가장 높았고, 여자에서는 60~64세가 0.78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2011년도와 비교해 볼 때 남자에서는 50대(1.06건)가, 여자에서는 60대(0.53건)인 것과 유사하였다.

〈표 6-12-1〉 성별·연령별 간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9세	-	-	-
10~19세	-	-	-
20~29세	-	-	-
30~39세	-	0.08	0.04
40~49세	0.08	0.19	0.13
50~59세	1.45	0.32	0.88
60~64세	1.14	0.78	0.95
65~69세	1.16	-	0.55
70~79세	0.56	0.13	0.31
80세 이상			
계	0.37	0.14	0.25
전국추정수	8,871	3,452	12,323
(N)	(28)	(14)	(42)

〔그림 6-12-1〕 간장애 출현율의 연도별 추이



2. 장애 발생시기

본 조사결과, 간장애인의 장애발생 시기는 남녀 모두에서 돌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조사에서는 여성 간장애인 중 3%는 돌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2-2〉 간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	-	-
돌 이전	-	-	-
돌 이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871	3,452	12,323
(N)	(28)	(14)	(42)

간장애인의 장애 발생시기가 돌 이후인 경우, 이들의 최초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50대(38.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2011년의 40대(42.1%)와 약간 달랐다. 성별, 연령계층별 최초 발생시기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50대(41.2%)에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는 40대(51.5%)가 가장 높았는데, 이를 2011년과 비교해 볼 때, 남자의 경우는 40대(47.6%)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유사하였고, 여자는 60대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표 6-12-3〉 간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1~4세			
5~9세			
10~19세	-	8.8	2.5
20~29세	9.4	-	6.7
30~39세	23.9	8.2	19.5
40~49세	14.2	51.5	24.6
50~59세	41.2	31.5	38.5
60~64세	7.3	-	5.3
65~69세		-	-
70세 이상	4.1	-	2.9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871	3,452	12,323
(N)	(28)	(14)	(42)

3. 간이식 여부

간장애인의 간이식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간이식을 한 장애인은 63.2%이며, 2011년 60.7%에서 약간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남자가 57.8%, 여자가 77.0%로, 여성 간장애인이 남성 간장애인보다 간이식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2011년과 비교해 볼 때 남자에서는 53.7%에서 증가하였고, 여자는 85.1%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표 6-12-4〉 간장애의 간이식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57.8	77.0	63.2
아니오	42.2	23.0	36.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871	3,452	12,323
(N)	(28)	(14)	(42)

간이식 경험이 있는 간장애인의 간이식 받은 나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50대(57.9%)에 높았는데, 이는 2011년의 50대(43.2%)와 비교할 때 증가한 결과다. 성별, 연령별로는 남자가 50대(59.4%), 여자의 경우도 50대(55.0%)에 가장 많았는데, 2011년에 남자 50대(57.1%), 여자 50대(46.5%)와 비교할 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5〉 간장애의 간이식 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	-	-
만 5~ 9세	-	-	-
만 10~19세	-	-	-
만 20~29세	-	11.4	3.9
만 30~39세	-	-	-
만 40~49세	25.2	25.0	25.1
만 50~59세	59.4	55.0	57.9
만 60~64세	11.2	-	7.4
만 65~69세	4.2	8.5	5.7
만 70세 이상	-	-	-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5,127	2,659	7,786
(N)	(19)	(11)	(30)

4. 장애의 원인

간장애의 주된 장애발생 원인에 대하여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선천적 원인이 2.5%, 후천적 원인(질환)이 97.5%로 대부분이 후천적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1년 선천적인 원인이 2.5%, 후천적 원인(질환)이 99.3%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선천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표 6-12-6〉 간장애의 장애발생 원인-성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	8.8	2.5
출생시 원인	-	-	-
후천적 원인(질환)	100.0	91.2	97.5
후천적 원인(사고)	-	-	-
원인불명	-	-	-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8,871	3,452	12,323
(N)	(28)	(14)	(42)

간장애의 주된 원인은 후천적인 원인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장애인의 75.7%는 소화기계 질환에 의한 것이었고, 신생물(종양) 질환이 24.3%를 차지하였다. 2011년 소화기계질환이 86.9%, 신생물(종양)질환이 13.1%인 것과 비교할 때 신생물(종양)질환으로 인한 원인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에서 소화기계질환이 78.7%, 신생물(종양)질환이 21.3%였으며, 여자에서는 소화기계질환이 67.2%, 신생물(종양)질환이 32.8%로 소화기계질환에 의한 원인이 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2011년과 비교할 때 신생물(종양)에 의한 원인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12-7〉 간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성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신경계질환	-	-	-
		정신질환	-	-	-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 질환	-	-	-
		심혈관 질환	-	-	-
		호흡기 질환	-	-	-
		소화기계 질환	78.7	67.2	75.7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	-	-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	-	-
		근골격계 질환	-	-	-
		신생물(종양)질환	21.3	32.8	24.3
		중독성 질환	-	-	-
		감염성 질환	-	-	-
		미상	-	-	-
		기타	-	-	-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	-	-
		가정내 사고	-	-	-
		교통사고(탑승자)	-	-	-
		교통사고(보행자)	-	-	-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	-	-
		화상	-	-	-
		약물 사고	-	-	-
		재난	-	-	-
		기타 사고 및 외상	-	-	-
		전상	-	-	-
		미상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8,871	3,148	12,019
(N)			(28)	(13)	(41)

제13절 안면장애

1. 출현율

안면장애는 다른 장애와 비교했을 때 빈도가 낮은 장애에 속한다. 본 조사 결과, 안면장애 출현율은 인구 1,000명당 0.07건으로 2011년도와 동일하였으며, 70대에서 0.20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80세 이상에서 0.1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조사에서 70대에서 0.18건, 80대 이상이 0.28건인 것과 유사하나, 순위에는 차이

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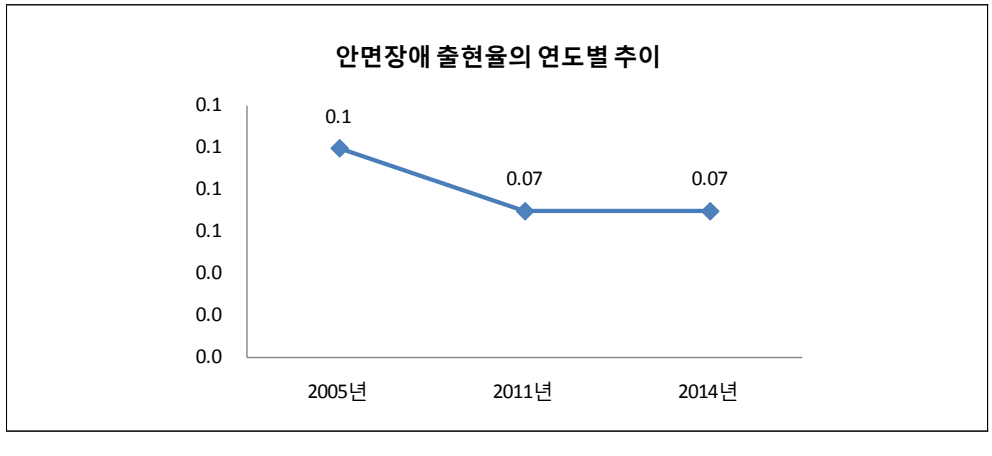
성별, 연령별로는 남자가 70대에서 0.4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는 80세 이상에서 0.27건으로 가장 높아 2011년 남자 70대의 0.36건, 여자 80세 이상 0.40건과 비교할 때 유사하였다. 또 본 조사에서 여자에서 안면장애 출현율이 특정 연령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1〉 성별·연령별 안면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	-	-
10~19세	0.14	-	0.07
20~29세	0.16	-	0.08
30~39세	0.02	-	0.01
40~49세	0.13	-	0.07
50~59세	0.29	-	0.14
60~64세	-	-	-
65~69세	-	0.10	0.05
70~79세	0.48	-	0.20
80세 이상	-	0.27	0.19
계	0.14	0.01	0.07
전국 추정수	3,272	343	3,615
(N)	(9)	(2)	(11)

〔그림 6-13-1〕 안면장애 출현율의 연도별 추이



2. 장애 발생 시기

안면장애의 장애발생시기를 조사한 결과, 간장애와 마찬가지로 장애 발생시기는 돌 이후에 발생한 비율이 높았으나, 출생전 또는 출생시에도 24.4%나 되었다. 이는 2011년도 돌 이후 발생이 98.0%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었다.

〈표 6-13-2〉 안면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26.9	-	24.4
돌 이전			
돌 이후	73.1	100.0	75.6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3,272	343	3,615

안면장애의 발생시기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4세(42.2%)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성별로는 남자에서는 연령별로 50대 이전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여자에서는 특정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도 결과에서의 장애발생시기는 30대(26.4%)가 가장 많았고, 남자는 30대(30.0%)가, 여자는 만 5~9세(38.6%)에서 가장 높은 것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6-13-3〉 안면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48.3	-	42.2
만 5~ 9세	17.9	30.3	19.5
만 10~19세	13.2	-	11.6
만 20~29세	3.7	-	3.3
만 30~39세			
만 40~49세	16.9	-	14.7
만 50~59세	-	-	-
만 60~64세	-	-	-
만 65~69세			
만 70세 이상	-	69.7	8.7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2,390	343	2,733

3. 장애 발생 원인

안면장애는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본 조사결과 안면장애의 발생 원인을 보면, 후천적 원인(사고)이 46.1%, 후천적 원인(질환)이 29.6%, 선천적인 원인(24.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에서만 선천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여자에서는 모두 사고에 의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11년도에는 후천적 원인이 98.0%인 것과 다른 양상이다.

〈표 6-13-4〉 안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26.9	-	24.4
출생시 원인		-	-	-
후천적 원인	질환	32.7	-	29.6
	사고	40.4	100.0	46.1
원인불명		-	-	-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3,272	343	3,615

안면장애의 후천적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환으로는 감염성질환(39.1%)에 의한 것이며, 사고로는 교통사고(13.4%), 화상(43.8%), 기타사고 및 외상(3.8%)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로 볼 때 남자에서는 감염성질환(44.7%)이, 여자에서는 화상(69.7%)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으로써, 2011년 남자에서 화상이 51.0%, 여자에서 신생물(종양)질환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다른 양상이다.

〈표 6-13-5〉 안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신경계질환	-	-	-
		정신질환	-	-	-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 질환	-	-	-
		심혈관 질환	-	-	-
		호흡기 질환	-	-	-
		소화기계 질환	-	-	-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	-	-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	-	-
		근골격계 질환	-	-	-
		신생물(종양)질환	-	-	-
		중독성 질환	-	-	-
		감염성 질환	44.7	-	39.1
		미상	-	-	-
		기타	-	-	-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	-	-
		가정내 사고	-	-	-
		교통사고(탑승자)	15.3	-	13.4
		교통사고(보행자)	-	-	-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	-	-
		화상	40.0	69.7	43.8
		약물 사고	-	-	-
		재난	-	-	-
		기타 사고 및 외상	-	30.3	3.8
		전상	-		
		미상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2,390	343	2,733

제14절 장루·요루장애

1.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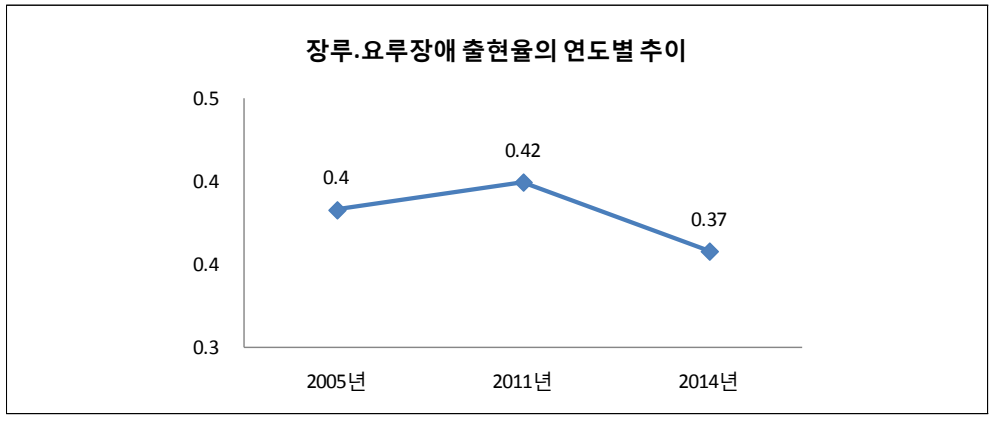
장루·요루장애 출현율은 인구천명당 0.37건으로, 2011년도의 0.42건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며, 70대에서 인구천명당 2.35건으로 가장 높았다. 성별, 연령별로는 남자의 70대에서 4.37건, 여자에서는 60~64세에서 1.06건으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2011년도의 남자 80세 이상(11.01건), 여자 70대(3.09건)이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표 6-14-1〉 성별·연령별 장루·요루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	-	-
10~19세	-	-	-
20~29세	-	-	-
30~39세	0.22	-	0.11
40~49세	-	0.10	0.05
50~59세	0.59	0.42	0.51
60~64세	0.82	1.06	0.94
65~69세	2.83	0.54	1.62
70~79세	4.37	0.87	2.35
80세 이상	-	0.65	0.46
계	0.50	0.24	0.37
전국 추정수	12,042	5,870	17,912
(N)	(34)	(21)	(55)

〔그림 6-14-1〕 장루·요루장애 출현율의 연도별 추이



2. 장애 부위

장루·요루장애의 장애 부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장루·요루 장애인 중에서 70.3%가 장루로 2011년의 64.0%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성별로 볼 때, 남자, 여자 모두에서 장루장애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1년에는 남자에서 장루와 요루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사한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여자에서는 요루 및 요루·장루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과 비교할 때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4-2〉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부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요루	13.1	15.4	13.8
장루	70.3	70.5	70.4
요루·장루	16.6	14.1	15.8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2,042	5,870	17,912

3. 장애발생 시기

장루·요루장애는 남녀 모두 돌 이후(100.0%) 즉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1년 조사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표 6-14-3〉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	-	-
돌 이전	-	-	-
돌 이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2,042	5,870	17,912

장루·요루장애인 응답자의 후천적 장애 발생 시기는 20대 이후로 조사되어 2011년의 30대 이후와 차이가 있다. 이 장애는 50대에서 30.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는데, 2011년 70세 이상에서 28.9%인 것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다. 성별, 연령별로는 남자의 50대에서 32.3%, 여자에서도 50대에 25.4%로 남녀 모두 5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에는 남자가 50대에서 31.4%, 여자는 60대에서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4-4〉 장루·요루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	-	-
만 5~ 9세	-	-	-
만 10~19세	-	-	-
만 20~29세	1.8	-	1.2
만 30~39세	8.7	13.5	10.3
만 40~49세	14.2	16.0	14.8
만 50~59세	32.3	25.4	30.0
만 60~64세	9.6	12.0	10.3
만 65~69세	11.1	10.3	10.9
만 70세 이상	22.4	22.9	22.5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2,042	5,870	17,912

4. 장애발생 원인

장루·요루장애의 발생원인은 질환이나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인다. 그 중에서도 질환에 의한 발생 원인이 96.3%이고 나머지 3.6%만 사고로 인한 발생이었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후천적 원인에서 높게 나타남으로써, 2011년과 유사하였다.

〈표 6-14-5〉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	-	-
출생시 원인		-	-	-
후천적 원인	질환	94.6	100.0	96.3
	사고	5.4	-	3.7
원인불명		-	-	-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2,042	5,870	17,912

장루·요루장애는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원인으로써 그 중에서도 질환에 의한 발생이 96.4%를 차지하여, 그 세부 질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장루·요루장애는 신생물(종양)질환 원인이 79.1%로 가장 높았고, 소화기계 질환이 11.0% 순이었다. 사고로 인한 장루·요루장애의 주요 장애원인으로는 교통사고(보행자)와 기타

사고 및 외상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할 점은 2011년도에는 소화기계 질환 원인이 2.4%인데 비해 본 조사에서는 11.0%로 증가하였고,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은 10.6%에서 1.1%로 감소한 점이다.

〈표 6-14-6〉 장루·요루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신경계질환	-	-	-
		정신질환	-	-	-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 질환	-	-	-
		심혈관 질환	-	-	-
		호흡기 질환	-	-	-
		소화기계 질환	12.0	8.9	11.0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	2.4	0.8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0.6	2.3	1.1
		근골격계 질환	-	-	-
		신생물(종양)질환	80.2	76.7	79.1
		중독성 질환	-	-	-
		감염성 질환	-	9.7	3.2
		미상	1.8	-	1.2
		기타	-	-	-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	-	-
		가정내 사고	-	-	-
		교통사고(탑승자)	-	-	-
		교통사고(보행자)	1.5	-	1.0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	-	-
		화상	-	-	-
		약물 사고	-	-	-
		재난	-	-	-
		기타 사고 및 외상	3.9	-	2.6
		전상	-	-	-
		미상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2,042	5,870	17,912

제15절 뇌전증(간질)장애

1. 출현율

본 조사결과, 뇌전증(간질) 장애 출현율은 인구 1,000명당 0.47건으로 2011년 0.5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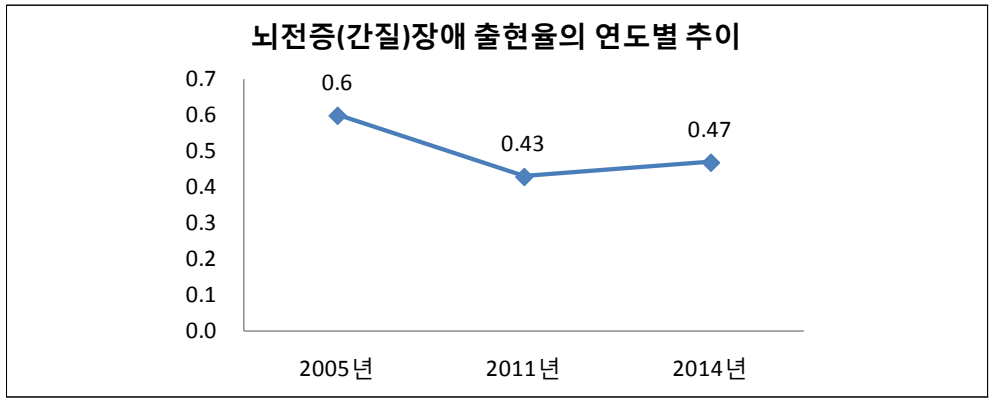
과 비교할 때 약간 감소하였다. 성별, 연령별로는 남자의 65~69세에서 2.11건, 여자의 50대에서 1.09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남자 50대에서 1.10건, 여자는 60대에서 1.01건으로 나타나, 성별 연도별 출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6-15-1〉 성별·연령별 뇌전증장애 연령 분포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0.37	0.06	0.22
10~19세	0.79	-	0.42
20~29세	0.80	-	0.41
30~39세	0.05	0.65	0.35
40~49세	0.40	0.44	0.42
50~59세	0.60	1.09	0.84
60~64세	0.45	0.53	0.49
65~69세	2.11	-	0.99
70~79세	0.64	0.19	0.38
80세 이상	-	0.14	0.10
계	0.55	0.39	0.47
전국 추정수	13,224	9,574	22,798
(N)	(35)	(23)	(58)

〔그림 6-15-1〕 뇌전증(간질)장애 출현율의 연도별 추이



2. 장애 발생 시기

2011년 조사에서 뇌전증장애의 최초 발생시기는 대부분 돌 이후(89.0%)에 발생하였

으며, 본 조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돌 이후에서 96.2%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돌 이후에 각각 97.7% 및 94.2%로 가장 많았으며, 돌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비율을 비교했을 때, 남자는 2.3%가 출생전 또는 출생시, 여자의 경우 돌 이전에 5.8%로 나타났다는 점이 2011년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으며, 여자에서 돌 이후 발생이 2011년 83.9%에서 94.2%로 증가하였다.

〈표 6-15-2〉 뇌전증(간질) 장애의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2.3	-	1.3
돌 이전	-	5.8	2.5
돌 이후	97.7	94.2	96.2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3,224	9,574	22,798

뇌전증장애 발생시기가 돌 이후인 장애인의 최초 발생 당시 연령을 분석해보면, 10대 이전에 발생한 비율이 전체의 68.9%를 차지함으로써 2011년의 60.1%보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만 1~4세에서 연령층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과도 유사하다. 성별, 연령별로는 남자 10대에서 38.1%, 여자도 10대에서 39.8%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이를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남자가 10대에서 45.7%로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10대에서 32.3%로 증가한 결과를 보여, 뇌전증(간질)장애의 성별, 연령별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6-15-3〉 뇌전증(간질)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9.8	13.4	11.3
만 5~ 9세	17.9	20.0	18.8
만 10~19세	38.1	39.8	38.8
만 20~29세	-	0.8	0.3
만 30~39세	7.0	2.3	5.1
만 40~49세	11.6	14.1	12.6
만 50~59세	13.5	4.6	9.8
만 60~64세	2.0	-	1.2
만 65~69세	-	1.4	0.6
만 70세 이상	-	3.7	1.5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2,922	9,015	21,936

3. 장애발생 원인

뇌전증 장애의 발생 원인을 살펴본 결과 후천적 원인인 질환에 의한 발생이 73.7%로 가장 높아, 2011년의 70.0%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 장애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불명도 17.2%를 차지하였다. 선천적 원인에 의한 발생은 5.4%, 출생시 저산소증 등과 같은 출생시 원인으로 인한 발생이 3.7%인 것으로 분석되어, 2011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여자에서만 선천적 원인 및 출생시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에는 여자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남자에서만 발생하였다는 점이 큰 차이를 보였다.

〈표 6-15-4〉 뇌전증(간질) 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9.2	-	5.4
출생시 원인		6.5	-	3.7
후천적 원인	질환	51.7	66.6	57.9
	사고	14.5	17.6	15.8
원인불명		18.1	15.9	17.2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3,224	9,574	22,798

질환이나 사고와 같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뇌전증(간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장애원인을 살펴본 결과,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원인이 전체의 57.7%로 가장 높은 분포로 2011년의 52.2%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장애의 원인으로는 심혈관질환, 중독성질환, 감염성질환, 가정내 사고,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약물사고, 기타 사고 및 외상에 의한 발생 등으로 그 원인이 다양하였다. 이를 2011년과도 비교해 보면, 2011년에는 장애원인으로 정신질환,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질환, 신생물(종양)질환에 의한 원인, 폭력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탑승자), 전상 등이 있었으나, 2014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2011년에 나타나지 않았던 심혈관질환, 중독성 질환,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질환의 미상에 의한 원인이 2014년 조사결과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6-15-5〉 뇌전증(간질) 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신경계질환	62.7	52.3	57.7
		정신질환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3.3	1.5	2.4
		호흡기 질환			
		소화기계 질환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생물(종양)질환			
		중독성 질환	6.4	-	3.3
		감염성 질환	5.9	9.5	7.6
		미상	-	15.8	7.6
		기타	-	-	-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	-	-
		가정내 사고	-	3.8	1.8
		교통사고(탑승자)	-	-	-
		교통사고(보행자)	-	-	-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12.7	-	6.6
		화상	-	-	-
		약물 사고	-	4.0	1.9
		재난	-	-	-
		기타 사고 및 외상	9.2	13.1	11.1
		전상	-	-	-
		미상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8,751	8,053	16,804



제7장

조사 결과Ⅲ: 재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제1절 보건의료·건강
제2절 일상생활 지원
제3절 장애인보조기구
제4절 교육
제5절 취업 및 직업생활
제6절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제7절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제8절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제9절 주거
제10절 복지서비스
제11절 경제상태

7 조사 결과Ⅲ: 재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제1절 보건의료·건강

1. 주된 장애

장애등록 여부 및 등록된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주된 장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다음의 〈표 7-1-1〉과 같다. 전체 장애 가운데 지체장애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여 50.6%로 나타났고, 뇌병변장애 10.9%, 청각장애 10.5%, 시각장애 10.4%, 지적장애 6.9%, 정신장애 4.0%의 순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분포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전체 장애유형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 주된 장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남	28.8	6.4	6.2	5.7	0.6	4.0	0.6	2.0	1.5	0.2	0.5	0.3	0.1	0.4	0.2	57.7
여	21.9	4.5	4.2	4.8	0.2	2.9	0.1	1.9	1.2	0.1	0.2	0.1	-	0.2	0.1	42.3
계	50.6	10.9	10.4	10.5	0.8	6.9	0.7	4.0	2.7	0.3	0.6	0.5	0.1	0.6	0.4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2.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형태

장애인의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형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중에서 보험의 종류별로는 직장건강보험 53.6%, 지역건강보험 30.6%로 전체의 84.2%가 가입되어 있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14.3%, 2종 1.4%로 총 1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의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전증장애

(58.7%), 정신장애(54.9%), 지적장애(26.3%), 호흡기장애(25.7%)는 의료급여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가 있었다.

〈표 7-1-2〉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직장건강보험	56.5	55.4	54.6	58.5	59.3	40.7	51.8	19.6	48.6	75.4	48.0	56.4	60.7	64.5	26.3	53.6
지역건강보험	31.5	27.1	32.5	29.3	27.6	32.9	39.5	25.4	35.1	22.5	26.2	26.8	26.4	19.3	15.0	30.6
의료급여1종	11.2	15.9	11.0	11.3	13.1	21.4	8.7	50.5	16.1	2.1	24.4	3.3	12.9	16.2	55.6	14.3
의료급여2종	0.6	1.3	2.0	0.8	-	4.9	-	4.4	-	-	1.3	13.5	-	-	3.1	1.4
기타	0.2	0.3	-	0.1	-	-	-	0.2	0.3	-	-	-	-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3. 장애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진료

장애인들이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1년에 1회 이상) 진료를 받고 있는지에 있어서는 78.3%가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받지 않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이는 2011년 조사결과(72.4%)에 비해서도 약간 증가한 비율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 심장, 간 등 신체 내부장애와 정신장애, 뇌병변장애의 정기적 진료비율이 다른 장애보다 높아 차이를 보였다.

〈표 7-1-3〉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 받고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예	76.4	92.0	74.3	72.3	65.6	59.3	88.2	97.4	100.0	100.0	97.9	100.0	77.4	98.2	100.0	78.3
아니오	23.6	8.0	25.7	27.8	34.4	40.7	11.8	2.7	-	-	2.1	-	22.6	1.8	-	2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현재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진료 받는 장소를 알아보면 대부분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 병의원이 61.1%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이 30.9%로 이전 조사에 비해 병·의원 이용이 약간 늘었다. 그밖에는 한방병·의원과 재활병·의원과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전체적으로 병원이 많았으나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과 기타 치료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른 장애에 비해 많아 차이가 있다.

〈표 7-1-4〉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 곳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종합병원	23.4	48.2	32.6	25.2	30.9	29.9	16.2	26.7	56.9	93.0	71.6	82.5	21.1	71.0	61.4	30.9
재활병·의원	1.4	6.0	1.0	-	5.9	2.4	7.2	3.2	-	-	-	-	-	-	-	1.9
병·의원	69.2	37.9	64.9	70.0	52.5	51.3	36.0	68.1	40.6	7.0	28.5	17.5	76.2	29.0	35.9	61.1
보건소	1.3	1.4	1.0	2.6	0.5	1.1	2.0	-	-	-	-	-	-	-	-	1.2
한방병·의원	4.1	3.9	0.6	1.9	4.8	-	-	-	-	-	-	-	2.7	-	2.7	2.8
장애인복지관	0.2	1.3	-	-	0.9	10.4	13.4	0.1	-	-	-	-	-	-	-	0.9
기타	0.5	1.3	-	0.4	4.5	5.0	25.3	1.9	2.5	-	-	-	-	-	-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23,881	266,243	204,036	200,436	14,032	108,170	16,718	102,220	71,876	8,456	15,646	11,839	2,331	16,409	9,764	2,072,056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를 받는 목적으로는 치료의 목적이 8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재활이 9.0%, 건강관리나 예방의 목적은 6.0%였다.

〈표 7-1-5〉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는 목적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전체
치료	83.7	82.2	86.7	87.9	89.5	74.2	43.1	98.7	96.5	91.8	98.6	93.3	82.7	90.3	100.0	84.9
재활	10.3	15.3	2.2	3.5	4.8	17.2	50.1	1.3	-	-	-	-	-	-	-	9.0
건강관리·예방	5.9	2.5	11.1	8.6	5.8	8.6	6.8	-	2.7	8.2	1.4	6.7	17.3	8.5	-	6.0
기타	0.1	-	-	-	-	-	-	-	0.9	-	-	-	-	1.2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23,508	266,243	203,804	200,436	14,032	108,170	16,718	102,220	71,876	8,456	15,646	11,839	2,331	16,409	9,764	2,071,450

주: 무응답 제외

다만 장애유형별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료 받는 목적에 있어서는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정신적 장애와 신체 외부장애의 경우 재활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 신체 내부장애의 경우에

는 재활의 목적 보다는 건강유지, 관리의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지 않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81.1%는 정기적 진료의 필요성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의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7.0%로 경제적 이유임을 알 수 있었으며, 기타 시간이 없거나 불편해서 등의 이유는 적었다. 2011년의 조사와 비교해서 진료의 필요성은 다소 늘었고 경제적 이유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표 7-1-6〉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82.8	70.8	81.7	81.8	64.6	78.8	88.8	66.0	-	-	100.0	-	-	100.0	-	81.1
병의원까지 방문하기 불편해서	1.7	6.5	2.1	1.0	8.3	1.1	-	-	-	-	-	-	-	-	-	1.8
의료기관의 장애인시설 미비로 이용이 불편해서	0.1	1.4	-	-	-	0.6	-	-	-	-	-	-	-	-	-	0.2
돈이 없어서	5.4	12.1	10.7	8.2	6.7	8.6	-	-	-	-	-	-	-	-	-	7.0
진료받기 싫어서	2.8	-	1.0	2.9	-	3.5	-	11.9	-	-	-	-	-	-	-	2.5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3.9	-	2.5	1.5	-	-	-	-	-	-	-	-	100.0	-	-	2.8
의사가 정기적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2.9	6.0	2.1	3.8	-	1.8	-	-	-	-	-	-	-	-	-	2.8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	-	-	0.8	6.0	3.7	11.2	22.0	-	-	-	-	-	-	-	0.8
기타	0.6	3.3	-	-	14.5	1.9	-	-	-	-	-	-	-	-	-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100.0	-	100.0
전국추정수	315,689	23,014	70,448	76,996	7,367	74,163	2,233	2,782	-	-	339	-	681	296	-	574,008

4. 평소 본인 건강상태

장애인들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한 결과는 건강이 '나쁘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53.4%로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15.9%)보다 많아 이전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공통적으로 신체 내부장애인들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높았는데, 특히 호흡기, 심장, 신장장애인과 함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70% 이상이 평소 건강이 나쁘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반면 평소 건강이 '매우좋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많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장애유형별로 연령층이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6].

〈표 7-1-7〉 평소 본인 건강 상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좋음	1.1	-	1.5	1.2	1.4	4.7	4.6	1.2	0.6	-	-	-	2.1	-	-	1.3
좋음	13.2	5.3	18.8	16.7	25.9	31.3	40.2	16.3	7.1	8.2	-	2.1	3.5	11.1	15.7	14.6
보통	32.0	17.7	34.2	35.7	36.9	34.4	40.3	31.9	21.6	18.5	11.6	30.7	41.8	19.0	24.1	30.7
나쁨	41.7	45.4	33.9	35.0	25.0	24.6	13.2	37.0	40.8	54.5	50.9	33.8	44.7	42.2	38.5	38.9
매우 나쁨	12.0	31.6	11.6	11.5	10.9	5.0	1.7	13.6	29.9	18.7	37.5	33.4	7.9	27.7	21.8	1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5. 건강검진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 여부는 다음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은데, 만 40세 이상의 대상 장애인 가운데 72.9%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11년의 조사(70.4%) 보다 검진 받은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7].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높았던 반면,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는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정신적 장애유형의 건강 검진율이 모두 낮게 나타나 건강검진 안내와 이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16)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주관적 건강평가 결과(통계청, 2013)와 비교해 보면 '매우 좋음' 10.2%, '좋은 편' 35.3%, '보통' 38.6%, '나쁜 편' 13.4%, '매우 나쁜 편' 2.7%으로 장애인이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17) 참고로 2013년의 일반국민 중 건강검진 수진율은 40대 72.9%, 50대 73.2%, 60대 76.7%임(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표 7-1-8〉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78.7	60.4	73.3	69.6	62.8	52.3	-	45.7	75.0	78.9	73.3	90.1	87.9	67.5	61.0	72.9
아니오	21.3	39.6	26.7	30.4	37.2	47.8	-	54.3	25.0	21.1	26.7	9.9	12.1	32.5	39.0	2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47,001	253,905	248,353	255,944	14,499	57,573	-	85,576	65,188	7,547	15,646	11,535	1,979	16,495	7,362	2,288,602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건강검진이 8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의료급여 11.3%, 본인이 부담하는 종합건강검진 5.7% 등의 순으로 이전 조사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전증(간질)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검진을 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심장장애, 간장애, 신장장애의 순으로 본인부담의 건강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유형으로 조사되었다.

〈표 7-1-9〉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 내용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5.2	7.4	5.7	2.9	1.8	1.3	3.1	20.1	28.2	4.4	22.3	-	12.1	-	5.7
산업장 특수건강검진	0.4	-	0.1	0.3	-	-	-	-	-	-	-	-	-	-	0.2
건강보험 건강검진	85.8	79.1	81.9	87.6	85.8	67.2	45.9	64.5	68.8	70.0	60.7	100.0	83.7	38.0	82.6
의료급여대상	8.6	13.2	12.1	9.2	12.4	31.5	51.0	15.4	2.9	23.4	17.0	-	4.2	62.0	11.4
기타	-	0.4	0.2	0.1	-	-	-	-	-	2.2	-	-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81,262	153,407	182,125	178,195	9,106	30,083	39,139	48,862	5,952	11,469	10,394	1,740	11,136	4,493	1,667,364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증상이 가벼워서 받지 않았다'가 17.5%로 가장 많았고,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는 게 싫어서' 16.0%, '교통편이 불편해서' 10.8%, '경제적인 이유' 10.6% 등의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대체로 고령이 많은 장애의 경우에는 교통의 불편 등 접근성의 어려움이 컸고, 지적, 청각, 시각장애애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커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7-1-10〉 건강검진 받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경제적인 이유로	13.7	9.2	12.5	8.3	-	0.6	5.1	11.7	8.8	-	-	-	21.6	-	10.6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 힘들어서	8.9	4.9	5.2	7.6	5.3	-	6.4	9.0	-	7.8	-	-	6.1	-	7.0
교통편이 불편해서	9.8	22.1	11.8	8.1	17.1	1.9	2.3	2.5	22.8	27.2	-	-	-	-	10.8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	9.1	1.8	11.8	5.2	-	-	3.3	11.8	-	2.8	12.2	-	5.8	19.4	6.8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17.9	10.6	18.1	13.6	11.4	9.6	20.8	15.9	-	22.0	30.6	-	32.8	4.9	16.0
증상이 가벼워서	18.5	5.9	21.9	22.3	14.5	16.6	22.2	20.2	20.5	22.7	44.6	100.0	12.6	5.0	17.5
의사소통 어려움	1.5	7.2	0.9	22.3	33.7	41.6	13.1	-	-	-	-	-	-	-	7.7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미비로 이용 불편	5.3	13.5	4.8	0.6	4.8	7.8	5.6	5.1	32.8	4.7	-	-	-	-	6.1
기타	15.5	24.8	12.9	12.0	13.2	21.9	21.3	23.9	15.2	13.0	12.6	-	21.1	70.8	1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2,194	98,647	64,824	74,445	5,393	26,651	45,698	15,619	1,595	4,177	1,141	239	5,358	2,868	608,848

주: 무응답 제외

최근 2년간 암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검진을 받은 비율은 52.4%로 받지 않은 경우 보다 많았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18]. 장애유형별 암검진 경험에 있어서는 지체장애를 제외하고 간, 호흡기, 심장, 장루·요루장애와 같은 신체 내부장애인의 검진 받은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표 7-1-11〉 최근 2년간 암검진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60.5	41.5	57.3	52.3	35.0	14.3	-	33.3	58.7	60.9	71.1	84.9	57.8	60.3	44.9	52.4
아니오	39.5	58.5	42.8	47.7	65.0	85.7	100.0	66.7	41.3	39.1	28.9	15.1	42.3	39.7	55.1	4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이와 함께 최근 1년 간 구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33.8%의 장애인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의 1/3 정도가 구강검진을 받았음을 알 수

18) 2013년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의 암검진 수진율은 42.9%임(보건복지부·질병관리센터, 2014).

있다[19].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 안면장애의 구강검진 비율이 높은 반면 뇌전증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7-1-12〉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예	35.7	30.9	33.5	32.4	26.5	33.4	52.4	21.5	34.9	24.5	37.9	37.3	49.4	27.2	17.8	33.8
아니오	64.3	69.1	66.5	67.6	73.5	66.6	47.6	78.5	65.1	75.5	62.1	62.8	50.7	72.9	82.3	6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최근 1년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7-1-13〉과 같은데, 예방접종을 받은 장애인이 61.6%로 받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다. 이 비율은 2011년(55.3%)에 비해 접종을 받은 사람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 간, 신장, 심장장애 등 내부장애가 예방접종비율이 높았으며, 안면장애, 정신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의 순으로 예방접종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3〉 최근 1년간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예방접종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예	61.2	65.8	59.0	67.7	59.8	52.2	59.4	43.6	78.0	73.3	95.3	84.4	24.8	69.0	45.9	61.6
아니오	38.8	34.3	41.0	32.3	40.2	47.8	40.6	56.4	22.0	26.7	4.7	15.6	75.3	31.0	54.1	3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6. 입원, 외래

장애인들의 치료를 위해 입원과 외래를 이용한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1년 간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장애인의

19)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상의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최근 1년간 구강검진율은 27.9%임.

23.0%는 입원한 경험이 있어 비교적 적지 않은 장애인이 입원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일반 국민에 비해서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20]. 입원 경험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호흡기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뇌전증장애, 장루·요루장애의 순으로 높았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순으로 입원 비율이 낮아 주로 신체 내부장애의 입원 경험이 다른 장애보다 많아 차이가 있다.

〈표 7-1-14〉 최근 1년간 입원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20.7	32.4	19.9	19.9	19.7	13.6	8.5	33.4	47.1	21.8	62.4	57.5	16.4	35.6	40.3	23.0
아니오	79.3	67.6	80.1	80.1	80.3	86.4	91.5	66.6	52.9	78.2	37.6	42.5	83.6	64.4	59.7	7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최근 2주간 치과를 포함하여 병의원이나 보건소,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54.3%가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치료받지 않은 경우보다 많고 일반 국민 보다 많아 장애인의 건강상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21]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 받은 경험을 장애유형별로 세분해 살펴보면 신장장애, 안면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치료받은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으며,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제외한 다른 장애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7-1-15〉 최근 2주간 병의원(치과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 받은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54.9	58.8	54.0	53.2	39.7	36.1	46.1	52.9	78.9	61.2	53.2	76.9	78.7	70.2	47.5	54.3
아니오	45.1	41.2	46.0	46.8	60.3	63.9	53.9	47.1	21.1	38.8	46.8	23.1	21.3	29.8	52.5	4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20) 참고로 19세 이상 일반 국민의 연간 입원율은 11.5%임(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21) 국민건강통계(2014)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국민 중 2주간 외래이용률은 31.6%임.

장애발생 이후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이 발생했었는지의 여부에서는 7.8%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사고나 중독의 전체적인 발생률은 낮은 편으로 일반 국민의 연간 손상경험률 7.7%(국민건강통계, 2014)와도 유사하였다. 사고나 중독 발생 여부에 있어 장애유형별로 구분해보면 뇌전증(간질)장애에서 19.9%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심장장애 순으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7-1-16〉 (장애발생 이후) 최근 1년간 병의원, 응급실 등에서 치료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 발생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8.0	8.8	7.7	7.8	2.8	5.5	3.3	6.5	5.7	10.2	8.1	10.3	-	14.8	19.9	7.8
아니오	92.0	91.3	92.3	92.2	97.2	94.6	96.7	93.5	94.3	89.8	91.9	89.7	100.0	85.2	80.2	9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치료를 받아야 하는 외상 등의 사고나 중독이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추락이나 미끌어지는 사고가 50.2%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19.8%, 부딪힘 12.4%, 열상·자상 10.2% 등의 순이었으며, 화상, 질식, 익수, 중독 등은 극히 드물었다.

〈표 7-1-17〉 (장애발생 이후) 사고 및 중독 발생한 원인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운수사고(교통사고)	25.2	10.1	15.8	12.6	0.0	18.3	0.0	12.7	0.0	61.6	35.5	19.4	-	11.9	42.2	19.8
추락(떨어짐)/미끄러짐	48.3	71.5	40.1	63.6	10.2	36.7	55.9	15.1	57.3	38.4	0.0	69.2	-	59.5	34.6	50.2
부딪힘	8.6	14.9	21.1	13.6	0.0	29.4	44.1	6.8	19.5	0.0	0.0	0.0	-	0.0	0.0	12.1
열상, 자상, 절단, 관통상(베임)	8.3	5.3	12.0	9.4	89.8	11.0	0.0	62.9	4.5	0.0	0.0	0.0	-	0.0	0.0	10.2
화상	2.0	0.0	2.9	0.0	0.0	0.0	0.0	0.0	7.6	0.0	0.0	0.0	-	0.0	0.0	1.5
질식	1.7	2.6	3.2	0.0	0.0	0.0	0.0	0.0	0.0	0.0	25.2	11.4	-	0.0	0.0	1.7
익수	0.2	0.0	0.0	1.1	0.0	2.1	0.0	0.0	0.0	0.0	0.0	0.0	-	0.0	0.0	0.3
중독	1.8	1.0	0.0	0.4	0.0	0.0	0.0	0.0	0.0	0.0	0.0	0.0	-	28.5	15.6	1.6
기타	6.2	6.9	7.9	4.7	0.0	11.2	0.0	2.5	13.9	0.0	39.3	0.0	-	0.0	7.7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6,929	25,312	21,152	21,764	598	9,943	629	6,825	4,093	866	1,289	1,220	-	2,471	1,938	205,029

장애유형별로 세분해 보면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장애의 경우 추락/미끄러짐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언어장애와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추락/미끌어짐 사고 보다는 열상·자상 등의 원인이 많았고, 호흡기장애의 경우에는 질식사고가 많았던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7. 의료서비스 만족도

가장 최근에 치료 받은 병의원의 의료행위, 진료절차, 직원의 친절성, 청결, 병실구조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7-1-18〉과 같다.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 62.3%, '매우 만족' 7.3%로 전체적으로 69.6%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22].

장애유형별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는 뇌전증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신장장애의 순으로 만족가 높아 다른 장애에 비해 신체 내부장애의 병의원 이용이 많고,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1-18〉 가장 최근에 치료 받은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진료의 질 등)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매우 만족	7.5	8.1	7.2	5.3	10.6	4.8	2.0	6.5	12.2	8.4	5.4	27.6	2.1	8.2	10.4	7.3
만족	62.7	60.4	64.0	62.9	52.0	57.9	70.3	57.9	69.2	57.6	66.1	56.4	24.3	75.0	76.8	62.3
보통	24.3	22.6	24.4	25.5	30.0	28.7	16.6	29.0	10.9	34.1	25.3	12.7	15.1	16.8	9.8	24.2
별로 만족 안함	4.9	7.8	3.5	5.4	7.4	6.6	9.7	5.7	6.9	-	3.2	3.3	48.0	-	3.0	5.4
전혀 만족 안함	0.6	1.2	0.9	0.8	-	2.0	1.4	1.0	0.7	-	-	-	10.5	-	-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0,980	281,362	257,680	266,603	19,146	158,657	18,003	103,218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553,236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이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의료진인 의사와 간호사가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는지의 여부는 치료를 받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22) 참고로 우리나라 종합병원 이용자 중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 20.6%, 만족 32.5%, 보통 33.7%, 약간 불만족 11.4%, 매우 불만족 1.9%로 만족하는 비율은 53.1%였음(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13).

의미에서 가장 최근에 치료 받은 병의원의 의료진이 장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렇다'가 53.9%, '매우 그렇다'가 13.8%로 전체적으로 2/3 정도는 장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등 신체내부 장애인일수록 의료진이 장애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1-19〉 가장 최근 이용한 병의원의 의료진(의사, 간호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그렇다	11.7	20.1	14.7	10.0	11.1	13.6	12.8	13.2	30.4	35.9	13.8	31.4	2.1	18.5	34.3	13.8
그렇다	53.6	54.8	51.2	54.4	62.1	53.7	52.9	53.8	59.7	36.7	66.1	59.6	34.8	66.3	50.1	53.9
보통	20.5	17.6	22.1	22.0	19.3	20.0	15.3	21.7	5.4	27.4	13.2	3.7	3.0	13.4	10.5	19.8
별로 그렇지 않다	10.6	6.9	9.4	10.4	7.6	11.5	16.0	8.9	3.8	-	6.9	5.3	41.8	-	5.1	9.7
전혀 그렇지 않다	3.6	0.7	2.6	3.3	-	1.2	3.1	2.4	0.8	-	-	-	18.3	1.8	-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80,930	281,362	257,680	266,603	19,146	159,380	18,003	103,518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534,260

주: 무응답 제외

8. 만성질환 현황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에 있어서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8%로 나타나 장애와 관련이 있거나 장애 외의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조사에서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70.0%)과 비교할 때 만성질환 유병률이 다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 뇌전증, 호흡기, 신장, 장루·요루장애와 함께 정신장애, 뇌병변장애의 경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7-1-20〉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75.5	88.1	71.5	76.7	54.0	44.7	37.2	92.6	96.3	100.0	97.9	94.1	68.1	95.9	98.5	75.8
아니오	24.5	11.9	28.5	23.3	46.0	55.3	62.8	7.4	3.7	-	2.1	5.9	31.9	4.2	1.5	2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가운데 만성질환의 종류를 모두 조사한 결과 고혈압이 5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29.7%, 당뇨병 25.1%, 요통 16.7%, 뇌졸중 12.9%. 이상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당뇨, 뇌졸중 등 순환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비율은 2011년의 조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다소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며,[23]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만성질환에 대해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고혈압은 신장장애와 뇌병변장애가 많고, 당뇨병은 신장, 간, 호흡기 장애 등이 많았으며, 이상지혈증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뇌졸중은 뇌병변장애, 심근경색증은 심장장애, 골관절염은 지체장애, 요통은 간장애가 많아 유형에 따라 만성질환의 특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1-21〉 만성질환 현황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 증 장애	전체
고혈압																
유	53.9	66.3	57.4	53.0	47.5	23.8	-	14.6	72.5	53.9	43.9	45.5	34.5	40.0	17.1	52.6
무	46.1	33.7	42.6	47.0	52.5	76.2	100.0	85.4	27.5	46.1	56.2	54.5	65.5	60.0	82.9	47.4
이상지혈증																
유	13.6	14.6	13.2	12.4	10.6	3.3	-	5.1	12.4	5.5	6.3	9.7	-	0.9	5.3	12.4
무	86.4	85.5	86.9	87.7	89.5	96.7	100.0	94.9	87.6	94.5	93.7	90.4	100.0	99.1	94.7	87.7

23) 2013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30.4%이었으며, 당뇨병은 11.9%(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로 장애인의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이 전체 국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됨.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뇌졸중(중풍)																
유	4.4	70.3	6.9	3.3	38.5	1.3	-	0.9	5.2	14.9	5.3	-	-	4.0	13.7	12.9
무	95.6	29.7	93.1	96.7	61.5	98.7	100.0	99.1	94.8	85.1	94.7	100.0	100.0	96.0	86.4	87.1
심근경색증																
유	4.3	7.1	3.9	5.7	-	1.7	-	-	2.6	34.5	6.7	3.6	-	2.0	-	4.5
무	95.7	92.9	96.1	94.3	100.0	98.3	100.0	100.0	97.4	65.5	93.3	96.4	100.0	98.0	100.0	95.5
협심증																
유	5.6	5.5	5.3	3.9	3.7	-	-	-	4.8	13.4	9.2	3.2	-	4.0	-	4.8
무	94.5	94.5	94.7	96.1	96.3	100.0	100.0	100.0	95.2	86.6	90.8	96.8	100.0	96.0	100.0	95.2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유	39.7	19.4	27.1	27.4	15.1	8.0	-	5.3	14.4	23.0	12.7	15.9	11.7	15.3	12.9	29.7
무	60.3	80.6	73.0	72.6	84.9	92.0	100.0	94.7	85.6	77.0	87.3	84.1	88.4	84.7	87.1	70.3
류마티스관절염																
유	4.9	2.7	2.1	2.8	2.1	0.6	-	1.5	1.3	-	2.4	-	-	1.2	0.5	3.5
무	95.1	97.3	97.9	97.3	97.9	99.4	100.0	98.5	98.7	100.0	97.6	100.0	100.0	98.8	99.5	96.5
요통																
유	22.5	11.0	12.2	17.1	7.5	6.0	-	4.5	4.2	-	7.8	5.2	31.3	6.6	14.5	16.7
무	77.5	89.0	87.8	82.9	92.5	94.0	100.0	95.5	95.8	100.0	92.2	94.8	68.7	93.4	85.6	83.3
폐결핵																
유	0.3	0.4	0.8	0.8	-	0.5	-	1.3	-	-	9.5	-	-	-	-	0.5
무	99.8	99.6	99.3	99.2	100.0	99.5	100.0	98.7	100.0	100.0	90.5	100.0	100.0	100.0	100.0	99.5
천식																
유	3.5	2.4	4.2	3.7	4.0	2.8	15.5	1.3	2.9	-	38.9	0.4	5.1	0.3	-	3.6
무	96.5	97.6	95.8	96.3	96.0	97.2	84.5	98.7	97.1	100.0	61.1	99.6	94.9	99.7	100.0	96.4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유	2.0	1.8	1.7	1.9	2.1	2.9	-	1.4	1.2	-	73.6	1.7	-	-	-	2.4
무	98.1	98.2	98.3	98.1	98.0	97.1	100.0	98.6	98.8	100.0	26.4	98.4	100.0	100.0	100.0	97.6
우울증																
유	7.5	12.0	5.6	5.1	-	9.6	-	39.0	4.6	19.1	7.0	4.6	-	3.2	5.7	9.1
무	92.5	88.0	94.5	94.9	100.0	90.4	100.0	61.1	95.4	80.9	93.0	95.4	100.0	96.8	94.3	91.0
아토피 피부염																
유	2.0	1.5	3.0	1.2	-	6.3	4.9	0.8	3.4	-	-	1.6	19.6	5.6	-	2.1
무	98.0	98.5	97.0	98.8	100.0	93.7	95.1	99.2	96.6	100.0	100.0	98.4	80.4	94.4	100.0	97.9
신부전																
유	1.5	1.8	2.2	1.3	-	0.7	-	-	76.3	6.6	-	3.3	-	1.1	-	4.1
무	98.5	98.2	97.8	98.7	100.0	99.3	100.0	100.0	23.7	93.4	100.0	96.7	100.0	99.0	100.0	95.9
당뇨병																
유	24.3	29.1	29.2	20.9	30.6	20.0	10.4	16.0	43.4	16.7	32.8	34.2	29.5	26.1	8.4	25.1
무	75.7	70.9	70.8	79.1	69.4	80.0	89.6	84.0	56.6	83.3	67.2	65.8	70.6	74.0	91.6	74.9
갑상선장애																
유	4.2	2.2	3.9	3.7	3.9	1.4	-	1.9	4.9	-	0.7	6.3	-	1.0	-	3.5
무	95.9	97.8	96.1	96.3	96.1	98.7	100.0	98.1	95.1	100.0	99.3	93.7	100.0	99.0	100.0	96.5
위암																
유	0.9	0.4	0.8	0.9	-	-	-	0.5	1.0	3.6	-	0.9	-	6.4	-	0.8
무	99.1	99.6	99.2	99.1	100.0	100.0	100.0	99.6	99.0	96.4	100.0	99.1	100.0	93.6	100.0	99.2
간암																
유	0.3	-	-	0.7	-	-	-	-	-	-	-	25.0	-	0.8	-	0.4
무	99.7	100.0	100.0	99.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5.0	100.0	99.2	100.0	99.6
대장암																
유	0.4	1.0	0.7	0.8	-	-	-	-	0.4	-	-	-	-	23.3	-	0.7
무	99.6	99.0	99.3	99.2	100.0	100.0	100.0	100.0	99.6	100.0	100.0	100.0	100.0	76.7	100.0	99.3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유방암																
유	0.5	0.3	0.4	-	-	-	0.4	0.3	-	-	-	-	-	-	0.3	0.3
무	99.5	99.7	99.6	100.0	100.0	100.0	99.6	9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7	99.7
자궁경부암																
유	0.1	0.5	-	0.2	-	-	-	-	0.7	-	-	-	-	1.0	-	0.2
무	99.9	99.5	100.0	99.8	100.0	100.0	100.0	100.0	99.3	100.0	100.0	100.0	100.0	99.0	100.0	99.8
폐암																
유	0.1	-	0.2	-	3.9	-	-	-	-	-	3.2	-	-	-	-	0.1
무	99.9	100.0	99.8	100.0	96.1	100.0	100.0	100.0	100.0	100.0	96.8	100.0	100.0	100.0	100.0	99.9
기타암																
유	1.8	2.6	2.8	2.3	32.1	0.2	-	-	0.9	-	4.6	-	-	30.5	5.3	2.3
무	98.2	97.4	97.2	97.7	68.0	99.8	100.0	100.0	99.2	100.0	95.4	100.0	100.0	69.6	94.7	97.7
위십이지장궤양																
유	2.5	2.7	4.0	4.7	5.9	0.9	-	1.2	1.7	6.6	1.4	1.6	26.9	-	-	2.7
무	97.5	97.3	96.0	95.4	94.1	99.1	100.0	98.8	98.3	93.4	98.6	98.4	73.1	100.0	100.0	97.3
B형간염																
유	1.1	0.8	0.2	1.5	-	2.0	-	0.9	1.0	-	-	28.6	-	-	-	1.1
무	99.0	99.2	99.8	98.5	100.0	98.0	100.0	99.1	99.0	100.0	100.0	71.4	100.0	100.0	100.0	98.9
C형간염																
유	0.1	0.4	0.3	0.6	-	-	-	-	-	-	-	1.9	-	-	-	0.2
무	99.9	99.6	99.8	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8.1	100.0	100.0	100.0	99.8
간경변증																
유	0.5	1.0	0.7	0.7	-	-	-	0.2	-	-	-	34.0	-	-	-	0.7
무	99.5	99.0	99.3	99.3	100.0	100.0	100.0	99.8	100.0	100.0	100.0	66.0	100.0	100.0	100.0	99.3
기타																
유	34.3	30.7	36.1	35.8	38.6	56.3	80.0	78.2	22.7	53.0	45.2	20.7	45.9	34.7	93.5	37.4
무	65.7	69.3	63.9	64.2	61.4	43.7	20.0	21.8	77.3	47.0	54.8	79.3	54.2	65.3	6.6	62.6

고혈압의 만성질환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 현재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지와 복용하고 있는 일수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은데, 현재 혈압조절을 위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대부분인 96.6%가 복용 중인 것으로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약 복용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1-22〉 (고혈압인 경우) 혈압조절을 위해 현재 혈압약 복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97.5	96.5	97.3	96.4	92.4	95.3	-	76.4	94.4	100.0	93.9	88.2	100.0	92.7	100.0	96.6
아니오	2.5	3.5	2.7	3.6	7.6	4.7	-	23.6	5.6	-	6.1	11.8	-	7.3	-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44,931	169,092	112,684	112,728	5,482	19,359	-	14,224	50,187	4,558	6,860	5,072	708	6,401	1,648	1,053,934

한편 혈압약을 한 달 기준으로 몇 일이나 복용하는지 평균 복용일수를 알아본 결과 거의 한 달(30일) 동안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 혈압약 복용여부와 혈압약 복용일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3〉 (고혈압인 경우) 혈압조절을 위해 현재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 복용 일수

(단위: 일)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평균	29.9	29.9	29.8	29.9	30.0	30.0	-	30.0	29.6	30.0	30.0	30.0	30.0	30.0	30.0	29.9
SD	1.26	1.70	1.57	1.11	0.00	0.00		0.00	3.24	0.00	0.00	0.00	0.00	0.00	0.00	1.48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골관절염인 경우 약물의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관절 통증의 정도에 대해 0~10점(통증이 가장 심할 경우 10점)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과 평균 6.7점으로 심하지는 않지만 보통 이상의 통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안면장애가 가장 심하였고, 나머지 유형은 대체로 비슷한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24〉 (골관절염인 경우) 약물복용 상관없이 관절 통증의 정도

(단위: 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평균	6.8	6.5	6.6	6.4	7.0	6.6	-	5.4	6.3	7.9	6.7	7.2	10.0	7.0	6.1	6.7
SD	1.87	2.06	1.88	1.92	3.09	1.77	-	3.15	1.59	2.35	1.30	0.48	0.00	0.73	2.12	1.92

앞에서 만성질환 가운데 우울증을 경험한 장애인은 전체의 9.1%였는데,[24] 우울증을 현재 치료받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75.5%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치료받고 있는 비율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다른 장애에 비해 정신장애의 치료받는 비율이 높아 차이가 있었다.

24) 우울증상 경험률을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비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의 경우 10.7%였음(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표 7-1-25〉 (우울증인 경우) 현재 우울증 치료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69.2	75.3	54.9	76.5	75.1	96.6	67.5	65.6	69.8	-	23.0	100.0	75.5
아니오	30.8	24.8	45.1	23.5	24.9	3.4	32.5	34.4	30.2	100.0	77.0	-	2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6,045	30,684	10,902	10,769	7,834	37,860	3,188	1,619	1,088	511	514	546	181,560

만성질환 가운데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혈당관리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96.8%가 치료를 받고 있어 당뇨병 역시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임을 알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7-1-26〉 (당뇨병인 경우) 혈당 관리하기 위해 치료 받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96.9	96.9	96.0	94.7	100.0	95.1	100.0	97.0	9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6.8
아니오	3.1	3.1	4.0	5.3	-	4.9	-	3.0	1.1	-	-	-	-	-	-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45,719	74,119	57,320	44,393	3,534	16,306	733	15,513	30,054	1,413	5,137	3,806	604	4,171	809	503,630

한편 당뇨병으로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받고 있는 치료방법으로는 당뇨병약(혈당강하제)을 복용하고 있는 비율이 92.6%였고, 그 외에 비약물요법인 운동이나 식사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28.6%, 인슐린주사를 사용하는 비율이 12.3%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약물치료를 주로하고 그 밖에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슐린주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호흡기, 안면, 간, 장루·요루장애의 경우에는 운동이나 식사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다른 장애에 비해 다소 많았다.

〈표 7-1-27〉 (당뇨병인 경우) 혈당 관리하기 위해 받고 있는 치료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인슐린주사																
예	9.4	7.3	9.8	14.5	20.4	16.0	-	10.5	47.0	-	10.1	41.0	-	1.7	-	12.3
아니오	90.6	92.7	90.2	85.5	79.6	84.0	100.0	89.5	53.0	100.0	90.0	59.0	100.0	98.4	100.0	87.7
당뇨병약(경구 혈당강하제)																
예	94.5	93.1	96.1	91.5	88.2	87.6	100.0	97.1	72.6	100.0	100.0	78.9	100.0	83.0	100.0	92.6
아니오	5.5	6.9	3.9	8.6	11.8	12.4	-	2.9	27.4	-	-	21.1	-	17.0	-	7.4
비약물요법(운동, 식사요법)																
예	29.8	26.2	24.5	31.4	10.6	14.9	-	23.5	30.2	-	63.6	51.3	60.5	48.7	37.3	28.6
아니오	70.2	73.8	75.6	68.6	89.4	85.1	100.0	76.6	69.8	100.0	36.5	48.7	39.6	51.3	62.7	71.4
기타																
예	0.5	-	0.2	1.3	-	-	-	-	-	-	-	-	-	-	-	0.4
아니오	99.6	100.0	99.8	9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38,042	71,792	55,030	42,058	3,534	15,501	733	15,043	29,716	1,413	5,137	3,806	604	4,171	809	487,389

조사대상 장애인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장애등록 여부나 유형과 관계없이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7.4%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뇌전증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난치성 질환 비율이 다른 장애에 비해 매우 높고 또한 간장애, 호흡기장애 등도 높아 이들 장애의 특성과 난치성 질환의 연관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표 7-1-28〉 희귀 난치성 질환 갖고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3.0	11.8	5.1	3.0	1.8	12.0	7.6	5.1	74.1	18.4	22.5	30.5	12.9	2.5	82.8	7.4
아니오	97.0	88.2	95.0	97.0	98.2	88.0	92.4	94.9	25.9	81.6	77.5	69.5	87.1	97.5	17.2	9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질환을 등록[25]하였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60.0%가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등록률은 높지 않았다. 장애유형별

25)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경감해주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로는 사례수가 적은 장애(언어, 안면)를 제외하고 신장장애, 간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의 등록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7-1-29〉 희귀 난치성 질환 등록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예	44.9	65.9	37.4	14.7	100.0	55.2	49.0	71.9	82.8	54.0	35.3	73.6	100.0	56.0	48.8	60.0
아니오	54.1	34.1	60.1	85.3	-	44.8	51.0	28.1	15.9	46.0	64.8	26.4	-	44.0	51.2	39.3
신청중	1.0	-	2.6	-	-	-	-	-	1.4	-	-	-	-	-	-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0,776	32,804	13,866	7,605	382	20,801	1,443	5,308	53,289	1,560	3,595	3,606	389	421	6,015	191,858

주: 무응답 제외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19.1%는 있다고 응답하여 진료가 필요하나 여러 이유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뇌병변장애의 경우 병원을 가지 못한 사례가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간장애, 뇌전증장애 등이 상대적으로 사례가 적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7-1-30〉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 유무 (치과 제외)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예	19.5	25.1	17.8	19.5	19.2	15.2	8.9	16.6	13.3	14.1	18.9	9.3	18.3	14.1	11.4	19.1
아니오	80.5	74.9	82.2	80.5	80.8	84.8	91.1	83.4	86.7	86.0	81.1	90.7	81.7	86.0	88.6	8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58.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았으며, 그 밖의 사유로는 '교통이 불편해서'가 15.2%로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와 이동수단 등 교통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 볼 때, 장애유형에 따라서 장루·요루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뇌병변장애 등은 교통불편이 비교적 많았고, 자폐성장애와 지적장

애는 의사소통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 7-1-31〉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치과 제외)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경제적 이유	59.1	56.8	56.9	60.0	57.0	58.7	30.3	63.1	63.1	25.4	64.3	63.6	100.0	61.4	70.2	58.8
예약하기 힘듦	2.3	0.4	3.3	1.6	-	-	-	2.3	-	-	10.8	-	-	-	-	1.9
교통 불편	16.6	23.9	16.2	6.4	14.9	1.1	-	3.1	17.1	30.6	25.0	-	-	38.6	-	15.2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아서	7.9	2.8	6.0	7.7	10.3	-	-	2.8	1.9	-	-	-	-	-	23.4	6.1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3.4	1.3	4.2	-	15.3	-	-	0.4	-	-	-	-	-	-	-	2.5
증상이 가벼워서	7.2	4.2	10.3	3.7	-	5.5	-	7.3	5.0	-	-	27.4	-	-	-	6.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미비로 이용 불편	1.7	3.7	0.2	-	-	6.1	-	-	-	44.0	-	-	-	-	-	1.9
의사소통 어려움	0.4	3.4	0.4	17.5	2.5	27.4	33.4	7.4	-	-	-	-	-	-	-	4.5
기 타	1.5	3.7	2.5	3.1	-	1.2	36.3	13.6	12.9	-	-	9.0	-	-	6.5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0,665	72,293	48,825	54,175	4,108	27,715	1,688	17,425	9,586	1,188	3,023	1,103	552	2,348	1,112	505,806

주: 무응답 제외

지난 1년간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26.9%가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앞서의 일반 병의원보다 치과진료를 받는데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전증장애, 간장애, 뇌병변장애의 경우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소 많았다.

〈표 7-1-32〉 최근 1년간 본인이 치과진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진료 받지 못한 적 유무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26.6	31.0	29.5	27.4	23.7	22.4	4.9	24.6	23.6	28.8	27.4	34.7	21.8	26.6	40.7	26.9
아니오	73.4	69.0	70.6	72.6	76.3	77.6	95.1	75.4	76.5	71.2	72.6	65.4	78.2	73.4	59.3	7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치과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79.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상이 가벼워' 5.6%, '교통이 불편해서' 4.6% 등의 순이었으나 그밖의 이유들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컸고 심장장애는 편의시설 설치미비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7-1-33〉 본인이 원하는 때 치과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경제적 이유	81.9	75.6	82.0	82.4	63.9	66.2	-	81.9	73.3	31.6	87.4	87.3	100.0	89.1	77.6	79.7
예약하기 힘듦	0.7	0.4	0.9	-	-	1.6	-	2.6	-	7.2	10.8	-	-	-	-	0.8
교통 불편	4.5	8.4	5.0	2.9	-	3.9	-	-	5.4	14.9	-	-	-	2.7	-	4.6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아서	3.3	0.8	2.4	2.0	-	2.7	-	-	2.0	-	-	-	-	-	-	2.4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1.4	1.9	1.6	-	11.4	-	29.5	3.2	1.1	-	-	-	-	5.4	-	1.4
증상이 가벼워서	5.8	3.2	6.9	8.6	3.2	4.6	-	4.0	3.6	-	-	6.7	-	2.9	-	5.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미비로 이용 불편	0.8	3.3	0.9	-	2.7	3.1	-	-	-	46.4	-	-	-	-	-	1.3
의사소통 어려움	0.2	3.9	0.1	3.1	18.9	15.6	53.5	2.6	-	-	-	-	-	-	-	2.1
기타	1.5	2.6	0.2	1.0	-	2.3	17.1	5.8	14.7	-	1.8	6.0	-	-	22.4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56,144	89,624	80,846	75,958	5,076	40,853	929	25,874	16,930	2,435	4,385	4,102	656	4,450	3,971	712,232

9. 재활치료 서비스

장애의 특성 상 지속적인 재활치료는 장애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물리치료가 22.4%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재활치료로 나타났고,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심리·행동치료 등은 1~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2011년의 조사결과에 비해서는 거의 모든 재활치료에 있어 약간씩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의 지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1-34〉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물리치료																
예	29.6	31.6	12.7	15.8	11.9	4.4	4.2	2.0	4.8	19.8	3.4	11.8	7.9	16.8	20.6	22.4
아니오	70.4	68.4	87.3	84.2	88.1	95.7	95.8	98.0	95.2	80.2	96.6	88.3	92.1	83.2	79.4	77.6
작업치료																
예	0.2	7.4	-	0.2	-	5.1	14.1	4.6	-	-	4.6	-	-	-	4.2	1.6
아니오	99.8	92.6	100.0	99.8	100.0	94.9	85.9	95.4	100.0	100.0	95.4	100.0	100.0	100.0	95.8	98.4
언어치료																
예	-	3.5	0.2	1.7	5.3	9.9	42.6	-	-	-	-	-	-	-	4.0	1.7
아니오	100.0	96.5	99.8	98.3	94.7	90.1	5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6.0	98.4
음악치료																
예	-	0.6	-	0.4	-	7.8	17.4	6.9	-	-	-	-	-	-	-	1.0
아니오	100.0	99.5	100.0	99.6	100.0	92.2	82.6	9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0
놀이치료																
예	-	0.9	-	0.4	-	3.5	14.5	4.6	-	-	-	-	-	-	-	0.7
아니오	100.0	99.2	100.0	99.6	100.0	96.5	85.5	9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3
미술치료																
예	-	0.8	0.2	0.4	3.5	7.4	28.5	4.2	-	-	-	-	-	-	-	1.1
아니오	100.0	99.2	99.9	99.6	96.5	92.6	71.6	9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8.9
심리·행동치료																
예	0.2	0.7	0.2	-	-	4.8	23.1	6.6	-	1.4	-	-	-	-	3.3	1.0
아니오	99.8	99.3	99.9	100.0	100.0	95.2	76.9	93.4	100.0	98.6	100.0	100.0	100.0	100.0	96.8	99.0
기타																
예	0.3	1.5	-	0.2	1.8	6.7	26.8	1.4	-	-	3.2	-	-	-	-	1.1
아니오	99.7	98.5	100.0	99.9	98.2	93.3	73.2	98.6	100.0	100.0	96.8	100.0	100.0	100.0	100.0	9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경우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주로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발달재활 서비스 영역인 놀이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음악치료 등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자폐성장애의 경우에는 언어치료, 미술치료, 심리·행동치료, 놀이치료를 받은 비율이 고르게 높고,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언어치료와 음악치료를 정신장애는 음악치료와 심리·행동치료를 받은 비율이 높은 반면 신체 내부장애인의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대부분 받지 않아 장애와 연령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서비스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작업치료를 받는 시간이 주당 평균 4.5시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는 물리치료 2.4시간, 심리·행동치료 2.3시간, 음악치료, 놀이치료 각각 2.2시간의 순으로 평균적으로 주당 약 2시간 반 정도의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재활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유형 중 뇌병변장애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에 더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지적장애는 작업치료를 받는 시간이 길었고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작업치료, 심리·행동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에 시간을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35〉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 시간

(단위: 시간)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물리치료	2.3	3.2	2.3	2.2	2.5	2.6	2.1	1.6	1.9	2.4	1.9	2.5	1.0	2.3	1.6	2.4
작업치료	3.9	3.5		1.6	-	7.3	2.8	6.3	-	-	1.0	-	-	-	1.0	4.5
언어치료	2.0	2.3	2.7	2.7	1.5	1.7	1.8	-	-	-	-	-	-	-	1.0	2.0
음악치료	1.0	2.4	-	4.0	-	2.4	1.2	2.0	-	-	-	-	-	-	-	2.2
놀이치료	-	1.5	-	4.0	-	1.7	1.5	3.1	-	-	-	-	-	-	-	2.2
미술치료	1.0	1.6	2.0	4.0	4.4	1.3	1.3	3.1	-	-	-	-	-	-	-	1.8
심리·행동치료	1.2	1.6	2.0	-	-	2.1	1.8	3.6	-	1.0	-	-	-	-	1.0	2.3
기타	2.3	3.6	-	3.0	1.0	7.9	4.1	15.0	-	-	13.0	-	-	-	-	6.0

주: 무응답 제외

재활치료서비스 가운데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자부담하는 월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기타 치료를 제외하고 언어치료가 평균 약 9만 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놀이치료 5만 3천원, 작업치료가 5만 2천원 등의 순이었다.

재활치료서비스 비용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의 경우 치료비용이 다른 장애에 비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장애가 바우처로 시행되고 있는 발달재활 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서 작업, 언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받으며 그에 따라 가족이 갖는 비용부담 역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7-1-36〉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단위: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물리치료	2.5	4.9	2.6	1.4	1.5	2.3	0.9	1.4	1.7	3.4	0.9	5.1	2.0	5.7	0.5	2.7
작업치료	3.7	6.7	-	1.0	-	4.2	11.8	0.1	-	-	-	-	-	-	2.9	5.2
언어치료	-	7.2	5.6	6.1	4.2	9.0	16.2	-	-	-	-	-	-	-	4.0	9.3
음악치료	-	5.5	-	-	-	2.5	6.4	0.8	-	-	-	-	-	-	-	2.5
놀이치료	-	4.9	-	-	-	9.2	6.5	0.3	-	-	-	-	-	-	-	5.3
미술치료	3.7	6.7	0.7	-	7.9	2.3	9.3	0.6	-	-	-	-	-	-	-	3.7
심리·행동치료	3.3	4.7	0.7	-	-	4.2	8.1	1.5	-	5.0	-	-	-	-	4.2	4.0
기타	19.0	13.7	-	2.5	0.4	6.3	6.1	0.4	-	-	22.0	-	-	-	-	9.2

주: 무응답 제외

이러한 재활치료서비스의 비용부담 때문에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까지 소득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데, 재활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로 받았는지를 알아보면 물리치료를 제외하고 대체로 바우처로 받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다른 장애인에 비해 고령이 많은 신체 내부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치료 보다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바우처로 비용지원을 받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요 대상인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그리고 뇌병변장애(뇌성마비)의 경우 바우처로 지원받고 있는 비율이 각 치료별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37〉 재활치료 바우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물리치료																
예	2.5	12.2	0.7	2.0	-	16.7	55.4	-	-	10.4	-	-	-	-	-	4.1
아니오	97.5	87.8	99.3	98.0	100.0	83.3	44.6	100.0	100.0	89.6	100.0	100.0	100.0	100.0	100.0	95.9
작업치료																
예	16.1	32.9	-	-	-	47.5	71.9	45.0	-	-	-	-	-	-	63.6	38.3
아니오	83.9	67.2	-	100.0	-	52.5	28.1	55.0	-	-	100.0	-	-	-	36.4	61.7
언어치료																
예	45.2	59.7	100.0	56.2	74.9	77.7	57.8	-	-	-	-	-	-	-	100.0	67.6
아니오	54.8	40.3	-	43.8	25.1	22.3	42.2	-	-	-	-	-	-	-	-	32.4
음악치료																
예	100.0	34.7	-	46.9	-	75.8	72.5	25.4	-	-	-	-	-	-	-	59.0
아니오	-	65.3	-	53.1	-	24.2	27.5	74.6	-	-	-	-	-	-	-	41.0
놀이치료																
예	-	12.4	-	46.9	-	62.3	68.6	32.2	-	-	-	-	-	-	-	47.1
아니오	-	87.6	-	53.1	-	37.7	31.4	67.8	-	-	-	-	-	-	-	52.9
미술치료																
예	53.8	29.3	100.0	46.9	62.3	76.9	60.6	50.1	-	-	-	-	-	-	-	64.1
아니오	46.2	70.7	-	53.1	37.7	23.1	39.4	49.9	-	-	-	-	-	-	-	35.9
심리·행동치료																
예	-	44.8	100.0	-	-	66.1	65.9	44.4	-	100.0	-	-	-	-	40.0	51.9
아니오	100.0	55.2	-	-	-	33.9	34.1	55.6	-	-	-	-	-	-	60.0	48.1
기타																
예	-	29.7	-	-	-	57.3	70.3	73.5	-	-	100.0	-	-	-	-	46.4
아니오	100.0	70.3	-	100.0	100.0	42.7	29.7	26.5	-	-	-	-	-	-	-	5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이러한 재활치료에서 바우처로 지원되는 재원에 대해 장애인들이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장애인들이 바우처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재활치료서비스는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행된 지 일정 시간 경과되어 대부분의 장애인과 가족들은 서비스의 재원인 바우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1-38〉 바우처 재원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물리치료																
예	98.7	100.0	100.0	100.0	100.0	100.0	-	-	-	100.0	-	-	-	-	-	99.5
아니오	1.3	-	-	-	-	-	-	-	-	-	-	-	-	-	-	0.5
작업치료																
예	100.0	100.0	-	-	-	100.0	100.0	100.0	-	-	-	-	-	-	100.0	100.0
아니오	-	-	-	-	-	-	-	-	-	-	-	-	-	-	-	-
언어치료																
예	100.0	100.0	-	-	-	100.0	100.0	100.0	-	-	-	-	-	-	100.0	100.0
아니오	-	-	-	-	-	-	-	-	-	-	-	-	-	-	-	-
음악치료																
예	100.0	100.0	-	100.0	-	100.0	100.0	100.0	-	-	-	-	-	-	-	100.0
아니오	-	-	-	-	-	-	-	-	-	-	-	-	-	-	-	-
놀이치료																
예	-	100.0	-	100.0	-	100.0	100.0	100.0	-	-	-	-	-	-	-	100.0
아니오	-	-	-	-	-	-	-	-	-	-	-	-	-	-	-	-
미술치료																
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	100.0
아니오	-	-	-	-	-	-	-	-	-	-	-	-	-	-	-	-
심리·행동치료																
예	-	100.0	100.0	-	-	100.0	100.0	100.0	-	100.0	-	-	-	-	100.0	100.0
아니오	-	-	-	-	-	-	-	-	-	-	-	-	-	-	-	-
기타																
예	-	100.0	-	-	-	100.0	100.0	100.0	-	-	100.0	-	-	-	-	100.0
아니오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해 바우처 제공기관이 어디인지 알아보면 다음의 〈표 7-1-39〉와 같다. 전체적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행동치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고 2순위가 보건복지부인 반면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의 경우[26]에는 보건복지부가 1순위, 지방자치단체가 2순위 였는데,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 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의 비율에서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6)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명시된 발달재활 서비스는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 운동재활 등 9개 분야임.

〈표 7-1-39〉 바우처 제공기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물리치료																
보건복지부	26.6	29.6	-	-	-	45.3	100.0	-	-	-	-	-	-	-	-	28.9
교육부	-	8.9	-	-	-	-	-	-	-	-	-	-	-	-	-	4.1
고용노동부	-	18.0	-	-	-	-	-	-	-	-	-	-	-	-	-	8.3
지자체	62.4	45.3	-	-	-	54.7	-	-	-	100.0	-	-	-	-	-	50.4
기타	-	1.2	100.0	-	-	-	-	-	-	-	-	-	-	-	-	1.5
작업치료																
보건복지부	100.0	28.2	-	-	-	24.1	14.6	33.9	-	-	-	-	-	-	-	27.4
교육부	-	13.1	-	-	-	24.2	43.5	-	-	-	-	-	-	-	100.0	19.1
고용노동부	-	11.8	-	-	-	-	-	16.8	-	-	-	-	-	-	-	7.4
지자체	-	46.9	-	-	-	24.0	41.9	83.2	-	-	-	-	-	-	-	43.1
기타	-	-	-	-	-	12.9	-	-	-	-	-	-	-	-	-	3.5
언어치료																
보건복지부	-	45.3	-	41.8	89.1	43.7	20.7	-	-	-	-	-	-	-	-	39.7
교육부	100.0	13.6	100.0	16.0	10.9	26.2	57.3	-	-	-	-	-	-	-	32.8	29.4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지자체	-	41.0	-	37.1	-	26.6	23.0	-	-	-	-	-	-	-	67.2	28.9
기타	-	-	-	-	-	-	-	-	-	-	-	-	-	-	-	-
음악치료																
보건복지부	-	100.0	-	-	-	51.8	44.0	40.4	-	-	-	-	-	-	-	48.7
교육부	100.0	-	-	-	-	16.5	35.6	-	-	-	-	-	-	-	-	17.5
고용노동부	-	-	-		-	48.4	-	-	-	-	-	-	-	-	-	3.2
지자체	-	-	-	100.0	-	15.5	35.0	87.8	-	-	-	-	-	-	-	28.3
기타	-	-	-	-	-	5.3		12.3	-	-	-	-	-	-	-	4.9
놀이치료																
보건복지부	-	-	-	-	-	48.9	49.2	48.1	-	-	-	-	-	-	-	44.0
교육부	-	-	-	-	-	43.3	33.5	-	-	-	-	-	-	-	-	28.7
고용노동부	-	-	-	-	-	-	18.6	-	-	-	-	-	-	-	-	4.3
지자체	-	100.0	-	100.0	-	24.0	13.1	100.0	-	-	-	-	-	-	-	43.2
기타	-	-	-	-	-	-	-	-	-	-	-	-	-	-	-	-
미술치료																
보건복지부	-	-	-	-	100.0	59.1	44.8	33.2	-	-	-	-	-	-	-	48.4
교육부	100.0	-	100.0	-	-	28.5	66.7	-	-	-	-	-	-	-	-	31.7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지자체	-	100.0	-	100.0	-	18.6	7.6	100.0	-	-	-	-	-	-	-	30.9
기타	-	-	-	-	-	-	-	-	-	-	-	-	-	-	-	-
심리·행동치료																
보건복지부	-	16.2	-	-	-	25.5	17.7	12.8	-	-	-	-	-	-	100.0	20.0
교육부	-	44.2	100.0	-	-	32.1	18.0	-	-	100.0	-	-	-	-	-	24.8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지자체	-	39.6	-	-	-	20.0	49.5	87.2	-	-	-	-	-	-	-	42.3
기타	-	-	-	-	-	-	14.8	-	-	-	-	-	-	-	-	3.2
기타																
보건복지부	-	23.4	-	-	-	37.6	34.2	-	-	-	-	-	-	-	-	30.9
교육부	-	41.3	-	-	-	13.1	34.6	-	-	-	-	-	-	-	-	20.1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지자체	-	35.3	-	-	-	49.3	55.1	100.0	-	-	-	-	-	-	-	51.7
기타	-	-	-	-	-	-	-	-	-	-	100.0	-	-	-	-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면 '다닐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7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9%로 상당수는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 확대에 따라 2011년 실태조사와 달리 비용부담의 이유는 비율이 다소 줄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등과 같이 발달재활 서비스의 필요도가 낮은 장애의 경우 '다닐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자폐성장애의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시설이 부족해서'가 많은 반면,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의 순으로 '비용부담 때문에'의 비율이 높았다.

〈표 7-1-40〉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몰라서	3.8	5.1	3.7	3.3	8.9	14.0	-	9.6	1.5	7.9	2.3	-	-	6.8	-	4.8
시설이 없어서	1.2	3.4	1.6	0.9	-	4.4	18.0	2.0	0.6	-	-	-	-	-	1.8	1.7
믿지 못해서	2.4	3.5	0.2	1.4	-	2.5	2.5	3.9	0.7	4.9	-	-	-	-	-	2.1
다른 방법이 있어서	6.9	9.2	2.3	3.0	1.3	1.0	2.1	3.6	8.0	-	8.3	-	2.3	8.7	-	5.5
비용부담 때문에	13.6	22.1	6.2	5.3	17.4	11.0	6.2	15.4	5.6	3.6	8.4	-	-	5.2	7.8	11.9
대기 중이어서	0.1	0.3	0.2	0.1	-	-	-	-	-	-	-	-	-	-	6.7	0.1
다닐 필요가 없어서	67.5	46.7	84.5	84.4	70.2	64.6	60.1	63.2	83.0	78.2	78.6	100.0	97.7	79.4	76.3	70.1
기타	4.6	9.8	1.4	1.8	2.2	2.6	11.1	2.4	0.7	5.5	2.3	-	-	-	7.4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34,677	190,334	238,261	228,892	17,714	136,617	6,064	89,858	68,437	6,664	14,196	10,448	2,774	13,902	7,132	1,965,968

주: 무응답 제외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은데, 전체 장애인의 30.7%가 재활전문병원을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재활의학과는 17.4%, 방문재활치료가 16.5%의 순으로 나타나 2011년 조사에 비해 재활전문병원의 응답이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병원이나 방문재활치료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는 장애인 특화서비스기관, 보건소, 낮병원(외래) 등도 희망하고 있었으나 요양병원이나 주치의에 대한 욕구는 높지 않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와 언어장애, 심장장애 등의 경우 재활전문병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특화서비스기관에 대해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안면장애의 욕구가 높았으며, 방문재활치료는 뇌병변장애

와 뇌전증장애가, 요양병원은 호흡기장애와 뇌전증장애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1-41〉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혹은 보건의료기관(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18.3	16.7	18.3	15.2	21.1	12.6	12.7	10.1	21.7	29.4	30.6	34.4	25.5	24.6	22.4	17.4
재활전문병원	36.9	32.4	21.2	26.1	42.2	21.8	10.8	18.2	19.5	41.2	4.7	15.6	31.8	9.2	8.7	30.7
요양병원	3.7	6.2	5.5	5.3	3.2	2.2	5.5	8.7	4.2	4.3	11.8	7.0	-	1.3	15.9	4.5
보건소	8.0	3.2	9.4	10.7	6.7	6.3	4.9	7.9	4.9	7.9	14.8	9.8	-	13.7	8.4	7.8
낮병원 또는 외래에서의 재활치료	7.7	4.6	6.1	7.9	1.8	8.5	4.9	7.5	4.0	1.4	2.2	-	-	6.7	14.7	7.0
방문재활치료	15.7	28.2	16.6	13.8	8.4	14.2	15.1	11.5	13.4	15.8	15.6	2.8	10.0	17.8	21.0	16.5
장애인 특화서비스(여성전문,치과,소아등)	6.9	6.1	14.6	14.5	15.4	29.6	38.3	28.3	22.3	-	17.6	16.8	32.7	13.0	9.0	11.7
주치의(단골의사)	2.6	2.6	8.0	6.4	1.1	4.5	5.6	7.3	8.4	-	1.9	13.6	-	13.7	-	4.1
기타	0.3	0.1	0.4	0.1	-	0.4	2.5	0.4	1.7	-	0.7	-	-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122	289,257	273,284	277,042	21,399	182,068	18,951	105,002	71,347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3,235

주: 무응답 제외

10. 장애인의 건강관리

만 12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담배를 피운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는다'가 60.2%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음'이 19.7%였다. 한편 '매일 피운다'는 17.7%와 '가끔 피운다' 2.5%로 현재 흡연율은 대략 20.2%였다. 이러한 장애인의 흡연율은 2013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에 제시되어 있는 국민 전체의 현재 흡연율[27] 23.2%에 비해서는 낮으나 조사대상 연령이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장애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의 경우 흡연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호흡기장애와 간장애는 다른 장애와 달리

27) 현재 흡연율은 만 19세 이상으로 평생 담배 5갑 이상을 피웠고 지금도 피우는 경우로 남자는 42.1%, 여자는 6.2%임(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과거 흡연경험이 많고, 정신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의 경우 현재 흡연율이 다소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표 7-1-42〉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일 피움	20.9	9.0	20.9	12.6	11.5	12.1	-	29.7	10.2	-	3.1	6.1	16.3	10.8	8.6	17.7
가끔 피움	2.6	2.2	3.1	1.8	1.3	1.5	-	2.6	4.5	-	0.7	3.6	-	1.3	7.4	2.5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19.7	26.9	22.0	17.9	18.6	1.7	-	14.8	26.7	39.2	58.6	49.8	22.6	30.2	17.3	19.7
담배를 피운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6.9	61.9	54.1	67.7	68.7	84.7	100.0	52.9	58.7	60.8	37.6	40.5	61.1	57.7	66.7	6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8,607	281,555	273,494	274,231	20,482	172,361	14,611	105,002	71,876	8,121	15,984	11,839	3,012	16,705	9,377	2,617,257

최근 1년 동안 1일 이상 금연을 시도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면 28.5%가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인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28],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언어장애, 신장장애 등이 금연을 시도한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표 7-1-43〉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시도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30.8	23.8	28.2	24.3	37.3	17.5	-	23.5	34.0	32.3	20.4	28.1	41.9	21.4	33.3	28.5
아니오	69.2	76.2	71.8	75.7	62.7	82.5	-	76.5	66.0	67.7	79.6	71.9	58.1	78.6	66.7	7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55,890	99,849	121,869	84,535	6,419	26,402	-	48,300	26,572	2,647	7,780	5,134	1,173	7,060	3,126	996,756

주: 무응답 제외

조사대상 장애인이 최근 1년 동안 음주를 어느 정도 했는지 빈도를 알아보면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가 63.9%로 2/3 정도를 차지하여 음주하지 않는 장애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29]. 음주를 한 경우에는 빈도에 있어서는 1주일에 2~3회, 한 달에 2~4회

28) 국민건강통계(2014)에 의하면 19세 이상 현재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57.5%임.
29) 2011년의 실태조사에서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응답은 60.1%였음.

정도로 분포하여 보통 정도의 음주 성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유형별 음주빈도에 있어서는 전혀 마시지 않는 비율이 높은 장애는 자폐성장애, 뇌전증장애, 안면장애, 지적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이고 상대적으로 지체, 시각, 청각장애 등은 빈도가 높아 장애특성에 따라 음주행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44〉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전혀 마시지 않음	54.5	82.7	57.5	65.7	69.9	85.3	100.0	79.8	81.1	77.2	85.7	84.4	87.9	76.5	94.8	63.9
한달에 1번 미만	5.1	4.0	5.4	6.0	3.9	4.8	-	2.5	1.9	8.3	2.1	2.6	-	4.6	-	4.8
한달에 1번 정도	5.9	3.2	4.6	4.7	4.8	3.4	-	3.2	5.0	3.0	3.9	2.6	-	-	-	4.9
한달에 2-4번	12.6	4.6	11.3	7.4	13.6	3.0	-	5.8	7.5	7.5	2.1	1.6	-	5.6	-	9.7
일주일에 2-3번	14.4	2.4	13.4	10.1	4.4	1.9	-	2.4	3.9	4.0	6.3	8.9	-	6.6	0.8	10.6
일주일에 4번 이상	7.5	3.2	7.7	6.1	3.4	1.6	-	6.3	0.7	-	-	-	12.1	6.7	4.4	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8,607	281,555	273,494	274,231	20,482	172,361	14,611	105,002	71,876	8,121	15,984	11,839	3,012	16,705	9,377	2,617,257

최근 1년 동안 1회 음주 시 평균 음주량을 조사한 결과 1~2잔의 적은 량을 마시는 경우가 30.0%로 많았고 음주량이 늘어날수록 응답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10잔 이상은 10.8%로 대체로 음주 시에는 많은 양을 마시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개인차가 있다고 하겠다.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일관성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의 경우 음주량이 고르게 많은 편이고, 정신영역의 장애인은 적은 음주량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45〉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 증 장애	전체
1-2잔	25.8	49.8	25.8	44.7	31.6	49.8	-	33.9	23.4	50.1	49.3	84.5	-	39.9	85.2	30.0
3-4잔	26.6	15.0	21.8	23.1	36.0	28.1	-	24.2	29.2	35.7	18.2	-	-	38.5	14.8	25.1
5-6잔	14.1	13.9	18.5	8.7	13.3	7.7	-	28.4	25.7	-	5.0	-	-	-	-	14.3
7-9잔	20.6	16.7	24.0	17.1	19.2	10.7	-	4.2	16.1	14.2	12.7	15.5	100.0	21.6	-	19.7
10잔 이상	12.9	4.6	10.0	6.5	-	3.9	-	9.4	5.6	-	14.8	-	-	-	-	1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09,288	48,806	116,115	94,095	6,167	25,364	-	21,183	13,590	1,849	2,294	1,845	365	3,931	486	945,378

정기적인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나 장애의 특성 상 운동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 운동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1년 간 정기적인 운동 여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61.5%의 장애인이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30]을 보이고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심장, 자폐성, 간, 뇌전증장애의 비율이 높고, 뇌병변, 호흡기, 안면장애의 비율이 낮았다.

〈표 7-1-46〉 지난 1년간 정기적인 운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 증 장애	전체
예	61.4	56.6	63.2	63.3	57.0	60.0	73.6	61.9	66.7	76.1	54.2	73.3	52.3	63.1	71.4	61.5
아니오	38.6	43.4	36.8	36.7	43.0	40.0	26.4	38.1	33.3	23.9	45.9	26.7	47.7	36.9	28.6	3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운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해 지난 1년간 운동 빈도를 알아보면, 거의 매일 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인 50.6%였고, 주 3회 이상이 27.3%로 3/4 이상이 주 3회 이상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심장장애의 경우처럼 장애특성과 연령에 따라 빈도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30)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36.9%임(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13).

〈표 7-1-47〉 지난 1년간 운동 횟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거의 매일	46.8	67.9	46.4	58.0	45.0	46.2	34.1	54.7	45.4	33.9	67.1	43.7	35.0	73.4	77.6	50.6
주 3회 이상	29.4	18.8	28.5	20.2	34.1	28.2	42.6	29.0	34.2	16.0	20.9	45.2	29.8	17.6	10.0	27.3
주 2회	12.2	8.3	15.7	11.7	11.2	14.2	12.2	10.6	13.5	33.2	3.5	5.8	35.3	6.8	2.0	12.1
주 1회	7.0	3.3	5.6	4.7	9.7	6.7	11.2	4.3	4.7	16.8	8.5	-	-	-	10.3	6.0
월 1~2회	3.6	0.5	2.7	5.1	-	3.2	-	1.0	2.1	-	-	5.4	-	2.2	-	3.1
월1회 미만 또는 1년 10회 이내	1.0	1.2	1.2	0.4	-	1.6	-	0.3	-	-	-	-	-	-	-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21,947	163,764	173,365	175,570	12,194	109,418	13,942	65,039	47,946	6,438	8,655	8,683	1,577	10,536	6,975	1,626,050

이와 함께 운동할 때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는 지 운동시간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로 30분 미만이 30.3%, 30분~1시간 미만이 40.4%로 2/3 이상의 장애인은 1시간 미만의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전체 평균 58.7분). 장애유형별로는 뇌전증장애와 호흡기장애의 평균 운동시간이 짧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7-1-48〉 지난 1년간 매회 당 운동 시간(분)

(단위: , 분)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30분 미만	10.7	14.4	9.2	10.0	3.1	6.0	-	10.5	6.8	10.5	15.5	23.1	-	4.9	11.2	10.3
30~60분 미만	40.3	37.4	43.6	41.1	47.9	40.9	24.3	41.1	41.7	41.5	35.7	14.3	45.6	43.8	63.1	40.4
60~90분 미만	30.6	29.2	29.8	29.0	36.6	34.0	59.0	40.6	36.0	27.5	37.2	25.8	23.2	32.5	18.2	31.2
90~120분 미만	4.7	4.2	4.5	6.6	3.3	2.8	7.0	1.5	5.9	-	11.7	17.0	31.2	6.7	-	4.7
120분 이상	13.8	14.8	12.9	13.3	9.2	16.4	9.8	6.3	9.6	20.6	-	19.8	-	12.2	7.6	1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21,946	163,765	173,366	175,569	12,194	109,419	13,942	65,039	47,946	6,438	8,655	8,682	1,577	10,537	6,975	1,626,050
평균	59.6	56.2	60.5	59.1	53.7	60.2	62.6	51.0	55.1	58.5	47.0	67.6	58.8	58.0	45.7	58.7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는 주요 장소로는 집 근처 공원 68.4%, 집안 11.4%이며, 그밖에는 상업 스포츠시설(6.1%), 복지관체육시설(4.1%) 등도 있으나 그리 많지 않아 대부분은 집 근처의 공원 등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집안에서 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고, 신장장애, 심장장애, 장루·요루장애는 주로 집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는 복지관이나 전문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장애특성과 종목에 따라 장소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표 7-1-49〉 주로 운동하는 장소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집안	11.4	22.3	11.8	8.8	2.0	5.3	7.4	7.7	5.8	12.8	13.4	9.1	35.0	-	13.9	11.4
근처 야외등산/공원	68.3	60.4	71.0	75.1	72.8	61.4	27.3	65.9	83.4	87.2	67.5	71.6	10.6	93.3	79.9	68.4
복지관 체육시설	3.3	4.9	3.6	4.5	-	9.5	15.1	5.6	-	-	6.9	-	-	-	-	4.1
장애인 단체/시설내 강당 등	0.6	0.7	0.9	0.3	3.8	5.0	5.3	5.1	-	-	8.5	-	-	-	-	1.2
상업스포츠 시설	6.6	2.5	5.1	6.3	11.5	7.6	22.5	3.7	6.2	-	-	10.5	54.4	-	-	6.1
근처 학교운동장	4.7	1.9	3.8	1.6	3.1	6.2	3.4	4.3	0.4	-	3.8	5.8	-	-	4.2	3.9
공공체육시설(학교 포함)	4.0	2.5	2.7	1.7	3.1	4.8	19.0	1.2	1.4	-	-	-	-	6.7	-	3.4
기타	1.2	4.8	1.0	1.8	3.7	0.2	-	6.5	2.8	-	-	3.0	-	-	2.0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21,947	163,764	173,365	175,570	12,194	109,418	13,942	65,039	47,946	6,438	8,655	8,683	1,577	10,536	6,975	1,626,050

운동을 할 경우 주로 참여하는 종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 전체의 70.9%가 걷기(산책, 조깅)로서 많은 장애인들이 과격하거나 기구를 활용한 운동 보다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종목으로는 자전거(5.8%), 맨손체조(5.7%), 탁구(4.6%) 등의 순이었으나 비중이 크지는 않아 종목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 참여하는 운동종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심장장애인의 경우 걷기(산책)이 많았고, 장루·요루장애인은 등산이 많았으며 자폐성장애의 경우에는 수영(24.0%)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장애의 특성과 장애인의 연령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7-1-50〉 주로 참여하는 운동 종목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수영	4.7	1.9	2.9	1.7	-	7.0	24.0	1.7	-	-	-	8.0	-	-	-	3.8
걷기(산책), 조깅	67.9	77.8	70.8	75.4	70.9	67.2	47.8	75.6	85.4	91.3	72.1	75.8	68.8	79.2	72.6	70.9
웨이트 트레이닝	4.7	5.7	6.7	3.3	10.2	2.6	7.9	2.6	3.4	-	10.8	-	31.2	-	6.8	4.6
탁구	0.9	-	0.4	0.4	1.4	0.8	2.9	3.3	0.3	-	-	-	-	-	-	0.8
볼링	0.1	-	-	0.2	-	-	-	-	-	-	-	-	-	-	-	0.1
맨손체조	6.2	6.0	7.1	5.0	3.8	4.4	1.8	4.2	3.1	-	8.5	2.7	-	-	-	5.7
배드민턴	0.7	-	0.4	0.5	-	1.3	-	0.3	-	-	-	1.7	-	2.8	-	0.6
줄넘기	-	-	0.2	-	-	1.8	2.9	-	-	-	-	-	-	-	-	0.2
등산	5.5	1.0	4.9	3.3	-	1.8	-	0.6	0.8	4.1	-	8.5	-	18.0	7.6	4.1
자전거	5.8	6.1	5.0	6.5	9.3	5.5	1.9	7.2	5.3	4.7	8.6	0.6	-	-	13.0	5.8
기타	3.6	1.7	1.7	3.9	4.4	7.6	10.8	4.4	1.7	-	-	2.8	-	-	-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21,947	163,764	173,365	175,570	12,194	109,418	13,942	65,039	47,946	6,438	8,655	8,683	1,577	10,536	6,975	1,626,050

현재 운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 운동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장애가 심해서'가 39.9%, '시간여유가 없어서' 27.3%, '시설접근과 이동의 어려움' 10.0%가 주를 이루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를 포함하여 심장, 호흡기 등 신체 내부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심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시설접근이나 이동의 이유가 많았고, 지적, 자폐성, 뇌전증장애는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의 이유도 있었다.

〈표 7-1-51〉 현재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경제적여건 안됨	4.8	2.2	1.7	6.3	-	4.7	4.2	4.1	-	-	-	-	6.2	7.1	-	4.1
시간 여유없음	34.9	5.7	31.7	33.0	34.5	10.9	10.6	9.5	21.7	16.2	4.6	53.5	77.2	14.6	9.3	27.3
시설접근/이동어려움	7.5	13.2	18.0	12.5	6.7	14.2	13.9	5.7	4.0	-	-	-	-	-	13.7	10.0
전문지도자 없음	0.7	0.4	-	2.0	-	5.6	4.8	2.2	-	-	-	-	-	-	-	1.1
원하는 프로그램 없음	5.2	2.7	8.7	8.8	6.9	10.8	13.3	5.8	6.8	-	-	-	-	9.5	10.8	6.1
관련정보 알지 못함	1.7	0.2	1.5	5.2	11.1	9.4	-	3.8	-	-	2.6	-	-	-	2.4	2.5
장애가 심해서	37.8	70.1	26.9	17.9	33.7	28.3	40.8	57.2	62.2	83.8	89.5	46.5	-	64.8	51.4	39.9
관련시설이 주위에 없음	4.8	2.7	8.2	8.7	1.8	9.0	-	7.9	2.1	-	3.3	-	16.6	-	4.6	5.5
기타	2.7	2.9	3.4	5.6	5.3	7.1	12.4	3.8	3.2	-	-	-	-	4.0	7.8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12,521	124,367	100,765	101,312	9,205	72,915	5,009	39,963	23,930	2,018	7,329	3,156	1,436	5,552	2,789	1,012,267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의 식사습관과 관련하여 일정 시간에 식사하는지를 알아보면, 73.2%는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에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규칙적으로 하는 반면 시간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7.0%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인이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표 7-1-52〉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먹음	72.9	78.0	71.5	73.0	74.4	76.0	82.5	60.4	77.1	70.6	71.2	81.6	44.0	73.5	67.2	73.2
가끔 불규칙	20.9	17.0	19.4	20.1	20.8	17.2	13.4	21.0	14.9	29.4	24.9	16.8	56.1	21.0	25.5	19.8
먹지 않음	6.2	5.0	9.1	6.9	4.9	6.8	4.1	18.5	8.0	-	3.9	1.7	-	5.5	7.3	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장애인의 치아관리와 관련하여 1일 안의 칫솔질 빈도를 알아보면, 2번이 49.5%, 3번 이상이 33.5%로 1/3 정도는 1일 3회 정상적인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1일 1회 14.7%, 하지 않는 경우도 2.3%를 차지하여 체계적 구강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칫솔질 빈도가 낮은 편이었다.

〈표 7-1-53〉 어제 하루 동안 칫솔질(잇솔질)한 횟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3번 이상	33.7	31.8	34.3	32.5	30.3	31.2	46.4	28.4	40.1	54.9	26.7	46.3	33.8	48.4	54.3	33.5
2번	53.7	42.3	50.9	46.9	45.4	43.8	41.1	37.7	46.9	29.0	61.8	37.2	43.6	37.9	35.2	49.5
1번	11.7	21.3	12.3	18.2	21.4	19.0	12.5	27.7	12.4	5.9	6.9	16.6	22.6	12.7	10.5	14.7
안함	1.0	4.6	2.5	2.4	3.0	6.1	-	6.2	0.6	10.2	4.7	-	-	1.0	-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장애인의 구강보건 상태와 관련하여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의 구강 내 문제로 인해 저작기능에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매우 불편 11.3%, 불편 33.9%로 전체적으로 45.2%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불편하지 않은 경우(39.8%) 보다는 약

간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는 불편함이 많았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적어 차이가 있었다.

〈표 7-1-54〉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 문제로 음식 씹는데 불편감 느끼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매우 불편	10.1	18.9	12.8	11.2	11.3	8.9	2.0	8.4	8.8	19.8	12.1	11.5	27.7	9.6	14.7	11.3
불편	33.6	36.3	37.5	37.5	25.9	21.9	8.7	28.0	38.9	35.5	50.5	34.8	43.8	56.2	42.7	33.9
보통	15.4	13.7	13.1	15.2	16.7	16.8	10.2	16.0	17.5	11.0	13.4	16.3	26.4	4.9	13.8	15.0
별로 불편하지 않음	23.2	19.5	17.8	20.7	34.4	20.7	34.6	24.4	19.6	20.2	16.0	24.3	-	17.6	14.6	21.8
전혀 불편하지 않음	17.7	11.6	18.8	15.4	11.7	31.7	44.6	23.3	15.1	13.6	8.0	13.1	2.1	11.6	14.1	1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8,788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5,595

주: 무응답 제외

체중관리 등의 목적으로 지난 1년간 키나 몸무게를 측정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87.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의 측정경험이 다소 적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1-55〉 지난 1년간 키나 몸무게 측정 경험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예	89.6	80.8	87.0	86.5	87.5	79.9	93.5	80.5	97.3	100.0	93.8	98.6	92.1	88.1	91.5	87.3
아니오	10.4	19.2	13.0	13.5	12.5	20.1	6.5	19.6	2.7	-	6.3	1.4	7.9	11.9	8.5	1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장애인이 키나 몸무게를 측정했다면 가장 최근에 측정한 때는 언제인지 시기에 있어서는 대개 1~2년 전 34.0%, 3~4년 전 33.6%로 전체적으로 2/3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9년 이상인 경우도 9.2%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의 필요성도 보여주고 있다.

〈표 7-1-56〉 키나 몸무게 가장 최근 측정 시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2년 전	40.6	31.3	35.0	34.2	11.2	22.6	-	15.1	53.0	-	-	-	69.0	100.0	34.0
3-4년 전	31.7	32.0	29.7	35.7	67.3	45.2	79.8	23.5	37.4	100.0	100.0	-	31.0	-	33.6
5-6년 전	13.8	12.7	16.9	15.5	21.6	7.7	-	17.2	-	-	-	-	-	-	13.4
7-8년 전	3.0	5.0	4.1	3.4	-	0.9	-	8.1	-	-	-	100.0	-	-	3.5
9년 이상 전	5.8	12.6	11.8	2.6	-	13.6	20.2	25.8	9.6	-	-	-	-	-	9.2
측정한적이 없다	5.2	6.4	2.4	8.6	-	10.0	-	10.3	-	-	-	-	-	-	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6,305	54,548	33,869	36,775	2,680	36,293	1,236	20,125	1,945	998	170	239	1,990	830	328,004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이 본인의 체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45.4%로 가장 많고, '약간 비만' 25.3%, '약간 마른 편' 18.7%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만이나 마른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서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만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7-1-57〉 본인 체형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마른 편	4.1	10.1	7.9	6.8	10.3	7.4	3.9	6.3	8.9	9.0	25.9	19.0	-	19.9	14.7	6.3
약간마른 편	17.7	19.9	19.7	22.2	36.7	13.6	17.6	16.1	21.8	33.5	20.6	19.2	18.4	23.8	29.0	18.7
보통	46.7	42.5	46.8	50.3	31.4	39.6	36.4	36.2	46.3	44.6	37.7	43.5	66.5	38.4	39.6	45.4
약간 비만	27.2	23.6	23.3	18.3	18.6	29.1	24.4	31.9	21.0	13.0	15.8	17.9	15.1	17.9	16.6	25.3
매우 비만	4.3	3.9	2.3	2.3	3.0	10.3	17.8	9.4	2.0	-	-	0.4	-	-	-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102	289,257	274,484	277,019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5,184

주: 무응답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장애인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알아본 결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61.0%로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20.9%의 장애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이러한 스트레스 인지율은 일반인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31].

장애유형별 스트레스 정도에 있어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심장장애의 경우 '매우 많이 받는다'는 응답이 많아 신체 내부장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장애유형임을 알 수 있다.

〈표 7-1-58〉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매우 많이 느낌	21.2	24.9	18.1	17.2	17.4	13.0	37.9	27.1	24.7	32.7	13.8	33.0	40.9	39.2	27.3	20.9
느끼는 편	40.3	41.0	44.2	37.8	41.0	36.8	31.0	38.5	39.9	32.3	45.9	17.2	33.5	30.2	42.5	40.1
보통	21.0	19.7	21.1	24.3	23.3	23.0	26.6	16.8	16.7	24.2	24.1	17.1	-	23.0	24.8	21.1
느끼지 않는 편	15.3	10.6	13.2	17.7	15.5	22.3	-	13.7	13.7	10.8	12.9	30.7	25.6	7.6	5.4	15.0
전혀 느끼지 않음	2.2	3.8	3.4	2.9	2.9	4.9	4.6	3.9	5.0	-	3.3	2.0	-	-	-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4,287	277,883	270,572	272,151	19,622	140,238	7,193	103,792	71,876	8,003	15,984	11,839	2,560	16,705	8,849	2,561,555

주: 무응답 제외

최근 1년 동안 연속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있어서는 24.5%가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에 비해서 높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장애유형별로는 우울증상 경험률을 세분해서 보면 장루·요루장애, 정신장애, 뇌전증장애, 심장장애 등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슬픔, 절망감을 느낀 경험이 많아 차이가 있었다.

〈표 7-1-59〉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 지장 줄 정도의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예	22.6	32.6	23.5	20.4	23.4	16.7	6.0	44.2	26.6	39.3	30.5	28.8	18.3	47.2	43.1	24.5
아니오	77.5	67.5	76.5	79.6	76.6	83.3	94.0	55.8	73.4	60.7	69.5	71.3	81.7	52.8	56.9	7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4,287	277,883	270,572	272,151	19,622	140,238	7,193	103,792	71,876	8,003	15,984	11,839	2,560	16,705	8,849	2,561,555

주: 무응답 제외

31) 19세 이상의 일반국민 중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3년 23.8%였음(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32)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항목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10.7%였음(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이와 함께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19.9%의 장애인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보다 매우 높은 편[33]으로 자살이나 우울증 등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서비스 등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유형별 자살의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장루·요루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의 경우 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7-1-60〉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 증 장애	전체
예	18.2	27.9	19.9	16.2	13.4	6.6	-	34.9	27.9	37.3	33.8	25.2	16.4	44.0	32.3	19.9
아니오	81.8	72.1	80.1	83.8	86.6	93.4	100.0	65.1	72.1	62.7	66.2	74.8	83.6	56.0	67.7	8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4,287	277,883	270,572	272,151	19,622	140,238	7,193	103,792	71,876	8,003	15,984	11,839	2,560	16,705	8,849	2,561,555

주: 무응답 제외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경험 여부에 있어서는 1.5%가 있다고 응답하여 많지 않으나 최근 생활고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뇌전증장애와 장루·요루장애, 정신장애의 시도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61〉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 증 장애	전체
예	1.3	1.4	1.4	2.1	-	-	-	4.5	2.5	-	4.0	-	-	6.6	7.4	1.5
아니오	98.7	98.6	98.6	97.9	100.0	100.0	100.0	95.6	97.6	100.0	96.1	100.0	100.0	93.4	92.6	9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4,287	277,883	270,572	272,151	19,622	140,238	7,193	103,792	71,876	8,003	15,984	11,839	2,560	16,705	8,849	2,561,555

주: 무응답 제외

33) 19세 이상의 일반국민 중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의 자살생각률은 2013년 4.6%임(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구강보건 등 건강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6.4%로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이 이러한 건강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62〉 거주지역 내 건강관련 서비스 받은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96.8	97.7	95.2	96.5	93.3	89.1	98.7	98.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6.4
아니오	3.2	2.4	4.8	3.5	6.7	10.9	1.3	1.4	-	-	-	-	-	-	-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이러한 건강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우 받은 서비스를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의 〈표 7-1-63〉과 같다. 장애인이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로는 일반진료서비스로 93.4%였으며, 신체 내부장애인의 경우에는 특히 거의 모든 장애인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예방접종 65.0%, 건강검진 63.0%, 구강보건 40.0%, 재활진료서비스 28.6%의 순이었으며, 상대적으로 건강교실, 방문보건, 정신보건 서비스는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장애별로는 정신장애와 뇌전증장애의 경우 정신보건을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활진료서비스는 자폐성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장애유형에 따라 건강관련 서비스 이용행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63〉 거주 지역 내에서 경험한 건강관련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방접종																
예	64.5	68.3	63.1	71.8	64.1	59.3	60.8	44.7	79.1	73.3	95.3	84.4	36.9	69.0	45.9	65.0
아니오	35.5	31.7	36.9	28.2	35.9	40.8	39.2	55.4	20.9	26.7	4.7	15.6	63.1	31.0	54.1	35.0
건강교실(운동, 영양, 금연, 절주)																
예	3.1	2.1	1.5	3.9	3.2	7.4	6.2	5.3	6.3	2.9	4.6	1.6	-	7.6	-	3.4
아니오	97.0	97.9	98.6	96.1	96.8	92.6	93.8	94.8	93.8	97.1	95.4	98.5	100.0	92.4	100.0	96.6
건강검진																
예	70.7	51.3	69.2	61.1	59.0	35.6	23.9	34.5	67.2	75.8	59.1	86.5	56.4	56.3	50.8	63.0
아니오	29.3	48.7	30.8	38.9	41.0	64.4	76.1	65.5	32.8	24.3	40.9	13.5	43.6	43.7	49.2	37.0
방문보건서비스																
예	3.6	8.2	3.4	2.9	3.6	4.7	-	4.4	2.1	2.1	5.8	-	-	4.5	0.5	4.0
아니오	96.4	91.8	96.6	97.1	96.4	95.3	100.0	95.6	97.9	97.9	94.2	100.0	100.0	95.5	99.5	96.0
정신보건서비스																
예	2.0	3.9	1.1	2.5	-	9.5	16.6	67.3	4.4	13.8	1.5	1.9	3.5	3.1	29.6	5.6
아니오	98.0	96.1	98.9	97.5	100.0	90.5	83.4	32.7	95.6	86.3	98.5	98.1	96.6	96.9	70.4	94.4
구강보건서비스																
예	42.5	34.5	40.3	37.4	39.4	42.5	55.9	24.8	38.4	31.2	45.6	39.6	49.4	35.8	25.4	40.0
아니오	57.5	65.5	59.7	62.6	60.6	57.5	44.1	75.3	61.6	68.8	54.4	60.5	50.7	64.2	74.7	60.1
일반진료서비스																
예	93.2	95.4	94.2	94.2	91.5	85.6	85.4	93.9	99.0	100.0	96.3	100.0	100.0	100.0	98.1	93.4
아니오	6.8	4.6	5.8	5.8	8.5	14.4	14.6	6.2	1.0	-	3.7	-	-	-	1.9	6.6
재활진료서비스																
예	33.6	36.9	14.8	19.4	20.1	29.5	68.9	15.2	7.3	28.4	14.4	11.8	7.9	16.8	31.7	28.6
아니오	66.4	63.1	85.2	80.6	79.9	70.6	31.1	84.8	92.7	71.6	85.6	88.3	92.1	83.2	68.4	71.4
기타																
예	0.2	1.5	0.2	0.4	-	0.2	2.3	-	0.4	-	-	-	-	-	7.8	0.4
아니오	99.8	98.5	99.8	99.6	100.0	99.8	97.7	100.0	99.6	100.0	100.0	100.0	100.0	100.0	92.2	9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97,100	282,460	261,212	267,655	19,971	162,437	18,701	103,518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550,693

건강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 있어서는 주로 TV 등 대중매체가 46.4%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의료기관 18.7%이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도 13.2%로 나타나 비교적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한 경우도 6.1%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 뇌전증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의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지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는 특별히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응답이 다른 장애에 비해 많았다.

〈표 7-1-64〉 건강에 관한 정보 주로 얻는 경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보건소	4.8	3.9	5.9	6.7	8.3	5.8	6.4	3.1	1.7	-	2.7	9.5	-	2.0	4.2	4.9
복지관	1.0	2.2	1.5	3.0	2.3	7.2	4.3	1.8	0.3	-	4.6	-	-	2.2	3.1	1.9
의료기관	16.7	25.1	17.8	13.3	15.4	13.1	26.1	28.9	43.8	51.3	20.7	20.1	25.5	26.7	47.6	18.7
관공서(보건소 제외)	0.8	1.0	0.9	1.0	-	0.9	2.8	1.0	-	-	-	-	-	1.4	-	0.8
TV등 대중매체	50.6	39.0	47.1	48.7	30.6	32.9	28.2	42.7	35.1	34.7	52.0	56.5	13.5	51.1	39.1	46.4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7.5	5.0	6.3	4.1	15.6	5.0	15.4	1.2	11.4	-	0.6	9.6	36.8	0.4	4.2	6.5
주변 사람	12.5	15.8	11.9	15.0	14.6	20.2	13.8	10.9	4.8	2.1	8.7	2.0	11.4	14.1	0.5	13.2
홍보물	1.6	0.4	1.6	1.3	-	0.3	1.3	0.4	-	6.0	-	-	-	2.1	-	1.2
정보 얻을 수 없음	4.5	7.7	6.9	6.9	13.3	13.3	0.5	9.9	3.0	6.0	10.8	2.3	12.9	-	-	6.1
기타	0.1	-	0.2	0.2	-	1.4	1.3	-	-	-	-	-	-	-	1.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1,799	18,70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5,280

주: 무응답 제외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운동이나 체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TV 등 대중매체가 33.6%로 가장 많았으나 26.4%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응답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주변 사람 14.2%, 의료기관 11.3% 등의 순이었으며 복지관이나 보건소는 많지 않았다.

〈표 7-1-65〉 장애인이 운동(체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보건소	3.2	3.5	2.5	3.0	4.6	2.0	1.2	4.8	2.0	-	-	9.3	-	-	3.2	3.1
복지관	2.7	4.0	3.7	4.1	2.3	15.4	24.0	3.9	2.5	-	8.3	-	-	2.2	11.5	4.2
의료기관	10.8	16.9	7.5	5.6	8.1	8.4	12.6	17.1	25.6	28.4	16.8	18.7	13.4	19.5	22.9	11.3
관공서(보건소 제외)	0.8	0.9	0.8	0.7	3.0	0.1	1.7	0.2	2.2	2.1	-	-	-	-	-	0.8
TV등 대중매체	37.2	29.5	33.9	33.7	26.6	19.1	16.0	28.4	28.0	31.5	40.3	41.8	13.5	41.5	47.9	33.6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5.9	2.9	4.8	4.5	11.4	3.4	11.5	2.5	12.5	5.4	-	9.8	36.8	0.4	-	5.2
주변 사람	13.4	15.7	15.8	15.7	22.4	19.7	21.4	9.5	7.2	8.1	4.4	5.0	-	8.9	8.6	14.2
홍보물	0.9	0.3	1.9	1.4	-	0.8	0.7	1.1	1.6	9.7	-	-	-	1.8	-	1.0
정보 얻을 수 없음	25.0	26.5	29.0	31.0	21.6	29.2	11.0	32.6	18.3	14.9	30.2	15.4	36.4	25.8	5.9	26.4
기타	0.1	-	0.2	0.3	-	1.9	-	-	0.2	-	-	-	-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6,135	289,257	274,159	276,837	21,399	181,005	18,701	104,357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39,487

주: 무응답 제외

장애유형별 체육활동 관련 정보입수 경로에 있어 신장장애나 심장장애의 경우에는 장애특성상 의료기관에서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복지관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았고, 정신장애와 안면장애는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편으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강화해야 할 사항으로는 〈표 7-1-6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강검진(20.0%), 일반진료(17.8%), 방문보건(17.2%), 재활진료(16.1%), 건강교실(10.9%) 등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신체내부장애인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이 많은 반면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는 정신보건서비스, 뇌병변장애와 같이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방문보건과 재활진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1-66〉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 위해 정부(또는 사회)가 더 강화해야 할 것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방접종	7.5	4.6	5.5	8.0	2.8	4.2	-	3.2	3.0	7.2	11.4	5.5	18.3	11.9	1.9	6.4
건강교실(운동, 영양, 금연, 절주)	10.5	8.0	12.8	11.4	10.9	12.8	11.3	13.5	11.4	6.6	11.8	6.8	12.9	13.8	15.8	10.9
건강검진	21.4	13.1	21.3	22.7	18.7	16.5	18.1	10.1	24.7	35.4	23.9	19.1	23.4	29.9	33.0	20.0
방문보건서비스	15.2	29.5	19.9	16.3	13.9	14.2	10.8	12.4	19.7	19.9	17.8	2.3	10.5	8.4	9.6	17.2
정신보건서비스	3.5	2.5	3.8	2.6	3.8	11.4	31.8	41.0	2.6	5.4	-	5.4	-	3.8	13.3	5.6
구강보건서비스	4.9	5.5	7.3	7.9	4.9	7.9	6.0	5.5	9.1	3.6	8.7	7.7	3.5	1.1	1.5	5.9
일반진료서비스	18.7	13.6	19.5	18.2	23.1	16.3	3.9	9.9	23.3	9.4	21.1	34.6	15.1	19.3	19.8	17.8
재활진료서비스	18.2	22.9	9.7	12.4	21.9	16.6	18.1	4.4	6.2	12.6	5.3	18.7	16.4	11.8	5.1	16.1
기타	0.2	0.3	0.2	0.5	-	0.3	-	-	-	-	-	-	-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1,799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5,530

주: 무응답 제외

제2절 일상생활 지원

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2014년도 실태조사에서는 2011년도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 추계 등을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항목(안)을 포함시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항목이어도 항목의 측정수준이 최대 5개까지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먼저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개인위생 관련 항목인 '목욕하기', ' 화장실 사용하기', '옷 벗고 입기(옷 갈아입기)', '방 밖으로 나가기'로 나타났다. 즉, '목욕하기'에서 완전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6.5%였으며, '화장실 사용하기'의 완전도움 요구 장애인 비율은 3.8%, 그리고 '옷 벗고 입기', '옷 갈아입기', '방밖으로 나가기'의 동 비율은 3.7%로 역시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았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폐성장애는 옷 벗고 입기(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장루·요루장애는 용변(화장실 사용하기)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별로 그 장애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2-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 옷 벗고 입기																
완전자립	91.1	43.2	79.3	95.5	80.8	47.2	23.2	79.7	92.9	87.9	83.4	96.9	100.0	91.9	84.5	81.1
부분도움	7.3	37.3	18.7	3.5	18.6	48.6	73.2	18.3	5.2	8.2	16.6	3.1	0.0	8.1	10.1	15.2
완전도움	1.6	19.5	2.0	1.0	0.6	4.2	3.6	1.9	1.9	4.0	0.0	0.0	0.0	0.0	5.4	3.7
1-1) 옷 갈아입기																
도움필요없음	91.1	43.2	79.3	95.5	80.8	47.2	23.2	79.7	92.9	87.9	83.4	96.9	100.0	91.9	84.5	81.1
약간지시필요	1.8	10.6	11.6	1.9	9.5	33.9	50.4	15.6	2.2	0.0	9.0	0.0	0.0	0.7	1.3	7.0
중간도움필요	5.6	26.7	7.1	1.6	9.1	14.7	22.7	2.8	3.0	8.2	7.6	3.1	0.0	7.4	8.8	8.3
매우도움필요	1.6	19.5	2.0	1.0	0.6	4.2	3.6	1.9	1.9	4.0	0.0	0.0	0.0	0.0	5.4	3.7
2) 세수하기																
완전자립	96.4	64.9	91.8	97.4	92.5	65.9	38.2	85.2	96.0	96.0	84.8	100.0	100.0	96.6	84.0	89.5
부분도움	2.4	17.3	7.1	1.4	6.9	30.0	55.4	13.5	1.9	0.0	15.2	0.0	0.0	3.4	10.6	7.2
완전도움	1.3	17.8	1.0	1.2	0.6	4.1	6.4	1.2	2.1	4.0	0.0	0.0	0.0	0.0	5.4	3.3
3) 양치질하기																
완전자립	96.7	65.6	92.3	97.1	89.5	62.1	36.5	83.0	96.9	96.0	84.8	100.0	100.0	100.0	84.0	89.4
부분도움	2.1	17.8	6.8	1.9	9.9	33.2	52.3	15.8	1.3	0.0	15.2	0.0	0.0	0.0	16.0	7.4
완전도움	1.2	16.7	0.9	0.9	0.6	4.7	11.2	1.2	1.9	4.0	0.0	0.0	0.0	0.0	0.0	3.1
4) 목욕하기																
완전자립	85.3	33.9	77.7	92.1	76.0	36.2	15.1	76.1	83.8	85.0	62.6	96.0	100.0	85.2	81.3	75.2
부분도움	11.9	36.5	18.5	6.2	14.8	51.6	68.5	20.7	12.3	11.0	31.0	4.0	0.0	14.8	8.8	18.3
완전도움	2.7	29.6	3.8	1.7	9.2	12.2	16.4	3.2	3.9	4.0	6.5	0.0	0.0	0.0	9.9	6.5
4-1) 목욕하기																
도움필요없음	85.3	33.9	77.7	92.1	76.0	36.2	15.1	76.1	83.8	85.0	62.6	96.0	100.0	85.2	81.3	75.2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감독, 지시필요	2.7	9.8	9.3	1.9	7.5	46.4	58.3	18.3	2.7	0.0	7.1	0.0	0.0	4.5	4.0	8.2
욕탕출입시, 씻고 말리는데 도움필요	9.2	26.6	9.2	4.3	7.2	5.3	10.3	2.4	9.6	11.0	23.8	4.0	0.0	10.3	4.9	10.1
전적인 도움필요	2.7	29.6	3.8	1.7	9.2	12.2	16.4	3.2	3.9	4.0	6.5	0.0	0.0	0.0	9.9	6.5
5) 식사하기																
완전자립	96.9	63.1	81.9	97.4	86.0	66.5	35.9	85.1	97.2	96.0	90.7	100.0	100.0	96.6	85.8	88.6
부분도움	2.3	26.0	16.7	2.4	9.4	31.6	57.1	13.8	2.3	0.0	9.3	0.0	0.0	3.4	14.2	9.4
완전도움	0.8	10.8	1.4	0.2	4.6	1.9	7.0	1.0	0.5	4.0	0.0	0.0	0.0	0.0	0.0	2.0
5-1) 식사하기																
도움필요없음	96.9	63.1	81.9	97.4	86.0	66.5	35.9	85.1	97.2	96.0	90.7	100.0	100.0	96.6	85.8	88.6
약간지시필요	1.2	10.8	13.8	1.5	3.4	28.6	43.6	13.1	0.7	0.0	5.9	0.0	0.0	0.0	3.9	6.3
수저사용시도움필요	1.1	15.2	2.9	0.9	6.0	3.0	13.5	0.8	1.6	0.0	3.5	0.0	0.0	3.4	10.3	3.1
전적인 도움필요	0.8	10.8	1.4	0.2	4.6	1.9	7.0	1.0	0.5	4.0	0.0	0.0	0.0	0.0	0.0	2.0
6) 체위변경하기																
완전자립	95.0	67.8	97.1	98.8	96.9	95.34	98.3	97.4	97.9	94.1	89.2	100.0	100.0	96.6	94.1	92.9
부분도움	4.0	21.5	2.4	0.9	3.1	4.3	0.0	2.0	1.4	5.9	10.8	0.0	0.0	3.4	5.9	5.3
완전도움	1.0	10.7	0.4	0.3	0.0	10.3	1.7	0.6	0.7	000	0.0	0.0	0.0	0.0	0.0	1.8
7) 일어나 앉기																
완전자립	92.8	61.6	97.2	97.9	93.4	96.2	100.0	97.5	95.7	94.0	83.4	100.0	100.0	96.6	89.2	90.9
부분도움	6.0	27.1	2.1	1.6	6.6	3.2	0.0	1.9	2.8	2.0	16.6	0.0	0.0	3.4	5.4	7.0
완전도움	1.2	11.3	0.7	0.5	0.0	0.6	0.0	0.6	1.5	4.0	0.0	0.0	0.0	0.0	5.4	2.1
7-1) 잠자리에서 자세바꾸기																
도움필요없음	92.8	61.6	97.2	97.9	93.4	96.2	100.0	97.5	95.7	94.0	83.4	100.0	100.0	96.6	89.2	91.9
간단한 도구의 도움필요	4.4	16.6	1.7	1.2	5.9	2.8	0.0	1.4	2.2	2.0	13.5	0.0	0.0	0.0	4.9	4.8
부분 도움필요	1.6	10.6	0.3	0.4	0.6	0.3	0.0	0.4	0.5	0.0	3.1	0.0	0.0	3.4	0.5	2.1
전적으로 타인도움필요	1.2	11.3	0.7	0.5	0.0	0.6	0.0	0.6	1.5	4.0	0.0	0.0	0.0	0.0	5.4	2.1
8) 옮겨 앉기																
완전자립	90.7	57.3	90.9	97.4	90.3	95.4	98.1	97.1	92.2	87.9	77.9	100.0	100.0	96.2	86.4	88.4
부분도움	7.8	28.1	8.4	2.1	9.7	4.0	1.9	1.8	6.2	8.2	22.1	0.0	0.0	3.8	8.2	8.9
완전도움	1.4	14.6	0.7	0.5	0.0	0.6	0.0	1.0	1.5	4.0	0.0	0.0	0.0	0.0	5.4	2.6
8-1) 옮겨 앉기																
도움필요없음	90.7	57.3	90.9	97.4	90.3	95.4	98.1	97.1	92.2	87.9	77.9	100.0	100.0	96.2	86.4	88.4
약간도움필요	6.0	18.0	5.4	1.6	7.2	3.5	0.0	1.5	3.1	8.2	22.1	0.0	0.0	0.4	7.7	6.4
타인도움필요	1.8	10.1	3.0	0.4	2.5	0.6	1.9	0.3	3.1	0.0	0.0	0.0	0.0	3.4	0.5	2.6
전적으로 타인도움필요	1.4	14.6	0.7	0.5	0.0	0.6	0.0	1.0	1.5	4.0	0.0	0.0	0.0	0.0	5.4	2.6
9) 방밖으로 나가기																
완전자립	86.5	48.2	81.8	95.1	92.3	87.2	87.6	92.6	89.7	84.2	75.4	96.9	100.0	94.7	86.4	83.2
부분도움	11.2	34.0	15.9	4.1	7.7	10.9	12.4	6.3	9.5	11.8	24.6	3.1	0.0	5.3	7.7	13.1
완전도움	2.4	17.7	2.3	0.7	0.0	2.1	0.0	1.0	0.7	4.0	0.0	0.0	0.0	0.0	5.9	3.7
9-1)걷 기																
도움필요없음	82.1	40.6	78.0	92.9	88.5	81.8	77.3	93.9	88.3	80.3	68.2	96.9	100.0	89.2	82.4	78.9
보조기구필요	12.7	28.6	12.0	4.5	5.2	4.8	7.3	3.8	5.2	9.2	24.9	3.1	0.0	5.9	2.8	12.2
타인도움필요	2.5	14.0	8.9	2.0	6.3	13.0	15.4	1.2	4.8	6.2	6.9	0.0	0.0	4.9	8.8	5.3
전혀걷지못함	2.7	16.8	1.0	0.6	0.0	0.4	0.0	1.0	1.8	4.0	0.0	0.0	0.0	0.0	5.9	3.5
10) 화장실 사용하기																
완전자립	94.0	60.4	86.6	96.8	86.4	71.7	59.9	94.9	93.8	94.0	82.8	100.0	100.0	3.7	85.3	87.4
부분도움	4.4	23.4	12.1	2.2	13.1	25.1	38.3	3.8	4.7	2.0	17.2	0.0	0.0	2.1	9.3	8.8
완전도움	1.6	16.3	1.3	1.0	0.6	3.1	1.9	1.3	1.5	4.0	0.0	0.0	0.0	94.2	5.4	3.8
10-1) 화장실 사용하기																
도움필요없음	94.0	60.4	86.6	96.8	86.4	71.7	59.9	94.9	93.8	94.0	82.8	100.0	100.0	3.7	85.3	87.4
도구이용 도움필요	0.9	6.0	10.7	0.2	2.6	15.7	19.1	2.8	0.8	0.0	2.3	0.0	0.0	0.0	3.9	3.7
타인도움필요	3.4	17.3	1.4	1.9	10.4	9.5	19.1	1.0	3.9	2.0	14.9	0.0	0.0	2.1	5.4	5.1
완전도움	1.6	16.4	1.3	1.0	0.6	3.1	1.9	1.3	1.5	4.0	0.0	0.0	0.0	94.2	5.4	3.8
11) 대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97.3	73.2	97.1	97.5	99.4	85.4	89.4	95.7	97.4	96.0	90.8	100.0	100.0	5.6	94.6	93.2
부분도움	1.1	12.6	1.1	2.0	0.6	12.5	8.9	3.0	1.4	0.0	9.2	0.0	0.0	0.0	0.0	3.4
완전도움	1.6	14.3	1.2	0.5	0.0	2.1	1.7	1.3	1.2	4.0	0.0	0.0	0.0	94.4	5.4	3.4
12) 소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96.5	70.7	97.5	96.9	98.3	88.0	93.3	95.7	98.2	91.7	86.2	100.0	100.0	62.9	94.6	93.0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부분도움	1.7	14.4	1.3	2.6	1.7	9.5	6.7	3.1	0.6	4.3	13.8	0.0	0.0	1.5	0.0	3.8
완전도움	1.7	14.8	1.3	0.5	0.0	2.5	0.0	1.2	1.2	4.0	0.0	0.0	0.0	35.5	5.4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이 수행하는 데 있어 자립정도가 낮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본인물건 관리하기', '금전관리', '교통수단 이용하기'로 나타났다. 즉, 본인물건 관리하기의 경우 완전도움을 요하는 장애인 비율이 36.0%였으며, 이어서 금전관리 13%, 교통수단 이용하기 12.6%로서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았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와 지적 및 자폐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대부분의 항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 전화사용하기																
완전자립	92.9	53.2	74.7	37.2	31.6	29.5	13.9	70.0	93.3	77.9	90.6	96.9	96.5	93.0	71.2	74.4
적은부분도움	4.4	17.1	17.7	37.2	33.7	29.4	32.0	17.7	4.8	13.8	9.1	3.1	3.5	4.6	14.1	13.4
많은부분도움	1.0	7.7	4.6	11.4	6.5	17.3	16.9	7.1	1.3	4.3	0.0	0.0	0.0	2.3	5.4	4.7
완전도움	1.8	22.0	3.0	14.2	28.2	23.8	37.2	5.1	0.5	4.0	0.3	0.0	0.0	0.0	9.3	7.5
2) 물건사기																
완전자립	88.9	42.6	68.1	75.0	49.8	14.2	5.4	61.1	87.8	79.6	70.0	96.9	100.0	89.9	66.8	72.9
부분도움	7.3	26.7	22.0	20.4	35.9	49.9	41.9	27.2	9.6	10.3	22.6	3.1	0.0	3.3	23.3	16.7
완전도움	3.8	30.7	9.8	4.5	14.3	35.9	52.7	11.7	2.7	10.2	7.5	0.0	0.0	6.7	9.9	10.4
3) 식사준비																
완전자립	79.7	27.9	67.1	81.3	61.7	15.1	1.7	51.8	76.0	70.4	47.1	94.0	100.0	78.2	59.5	67.0
적은부분도움	10.7	18.4	12.5	8.6	23.7	23.6	22.3	23.6	12.6	10.7	20.7	1.3	0.0	13.7	14.5	13.1
많은부분도움	5.1	17.5	8.5	6.3	11.3	31.3	33.5	14.6	7.3	18.8	11.1	4.7	0.0	4.8	10.6	9.3
완전도움	4.5	36.2	11.8	3.7	3.4	30.0	42.5	10.0	4.1	0.0	21.1	0.0	0.0	3.4	15.3	10.6
4) 집안일																
완전자립	74.7	25.3	67.3	84.6	61.7	16.2	0.0	55.8	73.8	61.2	41.2	94.4	100.0	69.7	69.2	64.6
적은부분도움	16.2	25.1	13.9	9.5	20.5	38.8	37.9	23.9	14.6	25.5	36.5	0.0	0.0	2.5	15.5	18.1
많은부분도움	4.1	13.7	7.9	3.4	7.6	20.3	32.5	10.8	5.7	13.2	4.4	0.9	0.0	3.4	0.0	6.9
완전도움	4.9	35.8	11.1	2.5	10.2	24.7	29.5	9.5	5.8	0.0	17.8	4.7	0.0	3.4	15.3	10.3
5) 빨래하기																
완전자립	78.3	26.9	68.7	84.5	67.0	21.3	0.0	59.8	74.1	72.1	49.4	94.4	100.0	69.9	62.1	67.3
적은부분도움	12.4	21.6	14.4	8.5	12.6	31.9	29.3	21.7	15.5	14.7	22.5	0.9	0.0	19.2	16.9	15.0
많은부분도움	4.2	14.2	7.4	3.8	8.0	19.3	35.6	10.4	5.0	13.3	8.4	1.6	0.0	6.1	0.0	7.0
완전도움	5.2	37.4	9.5	3.2	12.4	27.5	31.4	8.1	5.4	0.0	19.6	3.1	0.0	4.8	21.0	10.7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6) 약 챙겨먹기																
완전자립	95.4	59.9	81.7	92.9	75.2	34.5	12.8	68.1	92.9	92.5	85.8	96.9	100.0	93.3	87.5	83.6
부분도움	2.8	19.3	14.8	5.7	15.3	46.2	53.7	24.6	5.6	3.6	14.2	3.1	0.0	6.7	7.1	10.7
완전도움	1.8	20.8	3.5	1.5	9.5	19.3	33.5	7.3	1.5	4.0	0.0	0.0	0.0	0.0	5.4	5.7
7) 금전관리																
완전자립	90.8	47.5	71.0	79.1	55.1	9.2	5.8	46.9	91.3	74.9	76.5	96.9	96.5	90.6	68.3	74.4
부분도움	6.2	18.5	18.4	14.7	29.5	29.6	26.2	29.9	3.3	21.1	12.9	3.1	3.5	8.1	16.5	12.7
완전도움	2.9	34.0	10.6	6.2	15.4	61.2	68.1	23.2	5.4	4.0	10.6	0.0	0.0	1.3	15.3	13.0
8) 교통수단 이용하기																
완전자립	80.2	31.0	64.1	74.7	57.0	16.4	7.5	51.8	80.3	54.7	53.9	96.9	100.0	87.6	58.2	66.2
적은부분도움	10.5	17.8	17.7	17.5	23.3	30.1	27.7	22.7	6.4	31.5	20.6	0.0	0.0	3.7	15.1	14.8
많은부분도움	3.2	12.4	7.4	2.6	4.3	21.6	18.1	13.3	5.8	9.9	7.6	0.0	0.0	5.3	5.2	6.5
완전도움	6.2	38.8	10.9	5.1	15.4	31.8	46.7	12.2	7.5	4.0	17.9	3.1	0.0	3.4	21.4	12.6
9) 본인 물건 관리하기																
완전자립	66.3	15.0	62.5	84.2	0.0	9.5	0.0	-	-	-	-	-	-	-	0.0	19.5
부분도움	22.8	11.3	37.5	15.8	42.4	67.8	30.6	-	-	-	-	-	-	-	100.0	44.6
완전도움	10.9	73.7	0.0	0.0	57.6	22.7	69.4	-	-	-	-	-	-	-	0.0	3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6,064

3. 장애특성 고려 영역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인정등급 판정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항목으로서 장애특성 고려 영역을 살펴보면, 우선 지체장애·뇌병변장애·내부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에 있어서 완전도움을 요하는 비율이 7.3%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중 '청각 기능'에 있어서 '대화시 어려움'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94.3%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 기능'의 경우 '유인물 보는 데 어려움'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91.1%로서 역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자폐성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의 '인지기능' 수준에서 '주위사람 일부만 알아봄'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은 63.3%에 달하였으며, 정신장애인의 '정신기능'의 경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종종 불안하고 민감하고 무기력해져 주의가 필요하다' 등의 비율은 92.1%에 달하였다.

〈표 7-2-3〉 장애특성 고려 영역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휠체어 사용																
완전자립	90.1	54.0	80.6	76.5	75.9	82.3	100.0	87.0	90.5	88.2	72.9	98.1	100.0	94.7	89.2	84.0
부분도움	6.7	19.0	11.2	12.5	21.6	0.0	0.0	0.0	6.4	11.8	22.4	1.9	0.0	2.0	0.0	8.7
완전도움	3.3	27.1	8.2	11.0	2.6	17.7	0.0	13.0	3.1	0.0	4.7	0.0	0.0	3.4	10.8	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9,959	289,256	13,994	8,863	5,313	8,937	370	3,575	71,875	8,457	15,985	11,839	656	16,705	9,764	805,158
청각 기능																
청각손상없음	2.9	4.5	0.0	5.3	11.5	74.8	-	0.0	0.0	-	-	-	-	0.0	100.0	5.7
대화시어려움	57.1	31.5	57.9	42.0	0.0	18.8	-	100.0	100.0	-	-	-	-	0.0	0.0	42.5
매우큰소리만들음	34.2	48.2	42.1	36.8	46.9	6.4	-	0.0	0.0	-	-	-	-	100.0	0.0	36.8
청력거의없음	5.8	15.7	0.0	16.0	41.6	0.0	-	0.0	0.0	-	-	-	-	0.0	0.0	1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585	8,350	7,054	277,431	1,634	2,758	-	520	908	-	-	-	-	434	125	313,799
시각 기능																
시각손상없음	11.0	1.9	9.5	3.2	0.0	0.0	-	0.0	0.0	-	-	-	0.0	-	-	8.9
유인물보는데 어려움	75.7	62.6	54.8	74.0	100.0	10.0	-	0.0	95.5	-	-	-	100.0	-	-	56.3
사물분간어려움	12.6	15.0	22.0	22.7	0.0	32.2	-	0.0	0.0	-	-	-	0.0	-	-	21.0
시력거의없음	0.7	20.4	13.6	0.0	0.0	57.9	-	100.0	4.5	-	-	-	0.0	-	-	1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100.0	-	-	100.0
전국추정수	9,212	16,419	274,484	2,284	612	1,592	-	737	4,162	-	-	-	316	-	-	309,818
인지 기능																
주위사람알아봄	0.0	21.0	0.0	0.0	58.4	39.6	28.2	0.0	-	-	-	-	-	-	48.4	36.7
주위사람 일부만 알아봄	100.0	48.4	100.0	95.1	41.6	47.0	58.6	100.0	-	-	-	-	-	-	51.6	48.8
주위사람 알아보지 못함	0.0	30.6	0.0	4.9	0.0	13.4	13.2	0.0	-	-	-	-	-	-	0.0	1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1,182	19,155	59	1,581	1,757	182,333	18,951	484	-	-	-	-	-	-	1,767	227,269
정신기능																
행동개입없음	12.0	71.4	-	-	-	0.0	-	7.7	0.0	-	-	-	-	0.0	-	7.9
주의필요	49.4	0.0	-	-	-	53.0	-	64.6	0.0	-	-	-	-	100.0	-	63.3
환각등 있음	38.6	28.6	-	-	-	47.0	-	27.6	100.0	-	-	-	-	0.0	-	28.9
계	100.0	100.0	-	-	-	100.0	-	100.0	100.0	-	-	-	-	100.0	-	100.0
전국추정수	1,920	602	-	-	-	3,276	-	105,002	823	-	-	-	-	118	-	111,741

4. 사회환경 고려 영역

장애특성 고려 영역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인정등급 판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항목인 사회환경 고려 영역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사회활동참여'에 있어서 완전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전체의 39.3%로 나타났으며, 안면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어서 '위험상황 대처능력'의 경우 완전도움을 요하는 장애인 비중은 14.3%였으며, 역시 장애특성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위험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능력'의 경우 완전도움을 요하는 장애인 비중은 8.4%였으며, 뇌병변장애인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도움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에 있어서는 완전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비중은 전체의 10.1%로 나타났으며, 역시 앞서의 위험상황 대처능력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기능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표 7-2-4〉 사회환경 고려 영역(장애유형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사회활동참여																
완전자립	26.7	57.1	28.0	30.4	34.8	30.8	15.3	60.5	40.9	31.1	57.6	49.2	7.9	44.0	49.0	33.0
부분도움	26.4	24.3	32.2	31.0	25.0	28.6	35.0	27.4	34.9	31.3	12.8	10.0	18.3	36.9	27.1	27.7
완전도움	46.8	18.6	39.9	38.6	40.3	40.6	49.8	12.0	24.2	37.7	29.6	40.8	73.7	19.1	23.9	39.3
위험상황 대처능력																
완전자립	77.4	26.6	61.5	52.3	45.0	15.0	8.7	44.9	75.7	69.7	38.5	95.1	92.1	74.9	51.0	60.9
부분도움	16.4	34.6	23.7	35.5	41.1	48.3	35.4	39.1	16.3	26.3	41.5	4.9	7.9	19.7	31.6	24.8
완전도움	6.1	38.7	14.8	12.2	13.9	36.7	55.9	16.0	8.0	4.0	19.9	0.0	0.0	5.4	17.4	14.3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능력																
완전자립	88.7	46.6	71.3	68.8	77.4	55.1	50.6	86.9	85.4	80.3	62.4	96.9	100.0	81.6	79.0	77.2
부분도움	7.9	24.0	19.8	22.8	17.0	29.4	27.8	8.3	11.0	15.7	31.5	3.1	0.0	9.5	10.2	14.4
완전도움	3.4	29.4	8.9	8.4	5.6	15.6	21.6	4.8	3.6	4.0	6.1	0.0	0.0	8.9	10.8	8.4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																
완전자립	90.8	55.3	70.3	75.3	59.1	13.1	7.1	64.8	91.8	87.9	80.2	96.9	88.6	92.8	69.6	75.9
부분도움	6.3	24.4	16.6	15.8	28.9	42.5	32.3	24.7	5.4	8.1	18.4	3.1	11.4	7.2	10.8	14.0
완전도움	2.9	20.2	13.1	8.9	12.0	44.3	60.6	10.5	2.9	4.0	1.4	0.0	0.0	0.0	19.6	1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5.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의 51.3%가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고, 일부 도움이나 대부분 도움, 거의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각각 17.7%, 8.6%, 5.9%인 것으로 나타나 남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경우는 32.2%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더욱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장애, 안면장애, 지체장애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7-2-5〉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혼자서 스스로	67.5	18.3	54.9	42.9	33.8	4.5	1.5	36.8	65.2	48.1	34.3	92.4	96.5	10.3	44.2	51.3
대부분 혼자서	15.1	14.0	14.5	28.6	24.4	14.4	11.4	16.7	13.1	8.0	13.8	2.7	3.5	62.7	14.5	16.5
일부도움 필요	11.1	25.4	15.5	22.9	22.4	41.5	21.1	28.3	14.3	39.9	38.0	1.8	0.0	18.8	17.5	17.7
대부분 도움필요	3.9	19.1	10.1	3.5	15.6	26.0	41.6	14.2	5.4	0.0	10.5	3.1	0.0	2.9	18.0	8.6
거의 남의도움 필요	2.4	23.1	5.1	2.1	3.7	13.5	21.5	4.0	2.0	4.0	3.4	0.0	0.0	5.4	5.9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6. 일상생활에서 도와주는 사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특별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의 85.3%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와 자폐성장애가 100.0%, 언어장애가 96.8%, 지적장애가 96.7%, 정신장애가 94.5%, 뇌병변장애가 93.5%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6〉 도와주는 사람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있다	77.8	93.5	85.6	77.2	96.8	96.7	100.0	94.5	87.3	100.0	88.8	81.1	0.0	46.7	68.3	85.3
없다	22.2	6.54	14.4	22.8	3.2	3.3	0.0	5.5	12.7	0.0	11.2	18.9	100.0	53.3	31.7	1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5,247	236,283	123,912	158,335	14,166	174,097	18,668	66,373	25,020	4,385	10,508	899	104	14,989	5,451	1,288,437

현재 장애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배우자가 37.7%, 부모가 20.1%, 자녀가 16.7%의 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은 여전히 주로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의 부담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전증장애의 경우 부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7〉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배우자	50.8	42.6	44.9	42.0	24.0	7.2	0.0	10.8	53.3	70.5	57.9	100.0	-	78.1	8.8	37.7
부모	4.7	13.9	6.7	7.2	35.6	65.3	82.9	38.7	2.5	10.3	0.0	0.0	-	0.0	56.8	20.1
자녀(며느리, 사위)	20.2	15.5	19.7	33.7	27.2	2.5	0.0	8.3	15.1	3.5	10.0	0.0	-	7.2	16.4	16.7
형제·자매	2.7	2.7	1.1	4.6	8.1	13.6	0.0	16.7	0.0	0.0	0.0	0.0	-	0.0	0.0	5.1
조부모	0.3	0.6	0.0	0.3	2.1	3.9	6.8	0.7	1.2	0.0	0.0	0.0	-	0.0	0.0	1.1
손자녀	1.0	0.5	0.2	0.6	0.0	0.0	0.0	0.0	0.0	8.3	0.0	0.0	-	4.1	0.0	0.5
기타 가족	0.1	0.1	1.4	0.6	0.0	0.0	0.0	0.5	0.0	0.0	0.0	0.0	-	0.0	0.0	0.3
친척	0.5	0.0	1.4	2.3	0.0	1.2	0.0	1.3	0.0	0.0	0.0	0.0	-	0.0	0.0	0.8
친구	1.3	0.3	2.0	0.7	0.0	0.0	0.0	0.0	2.8	0.0	0.0	0.0	-	0.0	0.0	0.8
이웃	1.7	0.3	1.4	1.8	0.0	0.6	0.0	1.6	0.6	0.0	0.0	0.0	-	0.0	0.0	1.1
활동보조인	2.8	3.0	11.6	0.1	0.9	2.2	9.9	0.7	6.9	0.0	5.6	0.0	-	0.0	0.0	3.3
가정봉사원	0.8	0.4	1.0	0.1	0.0	0.0	0.0	0.3	0.0	7.4	0.0	0.0	-	0.0	0.0	0.5
간병인	1.9	4.8	0.9	0.5	0.0	0.6	0.0	1.7	5.4	0.0	0.0	0.0	-	8.1	0.0	2.0
요양보호사	9.4	13.3	6.4	3.5	0.0	0.2	0.0	3.5	10.8	0.0	26.6	0.0	-	2.6	0.0	7.3
기타	1.9	2.0	1.3	2.0	2.1	2.6	0.5	15.3	1.5	0.0	0.0	0.0	-	0.0	18.0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38,724	220,900	106,081	122,305	13,720	168,283	18,668	62,370	21,829	4,385	9,332	729	-	7,005	3,723	1,098,414

현재 장애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의 75.9%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에서도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에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여부에서도 동일하게 가족이 주 도움 지원체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7-2-8〉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72.2	73.1	69.2	77.7	93.7	86.8	89.7	75.1	74.7	84.3	67.8	10.0	-	95.0	65.6	75.9
아니오	37.8	26.9	30.8	22.3	6.3	13.2	10.3	24.9	25.3	15.7	32.2	0.0	-	5.0	34.4	2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38,724	220,900	106,081	122,305	13,720	168,283	18,668	62,370	21,829	4,385	9,332	729	-	7,005	3,723	1,098,414

현재 장애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동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의 98.6%가 '예'라고 응답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2-9〉 동거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움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97.7	99.2	99.2	98.6	100.0	9837	99.5	99.8	98.6	91.7	100.0	100.0	-	100.0	100.0	98.6
아니오	2.3	0.8	0.8	1.4	0.0	1.3	0.5	0.2	1.4	8.3	0.0	0.0	-	0.0	0.0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38,724	220,899	10,6081	122,305	13,719	168,283	18,668	62,729	21,830	4,386	9,232	729	-	7,005	3,724	1,098,414

현재 장애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가족이나 주변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현재 제공받는 도움이 충분한 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장애인의 58.9%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하였으나, 도움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도 41.1%에 이르러 여전히 필요로 하는 도움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장애인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2-10〉 다른 사람 도움의 충분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충분하다	4.8	5.9	6.2	7.5	4.9	6.9	6.6	4.1	6.7	0.0	0.0	29.2	-	8.1	0.0	5.8
충분하다	57.2	47.2	45.9	64.2	60.2	48.3	42.9	55.0	58.7	47.9	56.0	15.0	-	49.5	46.2	53.1
부족하다	33.9	38.5	40.1	26.5	34.8	40.3	38.8	35.9	26.5	37.8	33.8	55.8	-	42.5	53.8	35.8
매우 부족하다	4.1	8.3	7.8	1.8	0.0	4.4	11.8	5.0	8.1	14.3	10.3	0.0	-	0.0	0.0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38,723	220,900	106,080	122,306	13,720	168,282	18,668	62,370	21,829	4,386	9,332	729	-	7,005	3,724	1,098,414

장애인에게 가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도와 줄 외부인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가라는 질문에 전체 장애인의 47.3%는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유료라도 이용하겠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11.3%로서 외부인을 도우미로 활용할 의사를 보인 장애인은 전체의 58.6%로 나타났다.

〈표 7-2-11〉 도와줄 외부인 활용 의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무료라면 이용	45.5	52.0	52.3	35.8	35.9	50.4	49.2	57.9	44.3	63.0	33.7	100.0	0.0	24.0	72.2	47.3
유료라도 이용	8.9	21.5	12.4	6.6	1.8	9.4	28.0	5.9	5.9	0.0	13.8	0.0	0.0	1.2	19.4	11.3
필요없다	45.5	26.5	35.2	57.6	62.3	40.2	22.8	36.2	49.9	37.0	52.5	0.0	100.0	74.8	8.4	4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35,247	236,284	123,913	157,653	14,166	174,097	18,668	66,373	25,019	4,385	10,509	898	104	14,989	5,451	1,287,756

주: 무응답 제외

제3절 장애인보조기구

1. 장애인보조기구 수요 및 소지 현황

현재 장애인보조기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있다면 그 종류는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는 〈표 7-3-1 〉과 같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척추보조기(7.7%), 상하지 운동기구(5.8%), 하지보조기(4.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는 지팡이에 대한 수요가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보행기(7.8%), 수동휠체어(6.8%), 전동휠체어(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도 조사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안경(콘택트렌즈)이 64.1%로 가장 높았으며, 저시력보조기(17.5%), 화면확대기(15.9%),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15.0%), 음성손목/탁상시계(12.4%)에 대한 수요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청각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 중 보청기는 전체 장애인의 12.0%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이외에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증폭기(12.2%), 화상전화기(10.9%)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언어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인 인공후두와 음성증폭기에 대한 수요는 각각 9.6%와 2.8%였다.

지적 및 자폐성 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수요는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구 8.2%, 터치모

니터 7.3%로 나탔으며, 신장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복막투석기구가 11.1%로 나타났다.

호흡기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 중에서는 산소발생기가 47.4%, 인공호흡기 33.3%로 높았는데, 2011년 결과와 비교할 때 인공호흡기에 대한 수요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안면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압력옷과 기타 품목 모두 수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난 2011년 조사에서는 압력옷과 기타 품목에 대한 안면장애인의 수요가 각각 12.9%, 11.2%로 적지 않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2014년 조사에서 수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유의미한 경향의 변화가 아니라 표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안면장애인의 정확한 보조기구 수요 파악을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여 별도의 수요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장루·요루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 중에서는 장루주머니가 91.6%, 피부보호판 90.9%의 수요를 보여 전체 조사 품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그리고 특정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인보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타 품목 중에서는 목욕의자 및 이동욕조 7.2%, 주택개조(경사로) 5.7%, 침대(전동 및 수동) 5.4%, 경보시스템 4.6%, 이동변기 4.5% 등의 수요를 보였다.

〈표 7-3-1〉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필요 장애인보조기구	비율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상지의지	1.7
	하지의지	2.2
	척추보조기	7.7
	상지보조기	1.1
	하지보조기	4.4
	맞춤형 교정용신발	4.3
	지팡이	18.5
	목발	2.7
	보행기	7.8
	전동휠체어	6.5
	수동휠체어	6.8
	전동스쿠터	4.8
	자세보조용구	3.5
	상하지운동기구	5.8
	기타	4.1
		(1,628,826)
시각장애	안경(콘텍트렌즈)	64.1
	저시력보조기	17.5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5.0
	의안	9.7
	스크린 리더	3.7
	화면 확대기	15.9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3.4
	음성손목/탁상시계	12.4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2.6
	점자프린터	1.3
	화면해설기	4.1
	음성유도장치	4.6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2.7
	기타	3.9
		(274,484)
청각장애	보청기	12.0
	화상전화기	10.9
	골도전화기	1.8
	문자전화기	6.6
	문자송수신기	1.8
	음성증폭기	12.2
	인공와우	7.6
	자막수신기	7.6
	신호표시기(시각,음향)	8.7
	기타	0.2
		(277,432)
언어장애	인공후두(성대)	9.6
	음성증폭기	2.8
	기타	2.1
		(21,399)
지적 및 자폐성장애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구	8.2
	터치모니터	7.3
	기타	1.2
		(201,284)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11.1
	기타	2.7
		(71,876)
호흡기장애	호흡치료용구 산소발생기	47.4
	호흡치료용구 인공호흡기	33.3
	호흡치료용구 호흡근육훈련기	12.9
	기타	9.3
		(15,984)
안면장애	압력옷	0.0
	기타	0.0
		(3,012)
장루·요루장애	장루주머니	91.6
	피부보호판	90.9
	기타	39.0
		(16,705)
전체	욕창방지용매트	4.0
	욕창방지용방석	3.0
	침대(전동 및 수동)	5.4
	기립보조기구	2.9
	기저귀매트	2.8
	목욕 의자 및 이동 욕조	7.2
	이동변기	4.5
	특수 키보드	0.3
	특수 마우스	0.3
	각종 스위치	1.0
	음성인식장치	0.9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0.3
	환경제어장치	0.4
	의사소통보조기	0.7
	리프트	0.4
	주택개조(경사로 등)	5.7
	장애인용 의복	0.2
	자동차개조/운전보조장치	0.7
	경보 시스템	4.6
	고용/직업훈련용 보조기구	0.1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구	0.1
	기타	0.5
	호흡보조기 산소발생기	0.4
	호흡보조기 인공호흡기	0.2
		(2,646,064)

주: 음영부분의 보조기구는 장애유형 구분 없이 전체장애인에게 질문

장애유형별로 등록장애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 7-3-2〉와 같다. 먼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 중 전체 장애인에게 질문한 지팡이는 18.3%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보행기(6.1%), 수동휠체어(6.1%), 목발(3.5%), 전동휠체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척추보조기(5.7%), 하지보조기(3.4%)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이동관련 장애인보조기구의 소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각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 중 가장 높은 소지율을 보이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는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으로서 61.4%의 소지율을 보였으며, 그 외에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11.8%), 의안(8.4%)의 순이었다. 또한 전체장애인의 9.3%가 보청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에서는 화상전화기와 인공와우가 각각 3.6%의 소지율을 보였다. 그리고 언어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 중에서는 인공후두(성대)가 9.6%의 소지율을 보였다.

지적 및 자폐성 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터치모니터 1.9%,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구 1.7%의 소지율을 보였으며, 신장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복막투석기구가 10.6%로서 가장 높았다.

호흡기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 중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산소발생기가 27.4%, 인공호흡기가 16.4%의 소지율을 보였으며, 안면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압력옷과 기타 품목 모두 전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앞서 수요현황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응답 표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루·요루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장루주머니가 91.6%, 피부보호판이 9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지막으로 특정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인보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타 품목 중에서는 목욕의자 및 이동욕조 2.7%, 이동변기 2.7%, 욕창방지용 매트 2.0%, 기저귀매트 2.0%, 침대(전동 및 수동) 1.7%, 욕창방지용 방석 1.5%의 소지율을 보였다.

〈표 7-3-2〉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단위: %)

구분	소지 장애인보조기구	비율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상지의지	1.1
	하지의지	1.7
	척추보조기	5.7
	상지보조기	0.9
	하지보조기	3.4
	맞춤형 교정용신발	2.4
	지팡이	18.3
	목발	3.5
	보행기	6.1
	전동휠체어	2.4
	수동휠체어	6.1
	전동스쿠터	2.1
	자세보조용구	1.4
	상하지운동기구	1.2
	기타	3.7
		(1,628,826)
시각장애	안경(콘텍트렌즈)	61.4
	저시력보조기	7.3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1.8
	의안	8.4
	스크린 리더	0.8
	화면 확대기	4.0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2.0
	음성손목/탁상시계	4.9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0.0
	점자프린터	0.1
	화면해설기	1.3
	음성유도장치	0.9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0.2
	기타	3.2
		(274,484)
청각장애	보청기	9.3
	화상전화기	3.6
	골도전화기	0.4
	문자전화기	2.7
	문자송수신기	1.0
	음성증폭기	2.2
	인공와우	3.6
	자막수신기	2.5
	신호표시기(시각,음향)	1.4
	기타	0.2
		(277,432)
언어장애	인공후두(성대)	9.6
	음성증폭기	0.0
	기타	0.0
		(21,399)
지적 및 자폐성장애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구	1.7
	터치모니터	1.9
	기타	0.3
		(201,284)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10.6
	기타	0.2
		(71,876)
호흡기장애	호흡치료용구 산소발생기	27.4
	호흡치료용구 인공호흡기	16.4
	호흡치료용구 호흡근육훈련기	1.1
	기타	7.9
		(15,984)
안면장애	압력옷	0.0
	기타	0.0
		(3,012)
장루·요루장애	장루주머니	91.6
	피부보호판	90.5
	기타	39.0
		(16,705)
전체	욕창방지용매트	2.0
	욕창방지용방석	1.5
	침대(전동 및 수동)	1.7
	기립보조기구	0.6
	기저귀매트	2.0
	목욕 의자 및 이동 욕조	2.7
	이동변기	2.7
	특수 키보드	0.1
	특수 마우스	0.1
	각종 스위치	0.1
	음성인식장치	0.1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0.1
	환경제어장치	0.1
	의사소통보조기	0.1
	리프트	0.1
	주택개조(경사로 등)	0.4
	장애인용 의복	0.1
	자동차개조/운전보조장치	0.3
	경보 시스템	0.7
	고용/직업훈련용 보조기구	0.1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구	0.1
	기타	0.4
	호흡보조기 산소발생기	0.2
	호흡보조기 인공호흡기	0.1
		(2,646,064)

주: 음영부분의 보조기구는 장애유형 구분 없이 전체장애인에게 질문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파악한 결과 다음의 〈표 7-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입비용 때문에'가 전체의 61.8%로서 가장 높았으며, 그 밖의 이유로는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가 무엇인지 몰라서' 17.6%,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4.6%, '미관상 흉해서' 4.5%, '구입처를 몰라서' 4.2%, '사용이 불편해서'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의 부재 및 효과성의 결여 등 장애인보조기구 공급 및 품질관리 등 전달체계와 관련된 불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3-3〉 필요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적합한 장애인보조 기구가 무엇인지 몰라서	16.1	14.5	25.2	19.2	14.3	25.9	25.4	11.7	9.2	55.6	17.5	0.0	0.0	6.2	0.0	17.6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3.9	4.8	3.8	7.6	0.0	4.3	14.5	10.9	6.0	0.0	0.0	0.0	0.0	0.0	0.0	4.6
사용이 불편할 것 같아서	3.5	2.9	3.4	5.4	0.0	5.9	0.0	0.0	0.5	0.0	4.1	0.0	0.0	7.6	0.0	3.6
미관상 흉해서	7.2	2.1	4.0	2.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5
구입비용 때문에	63.2	67.1	55.2	56.4	85.7	47.1	46.8	60.7	78.1	44.4	78.5	100.0	100.0	76.3	88.9	61.8
구입처를 몰라서	3.6	3.2	5.9	5.4	0.0	6.1	8.0	10.1	0.5	0.0	0.0	0.0	0.0	10.0	0.0	4.2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0.9	2.1	0.1	1.5	0.0	1.3	5.3	0.9	0.0	0.0	0.0	0.0	0.0	0.0	0.0	1.1
적합한 보조기구가 없어서	1.5	2.1	2.5	2.3	0.0	9.3	0.0	5.6	5.7	0.0	0.0	0.0	0.0	0.0	11.1	2.3
기타	0.0	1.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60,029	146,082	108,930	110,668	2,534	29,232	4,127	7,268	14,939	887	8,091	407	316	2,902	2,343	798,755

주: 무응답 제외

2.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관련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 지원 경험 여부의 경우, 외부로부터 각종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39.7%로 나타나 2011년(38.8%)과 비교해 0.9%p 증가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외부 지원 경험이 각각 59.7%, 54.5%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높았다.

〈표 7-3-4〉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외부 지원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35.6	54.5	24.2	51.6	59.7	45.0	0.0	14.1	45.8	53.3	56.9	0.0	0.0	38.7	2.0	39.7
아니오	64.4	45.5	75.8	48.4	40.3	55.0	100.0	85.9	54.2	46.7	43.1	100.0	100.0	61.3	98.0	6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66,562	197,573	223,666	225,044	5,017	13,128	283	3,522	21,449	1,746	10,232	876	316	16,705	2,666	1,288,785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사업(기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항목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업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 사업으로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전체 장애인 중 56.9%가 이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2011년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1.3%p 감소하여 지난 2008년 이래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사업의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해야 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역할이 오히려 이전보다 축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구 교부사업(13.9%)과 친인척 및 종교·친목단체 지원(10.6%)을 통해 보조기구를 구입한 장애인도 적지 않았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기기 지원(4.4%), 산재보험 보장구 지원(3.2%),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욕구지원사업(2.8%) 등도 장애인의 보조기구 구입을 지원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3-5〉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	51.6	53.4	40.7	75.1	82.6	33.5	-	60.2	58.5	65.1	72.7	-	-	76.3	0.0	56.9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구 교부사업	12.7	16.7	19.4	12.3	0.0	17.8	-	0.0	8.0	0.0	3.9	-	-	12.5	100.0	13.9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구 지급사업	6.3	2.2	2.1	0.0	0.0	0.0	-	0.0	0.0	0.0	9.2	-	-	0.0	0.0	3.2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원	2.2	0.0	1.0	0.6	0.0	0.0	-	39.8	2.0	0.0	8.7	-	-	4.6	0.0	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기기 지원	3.9	4.0	9.4	2.6	0.0	34.9	-	0.0	0.0	0.0	0.0	-	-	0.0	0.0	4.4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	0.0	0.0	3.8	0.4	0.0	0.0	-	0.0	0.0	0.0	0.0	-	-	0.0	0.0	0.5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지원사업	1.6	8.4	1.4	0.7	12.8	0.0	-	0.0	0.0	0.0	0.0	-	-	0.0	0.0	2.8
교육부 장애학생 지원사업	0.0	0.1	0.7	0.0	0.0	3.8	-	0.0	0.0	0.0	0.0	-	-	0.0	0.0	0.1
공동모금회 또는 민간, 복지재단, 복지관 등의 보급사업	1.7	3.2	7.3	0.9	4.7	0.0	-	0.0	4.7	0.0	0.0	-	-	4.4	0.0	2.5
보조기구 관련 전문서비스기관	3.2	1.5	0.0	1.5	0.0	0.0	-	0.0	0.0	0.0	5.5	-	-	0.0	0.0	2.0
친지, 친구, 이웃 또는 종교 및 친목단체의 지원	13.6	9.7	11.7	5.7	0.0	10.0	-	0.0	22.1	34.9	0.0	-	-	2.3	0.0	10.6
기타	3.1	0.6	2.6	0.3	0.0	0.0	-	0.0	4.6	0.0	0.0	-	-	0.0	0.0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01,825	107,649	54,135	116,074	2,993	5,912	-	497	9,832	931	5,820	-	-	6,473	52	512,193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 지원 형태를 살펴보면,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57.4%로 나타났으며,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5.5%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상임대와 유상임대의 형태로 지원을 받은 비율은 3.8%와 2.5%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지원이 구입 비용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임대를 통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미국 등 주요 선진 외국에서 임대 형태의 지원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지원의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7-3-6〉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비용 전액 지원	43.4	32.9	49.1	16.0	43.8	32.7	-	100.0	59.3	0.0	39.1	-	-	26.4	100.0	35.5
비용 일부 지원	49.1	56.4	46.8	81.5	56.2	63.5	-	0.0	17.2	65.1	31.8	-	-	72.6	0.0	57.4
무상임대	3.3	5.6	3.3	2.3	0.0	3.8	-	0.0	21.0	0.0	1.3	-	-	1.1	0.0	3.8
유상임대	3.2	3.7	0.8	0.1	0.0	0.0	-	0.0	2.6	0.0	27.8	-	-	0.0	0.0	2.5
기타	1.0	1.3	0.0	0.1	0.0	0.0	-	0.0	0.0	34.9	0.0	-	-	0.0	0.0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01,825	107,649	54,135	116,074	2,993	5,912	-	497	9,832	931	5,820	-	-	6,473	52	512,193

장애인보조기구 구입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지원들이 어느 정도 충분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충분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전체의 74.4%였으며, 반대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6%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과 비교할 때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0.9%p 증가한 것이긴 하나, 여전히 부정적인 응답을 한 장애인의 비중이 적지 않고,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 상태를 고려할 때,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제도들의 지원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3-7〉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 수준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그렇다	26.7	21.3	26.2	12.5	0.0	28.1	-	39.8	47.5	65.1	26.6	-	-	25.6	0.0	22.6
약간 그렇다	51.5	54.5	55.6	49.1	74.4	56.8	-	0.0	30.9	34.9	58.6	-	-	51.3	100.0	51.8
별로 그렇지 않다	18.3	22.1	16.1	35.4	0.0	15.1	-	60.2	20.1	0.0	14.9	-	-	23.0	0.0	22.7
전혀 그렇지 않다	3.4	2.1	2.2	3.1	25.6	0.0	-	0.0	1.5	0.0	0.0	-	-	0.0	0.0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01,825	107,649	54,135	116,074	2,993	5,912	-	497	9,832	931	5,820	-	-	6,473	52	512,193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경로를 살펴보면, ‘장애인보조기구 업체 매장에서 구입’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8.3%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병원 또는 의사의 소개로 구입’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9.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할 때 병원 또는 의사의 소개 비율이 약간 더 높아지고 보조기구 업체매장의 비율은 약간 더 낮아진 결과인데,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를 통한 구입 비중 역시 2011년과 비교하여 약간 더 높아졌음을 고려할 때, 지난 3년간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공적전달체계의 개입이 일정 부분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3-8〉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경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병원 또는 의사의 소개	26.8	22.8	35.7	31.3	49.1	34.9	-	18.1	31.7	42.7	54.9	27.1	-	69.9	37.7	29.6
장애인보조기구 업체매장	41.2	44.6	17.9	48.7	45.4	16.9	-	49.8	33.9	-	27.4	47.0	100.0	23.9	42.5	38.3
인터넷 쇼핑몰	3.6	2.4	2.4	2.3	0.0	18.0	-	0.0	0.6	-	0.0	0.0	-	0.0	-	2.9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8.7	13.7	9.6	7.9	5.5	10.1	-	11.2	7.5	-	4.4	0.0	-	5.6	-	9.4
아는 사람	12.2	10.3	7.0	6.9	-	7.7	-	8.0	15.0	38.7	5.4	25.9	-	0.0	-	9.8
기타	7.5	6.2	27.4	2.8	-	12.4	100.0	12.9	11.2	18.6	7.9	0.0	-	0.6	19.8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66,562	197,573	223,666	225,044	5,017	13,128	283	3,522	21,449	1,746	10,232	876	316	16,705	2,666	1,288,785

장애인보조기구의 활용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한 조사 항목에서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관련 전문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22.2%에 불과하여, 여전히 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11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문서비스 수혜율이 2.8%p 증가한 것으로서 장애인보조기구 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보조기구 상담 및 평가서비스가 지난 3년간 일정 부분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3-9〉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18.2	21.9	17.8	34.6	15.9	33.3	0.0	14.1	23.6	34.7	39.6	0.0	0.0	35.0	19.8	22.2
아니오	81.8	78.1	82.2	65.4	84.1	66.7	100.0	85.9	76.4	65.3	60.4	100.0	100.0	65.0	80.2	7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66,562	197,573	223,666	225,044	5,017	13,128	283	3,522	21,449	1,746	10,232	876	316	16,705	2,666	1,288,785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도와 관련하여,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4.4%,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6%로서 2011년 조사 결과에 비해 3.7%p 상승하였다.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청기,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구, 장루주머니, 피부보호판 등의 제품이 타 보조기구에 비해 품질 개선이 더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3-10〉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만족	12.4	14.1	10.8	11.5	0.0	25.2	100.0	0.0	13.5	42.7	36.6	0.0	0.0	11.0	0.0	12.5
약간 만족	65.4	64.1	66.2	48.9	92.4	42.7	0.0	75.9	68.0	18.6	37.3	74.1	100.0	51.6	69.8	61.9
약간 불만족	17.8	17.5	18.4	26.5	7.6	14.3	0.0	13.9	18.5	38.7	21.5	25.9	0.0	28.9	30.2	19.6
매우 불만족	4.4	4.4	4.6	13.0	0.0	17.9	0.0	10.1	0.0	0.0	4.6	0.0	0.0	8.5	0.0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8,684	192,208	221,380	217,164	5,017	11,561	283	3,325	21,329	1,746	10,232	876	316	16,705	2,666	1,233,492

주: 무응답, 소지하되 사용하지 않아 모름 제외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힌 것은 '개인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평가 및 사용지원 서비스'(34.6%), '각종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제공'(18.2%), '지원 품목의 확대'(17.2%), '급여 비용의 인상'(14.6%) 등이었다. 이는 장애인 보조기구 상담, 평가, 교육, 구입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의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전달체계의 설치와 함께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공적 급여의 지원 수준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3-11〉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서 개선할 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또는 안내서비스	34.1	33.0	33.7	33.8	54.2	44.2	47.9	34.8	26.9	38.0	43.4	28.6	19.5	21.7	35.3	34.6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17.2	18.4	22.2	16.7	14.2	20.7	10.8	21.5	13.7	18.1	10.6	38.5	3.7	24.2	28.5	18.2
지원품목의 확대	17.5	19.0	19.2	16.6	9.5	12.1	7.4	11.4	25.7	14.0	11.6	11.4	23.1	24.5	20.1	17.2
신청 및 보급 절차의 간소화	11.3	9.3	8.9	7.9	9.4	6.2	14.1	11.9	13.9	12.2	16.0	4.9	0.0	6.0	0.0	10.2
급여비용의 인상	14.5	15.8	12.5	22.1	8.1	9.8	15.3	8.7	12.5	10.2	12.5	10.0	49.2	20.8	10.9	14.6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음	5.1	4.2	3.3	2.5	4.6	6.8	2.9	11.8	7.4	7.4	5.8	1.5	4.4	2.8	5.2	4.9
기타	0.2	0.1	0.2	0.4	0.0	0.2	1.5	0.0	0.0	0.0	0.0	5.2	0.0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29,842	287,468	272,805	276,057	21,225	176,666	18,029	100,827	71,272	8,140	15,985	11,839	2,385	16,705	9,765	2,619,010

주: 무응답 제외

3. 정보통신기기 사용 현황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률을 살펴보면, 휴대폰 44.7%, 스마트폰 38.6%, 컴퓨터 32.0%, 인터넷 33.0%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에서 휴대폰과 스마트폰 사용률이 각각 70.1%, 7.2%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개인통신단말기의 보급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휴대폰 사용자의 상당수가 스마트폰 사용자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년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장애인에게도 일정부분 혜택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14년 기준 전체 국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78.3%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5),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3-12〉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휴대폰	49.1	43.5	49.0	46.9	27.4	18.4	9.3	34.7	37.0	47.9	73.2	29.8	27.3	43.3	25.1	44.7
스마트폰	44.8	22.6	38.8	31.0	32.3	32.5	25.5	22.5	53.8	47.4	17.3	70.2	51.8	45.0	43.8	38.6
컴퓨터	35.1	19.6	31.9	25.4	32.6	36.6	51.4	26.0	43.7	38.5	16.3	42.3	78.1	23.1	41.8	32.0
인터넷	36.7	20.1	32.0	26.4	31.6	35.4	48.9	27.9	45.9	38.5	16.4	44.0	78.1	23.1	33.4	33.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질문해 보았다. 조사 결과 휴대폰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85.1%, '사용 관리를 하지 못해서' 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50.1%, '복잡하고 어려워서' 27.1%,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PC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50.6%, '복잡하고 어려워서' 28.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50.1%, '복잡하고 어려워서' 29.2%로 나타났다. '필요성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정보통신기기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이는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정보화 환경에 대한 노출 빈도가 여전히 낮은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으며, 더불어 '복잡하고 어려워서'의 응답 비중이 모든 기기에서 높게 나타난 것과 스마트폰

에서 특히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정부 및 민간 기관 등에서 정보화 기기 보급 사업 등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에 대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및 기술적 불편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7-3-13〉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구입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0.2	1.5	3.4	1.5	0.2	0.8	1.2	0.7	0.2	0.4	1.5	0.4	0.0	0.7	1.2	1.1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3.0	11.7	1.6	2.4	2.0	7.8	1.1	0.7	4.5	9.3	0.7	2.2	2.0	7.7	1.9	2.1
복잡하고 어려워서	1.7	31.2	30.6	31.5	4.7	20.8	21.8	23.8	3.0	26.9	28.6	28.4	3.6	27.6	29.8	27.7
필요성이 없어서	93.1	49.2	51.0	50.7	79.4	57.6	57.5	56.6	88.7	55.4	54.9	54.4	86.3	55.5	54.7	55.8
배우기 싫어서	0.0	0.9	4.6	4.5	0.1	1.3	1.6	1.4	0.0	0.4	5.2	5.3	0.0	0.8	3.7	3.7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0.1	1.2	3.4	3.6	0.8	0.8	4.6	4.8	0.2	1.6	2.2	2.4	1.0	2.2	3.8	4.1
사용관리를 하지 못해서	2.0	4.1	5.5	5.6	12.5	10.8	12.1	11.9	3.4	5.6	6.9	6.9	7.1	5.5	4.8	5.5
기타	0.0	0.1	0.1	0.1	0.3	0.0	0.2	0.2	0.0	0.3	0.0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82,490	738,857	869,712	847,911	163,481	224,006	232,660	231,144	139,867	167,963	187,012	186,708	146,938	191,074	206,611	203,857

주: 무응답 제외

〈표 7-3-13〉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계속)

(단위: %)

구분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구입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0.0	4.7	2.1	0.0	0.0	0.8	2.2	2.7	0.0	0.0	0.0	0.0	0.0	0.8	0.7	0.6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6.0	9.2	0.0	2.0	2.7	7.0	1.3	1.5	0.0	0.0	0.0	0.0	7.2	13.8	3.3	3.7
복잡하고 어려워서	7.4	33.0	27.5	34.5	5.4	19.2	23.9	24.9	9.5	13.5	16.2	18.2	3.0	20.6	24.1	25.9
필요성이 없어서	73.1	44.5	51.1	50.9	56.7	29.1	26.9	25.2	51.6	36.5	23.3	19.6	71.2	43.9	40.5	39.8
배우기 싫어서	0.0	0.0	6.6	0.0	0.7	0.4	1.2	1.5	0.0	0.0	0.0	0.0	1.0	2.4	7.4	8.2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0.8	0.8	2.0	1.9	6.3	7.7	16.8	16.7	7.0	7.6	12.7	12.1	0.2	0.3	2.9	3.7
사용관리를 하지 못해서	12.7	7.8	10.8	10.6	28.0	35.7	27.6	27.6	31.9	42.4	47.9	50.2	17.4	18.2	21.2	18.0
기타	0.0	0.0	0.0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530	14,491	14,419	14,638	148,850	123,040	115,584	117,806	17,188	14,118	9,219	9,681	68,541	81,325	77,713	75,752

〈표 7-3-13〉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계속)

(단위: %)

구분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구입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0.7	1.2	2.4	0.0	0.0	7.1	0.0	0.0	17.4	1.5	1.5	1.5	0.0	0.0	2.4	0.0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0.3	10.1	1.6	1.9	0.0	0.0	0.0	0.0	0.0	16.4	4.4	4.4	0.0	15.6	0.0	0.0
복잡하고 어려워서	0.7	21.5	33.4	36.5	0.0	32.8	30.1	30.1	9.2	28.9	19.4	21.2	0.0	47.0	46.4	44.8
필요성이 없어서	96.0	64.1	51.0	51.3	100.0	52.8	63.6	63.6	73.4	43.7	55.6	53.8	100.0	31.4	43.3	44.6
배우기 싫어서	0.0	0.6	6.1	3.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	1.5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0.0	1.1	1.7	1.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	3.4
사용관리를 하지 못해서	2.3	1.5	3.7	4.9	0.0	7.3	6.2	6.2	0.0	9.5	19.1	19.1	0.0	6.0	3.1	5.7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5,250	33,192	40,498	38,894	4,409	4,452	5,203	5,203	4,282	13,223	13,377	13,359	8,312	3,527	6,828	6,628

〈표 7-3-13〉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계속)

(단위: %)

구분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PC	인터넷
구입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1.1	2.3	1.2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0.0	27.8	0.0	0.0	0.0	9.8	1.0	0.0	1.7	2.3	0.0	0.0	2.9	10.0	1.5	2.1
복잡하고 어려워서	0.0	28.9	48.0	48.0	0.0	27.1	34.4	38.0	4.4	17.4	30.6	39.4	2.9	27.1	28.4	29.2
필요성이 없어서	100.0	16.5	52.0	52.0	98.2	61.8	61.9	55.9	77.5	61.0	36.7	32.1	85.1	50.1	50.6	50.1
배우기 싫어서	0.0	0.0	0.0	0.0	0.0	0.0	2.7	2.7	0.0	0.0	0.0	0.0	0.1	0.9	4.0	3.9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0.0	0.0	0.0	0.0	0.0	0.0	0.0	3.3	0.0	0.0	16.1	14.1	1.0	1.8	4.3	4.6
사용관리를 하지 못해서	0.0	26.8	0.0	0.0	1.8	1.4	0.0	0.0	14.4	19.2	16.6	14.5	7.7	8.9	8.8	8.9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1.9	0.0	0.0	0.0	0.1	0.1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89	1,451	659	659	9,472	9,186	12,851	12,851	7,310	5,490	5,680	6,499	1,464,109	1,025,395	1,798,026	1,771,590

주: 무응답 제외

제4절 교육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28.8%, '고등학교' 28.1%, '중학교' 16.2%, '대학이상' 15.3%, 그리고 '무학'이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교육정도인 '초등학교' 32.9%, '고등학교' 25.0%, '중학교' 18.3%, '대학이상' 12.0%, '무학' 11.8%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학'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국민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14.4%, '중학교' 14.5%, '고등학교' 51.7%, '대학이상' 19.4%이다(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인 비중은 장애인이 49.0% 그리고 전체 국민이 71.1%로 장애인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비율은 전체 국민 평균보다 약 22.1%p 낮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 '무학' 비율은 청각장애(19.4%), 뇌병변장애(12.3%), 뇌전증장애(12.0%), 지체장애(11.7%) 등이 비교적 높으며, '대학이상' 비율은 안면장애(34.7%), 정신장애(28.6%), 신장장애(24.3%), 간장애(20.0%)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1〉 교육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무학	11.7	12.3	10.6	19.4	8.8	9.7	5.0	2.2	6.8	10.1	4.5	0.0	11.4	2.9	12.0	11.6
초등학교	30.2	30.2	28.5	33.7	34.4	23.9	21.3	7.8	20.4	18.8	49.6	37.9	10.5	33.4	13.4	28.8
중학교	16.7	16.3	16.1	15.3	15.3	12.9	21.7	19.1	13.7	9.1	24.7	7.6	0.0	17.4	24.7	16.2
고등학교	26.1	25.7	27.9	20.1	25.2	45.6	38.8	42.3	34.7	42.4	11.8	34.5	43.5	36.4	45.2	28.1
대학이상*	15.4	15.5	16.9	11.5	16.2	7.9	13.1	28.6	24.3	19.6	9.4	20.0	34.7	9.8	4.6	1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70	284,918	274,483	275,885	20,931	179,209	18,113	105,001	71,876	8,120	15,984	11,839	3,012	16,706	9,505	2,635,152

주: * 대학이상 - 대학(3년제 이하)에서~대학원 까지 모두 포함
무응답 제외

장애인이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초등학교)는 '일반학교 졸업'이 75.9%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일반학교 중퇴'(8.0%), '특수학교 졸업'(1.9%),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졸업'(1.5%) 등이 뒤를 잇고 있다(다니지 않음 제외. 이하동일). 일반학교 졸업 현황을 장애유형별로 볼 때, 정신장애(95.1%), 간장애(90.3%), 신장장애(88.7%)는 일반학교 졸업 비율이 높은데 비해 자폐성장애(35.5%), 지적장애(43.6%), 청각장애(65.7%)는 그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7-4-2〉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초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일반학교	재학	0.0	0.0	0.3	0.4	1.4	0.4	6.2	0.0	0.0	0.0	0.0	0.0	0.0	0.0	0.0	0.2
	중퇴	8.2	9.1	7.0	9.9	3.4	8.7	0.0	1.6	4.5	16.9	18.5	9.7	0.0	9.8	2.3	8.0
	졸업	79.7	74.7	79.9	65.7	84.3	43.6	35.5	95.1	88.7	73.0	77.0	90.3	88.6	87.2	73.8	75.9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재학	0.0	0.5	0.2	0.2	0.0	3.2	9.6	0.0	0.0	0.0	0.0	0.0	0.0	0.0	1.3	0.4
	중퇴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졸업	0.1	0.4	0.3	0.2	0.6	18.0	18.3	0.3	0.0	0.0	0.0	0.0	0.0	0.0	10.6	1.5
특수학교	재학	0.0	0.5	0.0	0.0	0.0	1.0	5.5	0.0	0.0	0.0	0.0	0.0	0.0	0.0	0.0	0.2
	중퇴	0.1	0.8	0.0	0.1	0.0	1.4	0.0	0.3	0.0	0.0	0.0	0.0	0.0	0.0	0.0	0.2
	졸업	0.1	1.6	1.6	3.8	1.6	14.2	19.9	0.6	0.0	0.0	0.0	0.0	0.0	0.0	0.0	1.9
검정고시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다니지않음		11.7	12.4	10.6	19.4	8.8	9.7	5.0	2.2	6.8	10.1	4.5	0.0	11.4	2.9	12.0	1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70	284,918	274,483	275,885	20,931	179,209	18,113	105,001	71,876	8,120	15,984	11,839	3,012	16,706	9,505	2,635,152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이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중학교)도 앞의 초등학교에서와 같이 '일반학교 졸업'이 52.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반학교 중퇴'(2.9%)와 '특수학교 졸업'(2.0%) 비율 순서이다.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졸업'의 경우는 장애특성을 반영하듯 자폐성장애(30.5%), 지적장애(15.6%), 청각장애(4.3%) 의 응답비중이 높았다.

〈표 7-4-3〉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중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일반학교	재학	0.1	0.0	0.2	0.1	2.4	1.1	4.0	0.4	0.0	0.0	0.0	0.0	0.0	0.0	0.0	0.2
	중퇴	3.1	2.1	3.4	3.6	1.0	1.3	0.0	4.3	2.1	3.8	0.0	1.8	0.0	0.0	5.9	2.9
	졸업	54.4	53.6	55.0	38.1	52.4	31.6	22.1	82.6	70.1	67.3	45.8	59.9	78.1	63.6	54.9	52.7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재학	0.0	0.3	0.1	0.0	0.6	3.6	7.4	0.3	0.0	0.0	0.0	0.0	0.0	0.0	5.6	0.4
	중퇴	0.0	0.0	0.0	0.0	0.0	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졸업	0.1	0.1	0.0	0.5	0.0	14.3	16.5	0.2	0.0	0.0	0.0	0.0	0.0	0.0	5.1	1.1
특수학교	재학	0.0	0.4	0.2	0.0	0.0	2.0	14.8	0.0	0.0	0.0	0.0	0.0	0.0	0.0	0.0	0.3
	중퇴	0.0	0.0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졸업	0.0	1.3	2.1	4.3	1.6	15.6	30.5	0.4	0.0	0.0	0.0	0.0	0.0	0.0	4.1	2.0
대안학교	재학	-	-	-	-	-	-	-	-	-	-	-	-	-	-	-	-
	중퇴	0.0	0.0	0.0	0.0	0.0	0.0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졸업	0.0	0.0	0.1	0.0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검정고시		0.4	0.4	0.2	0.4	0.0	0.0	2.6	1.4	0.5	0.0	0.0	0.4	0.0	0.0	0.0	0.4
다니지않음		41.9	41.7	38.8	52.7	42.0	29.5	1.8	10.0	27.3	28.9	54.2	37.9	21.9	36.4	24.4	3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338,606	281,167	272,964	273,819	20,483	168,908	13,595	105,002	71,876	8,121	15,984	11,839	3,012	16,706	9,377	2,611,459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이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고등학교)는 '일반학교 졸업'이 37.7%로 비중이 가장 많다. 절대적 비율은 낮지만 '일반학교 중퇴'(2.5%), '특수학교 졸업'(1.7%),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졸업'(0.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반학교 졸업' 현황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61.9%), 신장장애(54.9%), 간장애(53.7%), 안면장애(49.7%)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4-4〉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고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일반학교	재학	0.0	0.3	0.4	0.1	1.2	0.8	5.5	0.5	0.0	0.0	0.0	0.0	15.0	0.0	0.0	0.2
	중퇴	2.6	1.7	1.1	1.0	0.0	3.3	0.0	7.8	3.6	18.7	0.0	0.8	13.4	3.6	7.6	2.5
	졸업	38.3	38.2	41.5	26.4	41.9	21.2	11.4	61.9	54.9	43.4	21.2	53.7	49.7	42.6	36.3	37.7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재학	0.0	0.0	0.0	0.0	0.0	6.6	13.3	0.0	0.0	0.0	0.0	0.0	0.0	0.0	0.0	0.5
	중퇴	-	-	-	-	-	-	-	-	-	-	-	-	-	-	-	-
	졸업	0.0	0.1	0.0	0.5	0.0	10.0	12.2	0.0	0.0	0.0	0.0	0.0	0.0	0.0	5.4	0.7
특수학교	재학	0.0	0.5	0.1	0.3	0.0	4.4	9.3	0.0	0.0	0.0	0.0	0.0	0.0	0.0	0.0	0.4
	중퇴	0.0	0.0	0.0	0.2	0.0	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졸업	0.0	0.8	2.1	2.8	0.5	14.2	42.2	0.4	0.0	0.0	0.0	0.0	0.0	0.0	4.3	1.7
대안학교	재학	-	-	-	-	-	-	-	-	-	-	-	-	-	-	-	-
	중퇴	-	-	-	-	-	-	-	-	-	-	-	-	-	-	-	-
	졸업	0.0	0.2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검정고시		0.5	0.4	0.0	0.5	0.0	0.0	0.0	0.7	0.5	0.0	0.0	0.0	0.0	0.0	0.0	0.4
다니지않음		58.5	57.9	54.8	68.1	56.4	39.2	6.1	28.7	41.0	38.0	78.8	45.5	21.9	53.8	46.5	5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6,857	278,967	271,669	273,549	19,871	157,562	10,017	104,321	71,876	8,120	15,984	11,840	3,012	16,705	8,850	2,589,200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70.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함'(13.0%)과 '심한 장애'(6.8%)가 그 뒤를 잇고 있어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 의무교육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시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위의 세 가지 장애인 미취학 및 학교 중도포기 사유는 정부의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최소로 줄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장애인 교육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심한 장애'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49.5%), 안면장애(29.8%), 정신장애(26.3%)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5〉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심한 장애로 인해서	2.2	6.6	4.3	10.0	19.7	49.5	19.6	26.3	2.7	2.6	0.9	0.0	29.8	0.0	16.6	6.8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14.3	14.9	10.8	12.8	2.2	6.2	0.0	3.1	12.6	23.1	17.1	0.0	0.0	3.1	1.4	13.0
다니기 싫어서	5.2	7.5	6.4	4.4	4.0	10.3	0.0	19.6	3.3	3.8	4.2	1.8	37.9	0.0	1.8	5.9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75.0	67.0	74.6	69.7	61.8	16.9	0.0	43.4	79.0	70.6	73.8	98.2	32.3	96.9	72.6	70.1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1.3	1.6	1.7	1.2	0.0	3.9	0.0	0.0	2.1	0.0	2.6	0.0	0.0	0.0	0.0	1.5
학교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0.0	0.2	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편의제공이 부족해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위의 시선 및 편견 때문에	0.7	0.7	0.4	0.6	10.9	8.1	28.3	6.6	0.0	0.0	0.0	0.0	0.0	0.0	7.5	1.2
기타	1.3	1.6	1.1	1.3	1.5	5.0	52.1	0.9	0.4	0.0	1.4	0.0	0.0	0.0	0.0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06,864	164,590	150,664	186,494	11,368	67,423	1,274	35,531	30,808	4,600	12,603	5,487	1,062	9,124	4,783	1,492,675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는 '일반보육시설' 14.1%, '통합보육시설' 9.8%, '장애아전담보육시설' 6.5% 순이다. 장애유형별로 볼 때 '일반보육시설'에는 뇌병변장애(23.4%)와 청각장애(14.9%)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니고 있고 '통합보육시설'에는 자폐성장애(22.4%), 지적장애(16.3%)가 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는 뇌병변장애(19.8%)와 자폐성장애(8.0%)의 비중이 높았다.

〈표 7-4-6〉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일반보육시설	0.0	23.4	0.0	14.9	51.1	10.7	5.7	-	-	0.0	-	-	-	-	0.0	14.1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0.0	3.0	0.0	0.0	0.0	16.3	22.4	-	-	0.0	-	-	-	-	0.0	9.8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0.0	19.8	0.0	0.0	0.0	0.0	8.0	-	-	0.0	-	-	-	-	0.0	6.5
다니지 않음	100.0	53.9	100.0	85.1	48.9	73.1	63.8	-	-	100.0	-	-	-	-	100.0	6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100.0	100.0
전국 추정수	963	7,701	990	3,200	918	9,972	4,340	-	-	336	-	-	-	-	387	28,807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은 '6~10시간'이 67.2%로 '1~5시간'(32.8%)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87.1%), 뇌병변장애(83.0%), 청각장애(71.8%)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긴 것으

로 나타났다(6~10시간). 이에 비해 언어장애(100.0%)와 자폐성장애(84.3%)는 짧은 이용시간(1~5시간) 비중이 높았다. 장애인의 평균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6.5시간이다.

〈표 7-4-7〉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시간,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5시간	-	17.0	-	28.2	100.0	12.9	84.3	-	-	-	-	-	-	-	-	32.8
6~10시간	-	83.0	-	71.8	0.0	87.1	15.7	-	-	-	-	-	-	-	-	67.2
계	-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	-	-	-	100.0
평균이용시간	-	7.3	-	5.7	5.0	7.7	3.2	-	-	-	-	-	-	-	-	6.5
전국추정수	-	3,553	-	478	469	2,687	1,569	-	-	-	-	-	-	-	-	8,756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은 '무료'인 경우가 36.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16~20만원'(30.5%), '6~10만원'(16.7%), '1~5만원'(8.2%), '11~15만원'(7.9%) 순이다. 월 평균 비용이 '무료'인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다수 장애유형이 무료인데 비해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 자부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은 약 8.2만원이다.

〈표 7-4-8〉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

(단위: %, 만원,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무 료	-	28.7	-	100.0	0.0	12.5	87.9	-	-	-	-	-	-	-	-	36.7
1~5만원	-	10.4	-	0.0	0.0	5.9	12.1	-	-	-	-	-	-	-	-	8.2
6~10만원	-	10.2	-	0.0	0.0	41.0	0.0	-	-	-	-	-	-	-	-	16.7
11~15만원	-	0.0	-	0.0	100.0	8.4	0.0	-	-	-	-	-	-	-	-	7.9
16~20만원	-	50.7	-	0.0	0.0	32.3	0.0	-	-	-	-	-	-	-	-	30.5
계	-	100.0	-	100.0	100.0	100.0	1.0	-	-	-	-	-	-	-	-	100.0
평균비용	-	10.0	-	0.0	14.0	10.8	0.4	-	-	-	-	-	-	-	-	8.2
전국추정수	-	3,553	-	478	469	2,687	1,569	-	-	-	-	-	-	-	-	8,756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대체로 만족'(39.3%) 비율이 가장 많고 다음이 '매우 만족'(25.9%), '약간 불만족'(24.6%), '매우 불만족'(10.2%) 순서이다. 장애유형별로 '매우 만족'의 비율은 청각장애가 71.8%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35.4%), 지적장애(35.1%), 뇌병변장애(12.0%)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7-4-9〉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만족	-	12.0	-	71.8	0.0	35.1	35.4	-	-	-	-	-	-	-	-	25.9
대체로 만족	-	37.1	-	28.2	100.0	18.8	64.6	-	-	-	-	-	-	-	-	39.3
약간 불만족	-	40.5	-	0.0	0.0	26.7	0.0	-	-	-	-	-	-	-	-	24.6
매우 불만족	-	10.4	-	0.0	0.0	19.4	0.0	-	-	-	-	-	-	-	-	10.2
계	-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	-	-	-	100.0
전국 추정수	-	3,553	-	478	469	2,687	1,569	-	-	-	-	-	-	-	-	8,756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가 65.7%로 비중이 가장 많고 다음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17.8%), '믿지 못해서'(2.6%), '다른 방법이 있어서'(2.3%), '시설이 없어서'(2.2%) 등의 순서이다. 지적장애의 경우 '시설이 없어서'(5.9%)나 '믿지 못해서'(7.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4-10〉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시설이 없어서	0.0	0.0	0.0	0.0	0.0	5.9	0.0	-	-	0.0	-	-	-	-	0.0	2.2
믿지 못해서	0.0	0.0	0.0	0.0	0.0	7.0	0.0	-	-	0.0	-	-	-	-	0.0	2.6
다른 방법이 있어서	0.0	0.0	0.0	16.9	0.0	0.0	0.0	-	-	0.0	-	-	-	-	0.0	2.3
비용부담때문에	0.0	0.0	0.0	6.1	0.0	0.0	0.0	-	-	0.0	-	-	-	-	0.0	0.8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	0.0	39.4	0.0	19.6	36.8	9.6	10.2	-	-	0.0	-	-	-	-	67.2	17.8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81.0	47.0	100.0	50.2	63.2	71.2	89.8	-	-	0.0	-	-	-	-	32.8	65.7
공동육아를 하고 있어서	0.0	0.0	0.0	0.0	0.0	6.2	0.0	-	-	0.0	-	-	-	-	0.0	2.2
기타	19.0	13.6	0.0	7.2	0.0	0.0	0.0	-	-	100.0	-	-	-	-	0.0	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100.0	100.0
전국 추정수	963	4,149	990	2,723	448	7,286	2,771	-	-	336	-	-	-	-	387	20,053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형태는 '다니지 않음'을 제외하면 '일반유치원' 5.5%,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4.7%, '특수학교 유치원(부)' 2.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의 경우 '일반유치원'(9.5%),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6.7%), '특수학교 유치원(부)'(5.0%)에 비교적 골고루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11〉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일반유치원	-	9.5	-	11.5	18.0	3.2	0.0	-	-	-	-	-	-	-	0.0	5.5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	6.7	-	5.2	0.0	3.8	6.5	-	-	-	-	-	-	-	0.0	4.7
특수학교 유치원(부)	-	5.0	-	0.0	0.0	0.0	0.0	-	-	-	-	-	-	-	67.2	2.2
기타	-	-	-	-	-	-	-	-	-	-	-	-	-	-	-	-
다니지 않음	100.0	78.8	100.0	83.3	82.0	93.0	93.5	-	-	100.0	-	-	-	-	32.8	8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100.0	100.0
전국 추정수	963	7,702	990	3,201	917	9,973	4,340	-	-	336	-	-	-	-	387	28,809

장애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은 '1~5시간'이 66.6%로 '6~10시간'(33.4%)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 '1~5시간' 이용하는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장애가 100.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뇌병변장애(95.0%), 지적장애(54.4%), 청각장애(31.1%) 순서이다.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 전체 평균은 5.1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7-4-12〉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시간,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5시간	-	95.0	-	31.1	-	54.4	100.0	-	-	-	-	-	-	-	-	66.6
6~10시간	-	5.0	-	68.9	100.0	45.6	-	-	-	-	-	-	-	-	100.0	33.4
계	-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	-	-	-	100.0
평균이용시간	-	4.3	-	6.1	6.0	6.4	4.0	-	-	-	-	-	-	-	6.0	5.1
전국추정수	-	1,634	-	534	165	699	282	-	-	-	-	-	-	-	260	3,574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월 평균 비용은 '무료'가 6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담을 하는 경우는 뇌병변장애의 경우 '1~5만원'(24.8%)과 '11~15만원'(14.7%)을 지출하였다. 청각장애의 경우 '21만원 이상'의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68.9%였고, 언어장애의 경우에 '6~10만원'(100.0%)을 지출하여 유치원 월 평균 비용은 4.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7-4-13〉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월 평균 비용

(단위: %, 만원,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무료	-	60.4	-	31.1	-	100.0	100.0	-	-	-	-	-	-	-	100.0	67.0
1~5만원	-	24.8	-	-	-	-	-	-	-	-	-	-	-	-	-	11.4
6~10만원	-	-	-	-	100.0	-	-	-	-	-	-	-	-	-	-	4.6
11~15만원	-	14.7	-	-	-	-	-	-	-	-	-	-	-	-	-	6.7
16~20만원	-	-	-	-	-	-	-	-	-	-	-	-	-	-	-	-
21만원 이상	-	-	-	68.9	-	-	-	-	-	-	-	-	-	-	-	10.3
계	-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	-	-	100.0	100.0
평균비용	-	3.5	-	15.8	10.0	0.0	0.0	-	-	-	-	-	-	-	0.0	4.4
전국추정수	-	1,634	-	534	165	699	282	-	-	-	-	-	-	-	260	3,574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는 모든 응답자가 '매우 만족'(65.6%)과 '대체로 만족'(34.4%)을 답해 유치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 '매우 만족' 응답비율은 언어장애와 자폐성장애가 100.0%로 매우 높고 다음이 뇌병변장애(80.6%)와 지적장애(45.6%) 순서이다.

〈표 7-4-14〉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만족	-	80.6	-	-	100.0	45.6	100.0	-	-	-	-	-	-	-	100.0	65.6
대체로 만족	-	19.4	-	100.0	-	54.4	-	-	-	-	-	-	-	-	-	34.4
약간 불만족	-	-	-	-	-	-	-	-	-	-	-	-	-	-	-	-
매우 불만족	-	-	-	-	-	-	-	-	-	-	-	-	-	-	-	-
계	-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	-	-	-	100.0
전국추정수	-	1,634	-	534	165	699	282	-	-	-	-	-	-	-	260	3,574

현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가 53.3%,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어서'가 32.6%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믿지 못해서'(2.0%), '다른 방법이 있어서'(1.8%), '공동육아를 하고 있어서'(1.8%), '시설이 없어서'(1.7%)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지적장애의 경우 '믿지 못해서'(5.5%), '공동육아를 하고 있어서'(4.9%), '시설이 없어서'(4.7%) 가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4-15〉 현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시설이 없어서	-	-	-	-	-	4.7	-	-	-	-	-	-	-	-	-	1.7
믿지 못해서	-	-	-	-	-	5.5	-	-	-	-	-	-	-	-	-	2.0
다른 방법이 있어서	-	-	-	17.2	-	-	-	-	-	-	-	-	-	-	-	1.8
비용부담때문에	-	-	-	-	-	-	-	-	-	-	-	-	-	-	-	-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어서	-	52.6	-	17.9	62.4	29.0	34.8	-	-	-	-	-	-	-	-	32.6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81.0	38.1	100.0	57.5	37.6	56.0	55.3	-	-	-	-	-	-	-	100.0	53.3
공동육아를 하고 있어서	-	-	-	-	-	4.9	-	-	-	-	-	-	-	-	-	1.8
기타	19.0	9.3	-	7.4	-	-	9.9	-	-	100.0	-	-	-	-	-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963	6,068	990	2,667	752	9,274	4,059	-	-	336	-	-	-	-	127	25,236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 적응정도는 '잘 적응하는 편'이 64.8%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은 '잘 적응 못하는 편'(21.5%), '매우 잘 적응'(11.3%), '전혀 적응 못함'(2.3%)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혀 적응 못하는'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의 부적응 정도가 가장 높고(22.4%), 자폐성장애(5.1%)와 지적장애(2.2%)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4-16〉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 적응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전혀 적응 못함	0.0	0.0	0.0	0.0	0.0	2.2	5.1	22.4	-	-	-	-	0.0	-	0.0	2.3
잘 적응 못하는 편	15.2	7.1	28.2	26.8	0.0	19.6	34.6	43.7	-	-	-	-	86.1	-	50.5	21.5
잘 적응 하는 편	65.1	83.1	51.7	63.7	100.0	67.0	48.1	33.9	-	-	-	-	0.0	-	49.5	64.8
매우 잘 적응	19.6	9.8	20.1	9.5	0.0	11.2	12.3	0.0	-	-	-	-	13.9	-	0.0	1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100.0	-	100.0	100.0
전국 추정수	3,162	11,592	3,839	3,600	1,194	38,962	11,750	1,210	-	-	-	-	452	-	1,298	77,059

주: 무응답 제외

보육시설·유치원·학교생활의 문제점(1순위)은 '수업내용의 이해(진도 따라가기)'가 26.3%로 응답비율이 가장 많고 '친구들의 이해 부족, 놀림'(20.9%), '특수교사의 부족'(10.8%),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7.3%)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주요 문제점들을 장애유형별로 보면 안면장애의 경우 '친구들의 이해 부족, 놀림' 응답비율이 86.1%로 절대적으로 높고 정신장애도 그 비율이 77.6%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업내용의 이해(진도 따라가기)'가 주요 문제점이라는 응답비율은 언어장애(43.5%), 지

적장애(35.4%), 자폐성장애(31.0%)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7-4-17〉 보육시설·유치원·학교생활의 문제점(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친구들의 이해부족, 놀림	8.0	10.2	13.5	37.7	12.8	24.1	17.0	77.6	-	-	-	-	86.1	-	0.0	20.9
선생님의 이해부족, 편견	0.0	10.4	0.0	0.0	0.0	2.2	1.5	0.0	-	-	-	-	0.0	-	0.0	2.9
선생님의 지나친 배려	-	-	-	-	-	-	-	-	-	-	-	-	-	-	-	-
수업내용의 이해(진도 따라가기)	12.9	3.8	14.4	4.4	43.5	35.4	31.0	0.0	-	-	-	-	0.0	-	70.5	26.3
교육도구나 기자재 사용시 불편	0.0	0.0	13.1	0.0	0.0	1.5	6.8	0.0	-	-	-	-	0.0	-	0.0	2.5
교육내용의 부적합	0.0	11.7	0.0	0.0	0.0	3.4	8.4	0.0	-	-	-	-	0.0	-	0.0	4.8
청소나 학교행사 참여	-	-	-	-	-	-	-	-	-	-	-	-	-	-	-	-
특수교사의 부족	0.0	11.6	8.5	19.1	0.0	10.8	12.7	22.4	-	-	-	-	0.0	-	0.0	10.8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	19.7	15.1	11.5	7.1	7.2	4.6	5.3	0.0	-	-	-	-	0.0	-	0.0	7.3
학교내 편의시설 부족	5.6	3.6	5.4	8.9	0.0	2.3	3.6	0.0	-	-	-	-	0.0	-	0.0	3.2
등하교 불편	24.2	11.4	10.5	0.0	0.0	4.8	0.0	0.0	-	-	-	-	0.0	-	0.0	5.8
문제 없음	29.5	22.4	23.0	22.9	36.4	7.4	11.4	0.0	-	-	-	-	13.9	-	29.5	13.6
기타	0.0	0.0	0.0	0.0	0.0	3.3	2.1	0.0	-	-	-	-	0.0	-	0.0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100.0	-	100.0	100.0
전국 추정수	3,494	12,335	4,339	3,728	1,287	40,190	11,748	1,210	-	-	-	-	452	-	1,298	80,081

주: 무응답 제외

보육시설·유치원·학교까지의 통학방법은 '도보'(30.1%), '통학버스'(20.7%), '자가용(보호자운전)'(19.2%), '일반버스'(13.3%) 등의 순서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의 경우 '도보'(25.9%)와 '자가용(보호자운전)'(20.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시각장애는 '도보'(48.8%)와 '자가용(보호자운전)'(15.4%)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7-4-18〉 보육시설·유치원·학교까지의 통학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일반버스	11.5	5.9	5.2	0.0	0.0	19.7	11.1	0.0	-	-	-	-	0.0	-	0.0	13.3
일반택시	12.9	0.0	0.0	0.0	0.0	0.8	0.0	0.0	-	-	-	-	0.0	-	0.0	1.0
지하철·전철	0.0	0.0	10.5	7.2	0.0	1.4	0.0	0.0	-	-	-	-	0.0	-	0.0	1.6
통학버스	5.9	16.2	8.5	25.5	35.7	21.7	26.8	0.0	-	-	-	-	0.0	-	49.5	20.7
장애인 콜택시	0.0	8.9	0.0	0.0	0.0	0.0	0.0	0.0	-	-	-	-	0.0	-	0.0	1.3
복지관버스	0.0	1.9	0.0	0.0	0.0	0.0	2.4	0.0	-	-	-	-	13.9	-	0.0	0.7
자가용(본인운전)	6.8	0.0	0.0	0.0	0.0	1.0	1.5	0.0	-	-	-	-	0.0	-	0.0	1.1
자가용(보호자운전)	20.8	28.5	15.4	6.2	6.8	15.8	28.9	0.0	-	-	-	-	0.0	-	40.7	19.2
셔틀형복지버스	16.3	6.0	11.5	3.4	32.8	9.2	0.0	0.0	-	-	-	-	0.0	-	0.0	7.8
전동휠체어	-	-	-	-	-	-	-	-	-	-	-	-	-	-	-	-
전동스쿠터	-	-	-	-	-	-	-	-	-	-	-	-	-	-	-	-
도보	25.9	25.5	48.8	53.3	24.7	28.1	26.6	100.0	-	-	-	-	0.0	-	9.8	30.1
기타	0.0	7.2	0.0	4.4	0.0	2.3	2.8	0.0	-	-	-	-	86.1	-	0.0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100.0	-	100.0	100.0
전국 추정수	3,776	12,332	4,340	3,728	1,777	42,392	11,748	1,210	-	-	-	-	452	-	1,298	83,053

방과 후의 시간사용은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보냄'이라는 응답비율이 48.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유치원, 학교의 방과 후 활동참여'(15.3%), '학원'(8.8%), '복지시설(기관)'(8.4%)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집에서 혼자 지냄'으로 응답한 경우를 장애유형별 순서로 보면 정신장애(43.7%), 뇌병변장애(14.5%), 시각장애(14.4%), 안면장애(13.9%), 자폐성장애(8.3%)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7-4-19〉 방과 후의 시간사용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집에서 혼자 지냄	6.0	14.5	14.4	0.0	0.0	3.9	8.3	43.7	-	-	-	-	13.9	-	0.0	7.1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보냄	31.8	43.8	11.0	57.1	16.1	52.8	50.8	56.3	-	-	-	-	86.1	-	100.0	48.4
장애부모들이 운영하는 공동육아시설	-	-	-	-	-	-	-	-	-	-	-	-	-	-	-	-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0.0	1.9	0.0	0.0	0.0	4.4	9.7	0.0	-	-	-	-	0.0	-	0.0	3.9
일반보육시설	0.0	0.0	0.0	0.0	26.4	2.2	0.0	0.0	-	-	-	-	0.0	-	0.0	1.7
가정에서 방문교사 지도	0.0	4.7	0.0	0.0	15.9	0.9	3.9	0.0	-	-	-	-	0.0	-	0.0	2.0
복지시설(기관)	0.0	9.4	0.0	4.5	0.0	12.6	2.3	0.0	-	-	-	-	0.0	-	0.0	8.4
학원	35.2	3.7	41.1	35.0	8.8	3.0	8.8	0.0	-	-	-	-	0.0	-	0.0	8.8
유치원,학교의 방과 후 활동참여	16.3	8.4	25.1	3.4	32.8	18.1	13.8	0.0	-	-	-	-	0.0	-	0.0	15.3
기타	10.8	13.6	8.5	0.0	0.0	2.1	2.2	0.0	-	-	-	-	0.0	-	0.0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100.0	-	100.0	100.0
전국 추정수	3,776	12,332	4,340	3,728	1,777	42,392	11,748	1,210	-	-	-	-	452	-	1,298	83,053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비교적 고른 응답비율을 보였다. 주요 필요사항은 '장애아동 돌봄지원서비스 확대'(17.4%), '고등교육 지원 강화'(17.3%), '자신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15.6%),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대'(15.2%),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확대'(14.0%) 등으로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는 '고등교육 지원 강화'(29.0%), '자신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22.0%), '장애아동 돌봄지원서비스 확대'(21.2%) 등이 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적장애는 '고등교육 지원 강화'(20.0%),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대'(19.6%) '자신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17.0%) 등을 향후 보육·교육시 주요 필요사항으로 답하였다.

〈표 7-4-20〉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의료비용 경감	20.0	14.4	24.9	45.1	0.0	7.5	0.0	0.0	-	-	-	-	0.0	-	0.0	10.0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확대	0.0	16.8	0.0	4.6	33.8	8.0	14.4	0.0	-	-	-	-	0.0	-	29.5	10.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7.8	8.9	0.0	9.2	66.2	19.6	12.6	0.0	-	-	-	-	0.0	-	9.8	15.2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0.0	13.7	24.1	13.2	0.0	11.4	18.4	77.6	-	-	-	-	0.0	-	20.0	14.0
장애아동 돌봄지원서비스 확대	21.2	26.5	11.9	8.3	0.0	16.4	16.8	0.0	-	-	-	-	0.0	-	40.7	17.4
고등교육 지원 강화	29.0	6.2	18.6	19.6	0.0	20.0	17.8	0.0	-	-	-	-	100.0	-	0.0	17.3
자신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	22.0	13.5	20.6	0.0	0.0	17.0	18.1	22.4	-	-	-	-	0.0	-	0.0	15.6
기타	0.0	0.0	0.0	0.0	0.0	0.0	1.8	0.0	-	-	-	-	0.0	-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100.0	-	100.0	100.0
전국 추정수	2,906	11,593	3,382	3,600	1,193	38,033	11,749	1,210	-	-	-	-	452	-	1,298	75,416

주: 무응답 제외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장애자녀를 위한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가입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54.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생각해보지 않음'과 '없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27.7%와 18.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개인연금상품 가입 의향이 가장 큰 유형은 뇌전증장애(80.0%), 지체장애(77.8%)이며, 다음이 청각장애(73.6%), 시각장애(65.5%), 뇌병변장애(62.2%) 등의 순이다.

〈표 7-4-21〉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장애자녀를 위한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 의향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있다	77.8	62.2	65.5	73.6	49.4	48.1	57.0	0.0	-	-	-	-	0.0	-	80.0	54.3
없다	0.0	22.8	7.8	11.6	0.0	17.0	21.7	43.7	-	-	-	-	100.0	-	20.0	18.0
생각해보지않음	22.2	15.0	26.6	14.8	50.6	34.9	21.3	56.3	-	-	-	-	0.0	-	0.0	2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100.0	-	100.0	100.0
전국 추정수	2,906	11,593	3,382	3,600	1,193	38,033	11,749	1,210	-	-	-	-	452	-	1,298	75,416

주: 무응답 제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의 경우 장애인 대부분이 참여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참여 경험 97.4% 이상). 미약한 수치지만 각 프로그램별 참여 경험정도를 보면, 문화·체육·예술 교육(2.6%), 직업능력 향상교육(1.4%), 성인 기초 및 문자

해득교육(0.4%)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 자폐성장애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예술 교육(15.7%), 직업능력 향상교육(11.3%), 학력보완교육(4.2%)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2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학력보완교육																
있음	0.2	0.2	0.0	0.4	0.0	0.9	4.2	1.1	0.9	0.0	0.0	0.0	0.0	0.0	0.0	0.3
없음	99.8	99.8	100.0	99.6	100.0	99.1	95.8	98.9	99.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7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있음	0.3	0.2	0.4	0.2	1.2	1.3	0.0	1.1	0.0	0.0	2.1	0.0	0.0	0.0	0.0	0.4
없음	99.7	99.8	99.6	99.8	98.8	98.7	100.0	98.9	100.0	100.0	97.9	100.0	100.0	100.0	100.0	99.6
직업능력 향상교육																
있음	1.1	0.4	1.9	0.2	1.2	5.0	11.3	5.0	1.2	0.0	0.0	0.0	21.6	2.7	5.4	1.4
없음	98.9	99.6	98.1	99.8	98.8	95.0	88.7	95.0	98.8	100.0	100.0	100.0	78.4	97.3	94.6	98.6
인문교양 교육																
있음	0.9	0.7	0.4	0.2	0.0	1.0	2.5	1.3	2.9	0.0	0.0	0.0	0.0	2.2	0.0	0.8
없음	99.1	99.3	99.6	99.8	100.0	99.0	97.5	98.7	97.1	100.0	100.0	100.0	100.0	97.8	100.0	99.2
문화·체육·예술 교육																
있음	2.7	1.2	3.5	2.6	0.9	3.0	15.7	1.4	2.6	0.0	3.2	6.5	0.0	0.0	0.0	2.6
없음	97.3	98.8	96.5	97.4	99.1	97.0	84.3	98.6	97.4	100.0	96.8	93.5	100.0	100.0	100.0	97.4
시민참여 교육																
있음	0.3	0.2	0.6	0.0	0.0	0.4	0.0	0.2	0.3	0.0	0.0	0.0	0.0	0.0	0.0	0.3
없음	99.7	99.8	99.4	100.0	100.0	99.6	100.0	99.8	9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335,866	276,819	270,144	273,048	19,622	138,912	6,842	103,792	71,876	8,003	15,984	11,839	2,560	16,705	8,849	2,560,861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는 1개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비율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96.6%), 학력보완교육(95.4%), 문화·체육·예술 교육(72.7%), 인문교양 교육(72.1%) 등의 순서이다. 여러 프로그램들 중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체육·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참여프로그램 수가 2개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의 경우 인문교양 교육과 문화·체육·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이수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서 이들 주제에 대해 지적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4-23〉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학력보완교육																
1개	92.1	100.0	-	100.0	-	89.8	100.0	100.0	100.0	-	-	-	-	-	-	95.4
2개	0.0	0.0	-	0.0	-	10.2	0.0	0.0	0.0	-	-	-	-	-	-	1.7
3개 이상	7.9	0.0	-	0.0	-	0.0	0.0	0.0	0.0	-	-	-	-	-	-	3.0
계	100.0	100.0	-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	-	100.0
전국 추정수	2,874	480	-	1,070	-	1,264	286	1,102	612	-	-	-	-	-	-	7,688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1개	100.0	100.0	100.0	100.0	0.0	100.0	-	93.2	-	-	100.0	-	-	-	-	96.6
2개	0.0	0.0	0.0	0.0	100.0	0.0	-	6.8	-	-	0.0	-	-	-	-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	-	-	-	100.0
전국 추정수	3,710	510	1,208	502	243	1,840	-	1,182	-	-	328	-	-	-	-	9,523
직업능력 향상교육																
1개	56.9	41.4	73.7	100.0	0.0	89.3	19.4	100.0	26.7	-	-	-	100.0	100.0	100.0	71.3
2개	29.5	58.6	20.7	0.0	0.0	3.6	80.6	0.0	73.3	-	-	-	0.0	0.0	0.0	20.5
3개 이상	13.5	0.0	5.6	0.0	100.0	7.1	0.0	0.0	0.0	-	-	-	0.0	0.0	0.0	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4,805	1,028	5,261	470	243	6,906	773	5,160	891	-	-	-	552	446	476	37,011
인문교양 교육																
1개	60.0	100.0	100.0	0.0	-	64.0	100.0	100.0	100.0	-	-	-	-	100.0	-	72.1
2개	14.3	0.0	0.0	100.0	-	36.0	0.0	0.0	0.0	-	-	-	-	0.0	-	13.4
3개 이상	25.7	0.0	0.0	0.0	-	0.0	0.0	0.0	0.0	-	-	-	-	0.0	-	14.5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100.0	-	100.0
전국 추정수	11,381	1,927	963	577	-	1,389	168	1,314	2,050	-	-	-	-	364	-	20,133
문화·체육·예술 교육																
1개	79.6	66.8	47.7	78.3	0.0	49.8	100.0	72.7	85.9	-	100.0	85.2	-	-	-	72.7
2개	10.3	22.9	23.1	20.4	100.0	27.0	0.0	0.0	14.1	-	0.0	14.8	-	-	-	14.8
3개	3.6	4.1	8.1	0.0	0.0	7.0	0.0	15.1	0.0	-	0.0	0.0	-	-	-	4.1
4개	4.2	0.0	0.0	0.0	0.0	0.0	0.0	12.2	0.0	-	0.0	0.0	-	-	-	2.5
5개 이상	2.4	6.2	21.0	1.3	0.0	16.2	0.0	0.0	0.0	-	0.0	0.0	-	-	-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100.0
전국 추정수	35,995	3,235	9,407	7,035	174	4,138	1,077	1,406	1,853	-	506	772	-	-	-	65,598
시민참여 교육																
1개	64.4	100.0	68.0	-	-	100.0	-	0.0	100.0	-	-	-	-	-	-	69.4
2개	20.4	0.0	9.2	-	-	0.0	-	100.0	0.0	-	-	-	-	-	-	16.7
3개 이상	15.2	0.0	22.8	-	-	0.0	-	0.0	0.0	-	-	-	-	-	-	13.9
계	100.0	100.0	100.0	-	-	100.0	-	100.0	100.0	-	-	-	-	-	-	100.0
전국 추정수	4,064	499	1,639	-	-	500	-	212	238	-	-	-	-	-	-	7,152

지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인부담금은 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다르다. 먼저 '학력보완교육'은 개인부담금이 30.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문화·체육·예술 교육'(21.0만원), '직업능력 향상교육'(15.6만원), '인문교양 교육'(8.7만원), '시민참여교육'(4.8만원) 순서이다. 장애유형별로 볼 때 지적장애는 '학력보완교육'에 31.7만원, '직업능력 향상교육'에 12.8만원 그리고 '문화·체육·예술 교육'에 10.4만원의 개인부담금을 지난 1년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24〉 지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인부담금

(단위: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학력보완교육	67.5	0.0	-	0.0	-	31.7	0.0	0.0	5.0	-	-	-	-	-	-	30.9
성인 기초 및 문자 해득교육	0.0	0.0	26.2	0.0	10.0	0.8	-	0.0	-	-	0.0	-	-	-	-	3.7
직업능력 향상교육	18.0	0.0	2.9	0.0	10.0	12.8	116.4	2.7	26.7	-	-	-	40.0	47.2	72.0	15.6
인문교양 교육	9.0	0.4	8.3	0.5	-	0.0	204.0	0.0	14.0	-	-	-	-	0.0	-	8.7
문화·체육·예술 교육	19.7	23.2	24.0	23.8	0.0	10.4	23.0	0.0	64.8	-	2.0	18.4	-	-	-	21.0
시민참여 교육	8.2	0.0	0.0	-	-	0.0	-	0.0	2.0	-	-	-	-	-	-	4.8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영역은 비록 응답비율은 낮지만 '문화·체육·예술 교육'이 13.0%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직업능력 향상교육'(8.4%), '학력보완교육'(3.6%), '인문교양 교육'(2.7%),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2.4%) 등의 순서이다('없음' 제외). 장애유형들 중 지적장애인이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영역은 '직업능력 향상교육'(23.0%), '문화·체육·예술 교육'(9.1%), '학력보완교육'(4.3%)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표 7-4-25〉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영역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학력보완교육	4.3	1.8	2.7	3.7	3.3	4.3	0.0	2.8	1.7	2.1	5.7	8.2	0.0	1.8	3.1	3.6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2.1	2.5	2.2	4.2	2.1	3.6	3.7	1.2	0.4	0.0	4.4	0.0	0.0	3.6	8.6	2.4
직업능력 향상교육	7.5	4.2	7.0	6.8	14.0	23.0	24.6	16.6	7.4	12.4	0.0	9.2	44.3	3.7	29.3	8.4
인문교양 교육	3.3	2.0	2.4	1.1	0.0	0.7	0.0	4.4	4.2	0.0	3.7	4.8	0.0	3.8	0.0	2.7
문화·체육·예술 교육	14.4	8.2	12.5	15.3	0.0	9.1	14.9	11.2	13.4	15.6	8.6	14.0	14.3	19.2	0.0	13.0
시민참여 교육	2.6	1.5	1.9	2.4	0.0	2.6	0.0	0.8	1.2	0.0	0.0	1.2	15.7	3.6	0.0	2.2
없음	65.9	79.9	71.3	66.6	80.5	56.6	56.8	62.9	71.7	69.8	77.6	62.6	25.7	64.4	59.0	6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328799	276,224	269,101	272,342	19,623	137,758	6,841	103,072	71,284	8,003	15,984	11,839	2,560	16,705	8,850	2548985

주: 무응답 제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28.3%), '학습 보조금 지원'(22.7%),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22.0%), '교육기관까지의 이동 방법지원'(16.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볼 때,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47.4%), '학습 보조금 지원'(16.4%), '교육기관까지의 이동 방법지원'(10.7%) 등이 주를 이루며 자폐성장애인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67.0%)을

가장 필요로 하였다.

〈표 7-4-26〉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	33.0	21.7	28.2	27.9	25.6	10.5	16.5	15.1	26.7	26.1	19.9	47.0	9.3	23.9	9.4	28.3
교육기관까지의 이동 방법지원	15.6	27.8	15.8	12.4	16.6	10.7	6.3	8.5	13.1	35.6	31.5	3.4	15.7	15.7	22.2	16.1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2.6	3.8	4.8	5.4	8.6	7.6	13.0	5.7	4.6	0.0	2.8	0.0	4.1	2.7	3.3	3.8
학습지원인력제공	4.7	5.3	4.4	4.5	2.4	4.3	0.0	5.0	2.3	0.0	0.0	1.8	0.0	6.0	0.0	4.5
학습 보조금 지원	25.2	16.7	21.6	21.0	16.3	16.4	0.0	20.6	29.1	14.8	29.7	18.0	51.6	24.2	14.3	22.7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16.4	21.9	22.8	26.6	28.1	47.4	64.2	43.2	20.3	23.5	13.7	23.4	0.0	21.9	50.8	22.0
기타	2.5	2.8	2.5	2.3	2.3	3.1	0.0	1.9	3.8	0.0	2.5	6.3	19.3	5.7	0.0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32,782	274,774	270,143	271,838	19,623	137,808	6,841	102,617	71,235	8,003	15,984	11,626	2,561	16,706	8,849	954,430

주: 무응답 제외

제5절 취업 및 직업생활

1. 취업률 및 실업률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0%로, 2011년의 38.5%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6.6%로 2011년도의 35.5%에 비해 1.1% 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6.3%로 2011년도 장애인 실업률 7.8%에 비해 1.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3.5%에 비해서는 2.8% 더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ILO 기준에 의하면 장애인 취업자수는 950.8천명, 장애인 실업자 수는 63.4천명으로 추정된다.

〈표 7-5-1〉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비율
		계	취업	실업					
15~19세	46,953	4,333	3,074	1,259	42,620	9.23	70.94	29.06	6.55
20~29세	86,430	37,679	29,394	8,285	48,751	43.59	78.01	21.99	34.01
30~39세	177,905	110,432	98,225	12,207	67,473	62.07	88.95	11.05	55.21
40~49세	330,089	202,337	187,437	14,900	127,752	61.30	92.64	7.36	56.78
50~64세	811,944	421,299	397,960	23,339	390,645	51.89	94.46	5.54	49.01
65세이상	1,146,569	238,123	234,682	3,441	908,446	20.77	98.55	1.45	20.47
계	2,599,890	1,014,203	950,772	63,431	1,585,687	39.01	93.75	6.25	36.57
전국[1)]	42,490,000	26,825,000	25,875,000	949,000	15,666,000	63.1	96.5	3.5	60.9

주: 1) 통계청, 『한국통계월보(2014년 6월 기준)』, 2014.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에서 남성장애인은 46.9%, 여성장애인은 22.5%로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5-2〉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1,497,448	752,642	702,720	49,922	744,806	50.26	93.37	6.63	46.93
여자	1,102,442	261,561	248,052	13,509	840,881	23.73	94.84	5.16	22.50
계	2,599,890	1,014,203	950,772	63,431	1,585,687	39.01	93.75	6.25	36.57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률이 높은 장애유형은 청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이 90% 이상의 취업률을 보였다. 인구대비취업자 비율은 지체장애(46.0%), 안면장애(42.4%), 간장애(42.1%)가 높게 나타났다. 실업률은 자폐성장애(38.4%), 정신장애(30.0%) 등이 높았다.

〈표 7-5-3〉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지체장애	1,337,482	650,187	615,549	34,638	687,295	48.61	94.67	5.33	46.02
뇌병변장애	280,245	37,693	33,560	4,133	242,552	13.45	89.04	10.96	11.98
시각장애	272,125	114,712	107,570	7,142	157,413	42.15	93.77	6.23	39.53
청각장애	273,963	108,005	103,531	4,474	165,958	39.42	95.86	4.14	37.79
언어장애	19,871	7,168	7,168	0	12,703	36.07	100.00	0.00	36.07
지적장애	161,663	46,206	42,590	3,616	115,457	28.58	92.17	7.83	26.34
자폐성장애	12,625	1,624	1,001	623	11,001	12.86	61.64	38.36	7.93
정신장애	105,002	14,547	10,183	4,364	90,455	13.85	70.00	30.00	9.70
신장장애	71,876	15,863	13,861	2,002	56,013	22.07	87.38	12.62	19.28
심장장애	8,121	2,155	2,155	0	5,966	26.54	100.00	0.00	26.54
호흡기장애	15,984	2,833	2,431	402	13,151	17.72	85.81	14.19	15.21
간장애	11,839	5,337	4,987	350	6,502	45.08	93.44	6.56	42.12
안면장애	3,012	2,321	1,277	1,044	691	77.05	55.02	44.98	42.39
장루요루장애	16,705	5,261	4,909	352	11,444	31.49	93.31	6.69	29.39
뇌전증(간질)장애	9,377	291	0	291	9,086	3.10	0.00	100.00	0.00
계	2,599,890	1,014,203	950,772	63,431	1,585,687	39.01	93.75	6.25	36.57

등록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인구대비 취업자비율이 중증장애인이 23.8%, 경증장애인이 46.1%로 경증장애인이 22.3% 포인트 높고, 실업률은 중증장애인이 8.2%, 경증장애인이 5.4%로 중증장애인이 2.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4〉 장애정도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중증	947,119	245,211	225,197	20,014	701,908	25.89	91.84	8.16	23.78
경증	1,527,508	744,685	704,273	40,412	782,823	48.75	94.57	5.43	46.11
계	2,474,627	989,896	929,470	60,426	1,484,731	40.00	93.90	6.10	37.56

2. 취업자

취업 장애인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은 '일반사업체'(45.5%), '자영업'(39.3%), '정부 및 관련 기관'(7.8%)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종사비율은 전체 대비 1.1%로 미미하지만 장애유형별로는 특정 장애유형, 즉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40.3%와 19.6%로 높게 나타났다.

〈표 7-5-5〉 현재 일하고 있는 곳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자영업	41.5	34.4	33.5	44.6	20.4	20.3	0.0	45.7	28.6	21.6	44.5	42.5	24.7	28.9	-	39.3
일반사업체	46.0	34.6	49.8	42.3	54.6	37.0	0.0	36.7	57.4	78.4	55.5	42.0	75.3	53.7	-	45.5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7.8	13.0	9.0	5.3	16.0	5.6	43.3	3.1	11.5	0.0	0.0	12.0	0.0	4.8	-	7.8
장애인 보호작업장	0.1	2.7	0.0	0.0	0.0	19.6	40.3	0.0	0.0	0.0	0.0	0.0	0.0	0.0	-	1.1
장애인근로사업장	0.1	0.0	2.7	1.3	0.0	9.8	16.4	10.5	0.0	0.0	0.0	0.0	0.0	0.0	-	1.1
장애인 관련 기관	0.5	4.2	2.4	1.1	9.0	7.3	0.0	3.9	2.4	0.0	0.0	0.0	0.0	0.0	-	1.3
기타	3.9	11.1	2.6	5.3	0.0	0.4	0.0	0.0	0.0	0.0	0.0	3.4	0.0	12.6	-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전국 추정수	615,550	33,559	107,570	103,531	7,168	42,589	1,002	10,183	13,862	2,155	2,431	4,986	1,277	4,908	-	950,771

전체 장애인 중 취업인구는 950.8천명으로 추정되며, 취업장애인의 특성으로 평균 근로 근속기간은 153개월, 임금근로자 기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3시간, 그리고 임금근로자 기준 월 평균 수입(3개월 평균)은 153만원[3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근로 근속기간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호흡기장애(217개월)와 청각장애(203개월)가 가장 길고 그 다음이 장루·요루장애(182개월), 심장장애(171개월), 지체장애·간장애(156개월), 시각장애(143개월)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를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나누어서 보면, 임금근로 장애인의 평균 근로취업기간은 84개월로 7년 수준이며, 비임금근로 장애인의 근속기간은 256개월로 임금근로 장애인의 근속기간에 비해 약 3배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안면장애가 51시간으로 가장 많고 호흡기장애(49시간), 심장장애(48시간), 지체장애와 시각장애(44시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월 평균수입(3개월 평균)은 심장장애가 327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간장애(190만원), 신장장애(183만원), 지체장애(167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34) 취업장애인의 평균임금 153만원은 우리나라 전국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 329만원(고용노동부,「사업체 노동력조사」(2014. 2/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46% 수준이다. 단, 취업장애인 평균임금은 1인 이상 사업체 대상이고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여서 직접적인 임금비교의 한계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장애인과 전체국민의 임금비교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가 가장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5-6〉 취업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평균 근속기간

(단위: 시간, 일, 만원, 개월)

구분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평균 근속기간		
	주당평균 근무시간	주평균근 무일수	일평균근 무시간		전체	임금근로	비임금 근로
지체장애	44	5.2	8.4	167	156	91	244
뇌병변장애	38	5.0	7.7	112	126	33	298
시각장애	44	5.2	8.2	156	143	93	241
청각장애	42	5.3	7.8	120	203	82	342
언어장애	42	5.2	8.2	130	108	65	274
지적장애	37	5.4	6.8	57	81	47	212
자폐성장애	28	5.0	5.6	45	20	20	-
정신장애	35	5.0	7.1	56	60	43	82
신장장애	41	5.5	7.3	183	102	74	160
심장장애	48	5.0	11.4	327	171	119	357
호흡기장애	49	4.6	12.0	110	217	13	471
간장애	43	4.9	9.5	190	156	102	216
안면장애	51	5.2	10.0	160	109	83	185
장루·요루장애	32	4.2	8.0	78	182	57	488
뇌전증(간질)장애	-	-	-	-	-	-	-
계	43	5.2	8.2	153	153	84	256

주: * 무응답 제외

취업장애인을 지난 한 주간 일한 총 시간별로 구분하면 36시간 미만 31.0%(295.1천명), 36시간 이상 67.4%(640.9천명) 그리고 지난주 일시 휴직자가 1.6%(14.8천명)으로 조사되어 취업장애인의 67%는 일주일간 36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인구의 일주일간 근무시간대별 비율은 36시간 미만 15.5%(3,969천명), 36시간 이상 82.9%(21,220천명) 및 지난주 일시 휴직자가 1.6%(410천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장애인과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장애인의 한 주간 36시간 미만 일한 비율이 전체 인구에 비해 높고, 한 주간 36시간 이상 일한 비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낮다.

〈표 7-5-7〉 지난 주 일한 총 시간(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분		장애 인구		전체 인구	
		추정수	비율	추정수	비율
36시간 미만	1~17시간	87,676	9.2	1,177,000	4.6
	18~35시간	207,419	21.8	2,792,000	10.9
	소 계	295,095	31.0	3,969,000	15.5
36시간 이상		640,850	67.4	21,220,000	82.9
지난 주 일시 휴직자		14,827	1.6	410,000	1.6
전체		950,772	100.0	25,599,000	100.0

주: 전체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 12월) 기준

취업 장애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자영자1(노점제외)'(29.2%), '상용근로자'(23.8%), '일용근로자'(18.8%), '임시근로자'(17.2%), '무급가족종사자'(5.4%)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 볼 때 지체장애는 '자영자1(노점제외)'(31.0%)와 '상용근로자'(24.7%)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지적장애는 '임시근로자'(34.8%)와 '일용근로자'(23.7%)의 비중이 높아 장애특성에 따라 종사지위도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7-5-8〉 직장(일)에서의 지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24.7	22.6	26.6	18.1	23.0	21.2	0.0	7.1	28.7	78.4	13.9	26.5	35.6	12.0	-	23.8
	임시근로자	14.8	34.7	16.6	16.0	21.5	34.8	85.0	18.8	25.3	0.0	41.5	14.0	39.7	32.1	-	17.2
	일용근로자	18.2	7.4	22.9	19.3	35.1	23.7	15.0	30.8	13.3	0.0	0.0	12.2	0.0	26.9	-	18.8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4.9	0.9	3.7	2.1	0.0	0.0	0.0	2.6	5.8	0.0	0.0	11.5	0.0	0.0	-	4.0
	자영자1(노점제외)	31.0	28.6	24.7	32.8	17.3	10.9	0.0	25.4	24.7	0.0	30.6	35.7	24.7	28.9	-	29.2
	자영자2(노점)	1.6	1.0	1.2	2.7	0.0	0.0	0.0	0.0	0.0	0.0	13.9	0.0	0.0	0.0	-	1.5
	무급가족종사자	4.8	4.8	4.3	9.1	3.1	9.5	0.0	15.3	2.2	21.6	0.0	0.0	0.0	0.0	-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전국 추정수		615,549	33,559	107,571	103,532	7,166	42,589	1,001	10,184	13,861	2,155	2,432	4,988	1,277	4,909	-	950,773

장애인이 현재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은 '낮은 수입'이 45.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업무과다'(15.7%), '직장 내의 대인관계'(2.4%), '출퇴근 불편'(2.3%),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입'을 직장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경우를 장애유형별 순서로 보면 뇌병변장애(55.3%), 정신장애(51.0%), 신장장애(50.4%), 시각장애(49.0%) 등으로 나타나 이들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낮은 수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5-9〉 현재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낮은 수입	46.0	55.3	49.0	44.4	24.1	33.8	41.7	51.0	50.4	36.3	17.1	31.2	39.9	41.5	-	45.7
직장 내의 대인관계	2.1	3.7	1.1	3.9	3.8	5.5	15.0	2.4	0.0	0.0	0.0	5.9	0.0	0.0	-	2.4
승진문제	0.5	0.0	0.6	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0.4
업무과다	17.9	11.5	14.0	9.8	5.0	4.6	0.0	12.3	12.0	31.5	13.9	29.4	60.1	29.6	-	15.7
직무관련기능 부족	1.4	3.9	1.1	0.7	0.0	4.6	0.0	3.9	3.4	0.0	0.0	0.0	0.0	0.0	-	1.6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	0.9	2.0	0.0	0.8	8.5	1.4	0.0	0.0	0.0	0.0	0.0	0.0	0.0	0.0	-	0.9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0.6	3.6	0.0	1.3	0.0	4.4	0.0	7.0	4.7	0.0	0.0	0.0	0.0	0.0	-	1.0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2.3	3.4	2.8	0.6	0.0	0.0	0.0	0.0	1.0	0.0	13.9	3.8	0.0	6.0	-	2.1
출퇴근 불편	2.5	2.6	0.7	1.7	0.0	3.9	43.3	0.0	0.0	0.0	24.4	0.0	0.0	8.8	-	2.3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0.0	2.5	0.0	16.4	25.0	5.5	0.0	0.0	0.0	0.0	0.0	0.0	0.0	0.0	-	2.3
성차별	-	-	-	-	-	-	-	-	-	-	-	-	-	-	-	-
성희롱	-	-	-	-	-	-	-	-	-	-	-	-	-	-	-	-
어려움 없음	25.2	11.6	30.1	19.9	33.6	36.3	0.0	23.4	28.4	32.2	30.6	23.3	0.0	14.0	-	25.2
기타	0.6	0.0	0.6	0.0	0.0	0.0	0.0	0.0	0.0	0.0	0.0	6.4	0.0	0.0	-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전국 추정수	615,551	33,560	107,570	103,532	7,168	42,589	1,002	10,183	13,862	2,155	2,432	4,986	1,277	4,908	-	950,775

취업 장애인이 현재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약간 만족'의 응답비율이 36.0%로 가장 높고 다음은 '보통'(28.8%), '약간 불만족'(19.8%), '매우 만족'(10.2%), '매우 불만족'(5.1%)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매우 만족'인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볼 때 간장애의 '매우 만족'(21.3%) 응답이 가장 많고 지적장애(19.0%)와 신장장애(14.3%)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7-5-10〉 현재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만족	9.5	8.2	12.2	10.3	7.5	19.0	0.0	7.0	14.3	0.0	0.0	21.3	0.0	4.8	-	10.2
약간 만족	36.1	28.0	35.4	35.5	46.6	35.5	74.7	42.0	44.3	57.2	68.9	28.8	36.7	42.6	-	36.0
보통	29.1	35.6	28.9	26.5	19.6	32.7	25.3	25.1	25.2	27.7	0.0	31.0	7.0	16.9	-	28.8
약간 불만족	20.4	25.4	17.4	22.0	20.4	8.9	0.0	19.7	11.9	15.1	31.1	18.8	56.3	21.3	-	19.8
매우 불만족	5.0	2.8	6.2	5.8	5.8	3.8	0.0	6.2	4.3	0.0	0.0	0.0	0.0	14.4	-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전국 추정수	615,548	33,561	107,570	103,532	7,168	42,589	1,002	10,182	13,861	2,155	2,431	4,987	1,277	4,908	-	950,771

3. 실업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었음'이라는 응답이 94.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볼 때,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등은 거의 대부분이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했고 이에 비해 정신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7-5-11〉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있었음	96.6	84.0	100.0	100.0		91.6	100.0	7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4.7
없었음	3.4	16.0	0.0	0.0		8.4	0.0	21.3	0.0		0.0	0.0	0.0	0.0	0.0	5.3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35,859	4,922	7,142	4,474		3,949	623	5,547	2,001		402	350	1,044	352	291	66,956

실업 장애인이 직장(일)을 구한 주된 방법으로는 '공공 직업알선기관 등록'(29.9%)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인터넷(온라인)통한 구직등록/응모'(22.8%), '부모, 친구, 친지 소개'(22.3%), '민간 직업알선기관 등록'(7.4%) 등의 순이었다. '공공 직업알선기관 등록'을 통해 구직한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장애와 장루·요루장애의 비율이 100.0%로 가장 높고 지적장애(65.9%), 신장장애(63.4%), 뇌병변장애(63.2%) 등이 뒤를 있고 있다.

〈표 7-5-12〉 직장(일)을 구한 주된 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공공 직업알선기관 등록	25.0	63.2	8.3	8.8	-	65.9	100.0	39.3	63.4	-	100.0	0.0	0.0	100.0	0.0	29.9
민간 직업알선기관 등록	10.7	0.0	3.5	0.0	-	0.0	0.0	0.0	36.6	-	0.0	0.0	0.0	0.0	0.0	7.4
취직시험 응시	2.1	0.0	0.0	5.6	-	0.0	0.0	0.0	0.0	-	0.0	0.0	47.2	0.0	0.0	2.3
신문/잡지 등 통해 오프라인 응모	5.2	0.0	13.5	10.8	-	0.0	0.0	0.0	0.0	-	0.0	0.0	0.0	0.0	0.0	5.1
인터넷(온라인)통한 구직등록/응모	19.2	10.2	19.3	54.6	-	34.1	0.0	32.6	0.0	-	0.0	100.0	52.8	0.0	0.0	22.8
학교, 학원 추천	0.0	0.0	0.0	7.0	-	0.0	0.0	0.0	0.0	-	0.0	0.0	0.0	0.0	100.0	1.0
사업체 문의, 방문	5.0	0.0	10.0	6.5	-	0.0	0.0	1.0	0.0	-	0.0	0.0	0.0	0.0	0.0	4.4
부모, 친구, 친지 소개	26.8	26.6	32.0	6.8	-	0.0	0.0	27.1	0.0	-	0.0	0.0	0.0	0.0	0.0	22.3
취업박람회 참가	-	-	-	-	-	-	-	-	-	-	-	-	-	-	-	-
자영업 준비	6.0	0.0	13.4	0.0	-	0.0	0.0	0.0	0.0	-	0.0	0.0	0.0	0.0	0.0	4.8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34,639	4,133	7,142	4,474	-	3,616	623	4,363	2,001	-	402	350	1,045	352	291	63,431

등록한 공공 직업알선기관(공공 직업알선기관 통해 직장 구한 경우) 유형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인력은행 등'(5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21.0%),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정신보건기관 포함)'(11.9%)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와 호흡기장애가 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인력은행 등'을 이용함에 비해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표 7-5-13〉 등록한 공공 직업알선기관(공공 직업알선기관 통해 직장 구한 경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인력은행 등	69.3	48.4	38.6	0.0	-	0.0	0.0	23.4	100.0	-	81.6	-	-	100.0	-	5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4.7	40.0	61.4	44.4	-	29.2	0.0	26.0	0.0	-	0.0	-	-	0.0	-	21.0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정신보건기관 포함)	3.9	0.0	0.0	55.6	-	45.7	100.0	0.0	0.0	-	0.0	-	-	0.0	-	11.9
기타	12.1	11.6	0.0	0.0	-	25.1	0.0	50.6	0.0	-	18.4	-	-	0.0	-	15.2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	100.0
전국 추정수	8,649	2,612	596	392	-	2,383	623	1,716	1,269	-	402	-	-	352	-	18,994

4. 비경제활동인구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지난 4주 내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장애로 인한 업무 수행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장애 이외의 질병, 사고로(17.9%),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12.3%), 육아 또는 가사(5.3%), 장애인이라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거 같아서(3.1%), 이전에 찾아보았을 때 일자리가 없어서(2.6%), 통학(2.6%), 임금수준,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2.1%)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장애로 인한 업무 수행 어려움' 때문에 구직하지 않은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볼 때, 정신장애(72.5%), 뇌전증장애(62.6%), 호흡기장애(62.1%)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안면장애, 청각장애(21.4%)나 지체장애(30.4%)는 그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았다.

〈표 7-5-14〉 지난 4주 내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전공,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0	1.4	0.1	0.8	0.0	0.0	0.0	1.6	1.6	0.0	0.0	0.0	0.0	0.0	0.0	0.9
임금수준,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2.7	1.0	2.2	3.1	2.2	0.1	0.0	1.8	3.0	0.0	0.0	4.2	0.0	0.0	0.0	2.1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1	0.0	1.0	1.7	3.5	0.0	0.0	0.9	0.0	0.0	0.0	0.0	0.0	0.0	0.0	0.8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	0.4	0.0	0.0	0.4	0.0	1.2	0.0	1.9	0.0	0.0	0.0	0.0	0.0	0.0	0.0	0.4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16.4	5.9	14.1	22.8	7.7	0.7	0.0	1.2	2.0	31.3	3.8	5.2	0.0	8.6	0.0	12.3
이전에 찾아보았을 때 일자리가 없어서	3.4	0.0	3.4	2.4	13.2	2.9	0.0	1.6	2.7	0.0	0.0	0.0	0.0	3.0	9.7	2.6
장애인이라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3.1	1.7	3.5	2.7	0.6	5.8	12.0	5.9	0.0	0.0	5.6	0.0	0.0	0.0	0.0	3.1
구직정보, 방법을 몰라서	0.1	0.0	0.1	0.0	0.0	1.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자영업을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되서	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육아 또는 가사	7.1	1.0	6.7	8.5	0.0	2.2	0.0	2.4	6.2	0.0	0.0	8.5	0.0	1.8	0.0	5.3
통학	0.4	1.5	1.8	1.1	2.0	20.5	49.3	0.8	0.0	0.0	0.0	0.0	65.4	0.0	5.8	2.6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움	30.4	59.5	34.2	21.4	49.5	57.3	35.4	72.5	56.5	40.6	62.1	58.6	0.0	57.8	62.6	40.5
장애 이외의 질병, 사고로	20.5	21.6	15.2	19.5	13.3	4.8	0.0	6.4	25.4	11.1	19.2	23.5	0.0	17.2	8.6	17.9
취업/창업 준비중	0.6	0.0	0.9	0.6	0.0	0.0	0.0	0.5	0.0	0.0	0.0	0.0	0.0	0.0	4.2	0.5
기초수급자격 박탈 우려	1.7	0.4	1.1	1.3	0.0	0.8	0.0	1.8	0.2	2.9	0.9	0.0	0.0	4.1	9.1	1.3
취업 이외 활동(진학, 결혼 등)	0.3	0.2	0.9	0.2	0.0	0.0	3.3	0.0	0.0	2.0	0.0	0.0	0.0	0.0	0.0	0.3
기타	10.2	5.9	14.8	13.4	8.1	2.4	0.0	0.8	2.4	12.1	8.4	0.0	34.6	7.4	0.0	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687,294	242,552	157,414	165,958	12,703	115,458	11,001	90,456	56,012	5,966	13,151	6,502	691	11,444	9,087	1,585,689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경우)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8.1%로 주를 이루고 있고 이 외 다른 사유로는 장애 이외의 질병, 사고로(18.1%),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할 필요가 없어서(12.9%),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12.1%) 등이 있었다.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정신장애(65.7%), 호흡기장애(63.5%), 지적장애(59.6%)의 해당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청각장애(19.2%)나 지체장애(28.6%)는 그 비율이 낮았다.

〈표 7-5-15〉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경우)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28.6	54.6	32.6	19.2	33.2	59.6	44.9	65.7	54.4	43.5	63.5	55.6	0.0	55.5	46.5	38.1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할 필요가 없어서	15.6	8.0	15.2	18.5	10.7	4.7	0.0	8.7	5.7	15.6	13.0	0.0	13.8	11.4	20.5	12.9
임금수준,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1	1.0	1.8	2.3	2.2	0.8	0.0	2.2	1.3	0.0	2.4	0.0	0.0	0.0	4.8	2.7
전공,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0.7	0.7	0.3	1.0	0.0	0.3	0.0	1.3	2.1	0.0	0.0	0.0	0.0	0.0	0.0	0.7
교육, 기술, 경험 부족	0.4	0.1	0.0	0.0	0.0	0.6	0.0	1.0	0.0	0.0	0.0	0.0	0.0	0.0	1.3	0.3
장애인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1.6	1.2	0.6	0.7	4.2	1.5	0.0	3.7	0.0	0.0	0.0	0.0	0.0	0.0	3.4	1.4
이전에 찾아보았을 때 일자리가 없어서	5.2	1.4	4.7	3.5	14.8	2.7	0.0	2.8	2.9	0.0	0.5	0.0	0.0	3.0	0.0	3.9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0.5	0.2	1.1	0.8	0.0	1.5	0.0	2.2	0.0	0.0	0.0	0.0	0.0	0.0	0.0	0.7
현재 취업준비 중	1.2	0.8	1.7	1.1	0.0	0.7	5.4	0.4	0.0	0.0	0.0	0.0	28.4	0.0	4.1	1.1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14.9	7.0	15.8	24.3	5.9	0.8	0.0	0.2	2.3	31.3	3.4	0.0	0.0	11.7	0.0	12.1
육아 또는 가사	5.3	1.2	5.5	6.8	0.0	1.5	0.0	2.3	3.0	0.0	0.0	8.1	0.0	1.8	0.0	4.2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	19.8	21.2	17.3	19.6	24.1	4.9	0.0	8.6	28.1	5.0	13.4	36.3	31.8	16.7	13.7	18.1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0.4	1.7	2.0	0.9	2.0	19.9	46.7	0.7	0.0	0.0	0.0	0.0	26.0	0.0	5.6	2.6
취업 이외의 활동 때문에	0.2	0.0	0.7	0.5	0.0	0.0	3.1	0.0	0.0	2.0	0.0	0.0	0.0	0.0	0.0	0.2
자영업을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되서	0.6	0.0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기타	1.0	0.9	0.7	0.6	2.9	0.6	0.0	0.1	0.0	2.5	3.8	0.0	0.0	0.0	0.0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721,931	246,686	164,555	170,432	12,702	119,074	11,624	94,818	58,014	5,967	13,553	6,852	1,736	11,795	9,378	1,649,117

5. 장애인이 희망하는 일자리(직장)[35]

장애인이 원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는 '임금근로'가 96.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취업 장애인의 종사지위 또는 고용형태에서 자영자가 30.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는 다소 대조적이다. 대부분의 장애유형이 거의 절대적으로 '임금근로'를 원하지만 시각장애의 경우는 '비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도 13.4%로 나타났다.

〈표 7-5-16〉 원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임금근로	95.6	100.0	86.6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96.2
비임금근로	4.4	-	13.4	-	-	-	-	-	-	-	-	-	-	-	-	3.8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35,858	4,921	7,143	4,474	-	3,950	623	5,547	2,001	-	402	350	1,045	352	291	66,957

장애인이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업종은 '제조업'이 17.8%로 가장 많고 다음은 '건설업'(9.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5%), '숙박 및 음식점업'(5.6%) 등의 순서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의 경우 '제조업'(36.0%)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2.8%) 희망비율이 높고 뇌병변장애는 '금융 및 보험업'(22.4%), '제조업'(17.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6.0%) 등을 주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5) 지난 4주 안에 구직 경험이 있는 경우

〈표 7-5-17〉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업종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농업, 임업 및 어업	4.6	0.0	0.0	0.0	-	0.0	0.0	0.0	0.0	-	0.0	0.0	0.0	0.0	0.0	2.4
광업	-	-	-	-	-	-	-	-	-	-	-	-	-	-	-	-
제조업	16.1	17.4	6.7	28.8	-	36.0	0.0	22.9	36.6	-	18.4	0.0	0.0	0.0	0.0	17.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8	0.0	0.0	0.0	-	0.0	0.0	0.0	0.0	-	0.0	0.0	0.0	0.0	100.0	1.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1	0.0	0.0	0.0	-	0.0	0.0	0.0	0.0	-	0.0	0.0	0.0	0.0	0.0	3.8
건설업	13.5	0.0	18.0	0.0	-	0.0	0.0	0.0	0.0	-	0.0	0.0	0.0	0.0	0.0	9.2
도매 및 소매업	7.5	0.0	5.8	0.0	-	0.0	0.0	0.8	0.0	-	0.0	0.0	0.0	0.0	0.0	4.7
운수업	6.8	0.0	0.0	0.0	-	0.0	0.0	0.0	22.7	-	81.6	100.0	0.0	0.0	0.0	5.3
숙박 및 음식점업	4.7	0.0	5.2	30.4	-	8.0	0.0	0.0	0.0	-	0.0	0.0	0.0	0.0	0.0	5.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6	0.0	23.5	0.0	-	0.0	0.0	0.0	40.7	-	0.0	0.0	52.8	0.0	0.0	6.5
금융 및 보험업	0.0	22.4	0.0	0.0	-	0.0	0.0	0.0	0.0	-	0.0	0.0	0.0	0.0	0.0	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	0.0	2.4	0.0	-	0.0	0.0	0.0	0.0	-	0.0	0.0	0.0	0.0	0.0	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6	19.6	0.0	0.0	-	0.0	0.0	0.0	0.0	-	0.0	0.0	0.0	0.0	0.0	5.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9	6.2	3.2	3.9	-	0.0	0.0	0.0	0.0	-	0.0	0.0	0.0	100.0	0.0	8.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5	0.0	5.9	5.6	-	32.8	0.0	28.6	0.0	-	0.0	0.0	47.2	0.0	0.0	7.9
교육 서비스업	2.5	0.0	6.2	11.8	-	9.2	0.0	0.0	0.0	-	0.0	0.0	0.0	0.0	0.0	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1	12.2	5.1	19.5	-	0.0	0.0	21.3	0.0	-	0.0	0.0	0.0	0.0	0.0	8.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	16.0	0.0	0.0	-	14.0	100.0	15.6	0.0	-	0.0	0.0	0.0	0.0	0.0	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	6.2	17.8	0.0	-	0.0	0.0	10.8	0.0	-	0.0	0.0	0.0	0.0	0.0	4.1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 활동	-	-	-	-	-	-	-	-	-	-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35,858	4,921	7,143	4,474	-	3,950	623	5,547	2,001	-	402	350	1,045	352	291	66,957

장애인이 희망하는 일자리 업무(직무)는 단순노무 종사자(35.8%), 사무 종사자(15.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2.6%), 서비스 종사자(10.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희망직무를 살펴보면, 지적장애는 단순노무 종사자 응답비율이 45.8%로 가장 높고 사무종사자(15.2%)와 판매종사자(14.0%)가 뒤를 잇고 있다. 뇌병변장애의 경우는 사무종사자 희망비율이 43.0%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사무직종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7-5-18〉 희망 일자리 업무(직무)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관리자	6.3	0.0	0.0	0.0	-	0.0	0.0	0.0	36.6	-	0.0	0.0	0.0	0.0	0.0	4.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5	35.6	15.9	11.3	-	9.2	0.0	0.0	0.0	-	0.0	0.0	52.8	0.0	0.0	12.6
사무 종사자	6.7	43.0	17.9	20.7	-	15.2	0.0	42.7	40.7	-	0.0	0.0	0.0	0.0	0.0	15.7
서비스 종사자	6.4	0.0	27.3	4.9	-	8.0	0.0	26.5	22.7	-	0.0	0.0	47.2	0.0	0.0	10.7
판매 종사자	5.4	0.0	5.8	0.0	-	14.0	0.0	0.0	0.0	-	0.0	0.0	0.0	0.0	0.0	4.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	0.0	0.0	0.0	-	0.0	0.0	0.0	0.0	-	0.0	0.0	0.0	0.0	0.0	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4	0.0	0.0	18.5	-	0.0	0.0	0.0	0.0	-	0.0	0.0	0.0	0.0	100.0	6.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6	9.0	0.0	10.3	-	7.8	0.0	0.0	0.0	-	81.6	100.0	0.0	0.0	0.0	9.6
단순노무 종사자	41.5	12.4	33.1	34.3	-	45.8	100.0	30.9	0.0	-	18.4	0.0	0.0	100.0	0.0	35.8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35,858	4,921	7,143	4,474	-	3,950	623	5,547	2,001	-	402	350	1,045	352	291	66,957

6. 직업훈련[36)]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업훈련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4.0%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훈련경험이 있는 경우는 4.8% 그리고 훈련 중인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장애유형별로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안면장애(30.4%)가 가장 많고 다음은 자폐성장애(22.5%), 지적장애(18.1%), 뇌전증장애(13.8%) 등의 순서이다.

〈표 7-5-19〉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3.4	3.5	5.0	3.1	7.5	18.1	22.5	8.0	2.7	0.0	0.0	0.0	30.4	8.6	13.8	4.8
훈련중	0.8	1.0	1.1	1.0	0.0	4.6	6.1	1.8	0.0	0.0	0.0	0.0	0.0	0.0	5.6	1.2
아니오	95.8	95.5	93.9	95.9	92.5	77.4	71.4	90.2	97.3	100.0	100.0	100.0	69.6	91.4	80.6	9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329,057	280,245	270,728	271,107	19,871	160,822	12,625	105,001	71,876	7,981	15,984	11,839	3,013	16,705	9,378	2,586,232

주: 무응답 제외

36) 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훈련 받을 필요 없음'이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고 또 다른 이유로는 '직업훈련 있는지 모름'(19.6%), '심한 장애로 훈련 받기 어려움'(15.7%), '직업훈련이 취업 도움 안됨'(6.3%) 등을 답하였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는 '훈련 받을 필요 없음'(58.8%)과 '직업훈련 있는지 모름'(20.5%)이 주된 이유인데 비해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는 '심한 장애로 훈련 받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20〉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직업훈련 있는지 모름	20.5	11.9	24.2	22.9	12.3	13.9	0.0	24.4	12.6	23.1	12.8	15.4	0.0	19.8	25.8	19.6
등록절차 모름	1.4	1.1	2.0	1.1	7.2	2.8	0.0	2.0	0.0	0.0	0.0	0.0	0.0	0.0	0.0	1.5
심한 장애로 훈련 받기 어려움	7.3	36.9	12.1	10.1	15.9	43.4	30.5	40.8	24.2	27.2	40.6	19.8	0.0	12.1	45.1	15.7
직업훈련 비용 부담	0.8	0.3	1.0	0.5	0.0	0.3	0.0	0.8	1.6	0.0	0.0	0.0	0.0	0.0	0.0	0.7
직업훈련 내용 마음에 안듦	1.6	0.9	1.0	0.9	5.1	3.3	4.1	1.0	2.3	4.5	0.0	0.0	0.0	0.0	0.0	1.5
직업훈련이 취업 도움 안됨	7.3	4.1	7.5	5.1	8.8	4.6	0.0	4.4	3.2	11.2	5.1	5.6	0.0	4.2	2.2	6.3
훈련 받을 필요없음	58.8	43.4	50.6	56.7	48.6	29.7	62.5	24.2	51.3	34.0	41.5	56.2	100.0	62.3	24.2	52.6
집 근처에 훈련기관 없음	2.0	1.0	1.3	2.7	2.1	2.0	2.9	2.4	4.8	0.0	0.0	3.0	0.0	1.6	2.7	2.0
기타	0.2	0.3	0.2	0.1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252,605	264,005	246,500	254,976	18,160	120,613	8,765	94,203	68,960	7,980	15,337	11,641	2,096	14,930	7,001	2,387,772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이 희망하는 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희망 안함'을 제외하면 응답비율은 낮으나 '기타 서비스'(4.5%), 컴퓨터·정보처리(3.8%), 제과·제빵(2.5%), 토목·건축(1.6%)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의 경우 제과·제빵(11.5%)과 컴퓨터·정보처리(6.2%) 직종을 선호하고 정신장애는 '기타 서비스'(8.2%)와 컴퓨터·정보처리(6.0%) 분야를 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21〉 희망 직업훈련 분야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기계	1.8	1.1	1.1	1.1	0.0	3.1	0.0	1.2	0.0	0.0	2.1	4.2	3.0	0.0	2.0	1.5
금속	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화공·요업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6	0.0	0.1
전기·전자	1.2	0.7	0.4	0.7	4.9	1.3	0.0	4.6	1.2	0.0	0.0	0.0	0.0	0.0	4.6	1.2
통신	0.4	0.3	0.4	0.0	0.0	0.0	0.0	0.7	0.1	5.7	0.0	0.0	0.0	0.0	2.0	0.3
조선·항공	0.3	0.0	0.3	0.2	0.0	0.0	0.0	0.7	0.0	0.0	0.0	0.0	0.0	0.0	0.0	0.2
토목·건축	1.9	0.7	2.1	1.7	0.0	0.0	0.0	1.7	0.5	0.0	0.0	1.5	0.0	3.7	0.0	1.6
섬유	0.4	0.4	0.0	0.3	5.3	0.2	0.0	0.8	0.7	4.4	0.6	0.0	0.0	0.0	0.0	0.4
광업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컴퓨터·정보처리	3.7	3.8	4.3	1.9	7.7	6.2	4.3	6.0	2.6	0.0	1.3	3.0	43.3	0.0	0.8	3.8
공예	1.1	0.9	0.1	0.6	0.0	3.1	6.1	0.8	1.8	2.1	0.0	1.1	0.0	1.4	18.8	1.1
산업응용	0.2	0.0	0.3	0.0	0.0	0.3	0.0	0.4	0.2	0.0	0.0	0.0	0.0	0.0	0.0	0.2
침술·안마	0.5	0.1	3.4	1.6	0.0	0.9	0.0	0.2	0.0	0.0	0.0	0.0	0.0	0.0	0.0	0.8
사무	1.6	2.1	1.1	0.7	0.0	1.1	6.9	5.3	5.9	1.5	0.0	0.0	0.0	0.0	0.0	1.7
이·미용	0.8	0.4	1.0	1.2	0.0	3.6	0.0	0.7	0.0	0.0	0.0	0.0	0.0	2.8	3.2	1.0
제과·제빵	1.7	0.8	1.1	2.3	2.7	11.5	12.8	5.8	5.4	0.0	0.0	4.8	0.0	0.0	0.0	2.5
기타 서비스	4.5	2.3	4.9	3.1	3.4	8.1	15.1	8.2	3.4	0.0	0.0	3.3	13.4	9.1	0.0	4.5
희망 안함	78.2	86.3	78.5	83.8	76.0	59.1	49.8	62.0	77.2	86.3	96.0	79.2	40.3	79.4	68.5	77.7
기타	1.0	0.2	1.2	0.6	0.0	1.4	4.9	0.9	0.8	0.0	0.0	3.0	0.0	0.0	0.0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328,438	280,244	270,730	270,631	19,871	160,819	12,626	105,002	71,876	7,982	15,983	11,837	3,012	16,705	9,378	2,585,134

주: 무응답 제외

7.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37)]

국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직업능력 개발'(20.7%), 취업정보 제공(18.7%),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16.9%), 임금보조(16.5%), 취업상담, 평가, 알선(12.2%)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의 경우 '직업능력 개발'(38.1%)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22.1%)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고 지체장애는 '취업정보 제공'(20.3%), '직업능력개발'(18.3%), '임금보조'(18.0%)를 국가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다.

37) 모든 장애인 대상

〈표 7-5-22〉 국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일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15.2	20.0	16.2	17.3	21.8	22.1	31.8	22.7	15.1	23.1	17.2	13.5	2.1	20.0	7.4	16.9
취업정보 제공	20.2	15.2	18.8	18.6	25.3	10.2	6.3	16.0	22.0	30.1	19.3	16.0	26.2	19.5	30.0	18.7
직업능력 개발	18.3	18.2	23.2	19.8	13.1	38.1	37.3	27.0	14.6	3.9	24.4	38.4	0.0	20.6	40.0	20.7
취업상담, 평가, 알선	13.1	11.1	11.7	11.6	17.5	8.2	13.6	12.7	13.3	4.1	12.1	3.0	32.7	14.9	0.0	12.2
사후지도	2.0	2.1	2.4	1.7	0.0	1.0	0.0	3.8	1.7	3.8	0.0	0.0	0.0	0.4	0.0	2.0
임금보조	18.0	17.2	14.4	18.2	17.9	10.3	0.0	9.3	19.0	15.3	6.6	13.6	39.0	18.8	7.6	16.5
직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9	5.3	3.0	3.1	1.3	3.1	1.8	0.6	5.0	3.0	10.0	1.1	0.0	1.4	0.7	3.2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6.8	5.7	6.1	6.4	3.1	6.0	5.7	2.8	5.1	7.0	3.0	4.7	0.0	0.0	8.7	6.2
업무보조서비스, 근로지원서비스	3.2	4.6	3.9	3.1	0.0	0.9	3.7	5.0	3.8	9.7	7.4	9.6	0.0	4.4	5.6	3.4
기타	0.2	0.6	0.4	0.3	0.0	0.0	0.0	0.1	0.3	0.0	0.0	0.0	0.0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326,302	277,728	270,728	269,876	19,871	160,821	12,625	104,390	71,877	7,980	15,984	11,838	3,011	16,704	9,377	2,579,112

주: 무응답 제외

제6절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1. 사회 및 여가활동 현황

〈표 7-6-1〉 혼자 외출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92.9	55.7	83.6	94.0	85.1	59.5	33.6	79.3	88.8	88.9	71.6	96.9	100.0	91.0	75.7	84.3
아니오	7.1	44.3	16.4	6.0	14.9	40.5	66.4	20.7	11.2	11.1	28.4	3.1	0.0	9.0	24.3	1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장애인의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혼자서 외출할 수 있습니까? ” 에 대해 응답 장애인의 84.3%가 “혼자서 외출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15.7%의 장애인은 “혼자서 외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마도 15.7%의 장애인은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이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유형별로 혼자 외출 빈도에 대해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인과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의 혼자서 외출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2〉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거의 매일	73.2	47.0	66.9	69.2	66.9	69.8	86.4	40.3	63.7	56.1	52.8	78.5	73.8	72.5	67.8	67.3
주 1~3회	19.4	21.3	21.1	22.1	14.7	16.7	10.1	25.4	30.7	27.1	14.7	12.7	26.2	18.3	16.1	20.3
월 1~3회	5.1	14.3	8.4	6.1	8.6	7.0	1.7	17.8	2.1	16.8	15.4	4.4	0.0	9.2	9.2	7.2
전혀 외출 않음	2.4	17.4	3.5	2.6	9.9	6.5	1.8	16.5	3.5	0.0	17.1	4.4	0.0	0.0	6.9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지난 1개월 동안 어느 정도 외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이 67.3%, 주 1-3회 외출이 20.3%, 월 1-3회가 7.2%, 그리고 전혀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은 응답자의 5.2% 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인 거의매일 혹은 주 1-3회이상 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난 1개월간 전혀 외출하지 않는 빈도는 뇌병변장애인(17.4%), 정신장애인(16.5%), 호흡기 장애인(17.1%) 등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표 7-6-3〉 외출의 주된 목적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통근통학	43.2	17.5	39.5	37.6	45.1	49.1	68.2	9.3	17.6	25.2	18.3	38.1	57.4	25.2	14.3	38.0
병원 진료	11.1	21.2	11.5	7.0	4.1	5.9	1.8	16.7	43.7	14.8	17.7	10.5	0.0	14.8	11.6	12.3
쇼핑(물건사기)	2.9	4.2	2.4	3.9	8.9	3.6	7.0	8.5	0.8	4.8	5.1	1.0	0.0	5.7	7.7	3.4
산책·운동	25.5	41.5	28.3	32.6	28.7	25.4	3.3	39.7	28.8	41.6	46.1	44.6	0.0	42.4	40.7	28.9
친척 친구, 이웃방문	8.5	5.1	8.7	9.5	8.1	5.0	2.8	8.0	6.9	9.7	6.7	1.5	7.9	8.3	4.4	7.9
여행	0.1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역사회시설 이용/행사참여	6.9	9.0	8.0	8.5	5.1	10.5	16.9	15.4	1.2	3.8	5.5	1.2	0.0	3.6	21.4	7.8
일자리 구하기	0.9	0.7	0.7	0.2	0.0	0.4	0.0	0.0	0.7	0.0	0.6	3.1	34.7	0.0	0.0	0.7
기타	0.9	0.9	0.9	0.6	0.0	0.3	0.0	2.5	0.3	0.0	0.0	0.0	0.0	0.0	0.0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07,432	238,842	264,813	270,159	19,278	170,472	18,616	87,710	69,345	8,455	13,256	11,317	3,012	16,705	9,095	2,508,507

외출을 하는 주된 목적은 주로 통근이나 통학(38.0%), 산책이나 운동(28.9%) 그리고 병원진료를 위하여(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쇼핑이나 친지, 친구 방문목적으로 외출하고, 지역사회시설이용이나 쇼핑목적 순으로 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출의 주목적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장장애인(43.7%)은 병원진료목적으로 가장 높았고, 통학·통근목적은 지체(43.2%), 시각(39.5%), 청각(37.6%), 언어(45.1%), 지적장애인(49.1%) 등으로 높았고, 자폐성장애인의 경우(68.2%)로 통학·통근 목적의 외출에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7-6-4〉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교통이 불편	0.5	0.0	0.0	0.0	0.0	5.5	0.0	1.8	0.0	-	13.6	0.0	-	-	0.0	1.1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0.0	1.3	0.7	0.0	0.0	0.0	0.0	3.0	0.0	-	0.0	0.0	-	-	0.0	0.9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69.6	70.5	46.6	56.8	79.2	24.4	74.6	45.3	71.5	-	86.4	54.6	-	-	21.2	60.9
외출 도우미가 없어서	5.7	8.6	19.9	17.4	0.0	23.5	0.0	7.8	0.0	-	0.0	0.0	-	-	0.0	9.8
시간이 없어서	0.5	0.0	0.0	0.0	0.0	0.0	0.0	2.8	0.0	-	0.0	0.0	-	-	0.0	0.5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12.8	5.3	19.1	22.9	20.8	26.5	0.0	12.7	21.1	-	0.0	0.0	-	-	0.0	12.1
주위의 시선 때문에	0.0	0.7	6.0	0.0	0.0	13.6	25.4	0.0	0.0	-	0.0	0.0	-	-	0.0	1.9
기타	10.8	13.6	7.6	2.9	0.0	6.5	0.0	26.7	7.3	-	0.0	45.4	-	-	78.8	1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100.0	100.0
전국추정수	32,137	50,414	9,671	7,271	2,122	11,863	335	17,291	2,532	-	2,728	522	-	-	670	137,556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 장애인의 60.9%가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라고 하였고, 12.1%는 본인이 외출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은 호흡기장애(86.4%), 언어(79.2%), 자폐성(74.6%), 뇌병변(70.5%), 지체(69.6%)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출도우미가 없어서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은 지적장애(23.5%), 시각장애(19.9%), 청각장애(17.4%)의 순이며, 주위의 시선 때문인 경우는 자폐성장애(25.4%)와 지적장애(13.6%)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지체·뇌병변장애인이나, 호흡기, 간장애인과 같은 신체적 장애인은 불편한 몸 때문에, 시·청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은 외출 시 길안내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가 부족한 점을 외출이 어려운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표 7-6-5〉 집밖 활동시 불편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불편	12.1	37.6	20.5	10.4	12.2	24.2	39.9	12.1	18.8	32.1	37.1	4.9	0.0	34.4	17.5	16.8
약간 불편	26.6	36.1	24.3	32.4	31.8	34.7	41.7	27.0	21.1	31.7	27.7	6.5	72.4	37.8	10.8	28.5
거의 불편하지 않다	42.6	22.1	41.0	44.5	36.9	34.3	12.7	40.2	41.2	30.5	24.3	64.8	12.1	24.9	48.8	39.5
전혀 불편하지 않다	18.7	4.2	14.3	12.7	19.1	6.8	5.7	20.6	18.9	5.8	10.9	23.8	15.5	2.9	22.9	1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07,432	238,842	264,813	270,159	19,278	170,472	18,616	87,710	69,345	8,455	13,256	11,317	3,012	16,705	9,095	2508,507

집밖 활동 시 느끼는 불편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불편(16.8%), 약간불편(28.5%) 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장애인의 45.3%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략 54.7%으로 나타났다.

〈표 7-6-6〉 집밖 활동시 불편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장애인관련 편의시설부족	68.6	44.0	40.6	15.1	6.0	7.2	5.5	9.4	59.1	75.1	44.9	23.4	14.5	45.8	20.6	47.0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19.8	38.3	50.5	22.5	11.3	46.4	44.5	30.9	37.8	24.9	29.2	28.5	11.0	4.5	52.8	29.5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에	10.0	10.8	6.2	1.4	12.3	20.7	26.3	44.7	2.5	0.0	19.2	0.0	74.6	39.0	11.7	11.4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0.7	5.5	1.1	60.7	70.4	25.6	23.6	15.0	0.6	0.0	0.0	0.0	0.0	3.6	14.9	11.1
기타	1.0	1.5	1.6	0.3	0.0	0.0	0.0	0.0	0.0	0.0	6.7	48.2	0.0	7.1	0.0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치	505,808	176,166	118,547	115,577	8,471	100,290	15,193	34,344	27,668	5,392	8,585	1,293	2,181	12,067	2,572	1,134,154

집밖 활동시 불편은 느끼는 주된 이유, 대부분의 장애인이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이 없어서(47.0%),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29.5%)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의사람의 시선(11.4%)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11.1%) 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7〉 주요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일반버스	28.6	16.8	32.2	36.4	31.5	32.0	20.1	41.2	26.3	25.3	15.9	37.2	43.0	48.5	39.5	29.4
일반택시	5.2	9.1	7.0	2.2	1.3	3.8	2.9	7.9	6.8	0.0	0.9	12.3	0.0	7.9	6.0	5.4
지하철·전철	12.0	12.0	16.7	16.9	11.2	10.4	11.1	18.9	11.5	4.2	21.4	13.9	16.4	8.7	11.9	13.2
장애인 콜택시	0.9	7.9	3.3	0.0	0.7	0.8	1.8	1.4	4.8	0.0	3.3	0.0	0.0	4.9	5.6	1.9
복지관버스	0.2	0.7	0.9	0.7	0.0	4.1	5.8	0.2	4.3	0.0	0.0	0.0	0.0	0.0	0.0	0.8
자가용	38.7	32.5	26.9	25.5	27.5	22.1	26.9	8.1	37.3	52.7	39.5	25.6	27.7	19.9	14.5	32.8
셔틀형 복지버스	0.3	0.9	0.0	0.3	0.0	0.2	3.7	0.7	2.4	0.0	0.0	0.0	0.0	0.0	12.3	0.4
전동휠체어	1.0	3.1	0.4	0.0	0.0	0.0	0.0	0.0	0.0	3.6	0.0	0.0	0.0	0.0	0.0	0.9
전동스쿠터	1.9	2.4	0.3	0.2	0.0	0.0	0.0	0.3	1.0	3.7	5.7	0.0	0.0	0.0	0.6	1.3
통학·통근버스	0.6	0.5	1.2	0.5	5.6	5.5	18.9	0.8	0.0	0.0	0.0	0.0	0.0	0.0	0.0	1.1
도보	6.8	10.9	8.2	11.9	17.5	16.6	8.9	15.8	2.6	10.5	7.0	11.0	0.0	5.1	9.7	8.9
기타	3.7	3.1	2.8	5.4	4.8	4.6	0.0	4.6	3.0	0.0	6.2	0.0	12.9	5.0	0.0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치	1,307,432	238,842	264,813	270,159	19,278	170,472	18,616	87,710	69,345	8,455	13,256	11,317	3,012	16,705	9,095	2,508,507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은 자가용(32.8%)이며, 일반버스(29.4%) 지하철, 전철(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보(8.9%), 일반택시(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6-8〉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어렵다	10.4	35.5	18.0	7.0	13.9	20.6	28.7	9.7	12.7	22.3	12.5	3.2	0.0	22.4	13.7	14.2
약간 어렵다	26.2	34.3	25.8	22.0	12.5	25.4	19.5	14.8	19.0	29.7	32.7	5.9	24.3	14.6	23.1	25.5
거의 어렵지 않다	42.8	26.1	40.1	53.2	57.3	44.6	45.9	48.5	47.7	39.9	41.3	70.4	48.1	41.9	30.0	42.7
전혀 어렵지 않다	20.6	4.1	16.1	17.8	16.3	9.4	5.9	27.0	20.6	8.0	13.5	20.5	27.6	21.0	33.3	1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치	1,307,432	238,842	264,813	270,159	19,278	170,472	18,616	87,710	69,345	8,455	13,256	11,317	3,012	16,705	9,095	2,508,507

장애인들은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매우 어렵다(14.2%), 약간어렵다(25.5%)로 전체 응답 장애인의 39.7%가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거의 어렵지 않다(42.7%), 전혀 어렵지 않다(17.5%) 즉 60.2%의 장애인은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

〈표 7-6-9〉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버스·택시가 불편해서	66.6	57.9	56.0	66.3	51.1	44.7	55.7	64.4	39.0	27.9	51.4	83.6	32.7	60.4	58.4	61.0
편의시설 부족	19.9	13.4	18.1	19.2	13.5	8.4	0.0	9.2	21.0	43.8	21.3	16.4	0.0	14.4	0.0	17.2
전용 교통수단 부족	9.8	20.5	21.2	10.2	17.0	14.7	16.1	11.6	35.5	24.8	27.2	0.0	0.0	18.8	37.8	14.3
장애인용 자가용 보급/운전면허증 확보 어려움	0.3	0.7	1.2	0.1	0.0	0.0	0.0	0.9	0.0	0.0	0.0	0.0	0.0	0.0	0.0	0.4
전동휠체어가 없어서	1.9	3.7	0.1	1.8	0.0	0.7	0.0	0.0	3.7	3.5	0.0	0.0	0.0	0.0	0.0	1.8
기타	1.5	3.8	3.5	2.3	18.4	31.4	28.2	14.0	0.7	0.0	0.0	0.0	67.3	6.4	3.8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치	478,869	166,610	116,005	78,408	5,093	78,373	8,964	21,476	21,943	4,404	5,997	1,034	732	6,184	3,343	997,435

주: 무응답 제외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의 주된 이유는 버스 택시가 불편해서(61.0%), 지하철 엘레베이터의 편의시설 부족(17.2%)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의 부족(14.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7-6-10〉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감상·관람(연극, 영화 등)	7.9	5.3	5.1	4.8	2.7	10.3	10.9	7.9	8.7	10.2	2.1	14.2	2.1	0.0	10.0	7.1
TV시청(유선방송, 비디오 포함)	98.1	92.1	91.4	95.9	98.0	95.3	83.5	92.6	98.2	96.0	100.0	87.1	96.3	94.6	96.0	96.0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31.8	19.0	27.6	23.3	28.3	35.9	49.8	19.2	40.9	38.5	16.3	40.3	78.1	19.5	29.6	29.1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 등)	6.3	4.1	4.7	5.7	4.9	3.9	5.0	3.6	7.2	10.0	9.5	7.4	12.1	8.3	12.3	5.6
창작적 취미(미술, 서예, 글쓰기, 악기연주 등)	3.7	1.7	5.0	3.1	2.5	6.7	25.2	5.1	4.6	0.0	0.0	4.1	14.2	5.2	5.4	4.0
독서, 신문이나 잡지 읽기	28.7	18.9	22.1	25.9	19.3	11.0	28.2	18.2	30.8	41.6	17.4	41.7	39.7	25.3	19.3	25.0
스포츠(축구, 테니스, 수영 등)	9.9	5.2	8.5	9.5	7.4	15.4	40.2	8.5	7.0	8.2	0.0	10.8	0.0	8.9	0.9	9.5
학습활동(영어, 한문, 교양강좌 등)	3.5	3.3	4.4	2.2	3.3	7.9	27.3	4.0	3.0	1.4	0.0	5.1	16.4	1.8	14.7	3.9
사회(자원) 봉사활동	4.8	2.7	3.6	3.5	1.5	1.5	0.0	4.9	3.2	0.0	0.0	2.2	0.0	8.3	0.0	3.9
여행(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11.9	2.6	9.6	10.6	8.1	6.1	24.9	2.0	13.1	18.7	2.1	16.1	28.5	12.3	5.4	9.8
사교 일(친구친척만남, 모임 등)	64.5	36.7	60.8	58.8	50.0	35.4	36.1	29.1	56.2	51.9	33.5	55.6	52.4	53.5	45.6	56.1
해외여행(지난 1년 동안)	5.3	1.1	3.5	2.4	3.3	2.8	3.6	0.7	5.5	12.1	0.0	3.5	0.0	6.7	0.0	3.9
가족관련 일(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38.8	20.7	30.8	36.2	31.2	29.7	53.9	18.9	39.5	27.7	23.0	31.7	44.8	23.5	19.2	34.1
가사잡일(장보기 포함)	67.2	33.7	58.9	65.2	36.0	36.3	12.1	49.1	58.6	69.8	44.0	64.7	44.5	64.5	62.1	58.5
휴식(사우나 등)	32.8	21.2	29.2	29.6	29.4	22.9	21.9	14.9	30.6	25.4	20.3	26.1	18.5	23.1	19.0	29.0
기타	1.2	1.3	2.3	1.0	2.7	0.8	0.0	1.6	1.8	0.0	0.0	2.9	0.0	3.1	0.0	1.3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지난 1주일 동안 어떤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 생활에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수(96%)의 장애인이 TV를 시청하였고, 가사잡일(장보기 등)(58.5%), 장애인이 사교 일(친구, 친척과의 만남, 모임 참석)(56.1%), 가족관련 일(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34.1%)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사용(29.1%), 휴식(사우나)(29.0%), 신문이나 독서, 잡지읽기(25.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문화 및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는 여행 등 관광활동(9.8%), 스포츠(축구, 수영 등)(9.5%), 활동연극, 영화 감상(7.1%)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소수의 장애인들이 바둑 등 승부놀이(5.6%), 창작목적의 예술활동(4.0%), 학습활동(3.9%) 그리고 해외여행(3.9%)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6-11〉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만족	5.7	1.9	5.5	4.7	4.8	9.2	13.0	3.4	7.4	4.0	1.8	6.7	0.0	5.7	8.4	5.4
약간 만족	39.6	22.4	38.9	43.8	48.0	37.7	51.1	36.1	26.0	37.6	23.5	34.7	54.9	34.0	38.9	37.5
약간 불만족	40.5	38.6	37.5	38.7	39.8	34.2	23.7	38.7	41.2	37.4	50.2	34.8	31.8	31.4	29.2	39.1
매우 불만족	14.2	37.1	18.1	12.8	7.3	18.8	12.2	21.8	25.4	21.1	24.4	23.8	13.4	28.9	23.5	1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8,244	289,257	274,484	277,019	21,400	181,800	18,951	105,001	71,876	8,457	15,984	11,839	3,013	16,705	9,764	2,643,794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들의 문화 여가 활동 만족 정도에 대하여, 매우 만족(5.4%), 약간만족(37.5%), 그리고 약간 불만족(39.1%), 매우 불만족(18.0%)으로 나타나, 문화 여가 활동에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장애인(42.9%) 보다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장애인(57.1%) 비율이 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12〉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경제적 부담	37.2	17.9	32.6	29.1	12.1	15.4	12.5	31.2	26.8	35.7	15.3	37.8	76.7	41.3	5.7	30.7
시간의 부족	14.2	4.0	11.7	14.5	14.3	3.3	0.0	1.7	3.6	0.0	0.0	2.1	23.3	0.4	0.0	10.5
교통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의 불편	2.5	3.5	2.9	1.7	0.9	1.9	4.9	1.5	1.6	0.0	2.4	0.0	0.0	0.0	0.0	2.5
도우미가 없어서	1.4	4.6	6.4	1.1	2.5	10.6	17.9	8.9	2.2	7.4	0.0	0.0	0.0	0.0	10.3	3.4
여가시설의 부족	2.5	1.0	0.4	3.3	0.6	2.8	2.6	2.2	0.0	0.0	2.1	4.9	0.0	2.9	0.0	2.1
여가시설내 편의시설이 부족	1.2	1.7	4.1	0.7	0.0	1.5	2.2	1.0	0.0	0.0	0.0	0.0	0.0	0.0	1.7	1.5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	1.8	1.4	2.3	0.2	12.8	11.2	0.0	0.9	0.2	0.0	0.0	0.0	0.0	0.0	0.0	2.1
적당한 취미의 부재	8.7	5.9	12.1	10.2	0.0	13.7	0.0	17.7	6.7	6.7	2.7	2.5	0.0	8.4	2.8	9.2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	29.9	52.6	25.9	23.1	29.2	8.3	3.2	24.7	58.9	50.2	76.4	47.6	0.0	47.0	72.2	32.1
의사소통의 어려움	0.5	6.9	1.3	15.9	27.6	31.3	56.8	10.3	0.0	0.0	0.0	5.1	0.0	0.0	7.4	5.8
기타	0.1	0.5	0.3	0.2	0.0	0.0	0.0	0.0	0.0	0.0	1.0	0.0	0.0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31,465	218,983	152,598	142,663	10,084	96,405	6,794	63,512	47,919	4,946	11,934	6,935	1,359	10,063	5,146	1,510,806

주: 무응답 제외

문화여가 활동이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1%가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30.7%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10.5%),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의 부족(9.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밖에도 도우미가 없어서(3.4%), 교통혼잡 및 이용수단이 불편해서(2.5%), 여가시설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2.1%) 등의 이유로 문화여가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문화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부담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시간과 문화여가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 등 문화적인 환경이 장애인 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이 문화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위해서는 이동이 편리해야 함은 물론, 문화시설 등에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 확대가 요구된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실태를 보면 영화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문화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낮게 나타났다. 다른 말로 하면, 영화를 제외한 문화예술 참여 활동은 장애인의 3% 미만만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화의 경우, 연 1~3회 관람이 13.9%, 연 4~6회 관람이 5.4%, 연 7회 이상이 3.9%로 나타나, 최소 1회 이상 본 비율이 약 24%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의 영화 관람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의 영화 관람 비율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고, 그 원인은 주로 우리의 문화예술 환경이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한 점 등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문화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7-6-13〉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문학행사																
없음	97.8	98.6	97.0	98.6	99.2	97.6	93.1	97.2	95.8	100.0	100.0	99.2	83.6	96.3	96.9	97.8
1~3회	1.8	1.3	2.1	1.2	0.8	1.9	3.7	2.7	4.2	0.0	0.0	0.8	0.0	0.0	3.1	1.8
4~6회	0.2	0.1	0.3	0.0	0.0	0.4	0.0	0.1	0.0	0.0	0.0	0.0	0.0	0.0	0.0	0.2
7회이상	0.2	0.0	0.6	0.1	0.0	0.0	3.3	0.0	0.0	0.0	0.0	0.0	16.4	3.7	0.0	0.3
미술 전시회																
없음	96.7	98.6	96.1	98.2	91.4	97.8	91.9	98.1	97.7	100.0	100.0	96.3	100.0	98.6	94.6	97.1
1~3회	2.6	1.3	2.1	1.4	5.6	2.2	4.0	1.5	1.8	0.0	0.0	3.7	0.0	1.4	5.4	2.2
4~6회	0.4	0.1	1.1	0.0	0.0	0.0	0.0	0.4	0.0	0.0	0.0	0.0	0.0	0.0	0.0	0.3
7회이상	0.3	0.0	0.7	0.4	3.0	0.0	4.2	0.0	0.4	0.0	0.0	0.0	0.0	0.0	0.0	0.3
서양음악																
없음	98.8	99.3	98.1	99.9	99.6	98.7	97.5	99.2	95.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8.8
1~3회	1.0	0.7	1.7	0.1	0.4	1.3	2.5	0.8	3.6	0.0	0.0	0.0	0.0	0.0	0.0	1.0
4~6회	0.2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7회이상	0.1	0.0	0.1	0.0	0.0	0.0	0.0	0.0	0.7	0.0	0.0	0.0	0.0	0.0	0.0	0.1
전통예술																
없음	98.4	98.9	98.3	98.8	96.3	98.7	98.5	98.6	98.5	100.0	95.4	94.9	100.0	100.0	100.0	98.5
1~3회	1.3	1.0	1.1	1.2	2.9	0.8	1.5	1.4	0.8	0.0	4.6	5.1	0.0	0.0	0.0	1.2
4~6회	0.2	0.1	0.3	0.0	0.8	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7회이상	0.1	0.1	0.3	0.0	0.0	0.0	0.0	0.0	0.7	0.0	0.0	0.0	0.0	0.0	0.0	0.1
연극																
없음	98.3	97.4	97.8	98.7	93.8	96.3	98.5	99.8	96.4	91.8	100.0	88.7	100.0	100.0	95.1	98.0
1~3회	1.4	2.2	2.0	1.1	3.3	2.7	1.5	0.2	3.6	8.2	0.0	11.3	0.0	0.0	4.9	1.7
4~6회	0.2	0.1	0.2	0.1	2.2	0.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7회이상	0.0	0.2	0.0	0.0	0.8	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뮤지컬																
없음	98.2	98.3	98.4	99.1	96.2	96.6	96.3	98.7	94.0	91.8	100.0	93.7	100.0	100.0	95.1	98.0
1~3회	1.8	1.2	1.6	0.6	3.8	3.4	1.5	1.3	6.0	8.2	0.0	6.3	0.0	0.0	4.9	1.8
4~6회	0.0	0.4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7회이상	0.1	0.1	0.0	0.0	0.0	0.0	2.2	0.0	0.0	0.0	0.0	0.0	0.0	0.0	0.0	0.1
무용																
없음	99.7	99.7	99.9	99.7	100.0	99.3	100.0	100.0	100.0	100.0	100.0	98.3	100.0	100.0	100.0	99.7
1~3회	0.2	0.3	0.0	0.3	0.0	0.7	0.0	0.0	0.0	0.0	0.0	1.7	0.0	0.0	0.0	0.2
4~6회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7회이상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영화																
없음	75.2	83.1	81.7	83.3	75.5	65.6	60.5	78.0	68.2	84.5	85.2	70.2	69.4	91.9	81.0	76.9
1~3회	14.8	11.0	11.0	10.4	12.4	22.4	18.9	9.6	16.7	15.5	12.7	11.8	14.2	8.1	19.0	13.9
4~6회	5.9	3.4	4.3	3.1	6.2	7.8	7.0	6.9	9.8	0.0	2.1	8.5	0.0	0.0	0.0	5.4
7회이상	4.1	2.5	3.0	3.2	5.9	4.3	13.6	5.4	5.2	0.0	0.0	9.4	16.4	0.0	0.0	3.9
대중음악, 연예																
없음	97.4	98.5	97.4	98.9	96.7	97.3	95.7	98.1	98.5	100.0	100.0	92.4	100.0	100.0	100.0	97.8
1~3회	2.0	1.4	2.4	1.1	0.0	2.0	4.3	1.2	1.5	0.0	0.0	7.6	0.0	0.0	0.0	1.8
4~6회	0.3	0.1	0.2	0.1	3.3	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7회이상	0.2	0.0	0.0	0.0	0.0	0.2	0.0	0.7	0.0	0.0	0.0	0.0	0.0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예술행사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는 주로 TV나 인터넷(60.1%), 주변사람(16.9%),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10.3%) 그리고 3.6%의 장애인은 안내문(현수막, 간판, 지하철광고 등)을 통해 예술행사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볼 때 예술행사에 대한 정보 접근방식에 큰 차이는 없으나, 시청각 장애인, 자폐지적장애인 등 각 유형별로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이 다른 점 등,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화예술행사소식을 알리는 방식도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7-6-14〉 예술행사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얻는 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신문,잡지	2.8	1.7	2.9	3.5	3.0	1.9	8.4	0.7	1.6	18.1	1.4	12.1	0.0	6.2	1.5	2.7
TV,라디오	62.2	61.0	57.8	59.0	49.6	45.6	38.4	69.8	58.6	57.5	65.3	68.2	21.4	71.0	50.4	60.1
안내문(현수막,간판,지하철광고 등)	4.0	2.9	3.2	3.0	1.1	4.3	1.9	3.3	3.5	7.0	0.0	0.0	0.0	1.8	14.1	3.6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11.5	7.6	8.9	7.4	18.3	10.4	18.5	5.0	19.5	5.4	6.5	14.2	49.7	1.7	7.9	10.3
소셜미디어(SNS)	0.5	0.8	1.0	0.7	0.0	0.7	2.4	0.7	1.0	0.0	0.0	0.0	0.0	0.0	5.2	0.6
공공단체·교육기관	0.8	1.6	2.1	1.1	0.0	7.8	12.7	0.7	1.3	0.0	4.6	0.0	0.0	2.2	3.9	1.7
주변사람	14.8	18.9	20.8	19.9	26.3	22.6	11.0	14.6	11.4	12.0	21.0	2.6	29.0	12.8	17.1	16.9
해당 안내책자	0.4	0.2	0.4	0.9	1.4	0.4	1.3	0.0	0.5	0.0	0.0	0.0	0.0	1.4	0.0	0.4
정기발행 안내이메일 및 뉴스레터	0.3	0.1	0.0	0.0	0.0	0.0	0.0	0.0	0.5	0.0	0.0	0.0	0.0	0.0	0.0	0.2
동호인모임	0.3	0.0	0.3	0.0	0.0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기타	2.4	5.2	2.5	4.5	0.3	5.2	5.4	5.1	2.3	0.0	1.2	2.9	0.0	3.0	0.0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치	1,339,101	288,521	274,484	277,021	21,400	181,799	18,951	104,280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5	2,643,195

주: 무응답 제외

예술 행사를 관람하고 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관람비용(27.7%),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20.2%), 접근성(19.1%) 그리고 교통의 편의(13.8%)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밖에도 참가자(작가, 출연자)의 유명도 및 예술행사에 주위의견, 네티즌 의견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15〉 예술행사 관람시 가장 중요한 기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	21.8	16.6	22.5	17.2	15.5	14.3	28.2	20.9	25.1	28.1	17.9	23.7	18.5	8.6	7.4	20.2
관람비용의 적절성	29.6	22.2	25.0	29.2	30.4	26.0	13.2	25.7	25.8	27.9	25.1	34.8	18.3	40.3	36.9	27.7
참가자의 유명도	5.7	2.6	6.2	5.5	10.6	2.6	1.8	5.4	8.6	0.0	3.3	11.5	15.9	4.5	6.3	5.3
행사개최 장소의 유명도	2.0	1.2	1.8	2.2	0.0	0.7	0.0	0.6	0.9	0.0	0.0	2.9	0.0	0.0	0.0	1.7
교통의 편의성	12.8	22.7	11.8	14.3	15.5	13.2	9.0	9.3	13.7	6.5	13.3	11.6	12.1	7.0	15.5	13.8
편의시설 구비여부(놀이방 등)	2.6	7.7	1.1	1.7	4.2	5.2	21.2	1.5	3.6	10.7	3.3	0.0	0.0	10.7	7.9	3.3
전문가의견, 언론보도	2.0	0.8	2.7	1.3	0.0	1.3	3.2	0.4	2.7	0.0	0.0	5.0	0.0	3.4	1.3	1.8
주위 의견, 네티즌 의견	4.9	3.6	5.5	4.5	8.5	10.6	10.5	7.3	4.0	0.0	5.3	0.6	0.0	3.8	0.0	5.3
접근성(가깝다)	17.5	18.3	21.1	22.3	15.3	24.1	10.5	24.6	13.4	26.8	31.0	10.0	35.2	21.2	24.7	19.1
기타	1.1	4.3	2.4	1.8	0.0	2.0	2.3	4.3	2.2	0.0	0.7	0.0	0.0	0.4	0.0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치	1,338,245	288,522	274,053	277,020	21,400	181,800	18,951	103,892	71,874	8,456	15,985	11,841	3,013	16,704	9,763	2,641,519

주: 무응답 제외

예술행사 관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의 부담(36.8%),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15.6%),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10.6%), 그리고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다(11.0%)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나타났다.

이밖에도 교통이 불편하다(8.8%), 편의시설이 불편하다(3.8%) 관련정보가 부족하다(6.4%),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없다(5.2%) 등의 이유로 인해 예술행사 관람에 불편을 나타냈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장애유형을 고려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예컨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과 접근성,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이동의 문제나 물리적인 시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

〈표 7-6-16〉 예술행사 관람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비용이 많이 든다	38.9	34.1	39.7	35.9	38.1	27.3	18.1	33.1	40.2	31.5	32.6	52.0	10.9	33.1	20.3	36.8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14.7	2.9	9.9	10.1	0.0	4.8	6.8	2.7	6.9	5.4	0.0	3.6	13.4	2.2	0.0	10.6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14.1	16.1	15.1	19.6	13.3	18.6	8.9	21.4	12.4	14.6	17.7	15.8	16.4	23.9	19.3	15.6
교통이 불편하다	9.7	14.3	7.4	6.6	12.8	3.8	2.6	5.4	5.7	6.5	7.2	0.9	20.4	5.4	10.1	8.8
편의시설(놀이방 등)이 불편하다	3.5	8.3	2.3	1.3	1.8	4.9	12.5	0.4	5.5	7.2	8.5	0.0	0.0	13.9	0.5	3.8
관련정보가 부족하다	5.7	3.9	6.2	7.9	12.0	8.7	18.1	8.9	4.1	12.5	4.3	7.7	12.1	11.6	22.2	6.4
함께 관람할 사람이 없다	2.6	6.4	6.2	3.8	12.0	14.8	13.5	15.4	6.4	2.0	11.7	3.0	0.0	2.9	8.8	5.2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다	9.8	10.1	10.9	13.6	6.7	15.4	9.7	9.7	16.4	16.8	14.5	13.9	10.5	6.4	18.8	11.0
기타	1.0	3.9	2.3	1.1	3.4	1.8	9.6	3.1	2.4	3.6	3.4	3.1	16.4	0.4	0.0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치	1,338,246	289,257	274,052	276,677	21,399	181,800	18,951	104,278	71,875	8,457	15,983	11,838	3,013	16,706	9,763	2,642,295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의 참정권은 권리행사에 있어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이다.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에 관해서 장애인의 74.8%가 참여하였으며, 22.0%의 장애인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17〉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예	85.1	59.8	78.0	81.4	62.5	32.8	14.9	42.7	75.2	81.3	75.0	93.2	85.0	76.6	64.7	74.8
아니오	14.6	36.2	20.5	16.8	29.2	44.0	21.2	55.3	24.8	13.4	25.0	6.8	0.0	23.4	26.0	22.0
비해당(투표권 없었음)	0.3	4.0	1.5	1.8	8.3	23.3	63.9	2.0	0.0	5.4	0.0	0.0	15.0	0.0	9.4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주: 비해당: 만 19세 미만, 금치산자 등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들 가운데,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몸이 불편해서(43.9%),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34.1%) 로 그 이유를 나타냈다. 이밖에 시간이 없어서(8.4%), 정보가 부족해서(5.2%), 도우미가 없어서(3.0%) 등의 순으로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였다. 투표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가 몸이 불편해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표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문제로 파악된다. 현행 선거법 가운데, 장애인 등 특수상황에 놓인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6-18〉 투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교통불편	1.7	0.4	0.0	0.0	0.0	1.4	0.0	2.5	0.0	0.0	0.0	0.0	-	0.0	0.0	1.1
편의시설 부족	0.7	0.6	0.0	0.0	3.9	4.2	7.2	0.2	0.0	0.0	0.0	0.0	-	0.0	0.0	1.0
몸이 불편해서	35.2	76.5	39.7	40.1	35.3	29.6	31.7	32.9	62.0	53.7	88.9	66.1	-	65.5	48.3	43.9
도우미가 없어서	2.1	2.6	3.8	0.7	5.8	8.4	0.0	0.0	5.1	0.0	0.0	0.0	-	0.0	0.0	3.0
정보 부족	4.4	1.9	8.5	7.6	0.0	8.6	22.8	3.6	7.9	0.0	0.0	0.0	-	0.0	0.0	5.2
시간이 없어서	15.4	1.9	12.2	10.2	4.8	2.6	0.0	2.4	8.8	0.0	0.0	0.0	-	0.0	0.0	8.4
본인이 원치 않아서	39.2	14.0	35.3	41.4	50.2	32.8	22.7	53.6	16.2	46.3	11.1	33.9	-	34.5	44.2	34.1
주위의 시선 때문에	0.2	0.5	0.5	0.0	0.0	3.2	0.0	0.4	0.0	0.0	0.0	0.0	-	0.0	0.0	0.7
기타	1.2	1.6	0.0	0.0	0.0	9.3	15.5	4.3	0.0	0.0	0.0	0.0	-	0.0	7.5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5,078	102,936	56,275	45,501	6,258	80,187	4,019	57,128	17,856	1,129	4,000	805	-	3,915	2,536	577,623

주: 무응답 제외

제7절 결혼생활·여성장애인

1. 결혼 및 자녀

〈표 7-7-1〉 결혼상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유배우	59.3	57.0	59.8	59.7	40.1	14.4	0.0	18.3	62.6	77.7	55.9	78.0	45.8	62.9	44.5	54.7
사별	21.8	18.5	21.3	25.6	15.6	3.3	0.0	3.9	11.4	14.5	26.0	3.3	13.4	23.1	13.0	19.5
이혼	8.8	8.7	6.9	7.3	11.8	5.5	0.0	19.0	11.0	0.0	4.6	11.0	0.0	14.1	21.1	8.7
별거	1.9	2.4	1.9	0.1	0.0	0.5	0.0	0.5	1.8	0.0	4.1	5.1	0.0	0.0	0.0	1.6
미혼	8.1	13.5	10.0	7.2	32.5	76.1	100.0	57.7	13.3	7.9	9.5	2.6	40.8	0.0	21.4	15.4
기타(미혼모/부)	0.1	0.0	0.0	0.0	0.0	0.0	0.0	0.5	0.0	0.0	0.0	0.0	0.0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6,019	278,007	270,970	273,048	19,623	147,595	8,851	104,320	71,877	8,004	15,985	11,839	2,560	16,704	8,850	2574,252

현재 결혼 상태에 대해서는 유배우자(54.7%) 사별(19.5%) 이혼(8.7%) 별거(1.6%) 그리고 미혼(15.4%)이고 기타(미혼모 혹은 미혼부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인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장애인(76.1%)과 정신장애인(57.7%)의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결혼하지 않고 미혼상태인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7-2〉 결혼 시 연령

(단위: %, 세,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만 10~19세	11.5	12.5	11.7	17.2	7.2	11.5	-	5.7	9.0	11.2	21.3	0.6	21.6	8.6	0.0	12.0
만 20~29세	70.2	67.5	68.7	68.0	64.0	56.9	-	58.7	74.9	70.3	63.2	76.7	54.3	69.6	37.6	69.0
만 30~39세	15.6	18.6	15.9	12.8	28.8	30.4	-	33.4	14.7	18.5	12.4	21.2	24.1	21.8	46.2	16.5
만 40~49세	2.0	1.0	3.6	1.5	0.0	0.0	-	2.2	1.5	0.0	0.0	1.5	0.0	0.0	11.6	2.0
만 50세이상	0.7	0.3	0.1	0.4	0.0	1.2	-	0.0	0.0	0.0	3.1	0.0	0.0	0.0	4.6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연령	25.7	25.5	25.9	24.7	26.5	27.3	-	27.3	25.6	25.5	25.3	26.8	27.5	26.3	32.2	25.6
전국추정수	1,225,802	240,375	243,941	252,822	13,244	34,685	-	42,691	62,328	7,373	14,474	11,535	1,516	16,705	6,957	2,174,448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의 평균 결혼연령은 25.6세이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20세~29세(69.0%)에 결혼하고, 이외 장애인의 결혼연령은 30세~39세(16.5%), 10세~19세(12.0%), 40세~49세(2.0%)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7-3〉 결혼 시 본인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22.5	7.4	34.9	33.4	30.2	78.0	-	39.3	7.9	17.0	11.7	5.3	51.8	4.7	52.5	24.2
아니오	77.5	92.6	65.1	66.6	69.8	22.0	-	60.7	92.1	83.0	88.3	94.7	48.2	95.3	47.5	7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5,802	240,375	243,940	253,298	13,244	35,219	-	43,559	62,328	7,373	14,473	11,535	1,516	16,705	6,957	2,176,324

결혼 당시 장애여부에 대해서는 24.2%의 장애인이 결혼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75.8%의 장애인은 결혼 당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혼 당시 지적장애인(78.0%), 뇌전증장애인(52.5%)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시각(34.9%) 청각(33.4%) 언어(30.2%) 장애인의 경우에도 대체로 높은 비율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

적으로 뇌병변장애(7.4%), 신장장애(7.9%), 호흡기장애(11.7%) 등으로 결혼 전 장애를 가지고 있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이들의 장애는 대체로 성인기 이후 사고나 재해 혹은 질병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7-7-4〉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1.7	1.0	2.1	6.2	3.4	22.1	-	9.5	0.7	0.0	0.0	0.0	0.0	0.0	16.1	2.7
아니오	98.3	99.0	97.9	93.8	96.6	77.9	-	90.5	99.3	100.0	100.0	100.0	100.0	100.0	83.9	9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5,802	240,375	243,623	253,299	13,244	34,685	-	43,560	62,328	7,373	14,473	11,535	1,516	16,705	6,957	2,175,475

주: 무응답 제외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여부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장애가 없다(97.3%)고 응답하였고, 2.7%의 장애인만이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들과 결혼 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본 조사결과 장애인이 장애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5〉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지체장애	73.0	79.3	25.6	0.7	-	32.4	-	17.1	67.3	-	-	-	-	-	-	38.3
뇌병변장애	3.1	-	-	4.1	-	-	-	-	-	-	-	-	-	-	-	2.2
시각장애	7.0	-	48.1	4.8	-	-	-	-	-	-	-	-	-	-	27.0	8.7
청각장애	10.4	-	7.7	87.3	50.4	4.9	-	-	32.7	-	-	-	-	-	-	29.1
언어장애	3.1	-	-	0.6	49.6	-	-	-	-	-	-	-	-	-	-	1.7
지적장애	2.0	20.7	13.3	1.6	-	62.7	-	56.6	-	-	-	-	-	-	-	15.5
자폐성장애	-	-	-	-	-	-	-	-	-	-	-	-	-	-	-	-
정신장애	1.4	-	-	-	-	-	-	26.3	-	-	-	-	-	-	73.0	3.8
신장장애	-	-	-	0.9	-	-	-	-	-	-	-	-	-	-	-	0.2
심장장애	-	-	-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	-	-	-	-
뇌전증장애	-	-	5.3	-	-	-	-	-	-	-	-	-	-	-	-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21,134	2,491	5,226	15,597	448	7,656	-	4,150	443	-	-	-	-	-	1,119	58,264

주: 무응답 제외

결혼 당시 배우자의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지체장애(38.3%), 청각장애(29.1%), 지적장애(15.5%), 시각장애(8.7%), 정신장애(3.8%), 뇌병변장애(2.2%), 언어장애(1.7%) 등으로 나타났고, 이밖에도 뇌전증(간질)장애(0.5%), 신장장애(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배우자(73.0%), 뇌병변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배우자(79.3%)와 결혼한 비율이 높았고, 이와 더불어,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청각장애인 배우자(87.3%), 지적장애인은 지적장애인배우자(62.7%)와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은 자신과 같은 유형의 장애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장애유형끼리 결혼을 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하고 생활방식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 예컨대,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수화와 같은 공식 언어의 활용으로 인한 주류 사회와의 차별화 가능성 등, 이밖에도 지적장애인 가정에서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생활지원 및 자녀양육 시스템의 구축 등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점이라 하겠다.

〈표 7-7-6〉 배우자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급	16.9	22.5	45.2	12.5	-	7.3	-	-	67.3	-	-	-	-	-	-	16.1
2급	18.6	-	7.0	85.1	100.0	44.6	-	84.1	32.7	-	-	-	-	-	-	42.5
3급	23.2	39.3	23.9	1.7	-	38.0	-	-	-	-	-	-	-	-	73.0	19.1
4급	7.0	38.2	5.3	0.3	-	5.4	-	15.9	-	-	-	-	-	-	-	6.6
5급	31.1	-	10.9	0.0	-	-	-	-	-	-	-	-	-	-	-	12.6
6급	3.2	-	7.7	0.5	-	4.7	-	-	-	-	-	-	-	-	27.0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	-	100.0	100.0
전국 추정수	21,135	2,489	5,226	14,939	448	7,006	-	4,150	443	-	-	-	-	-	1,119	56,955

결혼 당시 배우자의 장애등급은 1급(16.1%), 2급(42.5%), 3급(19.1%), 4급(6.6%) 그리고 5급(12.6%) 와 6급(3.1%) 로 나타났다. 결혼 당시 배우자의 장애상태는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의 배우자는 1급~3급 사이의 중증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표 7-7-7〉 장애유형별 장애인 출생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장애인 국내 출생자	99.4	99.8	99.4	99.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5
장애인 국외 출생자	0.6	0.2	0.6	1.0	0.0	0.0	-	0.0	0.0	0.0	0.0	0.0	0.0	0.0	0.0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225,812	240,376	243,623	253,298	13,244	34,685	-	43,560	62,328	7,373	14,473	11,535	1,516	16,705	6,957	2,175,475

장애인의 출생지는 99.5%(전국 추정치 2,164,110명)의 응답자가 대한민국, 그리고 소수의 응답자(0.5%, 11,365명)는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북한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7-8〉 장애유형별 배우자 출생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배우자 국내 출생자	98.8	99.5	98.5	97.8	100.0	98.7	-	96.6	99.5	95.9	100.0	100.0	100.0	100.0	100.0	98.7
배우자 국외 출생자	1.2	0.5	1.5	2.2	0.0	1.3	-	3.4	0.5	4.1	0.0	0.0	0.0	0.0	0.0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225,812	240,376	243,623	253,298	13,244	34,685	-	43,560	62,328	7,373	14,473	11,535	1,516	16,705	6,957	2,175,475

장애인 배우자의 출생지는 98.7%가 대한민국이며, 1.3%는 국외 출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한국인인 경우 99.0%가 한국인 배우자이며, 1.0%가 외국인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국은 필리핀(0.1%, 1,310명), 베트남(0.3%, 6,391명), 중국(중화인민공화국)(0.4%, 7,848명), 캄보디아(0.0%, 685명), 미국(0.0%, 573명), 일본(0.1%, 1,880명), 러시아(0.0%, 209명), 북한(0.1%, 2,960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의 출생국은 한국 51.7%(5,877명), 북한(22.2%, 2,519명), 중국(17.9%, 2,034명), 러시아(5.4%, 614명), 일본(2.8%, 322명)으로 나타났다.

〈표 7-7-9〉 배우자 국내·외 출생지

(단위: %)

배우자 출생지	장애인 당사자(국내 출생)	장애인 당사자(국외 출생)
대한민국	2,142,256 명 (99.0)	5,877명 (51.7)
대만(타이완)	-	-
필리핀	1,310명 (0.1)	-
베트남	6,391명 (0.3)	-
라오스	-	-
말레이시아	-	-
인도네시아	-	-
태국(타이)	-	-
몽골	-	-
중국(중화인민공화국)	7,848명 (0.4)	2,034명 (17.9)
캄보디아	685명 (0.0)	-
카자흐스탄	-	-
캐나다	-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	-
뉴질랜드	-	-
키르기스스탄	-	-
미국	573명 (0.0)	-
일본	1,880명 (0.1)	322명 (2.8)
네팔	-	-
러시아	209명 (0.0)	614명 (5.4)
우즈베키스탄공화국	-	-
기타	-	-
북한	2,960명 (0.1)	2,519명 (22.2)
계	2,164,110명 (100.0)	11,365명 (100.0)

장애인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및 장애문제 때문에(45.7%)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4.5%)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여서(14.9%) 그리고 집장만, 결혼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인 그리고 정신장애인 등은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건강과 장애로 인해서(대략 70~75% 이상)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점에 그치지 않고, 가족을 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적 혹은 물적·자원이 빈약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 현상을 가져 올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표 7-7-10〉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9.5	6.4	13.4	12.0	7.9	10.9	5.9	4.8	11.5	0.0	0.0	0.0	0.0	-	10.0	9.2
결혼생각이 없어서	19.5	22.3	25.1	13.6	28.6	6.6	8.0	11.5	9.7	27.6	0.0	100.0	0.0	-	0.0	14.5
가족 등 주위의 반대로	0.0	0.3	0.0	0.0	0.0	2.7	0.0	0.8	0.0	0.0	0.0	0.0	0.0	-	0.0	0.9
건강·장애문제	32.6	49.6	22.4	45.8	40.2	51.3	29.3	65.1	75.4	72.4	50.7	0.0	52.8	-	46.6	45.7
집장만, 결혼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	15.2	7.0	22.9	4.8	8.4	1.8	0.0	7.1	0.0	0.0	0.0	0.0	0.0	-	0.0	8.4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움	1.3	0.0	0.0	0.0	0.0	0.4	0.0	0.3	0.0	0.0	0.0	0.0	0.0	-	0.0	0.5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쳐서	13.5	3.3	3.1	2.8	10.6	0.2	0.0	5.3	3.4	0.0	49.3	0.0	0.0	-	0.0	5.7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여서	8.3	11.1	13.1	18.4	4.3	26.1	53.9	4.9	0.0	0.0	0.0	0.0	47.2	-	43.4	14.9
기타	0.0	0.0	0.0	2.7	0.0	0.0	2.9	0.1	0.0	0.0	0.0	0.0	0.0	-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108,613	37,269	27,029	19,345	6,379	111,963	8,851	60,207	9,547	630	1,510	304	1,045	-	1,892	394,584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 중 혼인 경험이 있는 경우(미혼모/부 포함), 자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 장애인의 95.0%가 자녀가 있으며, 5.0%의 응답자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자 대부분이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이 가족을 부양하며 동시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7-11〉 자녀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95.4	95.8	94.9	97.2	91.0	78.7	-	90.0	93.7	100.0	98.3	98.5	100.0	89.6	64.7	95.0
아니오	4.6	4.2	5.1	2.8	9.0	21.3	-	10.0	6.3	0.0	1.7	1.5	0.0	10.4	35.3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7,407	240,376	243,940	253,298	13,244	35,219	-	44,115	62,328	7,373	14,473	11,535	1,516	16,705	6,957	2,178,486

장애인의 자녀 수에 대해서는 2명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명 23.4%, 4명 13.9%, 5명 이상 13.1%, 1명 12.7%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장애인이 복지수혜자이며 사용자로 여겨져 온 사회적 통념을 깨고,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육, 교육을 책임지는 돌봄 책임자이며 동시에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

서 지금까지의 장애인 지원 대책이 장애인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향후 자녀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화된 사회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 대책과 서비스를 수립하여 왔으나 향후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고려할 때에는 장애인 가운데, 배우자 유무, 장애인 배우자의 장애유무, 가족내 또 다른 장애인이 있는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이밖에도 자녀의 수, 자녀양육 조력자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7-12〉 자녀의 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명	12.3	10.4	14.1	8.6	19.2	35.9	-	33.5	16.1	16.6	17.4	4.1	24.1	5.6	11.3	12.7
2명	38.9	33.3	37.7	29.8	24.5	26.8	-	38.1	43.5	11.5	32.5	63.1	33.4	34.0	56.5	36.9
3명	23.2	26.7	20.5	24.9	18.6	24.9	-	13.8	22.6	28.9	19.0	26.4	26.7	31.2	26.1	23.4
4명	13.3	15.7	13.3	16.8	24.3	9.8	-	10.8	10.5	34.3	18.2	6.5	0.0	18.9	0.0	13.9
5명 이상	12.3	13.8	14.4	19.9	13.5	2.6	-	3.9	7.3	8.6	12.8	0.0	15.8	10.4	6.1	1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70,659	230,262	231,589	246,167	12,057	27,712	-	39,723	58,386	7,373	14,229	11,363	1,516	14,975	4,503	2,070,514

장애인 당사자가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들 자녀도 평균 연령대가 4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화 되어가는 장애인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한 가족 내 장애인이 다수 인 가정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현황조사와 대책이 요구된다.

예컨대, 중·장년기 이후의 중증이며 고령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배우자, 자녀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이들을 단순 장애인 가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들 가족은 위기, 집중관리와 보호가 요구되는 고위험, 최우선 지원 대상 가구로 분류하여 집중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표 7-7-13〉 자녀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4.9	4.3	7.8	6.8	11.4	24.6	-	12.5	3.4	9.1	10.6	2.0	0.0	4.7	11.3	5.8
아니오	95.1	95.7	92.2	93.2	88.6	75.4	-	87.5	96.6	90.9	89.4	98.0	100.0	95.3	88.7	9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70,659	230,262	231,589	246,167	12,057	27,712	-	39,723	58,386	7,373	14,229	11,363	1,516	14,975	4,503	2,070,514

자녀가 있는 전체 장애인의 5.8%가 자녀 중 장애자녀가 있는 것으로, 94.2%의 장애인은 자녀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장애자녀를 돌보는 보호자로서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주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제도화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활동지원, 이동지원, 의료복지, 문화지원 등 이외에도 장애자녀에 대한 돌봄지원, 양육지원, 교육지원 등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장애인의 결혼과 임신, 출산과 자녀양육 등에 대해서는 시작의 단계의 관심을 보여 왔으나, 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전체 장애인의 5.9% 가 장애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표 7-7-14〉 제1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지체장애	52.2	42.9	27.0	33.2	0.0	0.0	-	9.1	47.4	0.0	75.5	0.0	-	49.4	0.0	39.3
뇌병변장애	9.3	4.2	6.7	11.9	5.1	0.0	-	0.0	10.5	75.0	0.0	0.0	-	0.0	100.0	8.5
시각장애	8.8	10.0	34.0	10.8	0.0	0.0	-	6.5	0.0	0.0	13.0	0.0	-	0.0	0.0	12.0
청각장애	3.7	7.8	7.1	11.9	53.0	0.0	-	0.0	7.4	25.0	0.0	0.0	-	0.0	0.0	6.0
언어장애	2.3	0.0	0.0	4.4	0.0	10.9	-	0.0	0.0	0.0	6.6	0.0	-	0.0	0.0	2.4
지적장애	9.5	2.3	12.5	8.7	41.8	85.1	-	42.4	13.2	0.0	4.9	0.0	-	0.0	0.0	15.1
자폐성장애	2.2	5.2	2.3	0.0	0.0	0.0	-	0.0	0.0	0.0	0.0	0.0	-	0.0	0.0	1.8
정신장애	8.1	11.4	9.8	11.9	0.0	4.1	-	36.0	0.0	0.0	0.0	100.0	-	50.6	0.0	10.1
신장장애	2.2	4.3	0.7	3.2	0.0	0.0	-	0.0	21.5	0.0	0.0	0.0	-	0.0	0.0	2.3
심장장애	-	-	-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	-	-	-
간장애	0.5	0.0	0.0	0.0	0.0	0.0	-	0.0	0.0	0.0	0.0	0.0	-	0.0	0.0	0.2
안면장애	-	-	-	-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0.1	6.8	0.0	0.0	0.0	0.0	-	0.0	0.0	0.0	0.0	0.0	-	0.0	0.0	0.6
뇌전증장애	1.0	4.9	0.0	4.1	0.0	0.0	-	6.1	0.0	0.0	0.0	0.0	-	0.0	0.0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487	10,008	18,085	16,754	1,379	6,823	-	4,975	2,000	673	1,510	227	-	696	507	121,124

첫 번째 자녀의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39.3%의 응답자가 지체장애, 15.1%는 지적장애, 12.0%는 시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신장애(10.1%), 뇌병변장애(8.5%), 청각장애(6.0%), 언어장애(2.4%), 신장장애(2.3%) 그리고 소수의 장애인들 가운데는 자폐성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15〉 제1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급	11.6	10.6	20.1	7.3	47.0	11.8	-	9.7	7.4	0.0	0.0	0.0	-	0.0	100.0	12.6
2급	16.6	21.7	19.2	23.3	0.0	52.9	-	48.1	47.8	25.0	5.2	0.0	-	0.0	0.0	21.7
3급	20.0	20.8	28.3	29.5	53.0	35.3	-	35.3	19.8	0.0	0.0	100.0	-	100.0	0.0	24.7
4급	14.8	7.6	8.9	6.0	0.0	0.0	-	0.0	3.8	0.0	0.0	0.0	-	0.0	0.0	9.9
5급	13.6	13.6	12.6	16.4	0.0	0.0	-	0.0	21.3	75.0	59.2	0.0	-	0.0	0.0	13.2
6급	23.5	25.7	11.0	17.5	0.0	0.0	-	6.9	0.0	0.0	35.5	0.0	-	0.0	0.0	1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56,997	10,008	18,085	16,754	1,379	6,822	-	4,672	2,000	673	1,410	227	-	697	507	120,231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의 첫째 장애 자녀의 등급은 1등급(12.6%), 2등급(21.7%), 3등급(24.7%), 4등급(9.9%), 5등급(13.2%), 6등급(18.0%) 등으로 나타났다.

〈표 7-7-16〉 제1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남자	72.1	67.3	68.5	70.0	53.0	44.6	-	56.9	79.5	100.0	79.8	0.0	-	100.0	100.0	69.0
여자	27.9	32.7	31.5	30.0	47.0	55.4	-	43.1	20.5	0.0	20.2	100.0	-	0.0	0.0	3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487	10,008	18,085	16,754	1,379	6,822	-	4,975	2,001	673	1,509	227	-	697	507	121,124

장애인 자녀의 첫째 장애자녀의 성별은 남아(69.0%), 여아(31.0%)로 나타났다.

〈표 7-7-17〉 제1 장애자녀의 연령

(단위: %, 세,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0-9세	0.4	0.0	3.8	2.6	0.0	0.0	-	0.0	0.0	0.0	0.0	0.0	-	0.0	0.0	1.1
10-19세	8.7	5.2	3.5	1.3	0.0	20.0	-	38.2	7.4	25.0	4.9	0.0	-	0.0	100.0	8.7
20-29세	9.7	3.9	18.4	4.2	0.0	40.9	-	10.7	13.2	0.0	0.0	0.0	-	0.0	0.0	11.2
30-39세	24.4	12.1	18.6	19.1	0.0	30.0	-	19.3	42.8	0.0	13.0	100.0	-	50.6	0.0	21.8
40세 이상	56.8	78.9	55.7	72.8	100.0	9.0	-	31.9	36.6	75.0	82.1	0.0	-	49.4	0.0	5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평균 연령	40.5	44.9	37.7	46.1	49.8	26.5	.	27.9	40.9	38.8	48.0	39.0	.	43.4	16.0	40.0
전국추정수	57,487	10,008	18,085	16,754	1,379	6,823	-	4,975	2,000	673	1,510	227	-	696	507	121,124

장애인 자녀(첫째)의 연령은 평균 40.0세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10세 미만이

1.1%, 10세-19세(8.7%), 20세 이상(11.2%), 30세 이상(21.8%), 그리고 40세 이상은 57.1%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자녀의 연령이 대체로 중·장년기 세대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자녀의 연령대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고령인 장애인 부모(보호자)와 이들의 중·장년기 장애인 자녀를 함께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7-18〉 제2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지체장애	53.9	0.0	0.0	39.8	-	0.0	-	0.0	-	-	0.0	-	-	100.0	-	26.9
뇌병변장애	24.3	40.0	0.0	0.0	-	0.0	-	0.0	-	-	0.0	-	-	0.0	-	9.3
시각장애	11.5	0.0	22.2	0.0	-	0.0	-	0.0	-	-	0.0	-	-	0.0	-	5.3
청각장애	0.0	0.0	0.0	49.5	-	0.0	-	0.0	-	-	0.0	-	-	0.0	-	10.2
언어장애	0.0	0.0	0.0	0.0	-	0.0	-	0.0	-	-	100.0	-	-	0.0	-	0.8
지적장애	0.0	0.0	77.8	0.0	-	100.0	-	45.3	-	-	0.0	-	-	0.0	-	34.3
자폐성장애	-	-	-	-	-	-	-	-	-	-	-	-	-	-	-	-
정신장애	10.3	60.0	0.0	10.7	-	0.0	-	54.7	-	-	0.0	-	-	0.0	-	13.3
신장장애	-	-	-	-	-	-	-	-	-	-	-	-	-	-	-	-
심장장애	-	-	-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	-	-	-	-
뇌전증장애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	-	100.0	-	-	100.0	-	100.0
전국추정수	3,873	658	1,080	2,667	-	3,082	-	1,169	-	-	100	-	-	344	-	12,973

두 번째 장애자녀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34.3%, 지체장애 26.9%, 정신장애 13.3%, 청각장애 10.2%, 뇌병변장애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각장애(5.3%), 언어장애(0.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19〉 제2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급	3.2	0.0	100.0	0.0	-	32.8	-	0.0	-	-	-	-	-	0.0	-	17.6
2급	0.0	0.0	0.0	16.0	-	16.9	-	100.0	-	-	-	-	-	0.0	-	14.4
3급	17.9	60.0	0.0	32.2	-	50.3	-	0.0	-	-	-	-	-	0.0	-	27.8
4급	0.0	0.0	0.0	21.3	-	0.0	-	0.0	-	-	-	-	-	100.0	-	7.3
5급	64.1	40.0	0.0	30.5	-	0.0	-	0.0	-	-	-	-	-	0.0	-	28.3
6급	14.8	0.0	0.0	0.0	-	0.0	-	0.0	-	-	-	-	-	0.0	-	4.6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	-	-	-	-	100.0	-	100.0
전국 추정수	3,873	658	1,081	2,667	-	3,082	-	866	-	-	-	-	-	344	-	12,571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의 두번째 장애 자녀의 장애등급은 1등급(17.6%), 2등급(14.4%), 3등급(27.8%), 4등급(7.3%), 5등급(28.3%), 6등급(4.6%)으로 나타났다.

〈표 7-7-20〉 제2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남자	83.0	40.0	100.0	59.2	-	62.9	-	45.3	-	-	100.0	-	-	0.0	-	67.1
여자	17.0	60.0	0.0	40.8	-	37.1	-	54.7	-	-	0.0	-	-	100.0	-	32.9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	-	100.0	-	-	100.0	-	100.0
전국추정수	3,873	658	1,081	2,666	-	3,082	-	1,169	-	-	100	-	-	344	-	12,973

장애인의 두 번째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는 남아가 67.1%, 여아가 32.9%로 나타났다.

〈표 7-7-21〉 제2 장애자녀의 연령

(단위: %, 세,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0-9세	-	-	-	-	-	-	-	-	-	-	-	-	-	-	-	-
10-19세	0.0	0.0	77.8	21.3	-	59.0	-	0.0	-	-	0.0	-	-	0.0	-	24.9
20-29세	0.0	0.0	22.2	0.0	-	30.1	-	45.3	-	-	0.0	-	-	0.0	-	13.1
30-39세	47.3	0.0	0.0	10.7	-	8.6	-	54.7	-	-	0.0	-	-	0.0	-	23.3
40세 이상	52.7	100.0	0.0	68.0	-	2.3	-	0.0	-	-	100.0	-	-	100.0	-	38.7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	-	100.0	-	-	100.0	-	100.0
평균 연령	40.6	48.6	18.7	40.0	-	21.4	-	26.6	-	-	47.0	-	-	47.0	-	33.5
전국추정수	3,873	658	1,081	2,666	-	3,082	-	1,169	-	-	100	-	-	344	-	12,973

장애인의 두 번째 장애자녀의 평균 연령은 33.5세로 나타나 첫 번째 장애자녀에 비해 평균연령이 낮았다. 장애 자녀의 연령은 40세 이상이 38.7%로 가장 많았고, 10세~19세가 24.9%, 30세~39세가 23.3%, 20세~29세가 13.1%로 나타났다.

〈표 7-7-22〉 제3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지체장애	-	-	-	-	-	-	-	-	-	-	-	-	-	-	-	-
뇌병변장애	-	-	-	-	-	-	-	-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	-	-	-	-	-	-	-
청각장애	-	-	-	-	-	-	-	-	-	-	-	-	-	-	-	-
언어장애	-	-	-	-	-	-	-	-	-	-	-	-	-	-	-	-
지적장애	-	-	100.0	-	-	100.0	-	100.0	-	-	-	-	-	-	-	100.0
자폐성장애	-	-	-	-	-	-	-	-	-	-	-	-	-	-	-	-
정신장애	-	-	-	-	-	-	-	-	-	-	-	-	-	-	-	-
신장장애	-	-	-	-	-	-	-	-	-	-	-	-	-	-	-	-
심장장애	-	-	-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	-	-	-	-
뇌전증장애	-	-	-	-	-	-	-	-	-	-	-	-	-	-	-	-
계	-	-	100.0	-	-	100.0	-	100.0	-	-	-	-	-	-	-	100.0
전국추정수	-	-	840	-	-	1,011	-	530	-	-	-	-	-	-	-	2,381

세 번째 장애자녀의 장애유형은 모두 지적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23〉 제3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급	-	-	-	-	-	-	-	-	-	-	-	-	-	-	-	-
2급	-	-	100.0	-	-	100.0	-	100.0	-	-	-	-	-	-	-	100.0
3급	-	-	-	-	-	-	-	-	-	-	-	-	-	-	-	-
4급	-	-	-	-	-	-	-	-	-	-	-	-	-	-	-	-
5급	-	-	-	-	-	-	-	-	-	-	-	-	-	-	-	-
6급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전국 추정수	-	-	840	-	-	1,011	-	530	-	-	-	-	-	-	-	2,381

장애인의 세 번째 장애자녀의 장애등급은 모두 2등급으로 나타났다.

〈표 7-7-24〉 제3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남자	-	-	100.0	-	-	100.0	-	100.0	-	-	-	-	-	-	-	100.0
여자	-	-	-	-	-	-	-	-	-	-	-	-	-	-	-	-
계	-	-	100.0	-	-	100.0	-	100.0	-	-	-	-	-	-	-	100.0
전국추정수	-	-	840	-	-	1,011	-	530	-	-	-	-	-	-	-	2,381

장애인의 세 번째 장애자녀의 성별은 모두 남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25〉 제3 장애자녀의 연령

(단위: %, 세,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0-9세	-	-	100.0	-	-	100.0	-	-	-	-	-	-	-	-	-	77.7
10-19세	-	-	-	-	-	-	-	100.0	-	-	-	-	-	-	-	22.3
20세 이상	-	-	-	-	-	-	-	-	-	-	-	-	-	-	-	-
30세 이상	-	-	-	-	-	-	-	-	-	-	-	-	-	-	-	-
40세 이상	-	-	-	-	-	-	-	-	-	-	-	-	-	-	-	-
계	-	-	100.0	-	-	100.0	-	100.0	-	-	-	-	-	-	-	100.0
평균 연령	-	-	9.0	-	-	9.0	-	15.0	-	-	-	-	-	-	-	10.3
전국추정수	-	-	840	-	-	1,011	-	530	-	-	-	-	-	-	-	2,381

장애인의 세 번째 자녀의 평균 연령은 10.3세로 나타나, 장애인 자녀가 3명이 있는 경우는 모두 부모의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26〉 자녀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44.0	30.5	36.0	64.5	100.0	56.8	-	25.3	57.4	-	0.0	0.0	-	22.8	6.3	43.0
학업, 직장, 경제적 이유로	6.3	6.1	6.1	0.0	0.0	0.0	-	4.1	0.0	-	0.0	0.0	-	0.0	0.0	4.7
건강문제	5.7	5.9	7.1	8.0	0.0	0.0	-	30.8	20.0	-	0.0	0.0	-	0.0	32.8	7.6
장애 때문에	6.4	8.2	7.9	11.2	0.0	16.2	-	12.8	3.7	-	0.0	100.0	-	0.0	0.0	7.7
자녀도 장애를 가질까봐서	0.2	5.8	0.0	0.0	0.0	1.9	-	0.0	0.0	-	0.0	0.0	-	0.0	0.0	0.8
자녀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5.5	5.9	0.0	9.1	0.0	7.1	-	0.0	0.0	-	0.0	0.0	-	0.0	0.0	4.5
본인·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17.3	18.7	15.3	0.0	0.0	0.0	-	9.5	11.1	-	100.0	0.0	-	36.4	45.6	15.2
친정·시댁식구들이 원하지 않아서	0.0	5.1	0.0	0.0	0.0	4.2	-	0.0	0.0	-	0.0	0.0	-	0.0	0.0	0.8
기타	14.5	13.8	27.5	7.4	0.0	13.9	-	17.6	7.9	-	0.0	0.0	-	40.8	15.2	1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6,748	10,115	12,352	7,132	1,187	7,505	-	4,394	3,943	-	244	172	-	1,731	2,454	107,977

장애인 가운데 자녀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잘 안되어서(43.0%), 본인 혹은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15.2%), 장애 때문에(7.7%), 그리고 건강문제(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학업·직장 경제적 이유로(4.7%), 자녀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4.5%), 자녀도 장애를 가질까봐서(0,8%), 친정·시댁 식구

들이 원하지 않아서(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7-27〉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장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전혀 없다	46.9	27.3	35.5	29.2	50.0	7.6	-	12.0	43.1	42.9	63.2	50.5	0.0	17.0	6.2	39.6
별로 없다	28.6	18.8	32.3	33.9	25.6	15.4	-	17.9	22.5	20.5	11.6	10.1	0.0	34.1	24.3	28.0
약간 많다	17.2	33.0	19.2	17.2	19.4	28.6	-	31.9	24.5	36.7	23.5	37.2	63.8	44.4	30.1	19.8
매우 많다	7.3	20.9	13.0	19.7	5.0	48.4	-	38.3	9.9	0.0	1.7	2.2	36.2	4.4	39.5	1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9,398	68,137	134,836	117,861	3,797	24,309	-	33,039	22,968	2,960	5,609	4,888	874	2,662	3,534	1,004,872

주: 무응답 제외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지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39.6%), 별로 없다(28.0%), 약간 많다(19.8%), 매우 많다(12.5%)로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32.3%의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자녀의 성장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28〉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자녀양육/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33.7	38.9	37.9	14.1	39.7	19.2	-	27.1	38.2	0.0	14.5	82.1	0.0	100.0	100.0	32.7
주거 환경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3.3	8.1	0.0	0.0	0.0	6.9	-	1.2	1.7	0.0	0.0	0.0	0.0	0.0	0.0	2.9
아이를 돌볼 사람, 시설부족	2.9	8.3	4.5	3.0	0.0	0.0	-	5.4	0.0	0.0	0.0	17.9	0.0	0.0	0.0	3.3
양육할 충분한 시간부족	6.9	9.3	1.8	0.8	0.0	0.0	-	7.3	5.1	0.0	0.0	0.0	0.0	0.0	0.0	5.6
양육 관련 정보부족	1.4	0.0	3.4	7.4	0.0	15.3	-	10.1	0.0	0.0	0.0	0.0	0.0	0.0	0.0	2.8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힘들어서	3.0	0.0	4.2	4.9	0.0	6.4	-	2.0	13.1	0.0	0.0	0.0	0.0	0.0	0.0	3.4
주위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	7.2	17.8	8.4	0.0	0.0	19.3	-	6.6	8.1	100.0	0.0	0.0	100.0	0.0	0.0	8.2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0.7	10.1	2.9	33.9	24.4	31.7	-	21.8	0.0	0.0	19.2	0.0	0.0	0.0	0.0	6.4
어려움 없음	37.6	7.5	36.8	32.8	35.9	1.1	-	18.5	30.4	0.0	66.3	0.0	0.0	0.0	0.0	32.3
자녀양육시 장애가 없었음	2.0	0.0	0.0	3.1	0.0	0.0	-	0.0	3.5	0.0	0.0	0.0	0.0	0.0	0.0	1.6
기타	1.2	0.0	0.0	0.0	0.0	0.0	-	0.0	0.0	0.0	0.0	0.0	0.0	0.0	0.0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75,134	18,002	30,257	22,531	1,686	10,539	-	12,094	7,455	862	511	608	454	606	1,694	282,433

자녀가 17세 미만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3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 또한(32.3%)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주변의 편견과 시선 때문에(8.2%),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6.4%), 양육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5.6%),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어려워서(3.4%),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3.3%), 주거 환경 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2.9%), 양육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해서(2.8%) 등의 순의로 나타났다.

〈표 7-7-29〉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교육시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학습지도 및 학교 과제 수행 어려움	4.9	6.7	4.0	19.4	0.0	22.4	-	18.5	4.0	0.0	0.0	17.9	80.4	0.0	0.0	7.4
학교 갈 때 통행지도	1.0	0.7	3.1	0.0	0.0	6.1	-	0.0	0.0	0.0	14.5	0.0	0.0	0.0	0.0	1.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0.6	0.0	0.6	8.8	0.0	0.0	-	0.0	0.0	0.0	0.0	0.0	0.0	0.0	0.0	1.1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36.0	38.1	36.9	11.6	22.0	26.3	-	19.7	46.1	0.0	19.2	82.1	0.0	100.0	25.2	33.3
자녀와의 의사 소통의 어려움	1.3	17.1	0.0	17.5	31.5	7.4	-	49.7	1.5	0.0	0.0	0.0	0.0	0.0	0.0	6.1
자녀의 부모차별	1.3	3.2	0.0	0.0	0.0	4.2	-	0.0	0.0	0.0	0.0	0.0	0.0	0.0	0.0	1.2
학부형 모임에 어울리지 못함	3.7	4.0	5.9	10.9	0.0	14.6	-	4.4	10.3	0.0	0.0	0.0	0.0	0.0	29.9	5.2
어려움 없음	48.4	14.9	40.0	24.2	46.5	1.2	-	7.8	38.1	0.0	66.3	0.0	0.0	0.0	44.9	39.2
주위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	2.9	15.3	9.5	7.6	0.0	9.9	-	0.0	0.0	100.0	0.0	0.0	19.6	0.0	0.0	5.0
기타	0.0	0.0	0.0	0.0	0.0	7.9	-	0.0	0.0	0.0	0.0	0.0	0.0	0.0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치	155,333	15,806	27,571	19,605	1,304	9,208	-	11,861	5,940	694	511	608	454	396	1,694	250,985

자녀가 초· 중고생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장애 때문에 자녀 교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로 어려움이 없다(39.2%)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33.3%), 그리고 학습지도 및 학교과제 수행의 어려움(7.4%),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6.1%), 학부모 모임에 잘 참여할 수 없어서(5.2%), 주변의 편견과 시선 때문에(5.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밖에도 학교 갈 때 통행지도(1.2%), 자녀의 부모차별(1.2%), 학교선생님과의 관계(1.1%) 등 이 장애인 자녀 교육 시 어려움으로 분석되었다.

이상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자녀 양육 시와 자녀 교육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대략 응답자의 30%이상은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고, 나머지 50~60%의 장애인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대부분(30%이상)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양육비나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가장 우선순위로 지적하였다.

〈표 7-7-30〉 이혼경험 시 이혼 사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배우자의 외도	15.1	5.7	19.8	27.4	0.0	1.0	-	4.4	3.5	-	39.2	0.0	-	21.9	22.2	13.7
학대 또는 폭력	6.2	7.4	16.5	7.5	0.0	13.8	-	4.7	23.5	-	0.0	0.0	-	0.0	0.0	7.8
성격차이	42.3	32.1	21.6	16.5	12.4	6.5	-	10.6	18.0	-	60.8	53.5	-	8.2	0.0	31.4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1.9	6.2	6.9	8.9	45.1	0.0	-	3.6	4.8	-	0.0	33.5	-	0.0	27.2	4.4
가족간 불화	7.4	9.0	6.0	7.5	19.3	25.5	-	8.3	13.1	-	0.0	0.0	-	0.0	0.0	8.3
경제적 문제	20.0	27.2	14.7	21.0	0.0	7.0	-	20.4	25.9	-	0.0	13.0	-	69.9	0.0	20.3
건강문제·장애때문에	4.8	12.4	14.5	4.4	23.2	46.2	-	44.7	11.2	-	0.0	0.0	-	0.0	50.6	12.0
다문화가정으로 의사소통 어려움	1.0	0.0	0.0	0.9	0.0	0.0	-	0.0	0.0	-	0.0	0.0	-	0.0	0.0	0.6
기타	1.2	0.0	0.0	5.8	0.0	0.0	-	3.2	0.0	-	0.0	0.0	-	0.0	0.0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치	116,908	24,078	18,107	19,939	2,317	8,170	-	18,976	7,924	-	622	1,308	-	2,347	1,863	222,559

주: 무응답 제외

이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본 바, 이들의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31.4%), 경제적 문제(20.3%), 배우자의 외도(13.7%), 건강과 장애 때문에(12.0%) 그리고 가족 간 불화(8.3%), 학대 및 폭력(7.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밖에도 가족부양의무 불이행(4.4%) 다문화가정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0.6%) 등이 이혼사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7-31〉 이혼하였다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주 양육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자녀의 부(남편)	55.4	67.9	67.1	53.6	0.0	53.9	-	68.5	12.7	-	-	0.0	-	0.0	0.0	56.9
자녀의 모(부인)	37.8	26.3	21.5	33.2	100.0	46.1	-	31.5	87.3	-	-	100.0	-	100.0	100.0	36.3
자녀의 조부모(친가/외가)	2.7	0.0	0.0	9.8	0.0	0.0	-	0.0	0.0	-	-	0.0	-	0.0	0.0	2.4
기타 친척	-	-	-	-	-	-	-	-	-	-	-	-	-	-	-	-
혼자 살고 있음	1.2	5.8	0.0	0.0	0.0	0.0	-	0.0	0.0	-	-	0.0	-	0.0	0.0	1.1
사회복지시설	0.0	0.0	11.4	0.0	0.0	0.0	-	0.0	0.0	-	-	0.0	-	0.0	0.0	1.5
기타	2.9	0.0	0.0	3.5	0.0	0.0	-	0.0	0.0	-	-	0.0	-	0.0	0.0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3,527	4,318	6,266	5,112	287	1,233	-	5,241	701	-	-	170	-	396	632	47,883

장애인 가운데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주 양육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9%가 자녀의 부(남편), 36.3%는 자녀의 모(부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밖에도 자녀의 조부모(친가 혹은 외가)(2.4%), 혼자 살고 있다(1.1%) 사회복지시설(1.5%) 등 에서 자녀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임신과 출산

〈표 7-7-32〉 마지막(최근) 임신 시 본인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65.8	77.5	71.1	88.0	49.6	89.3	-	76.6	13.8	0.0	100.0	0.0	-	0.0	100.0	70.0
아니오	34.2	22.5	28.9	12.0	50.4	10.7	-	23.4	86.2	100.0	0.0	100.0	-	100.0	0.0	3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1,390	6,031	11,591	11,905	570	8,883	-	8,577	4,435	168	98	599	-	396	427	95,070

만 49세 이하의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마지막으로 임신을 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여성장애인이 그렇다(70.0%)고 답했고, 그때는 장애인이 아니었다(30.0%)로 응답하였다. 만 49세 이하 여성장애인의 70% 정도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7-33〉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13.8	4.7	14.6	1.8	0.0	23.7	-	0.6	100.0	-	0.0	-	-	-	0.0	11.9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	12.4	0.0	4.7	0.0	0.0	0.0	-	10.0	0.0	-	0.0	-	-	-	0.0	6.6
병원의 시설 설치 미비	0.0	0.0	4.2	0.0	0.0	0.0	-	0.0	0.0	-	0.0	-	-	-	0.0	0.5
병원내 의사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0.6	0.0	0.0	0.0	0.0	0.0	-	0.0	0.0	-	0.0	-	-	-	0.0	0.3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	12.5	0.0	2.6	0.0	0.0	1.2	-	3.7	0.0	-	0.0	-	-	-	0.0	5.9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워서	11.3	39.8	15.9	37.1	0.0	50.6	-	64.2	0.0	-	100.0	-	-	-	100.0	28.5
자녀양육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11.6	12.0	9.3	24.0	0.0	14.8	-	15.5	0.0	-	0.0	-	-	-	0.0	13.8
본인의 건강악화	5.2	11.2	4.8	0.0	0.0	0.0	-	0.0	0.0	-	0.0	-	-	-	0.0	3.5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	14.4	10.2	17.7	8.2	0.0	0.0	-	0.0	0.0	-	0.0	-	-	-	0.0	10.1
직장에서의 퇴직 권유로	-	-	-	-	-	-	-	-	-	-	-	-	-	-	-	-
가족들의 출산 반대로	0.0	0.0	1.7	0.0	0.0	0.0	-	6.0	0.0	-	0.0	-	-	-	0.0	0.8
주위의 시선 때문에	0.0	0.0	0.0	0.0	0.0	1.3	-	0.0	0.0	-	0.0	-	-	-	0.0	0.2
임신·출산 관련 정보 부족	2.5	0.0	0.0	2.0	0.0	0.0	-	0.0	0.0	-	0.0	-	-	-	0.0	1.3
어려움 없음	14.5	22.0	24.4	26.9	100.0	8.4	-	0.0	0.0	-	0.0	-	-	-	0.0	16.1
기타	1.4	0.0	0.0	0.0	0.0	0.0	-	0.0	0.0	-	0.0	-	-	-	0.0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26,802	4,675	8,239	10,230	283	7,930	-	6,569	612	-	98	-	-	-	427	65,865

임신기간 중 애로 사항으로, 임신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면,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28.5%)이 가장 힘들었다고 응답하였고,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13.8%),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11.9%), 집안 일하기가 힘들어서(10.1%),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6.6%),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5.9%), 본인의 건강악화(3.5%), 임신·출산 관련 정보의 부족(1.3%)으로 나타났고, 이 밖에 가족들의 출산 반대로(0.8%), 병원의 시설설비 미흡(0.5%), 병원 내 의사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0.3%), 주의의 시설 때문에(0.2%) 등의 순으로 임신 시 힘들었던 점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의 16.1%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7-7-34〉 유산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51.7	59.2	39.8	21.5	0.0	35.2	-	51.3	0.0	-	100.0	-	-	-	70.7	43.4
아니오	48.3	40.8	60.2	78.5	100.0	64.8	-	48.7	100.0	-	0.0	-	-	-	29.3	5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26,802	4,675	8,238	10,480	283	7,929	-	6,571	612	-	98	-	-	-	427	66,115

여성장애인 가운데 유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43.4%가 유산 경험이 있다. 56.6%는 유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장애인 가운데 40% 이상의 여성장애인이 유산 경험이 있다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로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7-35〉 유산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자녀 원치않음	12.8	4.7	11.3	25.4	-	14.9	-	77.0	-	-	0.0	-	-	-	0.0	20.4
남편·가족의 반대로	-	-	-	-	-	-	-	-	-	-	-	-	-	-	-	-
터울조절	7.0	0.0	0.0	0.0	-	0.0	-	0.0	-	-	0.0	-	-	-	0.0	3.4
자궁외 임신	4.6	0.0	16.8	0.0	-	0.0	-	0.0	-	-	0.0	-	-	-	0.0	4.1
태아 이상	6.0	21.3	0.0	9.8	-	0.0	-	0.0	-	-	0.0	-	-	-	100.0	6.8
혼전 임신	1.3	0.0	0.0	0.0	-	24.3	-	0.0	-	-	0.0	-	-	-	0.0	3.0
본인의 장애때문에	4.0	18.8	0.0	0.0	-	0.0	-	15.8	-	-	100.0	-	-	-	0.0	5.9
경제적 어려움	0.0	34.3	19.0	8.0	-	21.2	-	0.0	-	-	0.0	-	-	-	0.0	8.2
태아가 딸이어서	-	-	-	-	-	-	-	-	-	-	-	-	-	-	-	-
취업중이어서	5.8	0.0	0.0	0.0	-	0.0	-	0.0	-	-	0.0	-	-	-	0.0	2.8
자연유산	42.9	20.8	52.8	34.7	-	36.2	-	7.2	-	-	0.0	-	-	-	0.0	35.8
기타	15.6	0.0	0.0	22.0	-	3.4	-	0.0	-	-	0.0	-	-	-	0.0	9.6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	-	100.0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13,858	2,770	3,276	2,254	-	2,793	-	3,374	-	-	98	-	-	-	302	28,725

유산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유산의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연유산(35.8%)이 가장 높고,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20.4%), 경제적 어려움(8.2%), 태아의 이상(6.8%), 본인의 장애 때문에(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터울 조절목적(4.1%), 남편의 반대로(3.4%), 혼전임신(3.0%), 취업 중이어서(2.8%) 등의 유산을 하게 된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표 7-7-36〉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84.9	52.3	90.7	89.6	100.0	97.6	-	60.4	100.0	-	0.0	-	-	-	100.0	83.4
아니오	15.1	47.7	9.3	10.4	0.0	2.4	-	39.6	0.0	-	100.0	-	-	-	0.0	1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26,803	4,675	8,238	10,480	283	7,699	-	6,570	976	-	98	-	-	-	427	66,249

마지막 임신으로 출산을 하였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한 여성장애인의 83.4%가 출산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16.6%는 출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표 7-7-37〉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연령

(단위: %, 세,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만 19-20세	2.1	0.0	0.0	0.0	0.0	5.6	-	0.0	0.0	-	-	-	-	-	0.0	1.6
만 21-25세	13.6	13.1	29.9	26.1	0.0	21.4	-	16.6	0.0	-	-	-	-	-	0.0	18.8
만 26-30세	40.8	44.4	26.6	27.9	0.0	13.9	-	11.9	100.0	-	-	-	-	-	29.3	31.8
만 31-35세	35.7	22.9	29.5	31.9	100.0	44.3	-	58.2	0.0	-	-	-	-	-	70.7	36.4
만 36-40세	2.6	19.6	14.0	6.8	0.0	13.5	-	0.0	0.0	-	-	-	-	-	0.0	6.8
만 41세 이상	5.2	0.0	0.0	7.2	0.0	1.3	-	13.3	0.0	-	-	-	-	-	0.0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	-	100.0	100.0
평균 연령	29.9	30.4	30.0	30.1	32.0	30.4	-	31.1	28.1	-	-	-	-	-	31.1	30.1
전국추정수	22,758	2,445	7,470	9,391	283	7,513	-	3,971	976	-	-	-	-	-	427	55,234

여성장애인 가운데 마지막 임신 시 출산 연령을 조사한 결과, 여성장애인의 마지막 임신 시 평균 출산연령은 30.1세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여성장애인이 26세에서 35세 사이에 마지막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 41세 이상에 마지막 아이를 출산한 여성장애인도 4.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32.0세), 정신장애(31.1세), 뇌전증장애(31.1세), 뇌병변 장애(30.4세), 지적장애(30.4세), 청각장애(30.1세) 등의 순서로 출산평균연령을 보였다.

〈표 7-7-38〉 마지막 임신으로 출산 시 출산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자연분만	62.1	67.3	70.1	72.4	100.0	83.4	-	48.0	100.0	-	-	-	-	-	0.0	67.4
제왕절개	37.9	32.7	29.9	27.6	0.0	16.6	-	52.0	0.0	-	-	-	-	-	100.0	3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	-	100.0	100.0
전국추정수	22,759	2,444	7,470	9,391	283	7,512	-	3,970	976	-	-	-	-	-	427	55,232

여성장애인들의 출산방법에 대해서는 자연분만(67.4%), 제왕절개(32.6%)로 나타났다.

〈표 7-7-39〉 마지막 임신시 비출산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현재 임신 중	24.3	5.9	54.4	46.1	-	0.0	-	0.0	-	-	0.0	-	-	-	-	18.5
자연 유산	39.9	25.1	30.9	37.2	-	0.0	-	15.2	-	-	0.0	-	-	-	-	29.1
인공 유산	28.2	69.1	14.7	16.6	-	100.0	-	84.8	-	-	100.0	-	-	-	-	49.6
기타	7.7	0.0	0.0	0.0	-	0.0	-	0.0	-	-	0.0	-	-	-	-	2.8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	-	100.0	-	-	-	-	100.0
전국추정수	4,045	2,231	768	1,090	-	187	-	2,600	-	-	98	-	-	-	-	11,019

출산하지 않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마지막 임신 시 출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 바, 인공유산(임신중절)때문에(49.6%), 자연 유산(29.1%), 현재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18.5%), 그리고 기타(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호흡기장애인은 100%, 정신장애 84.8%, 뇌병변장애 69.1%가 인공유산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체장애인(39.9%), 뇌병변장애인(25.1%), 시각장애인(30.9%), 청각장애인(37.2%) 등은 마지막 임신 시 출산하지 않은 이유가 자연유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40〉 인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본인의사	100.0	100.0	100.0	100.0	-	0.0	-	0.0	-	-	0.0	-	-	-	-	54.4
주위의 권유	0.0	0.0	0.0	0.0	-	100.0	-	100.0	-	-	100.0	-	-	-	-	45.6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	-	100.0	-	-	-	-	100.0
전국추정수	1,139	1,541	113	181	-	187	-	2,206	-	-	98	-	-	-	-	5,465

인공임신 혹은 인공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였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응답 여성장애인의 54.4%가 본인의사, 45.6%는 주의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주목할 점은 장애유형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인 경우 응답자 100%가 본인 의사라고 답한 반면,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의 경우에는 응답자 100%가 주의의 권유에 의해 임신중절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2,206명(전국추정수)의 여성장애인이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임신중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41〉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남편	8.7	0.0	3.9	18.9	0.0	49.0	-	3.6	0.0	-	-	-	-	-	0.0	14.3
친정식구	54.2	29.9	54.4	41.8	100.0	19.5	-	59.4	100.0	-	-	-	-	-	29.3	47.5
시댁식구	14.0	13.1	27.6	9.7	0.0	31.5	-	23.7	0.0	-	-	-	-	-	70.7	18.2
복지기관	0.0	0.0	0.0	7.2	0.0	0.0	-	0.0	0.0	-	-	-	-	-	0.0	1.2
산후 조리원	16.9	0.0	8.8	11.7	0.0	0.0	-	0.0	0.0	-	-	-	-	-	0.0	10.1
산후 도우미	5.1	56.9	5.2	8.4	0.0	0.0	-	13.3	0.0	-	-	-	-	-	0.0	7.7
돌봐주는 사람 없었음(혼자했음)	1.2	0.0	0.0	2.2	0.0	0.0	-	0.0	0.0	-	-	-	-	-	0.0	0.9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	-	100.0	100.0
전국추정치	22,759	2,445	7,471	9,390	283	7,513	-	3,971	976	-	-	-	-	-	427	55,235

출산 후 산후 조리의 조력자는 친정식구(47.5%), 시댁식구(18.2%), 남편(14.3%), 산후조리원(10.1%), 산후도우미(7.7%) 그리고 복지기관(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여성장애인의 출산 후 산후조리는 주로 친정, 가족, 남편 등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과 1.2%의 여성장애인 만이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7-42〉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충분하다	17.9	22.3	0.0	0.0	0.0	8.8	-	16.7	0.0	-	-	-	-	-	0.0	10.8
충분하다	46.9	7.6	61.2	65.2	100.0	51.0	-	52.3	100.0	-	-	-	-	-	29.3	52.2
부족하다	29.5	27.6	31.4	32.6	0.0	40.2	-	31.0	0.0	-	-	-	-	-	0.0	30.8
매우 부족하다	5.7	42.5	7.5	2.2	0.0	0.0	-	0.0	0.0	-	-	-	-	-	70.7	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	-	100.0	100.0
전국추정치	22,759	2,445	7,471	9,390	283	7,513	-	3,971	976	-	-	-	-	-	427	55,235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52.2%), 부족하다(30.8%), 매우 충분하다(10.8%), 매우 부족하다(6.2%) 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60% 이상은 산후조리가 충분했던 것으로, 또한 여성장애인의 35% 정도는 출산 후 산후조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어려운 점

〈표 7-7-43〉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12.0	5.2	3.2	12.1	8.5	10.0	24.1	3.8	11.3	0.0	0.0	15.9	-	0.0	23.7	9.3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서비스	6.3	5.1	2.9	4.2	0.0	4.6	0.0	2.1	0.0	0.0	0.0	0.0	-	0.0	0.0	4.2
출산비용 지원	16.3	20.1	22.3	14.5	8.6	4.8	0.0	1.6	20.2	0.0	0.0	0.0	-	0.0	0.0	11.7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6.2	11.7	2.4	9.3	0.0	8.1	0.0	4.2	3.9	0.0	0.0	0.0	-	0.0	0.0	6.4
산후조리 서비스	10.6	8.2	10.1	14.2	0.0	2.3	0.0	1.4	0.0	0.0	0.0	12.7	-	0.0	23.7	6.7
육아용품 대여	0.0	0.0	1.9	0.0	0.0	0.0	0.0	0.0	0.0	0.0	0.0	0.0	-	0.0	0.0	0.1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13.9	5.2	20.4	16.2	19.4	7.8	0.0	10.8	10.2	0.0	0.0	0.0	-	0.0	5.3	11.7
자녀교육도우미	2.6	2.5	12.8	7.1	0.0	2.5	0.0	13.1	8.2	100.0	0.0	10.2	-	0.0	0.0	5.5
가사도우미	18.5	4.1	18.7	0.0	0.0	9.0	0.0	20.7	9.5	0.0	0.0	28.4	-	0.0	0.0	12.8
활동보조인	2.7	28.3	0.0	0.0	0.0	21.3	58.6	8.0	0.0	0.0	0.0	0.0	-	0.0	37.4	9.9
건강관리프로그램	5.5	6.3	0.0	0.8	12.6	12.9	0.0	7.5	22.1	0.0	100.0	0.0	-	0.0	0.0	7.6
상담서비스(심리·정서)	3.7	0.9	5.3	2.8	31.4	6.1	0.0	23.7	0.0	0.0	0.0	0.0	-	0.0	0.0	7.2
자조집단(멘토)	1.1	0.0	0.0	1.3	0.0	5.7	0.0	2.7	14.6	0.0	0.0	0.0	-	0.0	9.8	2.9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 지원	0.6	2.4	0.0	17.6	19.4	5.0	17.4	0.0	0.0	0.0	0.0	32.9	-	100.0	0.0	4.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3	0.0	0.0	0.0	0.0	-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치	54,428	13,421	13,745	15,924	3,328	44,909	1,438	25,468	8,154	168	98	1,072	-	396	1,273	183,822

만 49세 이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가사도우미(12.8%), 자녀양육지원(11.7%), 출산비용(11.7%), 활동보조인(9.9%)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 정보(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건강관리프로그램(7.6%), 상담서비스(심리, 정서)(7.2%), 산후조리 서비스(6.7%),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6.4%), 자녀교육도우미(5.5%), 임신·출산 육아 관련 핫 라인 서비스(4.2%),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 지원(4.0%), 자조집단(멘토)(2.9%), 육아용품대여(0.1%) 의 순으로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1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 장애인의 욕구 순위 2순위와 3순위에 대해서는 알아보았다. 만 49세 이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2순위)가 무엇입니까? 에 대해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4.5%), 산후조리 서비스(11.0%), 가사도우미(10.8%), 상담서비스(심리,정서)(10.7%), 자녀교육도우미(10.3%), 활동보조인(8.6%), 건강관리 프로그램(7.4%),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전문병원(6.5%), 이밖에도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지원(5.9%), 출산비용지원(5.8%), 임신출산 육아관련 핫라인 서비스(3.6%), 자조집단(멘토)(2.1%), 임신이나 출산관련 정보제공(1.5%) 그리고 육아용품 대여(1.3%) 등의 서비스들이 2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9세 이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3순위)가 무엇입니까?에 대해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4.1%) 상담서비스(심리,정서)(12.5%), 자녀교육도우미(11.1%),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지원(11.0%), 가사도우미(10.3%), 활동보조인(7.5%), 자조집단(멘토)(6.8%), 건강관리 프로그램(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출산비용지원(5.7%), 산후조리 서비스(5.1%),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4.6), 임신출산 육아관련 핫라인 서비스(2.0%), 임신이나 출산관련 정보제공(1.2%), 육아용품 대여(1.1%) 등 이 여성장애인이 필요한 세 번째 순위에 해당되는 서비스로 나타났다.

〈표 7-7-44〉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성장과정 중 가족으로부터의 따돌림	1.2	2.6	0.0	0.0	0.0	0.7	30.2	5.2	0.0	0.0	0.0	0.0	-	0.0	0.0	1.7
결혼 후 시댁식구들의 학대·차별	3.4	3.1	0.8	0.0	0.0	3.0	0.0	5.4	0.0	0.0	0.0	0.0	-	0.0	0.0	2.8
교육기회 부족	3.3	21.2	2.5	6.9	0.0	6.1	0.0	0.5	0.0	0.0	0.0	0.0	-	0.0	23.7	5.1
사회화 기회의 부족	9.1	4.8	5.5	9.8	0.0	14.4	17.4	10.7	13.5	0.0	0.0	28.4	-	0.0	37.4	10.5
친구 등 동료교제의 어려움	5.1	5.8	6.6	16.1	50.8	15.5	24.0	15.9	4.0	0.0	0.0	32.9	-	0.0	0.0	11.3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	9.7	12.3	24.2	2.0	12.6	12.7	28.4	10.9	9.2	0.0	0.0	0.0	-	0.0	5.3	11.3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	35.0	32.6	31.8	33.4	28.1	20.3	0.0	18.9	55.0	0.0	100.0	12.7	-	0.0	23.7	28.8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문제	0.0	0.0	0.0	0.0	0.0	10.4	0.0	2.8	0.0	0.0	0.0	0.0	-	0.0	0.0	2.9
임신·출산의 어려움	8.7	2.5	0.0	3.4	0.0	0.0	0.0	0.0	0.0	0.0	0.0	0.0	-	0.0	9.8	3.1
자녀양육의 어려움	16.6	5.8	4.6	13.1	0.0	8.4	0.0	24.4	10.0	100.0	0.0	26.0	-	100.0	0.0	13.2
전문 프로그램 부족 등 여가시간 활용의 어려움	4.6	9.3	13.6	7.3	8.5	8.4	0.0	2.1	0.0	0.0	0.0	0.0	-	0.0	0.0	6.2
기타	3.5	0.0	10.3	8.0	0.0	0.0	0.0	3.1	8.3	0.0	0.0	0.0	-	0.0	0.0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치	54,426	13,420	13,745	15,925	3,328	44,909	1,439	25,466	8,155	168	98	1,072	-	396	1,273	183,820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장 많은 여성장애인이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28.8%)을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13.2%), 친구 등 동료교제의 어려움(11.3%),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11.3%), 사회화 기회의 부족(10.5%), 전문프로그램 부족 등 여가생활 활용의 어려움(6.2%), 교육기회 부족(5.1%) 등 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이밖에도 임신, 출산의 어려움(3.1%), 결혼 후 시댁식구들의 학대 차별(2.8%),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문제(2.9%), 성장과정 중 가족으로부터의 따돌림(1.7%)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제8절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장애인이 느끼는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약간 만족'이라는 응답이 5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매우 만족'(30.9%), '약간 불만족'(14.5%), '매우 불만족'(4.2%)의 순

서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구분해서 보면, 간장애(44.1%), 지체장애(33.3%), 자폐성장애(32.9%)의 응답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은 반면 정신장애는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17.4%에 불과하였다.

〈표 7-8-1〉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매우 만족	33.3	26.1	30.5	28.8	29.8	30.6	32.9	17.4	37.3	28.2	28.7	44.1	20.4	21.3	26.7	30.9
약간 만족	49.6	50.4	52.0	53.1	53.3	51.5	56.3	44.7	45.8	51.7	50.9	44.6	76.6	63.4	43.7	50.3
약간 불만족	13.5	18.3	14.4	15.0	10.0	13.1	9.2	24.8	9.7	13.4	16.2	5.4	3.0	15.3	29.5	14.5
매우 불만족	3.6	5.2	3.0	3.1	6.9	4.7	1.5	13.1	7.2	6.7	4.2	5.9	0.0	0.0	0.0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17,994	286,954	271,837	272,957	21,399	181,136	18,951	102,993	70,460	8,282	14,995	11,840	3,012	15,485	8,315	2,606,610

주: 무응답 제외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45.5%), '약간 불만족'(25.4%), '매우 만족'(18.1%), '매우 불만족'(11.1%)의 순으로 드러났다. '매우 불만족'인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가 34.6%로 친구 수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심하고 다음이 지적장애(28.2%), 자폐성장애(22.7%), 언어장애(15.3%)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6-8-2〉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매우 만족	22.7	9.5	20.0	14.8	9.7	9.3	18.4	5.7	17.8	10.9	12.5	18.2	10.0	19.3	14.5	18.1
약간 만족	52.0	32.5	46.9	49.7	33.1	28.3	24.2	20.0	45.0	55.8	36.6	43.2	61.2	49.7	32.2	45.5
약간 불만족	20.2	34.5	24.6	26.0	42.0	34.2	34.7	39.8	26.2	33.3	42.1	38.5	28.8	16.7	45.7	25.4
매우 불만족	5.1	23.5	8.5	9.5	15.3	28.2	22.7	34.6	11.0	0.0	8.8	0.0	0.0	14.3	7.7	1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8,244	289,257	274,085	277,019	21,399	181,799	18,951	105,002	71,875	8,456	15,983	11,839	3,012	16,706	9,764	2,643,391

주: 무응답 제외

거주지(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53.7%)과 '매우 만족'(20.1%)의 만족 비율이 73.8%로 대체로 만족수준이 높았다. 한편 '매우 불만족'인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언어장애(10.6%), 신장장애(9.7%), 뇌병변장애(8.4%), 호흡기장애(7.0%) 등의 순이다.

〈표 7-8-3〉 거주지(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만족	19.8	16.5	20.6	23.0	19.0	24.4	29.8	13.2	26.5	19.4	16.3	29.1	10.0	22.6	9.7	20.1
약간 만족	54.3	52.4	53.4	56.7	64.4	50.1	53.4	55.0	41.4	56.8	61.2	39.8	47.8	51.0	65.7	53.7
약간 불만족	20.7	22.6	21.6	17.0	6.1	18.3	15.2	26.1	22.4	20.0	15.5	28.0	42.2	23.3	19.0	20.6
매우 불만족	5.3	8.4	4.4	3.2	10.6	7.2	1.5	5.6	9.7	3.9	7.0	3.1	0.0	3.1	5.6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8,245	289,257	274,085	277,020	21,399	181,800	18,951	105,003	71,876	8,456	15,985	11,840	3,012	16,705	9,765	2,643,399

주: 무응답 제외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약간 만족'(29.3%), '매우 불만족'(26.2%), '매우 만족'(4.6%)의 순이다.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정도는 불만족인 경우가 66.1%로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호흡기장애(53.7%), 뇌병변장애(50.5%), 신장장애(49.4%)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7-8-4〉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만족	4.5	1.6	5.4	3.4	4.5	10.8	22.4	4.3	3.7	0.0	0.0	0.0	2.1	0.4	5.4	4.6
약간 만족	28.7	12.1	34.3	35.1	45.3	51.0	48.4	29.7	15.7	4.1	7.5	20.3	28.9	19.9	14.4	29.3
보통	43.4	35.9	38.4	39.3	27.5	27.2	23.4	43.1	31.3	55.8	38.8	43.7	56.1	38.1	44.4	39.9
약간 불만족	23.4	50.5	21.9	22.2	22.7	11.0	5.9	22.9	49.4	40.1	53.7	36.0	12.9	41.5	35.8	2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8,244	289,258	274,085	277,019	21,400	181,799	18,951	105,002	71,876	8,457	15,984	11,840	3,013	16,705	9,764	2,643,397

주: 무응답 제외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고 다음이 '매우 불만족'(26.4%), '약간 만족'(26.2%), '매우 만족'(2.8%)의 순이다.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71.1%로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간장애(44.0%), 뇌병변장애(32.1%), 장루요루장애(29.9%)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7-8-5〉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만족	2.7	2.0	3.8	2.3	0.0	6.5	0.0	0.9	3.4	0.0	3.6	1.8	0.0	3.0	0.0	2.8
약간 만족	24.7	24.2	27.1	28.9	37.7	34.5	38.0	29.3	27.5	26.8	36.3	21.4	15.8	15.8	22.8	26.2
약간 불만족	46.3	41.7	42.5	44.2	36.6	41.6	44.4	46.4	39.8	41.9	37.4	32.7	64.1	51.2	52.8	44.7
매우 불만족	26.3	32.1	26.6	24.6	25.7	17.4	17.6	23.5	29.2	31.3	22.7	44.0	20.0	29.9	24.5	2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96,914	233,375	243,090	246,210	15,563	111,754	6,805	78,255	57,176	7,575	14,127	10,231	2,457	15,456	7,779	2,246,767

주: 무응답 제외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약간 불만족'(37.1%), '매우 불만족'(20.1%), '매우 만족'(5.3%)이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여가생활 만족도를 장애유형별로 볼 때 뇌병변장애(40.6%), 호흡기장애(32.3%), 간장애(28.0%) 등에서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8-6〉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만족	5.7	2.7	6.1	4.6	1.9	7.2	10.3	4.0	7.0	0.0	1.8	1.6	0.0	4.8	0.0	5.3
약간 만족	39.5	21.6	38.2	43.9	51.0	39.8	53.9	35.5	26.4	41.5	23.5	39.8	54.9	34.9	47.3	37.5
약간 불만족	38.7	35.1	36.2	36.4	37.0	33.8	24.1	35.0	39.5	37.4	42.4	30.6	31.8	34.5	33.1	37.1
매우 불만족	16.1	40.6	19.5	15.1	10.1	19.2	11.8	25.5	27.2	21.1	32.3	28.0	13.4	25.7	19.6	2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8,245	289,257	274,085	277,020	21,399	181,799	18,952	105,001	71,877	8,456	15,984	11,839	3,013	16,705	9,765	2,643,397

주: 무응답 제외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이라는 응답이 52.0%로 전체의 절반 정도가 되며 그 다음은 '약간 불만족'(31.7%), '매우 만족'(9.6%), '매우 불만족'(6.8%)이 뒤를 잇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매우 불만족'인 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장루요루장애(14.4%), 시각장애(8.9%), 지체장애(7.1%), 뇌병변장애(5.9%), 등으로 이들 장애유형의 일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7-8-7〉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만족	9.2	5.8	11.6	9.5	16.4	15.1	0.0	0.0	16.0	0.0	0.0	6.8	0.0	0.0	-	9.6
약간 만족	51.4	52.6	52.7	48.9	49.5	63.1	74.7	61.2	48.0	63.7	68.9	46.8	36.7	62.2	-	52.0
약간 불만족	32.3	35.7	26.9	35.9	28.2	20.5	25.3	31.8	31.6	36.3	31.1	46.4	63.3	23.4	-	31.7
매우 불만족	7.1	5.9	8.9	5.7	5.8	1.3	0.0	7.0	4.3	0.0	0.0	0.0	0.0	14.4	-	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전국추정수	619,860	33,450	107,974	103,768	7,168	43,319	1,002	9,954	13,862	2,155	2,431	4,987	1,277	4,909	-	956,116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는 응답이 각각 25.4%와 58.8%로 장애인이 결혼생활 만족하는 정도가 84.2%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비율 순서를 보면 언어장애가 41.5%로 가장 많고 다음은 뇌전증장애(35.3%), 신장장애(32.9%), 간장애(31.3%), 지체장애(2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8-8〉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만족	27.2	21.9	25.4	19.7	41.5	21.2	-	4.4	32.9	26.3	22.1	31.3	7.6	24.7	35.3	25.4
약간 만족	58.1	58.0	60.0	66.1	49.5	51.9	-	40.0	53.7	68.1	64.0	56.3	34.4	66.5	51.3	58.8
약간 불만족	11.7	14.3	10.9	12.2	9.0	25.1	-	34.2	12.1	5.6	12.7	12.4	58.1	8.9	0.0	12.5
매우 불만족	3.0	5.8	3.6	2.0	0.0	1.8	-	21.4	1.4	0.0	1.2	0.0	0.0	0.0	13.4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07,649	161,407	165,723	161,603	7,864	21,315	-	19,603	44,838	6,215	9,579	9,239	1,173	10,500	3,942	1,430,650

주: 무응답 제외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48.5%), '약간 불만족'(33.8%), '매우 불만족'(10.6%), '매우 만족'(7.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긍정적 응답비율이 55.6%로 불만족 비율인 44.4%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매우 만족'인 응답비율은 지적장애가 9.5%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자폐성장애(9.2%), 신장장애(9.0%), 시각장애(8.7%) 등의 순서이다.

〈표 7-8-9〉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만족	7.7	4.0	8.7	6.8	1.1	9.5	9.2	2.4	9.0	0.0	1.3	4.0	0.0	1.4	0.0	7.1
약간 만족	52.6	30.7	49.6	57.0	52.9	47.5	51.9	30.5	35.0	64.5	49.1	49.2	38.5	33.7	49.8	48.5
약간 불만족	32.4	38.5	33.1	31.9	39.4	33.4	29.3	44.0	36.5	27.3	25.8	29.6	61.5	48.1	44.0	33.8
매우 불만족	7.3	26.8	8.7	4.3	6.6	9.6	9.6	23.1	19.5	8.3	23.7	17.2	0.0	16.7	6.1	1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8,245	289,257	274,085	277,019	21,399	181,799	18,950	105,001	71,876	8,456	15,983	11,839	3,012	16,705	9,765	2,643,391

주: 무응답 제외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5.7%이고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장애유형별 순서로 보면 자폐성장애가 66.3%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안면장애(61.8%), 지적장애(57.1%), 심장장애(56.9%), 정신장애(56.5%)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표 7-8-10〉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24.5	48.2	32.4	40.1	45.2	57.1	66.3	56.5	36.8	56.9	53.0	22.1	61.8	47.6	35.4	34.3
아니오	75.5	51.8	67.6	59.9	54.8	42.9	33.7	43.5	63.2	43.1	47.0	77.9	38.2	52.4	64.6	6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6	9,764	2,646,064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시 주 상담자는 '가족'이 6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없음'(14.9%), '친척, 친구, 이웃'(8.8%),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3.0%) 등의 순서로 드러났다. 문제발생시 '가족'과 주로 상담하는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심장장애가 8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호흡기장애(85.8%), 자폐성장애(84.1%), 언어장애(81.9%) 등의 순이었다.

〈표 7-8-11〉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시 주 상담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가족	64.0	78.1	63.3	68.1	81.9	78.7	84.1	66.2	74.1	86.4	85.8	73.3	50.8	59.1	55.2	69.4
친척, 친구, 이웃	11.7	6.0	5.6	10.1	15.1	6.2	5.0	6.4	7.7	6.1	5.8	11.3	29.6	6.9	8.7	8.8
장애인 동료	0.5	0.3	3.7	0.9	0.0	0.2	2.2	1.5	0.0	0.0	0.0	0.0	0.0	0.0	0.0	0.9
종교인	2.3	0.5	1.4	0.3	0.0	1.0	0.0	2.5	0.0	0.0	0.0	0.0	0.0	0.0	0.0	1.4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	2.1	4.1	3.6	1.1	0.0	3.2	4.4	7.6	5.3	0.0	0.0	0.0	0.0	8.9	4.1	3.0
행정공무원	0.1	0.3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장애인단체·자립생활센터 직원	0.3	0.0	0.8	0.0	0.0	0.7	0.0	1.0	0.0	0.0	0.0	0.0	0.0	0.0	0.0	0.3
없음	17.5	9.8	19.8	19.3	3.0	8.1	4.3	14.1	11.6	7.6	8.3	6.6	19.6	25.0	16.7	14.9
기타	1.4	0.8	1.5	0.2	0.0	1.9	0.0	0.6	1.3	0.0	0.0	8.8	0.0	0.0	15.3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27,053	139,333	88,833	111,230	9,681	104,135	12,557	59,352	26,476	4,810	8,469	2,611	1,862	7,946	3,461	907,809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는 '없다'라는 응답이 92.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 내 차별·폭력이 '자주 있다'는 응답도 일부 존재하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5.7%), 정신장애(4.8%), 자폐성장애(3.3%)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가족 내 차별·폭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12〉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자주 있다	0.4	1.2	0.4	1.2	0.0	5.7	3.3	4.8	0.7	0.0	0.7	0.0	0.0	0.0	0.0	1.1
가끔 있다	3.7	9.0	4.2	5.5	2.2	15.6	12.2	21.9	5.2	0.0	3.6	0.0	0.0	4.7	2.1	6.1
없다	95.9	89.8	95.4	93.3	97.8	78.7	84.5	73.4	94.1	100.0	95.7	100.0	100.0	95.3	97.9	9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4	11,839	3,012	16,706	9,764	2,646,064

가족 내 차별·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이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정신적 폭력'(19.9%), '신체적 폭력'(9.4%), '방임 및 유기'(9.0%), '경제적 폭력'(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장애유형은 장루요루장애(87.1%)이며 자폐성장애(86.3%), 정신장애(65.4%), 시각장애(65.1%) 등도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언어폭력 피해 경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7-8-13〉 가족 내 차별·폭력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언어폭력	52.7	58.6	65.1	63.8	48.8	48.8	86.3	65.4	49.1	-	100.0	-	-	87.1	100.0	57.3
정신적 폭력	25.4	18.6	25.3	17.5	51.2	13.9	-	15.9	50.9	-	-	-	-	12.9	-	19.9
신체적 폭력	7.5	5.0	2.8	12.7	-	18.3	-	9.7	-	-	-	-	-	-	-	9.4
성적학대	-	-	-	-	-	-	-	-	-	-	-	-	-	-	-	-
방임 및 유기	9.6	15.4	0.0	4.8	-	9.7	13.7	8.0	-	-	-	-	-	-	-	9.0
경제적 폭력	4.9	2.3	6.9	1.2	-	9.3	-	1.0	-	-	-	-	-	-	-	4.3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5,277	29,487	12,508	18,601	463	38,823	2,945	27,951	4,208	-	685	-	-	783	206	191,937

가족 내 차별·폭력의 주가해자는 '배우자'가 34.1%로 가장 많고 다음이 '형제·자매'(25.5%), '부모'(17.8%),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15.9%) 등의 순서이다. '배우자'로부터 차별·폭력을 당하는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7-8-14〉 가족 내 차별·폭력의 주가해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배우자	45.0	50.5	38.1	56.4	-	5.3	7.2	23.1	22.7	-	100.0	-	-	100.0	100.0	34.1
부모	4.2	13.9	10.9	4.6	-	42.0	50.5	21.5	22.1	-	-	-	-	-	-	17.8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26.0	22.6	5.4	24.1	48.8	4.7	-	5.8	21.9	-	-	-	-	-	-	15.9
형제·자매	16.9	11.2	35.0	12.9	51.2	38.2	34.6	41.8	33.3	-	-	-	-	-	-	25.5
조부모	-	-	-	-	-	3.7	7.6	-	-	-	-	-	-	-	-	0.9
손자녀	0.9	1.8	-	-	-	-	-	-	-	-	-	-	-	-	-	0.5
배우자의 가족	4.2	-	7.5	2.0	-	0.5	0.0	4.3	-	-	-	-	-	-	-	2.6
기타	2.8	-	3.0	-	-	5.6	0.0	3.4	-	-	-	-	-	-	-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1,387	29,164	12,247	17,089	463	38,822	2,944	26,578	3,586	-	213	-	-	783	206	183,482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는 '없다'는 응답이 98.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비율은 매우 낮으나 장애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여러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10.7%), 언어장애(5.5%) 및 지적장애(4.9%)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7-8-1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있다	0.8	1.1	0.5	0.3	5.5	4.9	-	10.7	-	-	-	1.1	-	-	3.1	1.4
없다	99.2	98.9	99.5	99.7	94.5	95.1	100.0	89.3	100.0	100.0	100.0	98.9	100.0	100.0	96.9	9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시기는 '아동기(7~17세)'가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장년기(40~64세)'(29.7%), '청년기(25~39세)'(21.5%), '청소년기(18~24세)'(16.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시기가 '아동기(7~17세)'인 경우를 보면 시각장애(68.1%), 지적장애(63.7%), 언어장애(45.4%), 청각장애(27.9%) 등의 순서로 그 비율이 높았다.

〈표 7-8-1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시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영·유아기 (0~6세)	3.9	0.0	0.0	0.0	0.0	0.0	-	0.0	-	-	-	0.0	-	-	0.0	1.1
아동기 (7~17세)	23.0	0.0	68.1	27.9	45.4	63.7	-	13.0	-	-	-	100.0	-	-	0.0	30.1
청소년기 (18~24세)	20.8	10.9	0.0	54.0	0.0	12.0	-	20.3	-	-	-	0.0	-	-	0.0	16.8
청년기 (25~39세)	18.4	19.9	31.9	18.1	54.6	5.1	-	31.7	-	-	-	0.0	-	-	100.0	21.5
장년기 (40~64세)	31.2	69.1	0.0	0.0	0.0	19.2	-	34.9	-	-	-	0.0	-	-	0.0	29.7
노년기 (65세 이상)	2.7	0.0	0.0	0.0	0.0	0.0	-	0.0	-	-	-	0.0	-	-	0.0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	100.0	-	-	100.0	100.0
전국추정수	10,841	3,225	1,249	734	1,185	8,916	-	11,249	-	-	-	136	-	-	302	37,83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39.6%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이웃'(19.8%), '기타'(12.5%), '근친(가족)'(10.2%), '남자친구'(8.8%) 등의 순서로 드러났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청각장애(72.1%), 뇌병변장애(69.4%), 언어장애(54.6%), 시각장애(44.4%) 등의 비율 순서로 나타났다.

〈표 7-8-1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가해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근친(가족)	12.1	-	23.6	-	-	9.3	-	12.8	-	-	-	-	-	-	-	10.2
이웃	29.7	30.6	-	27.9	-	31.8	-	2.1	-	-	-	-	-	-	-	19.8
먼친척	-	-	-	-	-	-	-	1.7	-	-	-	-	-	-	-	0.5
모르는 사람	43.6	69.4	44.4	72.1	54.6	22.7	-	35.2	-	-	-	-	-	-	100.0	39.6
학교관계자	-	-	-	-	-	-	-	-	-	-	-	100.0	-	-	-	0.4
남자친구	2.7	-	-	-	-	13.3	-	16.5	-	-	-	-	-	-	-	8.8
종교인	-	-	-	-	-	-	-	8.2	-	-	-	-	-	-	-	2.4
채팅상대자	-	-	-	-	-	-	-		-	-	-	-	-	-	-	-
서비스제공자 (복지인력 등)	8.1	-	-	-	-	-	-	3.3	-	-	-	-	-	-	-	3.3
학원관계자	3.9	-	-	-	45.4	-	-	-	-	-	-	-	-	-	-	2.5
기타	-	-	31.9	-	-	22.8	-	20.3	-	-	-	-	-	-	-	1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	100.0	-	-	100.0	100.0
전국추정수	10,841	3,225	1,249	734	1,185	8,916	-	11,249	-	-	-	136	-	-	302	37,83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은 '참는다'라는 응답이 51.5%로 가장 많고 다음은 '그 자리에서 항의'(16.9%), '몰라서 그냥 넘어감'(14.9%),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10.3%)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대처방법 중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가 68.1%로 상당히 많고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도 그 비율이 각각 22.8%와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18〉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무시한다	5.2	10.9	-	-	-	-	-	4.2	-	-	-	-	-	-	-	3.6
참는다	48.5	26.8	-	100.0	45.4	47.5	-	68.6	-	-	-	100.0	-	-	-	51.5
그 자리에서 항의	15.6	42.4	31.9	-	54.6	22.1	-	-	-	-	-	-	-	-	100.0	16.9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18.8	-	-	-	-	5.6	-	12.2	-	-	-	-	-	-	-	10.3
몰라서 그냥 넘어감	3.9	19.9	68.1	-	-	22.8	-	15.0	-	-	-	-	-	-	-	14.9
기타	8.1	-	-	-	-	2.0	-	-	-	-	-	-	-	-	-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	100.0	-	-	100.0	100.0
전국추정수	10,841	3,225	1,249	734	1,185	8,916	-	11,249	-	-	-	136	-	-	302	37,83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주 상담자는 '못했음'을 제외하면 '가족'이 19.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친척, 친구, 이웃'(9.8%), '행정공무원'(5.5%), '기타'(4.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이 주 상담자인 경우를 장애유형별 순서로 보면 언어장애(54.6%), 지적장애(32.7%), 정신장애(23.8%) 등이다.

〈표 7-8-19〉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주 상담자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가족	8.3	0.0	0.0	46.0	54.6	32.7	-	23.8	-	-	-	0.0	-	-	0.0	19.8
친척, 친구, 이웃	0.0	57.4	0.0	0.0	0.0	4.5	-	9.0	-	-	-	100.0	-	-	100.0	9.8
장애인 동료							-		-	-	-		-	-		
종교인	7.6	0.0	0.0	0.0	0.0	0.0	-	0.0	-	-	-	0.0	-	-	0.0	2.2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	8.1	0.0	0.0	0.0	0.0	0.0	-	0.0	-	-	-	0.0	-	-	0.0	2.3
행정공무원	13.2	0.0	0.0	0.0	0.0	2.0	-	4.2	-	-	-	0.0	-	-	0.0	5.5
장애인단체·자립생활센터직원	-	-	-	-	-	-	-	-	-	-	-	-	-	-	-	-
성피해 지원 전문기관	4.4	0.0	0.0	0.0	0.0	5.6	-	0.0	-	-	-	0.0	-	-	0.0	2.6
못했음	58.4	42.6	100.0	54.0	45.4	46.2	-	54.8	-	-	-	0.0	-	-	0.0	53.3
기타	0.0	0.0	0.0	0.0	0.0	8.9	-	8.2	-	-	-	0.0	-	-	0.0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	100.0	-	-	100.0	100.0
전국추정수	10,841	3,225	1,249	734	1,185	8,916	-	11,249	-	-	-	136	-	-	302	37,83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상담하지 못한 이유는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가 45.5%로 전체 응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뒤이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0.4%),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13.2%),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 부족'(12.5%)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 상담하지 못하는 경우를 장애유형별 비율 순서로 보면 언어장애가 10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신장애(69.8%), 지체장애(49.0%), 시각장애(44.4%) 등의 순이었다.

〈표 7-8-20〉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상담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7.4	0.0	0.0	47.7	0.0	38.1	-	10.2	-	-	-	-	-	-	-	20.4
시간이 없어서	-	-	-	-	-	-	-	-	-	-	-	-	-	-	-	-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 부족	0.0	74.3	31.9	52.3	0.0	0.0	-	14.5	-	-	-	-	-	-	-	12.5
몸이 불편'해서	20.8	0.0	0.0	0.0	0.0	0.0	-	0.0	-	-	-	-	-	-	-	6.5
경제적 부담	-	-	-	-	-	-	-	-	-	-	-	-	-	-	-	-
집근처에 상담기관이 없어서	-	-	-	-	-	-	-	-	-	-	-	-	-	-	-	-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	2.8	0.0	23.6	0.0	100.0	31.8	-	5.5	-	-	-	-	-	-	-	13.2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	49.0	25.7	44.4	0.0	0.0	20.9	-	69.8	-	-	-	-	-	-	-	45.5
기타	0.0	0.0	0.0	0.0	0.0	9.2	-	0.0	-	-	-	-	-	-	-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	-	-	-	-	100.0
전국추정수	6,329	1,374	1,249	396	538	4,123	-	6,164	-	-	-	-	-	-	-	20,173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자 또는 시설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64.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약간 필요'도 31.6%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자 또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95.6%나 차지하였다. '매우 필요'라고 응답한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안면장애(75.7%), 심장장애(75.3%), 지적장애(71.1%) 등의 비율 순서이다.

〈표 7-8-21〉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자 또는 시설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필요	63.3	62.8	61.9	65.3	62.9	71.1	69.8	61.1	66.0	75.3	60.2	72.1	75.7	62.7	69.0	64.0
약간 필요	32.5	32.8	32.8	29.8	32.0	25.6	30.2	32.9	28.2	24.7	37.3	24.1	24.3	32.6	31.0	31.6
약간 불필요	2.8	2.2	3.0	3.3	5.2	3.1	0.0	3.0	2.6	0.0	1.2	1.5	0.0	0.0	0.0	2.8
매우 불필요	1.4	2.2	2.3	1.5	0.0	0.3	0.0	2.9	3.2	0.0	1.3	2.4	0.0	4.7	0.0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8,366	289,257	274,305	277,020	21,399	182,333	18,951	105,001	71,875	8,457	15,984	11,839	3,013	16,705	9,765	2,644,270

주: 무응답 제외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시 사회적 차별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차별을 '받았다'는 비율을 27.1%이고 반대의 경우는 72.9%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가 38.8%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이 안면장애

(36.9%), 자폐성장애(29.8%), 뇌병변장애(26.6%) 등의 순이다.

〈표 7-8-22〉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유치원(보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13.4	26.6	13.3	24.4	5.0	38.8	29.8	20.2	-	20.6	0.0	-	36.9	-	15.8	27.1
안받았다	86.6	73.4	86.7	75.6	95.0	61.2	70.2	79.8	-	79.4	100.0	-	63.1	-	84.2	7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42,588	19,949	17,718	14,071	2,416	78,968	16,312	3,466	-	574	428	-	1,497	-	1,647	199,634

초등학교 입학·전학시 사회적 차별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8%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차별경험 정도는 지적장애가 53.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안면장애(52.7%), 언어장애(45.0%), 정신장애(38.3%) 등이었다.

〈표 7-8-23〉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초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31.8	34.2	27.0	39.0	45.0	53.6	36.0	38.3	0.0	20.6	39.0	0.0	52.7	-	37.0	38.8
안받았다	68.2	65.8	73.0	61.0	55.0	46.4	64.0	61.7	100.0	79.4	61.0	100.0	47.3	-	63.0	6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159,050	30,879	66,335	66,285	7,910	139,973	16,639	9,769	1,486	574	1,302	304	1,861	-	4,092	506,459

중학교 입학·전학시 사회적 차별을 받았는지 여부의 경우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31.6%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49.2%), 지적장애(48.6%), 정신장애(42.1%), 호흡기장애(41.3%) 등의 비율 순서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8-24〉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중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25.7	25.8	15.9	30.0	33.7	48.6	30.2	42.1	0.0	20.6	41.3	0.0	49.2	-	16.6	31.6
안받았다	74.3	74.2	84.1	70.0	66.3	51.4	69.8	57.9	100.0	79.4	58.7	100.0	50.8	-	83.4	6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135,695	24,315	53,456	45,343	5,761	107,492	12,784	10,441	1,851	574	1,229	304	1,862	-	3,177	404,284

고등학교 입학·전학시 사회적 차별을 받았는지 여부는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비율이 25.1%로 드러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의 차별경험 비율이 49.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지적장애(42.6%), 정신장애(40.5%) 등의 순이다.

〈표 7-8-25〉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고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18.2	21.6	12.7	21.0	8.1	42.6	25.9	40.5	0.0	20.6	32.6	0.0	49.2	-	14.2	25.1
안받았다	81.8	78.4	87.3	79.0	91.9	57.4	74.1	59.5	100.0	79.4	67.4	100.0	50.8	-	85.8	7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673	23,181	46,856	35,217	3,373	87,749	9,408	15,320	3,177	574	935	304	1,862	-	2,373	353,002

대학교 입학·전학시 사회적 차별을 받았는지 여부의 경우, 차별을 받은 경험이 대학이하의 학교에서보다 비율은 낮지만 여전히 응답자의 12.5%가 대학 입학 또는 편입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차별경험 비율 순서는 간장애(52.8%), 호흡기장애(41.6%), 뇌전증장애(33.9%) 등이었다.

〈표 7-8-26〉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대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9.5	9.8	9.4	11.6	25.9	27.1	4.5	19.8	0.0	0.0	41.6	52.8	0.0	-	33.9	12.5
안받았다	90.5	90.2	90.6	88.4	74.1	72.9	95.5	80.2	100.0	100.0	58.4	47.2	100.0	-	66.1	8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79,650	13,779	22,835	11,554	2,080	14,940	1,856	13,045	2,264	1,150	733	1,045	211	-	440	165,582

사회적 차별 정도(학교생활-교사로부터)는 '받았다'는 응답이 18.7% 그리고 '받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81.3%를 차지하였다.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의 차별 경험 비율이 32.0%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뇌병변장애(30.4%), 정신장애(30.5%), 언어장애(28.6%) 등의 순이다.

〈표 7-8-27〉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교사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9.8	30.4	9.7	12.1	28.6	32.0	24.4	30.5	17.2	9.3	0.0	0.0	0.0	0.0	20.5	18.7
안받았다	90.2	69.6	90.3	87.9	71.4	68.0	75.6	69.5	82.8	90.7	100.0	100.0	100.0	100.0	79.5	8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5,883	41,176	78,335	76,679	8,544	151,697	18,701	32,262	4,509	1,268	1,302	304	1,861	211	5,256	617,988

사회적 차별 정도(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는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47.1%로 지금까지 살펴본 차별유형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의 차별경험 비율이 7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지적장애(65.0%), 언어장애(59.7%), 정신장애(58.2%) 등의 순서로 학교생활에서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28〉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38.3	44.0	32.1	45.6	59.7	65.0	52.6	58.2	26.5	9.3	15.6	0.0	73.5	0.0	54.0	47.1
안받았다	61.7	56.0	67.9	54.4	40.3	35.0	47.4	41.8	73.5	90.7	84.4	100.0	26.5	100.0	46.0	5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7,018	41,176	78,335	76,679	8,543	151,696	18,701	32,179	4,818	1,268	1,302	304	1,862	211	5,255	619,347

학교생활에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사회적 차별 정도는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를 장애유형별 순서로 보면, 뇌전증장애가 26.5%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지적장애(25.5%), 뇌병변장애(23.8%), 자폐성장애(20.1%) 등의 순이다.

〈표 7-8-29〉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7.8	23.8	7.8	6.9	16.4	25.5	20.1	10.2	0.0	0.0	0.0	0.0	0.0	0.0	26.5	13.7
안받았다	92.2	76.2	92.2	93.1	83.6	74.5	79.9	89.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3.5	8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7,494	41,176	78,402	76,679	8,544	151,696	18,702	32,650	4,840	1,268	1,302	304	1,861	507	5,256	620,681

결혼 과정에서 받은 사회적 차별의 경우 차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6.4%로 드러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의 결혼 차별경험 정도가 51.8%로 가장 심하고 다음이 지적장애(48.9%), 언어장애(32.9%), 간장애(22.0%), 뇌병변장애(20.6%)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표 7-8-30〉 사회적 차별 정도: 결혼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12.5	20.6	16.3	16.4	32.9	48.9	0.0	51.8	18.4	12.9	1.4	22.0	0.0	8.9	18.3	16.4
안받았다	87.5	79.4	83.7	83.6	67.1	51.1	100.0	48.2	81.6	87.1	98.6	78.0	100.0	91.1	81.7	8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31,061	142,129	176,295	174,716	10,640	41,681	434	37,881	39,744	5,399	8,206	5,955	1,277	8,811	6,742	1,490,971

취업시 사회적 차별 정도는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35.8%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차별 경험 정도는 심장장애가 75.0%로 가장 많으며 정신장애(69.8%), 자폐성장애(66.7%), 안면장애(63.1%), 뇌병변장애(58.0%)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표 7-8-31〉 사회적 차별 정도: 취업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29.3	58.0	34.7	42.7	45.7	47.7	66.7	69.8	42.4	75.0	32.8	39.3	63.1	31.3	37.5	35.8
안받았다	70.7	42.0	65.3	57.3	54.3	52.3	33.3	30.2	57.6	25.0	67.2	60.7	36.9	68.7	62.5	6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81,576	60,774	144,245	128,287	9,306	59,412	2,064	37,726	19,903	2,275	6,066	3,786	2,232	3,385	4,052	1,165,089

장애인 중 직장생활에서 소득(임금)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소득 차별 경험 정도는 정신장애가 56.8%로 가장 심하고 다음이 자폐성장애(41.7%), 지적장애(41.4%), 심장장애(40.8%) 등의 순서이다.

〈표 7-8-32〉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소득(임금)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19.8	38.9	19.6	29.2	26.3	41.4	41.7	56.8	18.3	40.8	22.0	21.9	26.7	36.0	29.8	23.9
안받았다	80.2	61.1	80.4	70.8	73.7	58.6	58.3	43.2	81.7	59.2	78.0	78.1	73.3	64.0	70.2	7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90,453	62,630	158,849	148,369	9,057	58,236	1,002	31,909	23,020	3,299	5,728	5,883	2,068	5,943	3,760	1,310,206

직장생활 중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비율은 20.0%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의 차별경험 정도가 64.7%로 가장 심하고 다음이 지적장애(37.3%), 안면장애(36.5%), 청각장애(33.6%) 등의 순이다.

〈표 7-8-33〉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14.5	28.2	16.5	33.6	30.5	37.3	25.3	64.7	11.4	31.5	14.2	0.0	36.5	15.6	29.8	20.0
안받았다	85.5	71.8	83.5	66.4	69.5	62.7	74.7	35.3	88.6	68.5	85.8	100.0	63.5	84.4	70.2	8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12,768	45,930	134,245	110,205	7,601	49,778	1,002	28,131	19,722	2,821	5,178	4,275	1,513	4,523	3,760	1,031,452

직장의 승진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3.3%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 정도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앞의 취업과정에처럼 정신장애의 경험 비율이 48.6%로 가장 많고 안면장애(36.5%), 뇌전증장애(26.6%), 뇌병변장애(26.5%)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표 7-8-34〉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승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9.7	26.5	12.2	15.2	15.1	25.3	16.4	48.6	6.8	14.7	14.2	0.0	36.5	0.0	26.6	13.3
안받았다	90.3	73.5	87.8	84.8	84.9	74.7	83.6	51.4	93.2	85.3	85.8	100.0	63.5	100.0	73.4	8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66,497	43,797	125,123	102,979	7,601	48,749	1,002	27,040	18,413	2,264	5,178	3,700	1,513	4,817	3,068	961,741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의 차별을 경험한 정도는 전체 응답자의 10.2%로 드러났다. 장애유형별 차별 경험 정도는 뇌전증장애가 10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언어장애(30.8%), 지적장애(28.7%), 정신장애(26.1%), 호흡기장애(15.0%) 등의 순서이다.

〈표 7-8-35〉 사회적 차별 정도: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7.4	11.0	20.4	8.6	30.8	28.7	-	26.1	5.1	0.0	15.0	0.0	0.0	0.0	100.0	10.2
안받았다	92.6	89.0	79.6	91.4	69.2	71.3	-	73.9	94.9	100.0	85.0	100.0	100.0	100.0	0.0	8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08,392	28,865	74,863	53,746	5,497	10,583	-	13,380	11,106	1,795	3,383	3,478	1,812	2,571	291	619,762

보험제도상(계약시) 차별의 경우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45.4%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의 차별 경험비율이 7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심장장애(68.0%), 지적장애(67.7%), 뇌전증장애(66.4%) 등의 순이었다.

〈표 7-8-36〉 사회적 차별 정도: 보험제도상(계약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41.0	55.6	37.0	40.1	56.0	67.7	76.6	59.4	66.2	68.0	40.3	63.8	59.7	43.9	66.4	45.4
안받았다	59.0	44.4	63.0	59.9	44.0	32.3	23.4	40.6	33.8	32.0	59.7	36.2	40.3	56.1	33.6	5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43,719	113,597	152,333	126,144	9,388	83,678	11,572	44,380	38,426	4,573	6,346	7,396	2,281	6,419	4,533	1,354,785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6%를 차지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의 차별 경험 정도가 29.2%로 가장 심하고 지적장애(9.6%), 정신장애(9.0%), 뇌병변장애(7.8%)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표 7-8-37〉 사회적 차별 정도: 의료기관 이용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2.9	7.8	4.6	4.6	2.5	9.6	7.0	9.0	4.0	0.0	4.5	3.8	29.2	5.0	0.0	4.6
안받았다	97.1	92.2	95.4	95.4	97.5	90.4	93.0	91.0	96.0	100.0	95.5	96.2	70.8	95.0	100.0	9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3,984	287,477	272,092	274,688	21,399	182,333	18,259	104,692	71,489	8,121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31,838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차별정도는 응답자의 1.9%로 매우 낮았다. 차별정도가 미미하지만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의 차별경험 비율이 7.8%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호흡기장애(4.7%), 장루요루장애(3.7%), 시각장애(2.6%) 등의 순이다.

〈표 7-8-38〉 사회적 차별 정도: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0.7	1.9	2.6	7.8	1.4	1.4	0.0	2.6	0.0	0.0	4.7	0.0	0.0	3.7	0.0	1.9
안받았다	99.3	98.1	97.4	92.2	98.6	98.6	100.0	97.4	100.0	100.0	95.3	100.0	100.0	96.3	100.0	9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24,660	281,562	271,050	272,346	20,474	175,200	17,137	103,363	71,140	8,121	15,984	11,839	3,012	16,705	9,298	2,601,891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7.3%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차별경험 정도는 안면장애가 34.2%로 가장 심했고 다음은 자폐성장애(23.9%), 지적장애(18.6%), 정신장애(13.2%) 등의 순서로 드러났다.

〈표 7-8-39〉 사회적 차별 정도: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받았다	4.3	12.2	6.1	8.8	4.1	18.6	23.9	13.2	2.0	9.9	7.7	0.0	34.2	8.5	5.5	7.3
안받았다	95.7	87.8	93.9	91.2	95.9	81.4	76.1	86.8	98.0	90.1	92.3	100.0	65.8	91.5	94.5	9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29,987	276,877	273,113	275,560	21,399	177,282	18,951	101,937	70,847	8,121	15,984	11,477	3,012	16,706	9,558	2,610,811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항상 느낀다'와 '가끔 느낀다'라는 응답은 각각 6.2%와 31.6%로 장애인의 37.8%가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꼈다. 장애 때문에 본인이 항상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의 비율이 16.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정신장애(12.8%), 뇌병변장애(10.1%), 자폐성장애(10.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7-8-40〉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항상 느낀다	3.7	10.1	6.0	6.0	5.3	16.1	10.1	12.8	3.3	8.3	3.4	4.8	0.0	5.8	4.3	6.2
가끔 느낀다	23.0	40.0	32.6	40.3	43.3	52.9	67.6	50.3	20.4	29.1	38.3	23.3	66.1	34.6	43.8	31.6
별로 느끼지 않는다	46.8	37.8	41.2	40.5	39.4	24.5	15.3	26.4	48.1	51.2	27.6	36.7	31.8	42.9	31.2	41.7
전혀 느끼지 않는다	26.4	12.0	20.2	13.2	12.1	6.4	6.9	10.5	28.2	11.4	30.8	35.2	2.1	16.7	20.7	2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8,595	289,257	274,484	277,019	21,399	181,799	18,951	105,001	71,876	8,457	15,984	11,839	3,012	16,706	9,764	2,644,143

주: 무응답 제외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약간 많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매우 많다'(26.4%), '별로 없다'(26.4%) 등의 비율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볼 때 차별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안면장애가 47.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지적장애(46.2%), 자폐성장애(42.8%), 심장장애(41.5%) 등의 순이다.

〈표 7-8-41〉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전혀 없다	1.2	0.8	0.2	0.4	0.0	0.6	0.7	0.7	3.6	0.0	9.4	0.0	0.0	2.4	0.0	1.0
별로 없다	30.4	20.5	28.5	24.7	28.2	9.8	14.1	19.9	28.0	21.0	15.3	26.4	23.4	33.2	31.7	26.4
약간 많다	46.0	46.5	43.9	51.4	41.7	43.5	42.5	53.9	40.0	37.5	41.7	54.4	29.3	40.8	37.9	46.2
매우 많다	22.4	32.1	27.4	23.5	30.1	46.2	42.8	25.4	28.4	41.5	33.7	19.2	47.2	23.6	30.4	2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68.7%로 가장 많았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하였다. 한편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비율은 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존재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장애유형별 비율 순으로 보면 호흡기장애가 80.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언어장애(78.4%), 장루요루장애(78.1%), 청각장애(76.6%) 등이다.

〈표 7-8-4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알고 있다	8.9	7.3	7.4	5.3	2.5	10.4	28.9	4.2	9.0	18.4	11.7	15.1	15.5	8.5	4.8	8.3
들어본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4.0	23.7	24.5	18.1	19.0	21.1	40.2	20.7	26.5	13.0	7.9	27.1	46.8	13.4	33.6	23.1
알지 못한다	67.2	68.9	68.1	76.6	78.4	68.4	30.9	75.1	64.5	68.6	80.4	57.8	37.7	78.1	61.6	6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제9절 주거

1. 장애인의 주거 현황

장애인의 주거 현황 중에서 주거의 위치를 보면, 지상이 94.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하층이 2.8%, 반지하층이 2.0%, 옥탑이 0.2%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 주거 위치를 보면, 대부분의 장애유형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심장장애는 반지하층이 6.2%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자폐성장애는 지하층이 4.5%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7-9-1〉 주거 위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지하층	3.0	2.8	2.8	3.3	1.7	1.9	4.5	1.4	3.1	1.7	-	3.1		3.9	-	2.8
지상	94.8	95.5	93.3	95.2	98.3	95.2	92.1	96.6	93.6	92.2	100.0	96.9	100.0	96.1	100.0	94.9
반지하층	2.0	1.7	3.6	1.0	-	2.1	3.4	2.0	3.3	6.2	-	-	-	-	-	2.0
옥탑	0.1	-	0.3	0.5	-	0.8	-	-	-	-	-	-	-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를 보면, 자가가 58.5%로 가장 많았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가 17.7%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세는 12.5%로 나타나 보증금 있는 월세보다 적었으며, 보증금 없는 월세도 2.6%로 나타났다. 무상은 8.7%였다. 2011년의 장애인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면, 자가, 보증금 있는 월세 및 전세의 비율이 1% 이내의 차이를 보여,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 별로 집의 소유형태를 보면, 자가의 비율이 낮은 장애유형은 뇌전증장애(24.8%), 안면장애(38.5%), 정신장애(44.0%), 자폐성장애(50.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세의 비율이 낮은 장애유형은 심장장애(7.2%), 청각장애(9.0%), 언어장애(9.7%), 간장애(9.7%), 지적장애(10.1%), 안면장애(10.5%), 뇌전증장애(10.5%) 등이었다. 반면에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뇌전증장애(44.5%), 간장애(28.0%), 정신장애(27.1%), 지적장애(22.6%), 장루·요루장애(21.5%)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의 면에서 보면, 뇌전증장애, 정신장애, 안면장애 등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9-2〉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자가	60.1	58.3	60.4	58.3	71.5	55.4	50.4	44.0	54.8	62.7	60.0	60.5	38.5	55.3	24.8	58.5
전세	12.7	11.6	14.0	9.0	9.7	10.1	30.3	15.3	17.1	7.2	13.1	9.7	10.5	15.4	10.5	12.5
보증금있는 월세	16.2	18.9	17.8	17.5	5.6	22.6	9.1	27.1	16.8	10.0	17.4	28.0	19.8	21.5	44.5	17.7
보증금없는 월세	2.8	2.0	2.1	2.0	2.8	3.4	0.0	3.0	2.7	0.0	2.5	0.4	0.0	0.0	0.0	2.6
무상	8.1	9.2	5.6	13.2	10.3	8.5	10.2	10.7	8.6	20.1	7.0	1.5	31.2	7.8	20.2	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자가일 경우 살고 있는 집의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에 2억원 이상의 비율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의 27.0%에 비해 6.5% 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에 5천만원 미만의 비율은 18.4%로 2011년의 23.0%에 비해 4.6% 포인트 감소하였다. 장애유형 별로 보면, 집의 금액이 2억원 이상인 비율은 안면장애(74.0%)와 자폐성장애(65.6%)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집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비율은 청각장애(20.9%), 안면장애(20.6%), 시각장애(20.2%), 그리고 정신장애(19.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가의 평균 금액을 보면, 전체 장애의 평균은 1억7,262만원이었으며, 장애유형 별로는 호흡기장애(2억9,282만원), 뇌전증장애(2억6,234만원), 자폐성장애(2억5,254만원), 신장장애(2억2,444만원), 간장애(2억1,230만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언어장애(1억4,002만원), 정신장애(1억4,548만원) 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7-9-3〉 자가일 경우 살고 있는 집의 금액

(단위: %, 만원,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0.5억원미만	18.5	17.9	20.2	20.9	16.7	17.1	4.7	19.8	9.8	5.5	18.3	10.6	20.6	14.5	8.6	18.4
0.5~1억원미만	25.6	23.8	26.0	21.9	28.5	26.6	11.7	36.2	24.7	46.8	24.6	32.2	5.4	22.8	53.1	25.5
1~1.5억원미만	14.7	11.4	14.7	13.5	19.5	16.1	12.7	13.6	16.8	3.2	7.7	13.0	0.0	10.9	0.0	14.2
1.5~2억원미만	8.7	10.6	7.6	6.3	10.3	7.7	5.3	7.9	11.0	9.0	7.9	9.4	0.0	9.0	7.9	8.5
2억원 이상	32.5	36.3	31.5	37.4	25.0	32.5	65.6	22.5	37.7	35.6	41.5	34.9	74.0	42.8	30.4	3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가격	16,736	18,560	15,877	18,405	14,002	17,105	25,254	14,548	22,444	18,719	29,282	21,230	15,474	16,132	26,234	17,262
전국추정수	804,763	168,526	165,899	161,070	15,311	100,947	9,545	46,175	39,371	5,302	9,591	7,157	1,160	9,238	2,420	1,546,475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액을 보면, 보증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비율이 52.9%로 2011년의 38.8%에 비해 14.1% 포인트나 증가하여 주거비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5백만 원 미만은 22.9%로, 2011년의 36.1%에 비해 13.2% 포인트 감소하여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월세는 줄어들었다. 장애유형 별로 비교해 보면, 보증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비율은 자폐성장애가 84.3%로 가장 높았으며, 안면장애 78.8%, 신장장애 72.0%, 언어장애 67.4%, 심장장애 65.6%, 장루·요루장애 64.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5백만 원 미만의 비율은 간장애가 48.4%로 가장 높았으며, 뇌전증장애 48.2%, 정신장애 47.9%, 호흡기장애 41.2% 등으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15%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평균 보증금액을 보면, 전체 장애는 4,496만원이었으며, 장애유형 별로는 자폐성장애(1억901만원), 언어장애(7,704만원), 심장장애(6,610만원)의 평균 보증금액이 높았으며, 뇌전증장애(805만원)와 정신장애(1,975만원)의 평균 보증금액이 특히 낮았다.

〈표 7-9-4〉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액

(단위: %, 만원,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5백만원 미만	20.9	25.0	22.0	21.3	0.0	23.3	0.0	47.9	12.5	0.0	41.2	48.4	0.0	7.5	48.2	22.9
5~10백만원 미만	9.5	3.5	4.8	9.1	0.0	5.1	6.8	4.1	11.4	22.4	9.1	4.8	9.8	28.0	25.1	7.9
10~15백만원 미만	10.9	11.6	16.1	12.8	17.6	17.8	2.0	6.7	4.0	12.0	0.0	0.0	0.0	0.0	0.0	11.5
15~20백만원 미만	4.8	4.6	4.4	8.5	15.0	6.1	6.8	0.0	0.0	0.0	0.0	0.0	11.4	0.0	9.4	4.7
20백만원 이상	53.8	55.4	52.7	48.3	67.4	47.7	84.3	41.4	72.0	65.6	49.7	46.9	78.8	64.5	17.3	5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가격	5,009	4,245	4,467	2,855	7,704	4,904	10,901	1,975	4,751	6,610	3,786	4,479	2,143	2,826	805	4,496
전국추정수	387,680	88,301	87,402	72,963	3,274	59,639	7,474	44,031	24,357	1,455	4,872	4,461	912	6,167	5,367	798,355

또한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세는 25만 원 이상의 비율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1년의 23.3%에 비해 7.0%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어서 월세 5~10만원의 비율이 25.3%로 나타났다. 반면에 5만원 미만은 4.9%에 불과하여, 2011년의 15.1%에 비해 1/3로 급감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 별로 비교해 보면, 25만 원 이상의 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간장애(71.9%), 장루·요루장애(59.9%), 심장장애(38.4%) 등이었다. 반면에 5만원 미만의 비율이 높은 장애는 호흡기장애(16.9%), 뇌전증장애(13.9%), 정신장애(8.4%) 등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월세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평균 월세는 19.5만원이었다. 장애유형 별 평균 월세를 보면, 간장애가 28.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루·요루장애 23.9만원, 심장장애 22.8만원, 안면장애 21.2만원, 지체장애 21.1만원으로 높은 편이었고, 정신장애 (11.4만원),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12.1만원), 자폐성장애(12.8만원) 등이 낮은 편이었다.

〈표 7-9-5〉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세

(단위: %, 만원,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5만 미만	4.3	5.3	6.8	2.1	0.0	5.9	0.0	8.4	1.4	0.0	16.9	5.0	0.0	0.0	13.9	4.9
5~10만	21.8	29.4	21.5	28.5	59.6	30.5	18.8	43.4	9.4	0.0	23.2	10.1	0.0	29.7	50.3	25.3
10~15만	17.5	14.4	22.7	21.3	16.7	23.0	42.4	19.2	38.7	20.5	40.7	0.0	17.4	5.0	0.0	19.1
15~20만	10.2	8.3	7.7	7.8	0.0	9.1	9.9	6.4	16.2	0.0	0.0	0.0	0.0	0.0	12.0	9.1
20~25만	11.6	12.9	11.4	11.6	0.0	7.1	28.9	14.0	6.2	41.1	2.3	13.0	67.6	5.4	11.7	11.4
25만 이상	34.6	29.7	29.9	28.7	23.8	24.4	0.0	8.5	28.0	38.4	17.0	71.9	14.9	59.9	12.1	3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월세	21.1	18.8	19.6	20.2	12.1	16.5	12.8	11.4	20.3	22.8	12.1	28.2	21.2	23.9	12.1	19.5
전국추정수	259,288	60,846	57,245	54,756	1,793	47,410	1,913	32,797	14,023	849	3,178	3,367	596	3,590	4,347	545,998

살고 있는 집의 소유주(계약주체)를 보면, 전체 장애인 중에는 본인이 50.3%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배우자 18.0%, 부모 12.4%, 자녀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장애유형 별로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자폐성장애(87.4%), 지적장애(61.8%), 정신장애(33.1%) 등 정신적 장애는 소유주(계약주체)가 부모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루·요루장애(68.4%), 시각장애(58.4%), 지체장애(58.2%), 간장애(58.1%)는 소유주(계약주체)가 본인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7-9-6〉 살고 있는 집의 소유주(계약주체)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부모	5.6	12.0	7.3	5.9	34.6	61.8	87.4	33.1	9.6	5.4	0.0	1.4	21.4	3.1	22.9	12.4
본인	58.2	41.8	58.4	51.3	37.2	10.4	0.8	32.3	44.9	45.1	54.7	58.1	15.6	68.4	33.0	50.3
형제	1.8	1.8	2.1	3.3	5.5	11.5	0.0	15.9	2.9	0.0	3.7	0.0	18.3	0.0	1.5	3.3
배우자	20.0	19.6	19.8	16.1	9.3	4.8	0.0	9.8	28.9	23.4	16.6	20.9	13.4	8.8	23.7	18.0
자녀	10.7	19.2	9.9	18.2	9.2	2.2	1.1	2.8	9.8	26.2	16.4	18.1	7.9	16.1	6.3	11.5
기타	3.7	5.6	2.4	5.1	4.3	9.3	10.7	6.1	3.9	0.0	8.6	1.5	23.4	3.7	12.7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다음으로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질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구조·성능 및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의 양호 여부를 확인한 결과, 양호하다는 응답이 78.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1.9%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 별로 비교해 보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 양호한 비율이 높은 장애는 뇌전증장애(94.0%), 언

어장애(91.4%), 자폐성장애(90.0%)이었으며, 양호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장애는 안면장애(41.7%), 간장애(35.4%) 등으로, 1/3 이상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이 양호하지 않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표 7-9-7〉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 양호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예	77.2	81.4	74.9	80.5	91.4	80.0	90.4	75.9	75.3	76.7	88.8	64.6	58.3	77.7	94.0	78.1
아니오	22.8	18.6	25.1	19.5	8.6	20.0	9.6	24.1	24.7	23.3	11.2	35.4	41.7	22.3	6.0	2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둘째,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전체 장애인의 82.9%였으며, 갖추지 못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7.1%였다. 장애유형 별로 보면,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호흡기장애(94.7%), 뇌전증장애(93.4%), 언어장애(92.5%), 자폐성장애(91.1%) 등이었다. 반면에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안면장애(43.3%), 간장애(32.2%), 심장장애(25.6%) 등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안면장애인은 거의 절반 정도가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지 못한 주택에서 거주한다고 할 수 있다.

〈표 7-9-8〉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갖춤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예	82.9	83.7	79.4	84.4	92.5	85.2	91.1	80.4	81.5	74.4	94.7	67.8	56.7	85.6	93.4	82.9
아니오	17.1	16.3	20.6	15.6	7.5	14.8	8.9	19.6	18.5	25.6	5.3	32.2	43.3	14.4	6.6	1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셋째,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3.9%였다. 장애유형 별로 비교해 보면,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이 있다는 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안면장애(32.7%), 심장장애(26.6%), 신장장애(23.1%), 뇌전증장애(20.2%) 등이

었다. 따라서 안면장애인과 심장장애인 가구는 1/4 이상이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이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표 7-9-9〉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있음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예	12.9	15.3	16.6	11.1	8.2	16.2	6.7	14.6	23.1	26.6	5.7	14.9	32.7	17.7	20.2	13.9
아니오	87.1	84.7	83.4	88.9	91.8	83.8	93.3	85.4	76.9	73.4	94.3	85.1	67.3	82.3	79.8	8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넷째, 주택이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92.4%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7.6%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 별로 보면,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안면장애가 31.7%로 매우 높았으며, 간장애(14.9%), 심장장애(12.9%)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10〉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 부터 안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예	92.4	92.0	92.7	91.7	99.0	91.7	97.2	94.0	92.2	88.0	91.0	85.1	68.3	97.5	100.0	92.4
아니오	7.6	8.0	7.3	8.3	1.0	8.3	2.8	6.0	7.8	12.0	9.0	14.9	31.7	2.5	-	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다섯째, 재난 발생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에 대해서는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35.1%로 1/3에 불과하였다. 장애유형 별로 살펴보면, 재난 발생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는 비율이 높은 장애는 자폐성장애(61.8%), 언어장애(40.6%), 신장장애(40.3%) 등이었으며, 뇌전증장애(18.9%), 간장애(25.9%)는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의 장애인만이 재난 발생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9-1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재난 발생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34.0	36.8	34.4	36.3	40.6	38.1	61.8	32.8	40.3	30.3	31.0	25.9	34.9	39.8	18.9	35.1
아니오	66.0	63.2	65.6	63.7	59.4	61.9	38.2	67.2	59.7	69.7	69.0	74.1	65.1	60.2	81.1	6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다음으로 장애인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인이 주거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은 공공(국민)임대주택으로, 응답자의 5.1%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2011년의 조사 결과 1.0%와 비교해 보면 무려 4배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영구임대주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4.5%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1년의 8.9%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저소득층 월세지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1.0%였는데, 이 또한 2011년의 3.8%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결과이다. 전세자금(융자)지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0.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의 0.9%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이다.

한편,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과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은 새로이 추가된 주거복지사업인데, 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각각 0.3%, 0.7%였다. 그 외에 다른 주거복지사업의 경우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0.5% 이하로 매우 적었다. 장애유형 별로는, 공공(국민)임대주택을 이용한 경험이 가장 높은 장애는 뇌전증장애(16.4%)였으며, 자폐성장애 12.3%, 청각장애 8.3%, 신장장애 7.4% 등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을 이용한 경험이 높은 장애는 뇌전증장애(18.7%), 정신장애(13.7%), 호흡기장애(8.0%), 장루·요루장애(7.6%), 지적장애(6.4%) 등이었다. 저소득층 월세지원을 이용한 경험이 높은 장애는 뇌전증장애(7.3%), 호흡기장애(3.4%) 등이었다. 또한 기존주택전세임대를 이용한 경험이 높은 장애는 뇌전증장애(6.7%)였다.

〈표 7-9-12〉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영구임대주택	3.4	5.1	4.9	5.0	5.0	6.4	0.0	13.7	0.6	0.0	8.0	1.4	0.0	7.6	18.7	4.5
공공(국민)임대주택	4.3	5.7	3.9	8.3	0.0	6.0	12.3	5.1	7.4	4.1	5.8	2.6	3.5	5.8	16.4	5.1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0.2	0.7	0.3	0.0	0.0	0.3	0.8	0.4	0.7	0.0	0.0	0.0	0.0	0.0	0.0	0.3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0.7	0.8	0.3	0.3	0.0	1.3	0.0	2.8	1.5	0.0	0.0	0.0	0.0	0.0	6.7	0.7
전세자금(융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0.7	0.6	1.5	0.9	0.0	0.5	1.9	0.5	0.4	0.0	0.0	0.0	0.0	3.7	1.5	0.8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0.5	0.3	0.9	0.4	0.0	0.0	0.0	0.0	0.8	0.0	0.0	0.0	0.0	0.0	0.0	0.5
저소득층 월세지원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0.8	1.5	1.4	0.8	0.0	1.4	0.0	2.1	0.4	0.0	3.4	1.4	0.0	0.0	7.3	1.0
주택개조사업	0.3	0.2	0.7	0.1	0.0	0.4	0.8	0.1	0.1	0.0	0.0	0.0	0.0	0.0	0.0	0.3
기타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주거복지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38]을 대상으로 각 사업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36.9%가 '매우 만족', 47.2%가 '약간 만족'으로, 만족하다는 비율이 84.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공(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이 44.1%, '약간 만족'이 44.7%로, 영구임대주택에 비해서 이용경험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로이 추가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경우에는 '매우 만족' 33.8%, '만족' 53.2%로, 87.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43.4%, '약간 만족' 37.9%로, 80.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38)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는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가중치를 적용하여 134,949명, 영구임대주택이 119,073명, 그리고 저소득층 월세지원이 26,460명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사업은 2만2천명 이하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가중치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실제 사례수는 영구임대주택 225명, 공공(국민)임대주택 283명, 저소득층 월세지원 80명, 기존주택전세임대 47명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소수의 응답자로 이용경험자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장애유형 별 만족도에서는 1~2명으로도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주택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융자)지원의 경우에는 '매우 만족' 37.7%, '만족' 53.7%로, 이용자의 91.4%가 만족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저소득층 월세지원도 '매우 만족' 25.6%, '만족' 64.0%로, 89.4%의 이용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개조사업의 경우에도 '매우 만족' 34.7%, '만족' 51.8%로, 이용자의 86.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은 59.7%만이 만족하였고, 29.8%가 '약간 불만족', 10.5%가 '매우 불만족'으로 불만족한 이용자가 1/3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 별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지체장애인 중에서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서 95.5%의 주택개조사업 이용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도 91.6%, 공공(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86.8%로 높았다.

뇌병변장애인 중에서는 전세자금(융자)지원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만족' 43.0%, '약간 만족' 57.0%로, 100% 만족하여 매우 높았다. 또한 저소득층 월세지원에 대해서는 92.2%, 공공(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85.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만족' 69.7%였던 반면에 '약간 불만족' 14.2%, '매우 불만족' 16.1%로, 불만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이용자의 90.5%가 만족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91.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과 저소득층 월세지원에 대해서는 100.0% 만족('매우 만족'은 각각 54.2%, 7.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 중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아서 '매우 만족'이 66.1%였으나 불만족도 18.9%로 상당히 있었다. 또한 전세자금(융자)지원과 저소득층 월세지원에 대해서 100.0% 만족('매우 만족'은 각각 41.6%, 25.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 중에서는 공공(국민)임대주택과 저소득층 월세지원에 대한 '매우 만족'이 각각 59.1%, 53.8%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족'이 47.5%로 상당히 많았다. 자폐성장애인 중에서는 공공(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매우 만족'이 64.3%로 가장 높았다. 정신장애인 중에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매우 만족'의 비율이 100.0%로 나타났다.

신장장애인 중에서는 영구임대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매우 만족'의 비율이 100.0%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족'이 30.2%로 나타났다. 호흡기장애인 중에서는 공공(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매우 만족'의 비율이 64.4%였던 반면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족'의 비율이 23.0%로 나타났다. 뇌전증장애인 중에서는 저소득층 월세지원에 대한 '매우 만족'의 비율이 57.8%로 높게 나타났던 반면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불만족'의 비율이 44.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7-9-13〉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영구임대주택	34.4	48.9	9.6	7.1	29.5	45.0	15.5	10.0
공공(국민)임대주택	41.8	45.0	8.6	4.6	30.3	55.6	14.1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4.0	49.3	26.6	-	-	89.3	10.7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48.6	43.0	8.4	-	-	69.7	14.2	16.1
전세자금(융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40.0	43.3	16.7	-	43.0	57.0	-	-
저소득층 월세지원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32.7	48.2	13.5	5.7	16.6	75.6	7.8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근로자·서민)	7.1	53.3	27.9	11.8	-	100.0	-	-
주택개조사업	51.0	44.5	4.5	-	18.0	65.5	16.4	-
기타	-	100.0	-	-	-	-	-	-

〈표 7-9-13〉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계속)

(단위: %, 명)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영구임대주택	32.2	58.3	9.5	-	66.1	15.0	14.7	4.2
공공(국민)임대주택	50.6	40.4	9.0	-	53.4	36.2	10.4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32.4	67.6	-	-	-	-	-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54.2	45.8	-	-	-	100.0	-	-
전세자금(융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24.9	75.1	-	-	41.6	58.4	-	-
저소득층 월세지원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7.8	92.2	-	-	25.2	74.8	-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근로자·서민)		49.1	50.9	-	-	54.1	-	45.9
주택개조사업	4.7	53.7	41.6	-		100.0		
기타	-	-	-	-	-	-	-	-

〈표 7-9-13〉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계속)

(단위: %, 명)

구분	언어장애				지적장애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영구임대주택	-	100.0	-	-	37.1	53.0	7.2	2.7
공공(국민)임대주택	-	-	-	-	59.1	34.2	6.7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	-	-	100.0	-	-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	-	-	10.9	41.6	47.5	-
전세자금(융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	-	-	-	-	100.0	-	-
저소득층 월세지원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	-	-	-	53.8	46.2	-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근로자서민)	-	-	-	-	-	-	-	-
주택개조사업	-	-	-	-	39.1	60.9		
기타	-	-	-	-	-	-	-	-

〈표 7-9-13〉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계속)

(단위: %, 명)

구분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영구임대주택	-	-	-	-	26.3	63.8	9.9	-
공공(국민)임대주택	64.3	35.7	-	-	33.7	66.3	-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100.0	-	-	100.0	-	-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	-	-	93.2	-	6.8	-
전세자금(융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	100.0	-	-	100.0	-	-	-
저소득층 월세지원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	-	-	-	-	76.9	23.1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근로자서민)	-	-	-	-	-	-	-	-
주택개조사업	-	100.0	-	-	100.0	-	-	-
기타	-	-	-	-	-	-	-	-

〈표 7-9-13〉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계속)

(단위: %, 명)

구분	신장장애				심장장애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영구임대주택	100.0	-	-	-	-	-	-	-
공공(국민)임대주택	45.6	38.8	11.5	4.1	-	-	100.0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00.0	-	-	-	-	-	-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69.8	-	30.2	-	-	-	-	-
전세자금(융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	100.0	-	-	-	-	-	-
저소득층 월세지원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	100.0	-	-	-	-	-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근로자서민)	-	45.8	54.2	-	-	-	-	-
주택개조사업	-	100.0	-	-	-	-	-	-
기타	-	-	-	-	-	-	-	-

〈표 7-9-13〉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계속)

(단위: %, 명)

구분	호흡기장애				간장애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영구임대주택	19.2	57.8	23.0	-	-	-	100.0	-
공공(국민)임대주택	64.4	35.6	-	-	-	100.0	-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	-	-	-	-	-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	-	-	-	-	-	-
전세자금(융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	-	-	-	-	-	-	-
저소득층 월세지원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45.4	54.6	-	-	-	100.0	-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근로자서민)	-	-	-	-	-	-	-	-
주택개조사업	-	-	-	-	-	-	-	-
기타								

〈표 7-9-13〉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계속)

(단위: %, 명)

구분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영구임대주택	-	-	-	-	84.8	15.2	-	-
공공(국민)임대주택	100.0	-	-	-	-	100.0	-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	-	-	-	-	-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	-	-	-	-	-	-
전세자금(융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	-	-	-	100.0	-	-	-
저소득층 월세지원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	-	-	-	-	-	-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근로자서민)	-	-	-	-	-	-	-	-
주택개조사업	-	-	-	-	-	-	-	-
기타	-	-	-	-	-	-	-	-

〈표 7-9-13〉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계속)

(단위: %, 명)

구분	뇌전증장애				전체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영구임대주택	39.3	16.6	44.2	-	36.9	47.2	11.3	4.7
공공(국민)임대주택	17.3	82.8	-	-	44.1	44.7	9.1	2.1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	-	-	33.8	53.2	13.0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	-	100.0	43.4	37.9	13.6	5.1
전세자금(융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	-	-	100.0	37.7	53.7	7.9	0.7
저소득층 월세지원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57.8	42.2	-	-	25.6	64.0	8.2	2.2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근로자서민)	-	-	-	-	4.1	55.6	29.8	10.5
주택개조사업	-	-	-	-	34.7	51.8	13.5	-
기타	-	-	-	-	-	100.0	-	-

다음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19.1%가 '매우 편리함', 53.6%가 '약간 편리함', 22.0%가 '약간 불편함', 그리고 5.3%가 '매우 불편함'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체 장애인의 72.7%는 집구조가 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7.3%는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유형 별로 보면, 불편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안면장애로 절반이 넘는 56.7%('약간 불편함' 43.8%, '매우 불편함' 12.9%)가 집구조가 불편하다고 하였다. 또한 뇌병변장애(38.1%), 장루·요루장애(35.6%) 등이 집구조가 생활에 불편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7-9-14〉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편리함	17.8	15.4	20.7	23.0	16.1	24.1	22.2	16.5	29.1	10.5	20.7	20.8	18.5	20.3	16.5	19.1
약간 편리함	55.2	46.5	51.9	56.8	65.4	50.4	61.1	59.1	42.3	59.6	58.2	58.9	24.8	44.1	55.7	53.6
약간 불편함	21.8	27.7	23.4	17.6	13.4	21.0	12.7	21.8	22.7	22.5	18.6	11.1	43.8	26.9	22.6	22.0
매우 불편함	5.3	10.4	4.0	2.6	5.1	4.5	3.9	2.6	5.8	7.4	2.5	9.3	12.9	8.7	5.2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다음으로 주택개조 의사를 보면, 반드시 개조를 원하는 장애인은 4.3%, 가급적 개조를 원하는 장애인은 16.6%로, 20.9%가 개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는 뇌병변장애인 중에서 36.0%가 개조를 원하여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뇌전증장애인 중에서 22.8%, 심장장애인 중에서 22.7%, 장루요루장애인 중에서 22.2%, 신장장애인 중에서 21.3%, 지체장애인 중에서 20.4%, 시각장애인 중에서 20.0% 등으로 개조를 원하는 장애인 비율이 높았다.

〈표 7-9-15〉 주택 개조 의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반드시 개조 원함	4.4	6.8	3.7	4.5	2.7	2.9	1.2	1.2	2.1	7.2	3.9	4.9	18.3	4.2	-	4.3
가급적 개조 원함	16.0	29.2	16.9	12.8	16.7	10.8	8.5	12.4	19.2	15.5	9.2	1.5	-	18.0	22.8	16.6
별로 개조원치않음	45.5	39.9	46.2	48.7	34.3	46.6	45.6	50.9	42.9	38.6	47.2	45.7	51.8	36.6	37.1	45.3
전혀 개조원치않음	31.3	21.1	29.4	32.6	43.3	38.2	44.7	35.3	32.5	35.1	36.8	46.4	29.8	41.2	38.0	31.2
이미개조 하였음	2.8	3.0	3.9	1.4	3.0	1.6	-	0.2	3.3	3.7	2.8	1.6	-	-	2.1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주택 개조 시 희망하는 1순위 개조 장소를 보면, 문턱 낮추기가 21.6%로 가장 많았으며, 부엌이 14.6%, 현관(계단)이 12.8%, 욕조 11.4%, 변기 10.0% 등의 순으로 개조를 희망하였다. 장애유형 별로는 지체장애인은 문턱 낮추기(21.3%), 부엌(18.7%)과 현관(계단)(15.1%) 등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뇌병변장애인은 문턱 낮추기(31.7%), 욕조(13.9%), 현관(계단)(13.3%) 등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시각장애인도 문턱 낮추기(30.0%), 현관(계단)(12.8%), 부엌(12.5%)을 개조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용 초인종(경광등)을 희망하는 비율이 45.3%로 가장 높았으며, 욕조(11.9%)와 냉·난방(11.2%)이 뒤를 이었다. 언어장애인은 현관(계단)(43.3%)을 개조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문턱 낮추기(16.4%), 부엌(16.0%), 방문(출입문) 고치기(13.9%) 등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부엌(16.3%)과 욕조(14.4%), 냉·난방(13.3%), 그리고 문턱 낮추기(11.1%)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자폐성장애인은 욕조(48.6%), 변기(29.5%), 문턱 낮추기(21.9%)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부엌(38.2%), 변기(14.2%), 그리고 냉·난방(12.2%)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신장장애인의 경우에는 문턱 낮추기(19.9%), 욕조(17.0%), 냉·난방(16.2%), 현관(계단)(16.2%), 부엌(16.0%) 등을 개조하기를 희망하였다. 심장장애인은 현관(계단)(31.7%), 아파트출입구(계단)(23.8%), 미끄럼방지(15.7%) 및 냉·난방(12.7%)의 개조를 희망하였다. 호흡기장애인의 경우에는 미끄럼방지(24.6%), 채광(18.7%), 아파트출입구(계단)(15.4%), 부엌(13.9%) 등의 순으로 개조를 희망하였다. 간장애인은 현관(계단)(48.5%), 냉·난방(28.5%), 변기(23.0%)의 개조를 희망하였으며, 안면장애인은 냉·난방(100.0%) 개조만을 희망하였다. 장루·요루장애인은 욕조(43.3%)의 개조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그 외 아파트출입구(계단)(24.4%), 문턱 낮추기(15.2%)를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뇌전증장애인은 기타(36.7%)가 가장 많아서 앞으로의 조사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뇌전증장애인은 이 외에도 현관(계단)(23.7%), 욕조(17.2%)의 개조를 희망하였다.

〈표 7-9-16〉 주택 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부엌	18.7	6.9	12.5	5.2	16.0	16.3	-	38.2	16.0	7.3	13.9	-	-	-	-	14.6
변기	10.9	11.3	9.6	5.3	8.8	8.8	29.5	14.2	5.0	-	-	23.0	-	1.2	-	10.0
욕조	10.1	13.9	8.6	11.9	-	14.4	48.6	6.7	17.0	-	10.7	-	-	43.3	17.2	11.4
문턱 낮추기	21.3	31.7	30.0	7.7	16.4	11.1	21.9	2.5	19.9	8.8	-	-	-	15.2	2.3	21.6
방문(출입문) 고치기	5.9	4.8	1.5	4.5	13.9	9.9	-	4.7	-	-	-	-	-	-	-	5.1
냉·난방	5.7	2.2	7.4	11.2	-	13.3	-	12.2	16.2	12.7	4.7	28.5	100.0	12.7	-	6.6
채광	1.5	0.6	3.9	1.3	1.7	5.6	-	4.7	6.7	-	18.7	-	-	-	13.6	2.1
아파트출입구(계단)	5.7	7.0	5.0	-	-	3.9	-	1.0	1.4	23.8	15.4	-	-	24.4	-	5.2
청각장애인용 초인종(경광등)	-	-	-	45.3	-	-	-	-	-	-	-	-	-	-	-	3.9
현관(계단)	15.1	13.3	12.8	3.0	43.3	3.1	-	3.2	16.2	31.7	-	48.5	-	3.2	23.7	12.8
미끄럼방지	3.5	3.4	3.7	-	-	2.5	-	5.0	-	15.7	24.6	-	-	-	-	3.1
비상연락장치	0.0	1.4	2.2	4.1	-	4.5	-	7.7	-	-	-	-	-	-	6.4	1.3
기타	1.4	3.6	2.9	0.7	-	6.5	-	-	1.6	-	12.0	-	-	-	36.7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73,575	104,098	56,330	47,857	4,146	24,812	1,836	14,288	15,286	1,913	2,095	747	552	3,716	2,224	553,475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95.5%가 일반주택이라고 응답하여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요양시설(2.8%)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1.3%)도 약간 있었다. 거주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0.5%에 불과하여, 2011년의 1.6%에 비해서 1/3로 줄었다. 장애유형 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은 요양시설을 희망하는 경우도 7.0%, 공동생활가정도 3.3%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또한 지적장애인도 공동생활가정 5.3%, 요양시설 4.1%, 그리고 거주시설도 2.1% 등으로 일반주택 외에 다른 주거 유형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많았다. 이 외에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요양시설 5.2%, 공동생활가정 1.7%,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요양시설 6.7% 등으로 다른 주거 유형을 희망하였다.

〈표 7-9-17〉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일반주택	97.0	93.0	96.4	95.9	98.9	88.5	91.9	88.2	96.6	100.0	93.3	100.0	100.0	98.6	100.0	95.5
공동생활가정(그룹홈)	0.7	1.7	0.4	0.5	-	5.3	7.7	3.3	2.0	-	-	-	-	-	-	1.3
거주시설	0.3	0.1	-	0.8	-	2.1	0.4	1.5	-	-	-	-	-	-	-	0.5
요양시설	1.9	5.2	3.2	2.7	1.1	4.1	·	7.0	1.4	-	6.7	-	-	1.4	-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1	21,399	182,334	18,951	105,002	71,763	8,456	15,984	11,839	3,012	16,705	9,764	2,645,950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원하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는 '가족과 살고 싶다'는 장애인이 79.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혼자 살고 싶다'는 장애인도 15.2%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유형 별로는 장루·요루장애인(24.5%), 뇌전증장애인(24.4%), 정신장애인(20.7%) 중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신장애인(10.3%), 지적장애인(6.1%) 중에서 '국가·사회로부터 일상생활지원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9-18〉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원하는 삶의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혼자 살고싶다	17.4	9.8	14.6	15.2	18.9	5.0	-	20.7	14.3	12.2	7.2	19.2	3.5	24.5	24.4	15.2
가족과 살고 싶다	76.9	84.8	80.1	81.2	77.7	87.8	96.0	67.5	80.6	78.9	85.0	80.8	96.5	68.8	74.3	79.1
마음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1.0	0.6	2.1	0.5	-	1.2	-	1.5	0.6	4.7	7.2	-	-	4.3	-	1.1
국가사회로부터 일상생활지원을 받으며	4.8	4.8	3.2	3.2	3.5	6.1	4.0	10.3	4.5	4.2	0.7	-	-	2.4	1.3	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9,4051	268,929	26,3893	265,130	21,173	161,209	17,411	92,636	68,786	7,762	14,906	11,839	3,012	16,464	9,764	2,516,965

제10절 복지서비스

1. 장애등록 현황

개별 심층조사에서 장애인으로 추정된 사람의 장애인등록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추정 장애인의 95.2%가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난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1.2%p 낮은 것이다. 장애유형별로는 비교적 등록율이 고르게 높았으나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등 내부장애인의 장애등록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7-10-1〉 장애인등록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96.7	95.9	92.9	92.1	88.8	96.5	100.0	92.1	93.8	81.9	84.7	83.3	100.0	89.2	88.7	95.2
아니오	2.6	3.3	6.6	7.6	10.5	2.6	0.0	4.0	1.8	6.9	12.1	11.6	0.0	10.8	11.3	3.9
신청중	0.4	0.5	0.5	0.3	0.8	1.0	0.0	3.7	3.8	11.1	3.2	5.1	0.0	0.0	0.0	0.7
보훈처 등록	0.3	0.3	0.0	0.0	0.0	0.0	0.0	0.2	0.6	0.0	0.0	0.0	0.0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등록한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1급이 7.8%, 2급이 13.1%, 3급이 18.2%, 4급이 15.3%, 5급이 21.5%, 6급이 24.1%였다.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1, 2급 장애인은 20.9%로 2011년 조사에 비해 1.9%p 줄었으며 경증의 비중이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영역의 장애와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등 내부장애, 그리고 뇌병변장애에서 중증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10-2〉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급	2.7	18.7	15.6	1.9	3.1	25.0	50.9	2.8	6.7	0.0	9.4	8.2	0.0	0.0	9.9	7.8
2급	4.8	20.8	4.3	19.3	7.8	35.8	40.5	23.7	72.3	6.6	25.0	3.8	25.0	0.0	19.3	13.1
3급	11.9	25.8	6.3	17.1	37.0	39.3	8.6	73.5	0.0	83.0	62.7	23.8	53.1	8.8	31.7	18.2
4급	20.2	13.3	3.9	20.6	49.9	0.0	0.0	0.0	0.0	0.0	0.0	4.6	21.9	63.6	35.7	15.3
5급	30.3	11.9	10.2	25.4	2.2	0.0	0.0	0.0	21.0	10.5	0.0	59.7	0.0	27.6	3.5	21.5
6급	30.0	9.5	59.7	15.6	0.0	0.0	0.0	0.0	0.0	0.0	2.9	0.0	0.0	0.0	0.0	2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95,137	277,497	254,904	255,509	18,999	175,890	18,951	96,707	67,453	6,928	13,544	9,864	3,013	14,898	8,659	2,517,953

주: 장애등급 관련해서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분석 실시

장애인등록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등록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등록장애인 중 제도 도입 초기인 1988~1980년에 등록한 경우는 2.0%였으며, 1990~1995년에 등록한 경우는 전체의 3.5%였다. 2006년 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53.2%에 달하였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한 장애인복지사업의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장애유형별로는 단계적 범주확대에 따라 등록시기가 다른데, 이에 따라 정신장애와 내부장애가 신체외부장애에 비해 등록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3〉 장애등록 시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988~1989년	2.2	1.0	1.8	3.2	4.8	3.2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
1990~1995년	4.9	1.3	1.6	3.0	2.2	4.0	0.0	0.2	0.0	0.0	0.0	0.0	0.0	0.0	0.0	3.5
1996~2000년	16.5	7.9	14.3	12.4	12.6	15.4	8.9	11.9	8.6	5.0	0.0	0.0	0.0	2.4	0.0	14.0
2001~2005년	29.1	27.2	33.1	23.3	22.1	20.8	24.8	21.8	10.7	51.9	25.4	20.3	81.1	12.9	44.5	27.3
2006~2010년	36.8	31.4	31.7	40.9	47.3	23.7	25.9	25.5	30.7	26.8	33.6	36.2	3.5	29.3	24.7	34.4
2011년~	10.4	31.2	17.6	17.2	11.0	32.9	40.4	40.6	49.9	16.3	41.0	43.5	15.5	55.5	30.9	1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95,138	277,498	254,902	255,510	18,999	175,890	18,951	96,707	67,453	6,928	13,543	9,864	3,012	14,898	8,657	2,517,950

장애인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 인식을 파악한 결과 '별로 받고 있지 못하다'가 49.0%로 가장 많아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우 또는 약간 받고 있다가 전체의 35.8%인 반면, 전혀 또는 별로 받고 있지 못하다가 64.2%로 약 2/3 정도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서비스 미수급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더불어 복지확대에 비례하여 장애인의 복지욕구 역시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표 7-10-4〉 장애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많음	2.4	6.3	2.6	2.6	3.2	4.8	5.8	11.2	9.6	0.0	4.1	2.8	0.0	4.5	7.6	3.6
약간 받고있음	26.3	37.0	28.4	33.0	33.4	52.5	52.4	49.1	47.7	37.6	44.2	34.5	31.4	25.6	59.0	32.2
별로 받지 못하고 있음	54.5	43.3	51.5	48.4	55.6	34.1	30.7	31.2	34.3	53.7	41.5	36.3	47.3	52.6	26.5	49.0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16.9	13.4	17.5	16.0	7.7	8.6	11.2	8.5	8.5	8.7	10.2	26.5	21.3	17.3	6.8	1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94,748	277,497	254,902	255,509	18,998	175,890	18,950	96,707	67,452	6,928	13,544	9,864	3,013	14,898	8,659	2,517,559

주: 무응답 제외

장애유형별로 재심사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상태의 변동 또는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재심사를 받았는 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17.6%가 재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조사에서 15.8%의 장애인이 재심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할 대 약 2%p 증가한 것으로서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전증장애가 재심사를 많이 받았으며, 지체장애, 시각장애, 간장애의 재심사 비율이 낮았다.

〈표 7-10-5〉 장애등급 재심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10.0	30.8	12.7	14.5	12.3	37.3	50.9	45.3	35.3	21.4	25.8	10.5	10.5	26.8	44.8	17.6
아니오	90.0	69.2	87.3	85.5	87.7	62.7	49.1	54.7	64.7	78.6	74.2	89.5	89.5	73.2	55.2	8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95,137	277,497	254,903	255,509	18,999	175,890	18,951	96,707	67,453	6,928	13,544	9,864	3,012	14,898	8,658	2,517,950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알아보면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받은 경우가 5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장애상태가 변하여 27.2%로 2011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장애인연금신청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으로 인해 재심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7.6%에서 10.9%로 3%p 이상 증가하여 최근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가 재심사 비율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10-6〉 장애등급 재심사 사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장애인연금신청	5.4	7.8	6.6	4.8	0.0	11.4	7.9	7.3	2.8	0.0	0.0	0.0	0.0	0.0	0.0	6.7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3.0	5.6	8.2	1.1	0.0	8.9	2.7	1.5	0.0	0.0	10.6	0.0	0.0	0.0	0.0	4.2
장애 재판정 시기가 되어	56.0	58.9	45.5	57.4	78.5	60.3	75.3	84.7	45.2	62.4	39.0	34.2	0.0	72.4	69.2	59.4
장애상태 변화	31.6	26.6	35.8	34.9	21.5	15.5	14.2	6.5	52.0	37.6	38.5	65.8	100.0	27.6	30.8	27.2
기타	4.0	1.1	3.9	1.9	0.0	3.8	0.0	0.0	0.0	0.0	11.9	0.0	0.0	0.0	0.0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8,927	85,486	32,257	37,168	2,331	65,631	9,643	43,834	23,814	1,484	3,496	1,032	316	3,987	3,875	443,281

장애등급 재심사 후 등급이 조정되었는 지에 있어서는 2011년보다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4.4%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뇌병변장애가 등급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7-10-7〉 장애등급 재심사 후 등급조정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42.4	51.2	46.2	49.0	60.9	38.6	20.5	39.4	53.8	37.6	25.5	43.6	100.0	67.1	41.8	44.4
아니오	57.6	48.8	53.8	51.0	39.1	61.4	79.5	60.6	46.2	62.4	74.5	56.4	0.0	32.9	58.2	5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8,927	85,486	32,257	37,168	2,331	65,631	9,643	43,834	23,814	1,484	3,496	1,032	316	3,987	3,875	443,281

장애등급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심사결과 변경없는 경우가 55.6%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상향 조정된 경우가 27.1%, 하향 조정된 경우가 17.3%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을 장애심사 기관으로 지정하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건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재심사 중 약 절반 정도는 등급 조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의 등급 하향 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7-10-8〉 장애등급 조정 내용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하향 조정	10.0	26.6	3.2	13.9	39.4	15.5	4.4	29.2	32.9	37.6	13.5	0.0	0.0	32.3	11.0	17.3
상향 조정	32.4	24.6	43.0	35.1	21.5	23.1	16.1	10.2	20.8	0.0	12.0	43.6	100.0	34.7	30.8	27.1
조정 없음	57.6	48.8	53.8	51.0	39.1	61.4	79.5	60.6	46.2	62.4	74.5	56.4	0.0	32.9	58.2	5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8,927	85,486	32,257	37,168	2,331	65,631	9,643	43,834	23,814	1,484	3,496	1,032	316	3,987	3,875	443,281

한편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 본 결과, 전체적으로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3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21.2%,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13.0%,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장애등록 안내 및 장애인복지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7-10-9〉 장애등록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34.6	31.7	39.9	30.5	0.0	16.2	-	50.7	20.9	0.0	16.8	92.8	-	65.9	76.5	34.6
등록해도 별혜택이없을것같아서	23.8	16.5	17.6	25.2	32.3	41.9	-	0.0	8.6	44.6	13.0	7.2	-	0.0	0.0	21.2
등록하는 데 비용이 들것같아서	7.0	2.0	0.0	17.7	0.0	0.0	-	12.7	23.7	0.0	0.0	0.0	-	34.1	0.0	7.6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11.6	4.8	22.4	16.7	0.0	0.0	-	12.3	0.0	0.0	38.5	0.0	-	0.0	0.0	13.0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3.7	5.5	1.4	4.4	0.0	8.0	-	3.5	0.0	55.4	26.6	0.0	-	0.0	0.0	4.2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싫어서	11.2	11.5	7.9	3.7	67.7	16.0	-	15.8	0.0	0.0	0.0	0.0	-	0.0	23.5	10.1
등록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2.1	0.0	3.7	0.0	0.0	0.0	-	0.0	46.9	0.0	0.0	0.0	-	0.0	0.0	2.0
앞으로 장애상태가 호전될 것 같아서	0.9	3.9	2.9	1.2	0.0	17.9	-	0.0	0.0	0.0	0.0	0.0	-	0.0	0.0	2.2
기타	5.2	24.2	4.2	0.6	0.0	0.0	-	5.0	0.0	0.0	5.1	0.0	-	0.0	0.0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4,348	9,526	18,216	21,144	2,237	4,668	-	4,174	1,260	587	1,934	1,375	-	1,807	1,106	102,382

주: 무응답 제외

2.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장애인들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얼마나 이용해 봤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소득보장 사업, 의료보장 사업,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 각종 세금 및 요금 감면 사업, 장애인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이용률을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증 장애수당 수혜 경험이 전체의 15.5%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연금(11.3%),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2.5%),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1.8%), 장애아동수당 지급(1.3%), 장애인자립자금 대여(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수당을 합한 수혜율이 26.8%로서 2011년의 동 비율인 25.7%보다 약 1%p 증가하여 성인 장애인에 대한 현금 급여 지급율이 200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의료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 사업에 대한 경험률이 12.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7.8%), 장애인보조기구 무료 교부(6.1%),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사업(5.1%)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과 비교할 때 모든 사업에서 소폭 상승한 것이다.

셋째,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보편적 자격 요건으로 인해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등 상기의 복지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용경험률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의 경우에는 39.2%의 장애인이 동 사업의 수혜를 경험하였으며,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의 경우에도 26.2%의 장애인이 제도의 혜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할 때 역시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넷째, 각종 세금 및 요금감면 사업의 경우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타 장애인복지사업에 비해 사업에 대한 이용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의 경우 경험률이 83.3%로서 모든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이용경험률을 기록했으며,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과 공공시설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이용경험률은 각각 76.1%, 64.3%로서 역시 높게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할 때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이용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다른 사업의 경우 모두 이전보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공시설 요금 감면 및 할인, 세금 공제 및 면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경우에는 주택관련 분양 알선 및 가산점 부여 이용률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5.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3.1%, 발달재활서비스 3.6%, 언어발달지원서비스 1.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0.4%로 나타났다. 역시 모든 사회서비스에서 2011년과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하여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7-10-10〉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장애인연금	4.2	19.1	11.4	10.0	4.4	36.6	29.1	22.2	36.7	0.0	20.7	2.9	0.0	4.9	14.2	11.3
경증장애수당	14.6	15.8	11.8	12.2	14.6	13.8	3.0	46.2	13.8	3.9	19.7	18.4	16.9	22.1	54.4	15.5
장애아동수당	0.1	1.9	0.5	1.1	0.6	10.0	12.5	0.7	0.0	0.0	0.0	0.0	12.9	0.0	0.0	1.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0.9	2.1	2.1	2.9	1.3	13.7	23.4	1.5	1.5	0.0	1.8	0.0	12.9	2.4	0.0	2.5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0.3	2.7	0.6	1.1	3.6	11.2	48.9	0.9	0.7	1.4	1.3	0.0	12.9	0.0	0.0	1.8
장애인 의료비 지원	4.4	9.3	6.3	5.9	4.8	19.1	14.7	17.2	31.6	0.0	7.7	21.3	0.0	5.4	32.3	7.8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3.2	7.3	3.9	4.3	5.7	10.0	7.9	17.9	4.8	2.1	5.1	0.0	12.9	10.3	33.0	5.1
장애검사비지원	2.8	7.0	3.5	5.0	3.4	10.4	6.2	18.9	9.1	2.1	0.0	4.3	0.0	10.7	28.9	5.0
발달재활서비스	0.9	6.7	0.5	1.6	7.0	20.5	71.1	4.1	0.0	3.5	3.2	0.0	0.0	0.0	9.4	3.6
언어발달지원	0.1	1.9	0.3	1.5	6.0	8.8	33.6	0.0	0.0	0.0	0.0	0.0	0.0	0.0	8.1	1.4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	4.9	15.2	7.8	6.6	3.4	1.6	0.0	0.3	6.3	0.0	10.0	0.0	0.0	8.3	0.5	6.1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9.0	23.2	10.3	33.5	12.2	1.3	0.0	0.3	8.8	7.2	28.5	0.0	0.0	35.3	0.0	12.5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0.2	0.6	0.3	0.6	0.0	0.8	0.0	0.5	0.0	0.0	0.0	0.0	0.0	0.0	0.0	0.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1.3	6.6	5.3	0.5	1.7	9.9	38.6	2.1	3.2	0.0	3.3	0.0	0.0	0.0	0.0	3.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0.2	0.4	0.0	0.9	0.0	1.1	1.9	0.5	0.0	0.0	0.0	0.0	0.0	0.0	5.2	0.3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44.2	39.7	32.6	29.5	43.9	34.5	63.9	14.4	46.8	53.3	51.2	42.3	26.9	27.1	15.7	39.2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4.3	7.9	5.5	5.7	5.0	8.1	10.6	14.7	3.6	4.1	11.6	0.0	3.5	2.8	15.0	5.7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20.0	39.1	16.2	22.0	23.0	55.1	74.1	28.7	49.2	59.6	49.2	32.5	38.9	14.4	17.7	26.2
세금 공제 및 면제	41.0	42.4	37.5	38.2	46.0	33.6	57.5	23.3	47.4	46.7	48.9	34.5	42.4	32.3	21.1	39.5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78.5	72.8	75.1	70.2	73.0	76.1	82.9	72.9	79.8	69.6	77.5	77.0	100.0	54.9	76.0	76.1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86.8	81.4	83.3	77.0	70.3	79.8	85.4	69.9	85.0	81.9	82.2	74.4	100.0	73.5	77.7	83.3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64.7	65.1	59.6	58.6	62.9	70.8	92.0	66.1	71.4	53.1	64.9	66.5	100.0	52.0	64.7	64.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2	0.1	0.1	0.0	0.0	0.0	0.0	0.4	0.2	0.0	0.0	0.0	0.0	0.0	0.0	0.2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0.3	0.7	0.1	0.7	0.0	0.8	0.0	0.4	1.4	1.7	0.0	0.0	0.0	0.0	0.0	0.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0.3	0.8	0.7	0.0	0.0	0.0	0.0	0.8	0.8	0.0	0.0	0.0	0.0	0.0	5.2	0.4
노인장기요양보험	3.4	20.8	4.9	2.9	1.8	0.2	0.0	2.6	4.4	0.0	16.7	0.0	0.0	1.1	0.0	5.2

3. 장애인복지사업 정보 취득 방법

장애인들이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정보 매체가 42.2%로 가장 높았으며, 친척·친구·이웃(28.3%), 행정기관(15.9%), 사회복지관련 기관(7.1%) 등도 주요 정보 제공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1년 과 비교할 때, 정보매체와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반면, 행정기관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향후에는 다양한 정보 매체를 활용한 복지사업 안내에 주력하는 것과 함께 보다 공식적인 정보원으로서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7-10-11〉 장애인복지사업 정보 취득 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정보매체	46.9	37.3	38.4	37.2	44.0	29.3	33.2	34.0	51.9	60.4	36.4	64.9	50.2	45.0	33.5	42.2
친척,친구,이웃	28.7	28.5	29.9	33.3	24.0	25.2	17.3	22.3	22.5	16.7	26.2	8.9	20.0	29.6	12.9	28.3
장애인 동료	1.5	2.5	3.6	2.7	1.1	3.8	4.2	2.2	5.8	0.0	4.7	5.9	0.0	2.9	2.7	2.3
행정기관	13.9	18.5	17.0	16.3	18.3	18.4	16.8	24.0	13.2	20.9	23.7	18.2	16.4	10.9	33.1	15.9
사회복지관련 기관	5.7	8.6	6.4	6.0	8.3	15.6	19.6	11.9	4.0	0.0	5.3	1.1	13.4	7.2	17.8	7.1
장애인단체	1.0	1.2	2.1	1.2	2.5	1.3	9.0	1.5	0.2	2.1	0.0	1.0	0.0	3.4	0.0	1.3
종교기관	0.5	0.7	0.8	0.6	0.0	1.5	0.0	1.8	1.1	0.0	0.0	0.0	0.0	0.0	0.0	0.7
교육기관	0.0	0.7	0.2	0.2	0.8	2.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복지관련 정보지	1.2	0.5	0.6	1.3	0.0	1.2	0.0	1.1	0.0	0.0	3.7	0.0	0.0	0.0	0.0	1.0
기타	0.6	1.6	1.0	1.1	1.1	0.7	0.0	1.3	1.3	0.0	0.0	0.0	0.0	1.0	0.0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8,426	288,660	274,484	275,971	21,401	182,331	18,952	105,001	71,876	8,456	15,984	11,839	3,013	16,705	9,764	2,642,863

주: 무응답 제외

4.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이용 경험 및 이용 희망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여러 기관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우선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경험률을 살펴보았다. 18개 장애인복지기관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전체의 9.5%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특수학교(특수학급)와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각각 5.8%, 5.4%의 이용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이 3.6%, 장애인단체 3.1%, 직업재활시설 3.0%, 장애인재활병·의원 2.5% 등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2011년 조사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인 가운데,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률은 소폭 감소한 반면, 특수학교(특수학급),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재활병·의원 등의 이용률은 소폭 증가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기관인 장애인복지관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 본 장애인의 비율이 2008년이래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부족과 함께 아웃리치와 홍보 등 신규 장애인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더불어 특히 직업재활서비스와 의료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재활병의원의 이용률이 여전히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아쉬움을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10-1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직업재활시설	1.4	2.2	2.6	1.8	5.5	16.1	15.6	6.9	0.0	0.0	1.9	0.0	0.0	0.0	4.9	3.0
장애인복지관 (단종복지관 포함)	5.4	12.0	9.3	9.5	6.4	32.1	42.2	15.3	7.9	0.0	4.4	2.9	0.0	0.3	22.7	9.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0.1	1.5	1.0	0.4	0.0	6.1	16.1	3.0	0.0	0.0	0.0	0.0	0.0	0.0	0.0	1.0
장애인체육시설	1.6	2.6	2.3	1.4	0.0	6.5	19.7	2.7	0.6	0.0	0.0	0.0	0.0	0.0	8.4	2.2
장애인수련시설	0.0	0.0	0.1	0.3	0.0	2.7	5.3	1.0	0.0	0.0	0.0	0.0	0.0	0.0	0.0	0.3
장애인심부름센터	0.2	0.9	1.5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장애인재활치료시설	1.2	6.8	0.0	0.7	2.2	9.3	11.6	2.3	0.8	0.0	0.0	0.0	0.0	0.0	0.0	2.3
점자도서관	0.0	0.0	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수화통역센터	0.0	0.0	0.0	5.5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6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장애인콜택시, 해피콜 등)	3.3	14.9	7.8	1.0	0.6	8.7	17.1	1.6	12.6	0.0	2.8	0.0	0.0	1.5	14.5	5.4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0.6	1.2	1.6	0.7	3.6	2.3	3.4	1.7	0.7	0.0	0.0	0.0	0.0	0.0	13.6	1.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	0.1	0.4	0.2	0.0	2.3	0.9	0.3	0.7	0.0	0.0	0.0	0.0	0.0	0.0	0.4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0.0	0.0	0.0	0.0	3.0	5.1	0.8	0.0	0.0	0.0	0.0	0.0	0.0	0.0	4.9	0.4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0.0	1.1	0.0	0.3	2.2	5.9	29.7	0.0	0.0	0.0	0.0	0.0	0.0	0.0	6.2	0.8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0.6	2.2	0.3	1.2	0.0	2.1	4.4	23.7	0.0	0.0	0.0	0.0	0.0	0.0	5.7	1.9
장애인 재활병·의원	1.7	9.3	0.2	0.5	1.8	3.5	10.2	4.3	0.3	0.0	0.0	0.0	18.3	0.0	4.9	2.5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0.7	0.7	0.0	1.1	0.0	2.9	8.7	69.8	1.1	0.0	0.0	0.0	0.0	0.7	6.9	3.6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0.0	0.0	0.0	0.0	0.0	0.3	0.0	7.1	0.0	0.0	0.0	0.0	0.0	0.0	0.0	0.3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0.4	4.6	2.9	6.4	2.1	49.9	75.6	1.6	0.0	0.0	0.0	0.0	0.0	0.0	18.2	5.8
특수교육지원센터	0.0	1.1	0.7	1.0	1.6	12.1	43.3	0.6	0.0	0.0	0.0	0.0	0.0	0.0	11.5	1.6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0.4	0.8	0.2	0.8	0.0	2.3	6.2	1.4	0.3	0.0	0.0	0.0	18.3	0.0	0.0	0.7
장애아동보육시설	0.0	1.3	0.0	0.1	2.8	7.6	25.8	0.0	0.0	0.0	0.0	0.0	0.0	0.0	2.7	0.9
장애인단체	2.6	2.8	4.5	3.3	4.0	5.3	11.4	1.6	3.2	2.1	0.0	0.0	0.0	0.0	13.3	3.1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기관 향후 이용 희망 정도를 살펴보았다. 18개 장애인복지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장애인재활병·의원으로서 전체의 31.0%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장애인재활치료시설 24.0%, 장애인복지관 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동 편의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이용 희망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이용 희망률을 보인 곳은 정신의료기관으로서 69.5%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54.4%,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37.2%,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3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관 중 가장 높은 이용 희망률을 보여주었던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재활병·의원과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보다 순위가 낮아졌으며,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의 관련 기관 이용 욕구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7-10-1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직업재활시설	8.1	10.9	10.6	6.8	5.2	32.0	45.9	19.6	10.2	14.7	1.3	5.3	18.3	0.0	17.1	10.9
장애인복지관 (단종복지관 포함)	16.7	22.1	25.7	18.6	17.4	40.7	55.2	20.7	15.0	3.1	18.6	16.6	0.0	22.2	35.3	20.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8	15.6	6.4	5.2	6.4	25.9	43.7	11.2	5.0	1.7	9.9	5.0	7.9	1.7	14.8	8.8
장애인체육시설	14.4	16.7	15.7	11.5	18.6	30.1	70.6	16.1	7.4	7.3	5.9	13.6	21.3	14.5	28.1	15.9
장애인수련시설	5.9	8.3	7.0	4.7	6.7	17.8	39.8	7.5	3.9	4.2	3.2	2.0	31.2	10.8	21.5	7.3
장애인심부름센터	17.5	24.5	22.1	16.3	7.9	18.3	31.6	10.4	15.9	33.1	29.6	8.1	30.4	4.0	7.9	18.3
장애인재활치료시설	25.8	41.0	15.1	14.1	13.2	23.3	49.7	14.1	14.6	17.2	19.6	8.2	31.2	9.1	20.8	24.0
점자도서관	0.0	0.1	8.0	0.0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9
수화통역센터	0.0	0.1	0.0	10.9	1.5	0.2	1.5	0.0	0.0	0.0	0.0	0.0	0.0	0.0	0.0	1.2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장애인콜택시,해피콜 등)	33.0	51.0	34.6	27.5	22.2	37.7	60.1	21.7	37.9	48.1	42.4	21.4	33.0	32.4	42.7	34.8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0.0	10.6	12.0	8.7	9.1	28.4	51.4	16.3	10.5	9.8	6.1	17.1	18.3	6.2	40.6	12.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9	8.5	9.0	5.6	7.5	34.8	55.6	20.1	8.4	6.1	7.3	11.3	31.2	3.7	12.9	10.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0.0	1.3	0.0	0.1	3.6	57.4	47.9	0.0	0.0	0.0	0.0	0.0	0.0	0.0	10.3	4.5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0.0	2.5	0.1	0.4	1.9	19.8	68.1	0.0	0.0	0.0	0.0	0.0	0.0	0.0	14.2	2.3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8.5	15.2	9.0	7.9	9.5	25.8	39.5	49.3	6.3	17.7	14.4	11.9	0.0	12.1	37.3	12.4
장애인 재활병·의원	33.5	44.3	21.9	20.1	23.2	27.9	38.0	27.4	19.2	28.3	37.7	23.5	21.3	30.7	38.7	31.0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0.1	0.1	0.0	0.0	0.0	1.2	0.0	69.5	1.1	0.0	0.0	0.0	0.0	0.0	0.0	2.9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0.0	0.0	0.0	0.0	0.0	0.7	0.0	31.3	0.0	0.0	0.0	0.0	0.0	0.0	0.0	1.3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0.1	2.9	0.6	0.7	3.6	22.8	59.5	0.3	0.0	0.0	0.0	0.0	0.0	0.0	13.3	2.6
특수교육지원센터	0.1	2.4	0.7	1.3	4.9	20.6	59.1	0.7	0.0	0.0	0.0	0.0	0.0	0.0	9.4	2.5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8.4	9.2	11.1	7.6	1.7	33.6	56.7	18.1	9.7	4.2	4.0	12.5	18.3	15.8	26.1	11.2
장애아동보육시설	0.0	1.7	0.3	0.6	3.5	3.5	17.8	0.0	0.0	0.0	0.0	0.0	0.0	0.0	2.7	0.7
장애인단체	9.7	11.8	14.2	9.6	7.4	24.0	30.9	11.9	10.1	3.9	6.0	10.5	18.3	15.9	32.1	11.7

5. 장애인의 복지 욕구

장애인들의 일반적 복지 욕구로서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들이 첫 번째 요구로 꼽은 것은 소득보장으로 전체의 38.5%가 희망하였으며, 다음은 의료보장으로서 32.8%의 장애인이 요구하였다. 이어서 고용보장(8.5%),

주거보장(6.4%), 장애인 인권보장(2.7%) 등이 장애인의 주요한 욕구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2011년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가운데, 여전히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다른 복지욕구를 압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의 주 내용이 장애의 지속적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라는 점에서 사실 의료보장의 욕구는 소득보장 욕구의 한 범주 혹은 또 다른 표현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고용보장 역시 소득보장과 함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소득보장의 또 다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장애인의 근로능력 손상으로 인한 소득 결핍에 대응하여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 더불어 의료비 영역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현금 및 현물급여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7-10-14〉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소득보장	39.5	37.4	36.6	38.7	29.0	36.3	17.6	44.4	41.5	33.0	27.3	28.1	70.2	29.0	37.6	38.5
의료보장	33.9	39.5	32.7	29.0	28.4	23.6	12.7	22.5	38.6	43.6	52.2	45.3	0.0	36.8	31.1	32.8
고용보장	8.8	4.6	9.3	8.7	15.0	10.2	16.0	8.6	7.0	3.9	4.2	7.8	16.4	11.4	2.7	8.5
주거보장	6.0	4.6	8.2	5.8	6.3	7.4	11.1	10.2	7.6	6.0	6.4	0.4	3.5	6.4	13.7	6.4
이동권 보장	1.7	4.1	2.2	0.6	0.0	1.3	0.0	0.7	1.0	3.7	4.7	0.0	0.0	4.0	0.0	1.8
보육·교육 보장	0.9	1.2	0.5	2.3	3.0	7.4	18.7	1.9	0.4	0.0	2.1	7.1	2.1	0.0	2.7	1.7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6	1.1	2.3	1.8	1.6	2.3	0.7	0.9	0.5	0.0	0.0	5.3	0.0	1.0	0.0	1.6
장애인 인권보장	2.2	1.5	2.2	2.9	11.3	6.1	14.3	3.1	1.2	8.2	3.2	3.1	0.0	3.8	12.3	2.7
장애인 인식개선	1.7	2.5	2.1	3.3	1.8	3.0	8.8	3.4	0.5	0.0	0.0	3.0	0.0	2.6	0.0	2.2
장애예방	1.3	2.0	0.3	1.5	0.0	0.2	0.0	2.3	0.1	1.7	0.0	0.0	0.0	0.0	0.0	1.2
의사소통과정보접근 참여보장	0.2	0.0	0.3	3.0	1.6	1.3	0.0	0.5	0.0	0.0	0.0	0.0	0.0	0.0	0.0	0.6
재난안전관리	0.6	0.2	0.7	0.2	0.0	0.4	0.0	0.2	0.0	0.0	0.0	0.0	0.0	0.0	0.0	0.5
기타	0.2	0.9	0.7	0.2	0.0	0.0	0.0	0.0	0.5	0.0	0.0	0.0	0.0	0.0	0.0	0.3
없음	1.4	0.5	1.7	2.0	2.0	0.5	0.0	1.2	1.1	0.0	0.0	0.0	7.9	5.1	0.0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제11절 경제상태

1. 장애인의 경제 상태

장애인의 경제 상태 중에서 먼저 장애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소속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전체 장애인 중에서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은 0.9%에 불과하였으며,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은 67.4%로 2/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은 31.8%로, 2011년에 비해 1.2% 포인트 높아졌다. 장애유형 별로 비교해 보면,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장애는 정신장애(81.5%), 장루·요루장애(80.4%), 심장장애(79.9%), 뇌전증장애(79.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장애는 자폐성장애(48.0%), 언어장애(53.2%) 등이었다. 한편 상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장애는 심장장애(8.2%), 자폐성장애(3.4%), 언어장애(2.5%) 등이었다.

〈표 7-11-1〉 주관적 소속 계층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하층	66.9	69.6	64.1	65.3	53.2	68.7	48.0	81.5	67.3	79.9	69.3	60.7	69.4	80.4	79.3	67.4
중층	32.2	29.5	35.9	33.8	44.3	30.4	48.6	18.4	30.9	11.9	28.6	37.7	30.6	19.6	20.7	31.8
상층	0.9	0.9	0.1	1.0	2.5	0.9	3.4	0.1	1.9	8.2	2.1	1.6	-	-	-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다음으로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를 보면, 장애인의 16.9%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급 형태를 보면, 16.3%가 일반수급가구였으며, 조건부수급가구는 0.5%, 의료·교육·자활특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 별로 보면, 일반수급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인은 뇌전증장애인(58.4%)이었으며, 정신장애인(54.5%)도 일반수급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간장애는 조건부수급가구의 비율이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뇌전증장애인의 조건부수급가구 비율은 3.1%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 7-1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아니오	86.9	82.1	85.0	87.4	86.9	71.9	91.3	43.7	82.1	97.9	76.6	80.0	87.1	79.0	38.5	83.1
일반수급가구	12.9	17.1	13.9	12.0	13.1	27.1	8.7	54.5	17.9	2.1	23.4	6.5	12.9	21.0	58.4	16.3
조건부수급가구	0.1	0.5	1.0	0.4	-	0.8	-	1.8	-	-	-	13.5	-	-	3.1	0.5
의료·교육·자활·특례	0.0	0.3	0.1	0.2	-	0.2	-	-	-	-	-	-	-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한편 지난 1개월 평균 총 가구 수입액의 분포를 보면, 50~99만원 범주가 22.1%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00~149만원 15.4%, 150~199만원 11.7%, 200~249만원 10.4%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1개월 평균 총 가구 수입액이 200만원 미만인 장애인의 비율은 55.3%로, 절반을 넘었다. 장애유형 별로는 뇌전증장애(19.4%), 정신장애(13.2%) 중에서 50만원 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루·요루장애인 중에서는 50~99만원의 비율이 33.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총 가구 수입액이 500만원 이상인 비율을 비교해 보면, 자폐성장애인 중에서는 27.2%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 또한 신장장애(11.6%), 지적장애(11.0%)도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는 약간 높았다.

1개월 평균 총 가구 수입액의 평균을 보면, 224.9만원으로 조사되어 2011년의 198.0만원에 비해서 26.9만원(13.6%) 증가하였다. 장애유형 별로 총 가구 수입액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자폐성장애가 367.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심장장애 258.7만원, 지적장애 256.8만원, 간장애 249.9만원, 신장장애 246.7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뇌전증장애의 가구 수입액 평균은 164.1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정신장애와 장루·요루장애도 각각 168.6만원, 179.6만원으로 상당히 낮았다.

〈표 7-11-3〉 지난 1개월 평균 총 가구 수입액

(단위: %, 만원,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50만원 미만	6.7	3.7	7.2	5.9	5.1	1.9	-	13.2	2.3	5.9	6.6	2.9	-	1.0	19.4	6.1
50~99만원	22.6	22.6	21.7	24.9	15.0	13.7	-	27.4	20.7	20.4	25.5	7.7	12.9	33.6	27.1	22.1
100~149만원	13.5	19.3	16.2	16.7	13.7	15.8	12.0	18.9	19.1	16.9	15.3	32.9	21.8	13.1	19.0	15.4
150~199만원	12.0	10.9	9.7	10.5	17.8	14.8	13.1	12.2	11.4	5.4	10.5	6.5	5.0	12.6	17.1	11.7
200~249만원	9.7	12.5	12.4	10.9	8.1	11.7	10.0	6.0	11.1	-	12.7	8.3	18.4	8.4	1.5	10.4
250~299만원	7.8	7.9	5.0	6.4	8.7	10.5	7.7	8.4	8.7	16.3	8.1	15.6	12.1	17.4	-	7.7
300~349만원	8.0	4.9	8.4	4.7	11.4	10.2	11.3	4.2	7.3	12.7	2.1	4.7	13.4	6.5	3.0	7.3
350~399만원	4.0	3.4	4.4	3.7	9.2	5.6	4.1	1.6	2.6	-	11.5	4.8	-	4.7	-	4.0
400~499만원	7.2	5.8	6.4	6.2	1.1	4.8	14.5	3.7	5.3	12.2	0.5	7.3	16.4	0.4	4.9	6.5
500만원 이상	8.5	8.9	8.7	10.1	10.0	11.0	27.2	4.5	11.6	10.2	7.1	9.4	-	2.1	8.1	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23.9	224.3	223.3	219.7	238.9	256.8	367.4	168.6	246.7	258.7	204.1	249.9	229.3	179.6	164.1	224.9
전국추정수	1,339,328	288,754	274,197	276,720	21,399	182,333	18,950	105,002	71,876	8,458	15,984	11,839	3,013	16,706	9,764	2,644,323

또한 지난 1개월 평균 장애인 개인의 수입액 분포를 보면,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42.0%로 절반에 가깝다. 또한 50~99만원도 26.5%로, 99만원 이하의 수입액이 있는 장애인이 전체 2/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 수입액이 300만원 이상인 장애인은 6.9%에 불과하였다. 장애유형 별로 보면, 개인 수입액이 50만원 미만인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자폐성장애로 92.2%였으며, 이어서 지적장애가 68.9%, 정신장애 66.3%, 뇌전증장애 63.6%의 순으로 50만원 미만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개인 수입액이 500만원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심장장애(8.2%)이었으며, 간장애(3.6%), 지체장애(2.3%) 중에서 500만원 이상 비율이 높았다.

지난 1개월 평균 장애인 개인 수입액의 평균을 보면, 장애인 전체는 96.3만원으로 조사되어, 2011년에 비해 18.6%가 증가하였다. 장애유형 별 평균 개인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심장장애가 137.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장애 125.1만원, 지체장애 117.5만원, 시각장애 105.9만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폐성장애는 장애인 개인 수입액 평균이 13.2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지적장애 37.1만원, 뇌전증장애 37.7만원, 정신장애 38.1만원 등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4〉 지난 1개월 평균 장애인 개인 수입액

(단위: %, 만원,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50만원 미만	34.2	48.3	39.4	41.7	52.3	68.9	92.2	66.3	46.7	54.3	48.2	44.5	39.3	40.1	63.6	42.0
50~99만원	24.8	32.6	25.0	31.4	19.5	22.2	5.5	30.5	33.2	8.0	27.7	8.1	10.5	38.1	36.4	26.5
100~149만원	11.5	7.8	11.3	10.7	16.4	6.4	2.3	2.0	4.4	9.9	11.6	21.5	21.8	8.2	-	10.0
150~199만원	8.8	3.1	6.7	4.9	4.3	1.0	-	1.2	4.4	5.4	5.1	3.4	16.3	7.5	-	6.4
200~249만원	7.3	4.2	7.8	4.0	1.2	0.8	-	-	2.4	4.2	-	1.0	-	5.2	-	5.6
250~299만원	3.9	0.6	1.5	2.8	3.6	0.7	-	-	2.2	9.9	3.2	7.6	12.1	-	-	2.7
300~349만원	3.9	1.5	3.6	1.3	2.8	-	-	-	3.1	-	2.1	1.7	-	-	-	2.8
350~399만원	1.2	0.7	0.7	0.6	-	-	-	-	1.7	-	2.1	4.8	-	-	-	0.9
400~499만원	2.1	0.3	2.6	1.2	-	-	-	-	0.5	-	-	3.8	-	-	-	1.5
500만원 이상	2.3	0.8	1.6	1.4	-	-	-	-	1.3	8.2	-	3.6	-	0.9	-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17.5	69.6	105.9	87.2	65.1	37.1	13.2	38.1	82.2	137.2	77.5	125.1	96.9	75.6	37.7	96.3
전국추정수	1,339,570	289,257	274,199	276,967	21,400	182,333	18,951	105,002	71,877	8,456	15,984	11,840	3,013	16,706	9,764	2,645,319

장애인이 가입한 연금 종류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입률이 가장 높은 연금은 국민연금(35.0%)이었으며, 그 외에는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개인연금(사적)이 3.8%로, 국민연금과 큰 격차를 보였다. 장애유형 별로 비교해 보면, 간장애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48.2%로 가장 높았으며, 장루·요루장애 42.3%, 지체장애 4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폐성장애(9.6%), 정신장애(10.0%), 뇌전증장애(11.0%), 지적장애(18.2%)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간장애가 5.1%로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루·요루장애 4.3%, 시각장애 3.8% 등으로 나타났다. 보훈연금의 경우에는 호흡기장애인의 가입률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신장장애 3.7%, 뇌병변장애 3.2% 등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한편 개인연금(사적)의 경우에는 심장장애인의 가입률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신장장애 5.2%, 호흡기장애 4.8%, 지체장애 4.7%, 자폐성장애 4.7% 등의 가입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1-5〉 가입한 연금 종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국민연금	40.4	29.3	37.6	30.9	36.8	18.2	9.6	10.0	37.4	30.7	29.7	48.2	33.5	42.3	11.0	35.0
공무원연금	2.2	2.1	3.8	2.0	-	-	-	-	1.6	-	1.4	5.1	-	4.3	-	2.1
사립학교 교원연금	0.5	0.7	0.6	0.2	-	-	-	-	-	-	-	-	-	-	-	0.4
군인연금	0.3	0.1	0.5	0.4	1.8	-	-	-	0.6	-	-	-	-	-	-	0.3
보훈연금	1.7	3.2	2.4	1.7	2.9	0.5	-	1.5	3.7	-	5.5	1.6	-	1.8	-	1.9
전국추정수	1,336,019	278,008	270,970	273,047	19,623	147,594	8,851	104,321	71,876	8,003	15,984	11,839	2,560	16,705	8,850	2,574,250
개인연금(사적)	4.7	2.9	3.7	2.0	-	2.3	4.6	0.9	5.2	8.2	4.8	2.6	-	3.2	-	3.8
기타	0.3	0.3	-	-	-	0.1	-	-	-	-	-	-	-	-	-	0.2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가구 내 차량소유 여부를 보면, 차량이 있는 장애인가구는 52.2%, 없는 장애인가구는 47.8%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 별로 보면, 차량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심장장애(77.6%), 자폐성장애(72.9%), 간장애(67.3%) 등이었다. 반면에 차량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낮은 장애유형은 뇌전증장애(26.9%), 정신장애(28.6%), 안면장애(44.0%), 장루·요루장애(44.7%), 청각장애(44.8%) 등이었다.

〈표 7-11-6〉 가구 내 차량소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있다	56.0	49.0	47.6	44.8	59.7	54.9	72.9	28.6	59.4	77.6	58.6	67.3	44.0	44.7	26.9	52.2
없다	44.0	51.0	52.4	55.2	40.3	45.1	27.1	71.4	40.6	22.4	41.4	32.7	56.0	55.3	73.1	4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39,569	289,257	274,484	277,432	21,399	182,333	18,951	105,002	71,876	8,456	15,985	11,839	3,012	16,705	9,764	2,646,064

소유한 제 1 차량의 차종을 보면, 승용차가 8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승합차 8.3%, 화물차 8.0%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 별로는 심장장애(13.5%)와 언어장애(11.3%)의 승합차 소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면장애(23.8%), 뇌전증장애(15.1%), 언어장애(11.5%)의 화물차 소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량의 연료 유형을 보면, LPG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휘발유 30.0%, 디젤 27.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에 비해 LPG의 비중이 떨어져서 LPG와 휘발유의 가격차이가 줄어든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 별로는 간장애와 장루·요루장애는 휘발유의 비율이 각각 51.4%, 43.6%로 상당히 높았다. 반면에 LPG의 비율이 높은 장애로는 안면장애(64.7%), 호흡기장애(60.9%), 뇌병변장애(48.8%) 등이었다. 한편 디젤(경유)의 비율이 높은 장애는 뇌전증장애(38.7%), 안면장애(35.3%) 등이었다.

다음으로 차량의 소유 현황을 보면, 장애인 본인인 경우가 54.5%로 가장 많았지만 보호자인 경우도 24.0%, 공동명의인 경우가 19.3%나 되었다. 장애유형 별로 보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는 지적장애(16.7%), 자폐성장애(17.2%), 정신장애(22.8%), 뇌전증장애(25.8%) 및 뇌병변장애(37.2%)는 소유주가 장애인인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51.4%), 지적장애(43.7%) 등은 소유주가 보호자인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자폐성장애(48.3%), 지적장애(38.0%), 뇌병변장애(32.9%) 등은 공동명의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내부장애 중에서도 일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장애유형이 있는데, 장루·요루장애(38.7%)는 소유주가 보호자인 비율이 높았으며, 호흡기장애(40.1%)는 공동명의의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종류를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한 표지가 35.5%, 주차 불가능한 표지가 34.4%, 그리고 표지가 없는 경우도 30.1%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한 차량은 전국적으로 49만 3백여대로 추정된다.

차량의 용도를 보면, 출·퇴근용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외출용이 38.6%, 사업용이 8.7%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 보면, 안면장애(76.2%), 장루·요루장애(57.5%), 언어장애(57.1%) 등의 출·퇴근용 비율이 높았으며, 호흡기장애(70.5%), 간장애(54.3%), 심장장애(51.0%), 뇌병변장애(50.6%) 등의 외출용 비율이 높았다. 또한 사업용 비율이 높은 장애로는 뇌전증장애(15.1%), 정신장애(11.4%)가 있었다.

차량의 운전자를 보면, 보호자가 49.6%로, 장애인 본인의 47.3%보다 약간 더 높았는데, 2001년에 비해 본인이 운전자인 경우는 4.6% 포인트 증가하였다. 장애유형 별로 보면, 장애인 본인이 운전자인 비율이 높은 장애는 지체장애(63.0%), 간장애(58.8%), 안면장애(58.1%) 등이었다. 반면에 보호자가 운전자인 비율이 높은 장애는 자폐성장애(100.0%), 뇌전증장애(100.0%), 지적장애(94.2%), 정신장애(79.6%), 그리고 뇌병변장애(78.3%) 등이었다.

〈표 7-11-7〉 차량 소유: 제1차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차종																
승용차	82.4	87.1	83.9	83.8	77.2	82.6	96.1	85.4	90.8	84.2	91.2	92.7	71.4	90.8	84.9	83.8
승합차	8.9	7.0	7.9	7.5	11.3	8.8	2.8	6.1	8.0	13.5	6.7	2.5	4.8	9.2	-	8.3
화물차	8.7	5.9	8.2	8.8	11.5	8.6	1.1	8.4	1.2	2.3	2.1	4.8	23.8	-	15.1	8.0
연료																
휘발유	27.9	30.8	34.5	33.1	28.5	31.6	35.2	32.4	31.4	33.7	14.9	51.4	-	43.6	35.6	30.0
LPG	44.6	48.8	37.6	39.1	41.2	37.7	33.8	41.7	38.1	34.6	60.9	22.2	64.7	39.1	25.8	42.9
디젤(경유)	27.5	20.4	27.9	27.9	30.3	30.8	31.0	25.9	30.5	31.8	24.2	26.5	35.3	17.3	38.7	27.2
소유현황																
장애인	65.8	37.2	54.1	48.5	47.6	16.7	17.2	22.8	56.7	64.5	45.1	78.2	58.1	54.9	25.8	54.5
보호자	18.8	28.4	24.7	28.8	25.5	43.7	34.4	51.4	18.7	7.4	13.9	18.0	4.7	38.7	34.2	24.0
공동명의	13.1	32.9	18.9	19.2	26.9	38.0	48.3	21.1	24.6	25.5	40.1	3.8	37.2	3.6	32.7	19.3
기타	2.2	1.5	2.2	3.5	-	1.5	-	4.6	-	2.6	0.9	-	-	2.8	7.3	2.2
표지종류																
주차가능	41.0	60.9	25.9	1.4	16.3	18.7	71.9	4.6	55.4	6.9	34.9	9.1	-	7.5	14.6	35.5
주차불가	33.2	14.3	37.6	59.0	55.1	35.9	13.9	41.5	17.3	57.3	52.4	52.4	61.0	51.3	43.9	34.4
표지없음	25.8	24.8	36.4	39.6	28.6	45.4	14.2	53.9	27.3	35.7	12.7	38.5	39.0	41.1	41.5	30.1
용도																
출·퇴근	54.4	42.1	52.9	53.0	57.1	50.3	37.5	43.1	41.7	41.7	28.3	42.8	76.2	57.5	40.1	51.5
통학	0.2	2.2	0.3	0.3	2.2	8.5	14.2	-	0.3	-	-	-	-	2.8	-	1.2
사업용	9.4	5.2	8.3	9.9	10.7	8.9	1.1	11.4	8.6	7.3	1.2	2.9	-	5.3	15.1	8.7
외출	35.9	50.6	38.5	36.4	29.9	32.4	47.2	45.5	49.3	51.0	70.5	54.3	23.8	34.4	44.8	38.6
기타	0.0	-	-	0.5	-	-	-	-	-	-	-	-	-	-	-	0.1
운전자																
본인	63.0	19.2	43.0	40.6	36.1	2.9	-	15.5	43.2	51.6	40.8	58.8	58.1	51.3	-	47.3
보호자	34.3	78.3	53.8	54.2	57.9	94.2	100.0	79.6	54.4	43.1	47.5	41.2	41.9	45.8	100.0	49.6
기타	2.7	2.6	3.3	5.1	6.0	2.9	-	4.9	2.4	5.3	11.7	-	-	2.8	-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49,849	141,774	130,638	124,219	12,773	100,154	13,824	30,074	42,663	6,564	9,375	7,963	1,326	7,462	2,626	1,381,284

가구에서 두 번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5.9%였다. 제 2 차량의 차종을 보면, 승용차 61.5%, 승합차 11.3%, 화물차 27.3%로 조사되었다. 차량의 연료로는 46.4%가 디젤(경유)이었으며, 34.7%가 휘발유, 18.9%가 LPG로 나타났다. 소유 현황을 보면, 보호자 명의가 49.8%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명의 35.7%, 공동명의 10.4% 등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주차 표지 종류에서는 표지 없는 차량이 74.1%로 가장 많았으며, 주차 가능 표지가 7.4%, 주차 불가 표지가 18.5%였다. 따라서 주차 가능 표지가 있는 차량은 11,500 대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차량의 용도로는 출·퇴근이 50.7%, 사업용이 25.1%, 외출이 22.4%로 나타났다. 차량의 운전자는 보호자가 70.3%, 본인이 22.1%로 조사되었다.

〈표 7-11-8〉 차량 소유: 제2차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차종																
승용차	59.6	62.0	64.5	75.0	36.4	54.8	80.7	74.2	53.4	-	44.9	100.0	-	-	100.0	61.5
승합차	13.1	5.1	7.7	1.5	63.6	10.4	14.4	6.6	21.4	-	-	-	100.0	81.0	-	11.3
화물차	27.3	32.9	27.8	23.5	-	34.8	4.9	19.2	25.2	-	55.1	-	-	19.0	-	27.3
연료																
휘발유	36.1	20.2	27.0	38.2	-	31.5	25.0	46.7	52.6	-	44.9	87.5	-	-	100.0	34.7
LPG	18.2	18.6	35.5	22.0	-	13.1	32.6	6.6	5.8	-	-	12.5	-	-	-	18.9
디젤(경유)	45.7	61.2	37.5	39.8	100.0	55.4	42.5	46.6	41.6	-	55.1	-	100.0	100.0	-	46.4
소유현황																
장애인	45.7	21.1	41.0	36.7	36.3	5.5	-	6.6	4.9	-	0.0	68.9	-	100.0	-	35.7
보호자	42.8	57.7	39.1	55.6	27.3	67.3	76.8	82.9	87.8	-	55.1	18.6	100.0	-	100.0	49.8
공동명의	6.6	19.3	19.9	4.3	36.4	20.5	23.2	4.5	4.1	-	0.0	12.5	-	-	-	10.4
기타	4.9	1.9	-	3.3	-	6.6	-	6.0	3.2	-	44.9	-	-	-	-	4.1
표지종류																
주차가능	7.0	17.1	6.5	1.2	-	10.0	23.2	4.5	4.1	-	-	-	-	-	-	7.4
주차불가	20.9	1.5	26.6	21.8	88.5	8.8	-	6.6	4.2	-	-	59.2	-	81.0	-	18.5
표지없음	72.1	81.5	66.9	77.0	11.5	81.2	76.8	88.9	91.7	-	100.0	40.8	100.0	19.0	100.0	74.1
용도																
출·퇴근	51.2	43.0	60.4	48.8	15.7	44.6	95.1	38.2	50.5	-	44.9	81.4	-	81.0	-	50.7
통학	2.0	3.9	-	-	-	-	-	-	-	-	-	-	100.0	-	100.0	1.8
사업용	26.9	25.3	14.5	26.6	47.9	23.0	-	40.5	32.9	-	55.1	0.0	-	19.0	-	25.1
외출	20.0	27.8	25.2	24.6	36.4	32.4	4.9	21.2	16.6	-	0.0	18.6	-	-	-	22.4
운전자																
본인	30.1	21.2	9.7	25.4	-	3.0	-	3.3	4.9	-	-	18.6	-	100.0	-	22.1
보호자	60.8	77.5	85.4	63.8	100.0	92.5	100.0	71.6	91.9	-	55.1	81.4	100.0	-	100.0	70.3
기타	9.0	1.3	4.8	10.8	-	4.5	-	25.1	3.2	-	44.9	-	-	-	-	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5,200	11,861	15,687	12,239	1,049	15,956	1,720	3,120	5,837	-	178	1,316	63	364	528	155,118

다음으로 장애인가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39]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50~99만원 범주가 23.0%로 가장 많았으며, 100~149만원이 20.5%, 150~199만원이 16.3%, 200~249만원이 14.7%로 나타났다. 한 달 동안 평균 최소 생활비는 164.9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1년의 154.3만원에 비해 10.6만원(6.9%)이 늘어난 금액이다. 장애유형 별로 비교해 보면,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자폐성장애가 273.9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장장애 229.7만원, 간장애 210.6만원, 지적장애 190.1만원 등으로 높았다. 반면에 월 평균 최소 생활비가 낮은 장애로는 정신장애(133.1만원), 뇌전증장애(135.6만원), 장루·요루장애(144.2만원), 호흡기장애(146.6만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39) 최소한의 생활비란 가족이 한 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이다.

〈표 7-11-9〉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단위: %, 만원,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50만원 미만	4.5	3.2	5.7	4.9	5.5	2.7	-	6.8	1.8	5.9	12.2	-	-	-	15.9	4.5
50~99만원	23.8	21.0	23.1	26.6	16.6	13.0	-	33.9	21.0	9.7	21.9	9.0	34.7	34.4	18.5	23.0
100~149만원	19.8	24.6	18.6	22.5	15.9	20.3	11.4	18.6	22.6	24.0	23.2	6.6	18.4	20.1	28.2	20.5
150~199만원	16.8	14.7	16.4	15.4	12.8	16.7	16.6	16.5	16.4	7.8	9.3	32.6	17.2	18.0	13.2	16.3
200~249만원	14.9	13.9	16.5	12.7	27.1	14.7	9.5	12.8	13.5	15.6	18.5	22.9	-	13.1	15.1	14.7
250~299만원	5.5	5.9	4.5	3.7	9.4	11.0	14.9	3.4	6.9	6.0	2.6	4.8	-	2.8	-	5.6
300~349만원	6.9	6.9	9.1	6.6	4.7	11.9	24.4	5.4	10.2	17.4	5.1	8.3	29.7	6.4	1.5	7.6
350~399만원	1.8	2.3	1.6	1.5	3.4	4.0	5.2	0.3	0.4	4.0	1.9	8.2	-	2.2	4.9	2.0
400~499만원	3.7	4.0	2.8	3.8	2.6	3.9	6.1	1.1	3.4	0.0	5.3	4.4	-	3.0	0.0	3.5
500만원 이상	2.2	3.5	1.7	2.3	1.9	1.8	12.0	1.2	3.7	9.6	-	3.2	-	-	2.7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62.7	173.2	160.3	154.2	178.5	190.1	273.9	133.1	178.6	229.7	146.6	210.6	156.9	144.2	135.6	164.9
전국추정수	1,337,551	289,062	274,483	277,020	21,400	181,799	18,952	105,003	71,876	8,457	15,983	11,840	3,012	16,705	9,764	2,642,907

주: 무응답 제외

마지막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살펴보았다. 장애인 중에서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5.3%로 나타나 2011년의 72.0%보다 3.3% 포인트 정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추가비용 총액은 16만 4,200원으로, 2011년의 16만 700원보다 3,500원 증가하였다. 추가비용의 내용을 보면, 의료비가 66.0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비 25.6천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18.9천원,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비 16.8천원, 보호·간병비가 13.6천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 별로 비교해 보면, 자폐성장애(41만8,100원), 심장장애(35만700원), 안면장애(32만3,900원), 신장장애(30만 3,300원), 뇌병변장애(28만 3,100원), 장루·요루장애(26만 9천원), 호흡기장애(25만 4,700원) 등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장애의 경우, 의료비로 인해 추가비용이 많았다. 특히 내부장애인 심장장애(27만6,300원), 간장애(22만1,200원), 신장장애(21만8,200원) 등의 추가 의료비가 높았으나, 안면장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의료비가 28만8,9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자폐성장애는 보육·교육비(15만4,600원), 교통비(7만9,200원), 재활기관이용료(8만300원)로 인한 추가비용이 많았다. 또한 신장장애는 의료비 외에도 추가 교통비(5만1,900원)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는 매주 3회 정도의 정기적인 치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루·요루장애(6만9,200원), 뇌병변장애(5만1,700원)는 보호·간병비로 인한 추가비용도 상당히 많았다. 또한 시각장애(2만7,100원)와 청각장애(2만4천원)는

추가 통신비가 많았으며, 장루·요루장애(8만4천원)와 청각장애(5만9,100원)는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도 상당히 많았다. 마지막으로 자폐성장애(4만1,300원)와 지적장애(3만9,500원)는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가 상당히 많아서 두 장애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표 7-11-10〉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월평균 총 추가비용	137.3	283.1	104.2	120.4	143.7	197.8	418.1	103.9	303.3	350.7	254.7	271.5	323.9	269.0	175.4	164.2
교통비	28.8	30.3	17.0	9.0	21.5	32.9	79.2	15.4	51.9	37.8	34.6	32.5	19.2	26.0	35.7	25.6
의료비	56.9	138.6	26.8	11.7	54.2	47.1	22.7	66.3	218.2	276.3	172.3	221.2	288.9	86.3	98.6	66.0
보육·교육비	0.1	4.9	0.3	0.2	7.3	32.5	154.6	0.8	0.0	3.0	0.0	0.0	0.0	0.0	0.2	4.1
보호·간병비	8.8	51.7	6.1	2.8	0.5	10.2	30.2	1.7	7.8	6.0	10.4	0.0	0.0	69.2	3.0	13.6
재활기관이용료	0.9	13.1	0.3	0.8	1.1	20.4	80.3	1.0	0.0	0.8	0.0	0.0	0.0	0.0	7.2	4.2
통신비	2.9	4.7	27.1	24.0	18.9	9.8	9.2	1.6	3.5	1.5	1.1	2.7	15.7	1.3	3.7	9.9
장애인보조기구구입·유지비	15.0	11.2	12.5	59.1	25.4	0.7	0.0	0.0	8.9	23.9	18.2	1.2	0.0	84.0	7.8	18.9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20.3	10.4	12.0	11.8	13.6	39.5	41.3	11.6	9.0	1.5	12.3	13.4	0.0	1.0	12.2	16.8
기타	3.6	18.2	2.2	1.1	1.2	4.6	0.6	5.3	4.0	0.0	5.7	0.5	0.0	1.1	7.1	5.1



제8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제1절 보건의료·건강
제2절 일상생활 지원
제3절 장애인보조기구
제4절 교육
제5절 취업 및 직업생활
제6절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제7절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제8절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제9절 주거
제10절 복지서비스
제11절 경제상태

8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제1절 보건의료·건강

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특성을 살펴 본 결과 장애유형에 따라 건강과 질환상태, 입원과 외래진료, 건강관리 등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는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기적 진료나 진료 받는 목적에 있어서 신체 외부와 내부장애, 정신적 장애 간에 차이가 있어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건강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의 수진율이 낮은 점은 개선을 필요로 하며, 원하는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교통편의나 경제적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동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방문검진과 진료를 확충하고, 발달장애나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도와줄 도우미를 배치하거나 치과진료와 같은 비용의 어려움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을 통해 검진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이들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특성상 추락을 비롯한 각종 사고 경험률도 높아 안전관리와 함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전문병원과 방문진료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문병원이나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재활치료(발달재활) 서비스는 바우처제도를 통해 그동안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재활서비스 인력양성을 포함한 재활서비스의 체계화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장애인이 주로 활동하는 주택가 공원 등 근린시설에 대한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스트레스 경험률과 자살생각률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이들의 스트레스 예방이나 우울증 해소를 위한 심리적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2절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로서 장애의 한 가지 차원은 기능제약이다. 장애인의 경우 의학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기능제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전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2014년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중 상당수가 일상생활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의학적 손상의 임상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신체활동 및 기본적인 사회생활 기능수준이 낮았다. 이렇듯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필연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기능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 중증장애인을 타겟으로 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기능제약 수준이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제도 확대로 인한 서비스 이용자의 증대가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장애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조사에서는 주된 수발자로서 활동보조인(1.7%)과 요양보호사(4.8%)를 합한 비중이 6.5%이었던 데 비해, 2014년 조사에서는 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가 각각 3.3%, 7.3%로서 이를 합하면 총 10.6%에 이르러 3년 사이에 4.1%p라는 결코 적지 않은 증가를 보였다. 이는 분명히 장애인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주 수발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여전히 절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서비스 수급 대상의 확대와 서비스 제공량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내부에서도 장애유형에 따라 기능제약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ADL 및 IADL 등의 영역에서 기능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지적, 자폐성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에 있어 기능수준에 비례한 서비스 제공량을 할당받고 있는 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그에 따른 합리적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 장애인의 연령에 따라 인정등급 심사, 서비스 제공량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이 다르게 적용되어 서비스의 단절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간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수립 또는 제도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 현황 및 수요,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지원제도 수혜 여부, 장애인 보조기구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항목에 걸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상태를 고려할 때 장애인보조기구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적급여(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무료교부사업, 산재보험 보장구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기기 지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교육부 장애학생지원사업 등)가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의 주요 재원으로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실태조사에서는 82.8%이었던 것이 2014년 조사에서는 83.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2014년 조사에서 2011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지원사업과 교육부 장애학생지원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어 공적급여의 종류가 늘어난 데 따

른 것이며, 실제로 이들 두 사업의 비중을 제외하면 공적급여의 비중이 79.8%로서 오히려 2011년 보다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난 3년간 보장구 급여 제도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적급여 사업 중에서 지급대상품목과 지급액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적급여간 역할을 분담하여 장애인보조기구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제도와 관련한 개선 사항 항목에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장애인보조기구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등 파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보조기구 전달체계를 네트워크에 기반한 장애인 보조기구 상담, 평가, 교육, 구입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달체계로의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공적 급여의 지원 수준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사용률로 파악해 본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역시 비장애인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보편적인 정보통신기기인 스마트폰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할 때 사용률이 급증하였으나 여전히 비장애인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기능의 복잡함으로 인한 사용상의 어려움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모바일 기기 중심의 정보화 교육, 기기 보급 및 사용료 감면 등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교육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28.8%), '고등학교'(28.1%), '중학교'(16.2%), '대학이상'(15.3%), '무학'(11.6%)으로 장애인 중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인 비율은 4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정도 비율인 71.1%보다 27.7%pt 낮아 향후에는 장애인 교육수준이 현재보다 더욱 향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이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는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학교수준이 올라갈수록 '일반학교 졸업' 비율은 줄

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는 '일반학교 졸업' 비율이 75.9%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중학교 '일반학교 졸업'은 52.7% 그리고 고등학교 '일반학교 졸업'은 37.7%로 감소하는데 이는 교육통합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장애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70.1%),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함'(13.0%), '심한 장애'(6.8%)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 의무교육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시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세 가지의 장애인 미취학 및 학교 중도포기 사유는 정부의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유로 장애인 교육소외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또한 '심한 장애'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49.5%), 안면장애(29.8%), 정신장애(26.3%) 등의 비중이 높아 이들 장애유형 교육에 대한 추가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이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65.7%),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17.8%), '믿지 못해서'(2.6%), '다른 방법이 있어서'(2.3%), '시설이 없어서'(2.2%) 등의 다양한 사유가 있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월 평균 비용은 '무료'가 67.0%를 차지하였으며 뇌병변장애의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1~5만원'(24.8%)과 '11~15만원'(14.7%)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언어장애도 '6~10만원'(100.0%)을 유치원 월 평균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유치원 교육비용 외에 장애특성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 적응정도는 전체적으로 '잘 적응하는 편'이 64.8%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정신장애는 '전혀 적응 못하는' 비율이 22.4%로 높고 자폐성장애(5.1%)와 지적장애(2.2%)도 일부 부적응 사례가 발견되므로 이들을 위한 적응 대책도 요구된다. 보육시설·유치원·학교생활의 문제점(1순위)은 '수업내용의 이해(진도 따라가기)'가 26.3%로 응답비율이 가장 많고 다음이 '친구들의 이해 부족, 놀림'(20.9%), '특수교사의 부족'(10.8%), '특수교육보조원 미배치'(7.3%), '등하교 불편'(5.8%) 등 의 순서로 장애유형별과 장애정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시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아동 돌봄지원서비스 확대'(17.4%), '고등교육 지원 강화'(17.3%), '자신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15.6%),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대'(15.2%),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확대'(10.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장애는 '고등교육 지원 강화'(20.0%),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대'(19.6%), '자신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17.0%) 등을 향후 보육·교육시 주요 필요사항으로 응답해 이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장애자녀를 위한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 의향의 경우 가입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54.3%로 매우 높게 나타나 예상과 같이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장애자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애자녀를 위한 민간개인연금상품은 시장성이나 수익성 때문에 민간기업이 보험상품 개발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의 경우 장애인 대부분이 참여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미참여 경험 97.4% 이상) 장애인의 평생교육 강화가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는 1개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의 경우 인문교양 교육과 문화·체육·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이수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었는데 이는 지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도 바람직하므로 향후로도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영역은 '문화·체육·예술 교육'(13.0%), '직업능력 향상교육'(8.4%), '학력보완교육'(3.6%),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2.4%) 등의 순서로 나타나 이들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회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제5절 취업 및 직업생활

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6.57%로 2011년의 35.49%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호흡기 장애, 뇌전증(간질)장애 등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 장애유형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취업 장애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자영자1(노점제

외)'(29.2%), '상용근로자'(23.8%), '일용근로자'(18.8%), '임시근로자'(17.2%), '무급가족종사자'(5.4%) 등의 순서로 나타나 장애인 자영업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는 '자영자1(노점제외)'(31.0%)와 '상용근로자'(24.7%)의 비중이 높고 지적장애는 '임시근로자'(34.8%)와 '일용근로자'(23.7%)의 비중이 높아 장애특성에 따라 종사지위도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다.

취업장애인이 현재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은 '낮은 수입'(45.7%), '업무과다'(15.7%), '직장 내의 대인관계'(2.4%), '출퇴근 불편'(2.3%),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2.3%)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수 장애인인들이 낮은 수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시각장애 등이 낮은 수입을 직장생활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장애인 수입 제고방안으로는 최저임금제 실시, 사회보험료 지원, 세제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취업 장애인이 현재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는 '약간 만족'의 응답비율이 36.0%로 가장 높고 다음은 '보통'(28.8%), '약간 불만족'(19.8%), '매우 만족'(10.2%), '매우 불만족'(5.1%)의 순이다. 일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46.2% 그리고 불만족은 24.9%로 장애인이 일단 일을 갖게 되면 만족수준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취업알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었음'이라는 응답이 94.7%로 매우 높게 나타나 현재는 일자리가 없더라도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일할 준비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지난 4주 내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장애로 인한 업무 수행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72.5%), 뇌전증장애(62.6%), 호흡기장애(62.1%)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장애인 취업과 관련하여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그 지원도 장애유형별로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장애인이 원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는 '임금근로'가 96.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취업 장애인의 종사지위 또는 고용형태에서 자영자가 30.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상반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 취업알선시 가능한 한 임금근로가 가능한 직장으로의 배치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유형별 희망직무의 경우 지적장애는 단순노무 종사자 응답비율이 45.8%로 가장 높고 사무종사자

(15.2%)와 판매종사자(14.0%)가 뒤를 잇고 있으며 뇌병변장애는 사무종사자 희망비율이 43.0%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사무직종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져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직무소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 경험 여부는 '직업훈련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4.0%로 매우 높아 향후 직업훈련 활성화가 요구된다.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훈련 받을 필요 없음'이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직업훈련 있는지 모름'(19.6%), '심한 장애로 훈련 받기 어려움'(15.7%), '직업훈련이 취업 도움 안됨'(6.3%) 등을 답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직업훈련 준비와 시행과정에서 프로그램 효과성 및 실용성 제고, 홍보 강화 등의 대책들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국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직업능력 개발'(20.7%), 취업정보 제공(18.7%), 임금보조(16.5%), 취업상담, 평가, 알선(12.2%)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의 경우 '직업능력 개발'(38.1%)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22.1%)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고 지체장애는 취업정보 제공(20.2%), 직업능력개발(18.3%), 임금보조(18.0%)를 국가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아 관련 정부정책도 장애특성에 따라 전문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6절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장애인의 사회생활은 대부분 장애인 혼자서 외출할 수 있으나, 전체 장애인의 15% 정도의 장애인은 혼자서 외출할 수 없는 정도로 중증이거나 누군가의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출 목적이 주로 통학, 통근 목적이 다수이나, 특정장애인(심장, 신장) 등 장애인은 병원방문목적이 주요 목적으로 나타났다.

외출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사용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의 어려움, 이동의 불편을 도와줄 도우미가 필요하고, 시청각, 언어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나 길안내 등이 필요하고,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외출 시 보호의 역할을 담당할 외출도우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유형별로 외출 시 도움의 방식이 차별화되어야 할 것으로 의미하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적인 감수성과 민감성이 개인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문화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 맞는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 및 여가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문화이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완화 목적의 사업, 둘째, 장애인이동과 접근성 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 현장의 환경 개선, 셋째, 장애인의 문화적 민감성과 문화적 감수성 개발 과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의 확대, 즉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등 장애인 개개인이 직접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문화관람권 지원확대, 현재 진행중인 소수의 장애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다수의 장애인에게 혜택 가능한 프로그램, 예컨대, 찾아가는 문화행사, 문화바우처 등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적인 불리와 차별을 극복하고 사회 소통과 통합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절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장애인의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장애인은 고령화되어 가고, 그들의 자녀들 또한 중·장년기로 접어들어 장애인 가족 전체가 고령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가정에 장애인 부모와 장애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 즉 한 가정에 1인 이상의 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몇 가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들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과 불편함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같이 신체적 제약으로 몸의 움직임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사지원 서비스나 이동을 도와 줄 수 있는 활동보조인 등 에 대한 욕구가 높고, 시·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및

외출지원서비스 등의 욕구가 높다. 또한 심장, 신장, 호흡기 등의 장애인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지적자폐성 및 정신장애인 등은 외출지원이나, 교육지원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차별화된 서비스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녀 돌봄 서비스, 양육지원, 교육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 복지를 계획함에 이처럼 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인 당사자의 연령, 자녀유무, 자녀의 장애유무,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자녀양육의 조력자 유무, 배우자의 유무, 배우자의 장애유무, 등 장애인 자신의 장애특성 외에도 장애인이 속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사노동과 자녀의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자신들의 장애로 인해 물리적 제한과 기능의 부족, 사회적 관계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건강 및 안전, 훈육 및 생활지도, 성장발달을 위한 활동 등을 포함하며, 이는 집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활동들로 구성된다.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장애로 인한 가사 및 자녀 돌봄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

제8절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장애인이 느끼는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약간 만족'이라는 응답이 5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매우 만족'(30.9%), '약간 불만족'(14.5%), '매우 불만족'(4.2%)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정신장애는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17.4%로 낮아 정신장애는 가족 내에서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인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가 34.6%로 친구 수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심하고 다음이 지적장애(28.2%)와 자폐성장애(22.7%)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정신적 장애, 즉 정신장애,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약간 만족'(29.3%), '매우 불만족'(26.2%), '매우 만족'(4.6%)의 순이며,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정도는 불만족인 경우가 66.1%로 비교적 높아 향후 국가차원의 장애인 건강증진 대책이 필요하다.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고 다음이 '매우 불만족'(26.4%), '약간 만족'(26.2%), '매우 만족'(2.8%)의 순이다.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71.1%로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는 응답이 각각 25.4%와 58.8%로 장애인이 결혼생활 만족하는 정도가 84.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결혼의사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결혼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시 주 상담자는 '가족'이 6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없음'(14.9%), '친척, 친구, 이웃'(8.8%),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3.0%) 등의 순서로 드러났다. 장애인 가족은 상담과 함께 장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해야 하므로 이들을 위한 상담교육이나 도움방법 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이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정신적 폭력'(19.9%), '신체적 폭력'(9.4%), '방임 및 유기'(9.0%), '경제적 폭력'(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번한 가족 내 폭력 유형인 언어폭력과 정신적 폭력 예방 교육이 시급히 요구된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는 '없다'는 응답이 98.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러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10.7%), 언어장애(5.5%) 및 지적장애(4.9%)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하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가해자는 '모르는 사람'(39.6%), '이웃'(19.8%), '기타'(12.5%), '근친(가족)'(10.2%), '남자친구'(8.8%) 등의 순서로 드러나 '모르는 사람'이나 '이웃'처럼 상대적 비중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 장애인들은 평소에 특별히 조심하고 각급학교, 경찰서, 관공서 등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은 '참는다'라는 응답이

51.5%로 가장 많고 다음은 '그 자리에서 항의'(16.9%), '몰라서 그냥 넘어감'(14.9%),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러 대처방법 중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가 68.1%로 상당히 많고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도 그 비율이 각각 22.8%와 19.9%로 드러났다. 향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과 훈련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자 또는 시설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64.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약간 필요'도 31.6%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자 또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95.6%나 차지해 관련 상담자나 시설 확보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차별 정도(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는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47.1%로 여러 차별유형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아 소위 장애학생 '왕따' 현상이 아직까지 심각함을 시사한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의 차별경험 비율이 7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지적장애(65.0%), 언어장애(59.7%), 정신장애(58.2%) 등의 순서로 나타나 장애유형별 대책마련도 동시에 필요함을 말해준다. 장애인이 취업시 차별을 경험한 경우는 35.8% 그리고 직장에서 소득(임금)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3.9%로 드러나 장애인들은 일상이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생활 영역에서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된다. 보험제도상(계약시) 차별의 경우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45.4%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개선노력이 꼭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68.7%로 가장 많았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해 향후 동법의 적극적 홍보도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제9절 주거

장애인의 집의 소유형태를 보면, 일부 장애유형의 주거 불안정이 우려된다. 뇌전증장애, 정신장애 및 안면장애는 자가 또는 전세의 비율이 낮고 월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세 금액도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또한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을 보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이 양호하지 않은 주택이 21.9%,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지 못한 주택이 17.1%,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이 있는 주택이 13.9% 등으로 2011년 조사에 비해 오히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주택이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단 발생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이 구비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3에 불과하였다. 더 나아가 집 구조의 생활 편리정도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5.3%는 매우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22.0%가 약간 불편하다고 하였다. 또한 주택개조를 원하는 장애인이 20.9%로 2011년의 19.2%에 비해 증가하였다. 반면에 주거복지사업 중 주택개조사업의 이용 경험은 장애인의 0.3%에 불과하여 2011년의 0.5%보다도 더 떨어졌다.

장애인의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은 2011년 8.9%에서 4.5%로 감소하였으며, 저소득층 월세지원도 3.8%에서 1.0%로,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도 1.6%에서 0.5%로 줄었다.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 경험만이 2011년 1.0%에서 5.1%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사업이 새로이 도입되었는데 이용 경험률은 각각 0.3%, 0.7%로 이용 경험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런데 주거복지사업의 이용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용경험자의 80% 이상이 만족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의 이용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그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국민)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나 저소득층 월세지원이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은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에 대해 대부분이 일반주택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도 일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주거정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연령이 많아서 쇠약해진 장애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일찍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고령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에서 살 경우 혼자 살고 싶은 장애인이 38만 2,500여명(15.2%)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혼자 거주하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와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원주택은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선우 외, 2014).

제10절 복지서비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의 기조하에서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더불어 장애인의 복지욕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에 있어서는, 소득보장 사업, 의료보장 사업,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 각종 세금 및 요금 감면 사업, 장애인 사회서비스 사업 등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2011년과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장애등록 이후의 복지혜택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변화하는 복지 욕구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이용 희망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1순위로 꼽혀 온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재활병·의원,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는 점인데, 이는 장애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욕구의 증가라는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지적·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사회재활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일반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특수학교(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정신적 장애인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욕구가 2011년에 이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과 함께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기의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등 과거의 조사에서 높게 나왔던 항목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현금급여의 대상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 그리고 의료비 지원 확대, 재활치료 수가 개선 및 의료재활서비스체계 개편 등 의료욕구의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11절 경제상태

장애인가구의 수입액은 2011년 조사에 비해서 증가하였고 중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도 약간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2/3가 넘는 장애인은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나 정신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 일부 장애유형의 빈곤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데, 이들 장애유형에서는 약 5명 중 4명이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구 수입액이 전체 장애인가구 평균보다 20만 원 이상 낮았다. 이에 따라, 뇌전증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전증장애 및 지적장애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체 장애인 35.0%의 절반 이하에 머물러 앞으로 이들 장애인의 빈곤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평균 16만 4,200원으로 나타나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2~8만원 및 장애수당 4만원의 2~4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2%,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1.5%, 보호·간병비의 비중도 8.3%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추가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에서 장애인의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하여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 없이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간병비의 부담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으로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서 보호·간병비를 현재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는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발달장애인의 부모 사후 지원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차량과 관련하여 장애인 차량의 LPG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면서 LPG 차량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그만큼 장애인의 차량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다는 의미인데, 추가비용 중에서 교통비가 2만 5,600원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매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에게 택시바우처를 지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애인 자동차 표지 중에서 주차가능 표지가 50만 1,8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의 확대와 함께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관리부서에서 장애인자동차주차구역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경미(2005).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이후 삶의 변화에 관한 연구: 신체적, 심리적, 사회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253-274.

김미옥(2002).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10, 9-36.

김용득·김진우·유동철(편).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 복지, 2007

김성희·변용찬·손창균·이연희·이민경·이송희·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1

김성희·변용찬·이송희·조흥식·김찬우·이승기·석재은,『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김정희(2012).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의 가족지원 방안”. 제2차 장애인정책토론회 자료집, 1-29.

김정희·정은주·최선희,『여성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연구: 시각·청각·지적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문화관광부,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2012

_____, 장애인문화예술인 실태 및 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2012

백은령·이은미·오혜경(2009). “여성장애인의 모성경험 특성 및 출산력 결정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11, 113-149.

변용찬·서동우·이선우·김성희·황주희·권선진·계훈방,『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변용찬·김성희·윤상용·최미영·계훈방·권선진·이선우,『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변용찬·김성희·윤상용·강민희·손창균·최미영·오혜경,『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14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5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09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2009)」, 2010

보건복지부,「2011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2011

_____,「2011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2)」, 2011

_____,「201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1

_____,「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1
_____·질병관리본부,「2013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 2014
_____·질병관리본부,「2013 국민건강통계」, 2014
_____,「2014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2014
양혜원,「문화복지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오혜경·백은령(2003). "재가여성장애인의 모성관련 실태 및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황과 복지, 16, 247-284.
이선우·김용득·장기성·황소진·김수완,「장애인주거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복지개발원, 2014
이숙진(2011). "돌봄노동의 제도화와 여성들의 차이". 페미니즘연구, 11(2), 49-83.
임미화·양수정·김호진·김언아,『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전병태,『장애인예술인 창작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2010
조현성,『2008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2008
최복천·곽지영·노혜진,『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20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애인 예술활동 지원방안』, 2007
한국장애인개발원,『2013 장애인백서』, 2014
홍승아·이영미(2009).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아동기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8(1), 119-158.
통계청,『한국의 사회지표』, 2011.
_____,『한국의 사회지표』, 2013.
_____,『한국통계월보』, 2011.
_____,『2010 경제활동인구연보』, 2010.
_____,『2010 인구주택총조사』.
_____, 사망원인 통계연보, 각 년도
하순영·이광희·김대업·박종석(2000). 장애인 입소시설과 특수학교의 구강건강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7(2), pp.192-201. 대한소아치과학회(1999). 소아.청소년 치과학, 신흥인터내셔날, 475-494

WHO·보건복지부,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CF), 2004.

ESCAP, Guidelines for cognitive and pilot testing of disability questions for use in surveys, 2010.

Lehtonen, R, Pahkinen, E. Practical Methods for Design and Analysis of Complex Surveys, 2nd Eds. John Wliey & Sons, 2004.

Sarndal, C.E., Lundstrorm S., Estimation in Surveys with Nonresponse, John Wliey & Sons, 2005

Schalock, R. L., Stark, J. A., Snell, M. E., Coulter, D. L., Polloway, E. A., Luckasson, R., Reiss, S., & Spitalnick, D. M., "The Changing Conception of Mental Retardation for the Field", Mental Retardation, 1994, pp.181~193.

Thopmson, S.K. Sampling, 2nd Eds, John Wliey & Sons, 2002.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

부 록

[부록 1] 조사 지역

지 역			지 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서울	성동구	행당1동	부산	동구	범일4동
서울	광진구	구의1동	부산	부산진구	양정1동
서울	광진구	자양2동	부산	남구	용호3동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동	부산	북구	구포1동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부산	북구	화명1동
서울	중랑구	면목4동	부산	북구	만덕2동
서울	중랑구	상봉1동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부산	해운대구	좌2동
서울	도봉구	방학1동	부산	사하구	신평2동
서울	도봉구	방학3동	부산	사하구	장림2동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부산	사하구	다대1동
서울	은평구	갈현2동	부산	사하구	감천1동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부산	금정구	남산동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부산	금정구	구서2동
서울	마포구	망원1동	부산	연제구	연산3동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양천구	신정7동	(대구광역시)		
서울	강서구	등촌3동	대구	동구	불로·봉무동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대구	서구	평리4동
서울	강서구	화곡2동	대구	남구	대명9동
서울	강서구	화곡3동	대구	북구	산격1동
서울	구로구	오류2동	대구	북구	읍내동
서울	금천구	시흥5동	대구	북구	관음동
서울	영등포구	당산1동	대구	수성구	만촌2동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대구	수성구	파동
서울	서초구	서초2동	대구	수성구	두산동
서울	강남구	수서동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울	송파구	방이2동	대구	달서구	상인1동
서울	송파구	오륜동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인천광역시)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인천	동구	송현3동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인천	남구	주안8동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인천	연수구	연수1동
서울	강동구	암사2동	인천	연수구	동춘3동
서울	강동구	암사1동	인천	남동구	구월2동
서울	강동구	천호2동	인천	남동구	만수4동

지 역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인천	부평구	부개2동
인천	부평구	부개3동
인천	계양구	계산1동
(광주광역시)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서구	풍암동
광주	남구	방림2동
광주	북구	임동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전광역시)		
대전	동구	성남동
대전	중구	오류동
대전	중구	유천1동
대전	서구	복수동
대전	서구	괴정동
대전	서구	둔산3동
대전	대덕구	중리동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삼산동
울산	남구	선암동
울산	북구	농소1동
울산	북구	농소3동
울산	북구	염포동
(경기도)		
경기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경기	수원시장안구	율천동
경기	수원시장안구	정자3동
경기	수원시권선구	세류2동
경기	수원시권선구	평동
경기	수원시팔달구	우만1동
경기	수원시영통구	영통2동
경기	성남시수정구	태평1동
경기	성남시수정구	태평2동
경기	성남시수정구	수진2동
경기	성남시분당구	수내1동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경기	의정부시	송산2동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1동
경기	안양시동안구	부흥동

지 역		
경기	부천시원미구	중4동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1동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3동
경기	광명시	하안1동
경기	평택시	중앙동
경기	평택시	서정동
경기	평택시	송북동
경기	동두천시	중앙동
경기	고양시덕양구	화정2동
경기	고양시덕양구	행신1동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정발산동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송포동
경기	구리시	인창동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경기	오산시	중앙동
경기	오산시	남촌동
경기	오산시	신장동
경기	오산시	세마동
경기	시흥시	정왕4동
경기	의왕시	내손2동
경기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경기	용인시기흥구	신갈동
경기	용인시수지구	풍덕천2동
경기	파주시	파주읍
경기	파주시	탄현면
경기	포천시	선단동
경기	여주군	여주읍
(강원도)		
강원	춘천시	서면
강원	춘천시	후평1동
강원	춘천시	효자3동
강원	춘천시	강남동
강원	원주시	단구동
강원	강릉시	포남1동
강원	강릉시	포남2동
강원	동해시	미탄면
강원	양구군	양구읍
강원	양양군	양양읍
강원	양양군	강현면

지 역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상당구	용담·명암·산성동
충북	청주시흥덕구	성화·개신·죽림동
충북	청주시흥덕구	가경동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충북	충주시	호암·직동
충북	제천시	봉양읍
충북	제천시	청전동
충북	제천시	옥천읍
충북	진천군	문백면
충북	단양군	가곡면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청남도)		
충남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충남	천안시동남구	청룡동
충남	천안시서북구	성정1동
충남	아산시	배방읍
충남	아산시	온양6동
충남	서산시	운산면
충남	서산시	동문1동
충남	서산시	수석동
충남	논산시	부창동
충남	계룡시	엄사면
충남	홍성군	광천읍
충남	홍성군	결성면
충남	홍성군	갈산면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완산구	평화2동
전북	전주시완산구	효자2동
전북	전주시완산구	풍남동
전북	전주시완산구	노송동
전북	전주시덕진구	송천2동
전북	군산시	삼학동
전북	군산시	나운3동
전북	익산시	금마면
전북	익산시	춘포면
전북	남원시	이백면
전북	남원시	금동
전북	순창군	순창읍
전북	부안군	부안읍
(전라남도)		
전남	목포시	원산동
전남	목포시	동명동

지 역		
전남	목포시	용해동
전남	순천시	낙안면
전남	순천시	서면
전남	순천시	덕연동
전남	순천시	왕조1동
전남	나주시	노안면
전남	광양시	광양읍
전남	담양군	월산면
전남	곡성군	오곡면
전남	곡성군	고달면
전남	장흥군	장흥읍
전남	강진군	병영면
전남	해남군	해남읍
전남	영암군	영암읍
전남	영암군	시종면
전남	함평군	해보면
(경상북도)		
경북	포항시남구	송도동
경북	포항시북구	흥해읍
경북	안동시	강남동
경북	구미시	도량동
경북	구미시	인동동
경북	구미시	양포동
경북	영주시	휴천1동
경북	영천시	중앙동
경북	상주시	화남면
경북	상주시	남원동
경북	문경시	농암면
경북	경산시	동부동
경북	청도군	풍각면
경북	성주군	용암면
경북	칠곡군	석적읍
(경상남도)		
경남	진주시	이현동
경남	통영시	광도면
경남	통영시	미수1동
경남	사천시	서포면
경남	사천시	동서동
경남	사천시	향촌동
경남	김해시	주촌면
경남	김해시	북부동
경남	김해시	삼안동
경남	거제시	하청면

지 역			지 역	
			(제주특별자치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제주	일도2동
경남	양산시	원동면	제주	외도동
경남	양산시	상북면	제주	안덕면
경남	양산시	평산동	제주	동홍동
경남	의창구	팔룡동		
경남	마산합포구	구산면		
경남	마산합포구	완월동		
경남	합천군	쌍책면		
경남	합천군	덕곡면		

[부록 2] 장애 유형별 장애 출현율

〈부표 2-1-1〉 재가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0~9세	14,473	0.9	0.62	7,125	0.6	0.32	21,598	0.8	0.47
10~19세	46,601	3.1	1.46	24,928	2.2	0.86	71,529	2.7	1.18
20~29세	57,466	3.8	1.84	28,965	2.6	0.96	86,431	3.3	1.40
30~39세	124,735	8.2	3.24	53,170	4.7	1.42	177,905	6.7	2.34
40~49세	230,214	15.1	5.46	99,874	8.9	2.44	330,088	12.5	3.97
50~59세	376,184	24.6	9.96	186,245	16.6	4.95	562,429	21.3	7.46
60~69세	303,016	19.9	14.77	234,138	20.9	10.49	537,154	20.3	12.54
70세이상	373,715	24.5	22.98	485,216	43.3	18.78	858,931	32.5	20.40
계	1,526,403	100.0	6.31	1,119,661	100.0	4.56	2,646,064	100.0	5.43

〈부표 2-1-2〉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연령별 출현율 - 중복장애 포함

(단위: 명,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195	0.00	7,181	0.16	1,437	0.03	2,000	0.04
10~19세	5,794	0.10	5,214	0.09	5,281	0.09	5,601	0.09
20~29세	15,581	0.25	7,791	0.13	5,116	0.08	5,138	0.08
30~39세	74,531	0.98	16,846	0.22	19,763	0.26	12,523	0.16
40~49세	171,618	2.06	23,880	0.29	40,538	0.49	21,382	0.26
50~59세	325,815	4.32	52,082	0.69	58,404	0.77	47,634	0.63
60~69세	313,825	7.32	69,347	1.62	68,728	1.60	53,102	1.24
70세이상	466,377	11.08	120,020	2.85	109,873	2.61	166,231	3.95
계	1,373,737	2.82	302,362	0.62	309,140	0.63	313,611	0.64

주: 중복장애의 경우 개별장애 건으로 처리하여, 장애인 1인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장애유형에 모두 산정됨.

〈부표 2-1-2〉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연령별 출현율 - 중복장애 포함 (계속)

(단위: 명, %)

구분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6,328	0.14	9,863	0.22	3,408	0.07	0	0.00
10~19세	10,655	0.18	49,389	0.81	9,572	0.16	1,210	0.02
20~29세	7,562	0.12	45,924	0.75	7,724	0.13	5,344	0.09
30~39세	16,171	0.21	38,639	0.51	495	0.01	14,603	0.19
40~49세	12,226	0.15	24,424	0.29	687	0.01	39,291	0.47
50~59세	26,033	0.35	27,018	0.36	0	0.00	37,756	0.50
60~69세	16,650	0.39	11,839	0.28	0	0.00	8,984	0.21
70세이상	28,025	0.67	7,280	0.17	0	0.00	4,552	0.11
계	123,649	0.25	214,376	0.44	21,886	0.04	111,740	0.23

주: 중복장애의 경우 개별장애 건으로 처리하여, 장애인 1인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장애유형에 모두 산정됨.

〈부표 2-1-2〉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연령별 출현율 - 중복장애 포함 (계속)

(단위: 명, %)

구분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0	0.00	336	0.01	0	0.00	0	0.00
10~19세	0	0.00	282	0.00	0	0.00	0	0.00
20~29세	0	0.00	0	0.00	0	0.00	0	0.00
30~39세	6,688	0.09	456	0.01	339	0.00	304	0.00
40~49세	12,617	0.15	862	0.01	98	0.00	1,119	0.01
50~59세	21,296	0.28	1,522	0.02	1,468	0.02	6,666	0.09
60~69세	19,994	0.47	1,937	0.05	5,916	0.14	3,307	0.08
70세이상	15,046	0.36	3,704	0.09	8,434	0.20	928	0.02
계	75,642	0.16	9,098	0.02	16,255	0.03	12,323	0.03

주: 중복장애의 경우 개별장애 건으로 처리하여, 장애인 1인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장애유형에 모두 산정됨.

〈부표 2-1-2〉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연령별 출현율 - 중복장애 포함 (계속)

(단위: 명, %)

구분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0	0.00	0	0.00	989	0.02	21,598	0.47
10~19세	452	0.01	0	0.00	2,526	0.04	71,529	1.18
20~29세	493	0.01	0	0.00	2,503	0.04	86,431	1.40
30~39세	89	0.00	844	0.01	2,644	0.03	177,905	2.34
40~49세	552	0.01	396	0.00	3,484	0.04	330,088	3.97
50~59세	1,084	0.01	3,813	0.05	6,349	0.08	562,429	7.46
60~69세	104	0.00	5,330	0.12	3,053	0.07	537,154	12.54
70세이상	841	0.02	7,529	0.18	1,250	0.03	858,931	20.40
계	3,615	0.01	17,912	0.04	22,798	0.05	2,646,064	5.43

주: 중복장애의 경우 개별장애 건으로 처리하여, 장애인 1인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장애유형에 모두 산정됨.

〈부표 2-1-3〉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연령별 출현율 - 주된 장애

(단위: 명,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195	0.00	6,722	0.15	402	0.01	2,000	0.04
10~19세	4,300	0.07	5,214	0.09	4,366	0.07	3,215	0.05
20~29세	14,427	0.23	7,317	0.12	4,808	0.08	5,138	0.08
30~39세	73,646	0.97	16,099	0.21	16,555	0.22	11,134	0.15
40~49세	169,676	2.04	22,713	0.27	36,689	0.44	20,781	0.25
50~59세	317,421	4.21	51,051	0.68	50,851	0.67	43,298	0.57
60~69세	307,288	7.17	67,192	1.57	59,790	1.40	46,793	1.09
70세이상	452,617	10.75	112,949	2.68	101,022	2.40	145,072	3.45
계	1,339,570	2.75	289,257	0.59	274,483	0.56	277,431	0.57

주: 주된 장애 비율임. 장애인 1인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주된 장애유형 한 가지로 산정됨.

〈부표 2-1-3〉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연령별 출현율 - 주된 장애 (계속)

(단위: 명, %)

구분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917	0.02	7,455	0.16	3,183	0.07	0	0.00
10~19세	860	0.01	41,784	0.69	9,482	0.16	1,210	0.02
20~29세	0	0.00	42,168	0.68	6,286	0.10	4,972	0.08
30~39세	5,123	0.07	33,353	0.44	0	0.00	13,243	0.17
40~49세	2,537	0.03	22,980	0.28	0	0.00	37,835	0.46
50~59세	4,192	0.06	23,585	0.31	0	0.00	35,167	0.47
60~69세	3,856	0.09	8,500	0.20	0	0.00	8,323	0.19
70세이상	3,914	0.09	2,508	0.06	0	0.00	4,252	0.10
계	21,399	0.04	182,333	0.37	18,951	0.04	105,002	0.22

주: 주된 장애 비율임. 장애인 1인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주된 장애유형 한 가지로 산정됨.

〈부표 2-1-3〉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연령별 출현율 - 주된 장애 (계속)

(단위: 명, %)

구분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0	0.00	336	0.01	0	0.00	0	0.00
10~19세	0	0.00	118	0.00	0	0.00	0	0.00
20~29세	0	0.00	0	0.00	0	0.00	0	0.00
30~39세	6,688	0.09	456	0.01	339	0.00	304	0.00
40~49세	11,746	0.14	862	0.01	98	0.00	1,119	0.01
50~59세	19,448	0.26	1,522	0.02	1,468	0.02	6,666	0.09
60~69세	18,948	0.44	1,459	0.03	5,916	0.14	2,823	0.07
70세이상	15,046	0.36	3,704	0.09	8,163	0.19	928	0.02
계	71,876	0.15	8,457	0.02	15,984	0.03	11,840	0.02

주: 주된 장애 비율임. 장애인 1인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주된 장애유형 한 가지로 산정됨.

〈부표 2-1-3〉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연령별 출현율 - 주된 장애 (계속)

(단위: 명, %)

구분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0	0.00	0	0.00	387	0.01	21,597	0.47
10~19세	452	0.01	0	0.00	528	0.01	71,529	1.18
20~29세	493	0.01	0	0.00	822	0.01	86,431	1.40
30~39세	89	0.00	211	0.00	665	0.01	177,905	2.34
40~49세	552	0.01	396	0.00	2,105	0.03	330,089	3.97
50~59세	1,084	0.01	3,514	0.05	3,161	0.04	562,428	7.46
60~69세	104	0.00	5,191	0.12	970	0.02	537,153	12.54
70세이상	239	0.01	7,393	0.18	1,126	0.03	858,933	20.41
계	3,013	0.01	16,705	0.03	9,764	0.02	2,646,064	5.43

주: 주된 장애 비율임. 장애인 1인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주된 장애유형 한 가지로 산정됨.

〈부표 2-1-4〉 재가 지체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195	0.01	0	0.00	195	0.00
10~19세	2,666	0.08	1,634	0.06	4,300	0.07
20~29세	11,131	0.36	3,296	0.11	14,427	0.23
30~39세	58,636	1.52	15,010	0.40	73,646	0.97
40~49세	131,907	3.13	37,769	0.92	169,676	2.04
50~59세	227,170	6.01	90,251	2.40	317,421	4.21
60~69세	166,286	8.10	141,002	6.32	307,288	7.17
70세이상	163,037	10.03	289,580	11.21	452,617	10.75
계	761,028	3.15	578,542	2.35	1,339,570	2.75

〈부표 2-1-5〉 재가 뇌병변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3,043	0.13	3,679	0.17	6,722	0.15
10~19세	3,781	0.12	1,432	0.05	5,213	0.09
20~29세	5,337	0.17	1,979	0.07	7,316	0.12
30~39세	8,131	0.21	7,968	0.21	16,099	0.21
40~49세	18,951	0.45	3,762	0.09	22,713	0.27
50~59세	35,486	0.94	15,565	0.41	51,051	0.68
60~69세	40,528	1.97	26,664	1.19	67,192	1.57
70세이상	54,863	3.37	58,085	2.25	112,948	2.68
계	170,120	0.70	119,134	0.48	289,254	0.59

〈부표 2-1-6〉 재가 시각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0	0.00	402	0.02	402	0.01
10~19세	2,749	0.09	1,617	0.06	4,366	0.07
20~29세	3,574	0.11	1,233	0.04	4,807	0.08
30~39세	13,988	0.36	2,567	0.07	16,555	0.22
40~49세	26,744	0.63	9,945	0.24	36,689	0.44
50~59세	33,788	0.89	17,062	0.45	50,850	0.67
60~69세	32,454	1.58	27,337	1.22	59,791	1.40
70세이상	51,437	3.16	49,585	1.92	101,022	2.40
계	164,734	0.68	109,748	0.45	274,482	0.56

〈부표 2-1-7〉 재가 청각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1,865	0.08	135	0.01	2,000	0.04
10~19세	1,552	0.05	1,663	0.06	3,215	0.05
20~29세	2,746	0.09	2,393	0.08	5,139	0.08
30~39세	7,181	0.19	3,953	0.11	11,134	0.15
40~49세	11,049	0.26	9,732	0.24	20,781	0.25
50~59세	20,019	0.53	23,280	0.62	43,299	0.57
60~69세	28,501	1.39	18,292	0.82	46,793	1.09
70세이상	78,755	4.84	66,316	2.57	145,071	3.45
계	151,668	0.63	125,764	0.51	277,432	0.57

〈부표 2-1-8〉 재가 언어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634	0.03	283	0.01	917	0.02
10~19세	646	0.02	213	0.01	859	0.01
20~29세	0	0.00	0	0.00	0	0.00
30~39세	3,832	0.10	1,291	0.03	5,123	0.07
40~49세	501	0.01	2,036	0.05	2,537	0.03
50~59세	3,041	0.08	1,150	0.03	4,191	0.06
60~69세	3,106	0.15	750	0.03	3,856	0.09
70세이상	3,204	0.20	710	0.03	3,914	0.09
계	14,964	0.06	6,433	0.03	21,397	0.04

〈부표 2-1-9〉 재가 지적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5,394	0.23	2,061	0.09	7,455	0.16
10~19세	23,807	0.75	17,977	0.62	41,784	0.69
20~29세	25,223	0.81	16,945	0.56	42,168	0.68
30~39세	19,729	0.51	13,624	0.36	33,353	0.44
40~49세	13,133	0.31	9,848	0.24	22,981	0.28
50~59세	14,179	0.38	9,406	0.25	23,585	0.31
60~69세	3,999	0.19	4,500	0.20	8,499	0.20
70세이상	378	0.02	2,130	0.08	2,508	0.06
계	105,842	0.44	76,491	0.31	182,333	0.37

〈부표 2-1-10〉 재가 자폐성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2,745	437	3,182	0.12	0.02	0.07
10~19세	9,208	274	9,482	0.29	0.01	0.16
20~29세	4,848	1,438	6,286	0.15	0.05	0.10
30~39세	0	0	0	0.00	0.00	0.00
40~49세	0	0	0	0.00	0.00	0.00
50~59세	0	0	0	0.00	0.00	0.00
60~69세	0	0	0	0.00	0.00	0.00
70세이상	0	0	0	0.00	0.00	0.00
계	16,801	2,149	18,950	0.07	0.01	0.04

〈부표 2-1-11〉 재가 정신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0	0.00	0	0.00	0	0.00
10~19세	1,210	0.04	0	0.00	1,210	0.02
20~29세	3,292	0.11	1,680	0.06	4,972	0.08
30~39세	6,357	0.16	6,886	0.18	13,243	0.17
40~49세	20,863	0.49	16,971	0.41	37,834	0.45
50~59세	17,657	0.47	17,510	0.47	35,167	0.47
60~69세	3,931	0.19	4,392	0.20	8,323	0.19
70세이상	605	0.04	3,647	0.14	4,252	0.10
계	53,915	0.22	51,086	0.21	105,001	0.22

〈부표 2-1-12〉 재가 신장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0	0.00	0	0.00	0	0.00
10~19세	0	0.00	0	0.00	0	0.00
20~29세	0	0.00	0	0.00	0	0.00
30~39세	5,598	0.15	1,091	0.03	6,689	0.09
40~49세	4,161	0.10	7,584	0.19	11,745	0.14
50~59세	12,745	0.34	6,703	0.18	19,448	0.26
60~69세	12,048	0.59	6,900	0.31	18,948	0.44
70세이상	6,059	0.37	8,987	0.35	15,046	0.36
계	40,611	0.17	31,265	0.13	71,876	0.15

〈부표 2-1-13〉 재가 심장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336	0.01	0	0.00	336	0.01
10~19세	0	0.00	118	0.00	118	0.00
20~29세	0	0.00	0	0.00	0	0.00
30~39세	456	0.01	0	0.00	456	0.01
40~49세	694	0.02	168	0.00	862	0.01
50~59세	917	0.02	606	0.02	1,523	0.02
60~69세	1,133	0.06	326	0.01	1,459	0.03
70세이상	2,232	0.14	1,472	0.06	3,704	0.09
계	5,768	0.02	2,690	0.01	8,458	0.02

〈부표 2-1-14〉 재가 호흡기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0	0.00	0	0.00	0	0.00
10~19세	0	0.00	0	0.00	0	0.00
20~29세	0	0.00	0	0.00	0	0.00
30~39세	339	0.01	0	0.00	339	0.00
40~49세	0	0.00	98	0.00	98	0.00
50~59세	1,143	0.03	325	0.01	1,468	0.02
60~69세	4,205	0.20	1,712	0.08	5,917	0.14
70세이상	6,164	0.38	1,999	0.08	8,163	0.19
계	11,851	0.05	4,134	0.02	15,985	0.03

〈부표 2-1-15〉 재가 간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0	0.00	0	0.00	0	0.00
10~19세	0	0.00	0	0.00	0	0.00
20~29세	0	0.00	0	0.00	0	0.00
30~39세	0	0.00	304	0.01	304	0.00
40~49세	350	0.01	769	0.02	1,119	0.01
50~59세	5,464	0.14	1,202	0.03	6,666	0.09
60~69세	2,357	0.11	466	0.02	2,823	0.07
70세이상	700	0.04	227	0.01	927	0.02
계	8,871	0.04	2,968	0.01	11,839	0.02

〈부표 2-1-16〉 재가 안면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0	0.00	0	0.00	0	0.00
10~19세	452	0.01	0	0.00	452	0.01
20~29세	493	0.02	0	0.00	493	0.01
30~39세	89	0.00	0	0.00	89	0.00
40~49세	552	0.01	0	0.00	552	0.01
50~59세	1,084	0.03	0	0.00	1,084	0.01
60~69세	0	0.00	104	0.00	104	0.00
70세이상	0	0.00	239	0.01	239	0.01
계	2,670	0.01	343	0.00	3,013	0.01

〈부표 2-1-17〉 재가 장루·요루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0	0.00	0	0.00	0	0.00
10~19세	0	0.00	0	0.00	0	0.00
20~29세	0	0.00	0	0.00	0	0.00
30~39세	211	0.01	0	0.00	211	0.00
40~49세	0	0.00	396	0.01	396	0.00
50~59세	1,924	0.05	1,590	0.04	3,514	0.05
60~69세	3,498	0.17	1,694	0.08	5,192	0.12
70세이상	5,477	0.34	1,916	0.07	7,393	0.18
계	11,110	0.05	5,596	0.02	16,706	0.03

〈부표 2-1-18〉 재가 뇌전증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0~9세	260	0.01	127	0.01	387	0.01
10~19세	528	0.02	0	0.00	528	0.01
20~29세	822	0.03	0	0.00	822	0.01
30~39세	189	0.00	476	0.01	665	0.01
40~49세	1,309	0.03	797	0.02	2,106	0.03
50~59세	1,566	0.04	1,595	0.04	3,161	0.04
60~69세	970	0.05	0	0.00	970	0.02
70세이상	803	0.05	322	0.01	1,125	0.03
계	6,447	0.03	3,317	0.01	9,764	0.02

[부록 3] 재가장애인의 일반 특성

1. 보건의료건강

〈부표 3-1-1〉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직장건강보험	52.5	55.1	54.3	50.1	48.3	59.4	45.14	59.25	53.7	53.6
지역건강보험	32.1	28.6	30.0	32.9	32.4	28.2	28.31	31.36	30.2	30.6
의료급여1종	13.8	14.9	13.1	14.6	17.2	11.7	24.03	8.56	14.6	14.3
의료급여2종	1.4	1.2	2.6	2.4	2.0	0.3	2.43	0.69	1.4	1.4
기타	0.2	0.1	-	-	0.2	0.3	0.08	0.13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2〉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73.4	85.0	81.2	58.1	73.8	89.7	79.4	76.8	77.8	78.3
아니오	26.6	15.0	18.8	41.9	26.2	10.3	20.7	23.2	22.2	2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3〉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 곳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종합병원	33.0	28.4	43.3	34.2	28.9	30.7	33.5	27.9	30.1	30.9
재활병·의원	2.0	1.8	7.4	2.2	2.7	1.0	3.2	1.2	2.0	1.9
병·의원	59.1	63.5	19.5	56.5	63.8	62.7	56.4	65.3	61.7	61.1
보건소	1.3	1.1	1.3	0.1	0.7	1.9	1.1	1.4	1.3	1.2
한방병·의원	2.3	3.4	0.6	2.4	3.0	2.9	1.5	3.7	2.8	2.8
장애인복지관	1.0	0.9	13.4	2.7	0.4	0.2	2.2	0.2	1.0	0.9
기타	1.4	0.8	14.6	1.8	0.6	0.6	2.2	0.4	1.2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20,040	952,015	58,320	252,930	732,750	1,028,056	781,558	1,177,676	1,959,234	2,072,056

〈부표 3-1-4〉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는 목적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치료	83.8	86.3	46.5	75.0	86.0	88.8	85.3	84.0	84.5	84.9
재활	9.1	8.9	43.7	10.8	8.4	7.0	10.2	8.6	9.2	9.0
건강관리·예방	7.0	4.8	9.8	13.9	5.5	4.1	4.6	7.3	6.2	6.0
기타	0.1	-	-	0.2	0.1	-	-	0.1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19,735	951,715	58,087	252,930	732,445	1,027,988	781,258	1,177,371	1,958,629	2,071,450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1-5〉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83.1	78.8	68.2	81.3	82.8	78.8	78.9	82.7	81.3	81.1
병의원까지 방문하기 불편해서	1.1	3.7	2.4	1.2	1.7	2.9	2.0	1.5	1.7	1.8
의료기관의 장애인시설미비로 이용이 불편해서	0.2	0.2	-	-	0.4	-	0.5	-	0.2	0.2
돈이 없어서	6.3	9.2	22.0	4.8	6.8	9.4	8.2	6.2	7.0	7.0
진료받기 싫어서	2.4	2.9	-	2.5	1.6	4.9	2.4	2.7	2.6	2.5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3.5	1.1	3.6	4.4	2.8	0.1	1.3	3.6	2.8	2.8
의사가 정기적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2.8	2.9	-	3.7	2.3	3.0	2.9	2.8	2.8	2.8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0.6	1.3	3.8	1.4	0.5	0.2	2.0	-	0.7	0.8
기타	1.0	0.6	-	0.7	1.1	0.6	1.6	0.5	0.9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06,362	167,646	13,492	182,218	259,785	118,513	203,377	355,339	558,715	574,008

〈부표 3-1-6〉 평소 본인 건강 상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좋음	1.6	0.8	5.1	4.5	0.6	0.4	1.4	1.2	1.3	1.3
좋음	17.9	10.1	43.7	29.0	15.2	6.8	15.0	14.9	14.9	14.6
보통	34.4	25.8	32.4	37.6	36.2	23.3	27.2	33.9	31.3	30.7
나쁨	34.3	45.2	15.4	21.9	37.6	48.0	37.8	39.5	38.9	38.9
매우 나쁨	11.8	18.1	3.4	7.0	10.4	21.5	18.6	10.5	13.7	1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7〉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73.9	71.5	-	64.8	74.5	72.5	62.1	79.0	73.2	72.9
아니오	26.1	28.5	-	35.2	25.5	27.5	37.9	21.0	26.8	27.1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83,128	1,005,473	-	149,498	992,535	1,146,569	750,900	1,420,117	2,171,017	2,288,602

주: 40세 이상(비해당) 제외

〈부표 3-1-8〉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 내용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5.8	5.7	-	7.9	5.8	5.4	5.7	5.5	5.5	5.7
산업장 특수건강검진	0.4	-	-	0.6	0.3	0.1	0.1	0.3	0.2	0.2
건강보험 건강검진	82.8	82.3	-	76.9	80.9	84.8	72.2	86.7	82.4	82.6
의료급여대상	11.0	11.9	-	14.6	12.9	9.6	21.8	7.6	11.8	11.4
기타	0.1	0.1	-	-	-	0.2	0.2	-	0.1	0.1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48,209	719,155	-	96,849	739,591	830,924	465,999	1,122,276	1,588,275	1,667,364

〈부표 3-1-9〉 건강검진 받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경제적인 이유로	9.7	11.7	-	9.1	8.9	12.2	7.9	13.4	10.7	10.6
병의원등에 예약하기 힘들어서	7.3	6.6	-	4.9	8.7	6.0	5.0	8.8	7.0	7.0
교통편이 불편해서	9.1	12.7	-	1.4	5.1	16.9	11.2	9.9	10.5	10.8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	7.9	5.6	-	13.3	11.4	2.1	2.7	10.7	6.8	6.8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16.6	15.4	-	11.5	17.6	15.5	14.2	18.5	16.4	16.0
증상이 가벼워서	19.9	14.6	-	26.9	18.6	15.0	14.0	20.4	17.3	17.5
의사소통 어려움	7.2	8.4	-	14.0	8.4	6.1	13.8	2.3	7.9	7.7
의료기관의 장애인시설·설비 설치미비로 이용 불편	5.4	6.9	-	2.8	6.0	6.7	9.4	3.2	6.2	6.1
기타	17.0	18.1	-	16.3	15.3	19.5	21.9	12.8	17.2	17.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28,201	280,647	-	51,502	248,729	308,617	278,739	292,824	571,563	608,848

〈부표 3-1-10〉 최근 2년간 암검진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50.8	54.6	0.2	29.0	61.5	56.7	39.4	60.9	52.5	52.4
아니오	49.3	45.4	99.8	71.0	38.6	43.3	60.6	39.1	47.5	4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11〉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34.7	32.5	57.4	30.5	36.2	31.4	31.3	35.8	34.1	33.8
아니오	65.3	67.5	42.6	69.6	63.8	68.6	68.7	64.2	66.0	6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12〉 최근 1년간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예방접종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54.8	70.9	62.8	35.2	44.4	86.4	58.9	62.6	61.1	61.6
아니오	45.3	29.1	37.2	64.8	55.6	13.6	41.1	37.5	38.9	3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13〉 최근 1년간 입원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21.3	25.4	16.9	17.7	20.9	27.3	25.1	20.2	22.1	23.0
아니오	78.7	74.6	83.1	82.4	79.1	72.7	74.9	79.8	77.9	7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14〉 최근 2주간 병의원(치과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 받은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50.7	59.3	47.1	37.2	51.9	63.5	51.0	55.5	53.7	54.4
아니오	49.3	40.7	52.9	62.8	48.1	36.5	49.0	44.5	46.3	4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15〉 (장애발생 이후) 최근 1년간 병의원, 응급실 등에서 치료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 발생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7.2	8.5	8.4	6.4	8.5	7.5	7.0	7.6	7.4	7.8
아니오	92.8	91.5	91.6	93.6	91.5	92.5	93.0	92.4	92.6	9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16〉 (장애발생 이후) 사고 및 중독 발생한 원인사고나 중독 발생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운수사고	23.7	15.4	20.6	23.1	26.0	12.6	18.0	22.2	20.6	19.8
추락/미끄러짐	43.3	58.0	38.2	32.4	41.8	64.9	47.2	51.4	49.9	50.2
부딪힘	15.6	8.1	21.9	24.6	11.6	7.9	20.2	7.7	12.4	12.1
열상/자상/절단/관통상(베임)	9.9	10.5	10.7	10.8	15.1	5.1	9.3	9.4	9.4	10.2
화상	2.3	0.7	-	0.7	1.5	1.9	2.8	1.0	1.7	1.5
질식	1.0	2.6	-	-	1.6	2.6	1.6	2.1	1.9	1.7
익수(물에빠짐)	0.4	0.2	-	0.8	-	0.5	0.3	0.4	0.3	0.3
중독	2.0	1.2	-	2.0	2.4	0.8	1.2	2.2	1.8	1.6
기타	7.1	6.1	8.6	8.0	5.3	7.3	5.7	6.8	6.4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9,461	95,569	6,058	27,844	84,711	86,417	68,674	116,529	185,203	205,029

주: 중복응답임. 한 사람이 3개까지 응답함.

〈부표 3-1-17〉 가장 최근 치료 받은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진료의 질 등)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6.1	8.9	5.1	4.9	6.3	9.1	7.3	7.2	7.2	7.3
만족	61.6	63.3	57.0	58.9	60.0	65.8	60.0	63.6	62.2	62.3
보통	25.7	22.1	29.3	29.1	26.9	19.9	25.5	23.6	24.4	24.2
별로 만족하지 않음	5.7	4.9	6.2	6.1	5.9	4.7	5.9	5.1	5.4	5.4
전혀 만족하지 않음	0.9	0.8	2.4	1.0	1.0	0.6	1.3	0.5	0.8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43,908	1,089,328	67,155	384,307	949,552	1,132,222	931,121	1,478,390	2,409,511	2,533,236

〈부표 3-1-18〉 가장 최근 이용한 병의원의 의료진(의사, 간호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그렇다	12.3	15.7	16.1	13.2	12.9	14.5	16.9	11.7	13.7	13.8
그렇다	52.3	56.0	52.2	49.0	51.1	58.0	55.3	53.2	54.0	53.9
보통	21.0	18.3	17.2	22.6	21.5	17.7	19.0	20.4	19.8	19.8
별로 그렇지 않음	11.2	7.8	11.6	11.6	10.6	8.3	7.4	11.3	9.8	9.7
전혀 그렇지 않음	3.2	2.3	3.0	3.6	3.9	1.5	1.5	3.5	2.7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44,631	1,089,629	67,879	384,607	949,552	1,132,222	932,145	1,478,390	2,410,534	2,534,260

〈부표 3-1-19〉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70.0	83.7	33.8	45.5	73.3	92.0	74.4	75.8	75.2	75.8
아니오	30.0	16.3	66.2	54.5	26.7	8.0	25.6	24.3	24.8	2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20〉 만성질환 현황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고혈압										
유	51.7	53.5	-	17.4	48.1	63.5	47.0	55.5	52.2	52.6
무	48.3	46.5	100.0	82.7	51.9	36.5	53.0	44.5	47.8	47.4
이상지혈증										
유	11.4	13.5	1.5	4.7	13.8	13.1	10.2	13.5	12.2	12.4
무	88.6	86.5	98.5	95.3	86.2	86.9	89.8	86.5	87.8	87.7
뇌졸중(중풍)										
유	13.7	12.0	0.7	2.5	11.3	16.2	18.9	9.2	13.0	12.9
무	86.3	88.0	99.3	97.5	88.7	83.8	81.1	90.8	87.0	87.1
심근경색증										
유	5.0	3.9	1.4	0.8	2.7	6.5	3.9	4.9	4.5	4.5
무	95.0	96.2	98.6	99.2	97.3	93.5	96.1	95.1	95.5	95.5
협심증										
유	4.3	5.4	-	0.6	3.3	6.7	3.5	5.7	4.9	4.8
무	95.7	94.6	100.0	99.4	96.7	93.3	96.5	94.3	95.1	95.2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유	18.4	42.5	2.6	7.1	21.3	40.3	21.1	34.5	29.3	29.7
무	81.6	57.5	97.4	92.9	78.7	59.7	78.9	65.5	70.7	70.3
류마치스관절염										
유	1.6	5.6	-	2.0	3.0	4.2	2.4	4.0	3.4	3.5
무	98.4	94.4	100.0	98.0	97.0	95.9	97.6	96.0	96.6	96.5
요통										
유	13.3	20.5	3.4	5.9	14.7	20.4	10.8	19.8	16.3	16.7
무	86.7	79.5	96.6	94.1	85.3	79.6	89.2	80.2	83.7	83.3
폐결핵										
유	0.5	0.5	-	0.4	0.3	0.6	0.8	0.3	0.5	0.5
무	99.5	99.5	100.0	99.6	99.7	99.4	99.2	99.7	99.5	99.5
천식										
유	3.3	3.9	8.3	1.3	1.9	5.1	3.4	3.7	3.6	3.6
무	96.7	96.1	91.8	98.8	98.1	95.0	96.6	96.3	96.4	96.4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유	2.8	1.9	3.3	1.2	1.8	3.0	2.8	2.0	2.3	2.4
무	97.2	98.1	96.7	98.9	98.2	97.0	97.2	98.0	97.7	97.6
우울증										
유	7.1	11.3	0.5	17.6	9.2	7.6	13.2	6.1	8.8	9.1
무	92.9	88.7	99.5	82.4	90.8	92.4	86.8	93.9	91.2	91.0
아토피 피부염										
유	2.0	2.2	19.7	3.7	2.0	1.5	3.0	1.7	2.2	2.1
무	98.0	97.8	80.3	96.3	98.0	98.5	97.0	98.3	97.8	97.9
신부전										
유	4.4	3.7	-	5.3	3.9	4.0	7.6	1.6	3.9	4.1
무	95.6	96.3	100.0	94.7	96.1	96.0	92.4	98.5	96.1	95.9
당뇨병										
유	25.9	24.2	1.6	9.7	24.5	29.0	25.3	24.5	24.8	25.1
무	74.1	75.8	98.4	90.3	75.5	71.0	74.8	75.5	75.2	74.9
갑상선장애										
유	1.4	5.9	2.2	3.0	3.6	3.7	3.3	3.4	3.4	3.5
무	98.6	94.1	97.8	97.0	96.4	96.3	96.7	96.6	96.6	96.5
위암										
유	1.2	0.4	-	-	0.5	1.2	0.7	0.9	0.8	0.8
무	98.9	99.6	100.0	100.0	99.5	98.9	99.3	99.1	99.2	99.2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간암										
유	0.6	0.2	-	-	0.6	0.4	0.1	0.5	0.3	0.4
무	99.4	99.8	100.0	100.0	99.4	99.6	99.9	99.5	99.7	99.6
대장암										
유	1.0	0.3	-	-	0.5	1.0	0.5	0.8	0.6	0.7
무	99.0	99.7	100.0	100.0	99.5	99.1	99.6	99.2	99.4	99.3
유방암										
유	-	0.7	-	0.2	0.4	0.3	0.1	0.4	0.3	0.3
무	100.0	99.3	100.0	99.8	99.6	99.7	99.9	99.6	99.8	99.7
자궁경부암										
유	-	0.4	-	-	0.3	0.1	0.2	0.2	0.2	0.2
무	100.0	99.6	100.0	100.0	99.7	99.9	99.8	99.8	99.8	99.8
폐암										
유	0.2	0.1	-	-	-	0.3	0.1	0.1	0.1	0.1
무	99.8	99.9	100.0	100.0	100.0	99.8	99.9	99.9	99.9	99.9
기타암										
유	2.7	1.9	0.7	2.4	2.2	2.4	1.6	2.6	2.2	2.3
무	97.3	98.2	99.4	97.6	97.9	97.6	98.4	97.4	97.8	97.7
위십이지장궤양										
유	2.6	2.9	-	1.5	2.7	3.1	2.5	2.9	2.7	2.7
무	97.4	97.1	100.0	98.5	97.3	97.0	97.5	97.2	97.3	97.3
B형간염										
유	1.5	0.7	-	2.8	1.9	0.3	1.4	1.0	1.1	1.1
무	98.5	99.3	100.0	97.3	98.1	99.7	98.6	99.0	98.9	98.9
C형간염										
유	0.2	0.1	-	0.2	0.1	0.3	0.1	0.3	0.2	0.2
무	99.8	99.9	100.0	99.8	99.9	99.7	99.9	99.7	99.8	99.8
간경변증										
유	1.0	0.5	-	0.3	1.2	0.5	0.8	0.7	0.7	0.7
무	99.1	99.5	100.0	99.7	98.8	99.5	99.2	99.3	99.3	99.3
기타										
유	38.1	36.6	69.6	56.6	34.8	34.8	43.4	33.5	37.4	37.4
무	61.9	63.4	30.4	43.4	65.2	65.2	56.6	66.5	62.7	6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67,897	937,328	24,301	197,953	727,965	1,055,005	732,602	1,161,271	1,893,873	2,005,225

〈부표 3-1-21〉 (고혈압인 경우) 혈압조절을 위해 현재 혈압약 복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95.8	97.6	-	81.1	94.2	98.7	95.8	97.4	96.8	96.6
아니오	4.3	2.4	-	18.9	5.9	1.3	4.2	2.7	3.2	3.4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52,496	501,438	-	34,341	349,869	669,724	344,387	644,777	989,164	1,053,934

〈부표 3-1-22〉 (고혈압인 경우) 혈압조절을 위해 현재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 복용 일수

(단위: 일)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평균	29.9	29.9	-	29.7	29.8	29.9	29.8	29.9	29.9	29.9
SD	1.43	1.52	-	1.98	1.66	1.35	2.10	1.09	1.52	1.48

〈부표 3-1-23〉 (골관절염인 경우) 약물복용 상관없이 관절 통증의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평균	6.4	6.9	3.0	5.9	6.4	6.9	6.7	6.6	6.7	6.7
SD	1.97	1.87	0.00	2.55	2.02	1.83	2.03	1.87	1.91	1.92

〈부표 3-1-24〉 (우울증인 경우) 현재 우울증 치료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69.5	79.7	100.0	83.1	80.6	67.8	83.4	65.2	75.8	75.5
아니오	30.5	20.3	-	16.9	19.4	32.3	16.6	34.8	24.2	2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5,413	106,147	127	34,861	66,801	79,771	96,486	70,338	166,823	181,560

〈부표 3-1-25〉 (당뇨병인 경우) 혈당 관리하기 위해 치료 받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97.3	96.2	100.0	92.8	96.1	97.4	97.2	96.1	96.5	96.8
아니오	2.7	3.8	-	7.2	3.9	2.6	2.8	3.9	3.5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76,475	227,155	387	19,113	178,292	305,839	184,947	284,425	469,372	503,630

〈부표 3-1-26〉 (당뇨병인 경우) 혈당 관리하기 위해 받고 있는 치료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인슐린 주사										
예	14.0	10.3	42.5	23.9	14.9	10.1	16.3	10.2	12.6	12.3
아니오	86.0	89.7	57.5	76.1	85.1	89.9	83.8	89.8	87.4	87.7
당뇨병약										
예	91.7	93.7	57.5	83.3	90.1	94.6	89.7	94.0	92.3	92.6
아니오	8.3	6.3	42.5	16.7	10.0	5.4	10.3	6.0	7.7	7.4
비약물요법										
예	29.6	27.4	57.5	19.6	30.8	27.9	25.9	30.8	28.8	28.6
아니오	70.4	72.6	42.5	80.4	69.3	72.1	74.1	69.2	71.2	71.4
기타										
예	0.4	0.4	-	-	0.6	0.2	-	0.5	0.3	0.4
아니오	99.6	99.6	100.0	100.0	99.4	99.8	100.0	99.5	99.7	9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8,952	218,437	387	17,733	171,344	297,925	179,788	273,343	453,131	487,389

〈부표 3-1-27〉 희귀 난치성 질환 갖고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6.9	8.2	19.2	10.3	6.3	6.6	13.0	3.5	7.2	7.4
아니오	93.1	91.8	80.8	89.7	93.7	93.4	87.0	96.5	92.8	9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28〉 희귀 난치성 질환 등록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64.6	54.7	81.1	62.0	60.6	54.5	65.5	50.1	60.9	60.0
아니오	34.5	44.7	18.9	38.0	38.0	44.7	33.8	49.2	38.4	39.3
신청중	0.9	0.6	0.0	0.0	1.4	0.8	0.7	0.8	0.7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2,140	89,719	13,163	43,165	62,057	73,474	124,731	53,283	178,014	191,858

〈부표 3-1-29〉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 유무 (치과 제외)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16.7	22.5	15.8	13.1	19.5	21.4	19.8	18.3	18.9	19.1
아니오	83.3	77.5	84.2	87.0	80.6	78.6	80.2	81.7	81.1	8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30〉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치과 제외)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경제적인 이유	59.2	58.3	60.5	49.3	63.9	56.8	52.2	64.2	59.3	58.8
병의원 등에 예약하기 힘들어서	1.7	2.1	-	1.6	2.4	1.6	0.9	2.3	1.7	1.9
교통편이 불편해서	11.6	18.9	3.1	8.1	6.5	24.3	17.5	12.9	14.8	15.2
내가갈수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	7.3	4.9	5.2	10.2	9.6	2.6	3.6	8.0	6.2	6.1
병원등에서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3.1	1.8	-	1.1	2.7	2.8	1.6	3.3	2.6	2.5
증상이 가벼워서	8.8	4.0	5.4	11.1	7.4	4.5	5.8	7.0	6.5	6.4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로 인해	1.6	2.1	2.6	4.0	1.4	1.6	4.0	0.6	2.0	1.9
의사소통의 어려움	4.6	4.4	12.5	12.6	3.7	2.9	9.4	1.0	4.5	4.5
기타	2.2	3.5	10.7	2.1	2.5	2.9	5.1	0.8	2.6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4,558	251,248	11,321	56,782	192,699	245,005	194,962	281,145	476,106	505,806

〈부표 3-1-31〉 최근 1년간 본인이 치과진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진료 받지 못한 적 유무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25.9	28.3	9.6	14.7	29.1	30.7	26.9	26.5	26.7	26.9
아니오	74.1	71.7	90.4	85.3	70.9	69.3	73.1	73.5	73.4	7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32〉 본인이 원하는 때 치과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경제적인 이유	79.6	79.9	57.7	63.4	80.9	82.2	74.9	82.8	79.7	79.7
치과병의원에 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0.9	0.6	-	0.3	1.3	0.5	1.1	0.7	0.8	0.8
교통편이 불편해서	4.0	5.3	9.4	5.3	1.7	6.8	7.2	2.6	4.4	4.6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치과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	3.2	1.4	2.4	7.0	3.8	0.5	0.9	3.6	2.5	2.4
치과병의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2.0	0.7	4.0	1.4	2.0	1.0	0.7	2.1	1.5	1.4
증상이 가벼워서	6.0	5.0	1.4	6.6	5.7	5.3	4.3	6.7	5.7	5.6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	1.2	1.4	8.2	2.6	1.2	1.0	2.9	0.2	1.3	1.3
의사소통의 어려움	1.7	2.6	11.4	8.5	1.4	1.4	4.9	0.2	2.1	2.1
기타	1.4	2.9	5.6	4.9	2.1	1.5	3.1	1.2	2.0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95,043	317,189	6,875	64,077	288,769	352,511	264,949	406,135	671,084	712,232

〈부표 3-1-33〉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여부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물리치료										
예	16.2	30.8	16.8	7.1	19.0	31.4	16.8	25.7	22.2	22.4
아니오	83.8	69.2	83.2	92.9	81.0	68.6	83.2	74.3	77.8	77.6
작업치료										
예	1.9	1.2	24.3	2.3	0.8	0.6	3.7	0.3	1.6	1.6
아니오	98.1	98.8	75.8	97.7	99.2	99.4	96.3	99.7	98.4	98.4
언어치료										
예	1.9	1.3	45.9	1.4	0.2	0.2	3.9	0.2	1.6	1.7
아니오	98.1	98.7	54.1	98.6	99.8	99.8	96.1	99.8	98.4	98.4
음악치료										
예	1.1	0.9	14.5	2.9	0.4	-	2.7	-	1.1	1.0
아니오	98.9	99.1	85.5	97.1	99.6	100.0	97.4	100.0	98.9	99.0
놀이치료										
예	0.8	0.5	9.2	1.6	0.3	0.1	1.7	-	0.7	0.7
아니오	99.2	99.5	90.8	98.4	99.7	99.9	98.3	100.0	99.3	99.3
미술치료										
예	1.2	0.9	20.4	2.4	0.2	0.1	1.1	0.1	1.1	1.1
아니오	98.8	99.1	79.6	97.6	99.8	99.9	38.1	60.8	98.9	98.9
심리행동치료										
예	1.5	0.3	16.6	1.7	0.7	-	2.2	0.2	1.0	1.0
아니오	98.5	99.7	83.4	98.3	99.4	100.0	97.9	99.8	99.0	99.0
기타										
예	1.4	0.7	16.9	2.0	0.5	0.3	2.5	0.2	1.1	1.1
아니오	98.6	99.3	83.1	98.0	99.5	99.7	97.5	99.8	98.9	9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34〉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 시간

(단위: 시간)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물리치료	2.4	2.4	2.9	2.1	2.5	2.4	2.6	2.4	2.5	2.4
작업치료	4.6	4.4	2.9	7.6	4.2	4.8	4.5	5.6	4.6	4.5
언어치료	2.0	1.9	1.8	1.7	3.3	3.8	2.0	2.3	2.0	2.0
음악치료	2.4	1.8	3.0	1.7	1.8	1.0	2.2	2.4	2.2	2.2
놀이치료	2.3	1.9	1.8	2.3	2.7	2.1	2.2	1.0	2.2	2.2
미술치료	1.7	1.9	1.5	2.1	2.5	1.5	1.7	3.4	1.8	1.8
심리·행동치료	2.3	2.3	1.6	3.8	1.8	-	2.4	1.2	2.3	2.3
기타	7.4	2.0	5.1	8.0	6.3	3.4	6.5	2.0	5.9	6.0

〈부표 3-1-35〉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단위: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물리치료	3.0	2.6	8.6	3.4	3.5	2.1	3.3	2.6	2.8	2.7
작업치료	5.5	4.3	5.8	2.6	1.9	12.3	4.0	14.5	5.0	5.2
언어치료	10.6	6.7	9.3	9.6	0.8	13.4	9.4	8.8	9.4	9.3
음악치료	1.9	3.4	5.1	1.0	-	-	2.4	7.4	2.5	2.5
놀이치료	5.0	5.8	9.3	3.4	-	3.2	4.6	20.0	4.8	5.3
미술치료	4.5	2.2	5.8	1.5	-	4.7	3.4	12.0	3.7	3.7
심리·행동치료	4.3	2.3	4.7	4.0	2.7	-	3.5	5.6	3.8	4.0
기타	6.5	16.7	10.7	4.4	11.3	13.3	7.2	18.2	8.6	9.2

〈부표 3-1-36〉 재활치료 바우처 여부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물리치료										
예	5.1	3.4	52.9	13.3	3.6	1.9	9.0	2.3	4.3	4.1
아니오	94.9	96.6	47.1	86.7	96.4	98.1	91.0	97.7	95.7	95.9
작업치료										
예	37.6	39.7	52.4	48.0	26.7	-	41.3	17.7	38.8	38.3
아니오	62.4	60.3	47.6	52.0	73.3	100.0	58.7	82.3	61.2	61.7
언어치료										
예	64.5	73.9	76.4	60.1	28.8	-	69.4	39.5	67.6	67.6
아니오	35.5	26.1	23.6	39.9	71.2	100.0	30.6	60.5	32.4	32.4
음악치료										
예	56.9	62.3	72.0	65.3	12.5	-	59.1	-	57.7	59.0
아니오	43.1	37.7	28.0	34.7	87.5	100.0	40.9	100.0	42.3	41.0
놀이치료										
예	45.9	49.5	56.3	57.5	18.0	-	49.9	-	48.3	47.1
아니오	54.1	50.5	43.7	42.5	82.0	100.0	50.1	100.0	51.7	52.9
미술치료										
예	64.0	64.1	74.9	60.7	32.5	-	66.7	-	63.5	64.1
아니오	36.0	35.9	25.1	39.3	67.5	100.0	33.3	100.0	36.6	35.9
심리행동치료										
예	47.1	84.2	78.9	40.9	14.5	-	63.3	-	55.5	51.9
아니오	52.9	15.8	21.2	59.2	85.5	-	36.7	100.0	44.5	48.1
기타										
예	51.1	40.9	63.6	60.0	16.7	11.1	52.5	3.1	46.4	46.4
아니오	48.9	59.1	36.4	40.0	83.3	88.9	47.5	96.9	53.6	53.6

〈부표 3-1-37〉 바우처 재원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물리치료										
예	99.0	100.0	100.0	100.0	100.0	98.1	99.2	100.0	99.5	99.5
아니오	1.0	-	-	-	-	1.9	0.9	-	0.5	0.5
작업치료										
예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아니오	-	-	-	-	-	-	-	-	-	-
언어치료										
예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아니오	-	-	-	-	-	-	-	-	-	-
음악치료										
예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100.0
아니오	-	-	-	-	-	-	-	-	-	-
놀이치료										
예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100.0
아니오	-	-	-	-	-	-	-	-	-	-
미술치료										
예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100.0
아니오	-	-	-	-	-	-	-	-	-	-
심리행동치료										
예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100.0
아니오	-	-	-	-	-	-	-	-	-	-
기타										
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아니오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표 3-1-38〉 바우처 제공기관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물리치료										
보건복지부	33.2	24.2	25.8	57.1	23.0	20.4	31.1	25.3	28.9	28.9
교육부	3.8	4.4	15.4	-	-	-	5.9	1.2	4.1	4.1
고용노동부	15.9	-	-	-	29.3	-	11.7	2.7	8.3	8.3
지자체	46.9	54.2	61.7	21.7	42.4	65.2	51.0	49.4	50.4	50.4
기타	-	3.2	2.1	-	-	3.4	2.5	-	1.5	1.5
작업치료										
보건복지부	23.8	35.0	16.2	47.8	28.8	-	29.2	-	27.8	27.4
교육부	15.8	26.2	25.8	15.2	-	-	17.2	30.3	17.8	19.1
고용노동부	10.9	-	-	7.6	37.5	-	7.9	-	7.5	7.4
지자체	45.2	38.8	44.5	44.8	33.7	-	42.5	69.7	43.8	43.1
기타	5.2	-	6.3	-	-	-	3.8	-	3.6	3.5
언어치료										
보건복지부	37.8	42.9	39.0	49.8	-	-	39.6	17.4	38.9	39.7
교육부	28.8	30.4	25.9	56.6	-	-	31.0	32.7	31.0	29.4
고용노동부	-	-	-	-	-	-	-	-	-	0.0
지자체	31.2	25.0	30.2	10.8	100.0	-	29.0	-	28.0	28.9
기타	-	-	-	-	-	-	-	-	-	-
음악치료										
보건복지부	34.6	69.9	35.9	63.2	-	-	46.0	-	46.0	48.7
교육부	21.8	11.1	32.7	5.0	-	-	18.5	-	18.5	17.5
고용노동부	5.4	-	7.0	-	-	-	3.4	-	3.4	3.2
지자체	34.6	19.0	12.8	38.0	100.0	-	29.9	-	29.9	28.3
기타	8.1	-	7.6	2.7	-	-	5.1	-	5.1	4.9
놀이치료										
보건복지부	52.0	28.5	55.9	38.5	-	-	44.0	-	44.0	44.0
교육부	26.0	33.8	44.5	17.6	-	-	28.7	-	28.7	28.7
고용노동부	6.5	-	9.4	-	-	-	4.3	-	4.3	4.3
지자체	46.0	37.7	14.9	62.5	100.0	-	43.2	-	43.2	43.2
기타	-	-	-	-	-	-	-	-	-	-
미술치료										
보건복지부	47.0	51.0	41.5	66.0	-	-	47.1	-	47.1	48.4
교육부	37.6	21.6	52.6	-	-	-	32.6	-	32.6	31.7
고용노동부	-	-	-	-	-	-	-	-	-	0.0
지자체	32.8	27.5	17.5	45.5	100.0	-	31.7	-	31.7	30.9
기타	-	-	-	-	-	-	-	-	-	-
심리행동치료										
보건복지부	17.0	30.9	24.2	7.0	19.8	-	20.0	-	20.0	20.0
교육부	19.1	46.3	35.3	-	-	-	24.8	-	24.8	24.8
고용노동부	-	-	-	-	-	-	-	-	-	0.0
지자체	47.5	22.8	22.2	93.0	80.2	-	42.3	-	42.3	42.3
기타	4.1	-	4.5	-	-	-	3.2	-	3.2	3.2
기타										
보건복지부	30.8	31.2	38.1	28.1	-	-	32.4	-	32.1	30.9
교육부	17.3	29.5	28.3	13.2	-	-	20.2	100.0	20.9	20.1
고용노동부	-	-	-	-	-	-	-	-	-	0.0
지자체	55.2	39.3	45.4	58.7	100.0	-	54.1	-	53.7	51.7
기타	4.9	-	-	-	-	100.0	-	-	-	3.8

〈부표 3-1-39〉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몰라서	3.8	6.3	5.3	7.6	4.2	4.0	6.4	3.3	4.5	4.8
시설이 없어서	1.5	1.9	8.1	2.3	1.1	1.8	2.3	1.4	1.7	1.7
믿지 못해서	1.5	3.0	2.1	1.6	1.9	2.4	1.7	2.0	1.9	2.1
다른 방법이 있어서	4.9	6.3	3.9	2.5	5.8	6.6	5.1	5.7	5.5	5.5
비용부담때문에	10.6	14.2	13.8	9.2	11.3	13.9	12.4	11.4	11.8	11.9
대기 중이어서	-	0.3	-	0.1	0.2	0.1	0.1	0.1	0.1	0.1
다닐 필요가 없어서	74.7	62.5	59.5	73.6	72.9	65.8	67.3	73.1	70.8	70.1
기타	2.9	5.6	7.4	3.1	2.7	5.5	4.6	3.1	3.7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19,479	746,489	22,561	372,088	791,489	779,831	746,400	1,128,140	1,874,539	1,965,968

〈부표 3-1-40〉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혹은 보건의료기관(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19.3	14.8	13.7	17.2	19.4	16.0	15.7	18.6	17.4	17.4
재활전문병원	33.4	27.1	23.6	31.6	34.4	27.6	25.6	34.0	30.8	30.7
요양병원	4.2	5.0	1.4	2.2	3.1	6.8	5.8	3.7	4.5	4.5
보건소	7.8	7.6	1.0	4.5	6.5	10.5	6.3	8.5	7.7	7.8
낮병원 또는 외래에서의 재활치료	7.2	6.9	5.4	6.0	7.3	7.3	5.3	8.2	7.1	7.0
방문 재활 치료	13.4	20.8	16.2	11.4	12.3	22.2	19.8	14.2	16.4	16.5
장애인 특화서비스 (여성전문, 치과, 소아 등)	10.0	13.9	34.3	21.7	12.7	5.5	16.6	8.5	11.7	11.7
주치의(단골의사)	4.4	3.8	3.2	5.2	4.1	3.8	4.6	3.9	4.2	4.1
기타	0.4	0.2	1.3	0.2	0.3	0.3	0.3	0.4	0.4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3,838	1,119,397	71,812	434,701	990,807	1,145,915	982,942	1,532,178	2,515,120	2,643,235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1-41〉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일 피움	28.3	3.2	-	24.4	27.0	7.7	14.9	19.7	17.8	17.7
가끔 피움	3.8	0.7	-	3.2	3.2	1.6	2.4	2.5	2.4	2.5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32.5	2.3	-	9.8	22.1	22.2	17.4	20.8	19.5	19.7
담배를 피운적이 없으며 현재에도 피우지 않음	35.4	93.8	100.0	62.6	47.7	68.6	65.3	57.1	60.3	6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07,361	1,109,896	43,005	435,148	992,535	1,146,569	961,264	1,529,973	2,491,237	2,617,257

〈부표 3-1-42〉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시도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28.2	32.9	-	34.2	30.4	23.1	27.9	28.7	28.4	28.5
아니오	71.8	67.1	-	65.8	69.6	76.9	72.1	71.3	71.6	71.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31,931	64,825	-	159,404	497,953	339,399	314,781	633,783	948,565	996,756

〈부표 3-1-43〉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전혀 마시지 않음	49.9	82.9	100.0	57.7	51.8	75.3	74.2	56.4	63.3	63.9
한달에 1번미만	5.0	4.6	-	6.0	5.0	4.4	3.5	5.6	4.8	4.8
한달에 1번정도	5.7	3.9	-	6.2	6.3	3.4	4.6	5.2	5.0	4.9
한달에 2-4번	13.1	5.2	-	13.7	13.5	5.3	6.5	12.1	10.0	9.7
일주일에 2-3번	16.5	2.5	-	12.9	15.1	6.2	6.9	13.3	10.9	10.6
일주일에 4번이상	9.9	0.9	-	3.5	8.3	5.4	4.2	7.3	6.1	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07,361	1,109,896	43,005	435,148	992,535	1,146,569	961,264	1,529,973	2,491,237	2,617,257

〈부표 3-1-44〉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2잔	22.5	60.3	-	23.5	20.1	51.0	33.9	28.4	29.8	30.0
3-4잔	25.3	24.4	-	22.8	26.3	24.6	27.4	24.4	25.2	25.1
5-6잔	15.9	7.9	-	16.1	17.4	7.8	12.8	14.5	14.1	14.3
7-9잔	23.1	6.3	-	22.3	22.9	12.6	18.4	20.8	20.1	19.7
10잔이상	13.3	1.1	-	15.3	13.2	3.9	7.6	11.9	10.8	10.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55,778	189,600	-	183,895	478,450	283,034	247,627	666,611	914,238	945,378

〈부표 3-1-45〉 지난 1년간 정기적인 운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63.9	58.2	58.6	57.6	64.1	60.8	56.9	64.5	61.6	61.5
아니오	36.2	41.8	41.5	42.4	35.9	39.2	43.1	35.5	38.5	3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46〉 지난 1년간 운동 횟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거의 매일	51.6	49.0	29.6	35.1	46.6	61.0	51.6	49.2	50.1	50.6
주 3회 이상	25.7	29.7	35.7	30.2	29.7	23.5	26.0	27.9	27.2	27.3
주 2회	11.1	13.7	18.2	15.9	12.8	9.9	13.0	12.1	12.4	12.1
주 1회	7.0	4.6	16.0	11.7	7.0	2.5	6.3	6.2	6.2	6.0
월 1~2회	3.6	2.4	0.4	6.1	3.1	2.1	2.5	3.6	3.2	3.1
월 1회 미만 또는 1년 10회 이내	1.1	0.7	-	1.2	0.8	1.0	0.7	0.9	0.8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74,583	651,467	42,043	250,712	636,441	696,854	560,865	989,050	1,549,915	1,626,050

〈부표 3-1-47〉 지난 1년간 매 회 당 운동 시간

(단위: %, 분,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30분 미만	7.4	14.7	4.5	5.9	7.8	14.5	10.4	10.0	10.2	10.3
30~60분 미만	35.6	47.6	41.6	34.3	36.7	46.0	41.9	38.9	40.0	40.4
60~90분 미만	32.8	28.9	40.4	35.9	33.7	26.7	31.9	31.2	31.5	31.2
90~120분 미만	6.0	2.9	5.9	6.3	5.6	3.4	3.7	5.3	4.7	4.7
120분 이상	18.3	6.0	7.7	17.5	16.3	9.5	12.2	14.6	13.7	1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시간	66.7	46.9	58.7	66.2	65.7	49.7	56.2	60.9	59.2	58.7
전국추정수	974,583	651,467	42,043	250,712	636,441	696,854	560,865	989,050	1,549,915	1,626,050

〈부표 3-1-48〉 주로 운동하는 장소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집안	9.6	14.0	6.4	8.1	11.2	13.0	12.7	10.4	11.2	11.4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68.8	67.7	27.1	58.5	70.9	72.1	63.4	70.9	68.2	68.4
복지관 체육시설	4.0	4.1	13.0	5.2	2.6	4.4	6.3	2.8	4.1	4.1
장애인 단체나 시설 내 강당 등	1.2	1.0	7.7	2.7	0.7	0.6	2.8	0.3	1.2	1.2
상업 스포츠 시설	7.1	4.6	18.8	13.2	6.3	2.5	4.9	7.0	6.2	6.1
근처 학교 운동장	3.8	3.9	8.5	5.1	3.8	3.2	3.6	4.0	3.8	3.9
공공체육시설(학교포함)	3.1	3.7	16.8	4.8	2.6	2.8	3.2	3.7	3.5	3.4
기타	2.3	1.0	1.7	2.5	1.9	1.4	3.1	1.1	1.8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74,583	651,467	42,043	250,712	636,441	696,854	560,865	989,050	1,549,915	1,626,050

〈부표 3-1-49〉 주로 참여하는 운동 종목(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수영	2.8	5.4	15.3	6.5	3.2	2.8	4.0	4.0	4.0	3.8
걷기(산책), 조깅	65.4	79.1	35.8	59.0	69.6	78.5	70.4	70.7	70.6	70.9
웨이트 트레이닝	6.7	1.6	2.7	10.5	5.4	2.0	5.1	4.6	4.8	4.6
탁구	1.1	0.2	1.3	1.7	0.9	0.3	1.0	0.7	0.8	0.8
볼링	0.1	0.1	-	0.3	0.1	-	0.1	0.1	0.1	0.1
맨손체조	4.7	7.2	9.2	3.1	4.7	7.4	5.6	5.7	5.7	5.7
배드민턴	0.6	0.4	1.2	1.0	0.7	0.2	0.6	0.5	0.5	0.6
줄넘기	0.2	0.1	6.4	-	-	-	0.4	-	0.2	0.2
등산	6.3	0.9	2.9	4.7	6.4	1.9	1.9	5.5	4.2	4.1
자전거	7.9	2.7	5.9	6.4	6.4	5.0	7.0	5.1	5.8	5.8
기타	4.2	2.3	19.5	6.8	2.8	1.9	4.1	3.2	3.5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74,583	651,467	42,043	250,712	636,441	696,854	560,865	989,050	1,549,915	1,626,050

〈부표 3-1-50〉 운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서	4.8	3.1	9.7	4.5	4.5	3.2	4.0	4.5	4.3	4.1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35.3	17.8	11.6	35.4	40.9	14.3	13.3	39.7	28.1	27.3
시설 접근 및 이동의 어려움 (보조인력 지원 포함)	6.9	13.6	18.2	5.4	6.8	13.9	12.3	8.3	10.0	10.0
전문 지도자가 없어서	0.9	1.3	1.3	2.4	1.1	0.6	2.0	0.4	1.1	1.1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6.8	5.2	5.6	8.4	7.4	4.1	5.4	7.0	6.3	6.1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서	2.3	2.8	10.6	3.2	2.9	1.5	2.8	2.3	2.5	2.5
장애가 심해서	33.7	47.3	31.5	29.4	28.6	53.8	51.1	28.8	38.5	39.9
관련 시설이 주위에 없어서	6.0	5.0	4.0	6.8	5.2	5.4	5.8	5.6	5.7	5.5
기타	3.2	3.9	7.5	4.6	2.7	3.4	3.4	3.6	3.5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48,473	463,793	29,477	183,377	352,537	446,875	420,170	540,734	960,904	1,012,267

〈부표 3-1-51〉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일정한 시간에 먹는다	74.5	71.4	82.9	67.3	70.3	77.4	72.7	73.8	73.4	73.2
가끔 불규칙	19.2	20.6	14.2	23.7	21.9	16.9	19.7	20.0	19.9	19.8
일정한 시간에 먹지 않는다	6.2	8.0	3.0	8.9	7.8	5.7	7.6	6.1	6.7	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52〉 어제 하루 동안 칫솔질(잇솔질) 횟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3번 이상	33.6	33.5	36.9	43.1	36.2	27.3	30.6	35.5	33.6	33.5
2번	48.4	50.9	48.6	42.1	50.1	51.8	47.1	51.2	49.6	49.5
1번	15.3	13.9	13.0	12.7	11.9	18.0	18.7	11.9	14.5	14.7
안함	2.7	1.7	1.5	2.1	1.8	2.9	3.6	1.5	2.3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53〉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 문제로 음식 씹는데 불편감 느끼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불편	10.9	11.8	2.5	4.1	9.9	15.8	13.1	9.8	11.1	11.3
불편	31.4	37.4	12.4	15.8	34.1	42.0	31.5	34.8	33.5	33.9
보통	15.2	14.7	10.7	14.4	14.6	15.8	14.8	14.8	14.8	15.0
별로 불편하지 않음	22.9	20.3	26.0	23.5	23.9	19.1	22.3	22.3	22.3	21.8
전혀 불편하지 않음	19.6	15.8	48.3	42.3	17.5	7.3	18.4	18.3	18.4	1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5,933	1,119,662	71,812	434,679	992,535	1,146,569	984,466	1,533,014	2,517,480	2,645,595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1-54〉 지난 1년간 키나 몸무게 측정 경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88.1	86.3	98.8	83.4	89.1	86.6	82.9	90.2	87.3	87.3
아니오	11.9	13.7	1.2	16.6	10.9	13.4	17.1	9.9	12.7	1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55〉 가장 최근 측정 시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2년 전	31.7	36.8	41.3	28.0	34.3	36.7	25.3	43.5	34.0	34.0
3-4년 전	36.1	30.7	48.5	42.2	31.5	30.9	36.2	32.8	34.6	33.6
5-6년 전	13.8	13.0	-	10.9	15.5	13.2	13.1	12.7	12.9	13.4
7-8년 전	3.7	3.4	-	1.3	5.1	3.5	4.5	2.0	3.3	3.5
9년 이상 전	8.1	10.6	-	12.4	5.9	10.1	13.0	4.4	8.9	9.2
측정한 적이 없다	6.7	5.5	10.3	5.1	7.7	5.5	7.9	4.6	6.3	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77,512	150,492	874	71,714	105,193	150,224	163,437	148,811	312,249	328,004

〈부표 3-1-56〉 본인 체형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마른 편임	6.0	6.7	14.8	4.6	4.4	8.0	8.2	4.6	6.0	6.3
약간 마른 편임	20.2	16.6	16.8	15.8	16.8	21.5	18.7	18.1	18.3	18.7
보통임	49.1	40.3	43.2	42.1	48.3	44.3	42.6	48.0	45.9	45.4
약간 비만임	21.4	30.6	21.9	28.6	27.1	22.6	24.9	25.6	25.3	25.3
매우 비만임	3.3	5.9	3.2	8.9	3.4	3.6	5.6	3.8	4.5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5,935	1,119,250	71,812	435,148	992,067	1,146,157	984,468	1,532,602	2,517,070	2,645,184

〈부표 3-1-57〉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많이 느낀다	20.3	21.9	-	22.8	23.5	18.0	23.4	19.1	20.7	20.9
느끼는 편이다	39.5	40.9	-	41.6	40.9	38.8	39.5	40.3	40.0	40.1
보통이다	22.2	19.6	-	19.7	19.9	22.6	19.6	22.1	21.2	21.1
느끼지 않는 편이다	15.3	14.6	-	12.9	13.6	17.0	14.1	15.7	15.1	15.0
전혀 느끼지 않는다	2.8	3.0	-	2.9	2.1	3.5	3.4	2.8	3.0	2.9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73,830	1,087,725	-	425,120	991,600	1,144,835	912,918	1,524,128	2,437,046	2,561,555

〈부표 3-1-58〉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 지장 줄 정도의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21.1	29.2	-	20.6	24.8	25.7	28.1	21.2	23.8	24.5
아니오	78.9	70.8	-	79.4	75.2	74.3	71.9	78.8	76.2	75.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73,830	1,087,725	-	425,120	991,600	1,144,835	912,918	1,524,128	2,437,046	2,561,555

〈부표 3-1-59〉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16.9	23.9	-	14.8	19.5	22.0	22.9	17.3	19.4	19.9
아니오	83.1	76.1	-	85.2	80.5	78.0	77.2	82.7	80.6	80.1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73,830	1,087,725	-	425,120	991,600	1,144,835	912,918	1,524,128	2,437,046	2,561,555

〈부표 3-1-60〉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1.3	1.8	-	1.6	2.1	1.0	1.8	1.3	1.5	1.5
아니오	98.7	98.2	-	98.4	97.9	99.0	98.2	98.7	98.5	98.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73,830	1,087,725	-	425,120	991,600	1,144,835	912,918	1,524,128	2,437,046	2,561,555

〈부표 3-1-61〉 거주지역 내 건강관련 서비스 받은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95.4	97.8	96.1	89.7	96.1	99.2	95.2	97.1	96.3	96.4
아니오	4.6	2.3	3.9	10.3	3.9	0.8	4.8	3.0	3.7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4

〈부표 3-1-62〉 거주 지역 내에서 경험한 건강관련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방접종										
예	58.7	73.4	66.9	40.2	47.7	87.9	63.3	65.4	64.6	65.0
아니오	41.3	26.7	33.1	59.8	52.3	12.1	36.7	34.6	35.4	35.0
건강교실(운동, 영양, 금연, 절주)										
예	3.3	3.5	8.5	2.7	2.6	3.9	3.8	3.2	3.4	3.4
아니오	96.7	96.5	91.5	97.3	97.4	96.1	96.2	96.8	96.6	96.6
건강검진										
예	64.9	60.5	44.0	45.4	69.1	65.1	49.9	71.4	63.1	63.0
아니오	35.1	39.5	56.0	54.6	30.9	34.9	50.1	28.6	36.9	37.0
방문보건서비스										
예	2.7	5.8	0.7	2.5	2.7	5.9	5.9	2.9	4.0	4.0
아니오	97.3	94.2	99.3	97.5	97.3	94.1	94.1	97.2	96.0	96.0
정신보건서비스										
예	5.1	6.3	7.3	12.3	6.1	2.8	11.1	1.8	5.4	5.6
아니오	94.9	93.7	92.7	87.8	93.9	97.2	88.9	98.2	94.6	94.4
구강보건서비스										
예	41.6	37.8	64.5	37.4	43.6	36.3	37.2	42.2	40.3	40.0
아니오	58.4	62.2	35.5	62.6	56.4	63.7	62.8	57.8	59.7	60.1
일반진료서비스										
예	91.7	95.8	88.1	85.5	93.0	96.9	93.0	93.4	93.2	93.4
아니오	8.3	4.2	11.9	14.5	7.0	3.1	7.0	6.6	6.8	6.6
재활진료서비스										
예	22.9	36.2	74.1	18.1	22.7	34.3	26.6	29.5	28.4	28.6
아니오	77.2	63.8	25.9	81.9	77.3	65.7	73.4	70.5	71.6	71.4
기타										
예	0.5	0.3	0.7	0.4	0.6	0.2	0.5	0.4	0.4	0.4
아니오	99.6	99.7	99.3	99.6	99.4	99.8	99.5	99.7	99.6	9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56,206	1,094,486	69,019	390,504	953,941	1,137,229	938,038	1,487,787	2,425,826	2,550,693

〈부표 3-6-63〉 건강에 관한 정보 주로 얻는 경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보건소	4.1	6.1	2.5	1.7	3.5	7.6	5.0	4.7	4.8	4.9
복지관	1.9	1.9	7.6	3.2	0.9	1.9	3.3	1.1	2.0	1.9
의료기관	18.7	18.8	15.2	13.6	18.6	21.0	21.2	17.1	18.7	18.7
관공서(보건소 제외)	0.9	0.8	2.9	0.4	0.5	1.1	1.0	0.7	0.9	0.8
TV등 대중매체	47.6	44.8	30.7	40.0	51.8	45.1	40.6	50.7	46.7	46.4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8.8	3.4	15.6	19.9	6.5	0.8	5.6	7.3	6.6	6.5
주변사람(활동보조인, 동료, 가족친지 등)	10.6	16.8	19.5	11.5	11.3	15.1	13.7	12.5	13.0	13.2
홍보물	1.2	1.2	0.2	0.8	1.6	1.1	0.9	1.5	1.3	1.2
정보를 얻을 수 없음	6.4	5.9	4.7	8.3	5.3	6.2	8.4	4.3	5.9	6.1
기타	0.1	0.3	1.1	0.6	0.1	0.1	0.3	0.1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8,878	71,812	434,899	992,535	1,146,035	984,151	1,533,014	2,517,166	2,645,280

〈부표 3-6-64〉 장애인이 운동(체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보건소	2.4	3.9	0.8	1.9	2.2	4.4	3.3	2.9	3.0	3.1
복지관	3.8	4.8	13.4	6.5	3.0	3.8	7.1	2.6	4.4	4.2
의료기관	10.6	12.2	12.3	7.6	10.9	12.9	13.4	9.8	11.2	11.3
관공서(보건소 제외)	0.7	1.0	2.0	0.7	0.7	0.9	0.9	0.8	0.8	0.8
TV등 대중매체	36.1	30.2	21.1	28.5	37.0	33.4	28.6	37.5	34.0	33.6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7.2	2.5	12.0	16.3	5.0	0.8	4.9	5.6	5.3	5.2
주변사람(활동보조인, 동료, 가족친지 등)	12.3	16.9	23.2	12.1	11.9	16.4	14.5	14.2	14.3	14.2
홍보물	1.2	0.7	1.4	0.9	1.2	0.8	1.2	0.9	1.0	1.0
정보를 얻을 수 없음	25.5	27.6	11.8	25.0	27.8	26.5	25.8	25.6	25.7	26.4
기타	0.3	0.2	2.0	0.6	0.3	-	0.5	0.1	0.3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3,166	1,116,321	71,812	433,617	990,146	1,143,912	982,252	1,529,716	2,511,967	2,639,487

〈부표 3-1-6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 위해 정부(또는 사회)가 더 강화해야 할 것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방접종	6.5	6.3	3.7	5.6	5.9	7.3	5.0	7.3	6.4	6.4
건강교실(운동, 영양, 금연, 절주)	11.9	9.5	10.1	13.9	11.7	9.1	10.2	11.8	11.1	10.9
건강검진	21.9	17.5	11.5	18.4	22.1	19.4	17.9	21.8	20.3	20.0
방문보건서비스	12.8	23.1	10.2	11.8	11.6	24.5	20.5	14.6	16.9	17.2
정신보건서비스	5.7	5.4	10.8	13.1	6.1	1.9	9.0	3.2	5.5	5.6
구강보건서비스	5.9	5.8	7.4	3.7	6.7	5.9	6.2	5.8	6.0	5.9
일반진료서비스	17.8	17.7	13.7	16.1	17.8	18.7	14.8	19.1	17.4	17.8
재활진료서비스	17.1	14.7	32.6	17.4	17.9	12.9	15.9	16.4	16.2	16.1
기타	0.4	0.1	-	0.1	0.2	0.4	0.6	0.1	0.3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128	71,812	435,148	992,535	1,146,035	984,401	1,533,014	2,517,415	2,645,530

2. 일상생활 지원

〈부표 3-2-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 옷 벗고 입기										
완전자립	80.7	81.6	37.6	76.6	86.0	81.1	61.4	94.2	81.4	81.1
부분도움	16.0	14.2	47.6	19.1	12.2	14.3	30.1	5.2	15.0	15.2
완전도움	3.3	4.2	14.8	4.2	1.7	4.6	8.4	0.6	3.6	3.7
1-1) 옷 갈아 입기										
도움필요없음	80.7	81.6	37.6	76.6	86.0	81.1	61.4	94.2	81.4	81.1
약간지시필요	7.5	6.2	25.3	11.6	6.0	4.9	14.5	2.3	7.0	7.0
중간도움필요	8.5	8.0	22.2	7.6	6.2	9.4	15.7	3.0	7.9	8.3
매우도움필요	3.3	4.2	14.8	4.2	1.7	4.6	8.4	0.6	3.6	3.7
2) 세수하기										
완전자립	89.8	89.1	49.2	84.7	94.0	89.8	76.7	97.9	89.6	89.5
부분도움	7.2	7.3	35.7	11.7	4.3	6.3	16.0	1.7	7.2	7.2
완전도움	3.0	3.7	15.0	3.5	1.6	3.9	7.4	0.5	3.2	3.3
3) 양치질하기										
완전자립	90.0	88.7	49.0	84.2	93.7	90.2	76.0	98.0	89.4	89.4
부분도움	7.3	7.7	34.1	12.1	4.8	6.3	16.8	1.5	7.5	7.4
완전도움	2.8	3.6	16.9	3.7	1.5	3.5	7.1	0.5	3.1	3.1
4) 목욕하기										
완전자립	77.4	72.1	28.9	73.6	83.0	71.9	54.5	89.8	76.0	75.2
부분도움	16.7	20.4	43.9	19.4	13.8	20.1	31.2	8.9	17.7	18.3
완전도움	5.8	7.5	27.3	7.0	3.2	8.0	14.2	1.3	6.3	6.5
4-1) 목욕하기										
도움필요없음	77.4	72.1	28.9	73.6	83.0	71.9	54.5	89.8	76.0	75.2
감독, 지시필요	8.3	8.0	30.8	15.1	6.1	6.0	16.4	2.9	8.2	8.2
목욕탕출입시, 씻고 말리는데 도움필요	8.4	12.4	13.1	4.3	7.8	14.2	14.8	6.1	9.5	10.1
전적인 도움필요	5.8	7.5	27.3	7.0	3.2	8.0	14.2	1.3	6.3	6.5
5) 식사하기										
완전자립	89.0	88.0	55.5	83.8	92.8	88.8	75.2	97.4	88.7	88.6
부분도움	9.1	9.7	32.4	13.5	6.1	9.2	20.1	2.2	9.2	9.4
완전도움	1.8	2.3	12.0	2.7	1.1	2.0	4.7	0.3	2.1	2.0
5-1) 식사하기										
도움필요없음	89.0	88.0	55.5	83.8	92.8	88.8	75.2	97.4	88.7	88.6
약간지시필요	5.9	6.8	22.9	10.7	4.2	5.3	13.2	1.7	6.2	6.3
수저사용시도움필요	3.3	2.9	9.5	2.8	1.9	3.9	6.9	0.6	3.0	3.1
전적인 도움필요	1.8	2.3	12.0	2.7	1.1	2.0	4.7	0.3	2.1	2.0
6) 체위변경하기										
완전자립	93.7	91.8	87.4	94.7	95.5	90.4	86.2	97.4	93.0	92.9
부분도움	4.7	6.1	7.0	3.6	3.5	7.4	9.7	2.3	5.2	5.3
완전도움	1.6	2.1	5.6	1.8	1.1	2.2	4.1	0.3	1.8	1.8
7) 일어나 앉기										
완전자립	92.6	88.7	87.4	93.9	94.2	87.2	83.7	95.9	91.1	90.9
부분도움	5.4	9.0	7.3	4.0	4.6	10.1	11.6	3.8	6.8	7.0
완전도움	2.0	2.3	5.3	2.1	1.2	2.7	4.7	0.4	2.1	2.1
7-1) 잠자리에서 자세바꾸기										
도움필요없음	92.6	88.7	87.4	93.9	94.2	87.2	83.7	95.9	91.1	90.9
간단한 도구의 도움필요	3.6	6.5	4.8	2.8	3.4	6.8	7.4	3.1	4.8	4.8
부분 도움필요	1.8	2.6	2.5	1.2	1.2	3.2	4.2	0.7	2.0	2.1
전적으로 타인도움필요	2.0	2.3	5.3	2.1	1.2	2.7	4.7	0.4	2.1	2.1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8) 옮겨 앉기										
완전자립	90.1	86.2	86.2	92.5	91.8	84.1	79.1	94.7	88.6	88.4
부분도움	7.6	10.7	6.5	4.8	6.7	12.6	14.9	4.9	8.8	8.9
완전도움	2.3	3.0	7.3	2.7	1.5	3.2	5.9	0.4	2.6	2.6
8-1) 옮겨 앉기										
도움필요없음	90.1	86.2	86.2	92.5	91.8	84.1	79.1	94.7	88.6	88.4
약간도움필요	5.5	7.5	3.7	3.2	5.3	8.7	9.8	4.1	6.3	6.4
타인도움필요	2.1	3.2	2.8	1.6	1.4	3.9	5.1	0.8	2.5	2.6
전적으로 타인도움필요	2.3	3.0	7.3	2.7	1.5	3.2	5.9	0.4	2.6	2.6
9) 방밖으로 나가기										
완전자립	85.9	79.4	78.6	89.4	87.9	77.0	71.5	91.5	83.7	83.2
부분도움	10.9	16.1	14.0	6.6	9.9	18.4	20.5	7.6	12.7	13.1
완전도움	3.1	4.5	7.4	4.0	2.1	4.7	8.0	0.8	3.6	3.7
9-1) 걷기										
도움필요없음	82.3	74.4	75.0	86.2	85.7	70.6	65.8	88.5	79.6	78.9
보조기구필요	10.0	15.2	4.9	4.7	9.1	18.2	16.4	9.0	11.9	12.2
타인도움필요	4.6	6.2	12.4	5.5	2.7	7.0	9.7	1.9	4.9	5.3
전혀걷지못함	3.1	4.1	7.8	3.7	2.4	4.2	8.2	0.6	3.6	3.5
10) 화장실 사용하기										
완전자립	88.4	86.1	58.3	86.3	92.3	85.4	74.7	96.1	87.7	87.4
부분도움	8.2	9.6	29.4	10.0	5.5	9.9	18.1	2.4	8.5	8.8
완전도움	3.4	4.3	12.3	3.7	2.2	4.6	7.2	1.5	3.8	3.8
10-1) 화장실 사용하기										
도움필요없음	88.4	86.1	58.3	86.3	92.3	85.4	74.7	96.1	87.7	87.4
도구이용 도움필요	3.9	3.3	11.7	6.1	2.5	3.2	7.8	1.0	3.7	3.7
타인도움필요	4.3	6.3	17.7	4.0	2.9	6.7	10.2	1.4	4.9	5.1
완전도움	3.4	4.3	12.3	3.7	2.2	4.6	7.2	1.5	3.8	3.8
11) 대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93.9	92.3	74.8	92.7	96.5	91.7	86.7	97.7	93.4	93.2
부분도움	2.9	4.0	16.0	3.8	1.6	4.0	7.0	0.8	3.2	3.4
완전도움	3.2	3.7	9.2	3.5	1.9	4.3	6.3	1.5	3.4	3.4
12) 소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94.4	91.0	80.5	93.9	96.5	90.3	86.2	97.7	93.2	93.0
부분도움	2.9	5.0	10.7	3.0	1.9	5.4	7.4	1.3	3.7	3.8
완전도움	2.7	3.9	8.8	3.1	1.6	4.3	6.4	1.0	3.1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1	71,812	435,149	992,536	1,146,568	984,934	1,533,015	2,517,949	2,646,064

〈부표 3-2-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전화사용하기										
완전자립	77.0	70.9	29.8	70.9	83.9	70.2	55.9	87.5	75.1	74.4
적은부분도움	11.8	15.6	22.3	14.1	9.1	16.3	19.3	9.0	13.0	13.4
많은부분도움	4.3	5.3	16.5	5.5	3.0	5.2	8.8	1.9	4.6	4.7
완전도움	6.9	8.3	31.4	9.6	4.0	8.3	16.1	1.7	7.3	7.5
물건사기(쇼핑)										
완전자립	75.8	68.9	18.0	63.9	81.1	72.6	48.2	90.1	73.7	72.9
부분도움	15.2	18.8	38.6	22.2	13.1	16.4	29.1	7.6	16.0	16.7
완전도움	9.0	12.3	43.4	13.9	5.8	11.0	22.7	2.3	10.2	10.4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1	71,812	435,149	992,536	1,146,568	984,934	1,533,015	2,517,949	2,646,064
식사준비										
완전자립	66.5	67.6	17.0	59.2	75.1	64.0	41.3	84.2	67.8	67.0
적은부분도움	12.2	14.2	25.5	13.1	10.9	14.7	19.5	8.7	12.8	13.1
많은부분도움	10.8	7.2	23.8	13.1	7.6	9.0	16.9	4.1	9.0	9.3
완전도움	10.4	10.9	33.6	14.6	6.3	12.4	22.4	3.0	10.4	10.6
집안일										
완전자립	66.1	62.5	14.6	59.8	72.7	60.5	39.9	81.3	65.5	64.6
적은부분도움	17.6	18.9	40.7	18.8	15.4	19.8	25.7	13.0	17.8	18.1
많은부분도움	6.6	7.4	25.7	8.1	5.1	7.6	13.1	2.7	6.7	6.9
완전도움	9.7	11.2	19.0	13.4	6.8	12.1	21.4	3.0	10.0	10.3
빨래하기										
완전자립	67.8	66.6	17.1	61.5	75.7	63.4	42.8	83.6	68.0	67.3
적은부분도움	14.8	15.4	31.6	15.9	12.4	16.6	21.9	10.4	14.8	15.0
많은부분도움	7.2	6.6	21.9	8.3	5.6	7.3	13.0	3.0	6.8	7.0
완전도움	10.2	11.4	29.3	14.3	6.3	12.8	22.4	3.1	10.5	10.7
전국추정수	1,497,449	1,102,442	25,638	435,149	992,534	1,146,569	947,119	1,527,508	2,474,627	2,599,890
약 챙겨먹기										
완전자립	84.2	82.9	25.0	75.9	90.2	84.5	65.0	96.4	84.1	83.6
부분도움	10.5	10.9	41.1	15.6	7.3	9.8	22.3	2.6	10.3	10.7
완전도움	5.4	6.2	33.9	8.5	2.5	5.7	12.7	1.0	5.6	5.7
금전관리										
완전자립	78.5	68.7	12.6	64.5	83.9	73.7	51.4	90.4	75.1	74.4
부분도움	10.0	16.2	22.5	14.8	8.6	14.7	20.3	7.0	12.2	12.7
완전도움	11.5	15.1	65.0	20.7	7.4	11.6	28.3	2.6	12.7	13.0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완전자립	71.4	59.1	18.0	62.0	76.4	61.9	42.1	83.7	67.4	66.2
적은부분도움	12.1	18.5	18.2	16.2	11.0	17.2	20.4	10.2	14.2	14.8
많은부분도움	5.8	7.4	22.6	7.8	4.4	6.7	11.7	2.8	6.3	6.5
완전도움	10.8	15.0	41.3	14.0	8.1	14.1	25.7	3.3	12.1	12.6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1	71,812	435,149	992,536	1,146,568	984,934	1,533,015	2,517,949	2,646,064
본인물건관리하기										
완전자립	14.6	32.4	21.3	-	-	-	16.9	50.7	22.0	21.3
부분도움	48.4	43.0	46.3	-	-	-	45.4	40.0	44.6	46.3
완전도움	37.0	24.6	32.4	-	-	-	37.7	9.3	33.4	32.4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2,515	13,694	36,209	-	-	-	29,788	5,281	35,069	36,209

〈부표 3-2-3〉 장애특성 고려 영역 : 지체·뇌병변·내부장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휠체어 사용										
완전자립	86.6	80.5	50.3	87.4	90.4	78.3	63.8	94.1	84.6	84.0
부분도움	7.4	10.6	20.0	5.1	5.8	12.0	17.3	4.6	8.6	8.7
완전도움	6.1	8.9	29.7	7.5	3.8	9.6	18.9	1.3	6.8	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41,499	763,659	19,351	224,137	727,007	834,663	543,641	1,189,427	1,733,068	1,805,158

〈부표 3-2-4〉 장애특성 고려 영역 : 청각장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청각 기능										
청각손상없음	4.7	6.8	12.2	10.3	8.5	3.7	4.3	7.4	6.1	5.7
대화시어려움	43.8	41.0	34.8	42.9	49.2	40.0	33.6	50.5	43.6	42.5
매우큰소리만들음	36.7	36.9	50.3	18.9	19.2	46.2	30.9	38.0	35.1	36.8
청력거의없음	14.8	15.3	2.7	27.9	23.1	10.2	31.2	4.1	15.2	1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8,565	145,234	4,705	30,292	78,993	199,810	119,397	171,294	290,691	313,800

〈부표 3-2-5〉 장애특성 고려 영역 : 시각장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시각 기능										
시각손상없음	10.3	6.8	6.7	6.6	11.3	7.6	1.9	12.6	9.3	8.9
유인물보는데 어려움	57.4	54.8	53.9	61.3	58.4	53.4	28.7	68.6	56.2	56.3
사물분간어려움	18.8	24.3	31.9	17.6	18.2	23.8	32.5	14.7	20.3	21.0
시력거의없음	13.5	14.2	7.4	14.4	12.1	15.1	36.8	4.1	14.2	1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85,087	124,731	4,901	39,894	117,275	147,745	89,815	199,002	288,817	309,815

〈부표 3-2-6〉 장애특성 고려 영역 : 지적·자폐성 장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인지 기능										
주위사람알아봄	37.1	36.2	37.3	41.2	28.6	22.8	36.5	45.8	36.5	36.7
주위사람 일부만 알아봄	50.4	46.5	49.7	42.9	58.5	65.3	48.7	54.2	48.8	48.8
주위사람 알아보지 못함	12.6	17.4	13.0	15.9	13.0	11.8	14.8	0.0	14.7	1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8,017	89,252	49,620	118,841	45,288	13,521	219,249	1,379	220,628	227,270

〈부표 3-2-7〉 장애특성 고려 영역 : 정신장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정신 기능										
행동개입없음	7.7	8.1	0.0	5.1	10.3	4.8	8.6	0.0	8.5	7.9
주의필요	63.4	63.1	100.0	62.2	62.3	75.0	62.9	19.2	62.7	63.3
환각등 있음	28.9	28.8	0.0	32.7	27.4	20.2	28.5	80.8	28.8	2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468	52,272	681	44,511	59,711	6,839	102,830	615	103,445	111,742

〈부표 3-2-8〉 사회환경 고려 영역(장애유형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사회활동참여										
완전자립	27.9	40.0	10.5	24.9	26.2	43.4	43.4	24.7	32.0	33.0
부분도움	24.2	32.4	22.9	24.7	24.8	31.6	27.0	28.1	27.7	27.7
완전도움	47.9	27.7	66.6	50.5	49.0	25.0	29.6	47.2	40.3	39.3
위험상황 대처능력										
완전자립	65.9	54.1	13.3	58.5	72.4	54.9	35.3	79.4	62.1	60.9
부분도움	22.4	28.1	34.9	24.2	19.1	29.4	35.5	16.8	24.1	24.8
완전도움	11.7	17.8	51.8	17.3	8.5	15.8	29.2	3.8	13.7	14.3
장애인보조기구 사용능력										
완전자립	79.7	73.7	46.2	76.6	86.1	71.6	60.3	89.1	77.8	77.2
부분도움	12.8	16.5	25.5	14.4	9.5	17.9	22.4	8.8	14.1	14.4
완전도움	7.4	9.8	28.4	9.0	4.4	10.5	17.3	2.1	8.0	8.4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										
완전자립	81.1	68.7	23.8	68.8	86.1	72.9	55.9	89.5	76.4	75.9
부분도움	10.6	18.7	34.7	16.5	7.9	17.0	23.0	7.7	13.7	14.0
완전도움	8.3	12.6	41.5	14.7	6.0	10.0	21.1	2.8	10.0	1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1	71,812	435,149	992,536	1,146,568	984,934	1,533,015	2,517,949	2,646,064

〈부표 3-2-9〉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혼자서 스스로	55.4	45.8	7.7	49.7	62.6	44.9	25.3	70.1	52.5	51.3
대부분 혼자서	15.7	17.7	12.4	13.9	15.7	18.5	16.5	16.5	16.5	16.5
일부도움 필요	15.8	20.2	31.0	18.4	12.3	21.2	28.2	9.9	17.0	17.7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8.1	9.2	22.6	10.7	6.2	8.9	16.8	2.5	8.1	8.6
거의 남의도움 필요	5.0	7.2	26.2	7.3	3.2	6.5	13.3	1.0	5.8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1	71,812	435,149	992,536	1,146,568	984,934	1,533,015	2,517,949	2,646,064

〈부표 3-2-10〉 도와주는 사람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87.5	82.7	99.3	91.7	83.0	82.9	91.9	73.6	84.9	85.3
없다	12.5	17.3	0.7	8.3	17.0	17.1	8.1	26.4	15.1	1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81,156	607,280	66,252	218,826	371,425	631,935	736,044	458,738	1,194,782	1,288,438

〈부표 3-2-11〉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배우자	47.5	26.1	0.0	12.1	46.2	47.3	27.6	56.9	37.3	37.7
부모	23.6	15.8	82.6	64.0	12.1	0.1	29.2	4.2	20.9	20.1
자녀(며느리, 사위)	6.5	28.8	0.0	1.9	10.6	28.0	12.8	22.2	15.9	16.7
형제·자매	5.8	4.4	0.0	7.1	12.0	1.0	7.3	1.0	5.2	5.1
조부모	1.1	1.0	11.6	1.2	0.1	0.2	1.4	0.5	1.1	1.1
손자녀	0.2	0.9	0.0	0.0	0.3	1.0	0.2	1.4	0.6	0.5
기타 가족	0.1	0.5	0.0	0.4	0.2	0.3	0.2	0.3	0.2	0.3
친척	0.8	0.8	1.1	0.9	1.3	0.4	1.1	0.5	0.9	0.8
친구	0.6	0.9	0.7	0.4	1.3	0.6	0.5	1.5	0.8	0.8
이웃	0.6	1.8	0.0	0.8	0.9	1.5	1.0	1.4	1.1	1.1
활동보조인	3.3	3.4	3.0	6.4	6.0	0.6	5.2	0.3	3.6	3.3
가정봉사원	0.2	0.8	0.0	0.3	0.3	0.7	0.5	0.1	0.4	0.5
간병인	1.6	2.6	0.0	0.3	2.9	2.4	2.3	1.9	2.2	2.0
요양보호사	4.8	10.2	0.0	0.8	2.2	13.7	7.3	5.8	6.8	7.3
기타	3.2	2.1	0.9	3.3	3.8	2.1	3.4	2.0	2.9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6,190	502,224	65,763	200,613	308,222	523,816	676,683	337,769	1,014,452	1,098,414

〈부표 3-2-12〉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81.4	69.3	94.3	83.7	75.8	70.6	74.6	79.1	76.1	75.9
아니오	18.6	30.7	5.7	16.3	24.2	29.4	25.4	20.9	23.9	2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6,190	502,224	65,763	200,613	308,222	523,816	676,683	337,769	1,014,452	1,098,414

〈부표 3-2-13〉 동거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움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98.5	98.7	99.9	98.3	98.6	98.6	98.6	98.5	98.6	98.6
아니오	1.5	1.3	0.1	1.7	1.4	1.4	1.4	1.5	1.4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6,190	502,224	65,763	200,613	308,222	523,816	676,683	337,769	1,014,452	1,098,414

〈부표 3-2-14〉 다른 사람 도움의 충분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충분하다	7.0	4.4	5.2	8.3	6.0	4.8	5.2	7.3	5.9	5.8
충분하다	54.8	51.0	47.8	52.9	51.8	54.5	50.2	61.6	54.0	53.1
부족하다	33.1	39.0	38.9	32.8	37.0	35.9	38.5	28.0	35.0	35.8
매우 부족하다	5.1	5.7	8.1	6.0	5.2	4.8	6.1	3.1	5.1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6,190	502,224	65,763	200,613	308,222	523,816	676,683	337,769	1,014,452	1,098,414

〈부표 3-2-15〉 도와줄 외부인 활용 의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44.3	50.6	52.7	45.1	45.5	48.5	51.6	38.1	46.4	47.3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9.1	13.8	21.4	9.3	7.3	13.3	13.3	7.7	11.2	11.3
필요없다	46.6	35.7	25.9	45.6	47.1	38.3	35.1	54.2	42.4	4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80,474	607,281	66,253	218,826	371,425	631,252	736,043	458,057	1,194,100	1,287,756

주: 무응답 제외

3. 장애인보조기구

〈부표 3-3-1〉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지체 및 뇌병변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상지의지	2.2	1.1	0.0	3.0	2.2	1.0	4.6	0.7	1.8	1.7
하지의지	2.1	2.3	5.3	1.9	2.6	1.9	4.4	1.3	2.1	2.2
척추보조기	5.4	10.7	6.3	3.1	7.9	8.7	6.2	8.0	7.5	7.7
상지보조기	1.1	1.2	3.5	2.5	0.7	1.1	2.6	0.6	1.2	1.1
하지보조기	4.8	3.7	28.1	5.7	4.7	3.3	8.9	2.5	4.3	4.4
맞춤형 교정용신발 (정형외과용 구두)	4.8	3.6	16.6	5.6	5.7	2.5	6.4	3.6	4.4	4.3
지팡이	14.6	23.9	1.1	1.9	11.0	32.4	18.3	17.5	17.8	18.5
목발	2.9	2.4	0.0	1.7	3.2	2.8	3.4	2.1	2.6	2.7
보행기	2.2	15.4	2.5	0.6	2.1	15.7	6.9	7.5	7.3	7.8
전동휠체어	5.5	7.9	1.9	3.3	4.4	9.8	9.6	3.8	6.1	6.5
수동휠체어	5.1	9.2	9.6	5.1	4.0	9.7	13.0	2.6	6.7	6.8
전동스쿠터	3.6	6.3	0.8	1.4	4.5	6.5	6.0	4.0	4.8	4.8
자세보조용구	2.4	5.1	25.4	4.4	3.2	3.2	6.4	2.3	3.5	3.5
상하지운동기구	5.4	6.4	20.1	6.6	6.0	5.2	11.1	3.8	5.8	5.8
기타	3.3	5.2	2.5	2.1	2.9	5.8	4.3	4.1	4.2	4.1

주: 음영부분의 보조기구는 장애유형 구분 없이 전체 장애인에게 질문

〈부표 3-3-2〉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시각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안경 (콘텍트렌즈)	65.2	62.3	82.2	68.6	67.7	59.6	44.1	72.2	64.8	64.1
저시력보조기	18.8	15.6	56.9	14.4	12.6	21.1	17.0	15.0	15.5	17.5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6.9	12.1	9.3	17.0	16.2	13.6	48.3	3.5	15.3	15.0
의안	8.9	10.9	23.8	12.7	9.8	8.4	9.7	10.7	10.4	9.7
스크린 리더	3.7	3.8	27.2	5.4	5.1	1.6	8.0	2.5	3.9	3.7
화면 확대기	16.6	14.9	56.9	18.3	15.3	14.7	20.3	13.8	15.5	15.9
휴대용점자정보 단말기	3.4	3.2	0.0	12.4	3.8	0.7	12.4	0.4	3.5	3.4
음성손목/탁상 시계	10.7	14.8	9.3	12.1	13.3	11.8	35.3	4.3	12.4	12.4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2.9	2.1	0.0	9.6	1.8	1.4	5.5	1.8	2.8	2.6
점자프린터	1.5	1.0	0.0	6.2	0.9	0.4	5.3	0.0	1.4	1.3
화면 해설기	4.1	4.2	9.3	5.3	4.1	3.7	11.9	1.5	4.2	4.1
음성유도장치	3.9	5.6	14.1	7.4	4.6	3.5	14.4	0.9	4.5	4.6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3.4	1.7	9.3	9.2	3.1	0.5	8.2	1.0	2.9	2.7
기타	4.5	2.9	2.8	3.0	3.0	4.8	8.2	2.2	3.8	3.9

〈부표 3-3-3〉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청각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보청기	11.1	13.2	4.5	4.5	6.2	20.3	11.1	11.9	11.6	12.0
화상전화기	8.3	13.9	3.8	16.5	12.6	9.5	17.3	6.4	10.6	10.9
골도전화기	1.4	2.3	0.0	0.0	1.6	2.2	2.8	1.3	1.9	1.8
문자전화기	7.0	6.2	0.0	16.4	9.1	4.3	10.5	4.6	6.9	6.6
문자송수신기	1.8	1.8	11.3	3.8	2.1	1.2	3.0	0.8	1.7	1.8
음성증폭기	12.6	11.6	10.8	10.0	9.8	13.5	11.2	11.8	11.5	12.2
인공와우	6.5	8.9	56.9	10.9	7.8	5.8	12.7	4.0	7.4	7.6
자막수신기	7.1	8.3	3.7	19.1	10.1	4.9	13.1	4.5	7.8	7.6
신호표시기 (시각, 음향)	8.5	9.0	3.7	12.4	9.1	8.2	15.8	3.9	8.4	8.7
기타	0.5	0.0	3.7	0.0	0.1	0.2	0.2	0.3	0.3	0.2

주: 음영부분의 보조기구는 장애유형 구분 없이 전체 장애인에게 질문

〈부표 3-3-4〉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언어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인공후두(성대)	9.2	10.6	0.0	0.0	21.1	10.3	7.2	6.9	7.0	9.6
음성증폭기	4.0	0.0	0.0	0.0	9.0	0.0	3.7	2.6	3.2	2.8
기타	3.0	0.0	0.0	0.0	0.0	7.1	4.9	0.0	2.4	2.1

〈부표 3-3-5〉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교육과목훈련용 보조기구	8.4	7.9	20.2	6.7	-	-	8.1	0.0	8.1	8.2
터치모니터	6.9	7.7	15.6	6.9	-	-	7.5	0.0	7.5	7.3
기타	1.6	0.6	3.1	1.0	-	-	1.3	0.0	1.3	1.2

〈부표 3-3-6〉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신장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복막투석기구	8.3	14.9	-	9.0	11.7	11.6	12.9	0.0	10.2	11.1
기타	3.1	2.2	-	4.1	1.6	3.2	3.6	0.0	2.9	2.7

〈부표 3-3-7〉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호흡기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호흡 치료 용구	산소발생기	44.4	55.7	-	-	63.2	45.1	50.5	-	49.0	47.4
	인공호흡기	33.4	33.2	-	-	52.9	29.9	27.8	-	27.0	33.3
	호흡근육 훈련기	9.4	22.9	-	-	21.6	11.3	12.5	-	12.1	12.9
기타		11.7	2.4	-	-	7.5	9.9	10.5	-	10.2	9.3

〈부표 3-3-8〉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안면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압력옷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표 3-3-9〉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장루·요루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장루주머니	92.6	89.6	-	100.0	89.8	92.1	100.0	94.0	94.5	91.6
피부보호판	90.0	92.7	-	100.0	97.1	86.9	68.1	91.9	89.8	90.9
기타	37.1	42.6	-	34.8	41.8	37.6	53.6	29.4	31.6	39.0

〈부표 3-3-10〉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여부 : 전체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욕창방지용매트	3.1	5.2	1.4	2.6	2.5	6.0	8.2	1.1	3.9	4.0
욕창방지용방석	2.4	3.7	0.4	1.7	2.3	4.2	6.3	0.6	2.8	3.0
침대(전동 및 수동)	4.1	7.0	2.2	2.7	3.4	8.3	9.1	2.4	5.0	5.4
기립보조기구	2.0	4.2	3.3	1.8	2.0	4.1	4.7	1.4	2.7	2.9
기저귀매트	2.1	3.8	1.0	2.0	1.2	4.6	6.0	0.7	2.8	2.8
목욕 의자 및 이동 욕조	5.5	9.6	8.3	2.7	4.7	11.1	11.8	3.4	6.7	7.2
이동변기	3.0	6.6	5.0	1.8	2.2	7.5	8.3	1.8	4.3	4.5
특수 키보드	0.3	0.3	0.8	0.7	0.4	0.1	0.8	0.0	0.3	0.3
특수 마우스	0.3	0.3	1.2	0.7	0.4	0.0	0.7	0.0	0.3	0.3
각종 스위치	0.7	1.3	1.2	0.8	0.8	1.1	2.0	0.3	1.0	1.0
음성인식장치	0.9	0.9	1.2	1.0	0.8	0.9	1.8	0.3	0.9	0.9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0.3	0.2	2.2	0.7	0.3	0.0	0.7	0.0	0.3	0.3
환경제어장치	0.3	0.4	0.0	0.7	0.4	0.3	0.8	0.0	0.3	0.4
의사소통보조기	0.6	0.7	1.1	1.4	0.4	0.6	1.1	0.3	0.6	0.7
리프트	0.4	0.4	0.7	0.6	0.4	0.2	0.9	0.0	0.4	0.4
주택개조(경사로 등)	4.7	7.0	2.7	3.4	4.8	7.5	8.2	3.5	5.4	5.7
장애인용 의복	0.2	0.1	0.0	0.0	0.2	0.2	0.4	0.0	0.2	0.2
자동차개조/운전보조장치	0.8	0.6	2.4	0.7	1.1	0.2	1.5	0.2	0.7	0.7
경보 시스템	3.6	5.9	3.3	3.5	3.7	5.8	7.5	2.1	4.2	4.6
고용/직업훈련용 보조기구	0.1	0.0	0.9	0.0	0.1	0.0	0.1	0.0	0.1	0.1
레크레이션용 보조기구	0.2	0.0	1.4	0.0	0.1	0.1	0.2	0.0	0.1	0.1
기타	0.6	0.3	2.0	0.8	0.3	0.4	0.8	0.2	0.4	0.5
호흡 보조기 산소발생기	0.4	0.4	0.6	0.4	0.2	0.6	1.0	0.1	0.4	0.4
호흡 보조기 인공호흡기	0.2	0.3	0.0	0.0	0.1	0.4	0.3	0.1	0.2	0.2

〈부표 3-3-11〉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지체 및 뇌병변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상지의지	1.5	0.6	0.0	2.4	1.4	0.6	3.4	0.3	1.2	1.1
하지의지	1.6	1.8	1.6	1.9	2.0	1.3	3.5	1.0	1.7	1.7
척추보조기	4.3	7.7	3.5	1.7	6.2	6.4	3.7	6.2	5.5	5.7
상지보조기	0.9	0.8	4.4	1.7	0.6	0.8	2.1	0.4	0.9	0.9
하지보조기	4.2	2.4	30.6	5.6	4.1	1.7	7.3	2.0	3.5	3.4
맞춤형 교정용신발 (정형외과용 구두)	2.7	2.1	21.3	2.0	3.2	1.5	4.5	1.7	2.5	2.4
지팡이	14.9	23.0	1.1	2.4	10.8	32.0	17.8	17.5	17.6	18.3
목발	3.4	3.5	0.0	2.5	3.9	3.7	3.9	3.2	3.5	3.5
보행기	1.9	11.8	2.1	0.7	1.3	12.5	6.1	5.4	5.7	6.1
전동휠체어	2.1	2.8	0.4	1.9	1.5	3.5	4.6	0.9	2.4	2.4
수동휠체어	4.8	7.9	7.6	4.2	4.2	8.4	11.8	2.4	6.1	6.1
전동스쿠터	1.6	2.9	0.0	0.5	2.1	2.9	3.3	1.5	2.2	2.1
자세보조용구	1.0	1.8	13.7	0.5	1.3	1.5	2.4	1.0	1.4	1.4
상하지운동기구	1.2	1.2	6.6	1.5	1.1	1.1	2.8	0.6	1.2	1.2
기타	2.8	5.0	0.9	1.7	2.1	5.7	3.5	3.8	3.7	3.7

주: 음영부분의 보조기구는 장애유형 구분 없이 전체 장애인에게 질문

〈부표 3-3-12〉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시각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안경(콘텍트렌즈)	62.2	60.3	82.2	67.9	65.8	55.8	44.8	69.0	62.7	61.4
저시력보조기	7.7	6.8	34.0	2.9	5.4	9.3	9.3	5.9	6.8	7.3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1	9.7	0.0	14.5	12.9	10.5	41.2	2.5	12.7	11.8
의안	8.4	8.3	23.8	11.5	7.3	8.0	8.0	9.4	9.0	8.4
스크린 리더	1.1	0.4	11.4	1.1	1.3	0.0	3.2	0.0	0.8	0.8
화면 확대기	5.7	1.4	24.7	4.3	5.6	2.1	8.3	2.8	4.3	4.0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1.8	2.2	0.0	4.6	3.0	0.5	8.1	0.0	2.1	2.0
음성손목/탁상시계	4.8	5.0	0.0	5.9	5.8	4.1	16.9	1.1	5.3	4.9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점자프린터	0.2	0.0	0.0	1.1	0.0	0.0	0.6	0.0	0.1	0.1
화면 해설기	1.6	0.8	0.0	2.8	2.5	0.0	5.3	0.0	1.4	1.3
음성유도장치	1.3	0.3	0.0	2.9	1.3	0.0	3.6	0.0	0.9	0.9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0.2	0.3	0.0	1.1	0.3	0.0	1.0	0.0	0.3	0.2
기타	3.7	2.5	0.0	1.3	1.9	4.8	6.5	1.9	3.1	3.2

〈부표 3-3-13〉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청각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보청기	8.5	10.5	3.8	4.5	5.2	15.0	9.1	9.2	9.1	9.3
화상전화기	2.5	4.8	3.8	12.7	6.4	1.0	8.3	0.7	3.6	3.6
골도전화기	0.4	0.3	0.0	1.6	0.0	0.4	0.4	0.4	0.4	0.4
문자전화기	3.0	2.3	0.0	11.9	5.0	0.4	6.7	0.5	2.9	2.7
문자송수신기	1.2	0.8	0.0	2.8	2.3	0.2	2.0	0.5	1.1	1.0
음성증폭기	1.8	2.7	0.0	3.9	3.5	1.5	2.1	2.4	2.3	2.2
인공와우	3.8	3.3	56.9	7.8	4.5	1.3	8.0	1.4	3.9	3.6
자막수신기	2.8	2.1	0.0	4.3	5.6	1.0	5.4	1.1	2.7	2.5
신호표시기(시각, 음향)	1.5	1.3	0.0	1.3	3.9	0.4	2.5	0.7	1.4	1.4
기타	0.5	0.0	3.7	0.0	0.1	0.2	0.2	0.3	0.3	0.2

주: 음영부분의 보조기구는 장애유형 구분 없이 전체 장애인에게 질문

〈부표 3-3-14〉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언어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인공후두(성대)	9.2	10.6	0.0	0.0	21.1	10.3	7.2	6.9	7.0	9.6
음성증폭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표 3-3-15〉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교육과목훈련용 보조기구	0.9	3.0	3.2	1.8	0.0	0.0	1.8	0.0	1.8	1.7
터치모니터	1.0	3.2	3.3	2.1	0.0	0.0	1.9	0.0	1.9	1.9
기타	0.4	0.0	1.2	0.0	0.0	0.0	0.3	0.0	0.3	0.3

〈부표 3-3-16〉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신장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복막투석기구	8.3	13.6	-	5.0	12.7	11.1	12.2	0.0	9.6	10.6
기타	0.0	0.4	-	0.0	0.0	0.4	0.2	0.0	0.2	0.2

〈부표 3-3-17〉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호흡기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호흡 치료 용구	산소발생기	26.6	29.6	-	0.0	22.3	29.2	29.4	0.0	28.6	27.4
	인공호흡기	19.4	7.9	-	0.0	18.0	16.5	10.5	0.0	10.2	16.4
	호흡근육훈련기	1.5	0.0	-	0.0	0.0	1.4	1.3	0.0	1.3	1.1
기타		10.7	0.0	-	0.0	0.0	9.9	9.6	0.0	9.4	7.9

〈부표 3-3-18〉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안면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압력옷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표 3-3-19〉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장루·요루장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장루주머니	92.6	89.6	-	100.0	89.8	92.1	100.0	94.0	94.5	91.6
피부보호판	89.3	92.7	-	100.0	97.1	86.2	68.1	91.4	89.3	90.5
기타	37.1	42.6	-	34.8	41.8	37.6	53.6	29.4	31.6	39.0

〈부표 3-3-20〉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여부 : 전체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욕창방지용매트	1.6	2.6	0.0	0.9	1.2	3.3	4.3	0.5	2.0	2.0
욕창방지용방석	1.3	1.8	0.0	0.9	1.0	2.2	3.3	0.3	1.5	1.5
침대(전동 및 수동)	1.5	2.0	0.5	0.9	0.8	2.9	3.9	0.3	1.7	1.7
기립보조기구	0.3	1.0	1.6	0.1	0.2	1.0	0.9	0.3	0.5	0.6
기저귀매트	1.5	2.6	0.6	1.0	0.7	3.6	4.1	0.5	1.9	2.0
목욕 의자 및 이동 욕조	2.1	3.4	2.2	0.4	1.5	4.5	4.6	1.1	2.5	2.7
이동변기	1.6	4.1	1.1	0.2	1.0	5.2	5.0	1.0	2.6	2.7
특수 키보드	0.1	0.1	0.5	0.3	0.0	0.0	0.2	0.0	0.1	0.1
특수 마우스	0.1	0.1	0.0	0.2	0.1	0.0	0.2	0.0	0.1	0.1
각종 스위치	0.1	0.2	0.0	0.1	0.1	0.2	0.3	0.0	0.1	0.1
음성인식장치	0.0	0.1	0.0	0.1	0.0	0.0	0.2	0.0	0.1	0.1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0.0	0.1	0.3	0.0	0.1	0.0	0.1	0.0	0.1	0.1
환경제어장치	0.0	0.1	0.0	0.0	0.1	0.0	0.1	0.0	0.1	0.1
의사소통보조기	0.0	0.1	0.0	0.0	0.0	0.1	0.0	0.0	0.1	0.1
리프트	0.1	0.0	0.0	0.3	0.0	0.0	0.2	0.0	0.1	0.1
주택개조(경사로 등)	0.3	0.4	0.0	0.1	0.3	0.6	0.6	0.2	0.3	0.4
장애인용 의복	0.1	0.0	0.0	0.0	0.0	0.1	0.1	0.0	0.1	0.1
자동차개조/운전보조장치	0.4	0.1	0.0	0.3	0.6	0.0	0.7	0.0	0.3	0.3
경보 시스템	0.6	0.7	0.2	0.7	0.5	0.9	1.2	0.2	0.6	0.7
고용/직업훈련용 보조기구	0.0	0.0	0.0	0.0	0.1	0.0	0.1	0.0	0.1	0.1
레크레이션용 보조기구	0.1	0.0	0.0	0.0	0.0	0.1	0.1	0.0	0.1	0.1
기타	0.4	0.3	1.1	0.7	0.2	0.4	0.7	0.2	0.4	0.4
호흡 보조기 산소발생기	0.2	0.2	0.0	0.1	0.0	0.4	0.4	0.0	0.2	0.2
인공호흡기	0.1	0.0	0.0	0.0	0.0	0.2	0.1	0.0	0.1	0.1

〈부표 3-3-21〉 필요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가 무엇인지 몰라서	15.6	19.6	22.3	24.8	18.1	15.8	17.6	17.4	17.5	17.6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5.6	3.8	2.3	5.3	4.8	4.5	4.5	5.1	4.8	4.6
사용이 불편할 것 같아서	4.2	3.1	1.3	3.7	4.6	3.2	3.9	3.6	3.7	3.6
미관상 흉해서	4.3	4.7	1.0	4.0	5.5	4.2	2.4	6.5	4.5	4.5
구입비용 때문에	62.6	61.1	61.1	51.7	58.6	65.5	63.3	60.0	61.6	61.8
구입처를 몰라서	3.4	4.9	3.8	4.0	3.3	4.7	4.3	4.3	4.3	4.2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1.3	0.9	1.0	0.9	1.5	0.9	1.1	1.2	1.1	1.1
적합한 보조기구가 없어서	2.8	1.7	7.2	5.7	2.8	1.1	2.3	1.9	2.1	2.3
기타	0.2	0.3	0.0	0.0	0.7	0.0	0.6	0.0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87,739	411,016	22,803	82,761	241,467	451,724	351,673	381,857	733,530	798,755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3-22〉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외부 지원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40.4	39.1	64.2	45.9	40.4	37.8	58.5	29.5	41.2	39.7
아니오	59.6	60.9	35.8	54.1	59.6	62.2	41.5	70.5	58.8	6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63,165	625,620	21,009	117,097	385,667	765,012	488,748	720,647	1,209,395	1,288,785

〈부표 3-3-23〉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	57.8	55.8	58.6	54.2	61.0	55.1	56.8	58.0	57.3	56.9
보건복지부 및 자방자치단체의 보조기구 교부사업	13.9	13.9	23.9	11.7	16.6	12.4	15.8	12.2	14.2	13.9
산재보험 급여 재활보조기구 지급	5.7	0.6	0.0	6.4	7.0	0.8	3.5	3.2	3.3	3.2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원	2.0	0.6	0.0	1.0	0.0	2.2	0.6	1.5	1.0	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기기 지원	4.2	4.5	1.7	11.2	4.5	3.2	5.5	3.2	4.5	4.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	0.5	0.4	0.0	1.8	0.7	0.2	0.9	0.0	0.5	0.5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2.1	3.4	0.0	0.0	0.5	4.6	3.5	1.7	2.8	2.8
교육부의 장애학생지원사업	0.0	0.3	4.7	0.2	0.0	0.0	0.2	0.1	0.2	0.1
공동모금회 또는 민간, 복지재단, 복지관 등의 보급사업	3.1	1.9	2.2	4.4	1.2	2.9	3.5	1.4	2.6	2.5
보조기구 관련 전문서비스기관의 지원	1.9	2.1	5.0	2.9	2.1	1.6	1.4	2.6	1.9	2.0
친지 친구, 이웃 또는 종교 및 친목단체의 지원	6.6	15.0	3.9	5.1	3.3	15.8	6.8	14.4	10.0	10.6
기타	2.1	1.4	0.0	1.0	3.1	1.3	1.5	1.8	1.6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7,648	244,545	13,491	53,725	155,872	289,105	286,006	212,555	498,561	512,193

〈부표 3-3-24〉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비용 전액 지원	33.3	38.0	25.9	23.2	36.5	37.7	37.4	32.0	35.1	35.5
비용 일부 지원	60.9	53.5	63.7	73.8	58.0	53.8	56.0	60.8	58.0	57.4
무상임대	3.6	4.0	6.5	3.0	3.8	3.8	4.2	3.3	3.8	3.8
유상임대	2.1	3.0	3.9	0.0	1.7	3.4	1.9	3.1	2.4	2.5
기타	0.1	1.5	0.0	0.0	0.0	1.3	0.6	0.7	0.7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7,648	244,545	13,491	53,725	155,872	289,105	286,006	212,555	498,561	512,193

〈부표 3-3-25〉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 수준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그렇다	20.3	25.1	21.1	16.5	22.2	24.0	24.0	20.5	22.5	22.6
약간 그렇다	52.0	51.6	48.0	51.3	49.5	53.4	50.8	53.1	51.8	51.8
별로 그렇지 않다	24.9	20.2	21.1	27.0	26.7	19.7	22.3	23.5	22.8	22.7
전혀 그렇지 않다	2.7	3.1	9.8	5.2	1.5	2.9	2.9	2.9	2.9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7,648	244,545	13,491	53,725	155,872	289,105	286,006	212,555	498,561	512,193

〈부표 3-3-26〉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경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병원 또는 의사의 소개로 구입	30.5	28.5	47.0	36.3	33.6	26.0	25.2	31.9	29.2	29.6
장애인보조기구 업체 매장에서 구입	39.7	36.8	23.3	30.1	36.9	40.7	40.9	36.7	38.4	38.3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	2.7	3.2	1.8	7.2	2.4	2.6	3.4	2.7	3.0	2.9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구입	8.7	10.1	5.4	11.4	11.2	8.2	17.2	4.9	9.9	9.4
아는 사람으로부터 구입	7.8	11.9	11.6	3.8	5.5	12.9	7.7	11.2	9.8	9.8
기타	10.5	9.5	10.8	11.2	10.5	9.6	5.6	12.5	9.7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63,165	625,620	21,009	117,098	385,667	765,011	488,748	720,648	1,209,396	1,288,785

〈부표 3-3-27〉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24.1	20.1	55.9	24.9	26.2	18.8	27.1	19.2	22.4	22.2
없다	75.9	79.9	44.1	75.1	73.8	81.2	72.9	80.8	77.6	7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63,165	625,620	21,009	117,098	385,667	765,011	488,748	720,648	1,209,396	1,288,785

〈부표 3-3-28〉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한다	11.5	13.5	22.6	11.6	11.7	12.7	16.6	9.5	12.4	12.5
약간 만족한다	61.0	62.9	56.9	51.5	63.3	62.9	58.4	65.1	62.3	61.9
약간 불만족한다	21.5	17.6	16.4	28.2	20.3	18.0	19.6	19.8	19.7	19.6
매우 불만족한다	6.0	6.0	4.0	8.7	4.6	6.4	5.5	5.6	5.5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30,756	602,736	20,500	108,031	366,620	738,341	472,998	683,187	1,156,185	1,233,492

주: 무응답, 소지하되 사용하지 않아 모름 제외

〈부표 3-3-29〉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서 개선할 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또는 안내서비스	35.8	33.1	42.4	41.1	33.2	32.9	34.3	34.7	34.6	34.6
각종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18.4	17.9	16.6	18.8	18.7	17.6	18.5	18.5	18.5	18.2
지원품목의 확대	17.2	17.3	15.4	14.3	16.3	19.2	17.7	16.6	17.0	17.2
신청 및 보급절차의 간소화	9.6	10.9	7.2	10.1	10.2	10.3	9.9	10.2	10.1	10.2
급여비용의 인상	14.1	15.3	14.3	10.8	15.3	15.5	14.3	14.8	14.6	14.6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음	4.6	5.5	2.6	4.7	5.9	4.3	5.0	4.9	4.9	4.9
기타	0.3	0.1	1.3	0.2	0.3	0.2	0.2	0.3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14,014	1,104,996	70,447	429,818	980,137	1,138,608	971,775	1,519,839	2,491,614	2,619,010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3-30〉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 휴대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40.6	50.2	5.6	14.0	38.1	64.4	35.9	49.9	44.4	44.7
아니오	59.4	49.8	94.4	86.0	61.9	35.6	64.1	50.1	55.6	5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1	71,812	435,149	992,536	1,146,568	984,934	1,533,015	2,517,949	2,646,064

〈부표 3-3-31〉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 스마트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45.9	28.5	32.5	70.4	54.9	12.7	33.6	43.1	39.4	38.6
아니오	54.1	71.5	67.5	29.6	45.1	87.3	66.4	56.9	60.6	6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1	71,812	435,149	992,536	1,146,568	984,934	1,533,015	2,517,949	2,646,064

〈부표 3-3-32〉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 컴퓨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40.7	20.2	57.2	70.3	41.6	7.6	30.3	34.6	32.9	32.0
아니오	59.3	79.8	42.8	29.7	58.4	92.4	69.7	65.4	67.1	6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1	71,812	435,149	992,536	1,146,568	984,934	1,533,015	2,517,949	2,646,064

〈부표 3-3-33〉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 인터넷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41.8	21.1	54.0	71.6	43.8	7.8	31.2	35.7	34.0	33.0
아니오	58.2	78.9	46.0	28.4	56.2	92.2	68.8	64.3	66.0	6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1	71,812	435,149	992,536	1,146,568	984,934	1,533,015	2,517,949	2,646,064

〈부표 3-3-34〉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 휴대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구입 설치 비가 많이 들어서	0.2	0.3	0.4	0.0	0.2	0.5	0.2	0.2	0.2	0.2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2.4	3.9	3.0	0.6	2.4	5.8	3.0	2.8	2.9	2.9
복잡하고 어려워서	2.2	4.1	3.3	2.1	1.0	6.4	3.7	2.0	2.8	2.9
필요성이 없어서	87.4	81.3	63.8	87.1	92.3	75.9	76.6	92.8	85.5	85.1
배우기 싫어서	0.2	0.1	0.0	0.3	0.1	0.1	0.3	0.0	0.1	0.1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0.9	1.2	4.6	1.3	0.6	0.6	2.0	0.2	1.0	1.0
사용관리를 하지 못해서	6.7	9.3	24.8	8.6	3.3	10.6	14.0	1.9	7.3	7.7
기타	0.1	0.0	0.0	0.0	0.1	0.1	0.1	0.0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06,750	557,359	67,780	374,338	614,387	407,604	631,288	767,811	1,399,099	1,464,109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3-35〉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 스마트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구입 설치 비가 많이 들어서	1.3	1.0	1.3	1.5	1.8	0.8	0.8	1.4	1.2	1.1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13.1	6.9	6.0	10.9	16.0	7.4	9.1	10.8	10.1	10.0
복잡하고 어려워서	26.3	27.9	10.1	18.5	26.6	29.2	22.5	30.7	27.2	27.1
필요성이 없어서	47.5	52.8	37.0	35.1	45.8	54.6	48.8	50.9	50.0	50.1
배우기 싫어서	1.0	0.8	0.0	1.8	1.1	0.7	0.6	0.9	0.8	0.9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1.3	2.3	6.5	3.6	1.0	1.7	2.4	1.5	1.9	1.8
사용관리를 하지 못해서	9.4	8.3	39.2	28.6	7.6	5.5	15.7	3.7	8.8	8.9
기타	0.1	0.0	0.0	0.0	0.1	0.1	0.0	0.1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25,440	799,958	48,440	128,740	447,196	1,001,022	653,888	871,640	1,525,528	1,625,398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3-36〉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 컴퓨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구입 설치 비가 많이 들어서	3.2	1.4	3.7	2.9	3.8	1.5	2.2	2.6	2.4	2.3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1.8	1.2	4.9	0.9	2.6	0.9	1.4	1.4	1.4	1.5
복잡하고 어려워서	29.0	27.9	20.3	25.4	32.4	26.8	24.9	31.0	28.5	28.4
필요성이 없어서	47.9	53.3	27.0	33.2	43.0	57.5	48.4	51.9	50.5	50.6
배우기 싫어서	5.1	2.9	0.0	4.8	5.9	3.0	2.8	4.4	3.8	4.0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3.1	5.5	14.8	7.6	2.8	4.4	5.3	3.8	4.4	4.3
사용관리를 하지 못해서	9.9	7.8	29.2	25.3	9.4	5.9	15.0	4.8	8.9	8.8
기타	0.1	0.0	0.0	0.0	0.1	0.0	0.1	0.0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04,720	893,309	30,702	129,111	579,402	1,058,814	686,641	1,001,436	1,688,077	1,798,029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3-37〉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 인터넷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구입 설치 비가 많이 들어서	1.8	0.5	2.6	2.2	1.9	0.7	1.3	1.2	1.2	1.2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2.6	1.6	5.3	1.8	3.4	1.3	1.8	2.2	2.1	2.1
복잡하고 어려워서	30.0	28.3	23.5	26.7	34.1	27.1	25.3	31.9	29.2	29.2
필요성이 없어서	47.1	53.2	26.3	30.5	42.5	57.2	48.1	51.1	49.9	50.1
배우기 싫어서	4.9	2.8	0.0	4.4	5.7	3.0	2.6	4.6	3.8	3.9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3.6	5.5	14.5	8.9	2.8	4.7	5.8	4.0	4.7	4.6
사용관리를 하지 못해서	9.8	8.0	27.7	25.6	9.6	6.0	15.0	4.9	9.0	8.9
기타	0.1	0.0	0.0	0.0	0.1	0.0	0.1	0.0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88,288	883,306	33,059	123,785	557,665	1,057,085	677,388	985,008	1,662,396	1,771,594

주: 무응답 제외

4. 교육

〈부표 3-4-1〉 교육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무학	4.7	21.0	7.7	2.3	4.3	21.7	10.9	11.7	11.4	11.6
초등학교	23.0	36.8	30.9	4.3	24.8	41.5	26.0	30.2	28.5	28.8
중학교	17.7	14.2	36.8	7.3	19.1	16.0	16.3	16.2	16.2	16.2
고등학교	34.5	19.3	24.6	49.8	35.2	13.8	32.5	25.9	28.4	28.1
대학 이상	20.2	8.6	0.0	36.4	16.7	7.0	14.4	16.1	15.4	1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19,963	1,115,189	61,846	435,148	992,536	1,145,622	976,374	1,532,375	2,508,749	2,635,152

주: 대학이상은 대학(3년제 이하)에서~대학원 까지 모두 포함.
무응답 제외

〈부표 3-4-2〉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초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일반 학교	재학	0.2	0.2	7.4	0.0	0.0	0.0	0.4	0.1	0.2	0.2
	중퇴	4.9	12.1	0.3	0.9	5.8	13.0	7.3	8.0	7.7	8.0
	졸업	85.9	62.2	24.5	83.1	88.3	65.1	70.2	80.0	76.2	75.9
일반 학교내 특수 학급	재학	0.5	0.3	16.3	0.0	0.0	0.0	0.8	0.1	0.4	0.4
	중퇴	0.0	0.0	0.0	0.0	0.1	0.0	0.1	0.0	0.0	0.0
	졸업	1.5	1.6	26.2	5.4	0.0	0.0	4.1	0.0	1.6	1.5
특수 학교	재학	0.2	0.2	6.9	0.0	0.0	0.0	0.4	0.0	0.2	0.2
	중퇴	0.1	0.4	0.0	0.9	0.2	0.0	0.5	0.0	0.2	0.2
	졸업	2.0	1.9	10.8	7.2	1.2	0.1	5.1	0.1	2.0	1.9
대안 학교	재학	-	-	-	-	-	-	-	-	-	-
	중퇴	-	-	-	-	-	-	-	-	-	-
	졸업	-	-	-	-	-	-	-	-	-	-
검정고시		0.1	0.1	0.0	0.1	0.1	0.0	0.1	0.0	0.1	0.1
다니지않음		4.7	21.0	7.7	2.3	4.3	21.7	10.9	11.7	11.4	1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19,963	1,115,189	61,846	435,148	992,536	1,145,622	976,374	1,532,375	2,508,749	2,635,152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4-3〉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중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일반학교	재학	0.2	0.2	14.8	0.0	0.0	0.0	0.4	0.1	0.2	0.2
	중퇴	3.1	2.7	0.0	1.6	2.3	4.0	2.3	3.1	2.8	2.9
	졸업	65.1	35.7	14.1	76.7	66.8	32.5	50.5	54.7	53.1	52.7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재학	0.4	0.3	25.3	0.0	0.0	0.0	1.0	0.0	0.4	0.4
	중퇴	0.1	0.0	1.6	0.1	0.0	0.0	0.1	0.0	0.0	0.0
	졸업	1.1	1.2	16.4	5.3	0.0	0.0	3.0	0.0	1.2	1.1
특수학교	재학	0.3	0.2	17.0	0.1	0.0	0.0	0.7	0.0	0.3	0.3
	중퇴	0.1	0.0	0.0	0.0	0.1	0.0	0.1	0.0	0.0	0.0
	졸업	2.1	2.0	9.4	8.7	1.0	0.2	5.5	0.0	2.1	2.0
대안학교	재학	-	-	-	-	-	-	-	-	-	-
	중퇴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졸업	0.0	0.0	0.0	0.1	0.0	0.0	0.1	0.0	0.0	0.0
검정고시		0.5	0.3	0.9	0.7	0.6	0.1	0.6	0.2	0.4	0.4
다니지않음		26.9	57.5	0.3	6.6	29.1	63.2	35.6	41.8	39.4	3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03,912	1,107,547	38,153	435,148	992,535	1,145,623	956,931	1,529,265	2,486,196	2,611,459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4-4〉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 고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일반학교	재학	0.2	0.2	22.7	0.3	0.1	0.0	0.3	0.1	0.2	0.2
	중퇴	3.3	1.3	0.7	3.3	2.9	1.8	3.1	2.1	2.5	2.5
	졸업	48.4	23.2	0.0	66.4	47.6	18.7	35.6	39.4	38.0	37.7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재학	0.4	0.5	37.7	1.4	0.0	0.0	1.3	0.0	0.5	0.5
	중퇴	-	-	-	-	-	-	-	-	-	-
	졸업	0.8	0.7	0.0	4.5	0.0	0.0	2.0	0.0	0.8	0.7
특수학교	재학	0.4	0.4	32.1	1.1	0.0	0.0	1.1	0.0	0.4	0.4
	중퇴	0.1	0.0	0.0	0.1	0.1	0.0	0.1	0.0	0.0	0.0
	졸업	1.6	1.8	0.0	8.2	0.6	0.2	4.7	0.0	1.8	1.7
대안학교	재학	-	-	-	-	-	-	-	-	-	-
	중퇴	-	-	-	-	-	-	-	-	-	-
	졸업	0.0	0.0	0.0	0.1	0.0	0.0	0.0	0.1	0.0	0.0
검정고시		0.5	0.3	0.0	0.8	0.6	0.1	0.7	0.3	0.4	0.4
다니지않음		44.2	71.7	6.8	13.8	48.2	79.2	51.1	57.9	55.3	5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88,497	1,100,703	16,354	434,690	992,534	1,145,622	936,844	1,527,096	2,463,940	2,589,200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4-5〉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심한장애로 인해서	7.8	5.9	13.3	45.1	9.5	2.1	17.6	1.3	7.1	6.8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3.8	21.1	0.0	1.5	5.1	18.2	9.7	14.4	12.7	13.0
다니기 싫어서	9.1	3.1	0.0	24.6	9.1	2.7	8.5	4.7	6.1	5.9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75.6	65.2	6.0	13.7	73.3	73.4	58.1	76.7	70.1	70.1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0.8	2.0	0.0	1.5	1.0	1.7	1.7	1.3	1.4	1.5
학교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0.2	0.0	0.0	0.2	0.0	0.1	0.0	0.1	0.1	0.1
편의제공(의사소통지원등)이 부족해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위의시선 및 편견 때문에	1.2	1.2	6.0	11.4	1.3	0.3	2.4	0.4	1.1	1.2
기타	1.3	1.6	74.7	1.9	0.7	1.4	2.0	1.1	1.4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02,579	790,096	6,019	74,584	496,246	915,826	501,815	906,542	1,408,357	1,492,675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4-6〉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일반보육시설	10.9	20.3	14.1	-	-	-	13.5	0.0	12.0	14.1
장애아통합보육시설	10.7	8.1	9.8	-	-	-	11.9	0.0	10.6	9.8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8.8	1.9	6.5	-	-	-	7.9	0.0	7.0	6.5
다니지 않음	69.6	69.7	69.6	-	-	-	66.6	100.0	70.4	69.6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041	9,766	28,807	-	-	-	23,670	3,041	26,711	28,807

〈부표 3-4-7〉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시간,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5시간	40.0	18.8	32.8	-	-	-	30.4	-	30.4	32.8
6~10시간	60.0	81.2	67.2	-	-	-	69.6	-	69.6	67.2
계	100.0	100.0	100.0	-	-	-	100.0	-	100.0	100.0
평균 이용시간	5.9	7.8	6.5	-	-	-	6.5	-	6.5	6.5
전국추정수	5,796	2,960	8,756	-	-	-	7,905	-	7,905	8,756

〈부표 3-4-8〉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

(단위: %, 만원,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무료	39.0	32.0	36.7	-	-	-	40.6	-	40.6	36.7
1~5만원	6.4	11.8	8.2	-	-	-	9.1	-	9.1	8.2
6~10만원	25.2	0.0	16.7	-	-	-	13.7	-	13.7	16.7
11~15만원	8.1	7.6	7.9	-	-	-	2.8	-	2.8	7.9
16~20만원	21.2	48.6	30.5	-	-	-	33.8	-	33.8	30.5
계	100.0	100.0	100.0	-	-	-	100.0	-	100.0	100.0
평균 비용	7.6	9.4	8.2	-	-	-	7.8	-	7.8	8.2
전국추정수	5,796	2,960	8,756	-	-	-	7,905	-	7,905	8,756

〈부표 3-4-9〉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한다	35.3	7.6	25.9	-	-	-	28.7	-	28.7	25.9
대체로 만족한다	42.7	32.5	39.3	-	-	-	37.6	-	37.6	39.3
약간 불만족한다	6.6	59.9	24.6	-	-	-	22.4	-	22.4	24.6
매우 불만족한다	15.4	0.0	10.2	-	-	-	11.3	-	11.3	10.2
계	100.0	100.0	100.0	-	-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5,796	2,960	8,756	-	-	-	7,905	-	7,905	8,756

〈부표 3-4-10〉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몰라서	-	-	-	-	-	-	-	-	-	-
시설이 없어서	3.3	0.0	2.2	-	-	-	2.7	0.0	2.3	2.2
믿지 못해서	0.0	7.5	2.6	-	-	-	3.2	0.0	2.7	2.6
다른 방법이 있어서	3.5	0.0	2.3	-	-	-	2.9	0.0	2.4	2.3
비용부담때문에	1.3	0.0	0.8	-	-	-	1.1	0.0	0.9	0.8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	22.7	8.3	17.8	-	-	-	17.6	17.5	17.6	17.8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60.5	75.9	65.7	-	-	-	70.3	69.0	70.1	65.7
공동육아를 하고 있어서	3.4	0.0	2.2	-	-	-	-	-	-	2.2
기타	5.4	8.3	6.4	-	-	-	2.2	13.4	4.0	6.4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247	6,806	20,053	-	-	-	15,767	3,042	18,809	20,053

〈부표 3-4-11〉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일반유치원	5.7	5.0	5.5	-	-	-	4.4	17.5	5.9	5.5
일반유치원내특수학급	6.7	0.8	4.7	-	-	-	5.7	0.0	5.0	4.7
특수학교 유치원(부)	3.4	0.0	2.2	-	-	-	1.6	0.0	1.5	2.2
기타	-	-	-	-	-	-	-	-	-	-
다니지 않음	84.2	94.2	87.6	-	-	-	88.3	82.5	87.6	87.6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041	9,766	28,807	-	-	-	23,670	3,042	26,712	28,807

〈부표 3-4-12〉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시간,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5시간	63.1	85.6	66.6	-	-	-	85.6	0.0	71.8	66.6
6~10시간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100.0
평균 이용시간	5.1	5.0	5.1	-	-	-	4.7	6.7	5.1	5.1
전국추정수	3,011	562	3,573	-	-	-	2,781	533	3,314	3,573

〈부표 3-4-13〉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평균 비용

(단위: %, 만원,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무료	74.3	27.9	67.0	-	-	-	76.7	0.0	64.4	67.0
1~5만원	0.0	72.1	11.4	-	-	-	14.6	0.0	12.3	11.4
6~10만원	5.5	0.0	4.6	-	-	-	0.0	31.0	5.0	4.6
11~15만원	8.0	0.0	6.7	-	-	-	8.7	0.0	7.3	6.7
16~20만원	-	-	-	-	-	-	-	-	-	-
21~25만원	12.2	0.0	10.3	-	-	-	0.0	69.0	11.1	10.3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100.0
평균 비용	4.6	3.6	4.4	-	-	-	2.0	19.0	4.8	4.4
전국추정수	3,011	562	3,573	-	-	-	2,781	533	3,314	3,573

〈부표 3-4-14〉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한다	61.6	86.5	65.6	-	-	-	69.0	31.0	62.9	65.6
대체로 만족한다	38.4	13.5	34.4	-	-	-	31.0	69.0	37.1	34.4
약간 불만족한다	-	-	-	-	-	-	-	-	-	-
매우 불만족한다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011	562	3,573	-	-	-	2,781	533	3,314	3,573

〈부표 3-4-15〉 현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몰라서	-	-	-	-	-	-	-	-	-	-
시설이 없어서	2.7	0.0	1.7	-	-	-	2.1	0.0	1.9	1.7
믿지 못해서	0.0	5.6	2.0	-	-	-	2.5	0.0	2.2	2.0
다른 방법이 있어서	2.9	0.0	1.8	-	-	-	2.2	0.0	2.0	1.8
비용부담때문에	-	-	-	-	-	-	-	-	-	-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어서	32.9	32.2	32.6	-	-	-	35.4	0.0	31.6	32.6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51.7	56.1	53.3	-	-	-	54.4	83.7	57.5	53.3
공동육아를 하고 있어서	2.8	0.0	1.8	-	-	-				1.8
기타	7.0	6.1	6.7	-	-	-	3.5	16.3	4.9	6.7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031	9,204	25,235	-	-	-	20,891	2,509	23,400	25,235

〈부표 3-4-16〉 학교생활(보육시설/유치원 포함) 적응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전혀 적응 못함	2.5	1.8	2.8	0.0	0.0	-	2.6	0.0	2.3	2.3
잘 적응 못하는 편	25.6	13.8	21.8	20.6	0.0	-	20.6	16.4	20.3	21.5
잘 적응 하는 편	57.5	78.9	63.9	68.8	100.0	-	66.2	59.1	65.6	64.8
매우 잘 적응	14.4	5.5	11.5	10.6	0.0	-	10.6	24.5	11.7	1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613	26,445	63,034	13,871	153	-	68,492	5,944	74,436	77,058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4-17〉 보육시설·유치원·학교생활의 문제점(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친구들의 이해부족, 놀림	19.4	23.8	19.9	26.3	0.0	-	19.1	28.3	19.9	20.9
선생님의 이해부족, 편견	1.7	5.2	3.6	0.0	0.0	-	3.3	0.0	3.0	2.9
선생님의 지나친 배려	-	-	-	-	-	-	-	-	-	-
수업내용의 이해(진도 따라가기)	27.0	25.0	28.2	19.2	0.0	-	27.7	9.6	26.1	26.3
교육도구나 기자재사용시 불편	1.7	3.8	3.0	0.0	0.0	-	2.6	2.4	2.5	2.5
교육내용의 부적합	4.2	5.8	5.5	1.5	0.0	-	5.4	0.0	4.9	4.8
청소나 학교행사 참여	-	-	-	-	-	-	-	-	-	-
특수교사의 부족	12.7	7.1	10.5	12.5	0.0	-	11.7	5.2	11.1	10.8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	7.9	6.2	6.3	8.9	76.7	-	6.8	15.6	7.6	7.3
학교내 편의시설 부족	3.4	2.9	4.0	0.0	0.0	-	3.4	2.8	3.3	3.2
등·하교 불편	5.6	6.2	6.1	4.9	0.0	-	6.4	1.8	6.0	5.8
문제 없음	13.3	14.1	12.6	17.7	23.3	-	11.4	34.4	13.4	13.6
기타	3.0	0.0	0.4	9.1	0.0	-	2.2	0.0	2.0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637	27,445	64,890	14,536	656	-	68,790	6,452	75,242	80,082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4-18〉 보육시설·유치원·학교까지의 통학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일반버스	10.8	17.7	8.1	36.2	23.3	-	13.9	12.4	13.7	13.3
일반택시	1.6	0.0	1.2	0.0	0.0	-	1.1	0.0	1.0	1.0
지하철·전철	1.9	0.9	0.4	7.0	0.0	-	1.8	0.0	1.6	1.6
통학버스	25.4	12.1	20.2	23.8	0.0	-	21.4	6.8	20.0	20.7
장애인 콜택시	2.1	0.0	1.6	0.0	0.0	-	1.5	0.0	1.4	1.3
복지관버스	0.6	0.8	0.8	0.0	0.0	-	0.7	0.8	0.7	0.7
자가용 (본인운전)	1.2	0.9	0.9	1.7	0.0	-	1.2	0.0	1.1	1.1
자가용 (보호자운전)	20.5	16.7	23.1	2.4	0.0	-	20.3	11.7	19.5	19.2
셔틀형복지버스	5.2	12.4	7.3	7.2	76.7	-	6.4	23.9	8.1	7.8
전동휠체어	-	-	-	-	-	-	-	-	-	-
전동스쿠터	-	-	-	-	-	-	-	-	-	-
도보	26.4	36.8	33.1	17.9	0.0	-	27.9	44.4	29.5	30.1
기타	4.2	1.8	3.2	3.8	0.0	-	3.8	0.0	3.4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411	29,645	67,445	14,954	656	-	72,622	7,811	80,433	83,055

〈부표 3-4-19〉 방과 후 시간사용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집에서 혼자 지냄	9.0	3.5	5.4	15.0	0.0	-	5.9	10.5	6.3	7.1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55.0	36.5	50.8	39.6	0.0	-	50.8	24.0	48.2	48.4
장애부모들이 운영하는 공동육아시설	-	-	-	-	-	-	-	-	-	-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4.8	2.3	4.8	0.0	0.0	-	4.5	0.0	4.1	3.9
일반보육시설	2.3	0.5	2.1	0.0	0.0	-	1.3	0.0	1.2	1.7
가정에서 방문교사 지도	0.9	4.1	2.5	0.0	0.0	-	1.9	3.6	2.1	2.0
복지시설(기관)	6.3	12.1	5.9	19.9	0.0	-	9.6	0.0	8.6	8.4
학원	6.3	13.4	10.3	2.5	0.0	-	7.1	28.5	9.1	8.8
유치원·학교의 방과 후 활동참여	12.7	20.1	14.4	17.0	76.7	-	14.1	31.4	15.8	15.3
기타	2.6	7.5	3.8	6.1	23.3	-	4.8	2.0	4.5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411	29,645	67,445	14,954	656	-	72,622	7,811	80,433	83,055

〈부표 3-4-20〉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의료비용 경감	12.2	5.8	10.8	6.3	0.0	-	8.8	24.1	10.1	10.0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확대	10.2	10.1	11.2	5.2	0.0	-	11.0	4.8	10.5	10.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 대	15.1	15.4	15.7	13.0	0.0	-	15.2	7.2	14.6	15.2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15.0	12.2	14.6	11.8	0.0	-	12.7	21.7	13.5	14.0
장애아동 돌봄지원서비스 확대	14.7	22.9	20.1	4.9	0.0	-	18.2	3.3	17.0	17.4
고등교육 지원강화	14.0	23.9	12.8	38.6	0.0	-	16.8	30.4	17.9	17.3
자신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	18.5	9.9	14.4	20.3	100.0	-	16.9	8.6	16.2	15.6
기타	0.4	0.0	0.3	0.0	0.0	-	0.3	0.0	0.3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155	25,261	62,106	13,157	153	-	66,851	5,942	72,793	75,416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4-21〉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장애자녀를 위한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 의향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52.5	57.9	59.5	29.2	100.0	-	54.3	51.0	54.1	54.3
없다	20.1	14.0	18.0	18.4	0.0	-	18.5	7.6	17.6	18.0
생각해보지않음	27.4	28.2	22.5	52.4	0.0	-	27.2	41.4	28.4	2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155	25,261	62,106	13,157	153	-	66,851	5,942	72,793	75,416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4-2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학력보완 교육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전체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음	0.3	0.4	-	0.9	0.2	0.1	0.5	0.2	0.3	0.3
없음	99.7	99.6	-	99.1	99.8	99.9	99.5	99.8	99.7	99.7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71,373	1,089,488	-	422,413	991,879	1,146,569	910,971	1,525,382	2,436,353	2,560,861

〈부표 3-4-2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음	0.3	0.5	-	0.6	0.1	0.5	0.5	0.3	0.4	0.4
없음	99.7	99.5	-	99.4	99.9	99.5	99.5	99.7	99.6	99.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71,373	1,089,488	-	422,413	991,879	1,146,569	910,971	1,525,382	2,436,353	2,560,861

〈부표 3-4-2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직업능력 향상교육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음	1.5	1.4	-	4.8	1.6	0.0	2.2	1.1	1.5	1.4
없음	98.5	98.6	-	95.2	98.4	100.0	97.8	98.9	98.5	98.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71,373	1,089,488	-	422,413	991,879	1,146,569	910,971	1,525,382	2,436,353	2,560,861

〈부표 3-4-2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인문교양 교육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음	0.9	0.6	-	1.2	0.6	0.8	0.6	1.0	0.8	0.8
없음	99.1	99.4	-	98.8	99.4	99.2	99.4	99.0	99.2	99.2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71,373	1,089,488	-	422,413	991,879	1,146,569	910,971	1,525,382	2,436,353	2,560,861

〈부표 3-4-26〉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문화·체육·예술 교육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음	1.7	3.8	-	2.3	2.2	2.9	1.9	3.0	2.6	2.6
없음	98.3	96.2	-	97.7	97.8	97.1	98.1	97.0	97.4	97.4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71,373	1,089,488	-	422,413	991,879	1,146,569	910,971	1,525,382	2,436,353	2,560,861

〈부표 3-4-27〉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시민참여 교육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음	0.3	0.3	-	0.6	0.2	0.2	0.1	0.4	0.3	0.3
없음	99.7	99.7	-	99.4	99.8	99.8	99.9	99.6	99.7	99.7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71,373	1,089,488	-	422,413	991,879	1,146,569	910,971	1,525,382	2,436,353	2,560,861

〈부표 3-4-28〉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 학력보완 교육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개	96.5	94.3	-	91.0	100.0	100.0	96.9	93.4	95.3	95.4
2개	3.5	0.0	-	3.3	0.0	0.0	3.1	0.0	1.7	1.7
3개 이상	0.0	5.7	-	5.7	0.0	0.0	0.0	6.6	3.0	3.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683	4,005	-	3,949	2,451	1,288	4,180	3,446	7,626	7,688

〈부표 3-4-29〉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 :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 교육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개	94.0	98.5	-	100.0	100.0	94.6	98.4	94.2	96.5	96.6
2개	6.0	1.5	-	0.0	0.0	5.4	1.6	5.8	3.5	3.4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023	5,501	-	2,325	1,164	6,035	4,979	4,219	9,198	9,524

〈부표 3-4-30〉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 : 직업능력 향상교육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개	68.7	75.1	-	79.8	61.1	57.5	81.5	58.8	71.2	71.3
2개	21.6	18.8	-	12.4	31.4	0.0	14.6	27.8	20.6	20.5
3개 이상	9.6	6.0	-	7.7	7.5	42.5	3.9	13.4	8.2	8.2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2,217	14,793	-	20,245	16,193	572	20,177	16,718	36,895	37,010

〈부표 3-4-31〉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 : 인문교양 교육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개	79.1	58.6	-	82.8	86.5	56.5	71.4	72.3	72.1	72.1
2개	17.9	4.7	-	9.6	11.0	17.2	21.3	10.5	13.4	13.4
3개 이상	3.0	36.7	-	7.6	2.5	26.3	7.3	17.2	14.5	14.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228	6,905	-	5,205	5,877	9,051	5,392	14,741	20,133	20,133

〈부표 3-4-32〉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 : 문화체육·예술 교육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개	82.4	66.9	-	66.1	61.2	82.3	62.3	74.6	71.3	72.7
2개	9.1	18.3	-	18.8	24.5	7.2	23.4	12.7	15.6	14.8
3개	1.5	5.7	-	6.5	1.8	4.9	5.7	3.8	4.3	4.1
4개	2.3	2.7	-	1.8	3.6	2.1	4.7	1.9	2.7	2.5
5개 이상	4.8	6.4	-	6.9	8.9	3.5	3.9	6.9	6.1	5.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4,570	41,030	-	9,753	22,247	33,600	17,005	45,220	62,225	65,600

〈부표 3-4-33〉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 : 시민참여 교육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개	55.9	86.4	-	80.3	68.0	58.3	58.2	71.9	69.5	69.4
2개	26.9	3.8	-	8.0	32.0	11.9	41.8	11.2	16.7	16.7
3개 이상	17.2	9.8	-	11.8	0.0	29.8	0.0	16.9	13.9	13.9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970	3,182	-	2,654	2,210	2,288	1,269	5,883	7,152	7,152

〈부표 3-4-34〉 지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인부담금

(단위: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전체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학력보완교육	42.1	20.5	-	14.7	73.1	0.0	30.9	13.1	52.9	31.1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8.5	0.3	-	0.6	0.0	5.7	3.7	6.7	0.6	3.9
직업능력 향상교육	11.8	21.4	-	17.2	14.1	4.2	15.6	13.8	17.9	15.7
인문교양 교육	9.0	8.2	-	12.0	6.7	8.1	8.7	14.1	6.7	8.7
문화·체육·예술 교육	27.4	17.2	-	18.8	30.9	15.1	21.0	15.2	22.8	20.7
시민참여 교육	0.0	10.7	-	12.7	0.0	0.1	4.8	0.4	5.7	4.8

〈부표 3-4-35〉 향후 참여하고 싶은 영역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학력보완교육	2.7	4.9	-	3.7	3.4	3.8	3.6	3.6	3.6	3.6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1.4	3.7	-	0.8	2.0	3.3	2.2	2.5	2.4	2.4
직업능력 향상교육	10.3	5.8	-	22.2	10.6	1.4	10.6	7.4	8.6	8.4
인문교양 교육	3.1	2.1	-	1.9	4.0	1.9	2.3	3.0	2.7	2.7
문화·체육·예술 교육	11.6	15.0	-	16.6	14.2	10.6	10.5	14.6	13.1	13.0
시민참여 교육	2.6	1.7	-	1.5	2.6	2.2	1.7	2.4	2.1	2.2
없음	68.3	66.9	-	53.2	63.2	76.9	69.1	66.5	67.5	67.7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63,133	1,085,852	-	420,481	987,541	1,140,963	904,885	1,521,459	2,426,344	2,548,985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4-36〉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	31.2	24.4	-	28.3	30.9	26.1	21.1	32.9	28.5	28.3
교육기관까지의 이동 방법지원	10.8	23.2	-	7.6	9.8	24.6	18.5	13.9	15.6	16.1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4.2	3.3	-	6.8	3.7	2.8	5.1	3.1	3.8	3.8
학습지원 인력제공	4.2	5.0	-	3.9	4.7	4.6	3.9	5.0	4.6	4.5
학습 보조금 지원	24.1	20.8	-	25.2	25.9	19.0	18.6	25.5	22.9	22.7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23.0	20.6	-	26.3	23.0	19.6	30.4	17.1	22.0	22.0
기타	2.5	2.7	-	2.0	2.0	3.3	2.5	2.5	2.5	2.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62,608	1,083,822	-	420,685	987,025	1,138,720	904,200	1,518,998	2,423,198	2,546,430

주: 무응답 제외

5. 취업 및 직업생활

〈부표 3-5-1〉 지난 1주간의 활동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일하였음	46.3	22.8	0.0	47.1	50.9	20.5	23.5	45.9	37.3	36.3
일시휴직	0.4	0.0	0.0	0.3	0.4	0.0	0.1	0.3	0.2	0.2
구직활동	1.9	0.6	0.0	4.0	1.5	0.2	1.3	1.4	1.4	1.3
발령대기	-	-	-	-	-	-	-	-	-	-
육아	0.0	0.6	0.0	1.3	0.1	0.1	0.2	0.3	0.3	0.3
가사	0.3	16.0	0.0	5.4	7.9	6.8	4.3	8.7	7.0	6.9
정규교육기관 통학	1.7	1.3	90.9	4.0	0.0	0.0	3.8	0.3	1.6	1.6
입시학원 통학	0.0	0.0	0.4	0.1	0.0	0.0	0.1	0.0	0.0	0.0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0.3	0.2	0.0	1.3	0.1	0.0	0.4	0.1	0.3	0.2
취업준비	0.4	0.2	0.0	1.6	0.1	0.1	0.6	0.3	0.4	0.4
진학준비	0.1	0.1	2.5	0.2	0.0	0.0	0.2	0.0	0.1	0.1
연로	13.5	25.0	0.0	0.0	0.4	41.3	11.6	21.8	17.9	18.3
심신장애	17.1	19.4	2.7	19.9	16.7	18.9	35.4	6.1	17.3	18.1
결혼준비	-	-	-	-	-	-	-	-	-	-
쉬었음	17.6	13.6	2.4	14.0	21.6	11.9	17.9	14.5	15.8	15.9
기타	0.4	0.3	1.1	0.6	0.3	0.2	0.6	0.1	0.3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97,449	1,102,441	25,639	435,149	992,534	1,146,568	947,119	1,527,507	2,474,626	2,599,890

〈부표 3-5-2〉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근로 또는 무급 근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었음	0.2	0.1	0.0	0.4	0.1	0.1	0.2	0.1	0.2	0.1
무급가족종사자	0.2	0.1	0.0	0.4	0.1	0.1	0.3	0.0	0.1	0.1
없었음	99.6	99.8	100.0	99.1	99.9	99.8	99.5	99.9	99.7	9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03,849	851,351	25,638	230,140	487,552	911,870	724,711	827,022	1,551,733	1,655,200

〈부표 3-5-3〉 지난 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무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었음	1.5	0.3	0.0	1.0	1.9	0.4	0.6	1.2	0.9	0.9
없었음	98.5	99.7	100.0	99.0	98.1	99.6	99.4	98.8	99.1	9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00,629	850,045	25,638	228,178	486,865	909,993	721,271	826,019	1,547,290	1,650,674

〈부표 3-5-4〉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으나 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일시적 병·사고	56.6	65.8	-	47.3	54.7	76.8	55.1	57.1	56.4	58.3
연(휴)가	7.6	0.0	-	23.7	4.1	0.0	0.0	9.6	6.5	6.2
교육	-	-	-	-	-	-	-	-	-	-
육아·가족적 이유	2.3	13.9	-	12.0	4.1	0.0	0.0	6.9	4.6	4.4
노사분규	1.6	0.0	-	0.0	2.1	0.0	0.0	2.1	1.4	1.3
사업부진·조업 중단	31.9	20.3	-	17.1	35.0	23.2	44.9	24.4	31.1	29.7
기타	-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043	2,784	-	2,275	9,346	3,206	4,614	9,579	14,193	14,827

〈부표 3-5-5〉 지난주에 직장(일)을 구한 경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었음	5.3	1.1	0.0	10.4	5.5	0.2	2.6	3.8	3.2	3.2
없었음	94.7	98.9	100.0	89.6	94.5	99.8	97.4	96.2	96.8	9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94,728	854,390	25,638	228,624	482,969	911,887	721,922	823,234	1,545,156	1,649,118

〈부표 3-5-6〉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한 경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었음	1.4	0.5	0.0	3.3	1.4	0.2	0.5	1.4	1.0	0.9
없었음	98.6	99.5	100.0	96.7	98.6	99.8	99.5	98.6	99.0	9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52,224	844,849	25,638	204,807	456,605	910,023	703,235	792,240	1,495,475	1,597,073

〈부표 3-5-7〉 지난주 근로시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	0.9	2.8	-	1.3	1.1	2.2	2.3	1.0	1.3	1.4
1~35시간	24.8	48.5	-	17.7	25.4	55.0	35.7	29.1	30.7	31.1
36시간 이상	74.3	48.7	-	81.0	73.5	42.8	61.9	70.0	68.0	67.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96,819	252,397	-	206,971	505,670	236,575	225,848	701,489	927,337	949,216

주: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일시휴직자 제외

1) 취업자

〈부표 3-5-8〉 현재 일하는 곳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자영업	38.4	41.8	-	19.4	39.6	56.3	34.2	40.5	39.0	39.3
일반사업체	50.0	32.7	-	57.6	49.7	25.5	42.4	46.8	45.8	45.5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6.3	12.1	-	10.5	7.0	7.3	7.4	7.9	7.8	7.8
장애인 보호작업장	0.7	2.3	-	5.0	0.0	0.0	4.6	0.0	1.1	1.1
장애인근로사업장	1.0	1.3	-	2.7	0.8	0.2	4.1	0.2	1.1	1.1
장애인 관련 기관	1.2	1.6	-	2.7	1.2	0.3	4.0	0.5	1.3	1.3
기타	2.4	8.2	-	2.0	1.7	10.4	3.5	4.0	3.9	3.9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02,719	248,053	-	206,524	509,565	234,683	225,197	704,274	929,471	950,772

〈부표 3-5-9〉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임금, 평균 근속기간

(단위: 시간, 일, 만원, 개월)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주당평균근무시간	45	35	-	46	45	34	40	44	43	43
주 평균근무일수	5.2	5.1	-	5.4	5.2	5.0	5.2	5.2	5.2	5.2
일 평균근무시간	8.7	6.8	-	8.5	8.7	6.9	7.8	8.4	8.2	8.2
월평균 임금*	180	74	-	184	177	72	117	164	153	153
평균 근속기간										
전체	152	157	-	62	143	256	128	160	152	153
임금근로자	95	54	-	56	108	61	71	88	84	84
비임금근로자	239	301	-	85	194	408	236	261	255	256

주: * 무응답 제외

〈부표 3-5-10〉 취업자의 지난주 총 일한 시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36시간 미만	1~17시간	6.7	16.4	-	3.7	4.7	23.9	9.9	9.0	9.2	9.2
	18~35시간	17.9	33.0	-	14.1	20.5	31.6	25.9	20.0	21.4	21.8
	소계	24.6	49.3	-	17.8	25.2	55.4	35.8	28.9	30.6	31.0
36시간 이상		73.7	49.6	-	81.1	73.0	43.2	62.1	69.7	67.9	67.4
지난주 일시 휴직자		1.7	1.1	-	1.1	1.8	1.4	2.0	1.4	1.5	1.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02,721	248,051	-	206,524	509,566	234,682	225,198	704,273	929,471	950,772

〈부표 3-5-11〉 현재 월평균 임금

(단위: %, 명,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50만원 미만	13.4	47.3	-	13.7	11.7	52.4	30.6	19.2	22.0	22.2
50~99만원	13.6	20.5	-	11.3	14.5	21.0	17.4	14.5	15.2	15.4
100~149만원	19.9	15.5	-	17.3	20.9	15.6	20.1	18.4	18.8	18.8
150~199만원	14.2	7.8	-	13.3	16.3	3.5	12.2	12.7	12.6	12.5
200~299만원	21.2	5.6	-	25.4	19.9	3.9	11.8	19.2	17.4	17.2
300~499만원	12.6	3.1	-	15.2	11.7	2.1	6.0	11.5	10.1	10.1
500만원 이상	5.1	0.2	-	3.9	5.0	1.4	1.9	4.5	3.9	3.9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월평균 임금 평균	180.2	74.3	-	184.0	176.8	72.2	117.4	164.5	153.1	152.5
전국추정수	702,433	248,051	-	206,238	509,565	234,681	225,197	703,988	929,185	950,484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5-12〉 직장(일)에서의 지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27.1	14.6	-	40.7	25.8	4.7	25.9	23.6	24.2	23.8
	임시근로자	15.7	21.6	-	23.5	14.7	17.3	22.1	15.8	17.3	17.2
	일용근로자	17.5	22.3	-	15.1	18.9	21.7	17.0	19.3	18.7	18.8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4.7	2.2	-	3.1	5.1	2.5	3.2	4.4	4.1	4.0
	자영자1 (노점제외)	32.0	21.0	-	14.4	29.4	41.8	23.8	30.5	28.9	29.2
	자영자2 (노점)	1.3	2.3	-	0.5	1.4	2.8	1.4	1.6	1.6	1.5
	무급가족종사자	1.7	16.0	-	2.7	4.8	9.3	6.6	4.8	5.2	5.4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02,720	248,052	-	206,526	509,564	234,682	225,197	704,274	929,471	950,772

〈부표 3-5-13〉 현재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낮은 수입	45.8	45.4	-	34.9	45.7	55.1	40.8	47.3	45.7	45.7
직장 내의 대인관계	2.4	2.3	-	2.4	3.2	0.8	3.3	2.2	2.4	2.4
승진문제	0.5	0.2	-	0.8	0.5	0.0	0.4	0.4	0.4	0.4
업무과다	15.3	16.8	-	17.2	16.3	13.0	12.5	17.0	15.9	15.7
직무관련기능 부족	1.5	1.6	-	2.8	1.1	1.4	2.0	1.4	1.6	1.6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	0.9	0.6	-	2.0	0.5	0.7	0.7	0.9	0.9	0.9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1.0	0.9	-	1.0	1.4	0.1	2.6	0.5	1.0	1.0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2.2	2.0	-	1.2	2.3	2.5	2.8	2.0	2.2	2.1
출퇴근 불편	2.3	2.4	-	3.6	1.7	2.5	3.9	1.9	2.4	2.3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2.2	2.5	-	3.5	2.1	1.6	6.1	1.1	2.3	2.3
성차별	-	-	-	-	-	-	-	-	-	-
성희롱	-	-	-	-	-	-	-	-	-	-
어려움 없음	25.4	24.5	-	30.4	24.6	21.9	24.4	24.8	24.7	25.2
기타	0.4	0.8	-	0.2	0.7	0.4	0.4	0.6	0.5	0.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02,721	248,051	-	206,525	509,565	234,682	225,197	704,274	929,471	950,772

〈부표 3-5-14〉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10.1	10.6	-	14.0	9.8	7.9	10.9	9.9	10.1	10.2
약간 만족	35.6	37.3	-	38.6	35.3	35.3	36.8	36.2	36.3	36.0
보통	29.7	26.3	-	29.6	27.2	31.7	27.7	29.3	28.9	28.8
약간 불만족	19.4	21.1	-	13.3	21.7	21.4	20.4	19.6	19.8	19.8
매우 불만족	5.2	4.7	-	4.5	6.0	3.7	4.3	5.1	4.9	5.1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02,720	248,052	-	206,525	509,565	234,682	225,198	704,272	929,470	950,772

2) 실업자

〈부표 3-5-15〉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는지 유무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었음	93.9	97.8	-	97.0	92.1	100.0	91.5	96.0	94.5	94.7
없었음	6.1	2.2	-	3.0	7.9	0.0	8.5	4.0	5.5	5.3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149	13,809	-	30,629	32,888	3,441	21,879	42,074	63,953	66,958

〈부표 3-5-16〉 직장(일)을 구한 주된 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공공 직업알선기관 등록	26.4	42.9	-	36.4	23.0	35.4	46.4	24.0	31.4	29.9
민간 직업알선기관 등록	8.2	4.2	-	0.0	15.5	0.0	5.3	9.0	7.8	7.4
취직시험 응시	2.9	0.0	-	4.9	0.0	0.0	0.0	3.6	2.4	2.3
신문, 잡지 등을 보고 (오프라인)을 통해 응모	4.9	6.0	-	1.8	5.9	26.2	2.4	6.8	5.4	5.1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구직등록 또는 응모	23.6	19.9	-	36.6	11.9	0.0	27.9	20.6	23.0	22.8
학교 학원 추천	0.6	2.3	-	2.0	0.0	0.0	1.6	0.0	0.5	1.0
사업체 문의, 방문	4.3	4.9	-	3.4	5.9	0.0	0.2	6.8	4.6	4.4
부모, 친구, 친지소개	23.0	19.0	-	8.4	34.2	38.4	16.3	24.0	21.5	22.3
취업박람회 참가	-	-	-	-	-	-	-	-	-	-
자영업 준비	6.1	0.0	-	6.5	3.7	0.0	0.0	5.1	3.4	4.8
기타	-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9,923	13,508	-	29,707	30,283	3,441	20,013	40,412	60,425	63,431

〈부표 3-5-17〉 등록한 공공 직업알선기관(공공 직업알선기관 통해 직장 구한 경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인력은행 등	68.4	14.1	-	39.4	62.6	100.0	34.0	68.8	51.8	5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3.8	37.5	-	27.1	15.4	0.0	27.7	14.7	21.0	21.0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정신보건기관 포함)	7.1	23.1	-	15.8	8.0	0.0	18.4	5.7	11.9	11.9
기타	10.8	23.5		17.7	14.0	0.0	19.9	10.8	15.2	15.2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198	5,796	-	10,803	6,974	1,217	9,281	9,713	18,994	18,994

3) 비경제활동인구

〈부표 3-5-18〉 지난 4주 내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전공,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2	0.6	0.0	0.9	2.0	0.3	0.6	1.2	0.9	0.9
임금수준,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2.4	1.9	0.0	2.5	3.0	1.6	1.8	2.5	2.2	2.1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0.6	1.0	0.0	0.0	0.9	1.0	0.3	1.4	0.9	0.8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	0.3	0.6	0.0	1.6	0.7	0.1	0.5	0.4	0.5	0.4
나이가 너무 어려거나 많아서	10.5	13.9	0.0	0.0	1.5	20.7	4.5	19.1	12.2	12.3
이전에 찾아보았을 때 일자리가 없어서	3.7	1.7	0.0	2.5	3.8	2.2	1.7	3.5	2.7	2.6
장애인이라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4.5	2.0	0.0	6.5	5.9	1.1	4.9	1.8	3.3	3.1
구직정보, 방법을 몰라서	0.2	0.1	0.0	0.3	0.2	0.1	0.1	0.1	0.1	0.1
자영업을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되서	0.5	0.0	0.0	0.3	0.3	0.2	0.3	0.3	0.3	0.3
육아 또는 가사	0.4	9.8	0.0	8.1	6.7	4.2	2.5	8.1	5.5	5.3
통학	3.6	1.8	94.6	8.9	0.0	0.0	5.3	0.6	2.8	2.6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움	43.6	37.8	2.4	54.9	53.9	31.8	55.6	26.1	40.0	40.5
장애 이외의 질병, 사고로	17.2	18.5	0.5	8.7	15.9	21.4	14.4	21.2	18.0	17.9
취업/창업 준비중	0.8	0.2	0.0	2.3	0.6	0.0	0.6	0.5	0.5	0.5
기초수급자격 박탈 우려	1.6	1.0	0.0	0.8	2.3	1.0	1.2	1.6	1.4	1.3
취업 이외의 활동(진학,결혼등) 때문에	0.4	0.2	2.5	0.5	0.7	0.0	0.2	0.4	0.3	0.3
기타	8.4	9.1	0.0	1.1	1.6	14.2	5.5	11.3	8.5	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44,807	840,882	25,638	198,917	452,688	908,446	701,905	782,821	1,484,726	1,585,689

〈부표 3-5-19〉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경우)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 어려움	41.4	34.9	0.0	51.0	50.7	29.2	54.4	23.4	37.9	38.1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할 필요가 없어서	11.1	14.6	0.0	0.9	6.7	19.6	8.7	16.4	12.8	12.9
임금수준,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3.1	2.2	0.0	3.7	4.2	1.7	1.6	3.5	2.6	2.7
전공,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0.9	0.5	0.0	0.9	1.6	0.3	0.4	1.1	0.8	0.7
교육, 기술, 경험 부족	0.2	0.3	0.0	0.9	0.5	0.0	0.3	0.3	0.3	0.3
장애인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1.7	1.1	0.0	2.4	3.2	0.2	1.8	1.1	1.4	1.4
이전에 찾아보았을 때 일자리가 없어서	5.4	2.5	0.0	5.6	5.6	2.7	2.2	5.6	4.0	3.9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0.4	0.9	0.0	1.8	0.8	0.3	0.7	0.6	0.7	0.7
현재 취업준비 중	2.0	0.3	0.0	5.9	1.0	0.0	0.9	1.3	1.1	1.1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10.7	13.3	2.4	0.0	1.4	21.0	4.6	18.3	11.9	12.1
육아 또는 가사	0.2	7.9	0.0	7.1	5.1	3.0	2.1	6.2	4.3	4.2
장애 이외의 질병, 사고로(건강문제)	17.7	18.5	0.5	10.3	18.0	20.7	15.8	20.2	18.1	18.1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3.4	1.9	94.6	7.8	0.0	0.1	5.2	0.6	2.7	2.6
취업 이외의 활동 때문에	0.3	0.2	2.5	0.4	0.4	0.0	0.2	0.3	0.3	0.2
자영업을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되서	0.6	0.0	0.0	0.8	0.5	0.1	0.4	0.3	0.3	0.3
기타	0.7	0.9	0.0	0.6	0.4	1.1	0.6	0.8	0.7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94,730	854,389	25,638	228,625	482,969	911,887	721,923	823,233	1,545,156	1,649,119

4) 장애인이 희망하는 일자리(직장)[40]

〈부표 3-5-20〉 원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임금근로	95.2	100.0	-	95.5	96.4	100.0	100.0	94.1	96.1	96.2
비임금근로	4.8	0.0	-	4.5	3.6	0.0	0.0	5.9	3.9	3.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149	13,808	-	30,628	32,888	3,441	21,879	42,074	63,953	66,957

40) 지난 4주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경우

〈부표 3-5-21〉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업종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농업,임업,어업	2.1	3.7	-	1.5	2.1	14.9	0.0	3.7	2.5	2.4
광업	-	-	-	-	-	-	-	-	-	-
제조업	17.2	19.9	-	21.8	14.4	14.0	22.1	13.8	16.6	17.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4	0.0	-	1.0	3.1	0.0	1.1	0.0	0.4	1.9
하수·폐수물처리,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4.8	0.0	-	0.0	6.8	8.9	0.0	6.0	4.0	3.8
건설업	11.6	0.0	-	5.8	12.0	12.3	3.4	12.8	9.6	9.2
도매,소매업	4.4	5.9	-	3.0	6.8	0.0	4.1	5.3	4.9	4.7
운수업	6.7	0.0	-	0.4	7.1	33.0	3.6	6.7	5.6	5.3
숙박음식점업	2.2	18.7	-	7.7	4.2	0.0	3.6	6.4	5.4	5.6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8.2	0.0	-	14.2	0.0	0.0	8.0	6.2	6.8	6.5
금융보험업	2.1	0.0	-	0.0	3.3	0.0	0.0	2.6	1.7	1.6
부동산업,임대업	0.3	0.0	-	0.6	0.0	0.0	0.0	0.4	0.3	0.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5	3.0	-	5.8	4.7	0.0	3.7	6.0	5.2	5.0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2	3.1	-	4.8	10.0	16.9	3.6	10.8	8.3	8.0
공공행정국방및 사회보장행정	8.4	6.1	-	11.6	5.3	0.0	14.8	4.9	8.3	7.9
교육서비스업	1.4	10.8	-	4.6	2.5	0.0	3.1	3.7	3.5	3.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5.3	19.8	-	7.6	9.8	0.0	11.2	7.4	8.7	8.3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3.7	6.3	-	6.7	2.4	0.0	9.3	1.9	4.4	4.2
협회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5	2.5	-	3.1	5.5	0.0	8.4	1.4	3.8	4.1
가구내고용활동등	-	-	-	-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149	13,808	-	30,628	32,888	3,441	21,879	42,074	63,953	66,957

〈부표 3-5-22〉 희망 일자리 업무(직무)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관리자	5.6	0.0	-	4.5	4.9	0.0	0.0	4.8	3.1	4.4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1.6	16.4	-	18.5	8.4	0.0	8.7	15.5	13.2	12.6
사무종사자	16.3	13.4	-	20.4	12.9	0.0	21.7	13.7	16.4	15.7
서비스종사자	8.9	18.0	-	13.7	8.8	3.0	17.9	6.3	10.3	10.7
판매종사자	4.7	3.0	-	3.6	5.4	0.0	4.9	4.4	4.5	4.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9	0.0	-	0.0	1.4	0.0	0.0	0.9	0.6	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7.2	2.2	-	6.9	6.1	0.0	4.9	5.8	5.5	6.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2.1	0.0	-	4.5	12.1	30.0	10.3	9.9	10.0	9.6
단순노무종사자	32.9	47.0	-	27.8	40.0	67.0	31.6	38.7	36.3	35.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149	13,808	-	30,628	32,888	3,441	21,879	42,074	63,953	66,957

5) 직업훈련 (모든 장애인 대상)

〈부표 3-5-23〉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5.5	3.9	4.0	15.5	5.1	0.5	8.2	2.9	4.9	4.8
훈련중	1.2	1.1	4.0	3.0	0.7	0.8	2.0	0.7	1.2	1.2
아니오	93.3	95.1	92.0	81.5	94.1	98.7	89.8	96.3	93.8	9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85,987	1,100,245	25,491	430,747	984,727	1,145,267	942,667	1,519,007	2,461,674	2,586,232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5-24〉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19.9	19.1	6.9	19.0	20.2	19.6	15.9	22.1	19.8	19.6
등록절차를 몰라서	1.7	1.1	6.4	2.0	1.9	0.8	1.4	1.5	1.5	1.5
심한장애로훈련받기어려워서	15.6	15.7	14.4	23.3	17.5	11.8	33.1	5.5	15.6	15.7
직업훈련비용이 부담되어서	0.9	0.4	0.0	1.7	1.1	0.1	0.6	0.8	0.7	0.7
직업훈련내용이 맘에안들어서	1.8	1.0	0.0	4.1	1.7	0.5	1.6	1.6	1.6	1.5
직업훈련이취업에도움이안되어서	8.3	3.6	2.2	8.9	8.2	3.9	5.7	6.7	6.3	6.3
훈련받을필요가없어서	48.9	57.6	67.4	37.4	47.1	61.8	39.5	59.8	52.3	52.6
집근처에훈련기관이 없어서	2.4	1.4	0.0	3.2	2.1	1.5	2.1	1.8	1.9	2.0
기타	0.3	0.1	2.8	0.4	0.1	0.1	0.2	0.2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67,291	1,020,485	23,452	346,462	916,836	1,101,025	834,722	1,436,526	2,271,248	2,387,775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5-25〉 희망하는 직업훈련 분야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기계	2.6	0.1	1.0	3.1	2.3	0.4	1.5	1.6	1.6	1.5
금속	0.5	0.1	0.0	0.4	0.6	0.1	0.4	0.3	0.3	0.3
화공·요업	0.2	0.0	0.0	0.2	0.1	0.1	0.0	0.1	0.1	0.1
전기·전자	1.9	0.1	4.1	1.6	2.1	0.2	1.1	1.2	1.2	1.2
통신	0.4	0.2	0.0	1.2	0.3	0.0	0.5	0.2	0.3	0.3
조선·항공	0.4	0.0	0.0	0.6	0.3	0.0	0.2	0.3	0.2	0.2
토목·건축	2.7	0.1	0.0	1.3	2.9	0.6	0.8	2.1	1.6	1.6
섬유	0.3	0.5	0.0	1.1	0.3	0.2	0.3	0.3	0.3	0.4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컴퓨터·정보처리	5.0	2.3	25.1	10.5	4.0	0.7	4.8	3.5	4.0	3.8
공예	1.1	1.2	7.3	2.5	1.4	0.3	1.8	0.8	1.2	1.1
산업응용	0.3	0.0	0.0	0.1	0.3	0.0	0.2	0.1	0.2	0.2
침술·안마	1.1	0.5	0.0	1.4	1.2	0.4	1.2	0.7	0.9	0.8
사무	1.9	1.5	1.5	5.2	2.2	0.1	2.2	1.6	1.8	1.7
이·미용	0.3	1.9	0.6	2.2	1.2	0.3	0.9	1.0	0.9	1.0
제과·제빵	1.7	3.7	19.2	8.5	2.0	0.4	3.8	1.8	2.6	2.5
기타 서비스	4.6	4.4	5.0	7.3	6.1	2.1	4.9	4.4	4.6	4.5
희망안함	74.3	82.4	36.3	51.0	71.6	94.0	74.6	79.1	77.4	77.7
기타	0.9	0.9	0.0	1.7	1.3	0.3	0.8	0.8	0.8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85,180	1,099,954	25,490	430,746	983,921	1,144,977	942,670	1,517,912	2,460,582	2,585,134

주: 무응답 제외

6)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41)]

〈부표 3-5-26〉 국가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17.6	16.0	26.5	20.6	17.0	15.3	20.3	15.1	17.1	16.9
취업정보 제공	17.6	20.1	2.6	15.9	18.1	20.5	14.7	21.2	18.7	18.7
직업능력 개발	23.0	17.5	47.7	27.6	20.0	18.1	25.2	17.6	20.5	20.7
취업상담 평가 알선	12.3	12.2	11.9	11.7	12.1	12.5	10.5	13.1	12.1	12.2
사후지도	2.2	1.6	0.6	1.5	2.2	2.0	2.4	1.6	1.9	2.0
임금보조	15.2	18.4	5.1	9.4	17.2	18.9	13.3	18.5	16.5	16.5
직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8	3.7	1.7	2.1	3.0	3.7	4.1	2.7	3.2	3.2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6.6	5.6	3.8	8.1	7.1	4.7	5.7	6.8	6.4	6.2
업무보조서비스, 근로지원서비스	2.7	4.5	0.0	3.1	3.3	3.8	3.6	3.3	3.4	3.4
기타	0.1	0.4	0.0	0.1	0.0	0.5	0.2	0.1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82,321	1,096,793	25,492	429,930	983,924	1,139,774	939,387	1,515,171	2,454,558	2,579,120

주: 무응답 제외

41) 모든 장애인 대상

6. 사회 및 문화 ·여가활동

〈부표 3-6-1〉 혼자 외출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86.5	81.4	45.9	81.7	90.7	82.2	68.7	95.0	84.7	84.3
아니오	13.5	18.6	54.1	18.3	9.3	17.8	31.3	5.0	15.3	1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1	71,812	435,149	992,536	1,146,568	1,533,015	2,517,949	2,646,064	984,934

〈부표 3-6-2〉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단위: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거의 매일	74.4	57.6	91.9	72.4	72.6	59.3	56.5	75.7	68.2	67.3
주 1~3회	15.2	27.2	6.0	16.6	18.3	24.2	23.2	18.2	20.1	20.3
월 1~3회	5.8	9.2	1.2	6.1	5.3	9.7	10.1	4.4	6.6	7.2
전혀 외출 않음	4.6	6.0	0.9	4.9	3.8	6.8	10.2	1.8	5.1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1	71,812	435,149	992,536	1,146,568	1,533,015	2,517,949	2,646,064	984,934

〈부표 3-6-3〉 외출의 주된 목적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통근·통학	48.8	23.1	89.9	53.7	50.0	17.8	31.8	43.3	39.0	38.0
병원 진료	8.2	18.0	4.7	6.7	8.4	18.6	16.0	9.3	11.7	12.3
쇼핑(물건사기)	1.5	6.0	0.0	5.3	3.7	2.6	4.1	2.8	3.3	3.4
산책·운동	28.3	29.8	2.9	18.0	25.1	38.3	29.3	27.6	28.2	28.9
친척, 친구, 이웃방문	5.9	10.6	0.9	5.6	7.1	10.0	8.0	8.1	8.0	7.9
여행	0.0	0.1	0.3	0.0	0.0	0.1	0.0	0.0	0.0	0.0
지역사회시설이용/행사참여	5.4	11.2	0.5	7.6	4.6	11.3	9.3	7.1	8.0	7.8
일자리 구하기	1.2	0.1	0.0	2.5	0.7	0.1	0.5	0.9	0.8	0.7
기타	0.7	1.0	0.9	0.7	0.4	1.3	1.0	0.8	0.9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55,729	1,052,778	71,165	413,702	954,530	1,069,110	884,692	1,505,973	2,390,665	2,508,507

〈부표 3-6-4〉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교통이 불편해서	0.5	1.7	0.0	0.0	0.5	1.7	1.5	0.0	1.2	1.1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0.7	1.1	0.0	0.0	1.4	0.9	1.2	0.3	1.0	0.9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56.2	65.9	19.6	44.9	54.5	68.9	62.1	55.7	60.7	60.9
외출 도우미가 없어서	9.9	9.7	0.0	13.5	9.3	9.2	10.0	5.5	9.0	9.8
시간이 없어서	0.0	1.0	0.0	0.0	1.7	0.0	0.5	0.6	0.5	0.5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13.5	10.6	25.3	18.0	18.8	7.0	10.2	21.7	12.7	12.1
주위의 시선 때문에	1.7	2.1	13.1	7.5	0.0	1.2	2.0	2.2	2.1	1.9
기타	17.5	7.9	41.9	16.1	13.9	11.1	12.6	14.0	12.9	1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0,674	66,885	647	21,446	38,006	77,460	100,242	27,042	127,284	137,559

〈부표 3-6-5〉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불편하다	13.5	21.3	29.1	14.1	12.2	21.1	28.4	8.6	15.9	16.8
약간 불편하다	26.0	31.9	37.0	24.1	23.4	34.1	34.1	24.6	28.1	28.5
거의 불편하지 않다	41.0	37.6	25.8	37.9	44.0	37.1	29.7	46.5	40.3	39.5
전혀 불편하지 않다	19.6	9.2	8.1	23.8	20.4	7.8	7.8	20.3	15.7	1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55,729	1,052,778	71,165	413,702	954,530	1,069,110	884,692	1,505,973	2,390,665	2,508,507

〈부표 3-6-6〉 집밖 활동 시 주된 불편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장애인관련 편의시설부족	46.0	48.0	17.6	28.8	49.4	52.8	35.3	60.9	47.5	47.0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25.3	33.9	44.2	29.6	23.6	31.8	35.5	22.3	29.2	29.5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에	13.6	9.0	17.3	23.3	16.5	4.7	14.3	8.2	11.4	11.4
의사소통의 어려움	13.9	8.3	20.9	17.4	9.5	9.6	14.3	7.0	10.9	11.1
기타	1.2	0.9	0.0	1.0	1.0	1.1	0.5	1.6	1.0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4,369	559,784	47,069	158,280	339,208	589,596	552,468	500,202	1,052,670	1,134,153

〈부표 3-6-7〉 주요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일반버스	23.9	37.1	16.3	27.6	25.9	34.2	25.4	31.8	29.4	29.4
일반택시	3.8	7.7	2.6	3.8	3.6	7.9	5.7	4.7	5.1	5.4
지하철·전철	13.5	12.7	3.5	13.5	13.7	13.2	13.2	13.5	13.4	13.2
장애인 콜택시	1.6	2.3	3.0	2.3	2.0	1.6	5.2	0.2	2.0	1.9
복지관버스	0.7	0.9	1.0	1.6	0.3	0.9	1.7	0.3	0.8	0.8
자가용	40.2	22.6	34.5	37.9	41.1	23.4	29.3	35.3	33.1	32.8
셔틀형 복지버스	0.5	0.4	0.2	0.3	0.2	0.7	0.5	0.2	0.3	0.4
전동휠체어	0.9	0.8	0.0	0.4	0.4	1.5	1.8	0.3	0.9	0.9
전동스쿠터	1.1	1.7	0.0	0.3	1.0	2.1	1.9	1.1	1.4	1.3
통학·통근버스	1.5	0.6	14.0	2.2	1.0	0.0	1.9	0.7	1.1	1.1
도보	6.7	11.9	23.4	7.0	6.7	10.6	9.4	8.2	8.6	8.9
기타	5.5	1.3	1.4	3.1	4.1	3.9	3.9	3.8	3.8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55,729	1,052,778	71,165	413,702	954,530	1,069,110	884,692	1,505,973	2,390,665	2,508,507

〈부표 3-6-8〉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어렵다	11.0	18.7	26.0	11.0	9.9	18.6	24.1	7.5	13.6	14.2
약간 어렵다	20.1	33.0	23.1	16.7	19.6	34.4	26.1	24.6	25.2	25.5
거의 어렵지 않다	46.3	37.7	38.7	45.4	46.5	38.5	38.8	45.6	43.1	42.7
전혀 어렵지 않다	22.6	10.5	12.2	26.9	24.1	8.5	11.0	22.3	18.1	1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55,729	1,052,778	71,165	413,702	954,530	1,069,110	884,692	1,505,973	2,390,665	2,508,507

〈부표 3-6-9〉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버스·택시가 불편해서	56.9	64.4	40.9	43.6	57.7	67.4	40.9	43.6	57.7	61.0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18.0	16.6	7.1	20.6	22.0	14.8	7.1	20.6	22.0	17.2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이 부족해서	16.4	12.6	30.4	20.6	13.8	12.3	30.4	20.6	13.8	14.3
장애인용 자가용보급 및 운전면허증 확보가 어려워서	0.8	0.1	0.9	1.2	0.4	0.2	0.9	1.2	0.4	0.4
전동휠체어가 없어서	1.3	2.3	0.0	0.0	0.6	2.9	0.0	0.0	0.6	1.8
기타	6.7	3.9	20.7	14.0	5.5	2.3	20.7	14.0	5.5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52,860	544,576	34,911	114,444	281,226	566,855	443,581	483,825	927,406	997,436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6-10〉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감상·관람(연극,영화 등)										
예	8.2	5.6	14.8	19.7	6.8	2.2	7.5	7.2	7.3	7.1
아니오	91.8	94.4	85.2	80.3	93.2	97.8	92.5	92.8	92.7	92.9
TV시청(유선방송, 비디오 포함)										
예	96.2	95.7	92.1	95.0	97.1	95.6	93.4	97.8	96.1	96.0
아니오	3.8	4.3	7.9	5.0	2.9	4.4	6.6	2.2	3.9	4.0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예	37.2	18.2	59.5	66.7	36.2	6.9	4.5	4.0	4.2	29.1
아니오	62.8	81.8	40.5	33.3	63.8	93.1	95.5	96.0	95.8	70.9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 등)										
예	8.7	1.5	5.6	8.8	6.9	3.3	20.6	28.3	25.3	5.6
아니오	91.3	98.5	94.4	91.2	93.1	96.7	79.4	71.7	74.7	94.4
창작적 취미(미술, 서예, 글쓰기, 악기연주 등)										
예	4.0	4.0	23.8	5.9	3.6	2.4	8.9	10.3	9.7	4.0
아니오	96.0	96.0	76.2	94.1	96.4	97.6	91.1	89.7	90.3	96.0
독서, 신문이나 잡지 보기										
예	31.0	16.7	34.0	34.4	29.9	16.5	4.7	3.7	4.1	25.0
아니오	69.0	83.3	66.0	65.6	70.1	83.5	95.3	96.3	95.9	75.0
스포츠(축구, 테니스, 수영 등)										
예	11.9	6.3	28.3	15.9	10.0	5.5	3.3	4.5	4.1	9.5
아니오	88.1	93.7	71.7	84.1	90.0	94.5	96.7	95.5	95.9	90.5
학습활동(영어, 한문, 교양강좌 등)										
예	4.0	3.9	33.8	8.1	2.6	1.7	6.4	12.4	10.0	3.9
아니오	96.0	96.1	66.2	91.9	97.4	98.3	93.6	87.6	90.0	96.1
사회(자원) 봉사활동										
예	4.0	3.9	5.3	4.8	5.1	2.5	43.6	65.7	57.1	3.9
아니오	96.0	96.1	94.7	95.2	94.9	97.5	56.4	34.3	42.9	96.1
여행(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예	12.9	5.6	15.7	15.2	13.0	4.6	2.0	5.4	4.1	9.8
아니오	87.1	94.4	84.3	84.8	87.0	95.4	98.0	94.6	95.9	90.2
사교 일(친구·친척만남, 모임 등)										
예	57.8	53.9	57.9	54.6	59.3	53.8	28.1	39.4	35.0	56.1
아니오	42.2	46.1	42.1	45.4	40.7	46.2	71.9	60.6	65.0	43.9
해외여행(지난 1년 동안)										
예	4.3	3.5	4.7	7.2	4.5	2.1	44.5	68.2	58.9	3.9
아니오	95.7	96.5	95.3	92.8	95.5	97.9	55.5	31.8	41.1	96.1
가족관련 일(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예	35.8	31.7	44.8	43.7	38.3	26.1	21.6	34.2	29.3	34.1
아니오	64.2	68.3	55.2	56.3	61.7	73.9	78.4	65.8	70.7	65.9
가사잡일(장보기 포함)										
예	49.7	70.6	17.9	55.1	63.3	58.2	1.2	1.4	1.3	58.5
아니오	50.3	29.4	82.1	44.9	36.7	41.8	98.8	98.6	98.7	41.5
휴식(사우나 등)										
예	29.6	28.1	23.7	32.4	32.3	25.1	27.3	31.7	30.0	29.0
아니오	70.4	71.9	76.3	67.6	67.7	74.9	72.7	68.3	70.0	71.0
기타										
예	1.0	1.8	-	1.0	1.1	1.8	5.4	6.1	5.8	1.3
아니오	99.0	98.2	100.0	99.0	98.9	98.2	94.6	93.9	94.2	9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1	71,812	435,149	992,536	1,146,568	1,533,015	2,517,949	2,646,064	984,934

〈부표 3-6-11〉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한다	5.7	5.0	13.0	7.6	5.5	4.0	4.4	6.1	5.5	5.4
약간 만족한다	39.2	35.2	40.4	43.4	37.2	35.3	31.5	41.9	37.8	37.5
약간 불만족한다	38.0	40.6	32.2	35.0	39.9	40.4	38.4	39.6	39.1	39.1
매우 불만족한다	17.2	19.3	14.4	14.1	17.5	20.3	25.7	12.4	17.6	1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5,468	1,118,326	71,812	435,148	991,600	1,145,234	983,934	1,531,745	2,515,679	2,643,794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6-12〉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경제적 부담	35.4	24.9	20.8	27.0	38.6	25.9	22.7	38.6	31.6	30.7
시간의 부족	12.7	7.7	10.4	18.0	15.2	4.4	4.8	15.7	10.9	10.5
교통혼잡 및 이용교통수단의 불편	2.0	3.1	4.0	2.9	2.3	2.5	3.3	1.9	2.5	2.5
도우미가 없어서	2.6	4.4	11.9	6.3	2.6	2.7	5.6	1.5	3.3	3.4
여가시설의 부족	1.9	2.2	2.0	1.9	1.6	2.5	1.7	2.3	2.0	2.1
여가시설내 편의시설이 부족	1.7	1.2	4.0	2.2	1.3	1.3	2.1	1.0	1.5	1.5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	2.2	2.0	13.9	4.1	2.1	1.0	2.7	1.7	2.2	2.1
적당한 취미의 부재	10.1	8.1	4.2	9.9	8.9	9.5	9.5	9.4	9.4	9.2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	24.5	41.6	14.5	12.8	23.3	46.0	36.0	26.7	30.8	32.1
의사소통의 어려움	6.6	4.7	13.4	15.0	4.1	3.9	11.4	1.1	5.7	5.8
기타	0.2	0.1	1.1	-	0.1	0.3	0.3	0.1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41,258	669,548	33,466	213,466	568,496	695,378	630,573	796,107	1,426,680	1,510,806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6-13〉 지난 1년 동안 예술행사 관람 실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문학행사(시화전,도서전시회,작가와의대화										
없음	97.6	98.0	94.8	95.2	97.5	99.1	98.1	97.5	97.7	97.8
1~3회	1.9	1.6	4.8	4.2	2.0	0.5	1.8	1.9	1.9	1.8
4~6회	0.2	0.2	-	0.2	0.2	0.2	0.0	0.3	0.2	0.2
7회이상	0.3	0.3	0.4	0.5	0.2	0.2	0.1	0.4	0.3	0.3
미술(사진·서예·건축디자인포함)전시회										
없음	97.1	97.1	93.1	93.5	97.1	98.8	97.6	96.6	97.0	97.1
1~3회	2.2	2.2	6.6	5.0	2.2	0.9	2.0	2.5	2.3	2.2
4~6회	0.3	0.4	0.3	0.7	0.4	0.2	0.1	0.5	0.4	0.3
7회이상	0.3	0.3	-	0.8	0.3	0.1	0.3	0.3	0.3	0.3
서양음악(클래식,서양악기관련)										
없음	98.7	99.0	96.4	97.4	98.6	99.7	99.1	98.6	98.8	98.8
1~3회	1.1	0.8	3.6	2.2	1.2	0.2	0.9	1.2	1.0	1.0
4~6회	0.1	0.1	-	0.2	0.2	0.0	-	0.2	0.1	0.1
7회이상	0.1	0.1	-	0.2	0.1	-	0.0	0.1	0.1	0.1
전통예술(국악,풍물,민속극)										
없음	98.5	98.5	95.6	98.4	98.7	98.6	99.0	98.2	98.5	98.5
1~3회	1.2	1.3	3.3	1.3	1.0	1.3	0.9	1.4	1.2	1.2
4~6회	0.2	0.1	0.8	0.2	0.1	0.1	0.1	0.2	0.2	0.2
7회이상	0.1	0.1	0.3	0.2	0.2	-	-	0.2	0.1	0.1
연극										
없음	98.0	98.1	93.2	93.5	98.6	99.5	97.8	98.0	97.9	98.0
1~3회	1.7	1.7	5.4	5.6	1.2	0.5	1.9	1.7	1.8	1.7
4~6회	0.3	0.2	1.2	0.8	0.1	0.1	0.2	0.2	0.2	0.2
7회이상	0.1	0.1	0.2	0.2	0.1	-	0.1	0.1	0.1	0.1
뮤지컬										
없음	98.4	97.6	90.8	93.9	98.5	99.7	97.7	98.2	98.0	98.0
1~3회	1.6	2.2	7.5	5.8	1.4	0.3	2.1	1.7	1.9	1.8
4~6회	0.1	0.1	0.7	0.2	0.1	-	0.1	0.0	0.1	0.1
7회이상	0.0	0.1	0.9	0.2	-	-	0.0	0.1	0.1	0.1
무용(서양,한국,현대)										
없음	99.8	99.6	99.1	99.2	99.7	99.9	99.5	99.8	99.7	99.7
1~3회	0.1	0.4	0.9	0.8	0.1	0.1	0.3	0.2	0.2	0.2
4~6회	0.1	0.1	-	-	0.2	-	0.2	0.0	0.1	0.1
7회이상	0.0	-	-	0.1	-	-	-	0.0	0.0	0.0
영화										
없음	74.7	79.9	46.8	49.1	73.1	92.7	76.6	76.3	76.4	76.9
1~3회	15.2	12.0	39.7	24.7	17.2	5.3	14.1	14.2	14.2	13.9
4~6회	5.7	4.9	6.5	14.1	6.0	1.4	5.2	5.6	5.4	5.4
7회이상	4.4	3.2	7.0	12.1	3.8	0.6	4.1	4.0	4.0	3.9
대중음악(가요콘서트),연예(방송프로그램등)										
없음	97.4	98.2	95.0	94.8	97.6	99.2	98.0	97.6	97.7	97.8
1~3회	2.0	1.6	4.0	4.1	2.1	0.6	1.5	2.0	1.8	1.8
4~6회	0.3	0.2	1.0	0.7	0.2	0.1	0.3	0.2	0.3	0.2
7회이상	0.2	0.1	-	0.4	0.2	0.1	0.2	0.2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1	71,812	435,149	992,536	1,146,568	1,533,015	2,517,949	2,646,064	984,934

〈부표 3-6-14〉 예술행사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얻는 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신문·잡지	3.6	1.6	3.0	2.7	3.3	2.2	2.2	3.2	2.8	2.7
TV/라디오	60.7	59.3	38.2	39.8	63.9	65.8	58.2	61.3	60.1	60.1
안내문(현수막, 간판, 지하철광고등)	4.7	2.2	2.5	3.3	5.0	2.6	3.2	3.8	3.6	3.6
인터넷상의해당웹사이트및포털사이트	13.5	5.9	25.2	34.0	9.6	0.9	10.4	10.7	10.6	10.3
소셜미디어(SNS)	0.7	0.5	2.8	1.9	0.6	0.1	0.8	0.5	0.6	0.6
공공단체·교육기관	1.7	1.6	8.6	2.9	1.2	1.2	2.9	0.9	1.7	1.7
주변사람	11.9	23.6	16.7	12.3	13.4	21.6	17.5	16.2	16.7	16.9
해당 안내책자	0.4	0.3	0.3	0.3	0.5	0.4	0.3	0.5	0.4	0.4
정기적으로발행되는안내이메일및뉴스레터	0.1	0.4	0.1	0.2	0.2	0.1	0.1	0.2	0.2	0.2
동호인 모임	0.3	0.3	-	0.7	0.3	0.2	0.4	0.2	0.3	0.3
기타	2.5	4.2	2.5	1.8	2.1	4.8	3.9	2.4	3.0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4,778	1,118,414	71,810	435,150	991,363	1,144,869	982,943	1,532,134	2,515,077	2,643,192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6-15〉 예술행사 관람 시 가장 중요한 기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	24.1	15.0	30.0	27.9	24.2	13.2	18.4	21.9	20.5	20.2
관람 비용의 적절성	28.1	27.2	22.9	23.6	31.9	26.0	24.3	30.2	27.9	27.7
참가자(작가,출연진)의 유명도	5.3	5.2	5.8	5.4	5.4	5.1	4.6	5.7	5.3	5.3
행사개최 장소의 유명도	1.8	1.5	0.7	0.5	2.1	1.8	1.2	2.1	1.7	1.7
교통의 편의성	11.4	17.1	8.3	11.5	10.0	18.3	16.6	11.9	13.7	13.8
편의시설 구비 여부(놀이방 등)	3.4	3.2	9.9	4.4	2.3	3.3	5.7	1.7	3.3	3.3
예술행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언론보도	2.2	1.1	1.0	1.7	2.3	1.4	1.4	2.0	1.7	1.8
예술행사에 대한 주위 의견, 네티즌 의견	5.7	4.6	8.2	9.6	5.7	3.0	5.7	5.2	5.4	5.3
접근성(가깝다)	16.3	23.1	11.8	14.7	14.3	25.5	19.6	18.2	18.8	19.1
기타	1.7	2.0	1.3	0.7	1.6	2.5	2.5	1.1	1.7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3,923	1,117,593	71,813	435,149	990,076	1,144,478	981,655	1,531,747	2,513,402	2,641,516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6-16〉 예술행사를 관람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비용이 많이 든다	37.7	35.6	32.2	34.3	41.6	34.0	33.9	39.1	37.0	36.8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13.4	6.7	9.1	16.5	15.1	4.5	5.3	14.5	10.9	10.6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16.5	14.4	10.8	14.5	14.6	17.2	16.9	14.8	15.6	15.6
교통이 불편하다	7.1	11.2	6.6	4.6	6.5	12.6	9.2	8.4	8.7	8.8
편의시설(놀이방 등)이 불편하다	3.1	4.9	12.7	4.7	2.3	4.3	5.6	2.5	3.7	3.8
관련정보가 부족하다	6.8	5.7	9.2	5.9	6.7	6.1	6.6	6.2	6.4	6.4
함께 관람할 사람이 없다	4.3	6.5	6.6	7.8	4.2	5.0	8.4	3.0	5.1	5.2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다	9.4	13.1	8.7	10.9	7.7	13.9	11.6	10.3	10.8	11.0
기타	1.8	1.8	3.9	0.9	1.4	2.3	2.6	1.2	1.7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4,744	1,117,551	71,813	435,149	990,897	1,144,436	982,777	1,531,400	2,514,177	2,642,295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6-17〉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77.1	71.7	-	61.8	79.1	80.6	57.9	86.4	75.3	74.8
아니오	19.4	25.6	-	35.5	20.8	19.3	34.7	13.1	21.5	22.0
비해당 (투표권 없었음)	3.6	2.7	100.0	2.7	0.1	0.0	7.5	0.5	3.2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1	71,812	435,149	992,536	1,146,568	1,533,015	2,517,949	2,646,064	984,934

비해당: 만 19세 미만, 금치산자 등

〈부표 3-6-18〉 투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교통불편	1.0	1.1	-	1.9	0.3	1.2	0.8	1.7	1.2	1.1
편의시설편의제공이 부족해서	1.6	0.4	-	1.4	1.2	0.5	1.6	0.3	1.1	1.0
몸이 불편해서	36.6	51.4	-	25.8	28.5	71.1	47.2	34.3	42.4	43.9
도우미가 없어서	2.2	3.8	-	1.8	2.8	4.0	4.4	0.8	3.1	3.0
정보 부족	5.0	5.5	-	7.6	4.3	4.4	5.2	5.6	5.4	5.2
시간이 없어서	11.1	5.7	-	11.2	13.6	1.7	4.1	15.9	8.5	8.4
본인이 원치 않아서	39.0	29.1	-	42.9	46.6	16.2	31.9	40.9	35.2	34.1
주위의 시선 때문에	0.1	1.2	-	1.9	0.4	0.1	1.0	-	0.7	0.7
기타	3.4	1.7	-	5.4	2.3	0.8	3.7	0.6	2.5	2.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93,812	283,811	-	153,459	205,289	218,875	338,323	199,015	537,338	577,623

주: 무응답 제외

7. 결혼생활·여성장애인

〈부표 3-7-1〉 결혼상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유배우	63.7	42.5	-	33.7	62.7	55.9	43.5	61.8	54.9	54.7
사별	5.6	38.2	-	0.6	6.9	37.5	14.6	21.5	18.9	19.5
이혼	9.3	8.0	-	6.5	15.1	4.1	10.1	8.0	8.8	8.7
별거	2.0	1.0	-	0.4	2.6	1.1	1.1	1.9	1.6	1.6
미혼	19.2	10.1	-	58.5	12.7	1.3	30.6	6.7	15.7	15.4
기타(미혼모/부)	0.1	0.1	-	0.2	0.1	-	0.1	0.1	0.1	0.1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80,644	1,093,608	-	435,147	992,536	1,146,569	923,051	1,526,162	2,449,213	2,574,252

〈부표 3-7-2〉 결혼 시 연령

(단위: %, 세,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만 10~19세	2.9	23.2	-	1.0	4.2	19.8	11.5	11.7	11.7	12.0
만 20~29세	67.6	70.6	-	61.3	70.3	69.2	66.7	70.3	69.1	69.0
만 30~39세	25.5	5.4	-	35.7	21.3	9.7	18.7	15.7	16.7	16.5
만 40~49세	3.2	0.5	-	2.0	3.4	0.9	2.3	1.8	2.0	2.0
만 50세이상	0.8	0.3	-	-	0.8	0.4	0.8	0.5	0.6	0.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연령	28.1	22.7	-	28.5	27.4	23.8	26.0	25.6	25.7	25.6
전국추정수	1,194,887	979,561	-	178,738	865,587	1,130,123	638,369	1,421,512	2,059,881	2,174,448

〈부표 3-7-3〉 결혼 시 본인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28.2	19.2	-	68.7	31.5	11.5	31.4	22.0	24.9	24.2
아니오	71.8	80.8	-	31.3	68.5	88.5	68.6	78.0	75.1	75.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94,952	981,375	-	179,607	865,587	1,131,133	639,772	1,421,990	2,061,762	2,176,327

〈부표 3-7-4〉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2.1	3.4	-	10.0	3.8	0.7	7.1	0.8	2.7	2.7
아니오	97.9	96.6	-	90.0	96.2	99.3	92.9	99.2	97.3	97.3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94,952	980,524	-	179,607	865,587	1,130,282	639,238	1,421,672	2,060,910	2,175,476

〈부표 3-7-5〉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지체장애	35.6	40.5	-	22.9	42.7	55.9	36.1	50.5	38.9	38.3
뇌병변장애	5.2	-	-	3.6	2.0	-	1.4	5.9	2.3	2.2
시각장애	5.9	10.8	-	10.6	6.9	11.8	8.8	9.5	8.9	8.7
청각장애	27.3	30.4	-	31.6	27.0	32.2	31.7	10.7	27.6	29.1
언어장애	1.4	1.9	-	-	3.0	-	2.1	-	1.7	1.7
지적장애	19.1	12.8	-	23.2	14.8	-	17.0	11.4	15.9	15.5
자폐성장애	-	-	-	-	-	-	-	-	-	-
정신장애	4.4	3.3	-	7.3	2.7	-	2.5	9.5	3.9	3.8
신장장애	-	0.4	-	0.7	-	-	0.3	-	0.2	0.2
심장장애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뇌전증장애	1.1	-	-	-	0.9	-	-	2.5	0.5	0.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164	33,099	-	18,031	32,630	7,602	45,601	11,039	56,640	58,263

〈부표 3-7-6〉 배우자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급	19.5	13.4	-	18.4	16.4	9.1	18.5	5.9	16.0	16.1
2급	43.9	41.4	-	58.9	39.2	17.6	49.1	22.3	43.8	42.5
3급	24.7	14.7	-	6.2	28.6	10.3	19.2	21.2	19.6	19.1
4급	3.5	9.1	-	8.9	5.7	5.3	6.4	8.7	6.8	6.6
5급	6.5	17.3	-	1.9	9.7	49.6	5.8	29.6	10.5	12.6
6급	1.9	4.1	-	5.7	0.4	8.1	0.9	12.4	3.2	3.1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078	31,874	-	18,029	31,321	7,602	44,292	11,038	55,330	56,952

〈부표 3-7-7〉 장애인 국내·외 출생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장애인 국내 출생자	99.6	99.4	-	99.7	99.7	99.2	99.6	99.4	99.5	99.5
장애인 국외 출생자	0.4	0.6	-	0.3	0.3	0.8	0.4	0.6	0.5	0.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94,952	980,525	-	179,607	865,587	1,130,283	639,238	1,421,673	2,060,911	2,175,477

〈부표 3-7-8〉 배우자 국내·외 출생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배우자 국내 출생자	98.3	99.3	-	97.4	98.3	99.3	98.3	98.9	98.7	98.7
배우자 국외 출생자	1.7	0.7	-	2.6	1.7	0.7	1.7	1.1	1.3	1.3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94,952	980,524	-	179,607	865,586	1,130,283	639,238	1,421,672	2,060,910	2,175,476

〈부표 3-7-9〉 배우자 출생지 - (장애인 당사자는 대한민국 출생)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대한민국	98.4	99.7	-	97.5	98.5	99.6	98.3	99.3	99.0	99.0
대만(타이완)	-	-	-	-	-	-	-	-	-	-
필리핀	0.1	-	-	0.3	0.1	-	0.1	-	0.1	0.1
베트남	0.5	-	-	0.7	0.6	-	0.5	0.2	0.3	0.3
라오스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	-
태국(타이)	-	-	-	-	-	-	-	-	-	-
몽골	-	-	-	-	-	-	-	-	-	-
중국(중화인민공화국)	0.6	-	-	1.4	0.6	-	0.5	0.3	0.4	0.4
캄보디아	0.1	-	-	0.1	0.1	-	0.1	-	-	-
카자흐스탄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키르기스스탄	-	-	-	-	-	-	-	-	-	-
미국	-	0.1	-	-	0.1	-	0.1	-	-	-
일본	0.1	0.1	-	-	-	0.2	0.2	0.1	0.1	0.1
네팔	-	-	-	-	-	-	-	-	-	-
러시아	-	-	-	-	-	-	-	-	-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	-	-	-	-	-	-	-	-	-
기타	-	-	-	-	-	-	-	-	-	-
북한	0.2	0.1	-	-	0.1	0.2	0.1	0.2	0.1	0.1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89,642	974,468	-	179,059	863,301	1,121,750	636,776	1,413,555	2,050,331	2,164,110

〈부표 3-7-10〉 배우자 출생지 - (장애인 당사자는 국외 출생)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대한민국	63.4	41.4	-	56.1	26.4	58.2	74.8	43.6	50.9	51.7
대만(타이완)	-	-	-	-	-	-	-	-	-	-
필리핀	-	-	-	-	-	-	-	-	-	-
베트남	-	-	-	-	-	-	-	-	-	-
라오스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	-
태국(타이)	-	-	-	-	-	-	-	-	-	-
몽골	-	-	-	-	-	-	-	-	-	-
중국(중화인민공화국)	16.1	19.5	-	43.9	12.7	17.6	13.1	17.5	16.5	17.9
캄보디아	-	-	-	-	-	-	-	-	-	-
카자흐스탄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키르기스스탄	-	-	-	-	-	-	-	-	-	-
미국	-	-	-	-	-	-	-	-	-	-
일본	-	5.3	-	-	-	3.8	-	4.0	3.0	2.8
네팔	-	-	-	-	-					
러시아	11.6	-	-	-	-	7.2	12.1	3.9	5.8	5.4
우즈베키스탄공화국	-	-	-	-	-	-	-	-	-	-
기타	-	-	-	-	-	-	-	-	-	-
북한	8.9	33.8	-	-	60.8	13.2	-	31.0	23.8	22.2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08	6,057	-	549	2,284	8,532	2,461	8,118	10,579	11,365

〈부표 3-7-11〉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9.4	8.4	-	11.9	4.3	3.5	7.6	13.3	9.1	9.2
결혼생각이 없어서	12.8	18.8	-	12.6	17.0	25.7	10.0	26.9	14.5	14.5
가족 등 주위의 반대로	0.6	1.6	-	1.2	0.5	-	1.3	-	0.9	0.9
건강문제/장애문제	43.5	51.5	-	41.2	54.4	49.8	56.5	17.4	46.1	45.7
집장만, 결혼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	11.4	0.7	-	5.8	14.2	2.8	5.1	18.0	8.5	8.4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0.4	0.7	-	0.8	-	-	0.2	1.4	0.5	0.5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쳐서	6.7	3.2	-	3.0	9.6	17.7	3.2	10.7	5.2	5.7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여서	15.0	14.5	-	23.1	-	-	15.9	12.3	14.9	14.9
기타	0.1	0.5	-	0.3	-	0.5	0.3	-	0.2	0.2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83,597	110,987	-	253,996	125,154	15,434	281,531	102,581	384,112	394,584

〈부표 3-7-12〉 자녀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94.7	95.4	-	80.7	94.1	98.0	92.7	96.2	95.1	95.0
아니오	5.3	4.6	-	19.3	5.9	2.0	7.3	3.8	4.9	5.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95,867	982,621	-	180,386	866,968	1,131,134	640,743	1,423,179	2,063,922	2,178,488

〈부표 3-7-13〉 자녀의 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명	14.1	11.0	-	35.0	17.6	6.1	15.6	11.7	12.8	12.7
2명	43.4	29.1	-	49.5	58.9	19.1	36.8	37.9	37.5	36.9
3명	24.0	22.7	-	13.4	17.9	28.7	24.1	23.1	23.4	23.4
4명	10.5	18.1	-	1.7	4.0	22.9	12.8	14.0	13.6	13.9
5명 이상	8.1	19.1	-	0.4	1.6	23.2	10.7	13.4	12.6	13.1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750	937,763	-	145,622	815,814	1,109,077	594,076	1,368,497	1,962,573	2,070,513

〈부표 3-7-14〉 장애자녀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4.4	7.6	-	3.6	4.6	7.1	7.4	5.1	5.8	5.8
아니오	95.6	92.4	-	96.4	95.4	92.9	92.6	94.9	94.2	94.2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749	937,763	-	145,623	815,814	1,109,075	594,076	1,368,497	1,962,573	2,070,512

〈부표 3-7-15〉 제1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지체장애	34.0	43.2	-	10.0	27.0	47.2	22.4	48.0	38.1	39.4
뇌병변장애	7.0	9.5	-	3.9	8.7	8.7	8.3	9.4	9.0	8.5
시각장애	12.3	11.8	-	19.8	11.6	11.7	19.5	7.9	12.3	12.0
청각장애	6.9	5.3	-	2.8	8.9	4.8	10.6	3.6	6.3	6.0
언어장애	3.2	1.9	-	0.0	2.8	2.4	2.6	2.5	2.5	2.4
지적장애	16.4	14.1	-	43.7	29.7	6.2	21.2	11.1	15.0	15.1
자폐성장애	2.9	1.0	-	13.7	3.9	0.0	1.6	2.1	1.9	1.8
정신장애	13.0	8.0	-	6.1	4.1	13.2	9.3	11.3	10.5	10.1
신장장애	1.8	2.6	-	0.0	0.0	3.6	2.2	2.6	2.4	2.3
심장장애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간장애	-	0.4	-	-	-	0.3	0.0	0.4	0.2	0.2
안면장애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0.2	1.0	-	-	0.2	0.9	1.5	0.1	0.7	0.6
뇌전증장애	2.5	1.1	-	-	3.1	1.1	0.7	1.2	1.0	1.7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251	70,873	-	5,252	37,277	78,595	44,194	70,390	114,584	121,124

〈부표 3-7-16〉 제1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급	8.2	15.7	-	26.4	14.2	10.9	12.9	12.0	12.4	12.6
2급	23.9	20.1	-	43.1	24.0	19.1	25.2	19.9	22.0	21.7
3급	28.5	21.9	-	23.8	29.3	22.5	30.3	22.4	25.4	24.7
4급	9.2	10.4	-	0.0	6.0	12.4	9.6	9.1	9.3	9.9
5급	13.9	12.7	-	0.0	14.7	13.4	8.7	15.8	13.1	13.2
6급	16.3	19.3	-	6.6	11.9	21.7	13.4	20.7	17.9	18.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251	69,980	-	5,252	36,975	78,004	43,792	69,900	113,692	120,231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7-17〉 제1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남자	64.1	72.5	-	54.5	64.4	72.2	63.7	72.8	69.3	69.0
여자	35.9	27.5	-	45.5	35.6	27.8	36.3	27.2	30.7	31.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251	70,873	-	5,252	37,277	78,595	44,194	70,390	114,584	121,124

〈부표 3-7-18〉 제1 장애자녀의 연령

(단위: %, 세,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0-9세	1.9	0.6	-	17.1	1.2	-	2.6	0.3	1.2	1.1
10-19세	9.5	8.2	-	72.8	16.7	0.7	10.3	8.0	8.9	8.7
20세 이상	13.9	9.3	-	10.1	35.0	-	12.6	10.7	11.4	11.2
30세 이상	32.7	14.1	-	-	34.2	17.4	21.0	24.4	23.1	21.8
40세 이상	42.1	67.8	-	-	12.9	81.9	53.5	56.7	55.5	57.1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연령	37.2	42.0	-	15.0	28.4	47.2	38.3	40.7	39.8	40.0
전국추정수	50,251	70,873	-	5,252	37,277	78,595	44,194	70,390	114,584	121,124

〈부표 3-7-19〉 제2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지체장애	33.6	18.3	-	-	25.0	33.4	6.7	62.7	26.1	26.9
뇌병변장애	3.6	16.6	-	-	2.0	19.0	0.0	28.0	9.7	9.3
시각장애	3.3	7.9	-	-	3.8	7.8	8.5	-	5.5	5.3
청각장애	18.1	-	-	-	8.9	13.2	12.3	-	8.0	10.2
언어장애	-	1.8	-	-	0.0	1.8	1.2	-	0.8	0.8
지적장애	27.5	43.1	-	100.0	50.3	5.9	55.0	-	35.9	34.3
자폐성장애	-	-	-	-	-	-	-	-	-	-
정신장애	13.9	12.4	-	-	10.0	19.0	16.3	9.3	13.9	13.3
신장장애	-	-	-	-	-	-	-	-	-	-
심장장애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뇌전증장애	-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307	5,666	-	910	6,375	5,688	8,098	4,293	12,391	12,973

〈부표 3-7-20〉 제2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급	14.8	21.6	-	0.0	36.5	0.0	27.2	2.9	18.5	17.6
2급	10.5	20.0	-	58.2	8.6	13.6	23.6	0.0	15.1	14.4
3급	29.7	25.2	-	41.8	24.1	29.6	36.1	9.3	26.5	27.8
4급	12.5	0.0	-	0.0	9.4	6.2	7.4	8.0	7.6	7.3
5급	32.5	22.4	-	0.0	21.4	40.4	5.8	66.4	27.5	28.3
6급	0.0	10.9	-	0.0	0.0	10.2	0.0	13.3	4.8	4.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307	5,264	-	911	6,072	5,588	7,694	4,293	11,987	12,571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7-21〉 제2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남자	67.9	66.0	-	58.2	76.7	57.8	62.9	70.6	65.6	67.1
여자	32.1	34.0	-	41.8	23.3	42.2	37.1	29.4	34.4	32.9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307	5,666	-	910	6,375	5,688	8,098	4,293	12,391	12,973

〈부표 3-7-22〉 제2 장애자녀의 연령

(단위: %, 세,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0-9세	-	-	-	-	-	-	-	-	-	-
10-19세	25.1	24.5	-	41.8	44.6	0.0	39.8	0.0	26.0	24.9
20세 이상	13.4	12.7	-	58.2	18.4	0.0	21.0	0.0	13.7	13.1
30세 이상	26.3	19.4	-	0.0	35.1	13.9	18.4	35.8	24.4	23.3
40세 이상	35.1	43.4	-	0.0	2.0	86.1	20.8	64.2	35.9	38.7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연령	33.3	33.6	-	17.1	24.7	45.9	27.0	44.4	33.0	33.5
전국추정수	7,307	5,666	-	910	6,375	5,688	8,098	4,293	12,391	12,973

〈부표 3-7-23〉 제3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지체장애	-	-	-	-	-	-	-	-	-	-
뇌병변장애	-	-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	-
청각장애	-	-	-	-	-	-	-	-	-	-
언어장애	-	-	-	-	-	-	-	-	-	-
지적장애	100.0	100.0	-	100.0	100.0	-	100.0	-	100.0	100.0
자폐성장애	-	-	-	-	-	-	-	-	-	-
정신장애	-	-	-	-	-	-	-	-	-	-
신장장애	-	-	-	-	-	-	-	-	-	-
심장장애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뇌전증장애	-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840	1,541	-	530	1,851	-	2,381	-	2,381	2,381

〈부표 3-7-24〉 제3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급	-	-	-	-	-	-	-	-	-	-
2급	100.0	100.0	-	100.0	100.0	-	100.0	-	100.0	100.0
3급	-	-	-	-	-	-	-	-	-	-
4급	-	-	-	-	-	-	-	-	-	-
5급	-	-	-	-	-	-	-	-	-	-
6급	-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840	1,541	-	530	1,851	-	2,381	-	2,381	2,381

〈부표 3-7-25〉 제3 장애자녀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남자	100.0	100.0	-	100.0	100.0	-	100.0	-	100.0	100.0
여자	-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840	1,541	-	530	1,851	-	2,381	-	2,381	2,381

〈부표 3-7-26〉 제3 장애자녀의 연령

(단위: %, 세,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0-9세	100.0	65.6	-	-	100.0	-	77.7	-	77.7	77.7
10-19세	-	34.4	-	100.0	-	-	22.3	-	22.3	22.3
20세 이상	-	-	-	-	-	-	-	-	-	-
30세 이상	-	-	-	-	-	-	-	-	-	-
40세 이상	-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	100.0	-	100.0	100.0
평균 연령	9.0	11.1	-	15.0	9.0	-	10.3	-	10.3	10.3
전국추정수	840	1,541	-	530	1,851	-	2,381	-	2,381	2,381

〈부표 3-7-27〉 자녀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38.8	48.9	-	36.3	46.2	46.3	40.4	44.6	42.7	43.0
학업 직장 경제적 이유로	8.0	0.2	-	4.8	5.8	2.1	3.0	6.8	5.0	4.7
건강문제	4.7	11.7	-	7.9	8.5	5.2	11.5	5.2	8.1	7.6
장애 때문에	7.0	8.8	-	9.8	6.6	7.0	14.0	3.4	8.2	7.7
자녀도 장애를 가질까봐서	0.4	1.3	-	1.7	0.3	0.6	1.9	0.0	0.9	0.8
자녀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5.2	3.6	-	3.8	5.1	4.3	2.4	6.0	4.3	4.5
본인·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20.1	8.4	-	11.4	20.4	9.2	13.4	17.3	15.5	15.2
친정·시댁식구들이 원하지 않아서	0.8	0.7	-	0.0	1.0	1.4	1.8	0.0	0.8	0.8
기타	14.9	16.4	-	24.3	6.0	23.8	11.6	16.7	14.4	15.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3,119	44,858	-	34,764	51,154	22,059	46,667	54,683	101,350	107,977

〈부표 3-7-28〉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장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전혀 없다	43.1	32.9	-	40.4	38.7	41.1	23.3	48.2	39.7	39.6
별로 없다	28.3	27.4	-	24.3	27.8	30.2	23.4	30.7	28.2	28.0
약간 많다	18.2	23.0	-	21.2	20.7	17.3	27.3	16.1	19.9	19.8
매우 많다	10.4	16.7	-	14.1	12.7	11.3	25.9	5.1	12.2	12.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63,557	341,316	-	145,623	578,708	280,542	331,033	640,616	971,649	1,004,873

〈부표 3-7-29〉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자녀양육/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35.0	26.8	-	24.9	40.1	21.9	34.2	31.8	32.6	32.7
주거 환경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2.7	3.5	-	3.7	2.0	10.6	5.5	1.8	3.0	2.9
아이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 부족	2.1	6.4	-	3.2	3.1	18.0	6.2	2.0	3.4	3.3
양육할 충분한 시간부족	6.1	4.2	-	7.0	4.5	0.0	4.2	6.1	5.4	5.6
양육과 관련된 정보부족	1.5	6.3	-	2.8	2.9	0.0	5.6	1.5	2.9	2.8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힘들어서	2.5	5.7	-	4.0	2.9	0.0	5.1	2.7	3.5	3.4
주변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	7.1	10.9	-	8.6	8.1	0.0	12.6	6.1	8.3	8.2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5.3	9.2	-	6.2	6.7	4.3	15.8	1.1	6.1	6.4
어려움 없음	35.4	24.5	-	36.1	28.5	45.1	10.8	43.4	32.4	32.3
자녀양육시 장애가 없었음	1.7	1.3	-	2.3	0.9	0.0	0.0	2.3	1.5	1.6
기타	0.6	1.1	-	1.2	0.3	0.0	0.0	1.2	0.8	0.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03,057	79,376	-	132,669	145,207	4,557	92,429	181,784	274,213	282,433

〈부표 3-7-30〉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교육시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학습지도 및 학교과제 수행의 어려움	5.7	11.6	-	7.9	7.1	0.0	14.8	3.7	7.6	7.4
학교 갈 때 통행지도	1.0	1.9	-	2.1	0.6	0.0	2.2	0.8	1.3	1.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1.3	0.7	-	0.6	1.5	0.0	2.0	0.5	1.0	1.1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35.2	28.5	-	23.7	40.1	57.9	35.2	32.9	33.7	33.3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4.5	10.0	-	5.4	6.7	0.0	13.3	0.5	4.9	6.1
자녀의 부모차별	1.2	1.2	-	0.6	1.6	0.0	0.9	1.1	1.1	1.2
학부형 모임에 어울리지 못함	2.3	12.5	-	6.4	4.1	16.3	9.6	3.1	5.4	5.2
어려움 없음	43.4	28.6	-	45.5	34.5	25.8	12.9	54.2	39.8	39.2
주변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	5.5	3.9	-	7.1	3.6	0.0	8.2	3.3	5.0	5.0
기타	0.0	1.0	-	0.7	0.0	0.0	0.9	0.0	0.3	0.3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78,709	72,278	-	108,495	139,220	3,272	85,060	160,253	245,313	250,987

〈부표 3-7-31〉 이혼경험시 이혼 사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배우자의 외도	11.0	17.9	-	8.6	13.7	16.7	9.1	17.7	14.0	13.7
학대 또는 폭력	1.4	18.2	-	4.1	6.7	13.5	9.4	6.2	7.6	7.8
성격차이	35.9	24.3	-	42.7	32.8	20.5	26.7	36.6	32.4	31.4
가족 부양의무 불이행	3.0	6.7	-	7.0	4.1	3.8	5.4	3.1	4.1	4.4
가족간 불화	11.0	4.0	-	6.6	6.9	13.8	10.0	7.1	8.4	8.3
경제적 문제	22.9	16.1	-	16.8	21.2	19.4	13.3	23.7	19.2	20.3
건강·장애문제	12.1	11.7	-	9.4	13.8	7.8	22.8	4.1	12.2	12.0
다문화가정으로 의사소통 어려움	1.0	0.0	-	1.3	0.7	0.0	1.3	0.2	0.7	0.6
기타	1.7	0.9	-	3.5	0.1	4.5	1.8	1.2	1.5	1.4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7,363	85,196	-	27,381	148,662	46,516	92,306	121,123	213,429	222,559

〈부표 3-7-32〉 이혼하였다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주 양육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자녀의 부(남편)	53.5	63.6	-	54.3	58.0	61.6	59.9	53.9	56.0	56.9
자녀의 모(부인)	38.3	32.3	-	38.1	35.7	32.5	38.4	36.3	37.0	36.3
자녀의 조부모 (친가/외가)	1.9	3.2	-	2.8	2.5	0.0	0.6	3.4	2.4	2.4
기타 친척	-	-	-	-	-	-	-	-	-	-
혼자 살고 있음	1.2	0.9	-	0.0	1.0	6.0	0.0	1.8	1.1	1.1
사회복지시설	2.3	0.0	-	3.8	0.0	0.0	0.0	2.4	1.5	1.5
기타	2.7	0.0	-	1.0	2.8	0.0	1.1	2.3	1.9	1.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1,732	16,150	-	18,661	24,505	4,716	16,841	30,090	46,931	47,882

〈부표 3-7-33〉 마지막(최근) 임신시 본인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	70.0	-	72.7	65.4	-	77.6	66.0	70.9	70.0
아니오	-	30.0	-	27.3	34.6	-	22.4	34.0	29.1	30.0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95,070	-	59,811	35,259	-	38,413	53,808	92,221	95,070

〈부표 3-7-34〉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	11.9	-	9.0	17.5	-	8.8	15.0	12.1	11.9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	-	6.6	-	8.3	3.4	-	6.7	6.8	6.8	6.6
병원의 시설 설치 미비	-	0.5	-	0.8	0.0	-	0.0	0.0	0.0	0.5
병원내 의사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	0.3	-	0.4	0.0	-	0.6	0.0	0.3	0.3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	-	5.9	-	6.4	4.9	-	3.0	8.6	6.0	5.9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워서	-	28.5	-	32.6	20.5	-	46.9	13.4	28.9	28.5
자녀양육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	13.8	-	12.4	16.4	-	18.1	9.5	13.5	13.8
본인의 건강악화	-	3.5	-	2.3	5.8	-	4.4	2.9	3.6	3.5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	-	10.1	-	6.8	16.3	-	4.4	15.2	10.2	10.1
직장에서의 퇴직 권유로	-	-	-	-	-	-	-	-	-	-
가족들의 출산 반대로	-	0.8	-	1.2	0.0	-	0.0	0.4	0.2	0.8
주위의 시선때문에	-	0.2	-	0.2	0.0	-	0.4	0.0	0.2	0.2
임신·출산 관련 정보 부족	-	1.3	-	1.5	0.9	-	0.0	2.5	1.3	1.3
어려움 없음	-	16.1	-	17.1	14.2	-	6.0	25.4	16.4	16.1
기타	-	0.6	-	0.9	0.0	-	0.7	0.5	0.6	0.6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65,865	-	43,251	22,614	-	29,826	34,824	64,650	65,865

〈부표 3-7-35〉 유산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	43.4	-	41.7	46.8	-	40.3	46.2	43.5	43.4
아니오	-	56.6	-	58.3	53.2	-	59.7	53.8	56.5	56.6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66,115	-	43,501	22,614	-	29,827	35,074	64,901	66,115

〈부표 3-7-36〉 유산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자녀 원치 않음	-	20.4	-	23.6	14.9	-	28.8	14.8	20.8	20.4
남편·가족의 반대로	-	-	-	-	-	-	-	-	-	-
터울조절	-	3.4	-	5.0	0.6	-	0.0	6.0	3.4	3.4
자궁외 임신	-	4.1	-	0.7	10.0	-	4.2	4.2	4.2	4.1
태아 이상	-	6.8	-	9.5	2.1	-	8.9	5.5	6.9	6.8
혼전 임신	-	3.0	-	3.7	1.7	-	5.6	1.1	3.0	3.0
본인의 장애때문에	-	6.0	-	5.2	7.2	-	6.5	2.7	4.3	6.0
경제적 여력없음	-	8.2	-	9.1	6.7	-	14.3	3.8	8.3	8.2
태아가 딸이어서	-		-			-				
취업중이어서	-	2.8	-	4.4	0.0	-	0.0	5.0	2.8	2.8
자연유산	-	35.8	-	28.7	47.9	-	30.8	40.6	36.4	35.8
기타	-	9.6	-	10.0	9.0	-	0.8	16.4	9.8	9.6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28,722	-	18,129	10,593	-	12,019	16,212	28,231	28,722

〈부표 3-7-37〉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	83.4	-	79.5	90.9	-	82.4	85.0	83.8	83.4
아니오	-	16.6	-	20.5	9.1	-	17.6	15.0	16.2	16.6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66,250	-	43,636	22,614	-	29,597	35,438	65,035	66,250

〈부표 3-7-38〉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연령

(단위: %, 세,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만 19-20세	-	1.6	-	2.6	0.0	-	1.7	1.6	1.7	1.6
만 21-25세	-	18.8	-	13.3	28.0	-	19.9	18.4	19.0	18.8
만 26-30세	-	31.8	-	36.1	24.6	-	20.8	40.4	31.6	31.8
만 31-35세	-	36.4	-	38.1	33.6	-	46.3	28.0	36.2	36.4
만 36-40세	-	6.8	-	4.4	10.9	-	8.8	5.4	6.9	6.8
만 41세 이상	-	4.5	-	5.4	2.9	-	2.6	6.2	4.6	4.5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평균 연령	-	30.1	-	30.2	30.0	-	30.4	29.9	30.1	30.1
전국추정수	-	55,233	-	34,679	20,554	-	24,400	30,111	54,511	55,233

〈부표 3-7-39〉 마지막 임신으로 출산시 출산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자연분만	-	67.4	-	70.4	62.4	-	65.5	70.6	68.3	67.4
제왕절개	-	32.6	-	29.6	37.6	-	34.5	29.4	31.7	32.6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55,233	-	34,679	20,554	-	24,400	30,110	54,510	55,233

〈부표 3-7-40〉 마지막 임신시 비출산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현재 임신 중	-	18.5	-	22.7	0.0	-	2.5	35.7	19.3	18.5
자연 유산	-	29.1	-	18.8	73.9	-	18.3	34.9	26.7	29.1
인공 유산	-	49.6	-	55.0	26.1	-	79.2	23.5	51.0	49.6
기타	-	2.8	-	3.5	0.0	-	0.0	5.9	3.0	2.8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11,018	-	8,957	2,061	-	5,197	5,328	10,525	11,018

〈부표 3-7-41〉 인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본인의사	-	54.4	-	58.0	21.0	-	41.8	100.0	55.4	54.4
주위의 권유	-	45.6	-	42.0	79.0	-	58.2	0.0	44.6	45.6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5,465	-	4,928	537	-	4,115	1,252	5,367	5,465

〈부표 3-7-42〉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남편	-	14.3	-	11.0	19.7	-	24.0	6.7	14.4	14.3
친정식구	-	47.5	-	42.0	57.0	-	45.2	50.6	48.2	47.5
시댁식구	-	18.2	-	17.2	20.0	-	19.6	15.2	17.2	18.2
복지기관	-	1.2	-	2.0	0.0	-	0.0	2.3	1.2	1.2
산후 조리원	-	10.1	-	16.1	0.0	-	1.3	17.5	10.3	10.1
산후 도우미	-	7.7	-	11.1	2.0	-	8.8	7.1	7.8	7.7
돌봐주는 사람 없었음(혼자 했음)	-	0.9	-	0.6	1.3	-	1.1	0.7	0.9	0.9
기타	-	-	-	-	-	-	-	-	-	-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55,233	-	34,679	20,554	-	24,401	30,110	54,511	55,233

〈부표 3-7-43〉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충분하다	-	10.8	-	11.5	9.5	-	15.6	7.1	10.9	10.8
충분하다	-	52.2	-	49.5	56.8	-	57.6	49.1	52.9	52.2
부족하다	-	30.8	-	31.2	30.2	-	23.4	36.4	30.6	30.8
매우 부족하다	-	6.2	-	7.8	3.4	-	3.4	7.3	5.6	6.2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55,233	-	34,679	20,554	-	24,401	30,110	54,511	55,233

〈부표 3-7-44〉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	9.3	-	9.4	9.0	-	8.6	11.7	9.7	9.3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서비스	-	4.2	-	4.5	3.3	-	3.9	5.3	4.4	4.2
출산비용 지원	-	11.7	-	10.6	15.0	-	6.8	21.4	12.2	11.7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	6.4	-	6.2	7.1	-	8.0	4.4	6.7	6.4
산후조리 서비스	-	6.7	-	6.7	6.7	-	3.5	13.0	7.0	6.7
육아용품 대여	-	0.1	-	0.1	0.3	-	0.0	0.4	0.1	0.1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	11.7	-	10.9	14.1	-	10.7	13.1	11.6	11.7
자녀교육도우미	-	5.5	-	4.6	8.3	-	7.5	2.2	5.6	5.5
가사도우미	-	12.8	-	12.6	13.7	-	11.8	13.0	12.3	12.8
활동보조인	-	9.9	-	11.2	5.7	-	15.0	1.6	10.0	9.9
건강관리프로그램	-	7.6	-	8.1	6.0	-	8.2	6.5	7.5	7.6
상담서비스(심리·정서)	-	7.2	-	8.0	4.4	-	8.1	2.5	6.0	7.2
자조집단(멘토)	-	2.9	-	2.7	3.5	-	2.8	2.2	2.6	2.9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지원	-	4.0	-	4.3	3.0	-	5.1	2.6	4.2	4.0
기타	-	0.0	-	0.1	0.0	-	0.1	0.0	0.0	0.0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183,820	-	138,880	44,940	-	111,171	64,790	175,961	183,820

〈부표 3-7-45〉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2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	1.5	-	1.8	0.9	-	2.1	0.8	1.6	1.5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서비스	-	3.6	-	4.5	0.8	-	4.4	2.4	3.7	3.6
출산비용 지원	-	5.8	-	5.1	7.8	-	5.6	6.3	5.9	5.8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	6.5	-	6.6	6.1	-	5.8	8.1	6.6	6.5
산후조리 서비스	-	11.0	-	9.3	16.3	-	5.7	21.5	11.5	11.0
육아용품 대여	-	1.3	-	1.0	2.2	-	0.8	2.3	1.3	1.3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	14.5	-	12.6	20.4	-	10.5	21.9	14.7	14.5
자녀교육도우미	-	10.3	-	11.3	7.3	-	11.7	6.8	9.9	10.3
가사도우미	-	10.8	-	11.6	8.3	-	11.6	10.8	11.3	10.8
활동보조인	-	8.6	-	9.0	7.4	-	11.2	2.9	8.1	8.6
건강관리프로그램	-	7.4	-	7.5	7.3	-	8.7	4.9	7.3	7.4
상담서비스(심리·정서)	-	10.7	-	11.5	8.2	-	12.7	6.7	10.5	10.7
자조집단(멘토)	-	2.1	-	2.8	0.0	-	2.0	1.4	1.7	2.1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지원	-	5.9	-	5.5	7.0	-	7.1	3.3	5.7	5.9
기타	-	0.1	-	0.0	0.3	-	0.1	0.0	0.1	0.1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182,389	-	137,449	44,940	-	110,636	63,897	174,533	182,389

〈부표 3-7-46〉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3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	1.2	-	0.8	2.5	-	1.2	1.5	1.3	1.2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서비스	-	2.0	-	2.4	0.7	-	2.0	2.1	2.1	2.0
출산비용 지원	-	5.7	-	5.8	5.6	-	4.7	6.4	5.3	5.7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	4.6	-	3.9	6.7	-	4.9	4.6	4.8	4.6
산후조리 서비스	-	5.1	-	5.1	5.0	-	5.5	4.9	5.3	5.1
육아용품 대여	-	1.1	-	1.5	0.0	-	1.0	1.5	1.2	1.1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	14.1	-	13.0	17.7	-	13.4	17.2	14.8	14.1
자녀교육도우미	-	11.1	-	10.6	12.6	-	11.0	11.0	11.0	11.1
가사도우미	-	10.3	-	10.1	10.7	-	7.9	14.5	10.3	10.3
활동보조인	-	7.5	-	7.7	7.0	-	8.7	6.1	7.8	7.5
건강관리프로그램	-	6.7	-	7.3	5.1	-	6.7	7.0	6.8	6.7
상담서비스(심리·정서)	-	12.5	-	12.3	13.1	-	14.5	8.8	12.4	12.5
자조집단(멘토)	-	6.8	-	7.1	6.1	-	7.5	3.7	6.1	6.8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지원	-	11.0	-	12.2	7.4	-	10.6	10.7	10.6	11.0
기타	-	0.3	-	0.4	0.0	-	0.5	0.0	0.3	0.3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174,223	-	130,825	43,398	-	105,046	61,692	166,738	174,223

〈부표 3-7-47〉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성장과정 중 가족으로부터의 따돌림	-	1.7	-	2.2	0.0	-	2.3	0.8	1.7	1.7
결혼 후 시댁식구들의 학대·차별	-	2.8	-	1.8	5.7	-	2.5	3.5	2.9	2.8
교육기회 부족	-	5.1	-	5.7	3.2	-	6.9	2.0	5.1	5.1
사회화 기회의 부족	-	10.5	-	9.7	12.9	-	12.1	8.5	10.8	10.5
친구 등 동료교제의 어려움	-	11.3	-	13.4	4.7	-	12.1	9.0	10.9	11.3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	-	11.3	-	11.6	10.1	-	13.0	7.2	10.9	11.3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	-	28.8	-	28.4	30.1	-	27.4	31.4	28.9	28.8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문제	-	2.9	-	3.7	0.7	-	4.9	0.0	3.1	2.9
임신·출산의 어려움	-	3.1	-	2.8	4.1	-	1.1	6.9	3.2	3.1
자녀양육의 어려움	-	13.2	-	12.1	16.6	-	12.7	13.8	13.1	13.2
전문 프로그램 부족 등 여가시간 활용의 어려움	-	6.2	-	6.1	6.3	-	4.9	9.2	6.4	6.2
기타	-	3.3	-	2.6	5.6	-	0.4	7.6	3.0	3.3
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183,820	-	138,880	44,940	-	111,171	64,790	175,961	183,820

8.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부표 3-8-1〉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32.6	28.6	45.2	40.2	31.6	25.8	27.4	33.2	30.9	30.9
약간 만족	50.2	50.5	40.0	44.2	48.7	54.7	50.8	50.5	50.6	50.3
약간 불만족	13.0	16.6	12.4	12.0	15.1	15.2	16.7	12.8	14.3	14.5
매우 불만족	4.1	4.3	2.5	3.6	4.6	4.2	5.2	3.5	4.1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07,111	1,099,498	71,812	432,529	975,679	1,126,589	967,230	1,514,590	2,481,820	2,606,609

〈부표 3-8-2〉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19.1	16.6	20.6	21.7	20.7	14.2	12.7	22.0	18.4	18.1
약간 만족	46.0	44.7	33.9	39.0	47.8	46.6	34.6	53.1	45.9	45.5
약간 불만족	23.6	27.8	29.9	22.7	22.6	28.5	32.6	20.3	25.1	25.4
매우 불만족	11.2	10.9	15.7	16.6	8.9	10.6	20.1	4.6	10.7	1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5,467	1,117,926	71,811	435,148	991,600	1,144,834	983,934	1,531,348	2,515,282	2,643,393

〈부표 3-8-3〉 거주지(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20.7	19.3	32.2	24.0	19.7	18.3	18.9	20.9	20.1	20.1
약간 만족	53.4	54.1	48.7	50.3	51.3	57.4	52.1	55.0	53.9	53.7
약간 불만족	19.7	21.8	13.3	20.2	22.6	19.5	22.0	19.3	20.3	20.6
매우 불만족	6.2	4.7	5.8	5.5	6.4	4.9	6.9	4.8	5.6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5,467	1,117,928	71,812	435,148	991,600	1,144,835	983,933	1,531,347	2,515,280	2,643,395

〈부표 3-8-4〉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5.7	3.2	21.6	10.9	4.5	1.3	4.7	4.7	4.7	4.6
약간 만족	35.4	20.9	50.1	45.2	32.0	19.5	28.8	30.5	29.9	29.3
약간 불만족	36.9	44.1	19.6	30.2	41.8	43.3	35.1	43.8	40.4	39.9
매우 불만족	22.0	31.9	8.7	13.7	21.7	35.9	31.3	21.0	25.0	2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5,467	1,117,928	71,813	435,148	991,599	1,144,835	983,934	1,531,347	2,515,281	2,643,395

〈부표 3-8-5〉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2.7	3.0	-	4.7	2.7	2.3	2.3	3.0	2.7	2.8
약간 만족	25.6	27.1	44.9	30.3	23.7	26.9	27.8	24.9	25.9	26.2
약간 불만족	44.7	44.6	39.6	44.5	45.8	43.8	44.2	45.8	45.2	44.7
매우 불만족	27.0	25.3	15.5	20.5	27.8	27.0	25.7	26.4	26.2	2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49,526	897,240	5,729	319,958	863,422	1,057,657	783,531	1,363,241	2,146,772	2,246,766

〈부표 3-8-6〉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5.3	5.2	11.9	6.9	5.2	4.3	4.5	6.0	5.4	5.3
약간 만족	39.4	34.9	41.5	44.0	37.3	35.0	31.3	42.0	37.8	37.5
약간 불만족	35.9	38.9	31.6	34.2	38.1	37.8	37.2	37.4	37.3	37.1
매우 불만족	19.4	21.0	15.0	14.9	19.4	22.9	27.0	14.6	19.5	2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5,467	1,117,928	71,811	435,148	991,599	1,144,837	983,933	1,531,347	2,515,280	2,643,395

〈부표 3-8-7〉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9.5	9.9	-	12.7	9.6	6.8	9.4	9.6	9.5	9.6
약간 만족	53.0	49.1	-	56.7	49.2	53.9	51.9	52.0	52.0	52.0
약간 불만족	30.4	35.2	-	24.8	33.2	34.4	34.1	31.2	31.9	31.7
매우 불만족	7.1	5.7	-	5.8	8.0	4.9	4.6	7.2	6.6	6.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06,374	249,740	-	207,434	511,552	237,128	226,306	708,343	934,649	956,114

〈부표 3-8-8〉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29.5	16.9	-	45.8	26.6	19.5	22.3	26.8	25.4	25.4
약간 만족	58.7	58.9	-	42.8	58.2	63.1	58.3	59.0	58.8	58.8
약간 불만족	9.4	18.8	-	9.1	11.5	14.2	15.5	11.4	12.6	12.5
매우 불만족	2.4	5.3	-	2.3	3.8	3.2	3.9	2.8	3.1	3.4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64,540	466,110	-	147,469	640,008	643,173	405,344	960,337	1,365,681	1,430,650

〈부표 3-8-9〉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8.0	5.8	11.1	10.1	7.9	5.0	5.3	8.5	7.3	7.1
약간 만족	49.8	46.7	49.8	49.4	47.4	49.0	39.9	54.6	48.9	48.5
약간 불만족	32.0	36.3	33.9	29.5	34.5	34.9	38.2	30.8	33.7	33.8
매우 불만족	10.2	11.2	5.1	11.0	10.2	11.1	16.6	6.0	10.2	1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5,468	1,117,927	71,812	435,148	991,600	1,144,835	983,933	1,531,347	2,515,280	2,643,395

〈부표 3-8-10〉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32.9	36.3	57.0	37.7	31.4	34.2	47.4	23.6	32.9	34.3
아니오	67.1	63.7	43.0	62.3	68.6	65.8	52.6	76.4	67.1	6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8-11〉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시 주 상담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가족	69.5	69.4	84.2	71.0	63.3	72.2	72.3	65.7	69.4	69.4
친척 친구 이웃	7.9	9.9	5.5	8.5	9.7	8.6	6.9	10.0	8.2	8.8
장애인 동료	1.3	0.3	1.2	0.4	2.1	0.0	1.4	0.4	0.9	0.9
종교인	0.9	1.9	-	1.2	1.9	1.1	1.2	1.8	1.5	1.4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	2.5	3.7	6.0	3.5	3.1	2.5	4.8	1.3	3.3	3.0
행정공무원	0.1	0.1	-	-	0.1	0.2	0.1	0.1	0.1	0.1
장애인단체·자립생활센터 직원	0.3	0.4	-	0.6	0.1	0.4	0.4	0.2	0.3	0.3
없음	16.0	13.5	3.2	13.4	18.7	13.6	11.7	19.6	15.1	14.9
기타	1.5	0.8	-	1.3	1.0	1.4	1.3	0.9	1.1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1,670	406,139	40,897	163,603	312,077	391,232	467,043	360,564	827,607	907,809

〈부표 3-8-12〉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자주 있다	1.1	1.2	2.5	2.5	1.2	0.5	2.4	0.3	1.1	1.1
가끔 있다	5.5	7.0	11.9	8.6	6.9	4.1	9.7	3.5	5.9	6.1
없다	93.4	91.8	85.5	88.9	91.9	95.4	87.9	96.2	92.9	9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8-13〉 가족 내 차별·폭력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언어폭력	58.8	55.8	69.1	51.7	60.4	55.5	56.4	54.9	55.9	57.3
정신적 폭력	19.9	20.0	8.2	16.5	21.1	23.7	16.7	26.5	20.0	19.9
신체적 폭력	8.0	11.0	18.9	16.9	5.1	7.4	12.0	5.2	9.8	9.4
성적학대	-	-	-	-	-	-	-	-	-	-
방임 및 유기	8.0	10.0	3.9	9.6	8.0	10.9	9.9	9.1	9.7	9.0
경제적 폭력	5.3	3.3	-	5.3	5.5	2.5	4.9	4.3	4.7	4.3
기타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0,358	91,576	10,383	48,254	80,515	52,782	118,859	58,767	177,626	191,934

〈부표 3-8-14〉 가족 내 차별·폭력의 주가해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배우자	30.9	37.6	2.1	12.2	39.5	53.8	25.7	46.9	32.9	34.1
부모	18.8	16.7	55.2	39.5	9.9	1.1	26.4	1.7	18.0	17.8
자녀(며느리,사위 포함)	12.9	19.1	-	2.5	15.1	33.5	10.0	25.8	15.4	15.9
형제·자매	31.9	18.6	37.9	34.9	28.6	8.9	30.7	18.5	26.5	25.5
조부모	1.3	0.5	4.9	2.4	-	-	1.5	-	1.0	0.9
손자녀	0.5	0.6	-	-	0.7	0.9	-	1.6	0.6	0.5
배우자의 가족	-	5.4	-	2.7	3.6	1.5	2.4	3.5	2.8	2.6
기타	3.7	1.6	-	5.8	2.6	0.3	3.3	1.9	2.9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5,593	87,890	10,382	47,491	76,746	48,864	112,088	58,412	170,500	183,483

〈부표 3-8-1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3	3.0	1.4	3.0	3.4	1.6	1.4	2.8	0.6	0.5
없다	99.7	97.0	98.6	97.0	96.6	98.4	98.6	97.2	99.4	9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8-1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시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영유아기(0~6세)	-	1.3	-	2.9	-	-	-	4.8	1.2	1.1
아동기(7~17세)	55.1	26.5	100.0	36.6	21.5	9.9	33.0	16.1	29.0	30.1
청소년기(18~24세)	14.4	17.2	-	22.3	18.1	5.4	12.0	26.7	15.5	16.8
청년기(25~39세)	11.7	22.9	-	28.4	18.2	20.9	24.5	16.2	22.5	21.5
장년기(40~64세)	18.8	31.3	-	9.9	42.2	58.6	30.5	32.8	31.1	29.7
노년기(65세 이상)	-	0.9	-	-	-	5.2	-	3.4	0.8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749	33,088	2,121	14,698	15,390	5,628	27,508	8,725	36,233	37,837

〈부표 3-8-1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가해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근친(가족)	-	11.7	-	11.6	12.2	5.4	9.3	9.5	9.4	10.2
이웃	-	22.6	33.3	8.6	32.3	9.8	15.8	35.9	20.7	19.8
먼친척	-	0.6	-	-	1.2	-	0.7	-	0.5	0.5
모르는 사람	19.9	42.4	8.3	34.2	40.1	64.1	38.1	38.8	38.3	39.6
학교관계자	-	0.4	-	-	0.9	-	-	1.6	0.4	0.4
남자친구	17.0	7.6	-	18.6	2.0	5.2	11.0	3.3	9.2	8.8
종교인	-	2.8	-	6.3	-	-	3.4	-	2.5	2.4
채팅상대자	-	3.8	-	2.5	-	15.6	4.5	-	3.4	3.3
서비스제공자	11.3	1.3	-	6.5	-	-	-	11.0	2.6	2.5
학원관계자	51.8	6.8	58.4	11.7	11.4	-	17.1	-	13.0	12.5
기타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749	33,088	2,121	14,698	15,390	5,628	27,508	8,725	36,233	37,837

〈부표 3-8-18〉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무시한다	5.6	3.4	-	3.8	1.7	9.9	1.7	10.5	3.8	3.6
참는다	89.3	46.1	62.5	50.5	62.2	20.9	52.5	48.5	51.6	51.5
그자리에서 항의한다	-	19.3	-	19.9	19.2	8.9	19.1	12.9	17.6	16.8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11.8	23.6	6.1	7.0	25.5	6.8	23.3	10.8	10.3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	5.2	16.3	5.6	19.8	9.9	19.1	16.0	4.8	13.3	14.9
기타	-	3.2	8.3	-	-	15.6	3.8	-	2.9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749	33,088	2,121	14,698	15,390	5,628	27,508	8,725	36,233	37,837

〈부표 3-8-19〉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주 상담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가족	27.1	18.7	68.1	28.9	11.6	-	24.2	9.2	20.6	19.8
친척, 친구, 이웃	-	11.2	-	8.0	16.5	-	8.7	14.9	10.2	9.8
장애인 동료										
종교인	-	2.5	-	-	5.3	-	-	9.4	2.3	2.2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	-	2.7	-	-	-	15.6	3.2	-	2.4	2.3
행정공무원	-	6.3	8.3	-	3.1	25.5	2.4	16.4	5.8	5.5
장애인단체·자립생활센터직원	-	-	-	-	-	-	-	-	-	-
성피해 지원 전문기관	-	3.0	23.6	-	3.1	-	1.8	-	1.4	2.6
못했음	56.2	52.9	-	51.4	60.4	58.9	53.4	50.0	52.6	53.3
기타	16.7	2.8	-	11.7	-	-	6.2	-	4.7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749	33,088	2,121	14,698	15,390	5,628	27,508	8,725	36,233	37,837

〈부표 3-8-20〉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상담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7.1	22.4	-	28.8	20.9	-	16.5	31.4	19.9	20.4
시간이 없어서			-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 부족	33.5	9.3	-	5.3	22.8	-	15.8	4.7	13.2	12.5
몸이 불편해서	-	7.5	-	-	14.1	-	8.9	-	6.9	6.5
경제적 부담 때문에	-	-	-	-	-	-	-	-	-	-
접근처에 상담기관이 없어서	-	-	-	-	-	-	-	-	-	-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	29.3	10.7	-	11.6	19.2	-	11.6	16.4	12.7	13.2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	30.1	47.8	-	49.2	23.0	100.0	44.6	47.4	45.3	45.5
기타	-	2.2	-	5.0	-	-	2.6	-	2.0	1.9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68	17,507	-	7,561	9,299	3,315	14,690	4,361	19,051	20,175

〈부표 3-8-21〉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자 또는 시설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필요	62.6	65.8	78.8	72.0	64.3	59.6	65.6	63.3	64.2	64.0
약간 필요	32.5	30.4	18.7	24.7	30.3	36.2	30.5	32.2	31.5	31.6
약간 불필요	3.1	2.4	0.8	2.0	3.1	3.0	2.8	2.7	2.7	2.8
매우 불필요	1.8	1.5	1.7	1.4	2.2	1.2	1.1	1.9	1.6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275	1,117,995	71,811	435,149	992,534	1,144,776	984,755	1,531,401	2,516,156	2,644,270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8-22〉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유치원(보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23.6	33.5	36.9	27.2	3.2	11.7	33.6	9.7	27.1	27.1
안받았다	76.4	66.5	63.1	72.8	96.8	88.3	66.4	90.3	72.9	7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9,898	69,734	61,589	108,261	19,087	10,695	141,974	53,230	195,204	199,632

〈부표 3-8-23〉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초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35.9	43.5	47.0	40.1	38.5	27.3	44.4	28.1	38.4	38.8
안받았다	64.1	56.5	53.0	59.9	61.5	72.7	55.6	71.9	61.6	6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12,108	194,351	56,792	202,326	187,554	59,787	312,940	182,854	495,794	506,459

〈부표 3-8-24〉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중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30.0	34.4	33.0	35.3	28.2	21.2	39.0	19.0	31.3	31.6
안받았다	70.0	65.6	67.0	64.7	71.8	78.8	61.0	81.0	68.7	6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7,891	146,392	38,025	198,992	135,898	31,368	244,648	153,492	398,140	404,283

〈부표 3-8-25〉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고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26.6	22.2	21.7	28.8	20.5	16.1	32.2	13.0	24.4	25.1
안받았다	73.4	77.8	78.3	71.2	79.5	83.9	67.8	87.0	75.6	7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30,215	122,786	15,240	205,238	113,120	19,403	207,179	141,045	348,224	353,001

〈부표 3-8-26〉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대학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12.6	12.3	-	12.6	13.1	9.6	19.7	5.2	11.9	12.5
안받았다	87.4	87.7	100.0	87.4	86.9	90.4	80.3	94.8	88.1	8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6,826	48,755	930	100,468	52,605	11,578	75,761	88,011	163,772	165,581

〈부표 3-8-27〉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교사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17.6	20.6	21.7	23.0	16.3	7.8	23.9	8.5	18.0	18.7
안받았다	82.4	79.4	78.3	77.0	83.7	92.2	76.1	91.5	82.0	8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88,597	229,389	69,166	257,393	222,838	68,589	371,746	233,800	605,546	617,986

〈부표 3-8-28〉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43.3	53.6	48.8	50.0	46.1	38.1	54.4	33.9	46.4	47.1
안받았다	56.7	46.4	51.2	50.0	53.9	61.9	45.6	66.1	53.6	5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89,969	229,378	69,166	258,415	223,001	68,765	372,147	234,762	606,909	619,347

〈부표 3-8-29〉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13.4	14.3	22.0	14.6	11.8	8.4	19.2	4.2	13.4	13.7
안받았다	86.6	85.7	78.0	85.4	88.2	91.6	80.8	95.8	86.6	8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90,878	229,802	69,166	257,756	224,365	69,393	372,534	235,706	608,240	620,680

〈부표 3-8-30〉 사회적 차별 정도: 결혼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15.2	18.3	-	27.7	19.6	9.8	28.8	9.8	16.2	16.4
안받았다	84.8	81.7	100.0	72.3	80.4	90.2	71.2	90.2	83.8	8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10,416	580,552	281	184,047	672,147	634,493	478,675	954,401	1,433,076	1,490,968

〈부표 3-8-31〉 사회적 차별 정도: 취업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37.1	32.8	-	42.3	38.9	24.5	52.9	27.1	35.4	35.8
안받았다	62.9	67.2	-	57.7	61.1	75.5	47.1	72.9	64.6	64.2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21,130	343,962	-	269,054	585,278	310,760	363,962	771,075	1,135,037	1,165,092

〈부표 3-8-32〉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소득(임금)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24.6	21.9	-	24.6	26.5	19.0	38.2	17.8	23.7	23.9
안받았다	75.4	78.1	-	75.4	73.5	81.0	61.8	82.2	76.3	76.1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29,388	380,816	-	264,575	650,962	394,667	371,606	901,998	1,273,604	1,310,204

〈부표 3-8-33〉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20.4	19.1	-	24.6	20.7	14.6	35.2	12.9	19.6	20.0
안받았다	79.6	80.9	-	75.4	79.3	85.4	64.8	87.1	80.4	80.0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44,947	286,504	-	244,585	520,011	266,855	303,875	701,472	1,005,347	1,031,451

〈부표 3-8-34〉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승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14.6	10.0	-	16.4	14.3	8.4	25.8	7.6	13.2	13.3
안받았다	85.4	90.0	-	83.6	85.7	91.6	74.2	92.4	86.8	86.7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94,855	266,885	-	233,723	483,726	244,291	286,115	650,024	936,139	961,740

〈부표 3-8-35〉 사회적 차별 정도: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10.2	10.1	-	10.0	10.6	9.1	19.2	6.7	10.0	10.2
안받았다	89.8	89.9	-	90.0	89.4	90.9	80.8	93.3	90.0	89.8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97,317	122,447	-	163,152	335,575	121,037	158,800	441,486	600,286	619,764

〈부표 3-8-36〉 사회적 차별 정도: 보험제도상(계약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44.4	47.2	71.3	57.6	46.3	31.4	60.8	36.8	45.7	45.4
안받았다	55.6	52.8	28.7	42.4	53.7	68.6	39.2	63.2	54.3	5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68,865	485,920	38,712	295,120	649,540	371,413	487,634	824,143	1,311,777	1,354,785

〈부표 3-8-37〉 사회적 차별 정도: 의료기관이용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4.7	4.3	8.2	5.6	5.2	3.4	8.5	2.2	4.6	4.6
안받았다	95.3	95.7	91.8	94.4	94.8	96.6	91.5	97.8	95.4	9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19,071	1,112,767	70,802	434,776	989,198	1,137,062	979,924	1,526,779	2,506,703	2,631,838

〈부표 3-8-38〉 사회적 차별 정도: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1.8	2.0	1.5	1.8	2.2	1.7	2.7	1.4	1.9	1.9
안받았다	98.2	98.0	98.5	98.2	97.8	98.3	97.3	98.6	98.1	9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02,472	1,099,419	65,867	427,736	982,721	1,125,567	961,792	1,519,991	2,481,783	2,601,891

〈부표 3-8-39〉 사회적 차별 정도: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받았다	7.6	6.8	15.9	10.9	7.8	4.9	14.7	2.6	7.3	7.3
안받았다	92.4	93.2	84.1	89.1	92.2	95.1	85.3	97.4	92.7	9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08,468	1,102,344	71,144	427,733	981,663	1,130,272	962,352	1,523,197	2,485,549	2,610,812

〈부표 3-8-40〉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항상 느낀다	6.9	5.2	14.3	11.0	7.2	3.0	11.6	2.9	6.3	6.2
가끔 느낀다	31.5	31.7	53.7	41.0	32.1	26.1	43.9	23.3	31.4	31.6
별로 느끼지 않는다	40.8	43.0	21.8	30.6	40.1	48.6	33.9	46.6	41.6	41.7
전혀 느끼지 않는다	20.8	20.1	10.2	17.4	20.6	22.3	10.6	27.2	20.7	2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5,934	1,118,209	71,812	435,148	992,069	1,145,114	983,817	1,532,214	2,516,031	2,644,143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8-41〉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전혀 없다	0.8	1.3	0.4	0.3	0.4	1.9	1.1	0.9	1.0	1.0
별로 없다	23.7	30.0	8.9	13.5	24.3	34.1	18.4	31.7	26.5	26.4
약간 많다	47.0	45.2	44.9	47.1	45.1	47.0	46.2	45.6	45.8	46.2
매우 많다	28.5	23.4	45.7	39.1	30.2	17.0	34.4	21.8	26.7	2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8-4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알고 있다	10.0	6.0	18.6	12.7	10.9	3.6	10.5	7.2	8.5	8.3
들어본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26.4	18.5	35.6	33.9	26.6	15.1	23.9	23.3	23.6	23.1
알지 못한다	63.6	75.5	45.8	53.4	62.5	81.2	65.7	69.5	68.0	6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9. 주거

〈부표 3-9-1〉 주거 위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지하층	3.1	2.4	1.5	1.8	2.9	3.3	2.3	3.2	2.8	2.8
지상	94.4	95.7	96.2	95.2	94.3	95.2	94.6	95.1	94.9	94.9
반지하층	2.4	1.6	2.3	2.8	2.5	1.3	2.8	1.6	2.1	2.0
옥탑	0.1	0.3	0.0	0.2	0.2	0.2	0.3	0.1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2〉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자가	59.1	57.7	52.0	51.9	55.6	63.9	52.6	62.2	58.4	58.5
전세	12.5	12.4	17.8	16.4	13.4	9.9	12.9	12.1	12.4	12.5
보증금있는 월세	17.9	17.5	19.3	21.7	21.9	12.5	22.9	14.6	17.8	17.7
보증금없는 월세	2.8	2.2	1.3	3.2	3.0	2.0	2.3	2.8	2.6	2.6
무상	7.7	10.2	9.6	6.7	6.2	11.7	9.3	8.3	8.7	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3〉 자가일 경우 살고 있는 집의 금액

(단위: %, 만원,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0.5억원미만	17.1	20.1	2.3	9.8	15.2	24.2	17.0	18.7	18.1	18.4
0.5~1억원미만	25.4	25.6	28.2	25.5	27.2	24.1	27.1	24.7	25.6	25.5
1~1.5억원미만	14.8	13.4	14.0	15.9	15.8	12.5	13.0	14.7	14.1	14.2
1.5~2억원미만	9.2	7.5	7.9	10.4	9.1	7.5	8.1	8.8	8.5	8.5
2억원 이상	33.6	33.3	47.6	38.4	32.7	31.8	34.8	33.0	33.6	3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가격	17,501	16,928	20,999	18,387	16,983	16,935	17,583	17,090	17,264	17,262
전국추정수	900,421	646,051	37,362	225,408	551,672	732,030	518,190	952,172	1,470,362	1,546,472

〈부표 3-9-4〉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액

(단위: %, 만원,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5백만원 미만	22.4	23.6	5.3	19.0	26.4	22.7	28.5	19.4	23.6	22.9
5~10백만원 미만	8.2	7.6	8.4	8.7	8.4	6.6	6.4	9.2	7.9	7.9
10~15백만원 미만	10.9	12.2	2.7	13.1	12.7	9.6	11.4	10.9	11.1	11.5
15~20백만원 미만	4.7	4.8	9.6	2.7	4.8	5.5	5.1	4.4	4.7	4.7
20백만원 이상	53.8	51.8	74.1	56.5	47.7	55.6	48.7	56.1	52.7	5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가격	4,193	4,917	8,758	6,574	3,541	4,011	3,544	5,435	4,562	4,496
전국추정수	464,111	334,244	26,609	165,807	349,905	256,034	351,090	409,023	760,113	798,355

〈부표 3-9-5〉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세

(단위: %, 만원,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5만 미만	4.5	5.4	7.9	4.8	4.1	5.7	6.0	3.9	4.9	4.9
5~10만	23.2	28.4	10.8	24.3	26.0	26.3	32.4	20.7	26.3	25.3
10~15만	16.3	23.1	19.2	15.8	19.0	21.4	18.7	19.3	19.1	19.1
15~20만	9.6	8.4	14.8	6.2	8.4	11.6	8.6	9.3	9.0	9.1
20~25만	12.4	9.9	9.8	11.4	11.1	12.0	11.4	10.9	11.2	11.4
25만 이상	34.0	24.9	37.5	37.6	31.5	23.0	22.7	35.9	29.6	3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월세	20.7	17.7	23.0	20.9	19.7	17.9	16.4	21.7	19.2	19.5
전국추정수	323,750	222,248	15,504	110,980	251,525	167,989	250,546	271,649	522,195	545,998

〈부표 3-9-6〉 살고 있는 집의 소유주(계약주체)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부모	15.0	8.9	77.7	45.1	7.0	0.6	23.8	5.3	12.6	12.4
본인	58.7	38.9	0.9	32.1	58.3	53.4	40.7	56.3	50.2	50.3
형제	3.6	2.9	1.3	4.9	5.4	0.9	5.7	1.7	3.3	3.3
배우자	12.0	26.3	0.3	12.0	21.8	18.2	13.0	21.3	18.0	18.0
자녀	6.3	18.6	0.3	0.4	4.6	22.4	10.5	11.8	11.3	11.5
기타	4.6	4.5	19.5	5.6	2.9	4.6	6.2	3.6	4.6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7〉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 양호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77.5	79.0	86.6	80.4	77.9	76.9	78.0	78.3	78.2	78.1
아니오	22.5	21.0	13.4	19.6	22.1	23.1	22.0	21.7	21.8	2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8〉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갖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81.8	84.5	92.2	84.4	81.6	82.9	82.6	83.4	83.1	82.9
아니오	18.2	15.5	7.8	15.6	18.4	17.1	17.4	16.6	16.9	1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9〉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있음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15.5	11.8	7.5	16.5	15.2	12.2	14.7	13.5	14.0	13.9
아니오	84.5	88.2	92.5	83.5	84.8	87.8	85.3	86.5	86.0	8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10〉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 부터 안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91.9	93.0	97.1	93.2	92.3	91.8	92.4	92.4	92.4	92.4
아니오	8.1	7.0	2.9	6.8	7.7	8.2	7.6	7.6	7.6	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1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재난 발생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34.2	36.5	44.4	40.6	36.6	31.2	37.5	34.2	35.5	35.1
아니오	65.8	63.5	55.6	59.4	63.4	68.8	62.5	65.8	64.5	6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12〉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영구임대주택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4.1	5.1	2.2	4.3	6.5	3.0	7.9	2.7	4.7	4.5
없다	95.9	94.9	97.8	95.7	93.5	97.0	92.1	97.3	95.3	9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13〉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공공(국민)임대주택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5.0	5.4	5.5	6.2	5.8	4.2	6.8	4.1	5.2	5.1
없다	95.0	94.6	94.5	93.8	94.2	95.8	93.2	95.9	94.8	9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14〉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3	0.2	0.0	0.2	0.3	0.3	0.6	0.1	0.3	0.3
없다	99.7	99.8	100.0	99.8	99.7	99.7	99.4	99.9	99.7	9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15〉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7	0.9	3.7	1.1	0.9	0.3	1.1	0.5	0.8	0.7
없다	99.3	99.1	96.3	98.9	99.1	99.7	98.9	99.5	99.2	9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16〉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1.0	0.6	2.4	1.4	0.8	0.5	0.7	0.9	0.8	0.8
없다	99.0	99.4	97.6	98.6	99.2	99.5	99.3	99.1	99.2	9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17〉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6	0.2	0.0	0.5	0.7	0.2	0.3	0.6	0.5	0.5
없다	99.4	99.8	100.0	99.5	99.3	99.8	99.7	99.4	99.5	9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18〉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저소득층 월세지원(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1.1	0.9	0.0	0.6	1.5	0.8	1.7	0.7	1.1	1.0
없다	98.9	99.1	100.0	99.4	98.5	99.2	98.3	99.3	98.9	9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19〉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주택개조사업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3	0.3	0.8	0.4	0.1	0.4	0.4	0.2	0.3	0.3
없다	99.7	99.7	99.2	99.6	99.9	99.6	99.6	99.8	99.7	9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20〉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기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없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21〉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영구임대주택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31.3	43.1	13.6	18.3	31.5	58.1	35.0	40.3	36.9	36.9
약간 만족	53.8	39.9	44.3	53.7	51.9	35.1	46.5	48.5	47.2	47.2
약간 불만족	10.8	11.8	42.1	18.1	10.9	6.8	11.9	10.1	11.3	11.3
매우 불만족	4.1	5.2	0.0	9.9	5.7	0.0	6.6	1.1	4.7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2,865	56,583	1,587	18,563	64,856	34,442	77,333	42,115	119,448	119,448

〈부표 3-9-22〉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공공(국민)임대주택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39.0	50.5	43.9	55.3	37.5	45.6	45.9	43.1	44.6	44.1
약간 만족	50.0	38.1	56.1	36.1	50.1	42.3	42.5	46.0	44.2	44.7
약간 불만족	8.1	10.3	0.0	6.0	8.6	12.1	10.0	8.1	9.1	9.1
매우 불만족	2.9	1.1	0.0	2.6	3.8	0.0	1.6	2.8	2.2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5,812	60,164	3,916	26,990	57,106	47,964	67,023	63,471	130,494	135,976

〈부표 3-9-23〉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25.3	52.6	-	28.2	47.3	20.7	38.4	18.4	33.8	33.8
약간 만족	55.8	47.4	-	71.8	52.7	47.7	44.6	81.6	53.2	53.2
약간 불만족	18.9	0.0	-	0.0	0.0	31.6	17.0	0.0	13.0	13.0
매우 불만족	-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052	2,280	-	985	3,325	3,022	5,634	1,699	7,333	7,332

〈부표 3-9-24〉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41.4	45.5	12.6	69.8	52.5	6.7	53.8	32.7	45.1	43.4
약간 만족	37.2	38.6	20.7	22.9	36.2	76.5	28.2	55.3	39.4	37.9
약간 불만족	16.5	10.6	53.5	4.2	5.6	16.8	8.9	12.0	10.2	13.6
매우 불만족	5.0	5.2	13.3	3.1	5.7	0.0	9.0	0.0	5.3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139	9,668	2,651	4,817	8,908	3,431	11,210	7,840	19,050	19,807

〈부표 3-9-25〉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35.9	41.7	0.0	16.4	44.4	65.4	33.7	40.6	38.2	37.7
약간 만족	54.7	51.4	100.0	70.0	44.9	32.0	62.2	50.6	54.5	53.7
약간 불만족	8.3	6.9	0.0	11.2	10.7	2.6	2.0	8.9	6.5	7.9
매우 불만족	1.0	0.0	0.0	2.4	0.0	0.0	2.1	0.0	0.7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506	6,462	1,743	6,251	7,668	5,306	6,974	13,689	20,663	20,968

〈부표 3-9-26〉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5.3	0.0	-	0.0	6.7	0.0	16.2	0.0	4.2	4.1
약간 만족	58.0	47.3	-	86.7	39.9	73.5	58.5	57.8	58.0	55.6
약간 불만족	23.1	52.7	-	13.3	36.1	26.5	10.4	32.5	26.7	29.8
매우 불만족	13.6	0.0	-	0.0	17.3	0.0	14.9	9.6	11.0	10.5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242	2,708	-	2,338	7,270	2,342	3,000	8,455	11,455	11,950

〈부표 3-9-27〉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저소득층 월세지원(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25.8	25.2	-	33.3	19.2	33.8	22.2	31.1	25.6	25.6
약간 만족	61.9	67.5	-	56.5	68.4	59.1	74.8	47.0	64.0	64.0
약간 불만족	11.4	2.9	-	10.2	9.4	5.7	3.0	16.4	8.2	8.2
매우 불만족	0.8	4.4	-	0.0	3.0	1.4	0.0	5.6	2.2	2.2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824	10,198	-	2,427	15,074	9,521	16,560	10,462	27,022	27,022

〈부표 3-9-28〉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주택개조사업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23.8	48.1	0.0	14.6	85.0	37.7	25.8	45.6	34.7	34.7
약간 만족	69.7	29.8	100.0	75.6	15.0	42.3	49.6	54.4	51.8	51.8
약간 불만족	6.5	22.1	0.0	9.9	0.0	20.0	24.6	0.0	13.5	13.5
매우 불만족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226	3,440	603	1,896	927	4,240	4,200	3,466	7,666	7,666

〈부표 3-9-29〉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기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만족	-	-	-	-	-	-	-	-	-	-
약간 만족	-	100.0	-	-	100.0	-	-	100.0	100.0	100.0
약간 불만족	-	-	-	-	-	-	-	-	-	-
매우 불만족	-	-	-	-	-	-	-	-	-	-
계	-	100.0	-	-	100.0	-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	139	-	-	139	-	-	139	139	139

〈부표 3-9-30〉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편리하다	19.6	18.5	26.2	20.7	19.4	17.8	17.9	20.1	19.2	19.1
약간 편리하다	53.6	53.6	53.9	55.2	53.9	52.7	51.2	55.2	53.7	53.6
약간 불편하다	21.4	22.8	16.5	20.2	21.3	23.6	24.4	20.1	21.8	22.0
매우 불편하다	5.4	5.1	3.4	3.9	5.4	5.9	6.5	4.6	5.3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31〉 주택 개조 의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반드시 개조 원함	3.6	5.2	4.1	3.3	4.4	4.6	5.3	3.5	4.2	4.3
가급적 개조 원함	14.2	20.0	17.2	13.1	14.6	19.7	21.0	13.4	16.4	16.6
별로 개조 원치 않음	46.1	44.2	43.4	44.2	44.8	46.3	42.2	47.5	45.4	45.3
전혀 개조 원치 않음	33.7	27.7	32.0	37.8	33.5	26.6	29.1	32.9	31.4	31.2
이미 개조하였음	2.3	2.9	3.2	1.7	2.6	2.8	2.4	2.7	2.6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9-32〉 주택 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부엌	12.7	16.5	2.1	22.1	15.2	13.0	10.1	19.6	14.8	14.6
변기	11.0	9.1	6.6	9.3	11.7	9.2	10.0	11.2	10.6	10.0
욕조	12.9	9.9	25.3	15.8	13.3	8.2	13.6	9.6	11.6	11.4
문턱 낮추기	19.8	23.4	19.2	14.9	20.4	24.4	27.2	16.0	21.6	21.6
방문 고치기	5.2	4.9	9.5	4.8	3.9	5.6	4.9	5.5	5.2	5.1
냉·난방	6.6	6.6	6.2	7.2	7.0	6.2	6.4	6.7	6.6	6.6
채광	1.9	2.3	1.7	2.7	1.9	2.0	2.2	2.1	2.1	2.1
아파트출입구 (계단)	5.4	5.0	0.0	5.5	3.9	6.3	4.2	6.2	5.2	5.2
청각장애인용 초인종(경광등)	4.6	3.3	5.1	4.5	3.2	4.2	4.8	2.8	3.8	3.9
현관(계단)	12.5	13.2	2.0	9.9	11.7	15.0	9.0	15.5	12.2	12.8
미끄럼방지	2.5	3.8	13.5	0.4	3.1	3.3	2.9	2.9	2.9	3.1
비상연락장치	1.7	0.9	0.0	2.2	1.4	1.0	2.0	0.3	1.2	1.3
기타	3.3	1.2	8.8	0.7	3.2	1.6	2.8	1.7	2.2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71,471	282,003	15,358	71,294	188,833	277,989	258,810	260,116	518,926	553,474

〈부표 3-9-33〉 주택 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2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부엌	3.8	8.4	4.2	9.5	6.2	5.4	5.2	7.7	6.4	6.2
변기	8.0	5.6	13.1	1.9	8.2	6.8	7.5	6.4	6.9	6.8
욕조	16.3	14.4	16.7	21.8	21.7	9.7	16.3	14.9	15.6	15.4
문턱 낮추기	19.0	19.7	19.0	17.0	17.8	20.9	17.2	20.4	18.8	19.3
방문 고치기	8.1	7.9	2.9	6.0	6.0	10.1	8.1	7.5	7.8	8.0
냉·난방	6.7	5.5	14.0	8.9	5.1	5.5	5.6	7.3	6.4	6.1
채광	3.8	2.9	4.3	5.7	2.6	3.1	3.4	2.8	3.1	3.3
아파트출입구 (계단)	3.9	5.4	5.8	6.0	5.4	3.8	6.3	3.5	4.9	4.6
청각장애인용 초인종(경광등)	1.0	1.3	0.0	0.7	1.7	0.9	1.8	0.6	1.2	1.1
현관(계단)	12.0	11.3	4.1	8.4	12.0	12.7	10.6	12.9	11.7	11.7
미끄럼방지	7.7	9.2	6.9	5.9	6.6	10.5	7.6	9.7	8.7	8.5
비상연락장치	7.8	6.1	5.8	8.2	4.8	8.1	8.2	4.5	6.4	7.0
기타	1.9	2.1	3.2	0.0	2.0	2.5	2.3	1.9	2.1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9,029	227,909	12,772	58,147	145,624	230,395	214,638	205,162	419,800	446,938

〈부표 3-9-34〉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일반주택	96.2	94.4	95.3	96.4	96.1	94.6	92.8	97.4	95.6	95.5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3	1.2	4.6	1.4	1.4	0.9	2.6	0.4	1.3	1.3
거주시설	0.4	0.5	0.1	0.4	0.4	0.6	0.8	0.2	0.4	0.5
요양시설	2.1	3.8	0.0	1.8	2.2	3.9	3.7	2.0	2.7	2.8
기타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3	1,119,550	71,813	435,149	992,535	1,146,456	984,822	1,533,014	2,517,836	2,645,953

〈부표 3-9-35〉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원하는 삶의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혼자살고 싶다	11.8	19.9	1.2	8.8	15.1	18.6	13.2	16.3	15.1	15.2
가족과 살고 싶다	83.3	73.3	97.8	85.3	80.2	74.6	80.0	78.7	79.2	79.1
마음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1.0	1.2	0.0	1.0	0.8	1.4	1.2	1.0	1.1	1.1
국가·사회로부터일상생활 에대한지원을 받으며 살고 싶다	3.9	5.6	1.0	4.9	3.9	5.3	5.6	4.1	4.6	4.6
기타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62,282	1,054,684	68,406	417,836	949,720	1,081,004	910,803	1,487,667	2,398,470	2,516,966

10. 복지서비스

〈부표 3-10-1〉 장애인등록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95.9	94.2	97.5	97.5	97.2	92.5	100.0	100.0	100.0	95.2
아니오	3.2	4.9	3.8	1.7	1.9	6.5	-	-	-	3.9
신청중	0.6	0.9	0.5	0.7	0.9	0.6	-	-	-	0.7
보훈처 등록	0.4	0.0	0.0	0.1	0.1	0.4	-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주: 장애등급 관련해서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분석 실시

〈부표 3-10-2〉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급	7.9	7.6	29.6	15.3	6.7	4.5	20.0	0.0	7.8	7.8
2급	13.1	13.2	31.8	20.8	12.0	9.9	33.6	0.0	13.1	13.1
3급	18.7	17.4	28.6	20.8	19.7	15.0	46.4	0.0	18.2	18.2
4급	13.0	18.4	2.9	7.8	13.1	21.0	0.0	25.1	15.3	15.3
5급	19.9	23.8	3.2	11.9	20.8	27.2	0.0	35.3	21.5	21.5
6급	27.3	19.7	3.9	23.3	27.7	22.5	0.0	39.6	24.1	2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63,063	1,054,887	68,736	424,053	964,369	1,060,792	984,935	1,533,015	2,517,950	2,517,950

〈부표 3-10-3〉 장애등록 시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988~1989년	2.4	1.5	0.0	3.1	2.5	1.2	3.9	0.8	2.0	2.0
1990~1995년	4.3	2.3	0.0	4.1	4.2	2.7	5.2	2.3	3.5	3.5
1996~2000년	16.1	11.0	4.1	16.9	16.3	11.4	16.1	12.7	14.0	14.0
2001~2005년	26.9	28.0	15.8	23.7	26.6	30.2	23.5	29.8	27.3	27.3
2006~2010년	31.3	38.8	35.0	29.4	31.6	39.0	26.0	39.8	34.4	34.4
2011~2014년	19.1	18.4	45.1	22.7	18.7	15.6	25.3	14.6	18.8	1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63,063	1,054,887	68,736	424,053	964,369	1,060,792	984,935	1,533,015	2,517,950	2,517,950

〈부표 3-10-4〉 장애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매우 많음	3.5	3.8	4.8	3.8	4.2	3.0	7.4	1.2	3.6	3.6
약간 받고 있음	31.8	32.7	54.6	42.3	31.9	26.9	47.4	22.4	32.2	32.2
별로 받지 못하고 있음	50.0	47.7	30.2	41.0	49.6	53.0	36.2	57.3	49.0	49.0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14.7	15.8	10.4	12.9	14.4	17.1	9.0	19.2	15.2	1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63,063	1,054,496	68,735	424,053	964,369	1,060,402	984,935	1,532,624	2,517,559	2,517,559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10-5〉 장애등급 재심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18.4	16.5	30.0	27.2	18.4	12.2	30.6	9.3	17.6	17.6
아니오	81.6	83.5	70.0	72.8	81.6	87.8	69.4	90.7	82.4	8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63,063	1,054,887	68,736	424,053	964,369	1,060,792	984,935	1,533,015	2,517,950	2,517,950

〈부표 3-10-6〉 장애등급 재심사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장애인연금신청	6.6	6.8	0.0	10.3	7.7	3.3	8.1	3.8	6.7	6.7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신청	4.2	4.3	8.4	7.4	2.0	3.9	5.4	1.7	4.2	4.2
장애 재판정 시기가 되어	59.2	59.8	71.9	57.6	60.1	58.1	59.2	59.8	59.4	59.4
장애상태가 변화하여	27.0	27.4	16.2	21.4	27.0	34.3	25.3	31.2	27.2	27.2
기타	3.0	1.7	3.5	3.4	3.2	0.5	2.0	3.6	2.5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8,903	174,377	20,620	115,224	177,600	129,836	301,165	142,115	443,280	443,280

〈부표 3-10-7〉 장애등급 재심사 후 등급조정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예	45.2	43.2	35.5	37.3	46.5	49.3	43.0	47.5	44.4	44.4
아니오	54.8	56.8	64.5	62.7	53.5	50.7	57.0	52.5	55.6	5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8,903	174,377	20,620	115,224	177,600	129,836	301,165	142,115	443,280	443,280

〈부표 3-10-8〉 장애등급 조정 내용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하향 조정	18.0	16.2	11.6	17.2	19.7	15.0	11.4	29.8	17.3	17.3
상향 조정	27.2	27.0	23.9	20.1	26.8	34.3	31.6	17.7	27.1	27.1
조정 없음	54.8	56.8	64.5	62.7	53.5	50.7	57.0	52.5	55.6	5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68,903	174,377	20,620	115,224	177,600	129,836	301,165	142,115	443,280	443,280

〈부표 3-10-9〉 장애등록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30.0	38.5	27.6	22.9	32.2	36.6	-	-	-	34.6
등록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0.3	22.0	0.0	5.0	25.3	22.6	-	-	-	21.2
등록하는 데 비용이 들 것 같아서	5.1	9.8	0.0	7.0	2.5	9.2	-	-	-	7.6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15.3	11.0	0.0	24.1	12.6	12.4	-	-	-	13.0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3.6	4.8	7.2	5.7	7.0	3.3	-	-	-	4.2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10.3	10.0	34.8	25.9	12.2	7.1	-	-	-	10.1
등록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2.8	1.2	0.0	0.0	1.1	2.4	-	-	-	2.0
앞으로 장애 상태가 호전될 것 같아서	3.4	1.2	30.4	4.6	1.6	1.1	-	-	-	2.2
기타	9.4	1.5	0.0	4.8	5.6	5.3	-	-	-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100.0
전국추정수	47,724	54,657	2,742	7,577	18,433	73,629	-	-	-	102,381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10-10〉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연금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11.5	11.1	0.3	21.9	12.3	7.2	29.5	0.6	11.9	11.3
없다	88.5	88.9	99.7	78.1	87.7	92.8	70.5	99.4	88.1	8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11〉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경증장애수당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14.3	17.2	0.0	11.3	17.0	16.8	18.1	15.1	16.3	15.5
없다	85.7	82.8	100.0	88.7	83.0	83.2	81.9	84.9	83.7	8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12〉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아동수당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1.3	1.2	27.0	3.0	0.0	0.0	3.2	0.1	1.3	1.3
없다	98.7	98.8	73.0	97.0	100.0	100.0	96.8	99.9	98.7	9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1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2.5	2.4	19.2	6.3	2.1	0.3	5.7	0.6	2.6	2.5
없다	97.5	97.6	80.8	93.7	97.9	99.7	94.3	99.4	97.4	9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14〉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1.9	1.8	41.1	3.4	0.3	0.1	4.5	0.3	1.9	1.8
없다	98.1	98.2	58.9	96.6	99.7	99.9	95.5	99.7	98.1	9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15〉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 의료비지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7.7	7.9	22.1	11.1	8.5	5.0	14.1	4.3	8.1	7.8
없다	92.3	92.1	77.9	88.9	91.5	95.0	85.9	95.7	91.9	9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16〉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5.2	5.0	12.5	6.6	6.0	3.4	9.5	2.8	5.4	5.1
없다	94.8	95.0	87.5	93.4	94.0	96.6	90.5	97.2	94.6	9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17〉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검사비 지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5.2	4.8	9.7	6.7	6.4	2.9	9.4	2.6	5.3	5.0
없다	94.8	95.2	90.3	93.3	93.6	97.1	90.6	97.4	94.7	9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18〉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발달재활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4.0	3.1	65.3	6.9	1.1	0.8	8.3	0.8	3.7	3.6
없다	96.0	96.9	34.7	93.1	98.9	99.2	91.7	99.2	96.3	9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19〉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언어발달지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1.7	0.9	29.4	2.2	0.4	0.2	3.2	0.2	1.4	1.4
없다	98.3	99.1	70.6	97.8	99.6	99.8	96.8	99.8	98.6	9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20〉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5.7	6.6	8.7	3.9	5.6	7.1	11.2	3.2	6.3	6.1
없다	94.3	93.4	91.3	96.1	94.4	92.9	88.8	96.8	93.7	9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21〉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보조기구건강보험(급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11.8	13.5	14.7	7.9	11.2	15.3	19.2	8.9	12.9	12.5
없다	88.2	86.5	85.3	92.1	88.8	84.7	80.8	91.1	87.1	8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22〉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1	0.7	0.0	1.5	0.2	0.1	0.6	0.2	0.3	0.3
없다	99.9	99.3	100.0	98.5	99.8	99.9	99.4	99.8	99.7	9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2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2.9	3.5	19.7	6.5	2.8	1.2	8.1	0.2	3.3	3.1
없다	97.1	96.5	80.3	93.5	97.2	98.8	91.9	99.8	96.7	9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24〉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3	0.4	1.8	1.0	0.2	0.1	0.8	0.1	0.4	0.3
없다	99.7	99.6	98.2	99.0	99.8	99.9	99.2	99.9	99.6	9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25〉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45.7	30.3	50.9	48.5	47.8	27.5	43.7	39.0	40.9	39.2
없다	54.3	69.7	49.1	51.5	52.2	72.5	56.3	61.0	59.1	6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26〉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5.7	5.9	3.8	6.5	8.5	3.2	10.1	3.4	6.0	5.7
없다	94.3	94.1	96.2	93.5	91.5	96.8	89.9	96.6	94.0	9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27〉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28.8	22.8	66.1	40.0	26.9	17.9	55.6	9.3	27.4	26.2
없다	71.2	77.2	33.9	60.0	73.1	82.1	44.4	90.7	72.6	7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28〉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세금공제 및 면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40.6	38.2	47.9	44.1	38.8	37.9	45.9	38.2	41.2	39.5
없다	59.4	61.8	52.1	55.9	61.2	62.1	54.1	61.8	58.8	6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29〉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교통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79.1	72.1	71.2	82.9	81.8	68.9	83.0	77.5	79.7	76.1
없다	20.9	27.9	28.8	17.1	18.2	31.1	17.0	22.5	20.3	2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30〉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85.7	80.0	73.6	88.8	87.2	78.4	87.6	87.0	87.2	83.3
없다	14.3	20.0	26.4	11.2	12.8	21.6	12.4	13.0	12.8	1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31〉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67.0	60.7	76.0	76.4	68.3	55.5	76.2	61.6	67.3	64.3
없다	33.0	39.3	24.0	23.6	31.7	44.5	23.8	38.4	32.7	3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32〉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2	0.1	0.0	0.1	0.3	0.0	0.2	0.1	0.2	0.2
없다	99.8	99.9	100.0	99.9	99.7	100.0	99.8	99.9	99.8	9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3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5	0.3	1.3	0.8	0.4	0.2	0.7	0.3	0.4	0.4
없다	99.5	99.7	98.7	99.2	99.6	99.8	99.3	99.7	99.6	9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34〉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0	0.9	0.0	0.4	0.5	0.3	0.9	0.1	0.4	0.4
없다	100.0	99.1	100.0	99.6	99.5	99.7	99.1	99.9	99.6	9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35〉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3.5	7.5	0.0	0.4	1.1	10.9	8.8	2.4	4.9	5.2
없다	96.5	92.5	100.0	99.6	98.9	89.1	91.2	97.6	95.1	9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36〉 장애인복지사업 정보 취득 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정보매체	47.6	34.9	33.5	53.8	46.9	34.4	37.7	45.6	42.5	42.2
친척,친구,이웃	22.8	35.7	13.2	14.5	22.6	39.3	23.9	29.7	27.4	28.3
장애인 동료	2.2	2.4	8.4	2.1	3.1	1.3	3.6	1.5	2.3	2.3
행정기관	16.8	14.6	17.7	14.6	17.9	14.5	18.2	14.9	16.2	15.9
사회복지관련 기관	6.3	8.3	15.0	10.3	5.9	6.5	10.7	5.2	7.4	7.1
장애인단체	1.4	1.1	2.3	1.9	1.3	1.0	2.3	0.7	1.3	1.3
종교기관	0.4	1.1	0.0	0.6	0.7	0.8	0.9	0.5	0.7	0.7
교육기관	0.4	0.2	7.9	0.7	0.0	0.0	0.8	0.1	0.4	0.3
복지관련 정보지	1.2	0.8	0.6	1.1	1.0	1.1	1.0	1.1	1.1	1.0
기타	0.9	0.8	1.3	0.4	0.7	1.1	0.9	0.7	0.8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5,756	1,117,107	71,812	434,786	991,392	1,144,873	982,977	1,532,368	2,515,345	2,642,863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10-37〉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직업재활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3.2	2.6	0.3	11.9	2.1	0.4	6.4	1.0	3.1	3.0
없다	96.8	97.4	99.7	88.1	97.9	99.6	93.6	99.0	96.9	9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38〉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복지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9.8	9.1	32.3	18.5	7.4	6.5	18.0	4.8	9.9	9.5
없다	90.2	90.9	67.7	81.5	92.6	93.5	82.0	95.2	90.1	9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39〉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1.2	0.9	4.9	3.0	0.6	0.5	2.3	0.3	1.1	1.0
없다	98.8	99.1	95.1	97.0	99.4	99.5	97.7	99.7	98.9	9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40〉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체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2.5	1.7	8.5	4.9	1.9	1.1	4.2	1.1	2.3	2.2
없다	97.5	98.3	91.5	95.1	98.1	98.9	95.8	98.9	97.7	9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4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수련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4	0.2	0.5	1.7	0.0	0.0	0.9	0.0	0.3	0.3
없다	99.6	99.8	99.5	98.3	100.0	100.0	99.1	100.0	99.7	9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4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심부름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4	0.3	0.0	0.3	0.7	0.1	0.8	0.1	0.4	0.4
없다	99.6	99.7	100.0	99.7	99.3	99.9	99.2	99.9	99.6	9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4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2.7	1.6	21.5	4.7	1.2	1.0	4.9	0.7	2.3	2.3
없다	97.3	98.4	78.5	95.3	98.8	99.0	95.1	99.3	97.7	9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44〉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점자 도서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3	0.1	0.0	0.4	0.3	0.0	0.6	0.0	0.2	0.2
없다	99.7	99.9	100.0	99.6	99.7	100.0	99.4	100.0	99.8	9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45〉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수화통역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5	0.7	0.0	1.0	1.0	0.1	1.6	0.0	0.6	0.6
없다	99.5	99.3	100.0	99.0	99.0	99.9	98.4	100.0	99.4	9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46〉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특별 운송사업(콜택시, 해피콜 등)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5.0	5.9	15.8	7.4	5.4	4.0	12.9	1.0	5.7	5.4
없다	95.0	94.1	84.2	92.6	94.6	96.0	87.1	99.0	94.3	9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47〉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1.1	0.9	1.3	2.2	1.2	0.4	2.0	0.5	1.1	1.0
없다	98.9	99.1	98.7	97.8	98.8	99.6	98.0	99.5	98.9	9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48〉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2	0.6	0.0	1.4	0.4	0.0	0.9	0.1	0.4	0.4
없다	99.8	99.4	100.0	98.6	99.6	100.0	99.1	99.9	99.6	9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49〉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3	0.5	0.5	2.1	0.1	0.0	1.1	0.0	0.4	0.4
없다	99.7	99.5	99.5	97.9	99.9	100.0	98.9	100.0	99.6	9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50〉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1.0	0.6	17.5	2.1	0.0	0.0	2.0	0.1	0.8	0.8
없다	99.0	99.4	82.5	97.9	100.0	100.0	98.0	99.9	99.2	9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5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정신보건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1.8	1.9	4.0	4.5	1.3	1.2	3.6	0.7	1.8	1.9
없다	98.2	98.1	96.0	95.5	98.7	98.8	96.4	99.3	98.2	9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5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 재활병·의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2.5	2.4	14.3	3.9	2.0	1.6	4.9	1.1	2.6	2.5
없다	97.5	97.6	85.7	96.1	98.0	98.4	95.1	98.9	97.4	9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5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3.5	3.8	0.9	7.2	5.7	0.7	8.1	0.6	3.5	3.6
없다	96.5	96.2	99.1	92.8	94.3	99.3	91.9	99.4	96.5	9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54〉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4	0.2	0.0	1.0	0.3	0.1	0.8	0.0	0.3	0.3
없다	99.6	99.8	100.0	99.0	99.7	99.9	99.2	100.0	99.7	9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55〉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5.9	5.6	66.2	19.4	1.8	0.3	14.9	0.3	6.0	5.8
없다	94.1	94.4	33.8	80.6	98.2	99.7	85.1	99.7	94.0	9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56〉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특수교육지원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1.8	1.2	26.6	4.7	0.2	0.0	4.0	0.0	1.6	1.6
없다	98.2	98.8	73.4	95.3	99.8	100.0	96.0	100.0	98.4	9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3	1,119,662	71,813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4	2,517,949	2,646,065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10-57〉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8	0.5	1.1	2.1	0.6	0.1	1.2	0.3	0.7	0.7
없다	99.2	99.5	98.9	97.9	99.4	99.9	98.8	99.7	99.3	9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58〉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아동보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1.2	0.5	22.7	1.8	0.0	0.0	2.3	0.0	0.9	0.9
없다	98.8	99.5	77.3	98.2	100.0	100.0	97.7	100.0	99.1	9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59〉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장애인단체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3.4	2.7	5.2	5.2	3.4	2.0	6.1	1.5	3.3	3.1
없다	96.6	97.3	94.8	94.8	96.6	98.0	93.9	98.5	96.7	9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60〉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직업재활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12.4	8.9	36.8	22.5	12.2	3.8	16.4	7.4	11.0	10.9
희망안함	87.6	91.1	63.2	77.5	87.8	96.2	83.6	92.6	89.0	8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6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복지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21.0	19.9	46.8	24.7	19.8	17.9	27.4	15.8	20.3	20.5
희망안함	79.0	80.1	53.2	75.3	80.2	82.1	72.6	84.2	79.7	7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6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8.3	9.4	30.1	11.1	6.6	8.4	13.9	5.0	8.5	8.8
희망안함	91.7	90.6	69.9	88.9	93.4	91.6	86.1	95.0	91.5	9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6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체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19.3	11.2	44.4	24.8	17.7	9.1	19.5	13.7	16.0	15.9
희망안함	80.7	88.8	55.6	75.2	82.3	90.9	80.5	86.3	84.0	8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64〉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 수련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8.6	5.6	27.6	12.2	7.8	3.8	10.3	5.3	7.2	7.3
희망안함	91.4	94.4	72.4	87.8	92.2	96.2	89.7	94.7	92.8	9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65〉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심부름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16.4	21.0	20.4	17.1	15.9	20.8	21.8	15.6	18.1	18.3
희망안함	83.6	79.0	79.6	82.9	84.1	79.2	78.2	84.4	81.9	8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66〉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23.4	24.8	46.5	23.6	22.4	24.1	26.4	22.0	23.7	24.0
희망안함	76.6	75.2	53.5	76.4	77.6	75.9	73.6	78.0	76.3	7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67〉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점자 도서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0.9	0.8	2.2	1.4	0.9	0.5	1.4	0.5	0.8	0.9
희망안함	99.1	99.2	97.8	98.6	99.1	99.5	98.6	99.5	99.2	9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68〉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수화통역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1.0	1.5	2.3	1.2	1.4	1.0	2.3	0.4	1.1	1.2
희망안함	99.0	98.5	97.7	98.8	98.6	99.0	97.7	99.6	98.9	9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69〉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특별 운송사업(콜택시, 해피콜 등)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30.6	40.4	46.0	29.7	30.0	40.1	42.8	28.5	34.1	34.8
희망안함	69.4	59.6	54.0	70.3	70.0	59.9	57.2	71.5	65.9	6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70〉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13.7	9.8	49.9	22.6	13.6	4.4	17.5	8.9	12.3	12.0
희망안함	86.3	90.2	50.1	77.4	86.4	95.6	82.5	91.1	87.7	8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7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10.9	8.9	43.9	21.1	10.5	3.4	15.9	6.3	10.0	10.1
희망안함	89.1	91.1	56.1	78.9	89.5	96.6	84.1	93.7	90.0	8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7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4.9	4.0	48.5	15.6	1.6	0.1	11.8	0.0	4.6	4.5
희망안함	95.1	96.0	51.5	84.4	98.4	99.9	88.2	100.0	95.4	9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7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2.6	1.9	60.0	3.2	0.3	0.0	5.8	0.0	2.3	2.3
희망안함	97.4	98.1	40.0	96.8	99.7	100.0	94.2	100.0	97.7	9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74〉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정신보건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11.8	13.3	30.0	17.6	13.6	8.3	19.2	7.7	12.2	12.4
희망안함	88.2	86.7	70.0	82.4	86.4	91.7	80.8	92.3	87.8	8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75〉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 재활병·의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30.2	31.9	41.3	28.3	30.9	31.4	32.4	29.2	30.5	31.0
희망안함	69.8	68.1	58.7	71.7	69.1	68.6	67.6	70.8	69.5	6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76〉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2.8	3.1	0.4	6.3	4.5	0.4	7.1	0.0	2.8	2.9
희망안함	97.2	96.9	99.6	93.7	95.5	99.6	92.9	100.0	97.2	9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77〉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1.3	1.2	0.0	3.7	1.7	0.1	3.3	0.0	1.3	1.3
희망안함	98.7	98.8	100.0	96.3	98.3	99.9	96.7	100.0	98.7	9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78〉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2.9	2.2	72.9	3.7	0.0	0.0	6.6	0.1	2.7	2.6
희망안함	97.1	97.8	27.1	96.3	100.0	100.0	93.4	99.9	97.3	9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79〉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특수교육지원센터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2.8	2.0	70.4	3.6	0.0	0.0	6.2	0.2	2.5	2.5
희망안함	97.2	98.0	29.6	96.4	100.0	100.0	93.8	99.8	97.5	9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097	1,118,169	70,015	435,148	992,535	1,146,568	984,060	1,532,092	2,516,152	2,644,266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10-80〉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12.7	9.2	37.8	22.3	12.0	4.7	17.3	7.5	11.3	11.2
희망안함	87.3	90.8	62.2	77.7	88.0	95.3	82.7	92.5	88.7	8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8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아동보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0.8	0.5	22.7	0.1	0.1	0.0	1.5	0.1	0.7	0.7
희망안함	99.2	99.5	77.3	99.9	99.9	100.0	98.5	99.9	99.3	9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8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 장애인 단체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희망함	13.5	9.1	28.9	16.4	13.6	7.1	18.0	7.8	11.8	11.7
희망안함	86.5	90.9	71.1	83.6	86.4	92.9	92.0	92.2	88.2	8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83〉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소득보장	39.7	36.8	21.0	35.9	42.9	36.8	40.3	38.1	39.0	38.5
의료보장	29.8	36.9	20.9	22.2	27.8	41.9	28.6	34.7	32.3	32.8
고용보장	10.3	6.0	10.8	17.1	9.9	3.8	7.4	9.4	8.6	8.5
주거보장	6.5	6.3	7.6	6.4	7.1	5.8	7.4	5.9	6.4	6.4
이동권 보장	1.4	2.4	0.7	1.4	1.2	2.6	2.3	1.4	1.8	1.8
보육교육 보장	1.9	1.4	22.9	3.1	1.1	0.3	2.8	1.0	1.7	1.7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3	2.0	2.4	1.5	1.7	1.6	1.4	1.8	1.6	1.6
장애인 인권보장	3.1	2.2	8.5	5.6	2.8	1.2	3.3	2.3	2.7	2.7
장애인 인식개선	2.2	2.2	3.0	3.8	1.9	1.7	2.8	1.8	2.2	2.2
장애예방	1.1	1.3	0.1	0.9	1.2	1.3	1.0	1.2	1.1	1.2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참여보장	0.6	0.5	1.4	0.6	0.6	0.5	1.2	0.2	0.6	0.6
재난안전관리	0.5	0.4	0.0	0.6	0.4	0.5	0.4	0.4	0.4	0.5
기타	0.3	0.3	0.5	0.3	0.2	0.4	0.3	0.3	0.3	0.3
없음	1.3	1.3	0.0	0.6	1.2	1.8	0.8	1.5	1.3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0-84〉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2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소득보장	17.7	17.9	11.3	16.6	15.7	20.4	15.5	18.7	17.4	17.8
의료보장	32.5	33.6	25.0	26.6	34.0	35.0	33.7	32.7	33.1	33.0
고용보장	14.1	7.8	11.9	17.2	14.1	6.7	9.6	12.7	11.5	11.4
주거보장	13.5	16.2	8.7	12.6	15.5	15.0	16.6	13.4	14.6	14.6
이동권 보장	3.1	5.5	1.2	2.1	2.4	6.7	4.6	3.7	4.0	4.1
보육교육 보장	3.2	2.8	18.0	6.7	2.3	1.3	3.7	2.8	3.1	3.0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3.4	4.6	5.4	3.8	3.8	4.0	3.8	4.1	4.0	3.9
장애인 인권보장	4.7	3.6	10.6	6.5	4.3	2.8	4.6	4.0	4.3	4.2
장애인 인식개선	4.3	3.6	6.4	5.1	4.1	3.3	4.4	3.8	4.0	4.0
장애예방	1.9	2.8	0.6	1.0	2.1	3.1	1.8	2.5	2.2	2.3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참여보장	0.8	0.5	0.7	1.1	0.5	0.6	0.6	0.6	0.6	0.7
재난안전관리	0.6	1.1	0.0	0.5	0.9	0.9	1.0	0.8	0.8	0.8
기타	0.1	0.1	0.0	0.0	0.1	0.1	0.1	0.1	0.1	0.1
없음	0.1	0.1	0.0	0.1	0.0	0.1	0.0	0.1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94,859	1,099,181	71,524	432,132	977,596	1,112,788	970,900	1,499,654	2,470,554	2,594,040

〈부표 3-10-85〉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3순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소득보장	10.5	12.2	16.2	9.4	10.9	11.9	11.8	10.8	11.2	11.2
의료보장	14.3	12.6	16.4	16.1	14.5	11.6	12.0	14.9	13.7	13.6
고용보장	13.3	11.6	11.2	14.1	14.9	10.1	12.6	12.9	12.8	12.6
주거보장	17.7	18.4	10.8	16.6	18.6	18.5	18.2	17.3	17.7	18.0
이동권 보장	4.8	8.5	1.9	3.2	3.9	10.1	6.8	6.1	6.4	6.3
보육교육 보장	3.9	3.2	16.1	6.2	3.2	2.2	4.4	3.1	3.6	3.6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7.1	8.0	6.1	6.9	7.1	8.0	6.3	8.2	7.5	7.4
장애인 인권보장	9.5	6.7	7.2	11.1	8.6	7.1	9.3	7.7	8.3	8.4
장애인 인식개선	7.3	5.8	5.5	8.9	7.5	5.2	7.6	6.2	6.8	6.7
장애예방	5.4	6.9	2.1	3.0	5.6	7.9	5.3	6.5	6.0	6.0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참여보장	1.8	1.7	4.3	2.6	1.3	1.6	2.6	1.2	1.7	1.8
재난안전관리	2.9	2.4	2.2	1.4	2.6	3.3	1.9	3.0	2.6	2.7
기타	0.4	0.2	0.0	0.1	0.2	0.6	0.2	0.4	0.3	0.3
없음	1.1	1.7	0.0	0.2	1.2	2.0	1.0	1.7	1.4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58,489	1,053,625	71,190	425,488	956,063	1,059,373	947,681	1,449,237	2,396,918	2,512,114

11. 경제상태

〈부표 3-11-1〉 주관적 소속 계층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하층	67.3	67.4	54.6	62.7	69.4	68.2	71.3	64.5	67.2	67.4
중층	31.8	31.8	43.0	36.6	29.8	30.9	27.7	34.6	31.9	31.8
상층	0.9	0.8	2.4	0.7	0.8	0.9	1.0	0.9	0.9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1-2〉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 여부 및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아니오	83.8	82.2	82.6	82.2	79.7	86.5	72.4	89.5	82.8	83.1
일반수급가구	15.5	17.4	15.7	17.1	19.4	13.4	26.4	10.3	16.6	16.3
조건부수급가구	0.6	0.4	1.2	0.8	0.9	0.0	0.9	0.2	0.5	0.5
의료·교육·자활·이행급여특례	0.1	0.1	0.5	0.0	0.1	0.1	0.2	0.0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1-3〉 지난 1개월간 가구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단위: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근로소득	131.3	109.7	232.9	188.8	139.5	74.9	121.3	126.5	124.5	122.2
사업소득	48.8	31.7	61.6	53.4	55.2	23.9	34.7	47.3	42.4	41.5
재산·금융·개인연금 소득	7.9	7.2	4.8	5.7	4.9	10.8	6.3	8.3	7.5	7.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6.5	6.7	9.9	8.6	8.5	3.9	11.7	3.6	6.8	6.6
기초연금	8.0	11.8	4.6	3.2	2.7	18.4	8.8	10.0	9.5	9.6
공적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3.6	3.8	1.0	7.0	4.2	2.2	8.5	0.8	3.9	3.7
이전 장애아동수당	0.2	0.2	4.4	0.4	0.1	0.0	0.6	0.0	0.2	0.2
소득 장애연금(국민연금)	0.8	0.5	0.1	0.9	1.2	0.2	1.0	0.5	0.7	0.7
기타사회보험급여소득	21.4	16.0	1.2	12.3	17.9	23.9	19.1	18.3	18.6	19.1
기타	0.9	0.6	1.2	0.6	0.8	0.8	0.9	0.7	0.8	0.8
사적이전소득	9.7	15.9	3.8	5.4	7.7	19.4	10.5	12.8	11.9	12.3
기타	0.8	0.2	0.6	0.7	0.9	0.3	0.5	0.7	0.6	0.6
월소득 평균금액	240.0	204.3	326.0	287.0	243.6	178.8	223.9	229.7	227.4	224.9

〈부표 3-11-4〉 지난 1개월간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단위: 만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근로소득	52.6	11.5	0.0	67.7	56.9	6.3	18.5	48.1	36.5	35.2
사업소득	32.8	5.5	0.0	23.0	36.1	9.1	9.1	29.9	21.8	21.3
재산·금융·개인연금 소득	5.5	2.4	0.0	0.4	2.7	7.2	2.8	5.0	4.1	4.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4	4.5	3.4	5.0	6.3	2.7	7.7	2.5	4.6	4.4
기초연금	4.1	8.3	0.0	0.0	0.0	13.5	4.5	6.5	5.7	5.8
공적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2.9	2.9	0.0	5.5	3.4	1.6	7.1	0.4	3.0	2.9
이전 장애아동수당	0.1	0.1	4.0	0.2	0.0	0.0	0.4	0.0	0.1	0.1
소득 장애연금(국민연금)	0.8	0.1	0.0	0.7	0.9	0.1	0.9	0.3	0.5	0.5
기타사회보험급여소득	18.7	5.1	0.0	4.1	13.4	16.8	12.0	12.7	12.5	13.0
기타	0.7	0.3	0.8	0.2	0.5	0.6	0.6	0.5	0.5	0.5
사적이전소득	5.3	11.5	0.4	2.0	4.8	13.3	6.2	8.7	7.7	7.9
기타	0.7	0.1	0.6	0.6	0.7	0.2	0.3	0.6	0.5	0.5
월소득 평균금액	128.6	52.3	9.1	109.3	125.7	71.5	70.0	115.3	97.6	96.3

〈부표 3-11-5〉 지난 1개월 평균 가구 수입액

(단위: %, 만원,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50만원 미만	4.6	8.1	0.0	2.2	5.6	8.3	5.0	6.7	6.0	6.1
50~99만원	17.6	28.3	3.3	9.0	15.7	33.8	21.1	21.9	21.6	22.1
100~149만원	15.8	14.9	8.0	11.5	14.0	18.6	17.0	14.2	15.3	15.4
150~199만원	12.8	10.1	15.9	13.9	11.7	10.5	12.6	10.9	11.6	11.7
200~249만원	11.5	8.9	11.9	13.9	12.0	7.5	10.7	10.6	10.6	10.4
250~299만원	8.3	6.8	15.3	10.4	9.6	4.6	8.3	7.1	7.6	7.7
300~349만원	8.0	6.4	13.4	11.4	8.9	4.0	7.4	7.5	7.4	7.3
350~399만원	4.6	3.1	6.2	5.7	4.8	2.5	4.0	4.1	4.1	4.0
400~499만원	7.6	4.9	9.1	8.6	8.1	4.0	6.2	7.1	6.7	6.5
500만원 이상	9.3	8.4	16.9	13.5	9.5	6.2	7.8	9.9	9.1	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40.0	204.3	326.0	287.0	243.6	178.8	223.9	229.7	227.4	224.9
전국추정수	1,525,968	1,118,352	71,813	434,861	992,535	1,145,111	984,182	1,532,023	2,516,205	2,644,320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11-6〉 지난 1개월 평균 장애인 개인 수입액

(단위: %, 만원,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50만원 미만	31.3	56.6	96.6	44.5	32.9	45.4	5.0	35.9	41.4	42.0
50~99만원	23.8	30.1	3.2	15.8	21.8	36.0	30.3	24.2	26.6	26.5
100~149만원	11.8	7.6	0.2	9.8	11.8	9.1	7.4	11.5	9.9	10.0
150~199만원	9.1	2.6	0.0	6.7	9.9	3.6	3.8	8.3	6.5	6.4
200~249만원	8.5	1.5	0.0	7.9	8.6	2.4	3.5	7.2	5.8	5.6
250~299만원	4.5	0.3	0.0	4.8	4.0	1.1	1.7	3.5	2.8	2.7
300~349만원	4.3	0.7	0.0	4.8	3.8	1.3	1.6	3.7	2.9	2.8
350~399만원	1.4	0.2	0.0	1.2	1.5	0.3	0.5	1.2	0.9	0.9
400~499만원	2.5	0.2	0.0	2.3	2.7	0.3	0.9	2.0	1.6	1.5
500만원 이상	2.8	0.1	0.0	2.0	3.0	0.5	0.5	2.5	1.7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28.6	52.3	9.1	109.3	125.7	71.5	70.0	115.3	97.6	96.3
전국추정수	1,525,970	1,119,346	71,812	434,862	992,535	1,146,107	984,937	1,532,266	2,517,203	2,645,316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11-7〉 가입한 연금 종류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국민연금	46.4	19.7	-	38.6	44.1	25.8	25.4	41.8	35.6	35.0
공무원연금	2.8	1.1	-	1.8	2.4	1.9	1.1	2.7	2.1	2.1
사립학교교원연금	0.5	0.3	-	0.3	0.3	0.5	0.3	0.5	0.4	0.4
군인연금	0.4	0.2	-	0.1	0.1	0.5	0.1	0.4	0.3	0.3
보훈연금	2.4	1.2	-	0.9	0.6	3.4	1.9	1.3	1.5	1.9
전국추정수	1,480,644	1,093,607	-	435,148	992,535	1,146,568	923,051	1,526,163	2,449,214	2,574,251
개인연금(사적)	4.3	3.0	3.0	7.2	5.9	0.6	3.1	4.5	4.0	3.8
기타	0.3	0.1	0.3	0.5	0.2	0.1	0.1	0.3	0.2	0.2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주: 중복응답 비율임

〈부표 3-11-8〉 가구내 차량소유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58.5	43.7	74.5	66.2	60.5	38.2	52.1	53.9	53.2	52.2
없다	41.5	56.3	25.5	33.8	39.5	61.8	47.9	46.1	46.8	4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1-9〉 차량 소유: 제1차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차종										
승용차	83.0	85.1	88.1	88.6	81.0	83.8	86.6	82.0	83.8	83.8
승합차	8.8	7.3	10.3	6.2	9.0	8.5	7.5	9.0	8.4	8.3
화물차	8.1	7.6	1.6	5.2	10.0	7.7	5.9	9.0	7.8	8.0
연료										
휘발유	27.1	35.3	43.0	31.6	25.0	34.1	25.1	32.3	29.6	30.0
LPG	44.1	40.5	34.2	43.2	45.2	40.5	50.4	39.4	43.6	42.9
디젤(경유)	28.8	24.2	22.8	25.2	29.8	25.4	24.4	28.3	26.8	27.2
소유현황										
장애인명의	69.2	27.8	7.1	49.8	69.3	43.3	43.5	62.2	55.0	54.5
보호자명의	14.2	42.0	50.5	26.5	15.7	30.6	22.6	23.3	23.0	24.0
공동명의	15.0	27.0	41.0	21.4	13.2	23.5	32.5	11.9	19.8	19.3
기타	1.6	3.2	1.4	2.3	1.8	2.6	1.4	2.6	2.2	2.2
표지종류										
주차가능	34.5	37.3	36.9	28.6	37.6	37.0	51.4	26.7	36.2	35.5
주차불가	39.2	25.6	27.0	40.3	37.4	27.3	25.0	41.7	35.3	34.4
표지없음	26.2	37.2	36.1	31.2	25.0	35.7	23.5	31.6	28.5	30.1
용도										
출·퇴근	52.7	49.3	50.1	62.4	54.1	40.9	45.4	55.4	51.6	51.5
통학	1.1	1.4	21.5	1.0	0.1	0.4	3.0	0.2	1.2	1.2
사업용	8.6	8.8	3.3	5.9	11.1	7.9	7.8	9.2	8.7	8.7
외출	37.5	40.5	25.1	30.7	34.5	50.9	43.8	35.1	38.5	38.6
기타	0.1	0.0	0.0	0.0	0.1	0.0	0.0	0.1	0.1	0.1
운전자										
본인	64.9	15.3	0.4	45.3	64.3	31.1	27.9	60.0	47.7	47.3
보호자	32.5	80.9	98.9	52.9	33.6	63.5	68.4	37.4	49.3	49.6
기타	2.6	3.8	0.8	1.8	2.1	5.4	3.7	2.6	3.0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892,469	488,813	53,503	288,283	600,961	438,535	512,746	826,448	1,339,194	1,381,282

〈부표 3-11-10〉 차량 소유: 제2차량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차종										
승용차	59.3	65.5	58.7	50.2	63.4	70.9	65.6	60.8	62.5	61.5
승합차	11.5	10.9	19.1	15.3	9.2	9.3	11.4	10.1	10.6	11.3
화물차	29.2	23.6	22.3	34.5	27.4	19.9	23.0	29.1	26.9	27.3
연료										
휘발유	34.0	35.8	39.3	27.7	35.2	40.3	34.4	34.7	34.6	34.7
LPG	19.0	18.8	9.3	17.1	18.2	25.9	19.4	19.3	19.3	18.9
디젤(경유)	46.9	45.4	51.4	55.3	46.6	33.8	46.2	46.0	46.1	46.4
소유현황										
장애인명의	48.1	12.8	5.2	29.2	47.6	22.6	19.3	45.0	35.6	35.7
보호자명의	38.9	69.8	65.2	53.9	42.0	59.9	60.4	43.4	49.6	49.8
공동명의	9.3	12.5	27.3	14.0	7.1	9.5	16.8	7.1	10.7	10.4
기타	3.7	4.8	2.4	2.9	3.3	7.9	3.5	4.5	4.2	4.1
표지종류										
주차가능	6.4	9.2	24.5	6.2	5.6	8.2	13.4	4.2	7.6	7.4
주차불가	18.8	17.9	3.7	13.2	25.8	10.8	9.6	24.3	18.9	18.5
표지없음	74.7	72.9	71.8	80.6	68.6	81.0	77.1	71.5	73.5	74.1
용도										
출·퇴근	45.2	60.8	41.4	47.4	52.8	52.1	46.5	53.9	51.2	50.7
통학	2.8	0.0	16.3	1.3	1.0	0.0	2.7	1.3	1.8	1.8
사업용	26.3	22.8	29.7	26.4	24.9	22.7	22.8	25.3	24.4	25.1
외출	25.7	16.4	12.6	24.9	21.3	25.2	28.0	19.4	22.5	22.4
기타	-	-	-	-	-	-	-	-	-	-
운전자										
본인	32.4	3.2	0.0	20.5	28.5	14.6	13.9	26.8	22.1	22.1
보호자	59.8	89.8	99.0	76.9	61.6	76.0	80.3	64.4	70.2	70.3
기타	7.8	6.9	1.0	2.6	9.9	9.4	5.8	8.8	7.7	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00,562	54,556	9,494	36,650	78,124	30,850	55,553	96,376	151,929	155,118

〈부표 3-11-11〉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단위: %, 만원,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50만원 미만	2.8	6.7	0.0	1.5	2.5	7.6	3.8	4.8	4.4	4.5
50~99만원	18.6	29.0	2.9	8.2	17.0	35.1	21.1	23.6	22.6	23.0
100~149만원	21.2	19.4	9.6	17.7	20.2	22.4	21.4	19.8	20.4	20.5
150~199만원	17.6	14.7	15.3	19.1	18.6	13.4	16.5	16.2	16.3	16.3
200~249만원	16.0	12.9	21.4	21.0	18.3	8.7	14.9	14.9	14.9	14.7
250~299만원	6.4	4.4	13.0	10.0	6.2	3.0	6.3	5.2	5.6	5.6
300~349만원	8.5	6.5	17.4	11.5	9.2	4.1	8.5	7.4	7.8	7.6
350~399만원	2.5	1.2	4.0	2.9	2.3	1.2	1.7	2.1	2.0	2.0
400~499만원	3.8	3.1	8.5	4.3	3.8	2.7	3.8	3.5	3.6	3.5
500만원 이상	2.5	2.0	8.0	3.8	1.9	1.8	2.2	2.5	2.4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금액	176.6	149.0	257.9	205.7	177.3	132.9	168.7	164.6	166.2	164.9
전국추정수	1,524,580	1,118,327	71,814	434,723	991,600	1,144,770	983,740	1,531,053	2,514,793	2,642,907

주: 무응답 제외

〈부표 3-11-12〉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71.1	81.1	85.9	70.0	70.0	81.3	81.6	70.2	74.6	75.3
없다	28.9	18.9	14.1	30.0	30.0	18.7	18.4	29.8	25.4	2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부표 3-11-13〉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월평균 총 추가비용	177.1	148.9	428.6	167.3	165.3	144.9	215.9	120.5	161.3	164.2
교통비	27.9	22.9	76.6	27.8	27.8	19.9	32.5	20.2	25.5	25.6
의료비	71.9	59.0	105.1	55.8	71.1	63.0	81.9	49.4	63.3	66.0
보육·교육비	5.5	2.5	103.8	4.3	0.7	0.0	8.7	0.5	4.0	4.1
보호·간병인	7.9	20.5	12.4	5.5	8.4	20.3	26.9	3.3	13.4	13.6
재활기관이용료	4.7	3.6	61.4	8.2	0.9	1.6	7.8	2.0	4.5	4.2
통신비	11.6	7.8	8.0	15.1	11.8	6.8	9.4	10.3	9.9	9.9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23.2	13.8	10.2	11.9	15.8	24.0	19.5	17.2	18.2	18.9
부모사후및노후대비비	19.0	14.1	33.5	32.2	24.9	4.6	19.8	15.7	17.4	16.8
기타	5.5	4.6	17.5	6.6	4.0	4.6	9.2	2.0	5.1	5.1

주: 중복응답